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제상(諸像)

- 중국편 -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 교류의 제상(諸像)-중국편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김건인(金健人) 외 9명

발행일 · 2008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2번 1803호(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공급처 · 청년정신

ISBN · 978-89-93648-03-4

비매품

해상왕 장보고 국제공동연구 논문집
7~10세기 동아시아 문물 교류의 제상(諸像)
- 중국편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 간 사

한·중·일 삼국은 인류 문명의 태동기부터 상호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바다는 인적·물적 자원과 문화의 소통로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바닷길이 활짝 열렸던 9세기 장보고 활동 시기에 동아시아 삼국은 역사상 가장 활발한 교역과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이루었고 당대 최고의 선진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당시 장보고는 신라의 발전된 조선술과 항해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한·중·일 삼국의 교역을 주도함으로써 청해진을 동아시아의 무역과 물류 허브항으로 만들었고 이를 해상 실크로드와 연결시킴으로써 동서양 교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장보고의 활약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은 물론 멀리 아랍에 까지 이르는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 금융 그리고 문화 및 종교와 조선, 항해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보고와 그가 활약했던 시대에 대한 연구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다 깊고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장보고가 활동했던 중국과 일본에 흩어진 사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또한 이들 각국의

석학들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장보고의 진면목을 새롭게 규명하고자 지난 5년 여간 총 2차에 걸쳐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석학들이 참여한 금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장보고의 독보적인 위치와 그 업적을 규명함은 물론, 21세기 공존공영을 위한 새로운 한·중·일 관계의 정립에 귀중한 사표가 될 것입니다.

금번의 국제적 연구의 성과가 널리 확산되어 한·중·일 삼국의 학문 발전과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1200년 전 장보고가 그러했던 것처럼 삼국이 협력하여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발간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상왕장보고연구회 김문경 회장님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신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 그리고 번역자 등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2월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재 철

목 차

고대 동북아 해상교류사 분기(分期)

김건인(金健人) / 절강대학 인문학원 · 9

당조 신라인구의 해외거주 공간분포와 항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9세기 산동반도와 강회연해를 중심으로

곡금량(曲金良) /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 45

당대 등주항의 해상교통과 무역

조성국(趙成國) /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 167

당대 명주의 조선업과 대외관계 연구

오건화(吳建華) / 광주대학 역사학과 · 197

중세기 천주의 선진 조선기술과 신안 원선 복원연구

진연항(陳延杭) /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 223

당송 시기의 천주와 동북아시아의 도자기무역

진려화(陳麗華) /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 247

고대 천주와 신라 · 고려의 해상교류 및 문물사적 고찰

섭은전(葉恩典) /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 295

고대 복건과 신라 · 고려의 우호 교류에 관한 역사문헌 · 문물사적 고찰

섭은전(葉恩典) 이옥곤(李玉昆) /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 361

7~10세기 초 당 · 신라 불교문화 교류설론

-입당 신라 승려활동을 중심으로

배근흥(拜根興) / 삼서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 411

당대 신라 고승과 한중 불교문화 교류

동평(董平) 진신행(秦新恒) 하송욱(何松旭) / 절강대학 철학과 · 459

고대 동북아 해상교류사 분기(分期)

김건인(金健人)
철강대학 인문학원

I. 뗏목을 띄우는 시기

한반도는 역대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에서 문화 교류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중국대륙과 한반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북부의 일부지역이다. 산둥 이남지역, 특히 강남지역에서 선박을 통해 왕래한 지역이 있지만 이는 단지 말로만 언급될 뿐 자세한 기록은 없다. 일본열도는 육지로 연결되던 지역이 수면 밑으로 잠긴 후부터 기원전 300년경에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폐쇄된 지역이었기에 대륙과 직접적인 연계는 매우 드물었고 이는 이미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¹⁾ 고고학적인 발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열도와 대륙이 서로 폐쇄된 상태였다는 인식에 더욱 많은 의문점이 발생했다. 출토된 유물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선박이 아직 발명되기 전 시기에 모든 동북아지역은 이미 해역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거의 대부분 지역의 해안가에서 물에 뜰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들이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문명 시기에 진입하기도 전에 동북아에서의 해상교류는 오히려 가까운 바다에서 항해하거나 연안지역에서 교류에 관련된 특징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몇 가지 대표적인 유물과 문화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전파되는 지역과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연관성을 가진 범칙을 발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왕효추, 대정수 주편, 『中日文化交流大係·歴史卷』, 浙江人民出版社, 1996, p.62

1. 석축의 전과과정

한반도 동북부 함경북도 청진시의 농포동(農圃洞) 유적은 패총 유적이다. 1956년 여러 종류의 도자기, 석제, 골제, 그릇 등 3,622건이 출토되었다. 흑요석을 깨트려 만든 석기 2,546건 중에서 석축이 발견되었다. 이 석축은 압력을 가하는 제작방법으로 양면을 세워 완성된 것이다. 이들의 형태는 삼각형이 모양으로 바닥에 구멍을 판 요기식(凹基式)이 대부분이었고 바닥이 평평한 형태인 평기식(平基式)도 약간 있었다. 평안남도 온천군(溫泉郡) 궁산(弓山) 유적에서 마제 석축 40여 건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의 모양은 삼각형태의 요기식, 평기식과 나뭇잎형태의 평기식이었다. 이 밖에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신암리(新岩里) 유적에서 마제 형식으로 만든 삼각형태의 요기식 석축이 발견되었다.²⁾ 이와 비슷한 유형의 석축이 현재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었다. 이 석축은 조몽 문화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미 혼슈, 큐슈, 시코쿠 등 지역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런 석축은 북해도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형태의 석축이 발견되었다. 이런 형태는 지금으로부터 6천 년의 유적이라 추정되는 러시아의 신피티노브카 유적에서 발견된 나뭇잎 모양의 석축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무르 강 하류, 캄차카, 바이칼 호수, 몽골, 중국 동북부 등 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시베리아 서부, 우랄 산맥을 지나 동쪽의 사할린, 북해도 등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북해도의 용별시천(涌別市川) 유적, 조일상여(朝日常呂) 패총, 여만별풍리(女滿別豐里) 유적, 표차정(標茶町) 유적 등 120여 곳이 넘는 유적에서 비슷한 형태의 나뭇잎 모양의 석축이 발견되었다. 이밖에 일본의 목촌영명(木村英明) 선생은 나뭇잎

2) 장광언(張宏彦), 『東亞地區史前石鏃의初步研究』, 『考古』, 1998. 3.

모양의 석촉에 대해 “지금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석기형태의 제작기술과 그들을 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모두 신피터노브카 문화와 일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³⁾

이상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결과로 볼 때 삼각형 모양의 석촉과 나뭇잎 모양의 석촉이 발견되는 지역은 서로 다르고, 이 두 형태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발전하고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삼각형 모양의 석촉이 전파되었던 지역(8천 년에서 4천 년 전)은 극동 러시아의 연해지역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의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거쳐 또다시 일본열도의 혼슈, 큐슈, 시코쿠 등의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② 나뭇잎 모양의 석촉이 전파되었던 지역(대략 8천 년 전에서 5천 년 전)은 신피터노브카에서 출발하여 아무르 강 하류, 캄차카, 바이칼 호수, 몽골, 중국 동북 지역을 거쳐 또다시 사할린과 북해도로 전파되었다.

2. 패옥과 옥장식의 전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내몽골 흥륭구(興隆溝) 유적과 일본 신석기 시대 문화 유적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귀를 장식하는 패옥과 목 부위를 장식하는 가는 옥장식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길이는 대략 2~10cm이고, 이 장식에 대해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8천 년 전의 것이라 추정되고, 일본 북해도 남부와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7천 년 전의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이 일본 지역에서 이 시기에 이전에 자주 보였던 둥근 바닥의 토기가 점점 사라지고 바닥이 평평한 토기가 출현했다. 토기 무늬의 특징 역

3) (日)목촌영명(本村英明). 『新彼得諾夫卡文化和北海道の石葉石鏃文化』, 『北方文物』, 1995. 1.

시 중국 동북 지역의 비슷한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 이로써 역사 이전 시기 중국문화의 시간을 추정해보면 7천 년 전까지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⁴⁾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열도와 중국대륙의 해상교류는 중국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한반도를 경유하여 대마도를 거쳐 일본의 혼슈, 큐슈 등 지역으로 전파된 것 외에 또한 장강 하류에서 일본 큐슈 지역을 거쳐 혼슈에 이르는 남방 해상로를 교류도 존재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해상로가 존재했었다. 이 해상로가 바로 8천 년 전에서부터 7천 년 전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러시아의 연해주를 건너 일본 북해도에 도착하고, 다시 일본 혼슈의 동북 지역에 이르는 북방 해상로이다.

3. 지식묘의 전파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는 지식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무덤의 형태로 중국 동북의 요녕, 길림, 강남의 절강, 한반도 전역, 일본의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반도에 지식묘의 수가 가장 많고, 통계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식묘는 29,510기가 있다. 그 분포된 지역은 강원도 338기, 경기도 502기, 경상북도 2,800기, 경상남도 1,238기, 전라북도 1,597기, 전라남도 19,068기, 충청북도 189기, 충청남도 478기, 제주도 140기, 북한 3,180기이다.⁵⁾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식묘는 기원전 19세기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옥석리(玉石里)의 지식묘는 지금으로부터 2590±105B.P, 황석리(黃石里) 13호 지식묘는 2360±370B.P, 김해 내동리(內洞里) 지식묘는 기원전 3~4세기, 전라

4) 『人民日報海外版』 2003年 10月 13日

5) 최몽룡(崔夢龍), 김선우(金仙宇) 편저, 『韓國支石墓研究理論與方法』, 2000. p.2

도 지역의 지석묘는 기원전 4~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⁶⁾ 한국에서 지석묘가 존재했던 기간에 관해 그중에서도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 학자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있으며 여러 주장들에서 지석묘가 출현한 시기에 대해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 김정배(金貞培) 선생은 북방식 지석묘의 제작 연대는 기원전 8세기라 주장하고⁷⁾ 최몽룡(崔夢龍) 선생은 한반도의 지석묘는 기원전 19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절강 지역의 지석묘군(支石墓群)에 대해 예전부터 중국 남방 지역에 유일하게 지석묘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즉 이 지역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서안(瑞安)시 대석산(岱石山)의 36기, 양매산(楊梅山)의 1기, 평양현(平陽縣) 형산(荊山)의 2기, 창남현(蒼南縣) 동교(桐橋)의 7기, 삼문현(三門縣) 만산도(滿山島)의 5기로 모두 51기이다.⁸⁾ 고고학의 발굴결과에 따르면 절강 지역 지석묘의 존재했던 연대는 서주(西周) 초기에서 시작하여 춘추(春秋) 말기까지 대략 6, 7백 년 동안이라고 추정된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중국 동북 지역의 지석묘가 한반도 지석묘의 영향을 받았고, 절강 지역 지석묘는 중국 동북 지역 지석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되었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 선박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이기에 사람들은 육로를 통해서만 교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북방식 지석묘는 주로 한반도 한강 이북 지역에 분포했던 지석묘와 중국 요녕에서 발견된 지석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남방식 지석묘에 대해서는 주로 한반도 한강 이남 지역에 분포했던 지석묘와 중국 산둥에서 발견된 지석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⁹⁾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방에서 북방으로, 그리고 남방에서 남방으로 교류 진행되었다. 즉 북방에서의 교류는

6) 최몽룡, 김선우 편저, 『韓國支石墓研究理論與方法』, 2000. pp.122~123

7) 김정배(金貞培), 『韓國民主의文化和起源』, 上海文藝出版社, 1993. p.155

8) 진원보(陳元甫), 『浙江石棚墓研究』, 『東南文化』, 2003. 11.

9) 엄소탕(嚴紹璽), 유발(劉勃), 『中國與東北亞文化交流志』, 上海人民出版社, 1999. p.19

육로로 전해졌고, 남방에서의 교류는 해상을 통해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강 지역의 지식묘가 동북 지역의 지식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즉 한반도에서 육로를 통해 전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확실하게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절강 지역의 지식묘와 동북 지역의 지식묘를 형태구조, 제작방식, 묘 밑의 형식, 그리고 출토된 유물 등을 다각도로 비교 연구한 후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서안의 지식묘를 요동의 지식묘와 비교하면서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지역 지식묘의 윗부분 형태는 오히려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즉 절강 지역의 지식묘는 동북 지역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절강 지역의 지식묘와 한반도 남부의 지식묘, 일본의 지식묘와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유물의 종류에서 절강 지역의 지식묘는 한국 지식묘에서 출토된 생활용품 종류, 생산공구 종류, 무기류 등 여러 방면에서 일치하고 두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장례 풍속이 있음을 볼 수 있다. …… 특별하게 절강 지역의 지식묘와 한국 지식묘에 대해 비록 현재적인 관점이지만 한국의 지식묘, 그중에서도 한국 서남 지역의 지식묘와 절강 지역의 지식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두 지식묘에서 발견된 많은 공동 요소로 볼 때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¹⁰⁾

현재 발견된 주요 지역의 지식묘를 시간적으로 순서를 보면

- ① 한반도 북부의 지식묘(3900년 전에서 2100년 전까지)
- ② 중국 강남 절강 지역(3000년 전에서 2500년 전까지)
- ③ 중국 동북 요녕과 길림 지역(3000년 전에서 2300년 전까지)
- ④ 한반도 남부의 지식묘(2400년 전에서 1800년 전까지)

10) 진원보, 『浙江石棚墓研究』, 『東南文化』, 2003. 11.

⑤ 일본 큐슈와 북 큐슈의 지식묘(24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이와 같이 볼 때, 지식묘가 전해진 지역에 대해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증가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즉 중국 동북 지역의 지식묘와 한국 북부의 지식묘 사이에 육로로 전해진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절강 지역의 지식묘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국 남부의 지식묘와 매우 비슷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지역 사이에 수로를 통해 전해졌다고 추측한다. 일본의 지식묘에 대해서 대륙에서 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식묘가 전해진 경로에 대해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직접 전해졌다는 주장과 한반도를 거쳐 전해졌다는 주장이 있어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가 없다.

4. 도작(稻作)의 전파

고고학 발굴이 계속되면서 한반도에서 도작(稻作, 쌀농사)과 관련된 유적이 계속 발견되었다. 한국의 이춘영(李春寧)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1970년 이래 한반도에서 발견된 도작의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은 15곳이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견된 쌀의 꽃가루를 제외하고 다른 유적에서는 탄화된 쌀과 쌀이 눌러있는 흔적만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혼암리(欣岩里), 송국리(松菊里), 그리고 평양시 호남리(湖南里)의 남경(南京) 유적이다. 혼암리에서 출토된 81알의 탄화된 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670~3260년 전이라 추정된다. 이 유적은 해수면보다 80~100m가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했기에 논에서의 도작은 아니다. 남경 유적에서 출토된 250알의 탄화된 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50년 전이라 추정되는데 조,

기장, 수수 등 밭농사 작물과 같이 출토되었다.¹¹⁾ 송국리 유적의 연대는 다른 유적에 비해 빠른 유적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2670~2175년 전이라 추정되는데 54호 거주유적지에서 395그램의 탄화된 쌀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는 밭작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 충청남도 부여군(扶余郡) 초촌면(草村面)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방 터에서 탄화미의 발견이다. 이는 청동 시대에 이미 곡식을 재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¹²⁾ 일본의 도작 유적 중에서 시기가 비교적 빠른 지역은 후쿠오카현의 판부(板付) 유적과 석기곡전(石崎曲田) 유적, 사가(佐賀)현의 채전(菜畑) 유적과 유전(有田) 유적 등으로 이 유적들에서 모두 조몽 문화 말기의 도작 유적에 속한다. 그중에서 판부 유적과 채전 유적에서는 조몽 문화 말기에 있었던 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후쿠오카현 판부 유적은 비록 야요이(彌生) 시대의 유적으로 인해 이름이 생겼지만, 그러나 현재 조몽 문화 말기의 야구식(夜舊式) 토기를 사용하던 단계에서 논농사가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최하층에서 발견된 야구식 토기에서 탄화된 쌀, 석포정(石庖丁)과 논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가현 채전 유적에서 조몽 문화 말기의 산별사(山ノ寺)식 토기 시대로부터 야요이 중기의 논 유적까지 층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¹³⁾ 탄소연대측정에 따르면 채전 유적에서 출토된 쌀은 기원전 1280±100년 정도로 추정된다.¹⁴⁾ 그렇다면 현재로부터 3000년 전에 일본열도에서는 이미 도

11) 이춘영(李春寧), 『稻作的文化和韓日關係』, 『韓國古代文化的連聯』, (재단법인) 한일문화문화교류기금 편저, 1994, pp.10~11(참조) 그러나 (韓)심봉근(沈奉謹) 선생이 주장하는 연대와는 다르다. 『韓國的稻作農耕』, 『농업고고(農業考古)』, 1994, pp.107~108(참조)

12) 『高麗亞那』(中文版), 1997年 春季號, p.33

13) (日)『日本の歴史』, 朝日新聞社, 1989, p.236

14) (日)중촌순(中村純), 『C14年代測定の追加資料に就て』, 『菜畑』, 1982. 참조

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중, 일의 대부분 학자들은 모두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도작의 시작은 중국 도작문화가 동쪽으로 전해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 그 전파방식과 경로는 어떠한가?

① 북방설(북방에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먼저 발표되었고, 또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 주장의 기원은 스웨덴 학자 안데르손(Andersson, Johan Gunnar)이 1920년대에 하남성 양소(仰韶) 문화의 유적에서 벼의 흔적이 있는 자기의 조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화북(華北) 지역에서 이미 기원전 3천 년 전에 도작문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도작은 화북에서 동북으로, 그리고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1988년 북경대학 엄문명(嚴文明) 교수는 이 경로를 수정하여 기존의 주장과 다른 경로를 주장했다. 그는 도작 경로의 시작은 화북 지역이 아니라 화남(華南) 지역과 장강 중하류 지역이고 육로로 강소(江蘇)에서 산둥으로 거쳐 발해를 건너 요동반도에 도달한 후 다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 큐슈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¹⁵⁾

북방설은 사람들이 고대 시기에 바다를 건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과 부합된다. 그러나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증명해줄 고고학적인 발굴결과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엄문명 교수가 주장한 수정된 경로는 화북과 동북을 피해 강소에서 산둥을 거쳐 요동반도와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북방설’에서 반드시 동북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당시 이 지역은 위도가 높아 논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 존재하던 의문점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즉 이 의문점은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로 향하면서 바다를 건널 때의 문제이다. 이 점은 ‘중로설’에서도 같은 문제, 즉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널 능력이 있

15) 채봉서(蔡鳳書), 『中日交流의考古研究』, 齊魯書社, 1999. pp.73~74

는나는 점이다.

② 증로설은 도작문화가 장강 하류에서 직접 바다를 건너 일본에 전해졌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본학자 안등광태랑(安藤廣太郎) 선생이 1950년대에 처음 주장했다. 후에 그는 ‘강남전입설(江南傳入說, 강남 지역에서 전해졌다는 주장)’이라는 관점을 보다 더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는 “강남 지역에서 전해졌다는 주장은 비록 관련된 증거를 보일 수 없지만, 본인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이 경로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첫째는 중국 장강 연안 일대에 먼저 거주하던 사람들은 묘족(苗族)이었다. 묘족은 예로부터 쌀과 곡식을 재배했고 화전과 김매기로 생선과 곡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에서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과도 비슷했다. 또한 일본쌀의 모양은 중국 강남 지역 쌀의 모양과 비슷했다. 둘째로 쌀의 발음에 관해 중국 춘추 시기 오나라에서는 ‘누안(緩, nuan)’이라고 불렀다.¹⁶⁾ 이것은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 쌀의 발음과 비슷하다. 이들 지역에서 모두 ‘n’ 발음이 있다. 셋째로 강남 지역은 중국대륙에서 일본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해류를 이용하면 쉽게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¹⁷⁾ 이런 주장은 후에 중국과 일본의 학자 등에게 끊임없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안지민(安志敏) 선생은 “장강 중 하류 쌀농사의 기원과 발달을 중심으로 해로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직접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더욱이 주산군도(舟山群島)에서 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토기가 발견되었고 쌀농사가 동쪽으로 중계하는 지역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¹⁸⁾ 한국의 김정배 선생은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지역에는 쌀에 관한 기록이 없고 오곡의 이름만이 전해져 온다. 반대로

16) 『穀梁傳』寬公五年條下：“仲孫蔑衛孫父會吳於善稻 吳語謂善伊 謂稻緩”

17) (日)유전국남(柳田國男), 안등광태랑(安藤廣太郎), 성영준태랑(盛永俊太郎) 등, 『稻の日本史』上, 筑摩書房, 1969. pp.271~272

18) 안지민(安志敏), 『中國稻作文化的起源和東傳』, 『文物』, 1999. 2.

삼한 지역에는 ‘오곡과 쌀’이라는 기록이 있어 쌀농사는 한국의 남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래서 한국에서 쌀의 기원은 남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¹⁹⁾ 일본의 통구용강(樋口隆康) 선생은 쌀이 중국 장강 하류에서 북쪽의 산둥 남부와 강소 북부 지역으로 전해졌고, 기원전 600년경에 바다를 건너 일본 큐슈 지역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한다.²⁰⁾

③ 남방설은 일본학자 유전국남(柳田國男) 선생이 주장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작문화는 중국대륙에서 연해의 섬을 따라 대만과 류큐에 전해졌고, 또다시 오키나와를 거쳐 큐슈로 전해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근거는 중국대륙의 고대인들은 가족과 쌀을 가지고 넓은 바다를 건너기도 했다. 즉 이들은 바다를 건너는 과정 중에 반드시 매력적인 지방을 찾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동 목적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중원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실에 꿰인 보물을 근거로 삼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조개류의 보물은 황하유역에서 없는 것이다. 고대 문헌 중에 중국인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인도양을 건넜다는 기록이 있지만 가까운 바다의 섬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자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는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개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은 오키나와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지나해에 도달했지만 보물을 찾지 못했다. 우연하게 오키나와에 도착하여 거주하기 했다고 한다. 이 남로설은 추측이 너무 많아 일본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안등광태랑 선생은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쌀’의 발음은 완전히 달라 “섬에서 섬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부충세(渡部忠世) 선생은 팔중산(八重山)의 모든 섬에서 발견된 긴 모양의 적미

19) 김정배, 『韓國民主的文化和起源』, 上海文藝出版社, 1993. p.80

20) (日)통구용강(樋口隆康), 『日本人はどこから来たか』, 講談新書, 1971.

(赤米)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부, 해남도 등의 지역에 발견되는 품종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등양일랑(佐藤洋一郎) 선생은 일본쌀의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유전학적으로 일본쌀의 기원은 남아시아 섬에서 필리핀, 류큐의 섬을 거쳐 오키나와를 통해 큐슈 남부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한다.²¹⁾

이로써 얻은 결론은 오랫동안 많이 인정받았던 ‘북로설’은 오히려 가능성이 가장 적고, 바다를 건너 전해진 ‘중로설’이 점점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고(遠古) 시기 해상교류의 거리와 범위를 살펴보면 현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유물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하면 그들이 해상으로 전파된 경로를 구분할 수 있고, 그중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역사 시기 이전에 동북아 해상교류에 대해 모든 해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길으로 들어나는 것 중의 일부만 연구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쪽과 북쪽에서 2개의 거대한 교류범위를 볼 수 있다. 즉 ① 아시아 동북부 해안을 따라 한반도 동해안을 거쳐 쓰시마 해협을 건너 일본열도의 시코쿠와 혼슈에 도달하거나 곧장 북해도에 도달하는 경로, 즉 동해와 타타르 해협이 둘러싸는 지역에서 북부 교류권이 형성되었다. ② 아시아 동남부 해안에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거쳐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여 일본의 큐슈와 류큐 제도에 도달하는 경로, 즉 황해와 동지나해를 둘러싸는 지역에서 남부 교류권이 형성되었다.

둘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원전 1000년 전후의 시기는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된다. 그 이전 시기에 동북아 해상교류의 중심

21) (日)스즈키고오메이(佐佐木高明), 『日本文化の多重構造』, 小學館, 1997. pp.167~168

지역은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의 동해 연안,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동북부와 북해도, 즉 북부 교류권이였다. 이후 시기에는 동북아 해상교류의 중심지가 이동하여 중국 동남부 연해와 산둥, 특히 장강 하류의 절강 일대와 한반도의 서해안, 일본의 큐슈 지역, 즉 남부 교류권이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셋째, 만약 기원전 1000년 전의 해상교류, 즉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유물과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연안의 동해 지역에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기원전 1000년 이후, 즉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 동남연해지구 사이의 관계는 점차 증가하는 고고학적인 발굴성과가 이를 증명할 수 있고, 더구나 동해 연안지역의 교류를 비교하면 황해를 둘러싼 지역의 교류가 심도 있는 연구와 광범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II. 근해에서 항해하면서 원양으로 나가던 시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동아시아에서 해상교류는 어떠했고, 어떤 모습인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선박이 출현하기 전에 사람들은 단지 나무를 파서 만든 독주목(獨木舟) 혹은 뗏목을 이용했다. 독주목은 배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쉬웠지만, 파도를 만나면 항해를 하기 어려웠고 멀리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약간 큰 대나무 뗏목과 나무 뗏목은 거리가 멀어도 항해할 수 있으나 방향을 전환하기가 어려웠다.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에서 1996년과 1997년에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실험이 2차례 있었다. 대나무 뗏목에 방향타를 달았지만 주로 바람과 해류를 이용했고, 인위적인 조작은 가급적이면 적게 했다. 1996년 대나무 뗏목을 이용하여 표류하는 실험에서 원래의 목적지는 한국 인천이었지만 바람의 영향 때문에 산둥반도에 도착하게 되었다.²²⁾ 이는 선박이 만들어지기 전에 ‘뗏목으로 표류하던 시기’를 재연한 것이다. 해상교류에서 전과되는 형태는 첫째, 표류하게 되는 경우. 둘째, 목적했던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셋째, 반복될 수 없는 경우. 넷째, 우연적인 경우 등이다. 예를 들면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바람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거나 해류의 흐름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우연히 방향을 조정할 수 없게 되어 홀로 표류하는 방식은 동북아에서 바다를 건너 문화가 전과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생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아직 바다를 건널 능력이 없지만 모든 동북아지역 모든 해역에서 문화가 전과되는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화전 농업, 석기, 토기제작, 풍속 등에서 종종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뿐만이 아니다. 동시에 이런 표류방식이 당시의 동북아지역의 문화전파에 모든 해역에서 존재한다는 특징 외에도 확률적인 분포와 자연현상에 의한 선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문화전파는 고대 사람의 바다를 건너는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여 동아시아 모든 해역에서 출현했다. 북쪽으로는 화북, 동북과 한반도, 동쪽으로는 일본열도, 류큐 군도와 대만, 서쪽으로는 중국대륙 연해, 남쪽으로는 동남아 등 모두 선박의 능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바다를 건너 문화가 전과됐다. 일본 동북 지역 산형현(山形縣)의 조몽 문화 말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중국 황하유역 상대(商

22) 김건인, 『中韓千古第一漂』, 『當代韓國』, 1997. 3.

代) 말기의 유적에서 발견된 특별한 형태인 청동 칼과 같은 형태이다. 청삼현(靑森縣) 진경군(津輕郡)의 유적에서 ‘솔 모양의 조몽 토기’가 발견되었다. 솔은 황하유역 신석기 시대에 출현하기 시작한 특징 있는 토기 형태였다. 조몽 문화 후기의 ‘증전식토기(曾田式土器)’와 말기의 ‘어령식토기(御領式土器)’에서 ‘흑색연마토기(黑色研磨)’는 분명히 산동 악석(岳石)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²³⁾ 옷나무와 옷 공예, 그리고 누룩곰팡이를 배양하여 발효식품을 제작한 기술은 조몽 시대에 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다.²⁴⁾ 일본어의 언어를 구성하는 성분에 분명한 중국 북방 만주어, 남방 오일어가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고대언어의 성분이 조금 남아 있다.²⁵⁾

한반도는 이와 같은 유적들이 더 많은 편이다. 평안남도의 궁산(弓山) 유적, 대동군(大同郡) 임동면(林原面)의 청호리(淸湖里) 유적, 황해북도 봉상군(鳳山郡)의 지탑리(智塔里) 유적, 황해남도 해주군의 남산(南山) 유적, 서울시 암사동(岩寺洞) 유적, 경기도 양주군의 동묘(東墓) 유적, 경상남도 경주시(慶州市) 동삼동(東三洞) 유적 중 두 번째 문화층, 강원도의 춘천군(春川郡) 교동(校洞) 유적,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農圃) 유적, 무산군(茂山郡)의 호곡동(虎谷洞) 유적 등 여러 유적에서 구멍 없는 반월형 석도(石刀), 구멍 있는 반월형 석도, 돌로 만든 낫, 삼각형태의 석도, 규형편평도(圭形扁平刀), 석도인(石刀刃), 석인도(石刃刀) 등이 발견되었다. 이들 모두는 중국 화북과 동북 지역 등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하다. 이 석도 중에서 청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장방형(長方形) 석도는 시기가 가장 오래됐고, 중국 ‘양소 문화’ 후기 유물 중에서 발견된 장방형 석도와 거의 비슷하다. 평안북도의 남강(南岡) 유적에서 출토된 귀가 두 개 달린

23) 채봉서, 『中日交流的考古研究』, 齊魯書社, 1999. pp.51~57

24) (日) 스즈키고오메이, 『日本文化の多重構造』, 小學館, 1997. p.320

25) (日)촌산칠랑(村山七郎), 『日本語・琉球語におけるオーストロネシア語要素』, 『稻・舟・祭』, 六興出版社, 1982. p.46

쌍이관(雙耳罐)은 중국 신점(辛店)문화의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 각지에서 출토된 ‘두(豆)’형 토기 중에 어떤 것은 ‘양소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어떤 유물은 그 형태에서 차이가 분명하다.²⁶⁾

확률이 분포한다는 특징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고르게 분포되고, 다른 조건에서는 확률의 변화와 중복된 횟수의 숫자로 비교한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간 맺어진 관계의 중복된 횟수는 또 거리의 멀고 가까움과 해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는 곧 어떤 공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3, 4천 년 전의 동북아 해상교류는 아시아 대륙에서 한반도를 따라 동남방향으로 쓰시마 해협에 도달하고 2개의 교류구역으로 나뉘는 원인이 된다. 북쪽으로 향하는 일본열도의 시코쿠와 혼슈를 거쳐 북해도로 도달하는 경로는 시베리아 연안을 포함하여 동해와 타타르 해협을 둘러싸여 형성된 구역은 거리상으로 인접하여 당연히 전파될 확률이 높았다. 남쪽으로 황해를 둘러싼 한반도 서해안, 일본의 큐슈, 류큐 군도 그리고 동지나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중국 산둥, 절강 일대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전파될 확률이 높은 구역이 형성됐다. 구석기 시대에 일본의 모든 섬에서의 세석기(細石器)는 모두 대륙 세석기의 영향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중국 동북 지역의 이남에서는 황층형조각도류(荒屋形雕刻刀類)의 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열도 서남단의 큐슈 같은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 일본 지역에서 세석기가 분포되었지만 동부와 아시아 대륙의 북부, 서부는 아시아 대륙의 남부와 서로 대응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조몽 시대 후기와 말기에 일본 동부의 농작물 품종과 관련된 풍습이 중국 북방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 서부의 농작물 품종과 관련된 풍습은 중국 남방과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스즈끼고오메이(佐佐木高明) 선생은 이를 ‘낙엽립형 농경문화’와 ‘조엽립을 태우는 화전 농경문화’로 구

26) 『中朝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pp.7~8

별되어 일본 동부는 보리, 귀리, 북방의 채소류 작물을 재배하는 특징이 있는 농경문화로 시베리아 남부, 몽골, 중국 동북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일본 서부는 토란과 마늘 주로 재배하여 중국 남방의 산악지대와 동남아 섬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²⁷⁾ 한반도는 재배되는 농작물의 종류가 남부와 북부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확실적인 분포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자연환경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자연조건과 사람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농작물 또한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요녕(遼寧) 본계(本溪)의 묘후산(墓後山) 유적은 한국 경기도의 전곡리(全谷里)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제작 기법이 같은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중기의 석관묘(石棺墓)는 한반도와 동북 지역에서 구조와 건축방식이 일치하는 형태가 많이 발견되었다. 여러 차례의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중국의 산둥, 요녕 일대와 한반도는 고대 시기에 문화적으로 같은 문화권을 증명할 수 있다.²⁸⁾

기원전 2000년 전쯤에 출현한 중국 청동기는 시대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청동기는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국사회의 구조와 형태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금속으로 된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목관을 가공하여 선박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항해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증한 결과, 중국에서 목조 범선이 발생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상대 갑골문에서 ‘주(舟)’ 자의 모양의 문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당시에 목조 범선이 이미 여러 형태가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바닥이 평평한 평저(平底)형, 앞부분이 돌출된 방두(方頭)형, 뒷부분에 모양이 있는 방

27) (日) 스즈키고오메이, 『日本文化の多重構造』, 小學館, 1997. pp.274~275

28) 엄소탕·유발, 『中國與東北亞文化交流志』, 上海人民出版社, 1999. p.21

미(方尾)형, 앞뒤에 뿔을 날개처럼 장식한 형태가 있었다. 선박의 전후 부분에 나무를 깎아 지탱하게 함으로써 선체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또 선박 안에서 앉을 수도 있었다.

당시 제작한 선박의 크기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관련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전국(戰國) 시기 진나라의 장의가 초왕에게 말하길 “秦西有巴蜀 大船積粟 起於汶山 浮江已下 至楚三千余里. 舫船載卒 一舫載五十人與三月之食 下水而浮 一日行三百余里 里數雖多 然而不費牛馬之力 不至十日而距扞矣.”²⁹⁾ 라고 하였다. 1974년 광둥 광주에서 고대 선박을 제작했던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진대(秦代) 관부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판명되었다. 공장 내부에는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장소가 3곳이 발견되었다. 이 제작 장소는 임의적으로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었고 각각의 장소에서 작은 선박을 제작했고, 또한 이 세 곳을 연결하여 대선을 제작할 수 있었다. 제작된 대선은 길이가 20m, 폭이 8m, 무게는 30톤이었다.³⁰⁾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도작문화는 지금으로부터 3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중국에서 서주 시기 초기이다. 전국 시기 혹은 진대는 서주 초기와 대략 500~7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 전국 시기에 두 척의 선박을 연결하여 50인을 승선시킬 수 있었고 진대에는 단독으로 제작한 선박은 10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추측해보면 서주 초기에 가장 큰 선박은 크기는 5톤을 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사람들은 천문에 관한 지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항로를 조정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침반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항해 수준은 강이나 가까운 섬들을 항해할 뿐이었다. 그래서 선박이 출현한 초기에 중국 동남연해에서 한반도나 일본열

29) 『史記·張儀列傳』과 『說文』에서 “舫, 并船也.”

30) 진홍이(陳鴻彝), 『中國交通史話』, 中華書局, 1992. p.66

도에 도달하게 된 것은 우연하게도 방향을 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류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모든 해역에서 발생한 것도 자의적이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계절풍과 해류의 흐름이 선박의 항해 시에 방향을 결정한다. 절강대학 한국연구소에 1996년과 199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대나무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실험을 했다. 두 차례의 표류 경로는 태풍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송대 서궁(徐夬)이 사절로 고려로 가는 경로를 기본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이 경로가 고대 시기에 계절풍과 해류를 이용하여 중국 강남에서 한국으로 자연적인 표류 경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한 것이다. 해류는 주산(舟山)의 외해(外海) 부근에서 경계가 나뉜다. 만약 계속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일본열도로 향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 남부, 일본열도 서부와 장강 하류 지역이 부채꼴 형태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장강 하류에서 표류하여 한반도 남부 혹은 일본 큐슈 등 지역으로 가는 기회는 기본적으로 균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 지역에서 형성된 도작문화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³¹⁾

이렇게 선박의 표류와 독주목, 뗏목의 표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게 두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집단성이다. 독주목, 나무뗏목, 대나무 뗏목에 한 사람, 혹은 두 세 사람만 승선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이 10여 명 이상이다. 둘째, 도작문화가 동쪽으로 전해진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쌀의 씨앗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전해진 것이다. 선박의 방수성능은 곡식이 물에 젖는 것을 막아 상하게 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곡식의 씨앗을 식량으로 먹으려는 생각이 아직 없었

31) 김건인, 『中韓海上交往史探源』, 學苑出版社, 2001. p.152

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널어서 건조시켰다. 그러나 도작문화가 황해와 동지나해를 서로 사이에 두고 발생한 조건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쌀의 씨앗과 농업기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논을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도작은 발농사의 수확량보다 많은 수확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성공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못했다.

장광직(張光直) 선생은 “중국에서 철기의 시작은 중국의 청동 시대를 종식시켰고 대략 기원전 500년을 전후해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³²⁾ 이 시기에 사람들이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과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생각해보면 장강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50명을 승선시킬 수 있었고, 선박 한 척의 중량은 30톤 정도였다. 심하지 않은 날씨에 바다를 건너 항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거의 동시에 대규모로 도작하는 지역이 출현했다. 아울러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서 중국 절강 지역의 지석묘와 유사한 형태의 지석묘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공교로운 우연이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한반도 도작의 유적은 과거에 여겨졌던 것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유적의 분포에 근거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만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작이 전파되었다면 고고학에서 발견된 연구 성과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³³⁾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규모가 큰 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알려진 바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에 분산되었던 수많은 부족국가들은 고구려, 신라, 백제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비해서 도작농업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또한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백제는 신라에 비해 중국 도작문화를

32) 장광직(張光直), 『中國青銅時代』, 三聯書店出版社, p.12

33) 안지민, 『中國稻作文化的起源和東傳』, 『文物』, 1999. 2.

쉽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백제의 일부 지방에서는 일 년에 논농사와 밭농사가 모두 가능한 ‘수한겸작법(水旱兼作法)’이 행해진 것으로 볼 때 농업기술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백제가 건국된 시기에 논농사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다루왕(多婁王)6년(33)에 “남부의 주(州)와 군(郡)에 도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구절이 없었을 것이다.³⁴⁾ 일본열도에서 도작이 보편화된 시기는 야요이 문화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야요이 문화 시기는 기원전 3백 년에서 200년까지 대략 5, 6백 년 동안 지속되었고 중국에서는 전국(戰國) 말기에서 삼국(三國)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에서의 도작이 모든 일본의 역사문화 발전 시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큐슈 북부에서 형성된 야요이 문화는 초기에 대략 50여 년 동안 일본 서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는 도작문화가 중심인 야요이 문화가 큐슈에서 일본의 슈코쿠 지역, 시코쿠 지역, 긴키 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작문화가 전파된 시간은 5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도작문화가 북해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200여 년이나 걸렸다. 야요이 문화 중기에 청삼현 진경군 수유(垂柳) 유적과 같은 일본열도의 최북단 지역까지 논농사가 확산되었다. 일본열도에서 ‘쌀 재배의 출현’, ‘도작기술의 시작’, ‘도작문화의 형성’ 등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나 원래 도작문화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는 천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식되어 왔다.³⁵⁾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문화발전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내부에서는 그 답안을 찾을 수 없고, 아마도 중국대륙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

34) 『三國史記』百濟本紀

35) (日)스즈키고오메이, 『日本文化の多重構造』, 小學館, 1997. pp.98~99

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수상교통의 발전에 의해 선박이 출현했던 초기의 상태가 끝나고 새롭게 발전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시기에 대해 첫째, 진나라 시기에 이미 30톤의 중량을 가진 거대한 선박이 출현했다. 둘째, 육지를 방향의 기준으로 잡던 시기에서 천문지식을 통해 항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당시의 조선기술과 천문지식을 근거해 보면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근해에서의 항해에서 원양 항해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해야만 했던 시기이다. 이런 항해방식은 선박의 출현전의 시기와 선박이 출현했던 초기에 항해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다. 즉 ① 표류하던 방식에서 항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② 방향 조절이 가능해졌다. ③ 인원들이 많아져 항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④ 우연적인 상황 외에도 항해 과정에서 필연성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은 중국의 현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집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항해가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의 죠훑 시기에서 야요이 시기까지의 시대는 중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이다. 사람들은 이런 계속된 전쟁 때문에 중국을 떠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항해기술은 점차 발전하게 되어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는 중국의 일부에서는 일본, 조선, 월남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국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산해경(山海經)』에 “조선은 열양(列陽)의 동쪽에서 바다 북쪽과 산 남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열양은 연(燕)나라에 속한다.” “개국(盖國)은 연나라 남쪽과 왜(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는 연나라에 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후한(後漢) 시기 왕충(王充)의 『논형(論衡)』의 “성왕(成王) 시기에 월나라에서 자주 핑을 진상하였는데 이는 왜인들이 공물로 바친 것이다.”라는 구절의 ‘왜(倭)’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서주 초기에 이미 일본열도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論語』의 “도(道)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유(由)일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춘추 시기에 사람들은 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약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도망가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역 개념은 현재에 생각하는 지역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많은 사서에서 보이는 “왜인은 오나라 태백(太伯)의 후예다.”라는 기사에서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멸망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을 지을 수 있고 “진한(辰韓) 사람들은 일찍이 스스로 진나라의 유민이었다.”라는 기사에서 진나라의 멸망 후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 지어 말할 수 있다. 일본열도의 서부에서 도작문화가 갑자기 발전한 시기가 기원전 3백년을 전후한 시대이고 한반도에서도 역시 도작문화가 갑자기 발전한 시기이다. 즉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광범위하게 도작문화가 전개된 것은 시기적으로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비슷한 점은 이 두 지역에서 청동기와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석기문화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 이런 것으로 보아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모두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발생과 발전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의 중국에서 해상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북방향을 자신들의 목적지로 삼았지만 결국 한반도의 남부해안이나 일본열도의 서부해안에 도착하기도 했는데, 이는 약간의 우연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36) 김건인, 「日本稻作民源於中國吳越地區」, 『浙江社會科學』, 2001. 5.

1.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선박의 출현과 발전

‘선박이 표류하던 방식’과 ‘육지를 바라보며 항해하던 방식’은 모두 항해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출현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선박을 제조한 후 선박이 뗏목보다 쉽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다. 육지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방식은 해안선을 따라 육지가 보이는 근해에서 항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시대의 항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지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³⁷⁾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적인 항해 활동을 보면 선박이 출현한 초기에는 원시적인 뗏목이 이용된 시기보다 항해하는 환경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었다. 만약 항해시에 우연적인 상황이 출현하면 예를 들어 안개가 짙거나 혹은 바람이 갑자기 심하게 불거나 아니면 해류를 만나면 모두 근해를 벗어나 원양에서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를 바라보며 하는 항해가 선박이 표류되는 항해로 바뀌게 되었다. 육지를 바라보는 항해에서 천문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선박이 표류되는 항해가 출현하기도 했고, 항해기술의 발달로 인해 선박이 표류되는 항해는 사라졌다. 이런 과정에서 동북아 해상교류의 형태는 항로가 없이 표류하는 방식에서 근해를 항해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항해기술의 발달로 인해 항로가 만들어지면서 동북아 각 지역 간의 해상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연안에서의 항해는 선박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周書』에 “주나라 성왕 시기에 월나라에서 선박을 진상했다.”³⁸⁾라는 기록이 있다. 주나라 성왕은 기원전 11세기의 인물이다. “월나라에서 선박을

37) (日)무재인남(茂在寅男), 『世界航海史』, 『世界艦船』, 昭和56. 6.

38) 『御定淵鑑類函』권386

진상했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월나라가 위치한 절강 연안에서 선박을 주나라의 낙양까지 보냈다는 의미로 아마도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강소 지역의 부영(阜寧)에서 회수(淮水)를 통하였거나 산둥 지역의 소청하(小清河) 하구에서 제수(濟水)를 통해 낙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전국 시기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는 모두 해상강국이었다. 오나라의 “서승(徐承)이 수군을 통솔하여 바다를 건너 제나라를 공격했다.”³⁹⁾라는 기록과 월나라가 회계(會稽)에서 낭야(琅瑯)로 천도하고, 또 낭야에서 다시 오(吳)로 천도했다는 기록에서 모두 규모가 큰 해전과 해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진시황(秦始皇)은 여러 차례 바다에서 항해했고 그 거리도 수백 리에 달했다. 한(漢) 무제(武帝)는 원봉(元封)원년(기원전 110) 정월과 정화(征和)4년(기원전 89) 정월까지 일곱 차례나 바다에서 항해를 했다. 이로 볼 때 연안에서의 항해는 더욱 발전했고 항해의 규모도 점차 커졌으며 항해거리도 천리(千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⁴¹⁾

동북아에 대해 언급하자면 언제부터 사람들은 전 해역에서 항해가 가능한 능력이 출현했는가? 이것은 곧 발해(渤海)를 건너는 항로, 황해를 건너는 항로, 동지나해를 건너는 항로에 관한 문제이다.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발해항로이다. 이 항로는 산둥반도의 연대(烟臺) 봉래(蓬萊)와 요동반도의 여순(旅順) 노철산(老鐵山) 사이를 항해했다. 또한 발해항로의 특징은 묘도군도(墓島群島)의 섬들을 각각 항해하는 것이었다. 즉 남장산도(南長山島), 북장산동(北長山島), 묘도(墓島), 대흑산도(大黑山島), 타기도(砣磯島), 대흙도(大欽島), 남황성도(南隍城島), 북황성도(北隍城島) 등을 묘도군도라 불렀는데, 이 섬들에서 노철산까지 가장 먼 거리는 22.8해리였다. 선박의 출현

39) 『春秋正傳』 권37

40) 『春秋大事表』 권4

41) 『前漢書』 권6

으로 인해 발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한 무제 원봉2년(기원전 109), 위만(衛滿)조선은 진번(眞番)과 진국(辰國) 등에서 한나라로 조공하는 사절을 막았다. 한 무제는 섭하(涉何)를 보내어 우거왕(右渠王)에게 조공을 명했으나 조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섭하는 이 과정에서 비왕장(裨王長)을 살해했고, 우거왕은 비왕장의 복수를 하기 위해 섭하를 살해했다. 한 무제는 이 사실을 듣고 대노하여 “其秋 遣樓船將軍楊仆從齊浮渤海 兵五萬人。左將軍荀彘出遼東討右渠……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⁴²⁾라고 했다. 이 출정이 항해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최대 규모로 발해를 항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항해사(中國航海史)』에서 한 무제 말년에 두 개의 국제항로가 시작되었다. 항로는 산둥 연안에서 황해를 지나 조선과 일본에 도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항로는 광둥 번우(番禺), 서문(徐聞), 합포(合浦)에서 출발하여 남지나해를 지나 인도와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것이었다.⁴³⁾ 그중에 산둥에서 황해를 거쳐 조선과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에는 ‘연안’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황해를 직접 건넌 것이 아니고 연안을 따라 항해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수준으로 발해를 제외하고 황해와 동지나해를 항해할 때에는 단지 연안지방의 부근만을 항해한 것이다. 그러면 황해를 건너는 항해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건흥(建興)4년(316), 유연(劉淵)의 조카인 유요(劉曜)가 장안을 공격하여 황제인 사마염(司馬羗)을 포로로 잡으니 서진(西晉)이 멸망했다. 이로부터 북방은 전란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사마예(司馬睿)는 건강(建康, 지금의 남경)에서 나라를 세우니 이를 역사적으로 동진(東晉)이라 부른다. 후에 송, 제, 양, 진 등의 남조에서 중국의 정통

42) 『史記·朝鮮列傳』권115

43) 중국항해학회(中國航海學會), 『中國航海史』(古代航海史), 人民交通出版社, 1988 p.50

을 이어나갔다. 중국의 권력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조선기술과 항해 수준이 점차 높아졌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해상교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둥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의 남부에 도착하고 다시 일본에 도착하는 ‘남도(南道)’항로는 남조 송나라 시기에 출현했다. “倭人自後漢初通中國 史稱從帶方至倭國 循海水行歷朝鮮國乍南乍東渡三海歷七國凡一萬二千里然後至其國都 又言去樂浪郡境及帶方郡并一萬二千里在會稽東與儋耳相近其地去遼東甚遠而去閩浙甚邇 起初通中國也實自遼東而來故其迂回如此 至六朝及宋則多從南道浮海入貢及通互市之類”⁴⁴⁾ ‘남도’는 건강에서 출발하여 장강 하구에서 북상하여 산둥 성산각(成山角)에 도착한 후 황해를 건너 한반도 남부를 경유하여 제주해협, 대마도, 이키도(壹岐島)를 지나 최종적으로 일본에 도착한다. 이 항로는 또한 위진(魏晉) 시대 이래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가화(嘉禾)원년(232) 3월 오나라 손권(孫權)은 주하(周賀)를 요동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요동태수 공손연(公孫淵)에게 위나라를 연합하여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10월에 사신단이 돌아오던 중 산둥 성산각에서 위나라 전예(田豫)의 기습을 받았다. 진이(殄夷) 장군 전예는 성산에서 오나라 장수 주하를 공격하여 주하를 죽였다.⁴⁵⁾ 같은 해 10월 공손연은 숙서(宿舒) 등을 오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가화2년(233) 3월, 손권은 장미(張彌)에게 만 명의 수군으로 숙서를 요동으로 호송하게 했다. 공손연은 오나라를 배신하고 위나라에 항복하면서 장미를 죽여 수급은 위나라로 보내고 물자는 보내지 않았다. 이때 수행하던 진단(秦旦) 등은 고구려로 피신했고, 고구려 국왕은 진단을 오나라로 호송시켰다. 1년 후인 235년 손권은 다시 사평(謝宏)을 고구려로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구려에서는 답례로 수백 필의 말을 선물했는데, 배가 작아서 80필의 말만

44) 『문헌통고(文獻通考)』권324

45) 『三國志·魏志』권3

태워 귀국했다.⁴⁶⁾ 이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오나라의 해상활동은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방식이었으나 위나라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후 수군 만 명을 동원하여 요동의 공손연과 협력관계를 가지려 했다. 즉 대규모로 항해하여 위나라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었다. 또한 항해 시에 연안에서 거리가 있는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항해기술을 점차 높일 수 있었다. 이런 항해술의 발전은 남조 시기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여 황해를 건너는 ‘남도’항로가 개발되었다. 당대에 ‘남도’는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로가 되었다. 이 항로는 당나라, 신라, 왜국 간의 사신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상인과 승려들이 이용하기도 하여 해상교류가 더욱 발전하였다. 신라의 장보고는 어린 시절에 당나라 무령군(武寧軍)에서 관직생활을 했고, 신라에 귀국한 후에 신라 국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謁大王曰, ‘遍中國以吾人爲奴婢 愿得鎮清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清海 新羅海陸之要 今謂之莞島. 大王與保臯萬人 此後海上無鬻鄉人者.”⁴⁷⁾이다. 완도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섬으로 장보고는 이곳에서 군대를 통솔하여 인근해역을 방어했다. 이로 인해 신라인들이 약탈을 당한 후 노예가 되는 현상이 사라졌다. 또한 청해진은 한반도 남단의 항로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상선을 비롯한 여러 선박들은 장보고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 항로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등주에 도착했고, 남쪽으로는 양주와 보타(普陀)에 도착할 수 있어서 신라와 일본의 경제,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지나해를 건너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 도착하는 항로는 당대에 시작되었다.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삼국 시대 오나라 손권이 원양항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황룡(黃龍)2년(230), 손권은 “遣將軍

46) 『三國志·吳志』권2

47) 『삼국사기』권44, 列傳 4

衛溫 諸葛直將甲士萬人浮海求夷洲及亶洲。亶洲在海中。長老傳言：秦始皇帝遣方士徐福將童男童女數千人入海 求蓬萊神山及仙藥 止此洲不還。世相承 有數萬家其上。人民時有至會稽貨布 會稽東縣人海行亦有遭風流移至亶洲者。所在絕遠 卒不可得至 但得夷洲數千人還。”⁴⁸⁾라고 했다. 이 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손권의 특정한 목적, 즉 ‘원교근공(遠交近攻)’ 정책이나 신선을 찾기 위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는 대규모의 함대를 항해하도록 명했다. 이것은 손권이 ‘이주(夷洲, 지금의 대만)’와 ‘단주(亶洲, 지금의 일본)’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에 이주와 단주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일부분일 뿐 전반적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다면, 위온(衛溫)과 제갈직(諸葛直)이 황명을 거역하고 돌아온 것, 즉 손권이 이를 핑계로 그들을 사형에 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단주를 찾지 못한 사실에서 볼 때, 당시 강남 일대와 일본열도 사이에 부득이하게 표류하여 도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항로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위온이 만 명의 수군을 통솔하여 항해를 시작한 날짜로 볼 때 강남 일대와 단주 사이에는 항로가 아직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시에 출항한 시간은 음력 1월, 즉 양력으로는 2월이었다. 즉 이 시기에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장강의 하구에서 풍향과 해류를 통해 가장 순조롭게 도착하게 되는 곳은 바로 대만이다. 그러나 기록에서 위온이 대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강남 일대에서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 도착하기 위해 계절풍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넷째, 『三國志』의 저자인 진수(陳壽)는 서진 시기의 인물이다. 『三

48) 『三國志·吳志』권2

國志』의 ‘단주’와 ‘왜국’ 사이의 내용을 보면, 진수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진 시기에는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대에 이르러서도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가 없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의 기재 내용을 보면 신라 진평왕(眞平王)30년(608) “삼월에 수나라가 파견한 사신은 백제를 경유하여 왜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수나라 사신은 문림랑(文林郎) 배세청(裴世淸)이었다. 배세청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수나라 문림랑 배세청이 왜로 가는 사절로 우리나라 남부를 경유했다.”⁴⁹⁾라는 기록이 있다. 이 항로는 산동 문등현(文登縣) 막야(莫瑒) 하구에서 출발했다. “遣文林郎裴世淸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羅國 經都斯麻國 迴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 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 以爲夷洲 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 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⁵⁰⁾ 즉 이 기록에서 산동 문등현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남부의 백제를 도착한다. 그 후 제주도, 대마도, 이키도, 치하도(值嘉島)를 경유하여 큐슈의 후쿠오카에 도착하고 또 동쪽으로 야마구치현(山口縣)과 십여국(十餘國)을 거쳐 오사카(大阪)에 도착한다.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왕래과정에서 반드시 한반도를 경유해야만 했다.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에서 동지나해를 건너 직접 일본으로 도착하는 항로는 천보(天寶)연간에 시작되었다. “신라사절단의 선박이 명주(明州, 지금의 영파)와 월주(越州, 지금의 소흥)에 도착했다.”⁵¹⁾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 사신들은 해로를 이용했다면 산동 지역으로 도착해야 했지만 이 시기에는 절강 지역에 도착한 것이다.

49) 『삼국사기』 권27, 百濟本紀 5

50) 『隋書·東夷傳』 권81

51) 『新唐書』 권210

천보8~15년(749~756) 사이에 절강에 도착한 신라 사신들이 여러 번 있었다. 감진(鑑眞) 승려는 천보12년(753)에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으로 귀국했다. 그는 양주(揚州)에서 출발하여 동지나해를 건너 오키나와, 종자도(種子島), 옥구도(屋久島)에 도착했고 다시 북상하여 일본에 도착했다. 감진 승려가 이용했던 이 항로를 남도항로라 부른다.

모든 동아시아 해역에서 동남방향으로 동남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즉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 오키나와, 류큐 군도, 대만을 이으면 지중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해역에서 가장 먼 거리는 10일간 항해하면 다른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해역은 항해의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항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日本書記』 중 추고천황(推古天皇)17년(609)에 “夏四月 百濟僧道欣 惠彌爲首一十人 俗七十五人 受百濟王命出使吳國 其國有亂不得入 返國途中遇臺風漂至日本肥後國葦北津。”⁵²⁾라는 기록에서 보이듯 한반도 남부, 중국대륙, 일본열도 사이의 지리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항해기술과 항해경험이 있어도 이 시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마음대로 항해하지는 못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리적인 지식이 있었어도 풍향이나 해류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해 목적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장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동지나해를 건널 때 달라지는 풍향과 풍속, 변화하는 해류의 흐름으로 인해 항로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일본으로 항해하면서 본래의 목적지와는 다른 엄미도(奄美島)나 옥구도 같은 곳에 도착하기도 했다. 그래서 남도항로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한반도를 경유하는 항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위험도 있었다.

항해기술의 발달과 축적된 항해경험으로 사람들은 장강 하구에서

52) (日)『日本書記』권22 “豊御食炊屋姫天皇, 推古天皇”

출발하여 일본의 치하도로 향하는 항로를 만들 수 있었다. 이 항로가 중국 강남 지역과 일본을 왕래하는 가장 빠른 항로였다. 치하도는 지금의 오도열도(五島列島)를 가리키는데, 오도열도는 녹도(鹿島), 평호도(平戶島), 복강도(福江島), 구하도(久賀島) 등을 포함하는 섬들이다.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이 이 섬들에 도착하면 큐슈까지는 거의 바로 도착할 수 있었다. 당 대력(大曆)12년(777), 일본에서 건당사를 파견할 때 이 항로를 이용하여 양주에 도착했다. 이 항로에서 명주에서 치하도까지 바람과 해류가 순조로우면 3, 4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일본 인명천황(仁明天皇) 승화(承和)14년(847) “歲次丁卯 夏六月廿一日 乘唐人張支信 元靜等之船 從明州望海鎮頭而上帆得西南風 三个日夜歸着遠值嘉島那留浦.”⁵³⁾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시기에 신라 상인들도 이 항로를 자주 이용하여 왕래했다. 일본의 청화천황(清和天皇) 정관(貞觀)18년(876)에 “九日丁亥 參議大宰權帥從三位在原朝臣行平 其請二事…… 其二事 請合肥前國松浦郡庇羅值嘉兩鄉更建二郡.” 즉 “大唐新羅人來者 本朝入唐使等 莫不經歷此島. …… 此地是當國樞轄之地 宜擇令長以慎防禦. …… 望請合件二鄉 更建二郡.”⁵⁴⁾의 기록에 따르면 치하도가 동북아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이 해역의 항로가 치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치하도는 ‘향(鄉)’에서 ‘군(郡)’으로 지방행정구역까지 바뀌게 되었다.

8세기에 드디어 모든 동북아 해역에서 발해에서의 항로, 황해에서의 항로, 동지나해에서의 항로가 모두 만들어졌다. 고대 동북아에서 해상교류는 원고 시기에 사람들이 조정할 수 없었던 뗏목표류 시기에 시작되어 선박이 표류하던 시기와 어느 정도 선박을 조정할 수 있었던 근해 항해 시기를 거쳐 원양에서 항해가 가능해진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발달했다. 더욱이 원양항해가

53) (日)『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

54) (日)『日本三代實錄』권28 “清和天皇”

가능해지면서 이런 교류는 동북아 전 해역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나침반이 발명된 후 항해의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즉 이전의 항해방식은 천문에 근거하여 별자리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했으나 나침반의 등장으로 보다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어서 항로가 상대적으로 단축되어 동북아 각 지역 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결론

첫째, 역사 이전 시기에 모든 동북아 해역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중해에서의 지리환경이 뗏목을 타고 교류하던 방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두 개의 거대한 교류권이 형성되었다. 즉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 연안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거쳐 쓰시마 해협을 건너 일본열도의 시코쿠, 혼슈, 그리고 북해도까지 동해와 타타르 해협을 둘러싼 북부 교류권과 아시아 대륙의 동남부 연안에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거쳐 쓰시마 해협을 지나 큐슈와 류큐 군도까지 황해와 동지나해를 둘러싼 남부 교류권이 있다.

둘째, 청동기의 출현에 따라 사람들은 나무를 가공하여 선박을 제조했다. 기원전 1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즉 동북아 해상교류 과정에 중요한 전환점을 발생했다. 중국 동남부 연해에서 확대되어 산둥, 특히 장강 하구에 위치한 강소 지역과 절강 지역, 한반도 서해안, 일본의 큐슈 지역이 포함된 남부 교류권이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금으로부터 2500

년 전부터 한반도, 일본, 중국의 동남부 연해지역 사이의 관계는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과 발견으로 인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는 선박이 출현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륙의 하천과 근해에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해기술로 인해 먼 바다로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시기의 해상교류는 주로 근해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이 높아지면서 적재량이 큰 대선과 천문을 이용한 항해술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결국 전 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전 해역에서 교류가 진행되었다. 한 문제 원봉 2년(기원전 109)에 산둥 지역에서 발해를 건너게 되었다. 이는 최초로 대규모의 함대가 발해를 건너 항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둥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 남부를 경유하여 일본에 도착하는 황해항로는 남조 시기에 만들어졌다. 문헌기록에서 동지나해를 건너 한반도 남부 혹은 일본열도에 도착하는 항로는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의도적으로 원양으로 항해를 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나라 천보연간에 신라사절단이 바다를 건너 명주와 월주에 도착했다는 기록에서 새로운 항로가 시작되었다. 천보12년(753)에 일본의 감진 승려가 양주에서 출발하여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중자도, 옥구도를 도착했고 다시 북상하여 일본열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넷째, 역사 이전 시기에 뗏목을 타고 동북아의 전 해역을 교류했으나 선박이 출현하면서 교류하는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러나 항해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북아 전 해역에서 항해가 가능해지면서 해상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것은 고대 동북아 해상교류가 더 발전하고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조 신라 인구의 해외거주 공간분포와 항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 9세기 산둥반도와 강화연해를 중심으로 -

곡금량(曲金良)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I. 들어가기

1. 본 연구의 주제, 목적 및 필요성

세계가 근대에 접어들기 이전, 즉 서방세계가 동아시아를 침략하기 이전의 동아시아 세계는 ‘범 동아시아 문화권’¹⁾을 이루었다. 그 독특한 특색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룬 찬란한 성과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는 물론 사회, 경제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발전하며 오랜 기간 이 세계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오늘날 세계의 발전 양상이 서방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각종 ‘현대병’으로 폐단의 국면을 맞고 있는 현 시점에 동아시아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권의 역사전통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핵심권층으로 이 지역들의 형성과 발전은 주로 해상교류를 통한 해로(海路)의 연결고리로 실현되었다.

7세기 초에서 10세기 초의 시기는 중화문화의 발전역사상 가장 흥성했던 당나라 시대(618~907)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와 병립(竝立)하던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대동강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왕조(668~900)를 이룩하는 시기이다.²⁾ 이 시기에 나당(羅

1)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유가문화권’, ‘한자문화권’, ‘중국문화권’, ‘중화문화권’, ‘한문화권’, ‘범한문화권’ 등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역사와 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2004년 상해에서 거행된 ‘동아시아 한문화권과 중국관계’라는 국제학술회의 및 중국중외관계사학회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2005년 10월 출판된 石源華·胡禮忠 主編의 『東亞漢文化圈與中國關係』에 나옴.

2) 신라가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일하던 시기는 900년에 끝난다. 900년 견훤이 완산주(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901년 궁예가 송악(지금의 개성)에서 후고구

唐)의 정치, 경제, 문화와 인적 교류는 동아시아 문화권 발전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인이 되는데 이는 중국대륙과 연해지역에 대량의 신라 인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는 점이다.

7~10세기 초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의 분포와 그들의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 간 동북아 해상무역 네트워크 작용문제에 대한 학술계의 연구는 한국의 최남선, 김양기, 김문경 선생 등이 처음 시작한 이후³⁾ 수많은 가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당대의 역사면모를 복원하는 데 공헌하였다. 하지만 이 영역의 연구사(研究史)가 아직 짧고 학계의 노력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 수많은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조의 근 300년 역사 중 재당신라인의 공간 분포, 항구 네트워크 등의 역사 유적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와 발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거시적이지만 자세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역사공간에 머무르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당조의 전체 약 300년의 역사에서 나당(羅唐)의 관계 및 재당신라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역사적인 시대구분을 하였지만 각 시기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때문에 본문에서는 당조의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재당신라인의 공간 분포와 항구 네트워크, 역사 유적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고찰과 정리를 위해서는 구체

려를 건국하였는데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후삼국 시대라고 한다. 918년 궁예의 부장 왕건이 궁예에 이어 고려를 건국하는데 고려는 935년 신라를 멸망시키고 936년에는 후백제마저 멸망시켜 한반도에 통일된 '고려 시기'를 이룬다. 하지만 신라와 당조 및 당 이후 오대와의 관계는 935년까지 이어진다.

- 3) 최초로 1929년 최남선이 『괴기』5월호와 12월호에서 「신라 청해진대사 장보고」에 대해 연재하였다. 1933년 김양기는 『진단학보』제2호에서 「고대무역형태와 신라말기의 해상발전」을 발표하였다. 1960,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김문경 선생 등의 다방면의 연구로 1980년대 이후의 연구 열기를 촉발시켰다.

적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 시기 당(唐)에는 신라인이 어디에 분포하였는지와 이들 신라인들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생활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을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을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사회 구성과 활동범위와 생활권은 얼마나 컸는지, 그들 중에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는지, 그들과 당 조정, 지방 정부, 문인학사, 사회 각 분야, 각 계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당, 신라, 일본 사이의 해상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당시 거주지나 여행지에 어떠한 유적을 남겼으며, 이러한 유적은 지금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와 이러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개발해야 하는지 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데이터의 분산으로 인하여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 시기(예를 들면 특정 연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기 등)에 접근하기에는 현재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9세기라는 한 세기 전체 백 년의 역사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9세기 백 년간의 역사 시공(時空) 중 재당신라인의 상황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아래의 원인에 있다.

(1) 9세기는 당조가 성당(盛唐) 시기로부터 중·만당(中·晩唐) 시기로 접어드는 때로, 당조 문화와 국력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게 된다. 이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는 오대십국(五代十國)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로 이때까지도 여전히 대량의 신라인들이 당으로 유입되어 재당신라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다. 게다가 나당(羅唐) 간의 교류사상 수많은 정치, 문화, 경제, 무역 분야의 유명한 인물들이 출현하여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해볼 만하다. 그리고 신라 역시 이 한 세기 동안 형세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여 후삼국 시대로 들어가 결국 고려에 의해

시대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당과 신라의 정세와 상호 간의 관계 변화가 신라인의 당으로의 대량 유입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2) 당조는 8세기 중엽(765)부터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를 설치하여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와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까지 지속되었는데 765년부터 처음 이 직무를 겸직한 평로치청절도사는 바로 이정기(李正己)이다. 이정기부터 이사도(李師道)까지 이씨 집안은 산둥, 하북 그리고 강회(江淮) 지역의 절도사와 압신라발해양번사를 55년간(765~819) 겸직하였다. 점차 평로치청(平盧淄靑) 지역을 번진할거(藩鎮割據)로 만들었다가 819년에 당 정부에 의해 평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당대 신라인은 장안, 낙양 두 경성 외에 산둥반도와 강회 연안지역에 가장 널리 퍼져 있었다. 이것이 이정기 집안이 산둥, 하북과 강회 지역의 절도사와 압신라발해양번사를 겸직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까? 9세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우리는 이씨 일가가 이 지역 절도사와 압신라발해양번사를 겸직하던 시기와 당 정부가 이씨 일가를 평정할 때까지의 반세기 동안을 전후한 시기 사이에 이 지역 신라 교민들의 상황을 비교를 해볼 수 있다. 학계에서 이씨 집안이 평로치청절도사로 평로치청을 다스리던 시기와 당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미 다수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이씨 집안이 평로치청절도사 겸 압신라발해양번사를 한 것과 발해국이나 신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일부 문제는 논쟁 중에 있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비교가 논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당조와 신라 간의 교통 통로는 전통적으로 북방해상항로였다.

즉 당조 고담(賈耽)이 기록한 ‘등주(登州) 해상에서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길—산동반도, 묘도군도, 요동반도, 한반도의 근해항로’이다. 하지만 9세기에는 등주해로에 변화가 발생하여 ‘북로’의 ‘남선(南線)’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산동반도와 한반도(신라)의 황해를 가로질러 직접 항해하는 항로로 이로써 산동반도는 물론이고 초주(楚州)에서 명주(明州)에서 한반도(신라)로 직접 이르는 해상교통과 항구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또 대량의 신라인이 당의 연해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편리한 조건을 구성하게 된다.

(4) 장보고의 중요 활동과 역사적 역할은 9세기 중엽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 시대의 연구를 통해 장보고 이전과 장보고 시기 그리고 장보고 이후의 각 시기별 신라인의 당 유입과 역사적 면모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 장보고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5) 9세기 중엽은 또한 일본인 승려 엔닌(圓仁)이 당에 들어와 구법순례를 하던 시기로 그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記)』에는 재당신라인의 생활상이 대량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이 『입당구법순례기』를 기본 사료로 삼았기에 9세기 중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자세하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9세기 전반에 대한 고찰을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엔닌의 기록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엔닌 한 사람이 경험하고 본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결코 재당신라인에 대한 사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전체 재당신라인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엔닌이 남긴 기록의 기초 위에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엔닌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해야 한다.

(6) 나당(羅唐) 간의 왕래는 주로 해로를 통하였다. 이 때문에 재

당신라인은 주로 당조 연해지역의 항구를 통해 입당하였으며, 연해의 항구지역은 바로 재당신라인의 주요 분포지역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해지역의 중요 항구를 연구지역으로 삼아 이들 지역을 ‘점’과 ‘선’으로 연결하여 그 네트워크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

(1) 9세기 나당(羅唐)관계와 당 유입 신라인의 역사적 배경

이는 9세기 재당신라인의 분포와 그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이다. 이 부분에서는 9세기 당조가 성당(盛唐)에서 중·만당(中·晩唐)으로 전환하여 정치, 경제와 문화, 국력이 번성하던 시기가 지나간 후 재당신라인이 대량으로 증가하던 여러 역사·지리적 요소에 대하여 연구 고찰한다.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당의 기본 정책과 나당관계의 발전 양상, 이 시기 신라의 사회 상황 그리고 재당신라인이 대량 분포했던 당 연해지역의 정치, 경제 상황 등은 본 연구의 3대 중점 사항이다.

(2) 이정기 일가의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 시기와

이정기 일가 소멸 이후 산둥, 강희 지역 신라 교민 인구의 비교
이정기 일가는 765년 이정기가 평로치청절도사 겸 압신라발해양번사를 17년간 역임한 후로 그 아들 이납(李納)이 10년(782~792), 그의 아들 이사고(李師古)가 14년(792~806), 또 이납(李納)의 아들 이사도(李師道)가 13년(806~819), 3대 4인이 55년(765~819)간 재임하였다. 이 기간의 이정기 일가에 대한 학술계의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평로치청이라는 번진할거 지역과 동북아지역이나 나아가 신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상왕래 및 이 지역 신라 인구에 착안한

전문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정기 일가가 평로치청 지역에 번진이 할거하는 시기에 당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달하는 55년간 평로치청 지역은 일반적으로 번진할거 시기로 인식되는데, 이 기간 산둥, 하북, 강희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상황, 국내외 무역, 신라나 일본과의 교류는 어떠하였는가? 등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아울러 당조가 이씨 일가를 멸망시킨 후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신라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비교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각 시기별 재당신라인의 연해분포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인 환경과 조건 등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신라인 당 유입의 구체적 원인 및 항로와 항구 네트워크

당대 많은 신라인이 분포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떠한 원인과 사건에 기인하여 어떠한 해로와 항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오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학술계에서는 적지 않은 언급과 고찰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9세기에 등주(登州)에서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항로는 보다 발달하여 산둥반도 동부와 남부는 물론 초주, 연수, 양주 심지어 명주까지 확대된 ‘남선(南線)’이 개척되었다. 이 변화에 대한 역사적 요인, 구체적 시간과 이에 따른 항구의 변화가 재당신라인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인식이 필요하다.

(4) 재당신라인의 분포지역과 그 인구수 및 성분특징

당대 대량의 신라인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전문연구는 많지

않아서 비교적 완전한 재당신라인의 분포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더욱이 특정 역사 시기에 재당신라인의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기왕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략적으로만 산출하였다. 또 논자들의 관점과 착안점이 달라 그 결론과 인식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9세기 재당신라 인구의 총량을 알아내 9세기 초부터 9세기 말까지 재당신라인의 분포지역과 시대구분을 통하여 자세하고도 완전한 시기별 분포도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참고할 역사자료의 제한으로 실증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확보한 자료와 학술계의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바로 그 인구의 거주 점(點), 편(片), 선(線)으로부터 만들어진 분포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고 최대한 통계적인 인지를 할 것이다.

(5) 9세기 재당신라인의 활동과 그 역사적 작용 문제

재당신라인의 활동과 그 역사 작용에 대해서는 사적(史籍)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아 그간 학계에서 홀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행히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장보고의 해상세력으로 조직된 신라인 네트워크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고, 김양기, 김문경 선생 등의 발굴 노력과 광범위한 고증, 체계적인 연구로 장보고 해상세력이 일찍부터 역사의 수면위로 떠올라 사학계의 조명을 받으며 근 십수 년 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주요자료로 삼았는데 이것은 사료는 되지만 재당신라인이 발휘한 역사적 작용의 전체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역사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으로 인지하려면 더 많은 당시의 관련 문헌을 발굴하

고 고찰해야 한다. 본 논문이 아직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의 기초 위에 이상의 연구내용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식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Ⅱ. 9세기 당조(唐朝) : 신라인의 입당 배경

9세기 당은 8세기 중엽 안사의 난을 거치며 이전의 성당 시기를 지나 중·만당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당 제국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강국으로서의 번영기는 이미 지났으며, 9세기 백 년 중 앞의 20년은 변진할거의 시기로 여기저기에서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은 819년 최종적으로 제압되고서야 비로서 중앙 정부의 실제적인 권력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소위 원화중흥(元和中興)이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변진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혼란은 다시 9세기 말까지 이어졌으며, 당은 점차 국운을 다 하여 오대십국을 거쳐 송조(宋朝)로 향해 갔다.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9세기의 당조가 7·8세기의 초당(初唐)과 성당(盛唐)에 비하여 주변국가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흡인력, 구심력 등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중당(中唐)과 만당(晩唐)의 상황에 대한 기존 사가(史家)의 저술은 이미 넘쳐나므로 여기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9세기 신라인의 당 유입과 관련된 몇 가지 시대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재당신라인의 배경과 형성원인에 대해 전면적인 인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9세기 당조의 인구와 유동(流動)

당 개원·천보(開元·天寶)연간에 당의 가구수는 9백여만이 되었다. 덕종(德宗) 건중(建中)원년(780)에 이르러 인구가 줄어들자 “천하에 가구가 13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덕종이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를 하여 3백만을 얻었지만 천보 시기에 비하면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았다.⁴⁾

당 덕종 건중원년(780)에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함에 앞서 전국에 1차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전(通典)』권40 『직관전(職官典)』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상의 지극한 어명으로 신하들에게 명하여 지역에 따라 거두어들이니 土戶(토호)와 객호(客戶)는 모두 약 3백여만으로 계산되었는데, 그중 정해진 거주 지역이 없는 자가 5분의 2였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의 감소가 이와 같다.” 왕응린(王應麟)은 『옥해(玉海)』권20 『지리·호구(地理·戶口)』에서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을 인용하여 “건중 초에 주호가 1백80만이었고 객호는 1백30만이였다.”라고 하였다.⁵⁾

헌종(憲宗) 원화(元和)2년(807)에 이르러 『원화국계부(元和國計簿)』에 의하면 천하에 방진(方鎮)이 48, 주부(州府)가 290, 현(縣)이 1,453, 호(戶)가 2,473,963개(『통고(通考)』에 호수가 기록되어 있음)가 있었다. 방진 중 조정 직속의 변경팔진(邊境八鎮)은 봉상(鳳翔), 부방(鄜坊), 빈녕(邠寧), 진무(振武), 경원(涇原), 은하(銀夏), 영염(靈鹽), 하동(河東)이다. 번진할거 칠진은 역정(易定), 위박(魏博), 진기(鎮冀), 범양(范陽), 창경(滄景), 회서(淮西) 치청(淄青)으로 모두 15

4) 『구당서(舊唐書)』권11 『본기덕종기(本紀德宗紀)』

5) 『구당서(舊唐書)』권52 『식화지(食貨志)』와 『문헌통고(文獻通考)』권3 『전부(田賦)』에서는 “구호는 삼백팔십만오천으로, 관리가 비율에 따라 주호 삼백팔십만과 객호 삼십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모두 오류이다. 장택함(張澤咸)의 『당대의 객호』(『역사논총(歷史論叢)』제1집, 中華書局, 북경, 1964)과 장택함(張澤咸)의 『再論唐代的 客戶』(『中國古代史論叢』제3집, 福建人民出版社, 복주, 1982)에 상세히 나옴.

도 71주가 호구로 보고되지 않아 납세를 하지 않는다. 매년 조정에 납세공납을 하는 것은 주로 절동(浙東), 절서(浙西), 선흥(宣歙), 회남(淮南), 강서(江西), 악악(鄂岳), 복건(福建), 호남(湖南) 등 동남 8도 49주 144만 호로서 천보 시기에 비해 4분의 3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 조정이 매년 거둬들이는 양세(兩稅), 각주(榷酒), 곡두(斛斗), 염리(鹽利), 다리(茶利) 등 그 실수(實數)는 35,151,228관(緡), 석이나 되어 천보 시기의 부세 수치와의 차이가 결코 크게 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우선 한 가지는 강회(江淮) 지역 양민의 과세 부담이 천보 시기보다 커졌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 강회(江淮) 연해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상품생산과 국내외 무역이 흥성했기 때문이다.

『구당서(舊唐書)』권11 목종기(穆宗紀)에 의하면 원화(元和)15년(장경원년, 821)에 이르러 호(戶)가 총 2,375,400이고, 인구는 1,576만이 었다. 정(定), 염(鹽), 하(夏), 검남(劍南), 영남(嶺南), 검중(黔中), 용관(邕管), 용관(容管), 안남(安南)의 도합 97주(州)가 호장(戶帳)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1년간의 호부 통계는 조정에서 이미 번난을 평정하고 원화중흥(元和中興)으로 혁혁한 전과를 얻은 후의 수치이다. 당연히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수치는 부실한 것이다. 무거운 세금으로 각 지방은 관부에서 고의로 호구수를 속이거나 백성들도 고의로 탈세하여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고 일부는 매우 심각할 정도였다. 예를 들면 현종 때 여온(呂溫)이 형주자사(衡州刺史)를 하였는데 전임자가 당초 조정에 보고한 해당 주(州)의 납세 금액은 18,407이었다. 여온이 부임한 후 감춰진 납세 호수를 조사하니 사적으로 세금을 거둬 조정에 보고하지 않은 수자가 16,700에 달하여 보고한 수와 보고하지 않은 수가 거의 일대일이었으니 차이가 거의 없었다.⁶⁾

6) 『당회요(唐會要)』권85 『정호등제(定戶等第)』: “원화(元和)6년 정월. 형주자사 여온이

『당회요(唐會要)』에 기재된 당조 역대 호구 수는 아래와 같다.⁷⁾

영희(永徽)3년 7월, 호부상서(戶部尙書) 고리행(高履行)이 상주하여 380만호로 계산됨.

신용(神龍)원년 11월 25일, 호부상서(戶部尙書) 소괴(蘇瑰)가 상주하여 6,156,141호로 계산됨.

개원(開元)14년, 호부(戶部)에서 계산하여 관리하는 호가 7,069,565라고 말함

개원(開元)20년, 호부에서 7,861,236호로 계산됨.

개원(開元)24년, 8,018,710호로 계산됨.

천보(天寶)원년, 8,53,5763호로 계산됨.

천보(天寶)13년, 9,609,154호로 계산됨.

지덕(至德)원년, 8,018,710호로 계산됨.

간원(干元)3년, 1,935,140호로 계산됨.

광덕(廣德)2년, 2,933,125호로 계산됨.

건중(建中)원년 12월, 천하에 양세호(兩稅戶)가 정해진 후 3,855,076이었다.⁸⁾

원화(元和) 시기 호는 2,473,963이다.

장경(長慶) 시기 호는 3,944,959이다.

보력(寶歷) 시기 호는 3,978,982이다.

태화(太和) 시기 호는 4,357,575이다.

개성(開成)4년, 호부에서 관리했던 호는 4,996,752로 계산됨.

회창(會昌) 시기 호는 4,955,151이다.

상주합니다. 본 주의 옛 호구 액수는 일반 팔천사백칠입니다. 그중 빈궁하고 사망하고 늙거나 어려서 홀로 의지할 때가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 감차과호(墾差科戶)는 팔천 이백 오십칠입니다. 신(臣)이 도착한 후 ……”라고 나옴.

7) 『당회요(唐會要)』권84 『조세하(租稅下)』

8) 이 숫자는 오류가 있다. 응당 310만 호여야 함. 장택함(張澤咸)의 『당대의 객호』(『역사논총』제1집, 中華書局, 북경, 1964)와 장택함의 『재론 당대의 객호』(『중국고대사논총』제3집, 福建人民出版社, 福州, 1982)에 나옴.

『당회요(唐會要)』⁹⁾에는 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元和)5년, 이사도를 토벌하고 치청(淄靑) 12주를 수복하였지만 호적을 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간의대부(諫議大夫) 왕언위(王彦威)에게 명하여 12주를 맡아 양세사(兩稅使)를 교정하도록 하였다. 조정의 법이 정돈되자 백성들은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元和)7년 7월, 형남(荊南) 양세사(兩稅使) 최릉(崔陵)에게는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고, 절강 동도(東道) 양세사 정이(程異)에게는 조산대부(朝散大夫)를 하사하여 통계 작업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元和)15년 윤 정월, 도지낭중(度支郎中) 조길(趙吉)에게 치(淄), 청(靑), 연(兗), 운(鄆), 조(曹), 복(濮), 채(蔡), 신(申), 광(光) 등의 주(州)에 가도록 명하여 양세를 정하도록 하였다.

당제(唐制)에는 주현(州縣)의 등급을 상·중·하로 하는데 상주는 4만 호 이상을 넘지 않고, 중주는 2만 호 이상, 하주는 2만 호 미만이었다. 또한 상현은 6천 호 이상이고, 중현은 2천 호 이상이며, 중하현은 1천 호 이상이고, 1천 호가 되지 않는 것은 하현이다. 즉 수요에 근거하여 현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토지와 비교하여 주현은 일반적으로 땅은 넓고 인구는 희박하여 커다란 개발의 여지가 있었다.¹⁰⁾

안사의 난이 장장 8년에 달하자 북방의 백성들이 전란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사서에서는 “두 경성이 오랑캐군사에게 밝히게 되자 선비들이 대다수 강동(江東) 지역으로 이사하였고,¹¹⁾ 천하의 선비와 백성들이 동오(東吳) 지역으로 피난을 하였으며, 영가(永嘉) 때 남천(南遷)을 하였는데 이 시기에 다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¹²⁾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안사의 난부터 9세

9) 『당회요』 권84 「조세하」

10) 범문란(范文瀾) 『중국통사간편(中國通史簡編)』 제3편, 人民出版社, 1965

11) 『구당서(舊唐書)』 권148 「권덕여전(權德輿傳)」

12)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 권26 「위송중승청도금릉표(爲宋中丞請都金陵表)」

기 초의 원화(元和) 시기에 장강 이남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주, 소주, 호주, 항주 등이 모두 이러한 상황이었다. 청(淸) 가경(嘉慶) 『양주부지(揚州府志)』권20 「부역지(賦役志)」에는 양주의 당 개원(開元), 천보(天寶), 정원(貞元), 원화(元和) 시기 각 호구 수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개원 61,417호, 천보 77,105호(정구 467,850), 정원 73,000호(丁口 469,594), 원화 87,647호로 양주의 인구가 줄곧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소주는 천보원년에 76,421호, 원화 시기에는 영호(領戶)가 100,808호까지 증가하였다. 보력원년(825)에는 백거이(白居易)가 소주자사로 임명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구를 지은 바 있다. “창문(閨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울창하구나. 소주의 토지가 웅장하고 풍속이 강건함을 비로소 알았네. 십만이나 되는 가호(家戶)에서 세금을 납부하니, 오천의 자제들이 국경을 지킬 수 있네.”¹³⁾라고 하였다. 당말 회종(873~888) 시기 소주의 호수는 14,3361호에 달하여 원화 시기에 비해 42%나 증가하였고 천보 시기보다 87%나 증가하였다. 이로써 소주 인구가 9세기에 팽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주(湖州)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중(大中)연간(847~859), 두목(杜牧)은 『상제상구호주제일계(上宰相求湖州第一啓)』에서 호주는 “10만 호가 되는 주(州)로, 천하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¹⁴⁾라고 말하였다. 항주의 호수는 무종, 선종 시기에 이르러 원화 시기와 비교하여 한 배 늘었다. 또 두목은 『상제상구항주계』에서 “오늘날 천하는 강회 지역을 나라의 운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주는 십만 호로 세금이 오십만이나 되고 자사의 중책은 살생도 할 수 있다.”¹⁵⁾라고 하여,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13) 『백居易집(白居易集)』권24 「등창문한망(登閨門閑望)」

14) 『변천문집(樊川文集)』권16

15) 『변천문집(樊川文集)』권16

2. 9세기 당조의 정국과 사회

당조가 초당에서 성당으로 접어드는 시기, 즉 태종(太宗)에서 현종(玄宗) 전기에는 수조(隋朝)의 멸망을 교훈삼아 사치를 없애고 비용을 줄이며,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줄이며, 청렴한 관리를 기용하고, 백성들에게 의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국정 방침으로 하여 태평성대의 기초를 닦았다. 현종은 집권 초기에 국정에 힘쓰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엄격한 절약과 부패방지에 부단히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수레와 복식, 금은으로 만든 기물들을 담당 관리에게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군용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보석과 비단 등은 궁궐 앞에서 소각한다.”(『자치통감(資治通鑑)』 권210) 또 광록사(光祿寺), 홍려사(鴻臚寺), 사농사(司農寺) 등에게 잡물을 400여 만이나 줄이도록 하였다.(『당육전(唐六典)』 권19) 이 때문에 당대 사회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중국 고대 사회의 가장 전성 시기가 되었다. 국가의 위엄이 멀리까지 전파되고 이름이 두루 알려져 수많은 외국 정부와 민간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해 당과의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교류하고 통상무역을 하게 되었다. 『당육전』에 의하면 그 시기 당나라와 외교를 맺은 나라가 300여 곳에 달했다고 한다. 후에 일부는 귀속되고 일부는 서로의 정벌과 병탄으로 70여 곳이 되었다. 당조의 장안은 수백만 인구를 지닌 국제도시로서 각 지역에도 크고 작은 도시들이 준비하여 민간사회 경제가 풍요롭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지 않고 밤에 문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¹⁶⁾

16)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바라만 볼 뿐 따라가지 못할 ‘정관(貞觀)의 정치’ 시기를 생각 하는데, 사회질서가 만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였다. 630년, 당조(唐朝) 전체의 사형범은 29명 뿐이었다. 632년 사형범은 290명이었는데 이세민(李世民)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 해 가을에 돌아와 사형(秋刑)을 받도록 하였다. 다음 해 9월이 되었는데 죄수 290명이 전부 돌아왔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사서에서는 여러 차례 이 일을 기록하며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중당 이후부터 만당에 이르기까지는 중앙 조정으로부터 지방관부까지 그리고 호족세력부터 하층민 간까지 사회 전체가 성당 시기에 축적된 재산을 이용하여 부와 사치를 쫓고 부패와 타락을 일삼았다. 끊임없이 번진이 할거하고 중앙권력이 약화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회경제의 증강을 결코 제한할 수 없었으며, 화려한 관상용 기물이나 장식품만을 추구하고 좋은 개와 말, 음악과 여자 등 저속한 문화를 숭상하는 것이 중·만당의 사회풍조가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중·만당 이전에는 궁정이든 민간이든 차문화가 성행하였는데,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으로부터 다음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구(茶具)는 땅에서 그 재료를 취하니 대다수 동(銅), 철(鐵), 죽(竹), 목제(木製)이었고 차의 맛, 차의 도(道), 차의 예(藝)를 강구하고 삼림에서 ‘청아하게 음미하는 것(淸飲)’을 추구하였다. 그 차문화가 정신적으로 체현하는 것은 바로 ‘세심한 행동과 검소한 도덕’, 자연을 숭상하는 한가한 태도와 고상하고 운치 있는 맛이였다.” 하지만 중·만당 시기, 특히 9세기 의종(懿宗)과 신종(信宗) 시기가 되면 차 도구는 금은도금을 대량으로 사용하였고, 갈수록 호화사치를 추구하여 유명하고 비싼 재료를 가지고 값비싼 제품을 만드느라 민간의 노동력과 재화를 마구 낭비하였다. 차를 마시는 것도 차의 품질이 유명하고 비싼 것만 비교하고 누대나 정자에서 노래와 연주를 들어가며 마시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대문화의 찬란한 성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사회풍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출토된 만당의 금은 다구(茶具)세트를 보고는 감탄해 마지않지만 검소하면 흥성하고 사치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함통(咸通)14년(873), 황제가 첫 번째로 불골(佛骨)을 맞이하느라 “경성에서 사찰까지 300리의 도로가 가마로 밤낮없이 끊이지 않았고, 금이나 비단을 시주한 자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자치통

감』권252)라고 전한 바 있지만 민간의 백성들은 모진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다.

당 중후기의 정국은 어떠하였는가? 간략하게 말해, 조정에서는 환관이 전권을 일삼고 관료가 부패하여 붕당 싸움이나 일으켰다. 지방에서는 변진이 할거하였으며, 백성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부자들은 시골에서는 논밭을 점유하고 도시에서는 상권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로써 난민 가정이 늘어나고, 일거리가 없어 한가한 잡배들이 패거리를 규합하며, 건달과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 사회는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하였다.¹⁷⁾ 영정(永貞)원년(805년) 순종이 즉위하고 정치개혁을 실행했는데 이를 ‘영정혁신(永貞革新)’이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각종 잡세를 없애고, 관리들의 세금 외 상납을 금지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궁시(宮市)를 금지하고, 변진할거를 억제하며, 환관의 병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였지만 환관과 변진의 연합으로 순종은 퇴위되고 개혁도 실패로 끝났다. 환관 세력이 소종(昭宗) 때까지 이어지자 재상 최윤(崔胤)이 선무절도사(宣武節度使) 주온(朱溫)의 군대를 빌어 제거하였다. 붕당 싸움은 주로 ‘우이당쟁(牛李黨爭)’이었는데 헌종 때 시작되어 선종 때 끝났으나 문종 때가 가장 격렬하였다. 정치적 주장이 달랐을 뿐 아니라 변진할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엇갈렸다. 매번 의정을 결정할 때면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이당(李黨)은 중앙집권과 무력으로 변진을 수복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당(牛黨)은 변진과 타협하여 평안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당의 세력이 막상막하로 전후 수십 년간 득세와 실세의 기복으로 이어져 정국의 안정과 ‘유망한 정치’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17) 『통전(通典)』권40 『직관전(職官典)』에 건중(建中)원년(780), “도호와 객호 모두 합쳐 약 삼백여 만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해진 거주지가 없는 자들이 5분의 2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북방에서는 ‘변진할거’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변진이 ‘독립된 왕국’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소위 변진할거는 실제로 훗날 역사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 변진에서 조정의 모든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군대를 보유하고 자중하며 조정의 집권에 반대하고 권한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정에서 내주지 않자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뿐이다. 당시의 ‘우이당쟁’은 바로 당시의 조정이 이에 대해 완전히 대립된 두 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일 각 변진이 ‘독립왕국’이 되어버렸다면 십여 년간의 ‘우이당쟁’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곡과 염철 운반에 있어서 당 조정은 변진할거 시기에도 결코 이를 느슨하게 처리한 적이 없었다. 『당회요』권87의 『전운염철총서(轉運鹽鐵總敍)』에서 말하기를 “정원(貞元)원년(785), 원수(元琇)가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염철수육운사(鹽鐵水陸運使)를 맡았다. 그해 7월에는 상서우부사(尙書右仆射) 한황(韓滉)이 그것을 통솔하였다. 한황이 죽자 재상 두 참(寶參)이 이를 대신하였다.(貞元)5년 12월에 도지전운염철(度支轉運鹽鐵)이 상주하기를 ‘근년 양자강으로부터 운반되는 미곡은 모두 관찰사에게 분배되었고 장강(長綱)을 보냈습니다. 운반로가 너무 멀어 실로 백성들을 수고스럽게 합니다. 지금 해당 관리와 여러 기관에 청하오니 차강(差綱), 절급(節級)으로부터 운반하여 변방 식량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그대로 따라 시행되었다. 8년에 조령(詔令)이 내리기를 “동남의 두 세급남부는 하남(河南) 강희의 영남산(嶺南山) 남동 길에서부터 위교(渭橋)에 이르는 쪽으로 하여, 호부시랑(戶部侍郎) 장방(張滂)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한다. 하동(河東) 검남산(劍南山) 남서 길은 호부상서도지사(戶部尙書度支使) 반굉(班宏)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한다. 지금 호부에서 통솔하는 삼천(三川) 염철(鹽鐵)운송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또

한 “순종이 즉위하여 관련 관리들이 거둬 염법(鹽法)에 대해 상주하였다. 두우(杜佑)에게 도지염철전운사(度支鹽鐵轉運使)를 맡게 하여 양주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원화(元和)2년(807) 3월에는 이손(李巽)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화5년(810)에는 강희, 하남, 영남, 협중, 연운 등의 지역은 염리(鹽利)가 698만 관(貫)이나 되었다. 함통5년(864)에 이르러 오랑캐가 안남부를 쳐들어오자 해를 거둬 전쟁을 치르느라 양식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희 염철순원(鹽鐵巡院)에게 조령을 내리고 주선(舟船)을 고용하여 회남(淮南) 절서(浙西)로 오는 미곡을 안남(安南)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건부(乾符)(874)연간에 다시 최언소(崔彦昭)와 왕응(王凝)에게 그곳을 맡게 하였다. 건부2년(875), 왕응이 보이생부(補吏生賦)로 관직이 바뀌자 배탄(裴坦)에게 그곳을 맡도록 다시 명하였다. 고병(高駢)이 윤주절도(潤州節度)를 맡고 회남으로 이적하여 역시 사무를 맡았다. 광계(光啓)(885~888)연간에 이르러 정진(征鎭)이 소재한 곳에서 군대 세금을 독단하여 모두 바치지 않았고 다만 새해에는 공납했을 뿐이다. 이로써 강희 운반로가 막히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설령 염철 운반 부분이 “군대 세금을 독단하여 모두 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새해에는 공납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던 때가 가장 심각하였을 시기였다.

평로치청절도사 겸 압신라발해양변사인 이정기와 조정의 관계는 아래의 몇 가지 사서 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당 덕종이 즉위(780년)하자 치청절도사 이정기는 30만 관을 헌상하였다. 왕은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비난이 두려워 이를 물리치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재상 최우보(崔祐甫)가 사신을 파견할 것을 청하며 “사신을 보내 치청(淄青)의 군대를 위로하고 정기가 보낸 돈으로 하사하시어 장수들 모두에게 성은을 입게 하시면 여러 도(道)에서도 조정에서 재물을 중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

이 그대로 따르게 하자 정기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¹⁸⁾ 건중(建中) 원년(780) 7월, 중인(中人)에게 유안(劉晏)을 사형시킬 것을 조령하였으니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다. 19일이 지난 후 사형 조서가 내려졌고 그 죄가 폭로되었다. 가족들은 영표(嶺表)로 귀양 보내지고 연루된 자들이 수십 명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를 억울하다고 여겼다. 당시 양염(楊炎)은 산정사(刪定使)를 겸임하고 있어 관적을 없앨 것을 논의하였는데 다수의 의견이 불가하다하여 이에 멈추었다. 하지만 이미 그 집을 장부에 기록할 것을 명하였는데, 그저 잡서 두 수레와 미곡 몇 곡뿐이었으니 사람들은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치청절도사 이정기가 유안을 주살한 것이 너무 포악하였다고 표(表)를 올려 사실과 부합하는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먼저 주살한 후 나중에 조령을 내리는 것은 천하가 놀랄 일이니 그 처자식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였지만 허가받지 못하였다. 흥원(興元) 초, 폐하께서 차츰 깨닫고 귀향하여 장례지낼 것을 허락하셨다. 정원(貞元)5년, 마침내 유안의 큰 아들 집경(執經)은 태상박사(太常博士)로, 둘째 아들 종경(宗經)은 비서랑(秘書郎)으로 발탁하였다. 집경이 복직하여 추가명명을 바라자 정주자사(鄭州刺史)를 내리고 사도(司徒)를 추가하였다.¹⁹⁾

하지만 당대 후기부터는 중앙 정부의 정책결정이 각지에 끼치는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해졌으니 결코 번진할거의 문제에 못지않다. 혹자는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함께 엉키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당 조정은 건중 시기 조세제도 개혁 이후 한편으로는 거둬들이는 세금은 점점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날이 갈수록 토지경병이 심해져서 많은 자작농이 파산하고 농민들의 빈곤이 점점 심해져 유랑하는 인구가 더욱 많아져서 ‘전식(佃食, 소작으로 생활

18) 『신당서』권142 열전67과 『자치통감』권225에 나옴.

19) 『신당서』권149 「유안전(劉晏傳)」

을 해결하는 것'현상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정원 시기(785~805), 육지(陸贄)가 다음과 같이 주소(奏疏)를 올렸다. “오늘날 제도가 느슨하고 문란하여 토지경계의 도리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방자한 자들이 서로 병탄을 하여 농지의 한계도 없어졌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토지가 수 만묘나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거처할 곳도 없게 되었으며, 강한 호족에 의탁하여 사노가 되거나 그들에게 곡식과 양식, 밭과 오두막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쉬는 날도 없습니다. 빌린 것을 다 내놓아도 항상 충분치 못함을 걱정합니다. 밭이 있는 집은 일하지 않고 먹으면서도 세금을 냅니다. 빈부차이의 심함이 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²⁰⁾

각 지방 번진은 어쩌서 조정의 권력이 하향 이동하여 지방자치 내지는 장기간 할거하는 상황에 이르기를 요구하는가? 이것은 중앙의 부세정책과 관련이 있다. 양세개혁이 이미 “빈부 차이의 심함이 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는데 어쩌서 장기간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았는가? 기득권자들이 탈세와 누세를 하고 임금을 기만하고, 세금을 압류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당회요』권85 『정호등제(定戶等第)』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화(元和)6년(811) 정월, 형주자사 여온이 상주(上奏)하였다. 본 주(州)의 옛 정원은 184,007호입니다. 빈궁하고, 사망하고, 늙거나 어리고, 흠아비나 과부 등 구제받지 못하는 호를 제외하고 감차과호(槩差科戶)는 8,257호입니다. 신이 도착한 후로 호세(戶稅)를 정리하였습니다. ……” 여온이 상주한 바에 의하면 내륙지역인 형주(衡州)에서 조정에 보고한 세호가 뜻밖에도 현지 인호(人戶)의 실제 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중 전임자가 고의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20) 육지, 『육의공한원집(陸宜公翰苑集)』권22 『균절부세홀백성육조(均節賦稅恤百姓六條)』, 『사부총간초편(四部叢刊初編)』본. 『자치통감』권234에 이 소는 정원10년(794)에 쓴 것이라고 기록됨.

남겨둔 것이 호세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주현에서 징수하지 않았으나(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뜻이었을까?) 관리인들에게 사적으로 수탈된 것과 국고에 상납한 것이 같은 양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주 호족이자 양세라는 신법을 시행한 조정 관리. 그리고 지방에서 자치 권리를 추구하는 번진관부 모두 기득권자였기에 토지검병을 토지약탈이 아닌 토지교역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양세법의 시행 후 몇 십 년도 되지 않아 관중 지역은 “호족부호들이 검병을 하여 광활한 논밭을 점유하니 전답의 열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둘 셋뿐이었다.”²¹⁾라고 하였다. 강남 오월 일대는 부강한 호족들이 …… 1천 경이나 되는 토지를 소유하여만 상자나 되는 곡물을 수확하였다.²²⁾ 그래서 도망을 치고 유랑하거나 객으로 기숙하여 살아가는 인구가 전에 없이 심하였고, 심지어 세상사람 열 가운데 아홉이 유랑하며 결식하였다.²³⁾ 강희 지역의 여러 도는 …… 고향을 떠나 집을 옮겨버려 열 집 중 아홉 집이 비게 되었다.²⁴⁾ 그래서 9세기 말 의종과 희종 때에 이르면 세상에 도적이 별때같이 일어나는데²⁵⁾, 도적 무리의 절반이 도망 나온 민호였으며²⁶⁾, 세상에 도적이 별때같이 일어난 것은 모두 기한(飢寒)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유독 부호와 호상(胡商)들은 그렇지 않았다.²⁷⁾ 오늘날 온 세상이 곤궁하여 곳곳으로 떠돌며 흩어지고 …… 백성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관리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도적들만 들끓었다. 곧 무너져 버릴 형세가 경각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21) 『전당문(全唐文)』권651 원진(元稹) 『동주주군전상(同州奏均田狀)』; 『원진집』권38
 22) 『전당문』권713 유윤문(劉允文) 『소주신개상숙당비명(蘇州新開常熟塘碑銘)』
 23) 『전당문』권652 원진 『대책(對策)』, 『문원영화(文苑英華)』권487; 『원진집』권28
 24) 『전당문』권81 『대중육년진홍강추백성덕음(大中六年賑恤江推百姓德音)』; 『문원영화』권436
 25) 『자치통감』권253
 26) 『자치통감』권250
 27) 『자치통감』권253

……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진나라 말기에 농민봉기를 일으킨 자)이 진나라에만 나타나란 법이 없고, 적미(赤眉)와 황건(黃巾)이 한나라에만 생겨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²⁸⁾

이로써 당조 말기에 이르면 천지재변과 인재로 당조가 다시 수습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선종(宣宗) 대중(847~859)연간의 『賑恤江推百姓德音』으로부터 “근래 강희 지역의 여러 도는 수재와 가뭄,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집을 옮겨버려 열 집 중 아홉 집이 비게 되었다. …… 양(揚), 윤(潤), 여(廬), 수(壽), 저(滁), 화(和), 선(宣), 초(楚), 호(濠), 사(泗), 광(光), 숙(宿) 등 주(州)는 그동안 혹은 정원연간 이래로의 오래된 결손으로 도망치고 떠나버린 후 모자라는 돈과 물건을 모두 인호(人戶)에 할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 조정이 가장 의지하였던 강희 지역조차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 시기 당조는 한 편으로는 사회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져서 부자들은 드넓은 밭을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은 송곳을 세울 만한 자리조차도 없는²⁹⁾ 국면이 되었고 한 편으로는 정부조직은 팽창되고 정치집단의 생활은 사치스러워져 세금만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래서 대중13년(859) 12월 농민봉기가 절동 지역부터 촉발되어 함통9년(868)에는 계림(桂林)에 주둔했던 서주(徐州), 사주(泗州)의 술졸(戍卒)들이 병변(兵變)을 일으켜 서주로 북귀하여 지금의 산둥 남부와 안휘 그리고 강소 북부지역을 점거하고 관군을 여러 차례 패전시켰다. 이들은 훗날 대부분 패전하여 건부원년(874) 왕선지(王仙芝)와 황소(黃巢)의 봉기군에 가입하였다. 당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본래 조율하기가 어렵고 화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번진할거로 상호간의 혼전이 시작되자 사회경제는 파괴되고 인구는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수도 장안의 궁궐, 수많은 관

28) 『전당문』권81 『대중육년진휼강추백성덕음』; 『문원영화』권436

29) 『구당서』권21 『본기 제19 상의중』

부 그리고 민간의 초가는 스스로 폐허에 비할 정도³⁰⁾에 이르게 되었다. 동도(東都) 낙양은 백골이 땅을 덮고 고통스러움으로 가득했으며, 거주민은 100호도 되지 않았다.³¹⁾ 서쪽으로는 관내(關內), 동으로는 청(靑)과 제(齊), 남으로는 강(江)과 회(淮), 북으로는 위(衛)와 활(滑)에 이르기까지 물고기는 썩고 새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인가에는 밭짓는 연기가 끊기고 가시와 덩불만이 온 들판을 뒤덮었다.³²⁾ 양회(兩淮) 지역은 ‘연이은 전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광릉(廣陵) 지역의 풍성함도 다 사라지는’ 참혹한 풍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조정은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었다.³³⁾

3. 9세기 당 연해지역과 항구도시의 발전

유민의 이동은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아니다. 최종적인 출로 즉 결과는 그저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떠돌아다니다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밭그릇을 찾는 것으로 남에게 고용되어 의지하는 것인데 노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 길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지역에 소작농이 되는 것으로 그곳은 도망쳐 떠난 지역보다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므로 고용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았다. 두 번째는 도시사회의 하층민이 되는 것 즉 도시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유민의 또 다른 결과는 산이나 바다로 들어가 도적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 도시를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아 한 지방의 패주를 자칭하다가 결국 소멸되거나, 투항하고 혹은 황제에게 그 지역을 바쳐 제후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30) 『자치통감』권257 『당기(唐紀)』73

31) 『자치통감』권264 『당기(唐紀)』80

32) 『구당서』권200下 『진종권전(秦宗權傳)』

33) 진용(陳勇) 『唐後期長江下游戶口考』 『中國史研究』, 1997년, 제4기에서 참고함

유민 인구가 연해나 연하 지역의 항구도시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상업, 수공업, 광산, 선박운행, 부두운송 등 일거리와 기름, 소금, 장, 식초와 온갖 서비스 등이 매우 많았으며, 상업이 발전할수록 이 사회하층의 방대한 인구를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노동집약형’ 상업 물품을 생산하고 상업활동을 하던 시대에는 이 유민인구가 많을수록 상업과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다. 과거 상업의 판매와 운송은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도 고도의 과학기술도 없었기에 화물을 사람이 들고 매거나 말이나 노새에 싣고서는 모두 한 곳에 모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과거 상업도시는 상품의 원재료나 자원이 고정된 산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연해나 연하지역의 수로와 부두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유동인구의 주요 향방은 바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무한한 상업적 기회로 가득한 연해, 연하 지역의 항구도시였다.

당 후기의 사회경제 측면에서 북위(北魏)부터 시작되어 근 삼백년간 이어온 균전제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토지매매와 겸병이 제한을 받지 않게 되자 균전제를 기초로 정인(丁人)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조용조법(租庸調法)은 함께 폐기되었고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주 장원이 신속하게 발전하여 수많은 자영농이 파산하고 지주들은 소작농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방지역의 경제가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되어 북방을 초월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첫 번째로 북방은 번진할거가 비교적 보편적이어서 조정에서 번진을 진압하거나 지방의 반란에 대항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북방인구가 전란을 피해 대량으로 남하하여 노동력이 증가하여 영농기술과 수준이 향상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양세법의 실시로 인구가 토지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남방의 방직업, 조선업, 제지업과 차생산 등 상품생산과 무역유통이 고도로 발전하게 된다. 당 후기 남방의 조선업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결과인 것이다. 이 시기 강남 연해의 관부에서 경영하는 조선업은 거대 규모로 발전하였으며(예를 들어 유안(劉晏)은 일찍이 양주에서 2천여 척의 배를 건조하였다.) 민간의 조선업 역시 발전하기 시작하여 큰 선박도 많았는데 당시 유명했던 유대낭(俞大娘) 항선은 만석이나 적재할 수 있었다.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대상선 중에는 길이가 20여 장(丈)에 달했으며 승객을 육칠백 명을 태울 수 있었다고 한다.³⁴⁾ 바로 이 시기 양주의 항구와 하도(河道)는 거대한 개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보력(寶歷)2년(827) 정월, 염철사(鹽鐵使) 왕파(王播)가 상주(上奏)하였다. 양주 성내의 옛 조하(漕河)는 수심이 얕아서 선박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운수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창문(閘門) 바깥 옛 칠리항(七里港)에서부터 강을 내어 동쪽으로 굴곡을 두고 선지사(禪智寺) 다리를 취해 동으로 옛 관하(官河)와 통하게 하면 길이가 19리가 됩니다.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가 스스로 사용하겠습니다.”³⁵⁾라는 내용도 보인다.

당대는 줄곧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시대였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 초기의 발전과 성당(盛唐)의 번영기간에는 당과 사신을 왕래하며 교류하던 국가가 삼백여 곳이나 되었다. 후에 일부는 귀속되고 일부는 서로 간 병탄 등의 변화를 거쳐 주된 곳이 70여 개국이 있었다. 당조는 중앙 정부에서 홍려사(鴻臚寺)를 설치하여 외국 사무를 맡게 하고 경도에 사이관(四夷館)을 설치하여 각국의 입조사절과 손님을 접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경 지방 특히 연해 항구 지역에는 역관(驛館)을 설치하여 각국 사절을 맞이하고 배웅하게 하였으며 입조를 허가받지 않고서 변경에 머물던 사절단과 기타 인원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항구도시에는 호시감(互市監), 시박사

34) 장전세(張傳璽) 등, 『簡明中國古代史』 [제2판], 제6장 隋唐五代, 北京大學出版社, 1996

35) 『당회요(唐會要)』 권87 「漕運」

(市舶使)를 설치하여 외국사절단의 조공무역과 민간무역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안과 낙양 두 경성 지역을 제외하고 양주, 광주 등 당의 대외 항구도시는 모두 발전과 번영을 누렸다. 당 후기의 이러한 연해 항구도시의 발전은 상술한 것처럼 과산한 향촌인구가 유민화하여 도시로 대량 유입되면서 소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하거나 자본이 없는 자들은 도시에서 노동을 하거나 도시인구에 의지하게 됨에 따라 연해도시의 인구가 팽창하고 상업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광주(廣州)는 당의 가장 중요한 대외무역 중심지 중 하나이다. 한유(韓愈, 768~824)는 광주를 “요지에 위치하여 매우 번성하였으며, 교역하는 자들이 달려들어 모였다.” “외국의 화물이 나날이 들어와 구슬, 향수, 상아, 대모 등 세상에 보기 드문 진귀한 물건들이 중국에 넘쳐나 다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도다.”³⁶⁾라고 하였다.

양주는 바다와 장강수로와 강남수로가 합류하여 육지와 바다 두 이점을 모두 겸하고 있어 국내외 상업과 상인의 집산 요충지가 되었다. 상업의 번영은 양주가 첫째 익주(益州)가 두 번째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구당서』에 상원원년(760) 회서절도부사(淮西節度副使) 유전(劉展)이 반란을 일으키자 “평로부대사 전신공(田神功)의 군대를 끌어들여 도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신공은 양주에 도착하여 거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채찍과 몽둥이를 써서 찾아내어 남김 없이 빼앗았다. 대식(大食)과 파사(波斯) 등 이웃나라 상인 중 사망한 자가 수천이었다.”³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양주라는 상업도시의 인구와 경제사회의 ‘국제화’된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양주, 익주(성도) 외에도 장강 유역의 홍주(洪州, 지금의南昌), 악주(鄂州, 지금의武漢) 등지도 강을 통해 바다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업과 도

36) 한유(韓愈) 『昌黎先生集』 권21 「送鄭尚書序」

37) 『구당서』 권110 「登景山傳」

시가 서로 영향을 주는 정반 양면으로 이루어졌다. 강절 연해의 소주, 항주 등이 신흥으로 일어나고 동남 연해의 광주, 천주, 명주 등지 역시 대외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다.

명주(明州)가 해외통상의 주요 항구가 되어 일본이 당에 최초로 상륙한 것은 8세기 말이다. 일본은 이전에 사신을 파견하여 당에 들어왔는데 이는 ‘신라길’을 경유하여 산둥반도의 등주와 래주(萊州) 항구에 와서 상륙하는 방식이었다. 『은현통지(鄆縣通志)』·『식화지(食貨志)』에 의하면 당 대종 대력연간(776~779), 일본은 신라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해도가 막히자 명주와 월주로 바꾸어 조공을 하였다. 그 후로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라고 한다. 즉 일본 남부 바다로 길을 내어 황해(당시에는 동해라고 불렀다.)를 횡단하고 명주에 와서 상륙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당에 들어오는 ‘남도로(南島路)’이다. 이때부터 일본은 사신, 유학승, 유학생 등 대다수 이 해로를 따라 당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일본 승려 최징(最澄)과 공해(空海)는 명주로 들어오는 길을 선택하여 당에 들어왔고 일본승 보조(普照) 역시 감진(鑑眞)스님을 일본으로 초청하기 두 차례 명주로 들어왔다. 일본 견당사 ‘安倍仲麻呂(晁衡)’는 명주로 통하는 길로 귀국하였다. 명주는 이 시기부터 국내외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영파에서 당대 조선소 유적지가 출토되었는데, 9세기 중엽의 월주요 청자가 출토되기도 하였으니 이 시기 해상 국제무역의 실물증거가 된다 할 수 있다. 당 소종(昭宗) 건녕(乾寧)3년(896)의 『수왕조위무군절도사제(授王潮威武軍節度使制)』에는 “민(閩)과 월(越) 지역 사이에 도(島夷)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 있다.”³⁸⁾라고 말한다. 명주는 월지(越地)로 명주항이 대외개방을 하고 해상무역이 발전한 지 20여 년이 되자 외국인 수가 상당히 늘었다.

산둥반도를 남방의 연해 연하지구와 비교해보면 고대에는 대도시

38) 『문원영화(文苑英華)』권457 장현안(張女晏)『授王潮威武軍節度使制』, 『전당문』권818

로 발전하여 인구가 밀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제약에서 온다. 첫 번째 제약은 설사 산동반도의 항구 조건이 우월해도 내륙으로 통하는 수로망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대 대규모의 화물운송은 주로 선박에 의지하는 데 내륙과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수로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업도시에서 항구도시로 발전해 가는 능력이 남방에 비해 반 이상 부족하였다. 따라서 당대에 설사 중후기부터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만 산동반도의 항구도시는 대규모로 유민을 받아들여 상업과 도시 인구가 변모시키지 못하였고 산동반도의 연해 항구도시는 대부분 중소형의 성진(城鎭)으로만 발전해갔다. 또 다른 제약은 산동반도가 해양군사지라는 특수한 지리적 성격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왕조가 바뀌고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면서 산동반도 특히 그 북부 연해는 늘 국경으로 갈라지거나 쟁탈의 선상에 처하고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군사배치와 전쟁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당대에 산동반도를 ‘극변의 지역’으로 바라본 것이다.³⁹⁾ 그렇다면 9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백 년간 평화를 누

39)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에 회창5년(840) 7월 3일 엔닌 일행은 “초주(楚州)에 도착하였다. 먼저 신라방으로 들어가 총관당주동십장(總管當州同十將) 설수(薛誦)와 신라역관 유신언(劉愼言)을 만나고, …… 바로 산양현(山陽縣)으로 들어가 공문을 올리고 본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일본국 조공사신은 모두 이곳으로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귀국을 합니다. 엔닌 등은 이곳을 경유하여 귀국을 하려는데 이곳을 통해 바다를 건너기를 청합니다’ 현사(縣司)가 수궁하지 않으며 말했다. ‘본 주(州)는 바다에 인접한 곳이 아닙니다. 경유에 대한 조칙(詔勅)을 허가하지만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치상 등주의 끝 지역을 거쳐야만 바야흐로 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신라역관 유신언이 현(縣)에 혼자 와서 물건을 써가며 본 안건을 상의하여 현령이 수궁하기를 도모하였다. 그러자 ‘이곳은 법령과 조문이 있는 지역이며 이신상공(李紳相公)의 관내이기도 합니다. 칙령을 비준하니, 경유하는 사람은 이들을 머무르는데 이는 칙령을 위반한 죄입니다’라고 운운했다. 현사는 일리 있는 것을 수궁하지 않았다. 설 대사와 유 역관이 제차 주(州)에 와서 상의하였으나 역시 수궁하지 않았다. 이틀간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다가, 마침내 경유가 정해졌다. 산양현사가 …… 말하기를 ‘승려는 남으로 향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경유하고, 북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경유하시오. 만일 이곳에 정박하여 배를 찾는 것은 현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신청할 수가 없었다. 여전히 등주로 갈 것을 청하자 …… 현가(縣家)에서 공문서를 내어 사람을 보내어 등주로 향해 가도록 하였다.” 송조(宋朝)에 이르면 요나라와의 변경문제가 긴장되어 더욱 이와 같다. 예를 들어

렸던 당대에는 어쩌서 광주나 양주처럼 큰 도시로 발전하지 못하였는가? 이는 당시 신라, 일본과의 해상교류가 매우 광범위하고 밀접하였지만 당시의 신라와 일본의 자체 상품경제능력을 가지고는 해상무역을 통해 산동반도의 경제와 인구 등 도시화 발전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조건으로 산동반도는 내륙의 넓은 지역과 연계되는 수로망이 부족하였고, 내륙지역 생산물품의 무역유통은 자체 운하가 있어 경기 지역과 국외로 통했지 산동반도를 통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산동반도는 정치·지리적으로 중원 왕조와의 연계를 밀접히 하기 위해 경제·지리적으로는 스스로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것이 산동반도의 중심도시가 초기에는 임치(臨淄)에서 청주(靑州), 연태(煙臺), 청도(靑島)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원내륙지와의 연결점에 위치한 제남(濟南)이 임치, 청주, 등주, 연태, 청도 등 연해도시에 비해 도시적 지위가 더 높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9세기 신라 교민이 산동반도의 연해지역에서 모여 살던 곳이 대부분 신라방이 아닌 신라촌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이 된다.

도시가 좋은지 향촌이 좋은지는 재당신라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신라방에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신라촌에 사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처럼 영원히 대답하기 힘든 문제이다. 만사는 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으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시만 있거나 아니면 농촌만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농촌 사

소식(蘇軾)의 『소식집(蘇軾集)』 권52 주의육수(奏議六首) 『乞罷登州權鹽狀』(元豐8년 12월)에는 “등주 지역은 북로(北虜)와 가까워서 극변지(極邊地)라고 부른다. 북로의 산천이 희미하게 보이며 뚝대에 바람만 잘 타면 순식간에 성하(城下)에 이른다. 국조(國朝) 이래로 항시 대부대가 주둔하여 수전을 훈련하였으며 조석으로 봉화를 피워 경급을 통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람들은 대거 도시로 향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Ⅲ. 9세기 나당관계와 신라인의 입당

1. 개설

당과 신라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당초부터 시작되었다. 9세기 말 최치원은 『上太師侍中狀』에서 다음과 같이 추증(追贈)하였다. “정관(貞觀) 시기에 우리 태종황제께서 친히 육군(六軍)을 통솔하여 바다를 건너시어, 대 토벌을 감행하시자 고려가 두려워 화친을 청하였고 문황(文皇)이 투항하자 환궁하시었다. 우리 무열대왕(武烈大王)께서 정성을 다해 청하니 한쪽에 편벽된 지역의 어려움을 도와 바로 잡아 주셨다. 당에 들어가 조알(朝謁)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⁴⁰⁾

나당관계의 발전과 변천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량의 책문(冊文), 조령(詔令), 맹문(盟文), 표주(表奏) 등 원전문헌⁴¹⁾이 실려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를 내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중복하지 않고 9세기 나당관계 위주로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다.

40) 『삼국사기』권46

41) 현존하는 중국 사적으로는 『舊唐書·新羅傳』, 『冊府元龜·外巨部』, 『資治通鑑·唐紀』, 『唐會要』권95新羅條, 『唐代詔令集』, 『文館詞林』, 『全唐文』, 『唐文拾遺』 등이 있고, 한국 사적으로는 『三國史記』, 『東國通鑑』, 『東史綱目』 등이 있다.

다음은 9세기 전반기의 사례이다. 원화15년(820), 신라 태자중윤(太子中允) 금사신(金士信)이 당조에 주청해 “신 본국이 천자에게 조회한 지 2백여 년이 되었는데, 항상 질자(質子)를 보내어 궁궐의 숙위(宿衛)를 맡게 하였고 매년 천자께서 번지(蕃地)로 임하도록 보내시면 부사(副使)로 충당되어 성지를 전달하고 하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도성의 숙위질자(宿衛質子)로 있다가 신이 다음으로 맡아 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청했다. 김사신은 원화7년(812)에 이미 부사(副使)의 신분으로 신라에 사신이 되어 갔었는데, 이 해에 여전히 ‘부사로 충당되어’ 행하고 “성지를 전달하고 하명하도록 하겠다.”고 청한다.⁴²⁾ 여기서 숙위질자들이 당조의 사신이 되어 본국으로 행하는 것을 앞 다투어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장적(張籍)은 『送金少卿副使歸新羅』라는 시에서 “운무가 가득 덮은 섬이 망망하게 하늘 끝에 보이고, 동쪽으로 만 리를 뜻을 한 번 올려 날듯이 향하네. 오랫동안 시자(侍子)를 하며 승은을 깊이 입었으니 오늘 사신의 행로를 보좌하며 귀국을 명받았네, 바다를 건너 응당 국서를 전해고 집에 도착해도 조복을 입었든 하네, 예전에 떠난 사람들을 많지만, 그대처럼 빛이 나는 사람은 드물구나.”⁴³⁾라고 노래하며, 이 귀국하는 사신에 대한 감탄과 칭찬을 표현했다.

다음은 9세기 전중기의 사례이다. 문종 개성(開成)2년(837) 12월 신라 질자(質子)인 광록경자금어대(光祿卿紫金魚袋) 김윤부(金允夫)는 다음과 같은 상문(狀文)을 올렸다. “본국의 왕께서 명하시여 당조에 들어와 질자로 있었던 지도 26년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나 관

42) 『전당문』권1000에 “김사신(金士信) : 사신은 元和 시기 신라의 질자(質子)로, 태자중윤에 시용(試用)되었다. 『請充本國副使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 본국이 천자에게 조회한 지 이백 여 년이 되었는데, 항상 질자를 보내어 궁궐의 숙위를 맡게 하였고, 매년 천자께서 번지로 임하도록 보내시면 부사로 충당되어 성지를 전달하고 하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도성의 숙위질자로 있다가 신이 다음으로 맡아 행하고자 합니다’”

43) 『전당시(全唐詩)』제385권 072首

직이 바뀌는 몽은을 입었는데, 다시 본국의 선위(宣慰) 및 책립(冊立) 등 부사를 맡아 가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정관(正官)을 제수 받는 특별한 은혜입니다.”⁴⁴⁾

다시 9세기 후반기의 예시를 들어보자. 당 소종(昭宗) 건녕(乾寧)4년(897) 7월, 신라국과 발해국 쌍방 간에 누가 당조에서 더 중요한지 1차 쟁탈이 발생한다. 관례에 따르면 당조에서 신라의 지위는 발해보다 높다. 하지만 발해는 신라의 국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것을 알고 신라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한 것이다. 당 소종은 발해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고, 최치원은 「謝不許北國居上表」를 올려 9세기 나당간의 밀접한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그의 사표(謝表)는 『東文選』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신 모가 아됩니다. 신이 당번(當番) 숙위원(宿衛院) 상보(狀報)를 보니, 지난 건녕4년 7월 중에 발해 하정왕자(賀正王子) 대봉예(大封裔)가 상(狀)을 올려, 발해가 신라 위에 거처하기를 청허(請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칙지(勅旨)를 엿드려 보니, ‘국명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인하여 일결은 것이 아니다. 조제(朝制)의 등위(等威)를 어찌 성쇠로써 고치겠는가. 마땅히 구예(舊例)대로 할 것이니 이에 선시(宣示)하노라’ 하였습니다. 한조(漢詔)의 운음(綸音)을 내리시어 주반(周班)의 법도를 명시하시니, 적薪(積薪, 積水)의 동북에 있는 별 이름의 수탄(愁歎)이 이미 사라짐에 집목(集木)의 근심이 도리어 간절한데, 하늘만은 심정을 아실 것이니 어느 땅에 몸을 용납하오리까.(中謝) 신이 듣건대, 『禮』에 그 근본을 잊지 않음이 귀함은 바로 부허(浮虛)를 경계하기 때문이요, 『書』에 그 법도를 능히 삼감을 일결은 것은 오직 참월(僭越)함을 막기 위함이니, 진실로 그 분수를 쫓지 않으면 끝내 뉘우침을 스스로 부르는가 합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는 본시 사마귀만한 부락으로 양갈(鞅鞞)의 족속이었는데

44) 『구당서』권199 上 「신라전」

이들이 번영하여 무리가 이뤄지자 이에 속말(粟末) 소번(小蕃)이란 이름으로 항상 고구려를 쫓아 내사(內徙)하더니, 그 수령 걸사우(乞四羽)와 대조영(大祚榮) 등이 무후(武后) 임조(臨朝) 때에 이르러, 영주(營州)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하여 황구(荒丘)를 점거하여 비로소 진국(振國)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유신(遺燼)으로 물길(勿吉)의 잡류(雜流)인 효음(梟音)은 백산(白山)에 소취(驍聚)하고, 치의(鴟義)는 흑수(黑水)에 환장(喧張)하여 처음은 계단(契丹)과 행악하고, 이어 돌궐과 통모(通謀)하여 만리 별관에 곡식을 경작하면서 수 차례 요수(遼水)를 건너는 수레를 항거했으며, 10년이나 오디를 먹다가 늦게야 한 나라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자 와서 인접을 청하기에 그 추장 대조영에게 비로소 신번(臣蕃)의 제5품 벼슬인 대아찬(大阿餐)을 주었더니, 뒤에 선천(先天) 2년에 이르러 바야흐로 대조(大朝)의 총명(寵命)을 받아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봉해졌습니다. 근래에 그들이 차츰 황운을 입게 되자 갑자기 신번과 항례(抗禮)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강(絳)·관(灌)이 열(列)을 같이함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이고, 염(廉)·린(蔭)이 서로 화목했음은 전계(前誡)가 된다 할 것이나, 저 발해는 원래 사력(沙磧)의 도태물(淘汰物)로 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늘 삼가 본분을 지킬 줄을 모르고 오직 위를 범하기만 도모하며, 소의 꼬리가 되기를 부끄럽게 여겨 앙큼하게도 용의 머리가 되고자 망령되이 진론(陳論)하고 있으니 이는 애초부터 외기(畏忌)함이 없어서인데 어찌 자리를 격한 데 대한 예의를 지키겠습니까. 실로 아래 품계가 지킬 예법에 몽매한 짓입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폐하께서 높은 데 계시나⁴⁵⁾ 찬찬히 살펴시고 멀리 보심이 사뭇 환하시어 생각하시되, 신번의 기마는 혹 여위었어도 일컬을 만하여, 소는 파리했어도 혀를 빼무는 것이 아닌 반면에, 저 오랑캐의 매는 배가 부르면 높이 날아가고, 쥐는 몸집이 있으되 방자히 탐욕만 낸다고 여기서 길이 제항(梯航)을 함께 함만 허하시고 관구(冠纓)를 거꾸로 두지 않게 하시니, 노부(魯府)가 구관(舊貫) 그대로 두어짐을 듣자 주 나라의

45) [剖嗾, 懷] 이 세 글자는 王小甫 선생의 『統一新羅在東亞世界中的地位—八至九世紀 당초(唐朝)與新羅關係論』에 근거하여 교정하였다.

명이 오직 새로움을 징험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명위(名位)가 갈지 않음에 등급이 엄연히 있습니다. 신의 나라는 진관(秦官)의 극품(極品)을 받았고, 저 번국은 주례(周禮)의 하경(夏卿)을 빌었을 뿐인데, 요즘 선조(先朝)에 이르러 갑자기 우대의 은총에 젖었으니, 용적(戎狄)은 만족시킴이 불가하므로 요(堯)·순(舜)도 오히려 이에 골치를 앓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등(滕) 나라의 다툼을 틈타 스스로 갈왕(葛王)의 꾸지람을 취하였으니, 만일 황제폐하께서 영금(英襟)으로 독단하시고 신필(神筆)로 쪽 그어 비답하시기 않았던들 근화향(槿花鄉)의 염치와 예양이 스스로 침몰하고 고시국(槁矢國, 肅慎)의 독기가 더욱 성할 뻔하였습니다. 이제 멀리 남월(南越)을 수안(綏安)한 한문제의 깊은 뜻이 봄같이 무르녹고, 동조(東曹)의 성(省)을 과(罷)한 위태조(魏太祖)의 아름다운 말을 함께 효득(曉得)하게 되었사오니, 이로부터 팔예(八裔)가 조금히 구하는 희망을 끊어버리고 만방에 망동하는 무리가 없어져서 확실히 정규(定規)를 지키며 조용히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신이 엿드려 해우(海隅)에 통용(統戎)하기에 구애되어 천조(天朝)에 달려가 뵈지 못하나다.”

나당 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해 대량의 신라 벼슬아치와 일반평민들이 당으로 유입하게 된 것이다.

이들 신라인은 당 유입 경로와 신분에 따라 대략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라 왕자나 왕족 등이 숙위질자(宿衛質子)로 들어오는 것 2. 사신으로 들어오는 것 3. 구법(求法)을 위해 들어오는 유학승이나 주지승 4. 유학생 5. 당의 관원이나 역관 6. 당에 들어와 입대하는 것 7. 상인 8. 선원 9. 장인이나 예인 10. 노비 이하

9세기의 정황은 기존연구의 기초 위에 간략하게 분석해 보자. 필자의 생각에 이러한 분류는 분류로 나누어 기술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실제로 많은 신라인들이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거나 여러 직업을 겸직하고 있어 질자이자 사신이며, 숙위이면서 유학생이기도 한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각자의 신분과 역할은 필경 같지 않다. 여기서는 이미 사료를 확인하였고 학계의 여러 연구를 기초삼아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질자숙위, 사절, 유학생, 승려, 상인과 평민, 노비의 6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겠다. 앞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서술하여 개략적인 모습만 알리겠다. 뒤의 2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선행된 연구가 많긴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여기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2. 질자(質子)와 숙위(宿衛)의 입당

신라가 당 조정에 인질로 보낸 숙위의 수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숙위질자의 주된 사명은 첫 번째 신라와 당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 조정에서 문화, 예의 그리고 제도를 배우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과거시험을 통해 출사하는 것이다. 당 태종 시대부터 시작하여 당 말에 이르기까지 신라에서 이러한 숙위질자를 파견하는 제도가 거의 끊이지 않았으며, 그 인원수 또한 많았다. 그들은 숙위질자로서 당 조정에 진입하여 나당 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류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더욱이 이런 숙위질자는 대다수 신라 왕실의 자제들로 지위가 높았는데, 신라 왕실에는 골품제가 있어 평민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라 왕국의 국왕이 되거나 주요 관원이 되었다.

신라의 입당 숙위질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번장(蕃將)에 관한 연구와 중국의 대외관계사연구 안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엄경망(嚴耕望)의 「新羅留唐學生與僧徒」, 장군(章群)의 「唐代蕃

將研究』와 『唐代蕃將研究(續編)』, 마치(馬馳)의 『唐代蕃將』, 『羈旅長安的新羅人』, 유영지(劉永智)의 『中朝關係史研究』, 양통방(楊通方)의 『中韓古代關係史論』, 장비비(蔣非非)·왕소보(王小甫) 등의 『中韓關係史(古代卷)』, 한국 변인석(卞麟錫)의 『唐長安月新羅史迹』, 배근흥(拜根興)의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유희위(劉希爲)의 『唐代新羅僑民在華社會活動的考述』⁴⁶⁾, 오옥귀(吳玉貴)의 『唐文化史 對外文化交流編(二)』⁴⁷⁾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청파(姜淸波)의 『入唐三韓人研究』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당 문종 장경(長慶) 초부터 후량(後梁)과 후당(後唐) 시기까지 근 백 년간의 신라 빈공과 급제자 90인 중 이름을 고증할 수 있는 26인에 대해 사료적인 통계를 다음과 같이 간략한 표로 만들었다.

신라인 빈공 등제간표⁴⁸⁾

| 성명 | 급제 시기 | | 자료출처 | 비고 |
|-----|---------|---------|----------------------------------|------------|
| | 당기년 | 서기 | | |
| 金雲卿 | 長慶 초 | 821? | 『東史綱目』권5, 권9 | 任唐任兗州司馬 |
| 崔利貞 | 長慶 말? | 824? | 『冊府元龜』권999 | |
| 金叔貞 | 長慶 말? | 824? | 『冊府元龜』권999 | |
| 朴季業 | 長慶 말? | 824? | 『冊府元龜』권999 | |
| 金允夫 | 太和 開成 間 | 827~840 | 『冊府元龜』권999 | |
| 金立之 | 太和 開成 間 | 827~840 | 『冊府元龜』권999 | |
| 朴亮之 | 太和 開成 間 | 827~840 | 『冊府元龜』권999 | |
| 金夷魚 | | | 張喬 送資貢金夷魚奉使歸本國 ⁴⁹⁾ | |
| 金可紀 | 약 大中 시기 | 849~859 | 『太平廣記』권53 '金可紀' ⁵⁰⁾ | |
| 崔致遠 | 乾符원년 | 874 | 『三國史記』권11 | 裴瓚의 榜下에 及第 |
| 金紹渤 | 乾符 말 이전 | 879년 전 | 『東史綱目』권5 | |
| 朴仁範 | 乾符4년 | 877 | 『東文選』권47 | 高湘의 榜下에 及第 |

46) 강청파(姜淸波)의 『入唐三韓人研究』,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에 보임.

47) 오옥귀(吳玉貴) 『唐文化史 對外文化交流編(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년판

48) 강청파(姜淸波) 『入唐三韓人研究』,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

| | | | | |
|-----|---------|---------|-----------|------------|
| 金渥 | 乾符4년 | 877 | 『東文選』권47 | 高湘의 榜下에 及第 |
| 李同 | 廣明 元年 전 | 880년 전 | 『三國史記』권11 | |
| 金茂先 | 昭宗 초 | 889? | 『東文選』권47 | |
| 楊穎 | 昭宗 초 | 889? | 『東文選』권47 | |
| 崔渙 | 昭宗 초 | 889? | 『東文選』권47 | |
| 崔匡裕 | 昭宗 초 | 889? | 『東文選』권47 | |
| 崔仁澆 | | | 『全唐文』권922 | |
| 崔承佑 | 景福2년 | 893 | 『三國史記』권46 | 楊涉의 榜下에 及第 |
| 金文蔚 | 乾寧~光化 | 894~900 | 『三國史記』권12 | |
| 崔 | 乾寧~天復 | 894~904 | 『東文選』권47 | |
| 崔愼之 | 天佑3년 | 903 | 『三國史記』권46 | 薛廷珪 榜下에 及第 |
| 元杰 | | | 『東史綱目』권5 | |
| 王巨仁 | | | 『東史綱目』권5 | |
| 金垂訓 | | | 『東史綱目』권5 | |

장씨의 문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표에서 김이어(金夷魚)와 김가기(金可記) 두 사람은 당인이 쓴 시문(詩文)에 등장하며, 이외에도 진사에 급제하거나 과거를 마치고 귀국하는 신라인을 송별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장교(張喬)의 『送人及第歸海東』, 두순학(杜荀鶴)의 『送賓貢登第後歸海東』, 장빈(張蠙)의 『送友人及第歸新羅』, 배설(裴說)의 『贈賓貢』, 관휴(貫休)의 『送新羅人及第歸』, 허혼(許渾)의 『送友人罷舉歸東海』 등이⁴⁹⁾, 모두 이러한 작품에 속한다. 장교의 시에서 “중원의 길에서 혼자 웃으면서, 해마다 친구들을 환송하네.”라고 하였는데, ‘해동(즉 신라)’의 유학생이 당에 들어와 빈공(賓貢)에 급제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장빈의 시에

49) 姜注에 ‘金夷魚’ 혹은 ‘金夷吾’라고 하였다. 『全唐詩』권638 제19책 p.7,305에 보임.

50) 姜注에 章孝標의 『送金可記歸新羅』, 『全唐詩』권506 제15책 p.5,737을 다시 참고하고 함.

51) 姜注에 엄경망(嚴耕望) 선생의 『新羅留學生與僧徒』라는 문장에서 이상의 시를 점검한 바 있다고 함. 각 시의 원전은 『全唐詩』권639 제19책 p.7,327, 권691 제20책 p.7,933, 권702 제20책 p.8,073, 권720 제21책 p.8,261, 권836 제23책 p.9,419, 권531 제16책 p.6,072임.

서 “향속(鄕俗)에 반계(攀桂, 과거급제)한 자들이 드물어, 다투어 와서 월궁(月宮)에 (올라가 계수나무를 꺾은 소감에) 대해 묻네.”라고 하였는데, 신라 본토의 향속에 당에 유학하여 급제하는 것을 중시하고 유학생이 급제 후 귀국하는 영광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허혼의 시에서는 “이번에 떠나면 붓을 던져버려야 함을 깨닫고, 모름지기 검술 연마나 강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낙제자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당에서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신라의 한때 풍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나당 간의 문화 전파와 교류는 많은 부분에 있어 두 지역의 시인들이나 문인들 사이의 돈독한 우의와 시문창화(詩文唱和)를 통해 실현되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동시에 이 표에 의하면 신라인들이 당에 들어가 빈공에 급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두 9세기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연구거리를 가져다준다.

3. 사절의 입당

당에 사절로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강청파(姜淸波)의 『入唐三韓人研究』⁵²⁾ 『新羅遣使入唐概況』에서 상세한 통계를 냈는데, 신라가 당에 첫 사신을 파견한 것은 620년이고 마지막 사신 파견은 897년이라고 한다. 277년의 기간 중 신라는 122년간 당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파견한 사신은 적어도 162차례에 달했다. 그 가운데 9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덕종 정원16년(800)부터 소종 건녕4년(897)까지는 모두 30차례이다. 이 시기 신라

52) 강청파(姜淸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

가 파견한 사신의 상황을 강씨의 논문에 의거하여 표를 만들어 아래에 정리하니 참고 바란다.

9세기 신라 건당사절 표

| 번호 | 입당 시기 | 서기 | 이름 | 사신 목적 | 문헌출처 |
|----|----------|-----|-------------|--|--|
| 1 | 德宗 貞元16년 | 800 | 梁悅 | 숙위 |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2 | 貞元20년 | 804 |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
| 3 | 憲宗 元和원년 | 806 | 金獻忠 | 숙위 | 『冊府元龜』권997 『外臣部·納質』 |
| 4 | 元和원년 | 806 |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
| 5 | 元和3년 | 808 | 金力奇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6 | 元和4년 | 809 | 金陸珍 | 謝恩兼進奉方物 |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7 | 元和5년 | 810 | 金允夫, 王子 金憲章 | 금은불상을 바치고 순종을 위해 명복을 빌었다. 아울러 방물을 공납하고, 숙위를 하였다.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권976 『外臣部·褒異三』; 권996 『外臣部·納質』 |
| 8 | 元和7년 | 812 | 金昌男 등 54인 | 하정(賀正) 겸 고애(告哀)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
| 9 | 元和10년 | 815 | | 조공 | 『冊府元龜』권976 『外臣部·褒異三』 |
| 10 | 元和11년 | 816 | 王子 金士臣 등 | 조공 | 『唐會要』권95 『新羅』 |
| 11 | 元和12년 | 817 | 왕자 金張廉 | 조공 |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12 | 元和15년 | 820 |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冊府元龜』권976 『外臣部·褒異三』 |
| 13 | 穆宗 長慶2년 | 822 | 金柱弼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唐會要』권95 『新羅』 |

| | | | | | |
|----|---------|-----|--|-----------------------|---|
| 14 | 寶曆원년 | 825 | 金聽(王子) 金允夫, 金立之, 朴亮之 등 12인 | 내조(來朝) 겸 숙 위 | 『唐會要』권95 『新羅』;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15 | 文宗 太和원년 | 827 | | 조공 | 『冊府元龜』권976 『外臣部·褒異二』 |
| 16 | 太和2년 | 828 | 金大廉 | 조공 |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第十』 |
| 17 | 太和4년 | 830 | | 조공 | 『冊府元龜』권972 『外臣部·朝貢第五』 |
| 18 | 太和9년 | 835 | | 조공 | 上同 |
| 19 | 開成원년 | 836 | 金義琮 | 사은(謝恩) 겸 숙 위 | 『舊唐書』권199上 『新羅傳』 |
| 20 | 開成2년 | 837 | 金忠信 | 숙위 | 『冊府元龜』권976 『外臣部·褒異三』 |
| 21 | 開成3년 | 838 | | 치청절도사 노비로 남음 | 『冊府元龜』권980 『外臣部·通好』 |
| 22 | 宣宗 大中5년 | 851 | 金元弘 | 불경과 불아(佛牙) 를 구하러 |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第十一』 |
| 23 | 懿宗 咸通2년 | 861 | 金富良 등 | 방물(方物)을 공납 | 상동. 불행히도 海難에 익 사하였다. |
| 24 | 咸通9년 | 869 | 王子 金撤, 학생 李同 등 3인 | 사은, 방물공납, 숙 위 | 상동 |
| 25 | 咸通10년 | 870 | 金因 | 숙위 | 상동 |
| 26 | 禧宗 乾符3년 | 876 | | 방물공납 | 상동 |
| 27 | 乾符5년 | 878 | | 조공 | 상동 |
| 28 | 中和5년 | 885 | | 황소(黃巢)를 물리 친 것을 축하 | 상동 |
| 29 | 昭宗 景福2년 | 893 | 金處誨 | 납족절(納族節) | 상동. 불행히 귀국 도중 바다에 빠졌다. |
| 30 | 乾寧4년 | 897 | | 왕위책봉을 청함 | 상동 |

위의 표를 총괄적으로 보면 신라의 사신 파견 횟수가 어떤 해는 매우 집중되고 어떤 때는 일정치 않고 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당관계에 틈이 있었거나, 정변, 반란, 재난 등의 신라 국내문제 혹

은 일본이나 발해와의 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당 정국의 동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당에 사신으로 파견된 자들은 왕실과 연관된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들은 당에 들어가기 전 신라 왕실의 중요 구성원으로 당에 들어간 후 종종 당조 황제로부터 관직이나 작록을 하사받는데,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자들이 훗날 신라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다. 김춘추(金春秋)나 김법민(金法敏)이 모두 그러한 예이며, 심지어 그들 중에는 왕자와 같이 신라 왕위 계승자의 신분으로 파견되기도 했다.⁵³⁾

4. 유학생의 입당

많은 유학생들의 입당은 당에 유입되는 신라인의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이다. 당 중후기 입당하는 사람 수가 더욱 늘어 후기에는 왕실 귀족의 자제들과 신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든다. 어떤 때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수가 한 번에 일이백 명에 달하였고, 일부는 학업을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당 조정에 출사하여 관직을 얻는 사람도 많았다. 신라 유학생은 당의 과거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었다. 최치원, 김운경 등이 모두 이 시기 신라 민간의 우수한 청년들로 당에 유학을 가서 학업을 마친 후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자들이다.⁵⁴⁾ 그리고 일본 승려 엔닌이 당에 들어가 구법

53) 강청파의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5년에 보임.

54) 『삼국사기』권45 『최치원전』: “최치원은 소년시절부터 성격이 세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2세에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 유학을 하려할 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10년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써 노력하라!’ 치원은 당에 도착하여 스승을 따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 원년 갑오에 예부시랑 배 찬의 고시에서 단번에 급제하여 선주 율수 현위에 임명되었고, 치적의 고과를 통하여 승무랑 시어사 내공봉이 되었으며, 자금어대를 받았다.

순례하며 장안에 있을 때 신라인 이원좌(李元佐)와 교류하였었는데, 그 역시 左神策軍中尉押衙 銀青光祿大夫 檢校國子祭酒 殿中監察侍御史 上柱國 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었다.

당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개방적인 나라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방위로 개방정책을 폈다. 이는 경제무역, 사상문화 그리고 생활 습관상 세계 각 나라 및 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세계가 모두 하나라는 개념으로 소통하고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임용을 할 때도 고급관리를 포함하여 능력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용을 하여 귀화한 수많은 고려인, 백제인, 신라인, 일본인, 돌궐인, 회륜(回紇)인, 파사(波斯)인, 대식(大食)인들이 당조에서 중앙관리 혹은 지방관리를 역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도 영향을 주어 특히 원대에는 많은 아라비아인이 조정의 재무를 담당하는 흠차대신(欽差大臣)이나 대구로총관(大區(路)總管) 등을 역임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 꿈에 그리던 영광인 것이다.

이 시기 신라 유학생 중에도 입조(入朝)하여 숙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신라 왕실귀족의 자제들이 입조하여 숙위질자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엄경망(嚴耕望)의 『新羅留學生與僧徒』⁵⁵⁾의 고증에 의하면 당대 약 300년간 신라에서 당 조정에 파견한 유학생 수는 2천 명 이상이다. 마치(馬馳)의 『羈旅長安的新羅人』⁵⁶⁾ 연구에 의하면 신라 유학생은 2천명이 훨씬 넘어 3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입당 신라인에 구법 승려들을 추가하면 그

이때 황소가 반란을 일으켜, 고 병이 제도 행영 병마도통이 되어 이를 토벌하게 되었다. 그때, 치원을 불러 종사로 삼아 서기의 임무를 맡겼는데, 그 표장과 서계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55) 엄경망(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唐史研究叢稿』, 香港新亞研究所, 1969년

56) 마치(馬馳) 『羈旅長安的新羅人一說唐代東亞文化圈現象之一』, 東亞文化圈的形成與發展學術研討會, 臺灣大學歷史學系, 2002, 6월 26~28일

들이 당에서 생활한 공간은 기본적으로 장안 혹은 낙양이다. 두 경도 지역 외에서 구학(求學)하고 관리로 외임하는 자들도 적지 않지만 두 경도 특히 장안에 비하면 분명히 소수이다.

5. 승려의 입당

당에 들어가 구법유학을 하거나 주지(住持)를 하는 신라 승려의 수는 너무 많아서 통계를 내기조차 어렵다. 『東國高僧傳』, 『東國僧尼錄』, 『海東高僧傳』, 『景德傳燈錄』, 『宋高僧傳』 및 『東史會綱』, 『擇里志』, 『西崖集』, 『懲愆錄』, 『輿地勝覽』, 『三國遺事』 등에 “모두 신라인들이 바다를 건너 탐방하고 그 수가 실로 많음을 기재하고 있다.”⁵⁷⁾라고 하였다. 신라승려들의 재당 시기의 역사와 족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같은 전공자 배근흥(拜根興) 선생 역시 최근 입당신라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곧 성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

6. 재당 신라 상인과 평민

상술한 신라인들의 당 유입과 신라 평민들의 당 유입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요인이 있음을 지적해야만 한다. 신라 평민의 대규모 당 유입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이후 신라 자체의 사회동란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57) 『구화산지(九華山志)』권4(民國27년, 釋印光 重修·居士 許止淨 監定·釋德森 編輯,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7)에 “『宋高僧傳』에 모두 신라인들이 바다를 건너 탐방하고 그 수가 실로 많음을 기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시기 신라는 혜공왕이 피살된 780년을 기해 ‘신라하대’라 하는데 신라하대는 신라 역사상 전란과 재해가 가장 빈번한 시대였으며, 특히 9세기에 들어가면 왕위 쟁탈로 제위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전란은 전 신라로 퍼졌다. 한편 각 지방에서는 귀족과 농민의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9세기의 사회적 불안으로 많은 유민들이 생겨났는데 그중 ‘서변주군(西邊州郡)’, ‘웅천주(熊川州)’ 등 서남부지역이 가장 많았다. 『삼국사기』(신라본기 권10)에서는 당시 신라의 반란과 재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815년(가을 8월), 서변주군에 대 기근이 들고, 도적 떼가 봉기함
 816년(봄 정월), 가뭄이 들고 민간엔 기근이 들어, 절동(浙東)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170명이나 되었다.
 819년 3월, 초적(草賊)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820년 봄과 여름에 가뭄었고, 겨울에는 기근이 들었다.
 821년 봄에 민간에 기근이 들자 자식들을 팔아 살아갔다.
 822년 3월, 웅천주(熊川州) 도독(都督) 헌창(憲昌)은 부친 주원(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였다. 건원(建元) 경운(慶雲)원년에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의 도독과 국원(國原), 사원(四原), 금관사신(金官仕臣) 및 여러 군현령을 위협하여 자기에게 복속시켰다.⁵⁸⁾

계속된 재해와 인화(人禍)는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대량의 난민을 발생시켜 해적들이 생기게 하였다. 그래서 한반도의 서부, 서남부 해안은 유민들과 해적들이 어울려 살게 되었다.⁵⁹⁾ 유민들의

58) 오령(吳玲) 『九世紀唐日貿易中的東亞商人團』, <http://www.ch.zju.edu.cn>을 참고함.

59) 이것이 왜 장보고가 ‘중국 두루에 신라인을 노비로 삼았기에’ 일만 인 이나 되는 사람을 ‘청해(淸海)를 진(鎭)으로 삼아’ ‘도적들이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했는지의 원인이다.

주요 유입 경로는 서남부해에서 당조 연해지역을 통해 내륙까지 미치는 곳이다. 동남연해 유민의 유입 경로는 주로 동쪽 일본 연안으로 가는 것이다. 서부연해 유민의 유동방향은 동서 양방향으로 모두 있다. 동남부에서 일본연해로 가는 것은 『일본기략』, 『속일본후기』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서남부에서 당나라 연해로 가는 인구수가 당연히 가장 많았다.⁶⁰⁾ 이에 대한 중국사적의 기록은 많지 않지만 마침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기』에 수많은 실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기략』, 『속일본후기』의 관련 기록이다. 813년(日本紀年 弘仁4年), “신라인 110명이 다섯 척의 배를 타고 히젠국(肥前國) 소근도(小近島)에 왔다. 섬사람 9명을 죽여 일청(一淸) 등 101명을 포로로 잡았다. 5년(814),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렸다. ‘신라왕자가 내조하여 오면 발해의 번례(蕃例)에 준하여 취급하라. 만일 좋은 이웃으로 불리는 자가 모름지기 예의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내쫓아 돌려보내라. 또한 배나 식량이 없으면 소재지 관사(官司)에 상의하여 주도록 하라’ 겨울에는 상인 31명이 長門國에 표류해 왔고, 新波古知 등 26명이 博德津에 왔다. 7년(816), 청석진(淸石珍) 등 180명이 귀화하였다. 8년(817) 봄, 김남창(金男昌) 등 33명, 여름에는 원산화(遠山和) 등 134명이 모두 귀화하였다. 9년(818), 장춘(張春) 등 14명이 獻驢에 왔다. 11년(820) 먼저 신라를 떠나 700명이 원강(遠江)과 준하(駿河) 두 나라에 귀화했다. 때는 봄날 두 나라의 신라인들이 가택을 불태우고 이즈구니(伊豆國)의 곡창을 털어 배를 타고 돌아났다. 상모(相模)와 무장(武藏)의 병사들이 추격하여 모두 잡아들였다.”라는 기록이 있다.(『日本紀略』) 840년(日本紀年 承和7年), 또한

60) 위에 인용한 일본사적의 기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본이 신라 유민들에 대해 냉담하고 배척하며 거절하고 체포했던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신라 유민들의 당조 연해지역으로 유동량이 더욱 많아지게 만든 것이다.

“張寶高(原注에 ‘東國通鑑에는 張保臯로 되어 있음’이라 적힘)가 사신을 보내 方物(馬鞭 등 토산물을 헌상함)을 진상하였다.”고 기록한다. 842년(日本紀年 承和9년) 장보고가 사망하였다. 신라인 “이소정(李少貞) 등 40명이 築紫大津에 와서 말하기를 장보고가 죽자 그 부장 이창진(李昌珍) 등이 반란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무진주 장수 염문(閻文)이 군사를 보내 그들을 토벌하였는데, 다만 체포하다 남은 도적들이 갑자기 귀국에 들어 와서 변경을 어지럽힐까 걱정입니다. 만약 선박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문부(文符)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소재를 도용하는 것이니 추문하여 붙잡을 것을 청합니다.”라며, “이 해 장보고가 섭정하던 도민(島民) 여사(呂系) 등이 귀화하였다.”라고 적고 있다.(『續日本後紀』)

신라의 왕위쟁탈과 전란에 대해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839년 “아침에 신라인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왔는데 장보고가 신라왕자와 마음을 합쳐 신라국을 벌하고 그 왕자로 하여금 신라국 왕자를 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루어졌다.”라는 기록과(권2, 개성(開成)4년 4월 19일) 또 “대당(大唐) 천자(天子)가 신라왕자에게 왕위를 하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권2, 4월 24일) 필자의 생각에 이 시기 신라 왕위는 교체기 잦았다. 『三國史記 · 新羅記』에 의하면 희강왕(僖康王)은 836년에서 838년, 민애왕(閔哀王)은 838년에서 839년, 신무왕(神武王)은 839년으로 같은 해에 문성왕(文聖王)으로 바뀌었다. “대당 천자가 신라 왕자에게 왕위를 하사하였다.”라는 말에서 하사한 것은 신무왕 혹은 문성왕(839~857)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중에 서적이 없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더욱 많이 기록한 것은 당 개성5년(839)에서 대중(大中)원년(847)까지 근 십여 년간 당에서 구법순례라는 고생스런 여정 중 친히 만난 수많은 신라 교민의 재당 생활 상황들이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재당신라인의 수는 아주 많았고 주로 산동반도 연해와 강회연해, 운하 주변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상인, 뱃사공, 선원, 승객운송, 화물운송, 농사, 통역, 관원, 승려, 노비, 솟쟁이, 선박수리, 조선, 염전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산동반도와 강회 지역의 도시와 향촌마다 북으로는 등주, 래주, 밀주, 청주, 치주, 남으로는 해주, 연주, 초주, 양주, 소주, 명주 등지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흩어진 교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당나라 땅에 들어온 신라 상인들은 연해나 연하 지역 및 내륙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혹은 해상운수판매를 하며 한반도, 중국대륙, 일본열도에서 활동하면서 광범위한 해상상업망을 구축한 것이다. 내륙에서는 당연히 경도인 장안과 낙양이 가장 많았다. 그들이 경사(京師)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나는 소비집단은 주로 소비수준이 높은 자들로 조정의 황실인척이나 고관대작들도 있었다. 그리고 경사에는 신라에서 온 숙위절자 등 신라국 왕실 자제 등이 있어서 그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지인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경도 장안에서 이원좌(李元佐)처럼 고관을 역임하고 있는 재당신라인도 있었다. 이처럼 상인들은 머리를 굴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들 중에는 오늘날의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신라 상인은 백거이(白居易), 원진(元稹) 같은 유명인의 시문이 신라에서는 틀림없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鷄林賈人(신라상인)이 시장에 와서 절실하게 구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본국의 재상께서는 매번 금 한 냥으로 한 편을 사시는데, 위조품은 재상이 보시고 판별해 내신다’고 하였다.”⁶¹⁾라는 기록이 보인다. 당인 주경현(朱景玄)은 『唐朝名畫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방(周防)은 자(字)가 중랑(仲朗)으로 경조(京兆) 사람이다. 절도사가 된 후 문장 짓기를 좋아하였고 회화(丹青)

61) 『구당서』권166 『열전』제116

의 묘미를 추구하였다. …… 書畫(卷軸)가 매우 많았다. 정원(785~805) 말, 신라국의 어떤 사람이 강회에서 좋은 가격에 수십 권을 구입하여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갔다.”고도 한다. 이는 이러한 유명인의 문학예술작품이 당시에 어떠한 과급효과와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는가와 어떻게 해동(海東)의 여러 나라에 전달되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신라상인의 나당(羅唐), 나일(羅日), 당일(唐日) 간 해상에서 펼친 활약상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밝힌 바 있어 이 중 신라상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상황을 아래와 같이 열거해 보겠다.⁶²⁾ 9세기 초에서 9세기 중엽에 그 해상활동이 가장 빈번함을 볼 수 있다.

弘仁5년(814), 신라 상인 31인이 나가토구니(長門國) 豊浦郡에 표류하였다.(日本後紀)

弘仁9년(818), 신라인 장춘(張春) 등 14인이 다자이후(大宰府)에 와서 말 4두를 헌상하였다.(日本紀略)

弘仁10년(819), 신라인이 당 월주인(越州人)인 주광한(周光翰)과 언승칙(言升則) 등을 데리고 일본에 왔다.(日本紀略)

弘仁10년(819), 신라인 왕청(王淸)과 당인 장각제(張覺濟) 형제 등이 교역을 하자는 이유로 당에서 출발하여 3개월에 걸쳐 테와노쿠니(出羽國)에 표류해 왔다.(入唐求法巡禮行記)

弘仁11년(820), 이소정(李少貞) 등 20명이 테와노쿠니(出羽國)에 표류해 왔다.(日本紀略)

弘仁11년(820), 신라인 장장행(張長行) 등이 ××양 2두, 백양 4두, 산양 1두, 학 1마리 등을 진상하였다.(日本紀略)

天長1년(824), 신라인 장보고가 다자이후에 왔다.(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2년(835), 근년 신라 상인들이 壹岐島에 끊이지 않고 온다.(續日

62) 오령(吳玲) 『九世紀唐日貿易中的東亞商人團』, 절강대학 인문학원 일본연구소 석사 논문집 <http://www.ch.zju.edu.cn/rwxy/rbs/shuoshilunwenji/WULING.htm>에서 참고.

本後紀)

承和7년(840),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 방물을 진상하였다.(續日本後紀)

承和10년(843), 신라인 장공정(張公靖) 등 26인이 당 초주에서 출발하여 나가토구니(長門國)에 왔다.(續日本後紀), 入唐求法巡禮行記)

承和14년(847), 신라인 김자백(金子白), 흠량휘(欽良暉), 김진(金珍)과 당인 강장(江長) 등 43인이 소주에서 출발하여 다자이후에 도착하였다.(入唐求法巡禮行記)

신라상인들이 당에서 활동한 것에 관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정사(正史)의 기록은 극히 드물고 당인필기(唐人筆記)와 유기(遊記) 등에서 자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9세기 중엽 일본 승려 엔닌이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가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다. 그가 당에서 만난 다양한 부류의 신라인 중에는 특히 상인이 많았다. 하지만 과거의 연구에서는 ‘신라역관(통역)’과 선원 역시 상인으로 간주하는 등 전체 상업과 운수업에 고용되어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상인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상인’은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들이 ‘중국 상인’, ‘한국 상인’, ‘일본 상인’, ‘미국 상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상인 개념에는 그들에게 고용된 화물배달, 세관업무, 자문서비스, 상품수리를 하는 일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역사상 어떤 사람이 ‘상인’이고 ‘상인’이 아닌지를 연구할 때는 그 범위의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역사연구를 하는데 오늘날의 상업사회의 관점으로 고인(古人)들을 덮어씌우면 절대로 안 된다. 마치 그저 상인이면 좋고 상인으로 간주해야만 그들을 중시하고 대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진실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소속된 일본 견당사 일행이 일본에서

물고 온 배가 파손되어 초주에서 재당신라인 선원들을 고용하였는데, 한 번에 60여 명을 고용하였다. 그들은 5~6명 또는 7~8명씩 팀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9척의 배를 가지고 왔다. 일본 건당사 일행은 이 배에 나누어 승선을 하였는데 각 배마다 다섯, 여섯 혹은 일곱으로 각기 다르게 탔다. 이들은 분명 항해를 위해 고용된 선원들이었지 어떤 상호를 가진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주 해상을 왕래하여 해로를 꿰뚫고 있었고, 수로를 안내하는 일이나 해상운수 등에 고용되었다. 자신의 항해 경험과 체력을 팔아 생계를 도모한 것이다. 엔닌은 동해현(東海縣) 황교(荒郊) 야외에서 신라인을 만났는데, “우리는 밀주에서 왔고 선박에 탄을 싣고서 초주로 갑니다. 본래 신라인인 자들이 수십 명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인 진충선(陳忠船)이 뱃삿으로 비단 다섯 필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더욱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엔닌이 노산(嶗山)에 머물며 귀국하는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소주에서 인편으로 보내온 당인 강장(江長), 신라인 김자백(金子白), 흠량휘(欽良暉), 김진(金珍) 등의 서신을 받았는데, 강장 등이 탄 배가 소주 송강(松江) 하구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갈 예정이니 노산에서 기다리면 중간에 들러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당인 강장, 신라인 김자백, 흠량휘, 김진 등이 선박의 선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배에 한 사람을 태우면 그만큼 뱃삿을 더 챙길 수 있고 그렇게 먼 해로라면 뱃삿으로 비단 다섯 필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 배가 일본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엔닌의 기록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선적화물 장사를 하는 상주는 누구인지, 당인 강장, 신라인 김자백, 흠량휘, 김진 등은 아닌지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우연히 장보고가 파견한 ‘대당회무사(大唐回務使)’인 최훈(崔暉)을 처음 만난 것을 제외하고(두 번째

로 그를 만난 것은 ‘국난을 만나 연수에 도망 와서 살았기’ 때문이다.) 당에서 장사를 하는 신라인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재당신라인 중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했을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장사를 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엔닌이 당에 있던 기간에 연해지역에서 일본의 견당사 일행과 승려를 제외하고는 기타 일본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일본인 교민은 더 더욱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 등에 사는 신라인들과 사귀고 신라인들과 교류하였다. 이런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의 신라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엔닌은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기록 안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엔닌은 처음 입당했을 때 연수현의 신라방에 기거했으며, 다시 귀국할 때도 연수현의 신라방에 들렀는데 “신라방 사람들과 만나면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았으며, 총관 등에게 가도 알아보기가 힘들어 매사가 어려웠다.”라고 했다. 엔닌이 신라방의 입주를 신청하며,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장관(縣長官)은 차와 음식을 제공해 줄 뿐 여전히 신라방의 관리규정을 엄격히 지켜, 외부인이 입주는 반드시 증인이나 보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엔닌의 보증인이 되어주지 않고 모두 그를 모른다고 하여 결국 그는 신라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방 사람들이 엔닌을 대하는 태도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볼 때 상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그들이 연수현 성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연히 일부는 상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풍족해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그마한 장사를 해서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을 뿐이었다. 신라방 안의 더 많은 사람들은, 즉 주부현성(州府縣城) 시민사회의 상업서비스업 종사들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제3차 산업’, ‘굴뚝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해운이나 하운(河運) 교통무역 등 유통업자나 선

원 등이었다.⁶³⁾

신라방과 신라촌에 대한 관리는 당 정부의 규정이 매우 엄하였다. 따라서 모든 주현향(州縣鄉)의 관부와 신라소를 관리하는 조직 또는 현지 백성들은 감히 당 정부의 법령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 이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 곳곳에서 이러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지인이 신라방이나 신라촌의 관리에 대해 쉽게 대하는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너무 엄하여 오늘날 우리가 봐도 다소 가혹할 정도다. 회창(會昌)5년, 엔닌은 초주를 경유하며 “먼저 신라방에 들어가서 해당 주 총관인 설(薛) 장군과 신라 역관 유신언(劉慎言)을 만났는데 서로 정성스럽게 문안하였다.”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설 총관과 신라 역관 유신언은 신라방에 거주하거나 혹은 이들이 업무를 보는 관청이 신라방 안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엔닌이 귀국하는 도중 재차 연수현의 신라방에 머물고자 하였으나 자신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몹시 실망하며 떠난다. 그리고 신라관에 사는 사람으로 신라인 최훈(崔暲) 제십이랑(第十二郎)은 원래 청해진 장보고의 병마사였다가 국난을 만나, 연수로 도망와서 거주하게 된 사람이고 그 외에도 두목의 『장보고와 정년전』에 의하면 신라인 정년 역시 연수현에 머물렀었는데, 정년은 연수에서 헐벗고 가난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⁶⁴⁾ 두목의 전(傳)에 의하면 정년과 장보고는 모두

63) 『진당문』권21 陳子昂 『上軍國機要事』에 “江南, 淮南의 여러 州에서 배를 수천 척 빌려 鞏洛에 도착하면 백여 만곡이나 되었다. …… 그 선원들은 대다수 객호, 건달, 백수, 무뢰한, 잡색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연해지역 및 운하 연안지역에서 뱃사공과 선원을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호유민과 기타 직업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64) 두목의 『번춘문집(樊川文集)』과 『신당서』권220 『신라전』에 (신라인)장보고와 정년이란 자가 있는데 모두 전투를 잘하였고 창을 잘 썼다. 정년은 또한 잠수를 잘하여 바다 속으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차지 않는 등 그 용맹과 건강함을 두각 시켰다. 하지만 장보고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년은 장보고를 형이라 불렀는데 보고는 나 이로써, 정년은 재능으로서 항상 의견이 어긋나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둘 다 당나라로 들어와 무령군 소장을 하였다. 훗날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에게

둘 다 당나라로 들어와서 무령군 소장(武寧軍 小將)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장(小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대다수 인정하는 ‘나이 어린 장군’이 맞는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두목의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갈 때가 서른 살이고 정년이 겨우 20살이므로 만약 그 자신이 ‘나이 어린 장군’이라면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가고 10년이면 그가 서른이 되어 마침 ‘청년장군’에 해당된다. 또한 연수에서 험벗고 빈한한 객이 되어 버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초 그와 장보고는 무령군 소장이 아니라 무녕군의 소군관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초주에는 신라방 외에도 ‘공강원(公康院)’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주부관부(州府官府)의 ‘공무초대소(公務招待所)’로서 유신언(劉愼言)이 관리를 맡고 있는 곳인지도 모르겠다. 회창6년(847) 6월 5일, 엔년 일행이 재차 초주를 경유하자 총관은 유신언을 사절로 보내 영접하게 하고 견당사 일행 중 우두머리의 짐을 옮겨주고, 공강원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였다.

“전체 중국에서 신라인을 노비로 삼고 있으니, 바라건대 청해(淸海)를 지키는 일을 맡기시면 도적들로 하여금 사람을 약탈하여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왕이 장보고에게 1만 명을 주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청해는 신라해로의 요충지로 大和연간 이후 해상에서 신라인을 매매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장보고는 나라에서 이미 귀하게 되었는데 정년은 연수에서 험벗고 가난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하루는 정년이 술주(戊主)인 풍원규(馮元規)에게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 장보고에게 의탁하려 하오.”라고 말하자 원규는 “장보고의 무엇을 믿는 것이요? 어찌하여 그의 손에 죽으려고 하시요?”라고 묻자 정년은 “끓주리고 열어서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요. 하물며 고향에서 죽을 수 있지 않소!”하고는 돌아갔다. 신라에 도착한 정년은 장보고와 술을 마시면서 기쁨을 다하였는데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대신들이 그 왕을 살해하고 나라가 어지러워 주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장보고는 군사 5천 명을 정년에게 나누어 주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가 아니면 능히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년은 나라에 들어가 반역자를 주살하고 왕을 세운 후 보고하였다. 왕은 이에 장보고를 불러 재상을 삼고 정년에게 대신 청해를 지키도록 하였다. 필자 생각에 두목의 『장보고·정년전』의 앞 문장의 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보고와 정년은 그들 나라로부터 서주로 와서 군중소장을 맡았다. 장보고의 나이 서른, 정년은 열 살이 어리므로 호형호제한다. 둘 다 전투에 뛰어나고 말을 타고 창을 잘 휘둘렀는데, 본국과 서주에는 대적할 자가 없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신라촌, 신라방, 신라원에 거주하던 대량의 재당신라인이 바로 인구의 주류이다. 인구수를 가지고 말한다면 신라에서 입당한 사절단, 숙위시자, 유학생 등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수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많은 신라인이 당에 들어오게 된 것은 밀접했던 나당관계와 신라 국내 의재해와 기근으로 당조대륙으로 살길을 찾아 왔으며, 동시에 해적에게 붙잡혀 당으로 와 노비가 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비록 “전체 중국에서 신라인을 노비로 삼고 있다.”는 말이 과장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인구 수도 상당히 많았다. 이 두 종류의 인구는 재당신라인의 주류가 되었고 그들을 상인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평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의 실체에 더 부합한다.

다음으로 인구 주체 중 하나인 노비 인구에 대해 고찰해보자.

7. 노비 인구

신라 노비 인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룬 문제였으나 다른 종류의 당 유입인구인 숙위질자(宿衛質子), 유학생, 구법승 등에 비해 대부분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해 본다.

당조는 노비 인구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당회요(唐會要)』 권86 『노비(奴婢)』 항목에는 “구제도에 모든 반역자들은 연좌되어 그 집안 전체가 관가의 노비가 된다. 반역자가 노비가 되어 관직을 빼앗기면 그들을 모두 관노비라고 부른다. 14세 이하의 남자는 사농(司農)에서 노역하도록 하고, 15세 이상이면 나이가 많으므로 경읍(京邑)을 떠나서 영남(嶺南)에 보내 성노(城奴)가 되도록 하였다. 한

번 면해지면 번호(番戶)가 되었고, 재차 면해지면 잡호(雜戶)가 되었으며, 세 번 면해지면 양인(良人)이 되었다. 면천은 성은에 의한 것으로 한 등급씩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바로 양인이 되기도 하였다. 모든 율령에는 관호(官戶, 범죄자나 그 가족들을 관부에서 복역하도록 하며 특수한 호적으로 편입시키는 것)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번호(당대 1차 사면을 받은 관노나 관비)의 총칭이지 따로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이와 같다면 당 정부는 부단히 조령을 반포하고 제칙(制勅)을 만들어 노비를 놓아주고 양인으로 환원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훗날 노비 매매시장이 형성되자 당조는 계속 이를 금지시켰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당회요』권86 「노비」 항목을 분석해 보겠다.

방량(放良, 노비를 놓아 양인이 되게 함). “현경(顯慶)2년(657) 12월에 칙령을 내려 모든 노비를 양인으로 환원하고, 부곡(部曲)의 객녀(客女)에게까지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모든 관노비 중 60세 이상인 자와 병든 자는 면천하도록 한다.”라고 했다.

“금한(禁限). 대족(大足)원년(701) 5월 3일 칙령을 내려 서북의 변경 주현(州縣)은 돌궐노비를 보유할 수 없다.” “경룡(景龍)3년(709), 사농경(司農卿) 조리온(趙履溫)이 상주(上奏)하였다. 수대(隋代) 번호 자손 수천 가(家)가 관노비로 몰락하였으니 이들을 사면하자는 충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찰어사(監察御使) 배자여(裴子餘)는 관호라는 승을 입어서 처음으로 번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그 자손들이 있으니 물리칠 수가 없기에 사면을 주청합니다.”라고 했다. 천보(天寶)연간이 되면 관노비 숫자에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한을 둔다. “천보8년(747) 6월 18일에 칙령을 내려 경기 및 여러 군(郡)의 백성들은 사가(私家)에서 급사(給使)로 부리는 자가 있으면 5명 이내로 제한하니 남은 인력은 모두 내시성(內侍省)으로 보내도록 하라. 그 가운데 南口(고대 남방 변경지역에서 팔려온 사람)나 계약서

가 분명한 자는 그 숫자를 제한하여 정한다. 비록 왕공(王公)의 집안이라도 20명을 넘을 수 없다. 그 직책이 일품(一品)이면 12명을 넘을 수 없고, 이품이면 11명을 넘을 수 없으며, 삼품이면 8명을 넘을 수 없고, 사품이면 6명을 넘을 수 없고, 오품이면 4명을 넘을 수가 없다. 경도 문무청관(文武淸官)의 육품과 칠품은 2명을 넘을 수가 없고 팔품과 구품은 1명을 넘을 수가 없다. 군왕(郡王), 군주(郡主), 현주(縣主), 국부인(國夫人), 여러 현군(縣君) 등의 후계자들은 각자 본품(本品)에 의거하도록 하라. 같은 직분 및 경청(京淸) 자관들은 처분하라. 별도로 승은으로 하사받은 것은 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친이나 조상에게 음보(蔭補)가 있는 집안은 각자 음보로 받은 직분에 따라 감소한다. 임용자에 비해 반으로 한다. 남구(南口)로 촉만(蜀蠻)이나 오계(五溪) 영남(嶺南)의 이료(夷獠) 같은 류는 금지한다.”라고 명했다.

금공(禁貢). “대력(大曆)14년(779) 5월, 조령을 내렸다. 웅부(邕府)에서 매년 노비를 공납하는데 부모의 고향을 떠나게 하고 골육의 정을 끊게 하는 것은 인(仁)이 아니다. 의당 그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상은 관노비 인구에 대한 제한인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은 모두 8세기 이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9세기로 진입한 이후에는 새로운 상황이 출현한다. 노비에 대한 매매가 갈수록 보편화되어 일종의 인신매매가 생겨난다. 원인은 적어도 3가지이다. 첫째는 양세법의 실행 후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서(이는 농민이 토지를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결과이다) 세상에는 상인들이 많아지고 돈 많은 자들이 생겨나면서 서비스업이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서비스업 인구에는 심지어 매춘업에 종사하는 이도 있다. 세 번째로 해양국제무역의 발전은 다양한 국가별 인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야기시켜 인구

의 국제유동성이 커지고 노비무역 특히 해외노비시장의 수요가 더욱 활발해졌다.

노비매매무역에 대해 당 정부는 원화(元和)연간(806~820) 조령을 반포하고 제칙(制勅)을 만들어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원화4년(809) 윤3월 칙령을 내렸다. 영남(嶺南)의 검중(黔中) 복건(福建) 등의 백성들은 비록 각기 다른 풍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들에게 약탈당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어찌 가까운 정이 없다하겠는가. 연공(緣公)이 사사로이 노비를 약탈하고 매매하면 의당 관할지역의 장리(長吏)가 그를 체포하여 심문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명한다. 양인의 백성이 아님이 확실하면 교역을 허가한다. 위법자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했다. 또한 “원화8년(813) 9월 조령을 내렸다. 영남의 여러 도(道)에서 양인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득을 노리는 무리들은 양인을 말과 바꾸기도 하였다. 관할지역 장리에게 칙령을 내려 이들을 엄격하게 체포하라고 하였다. 만일 장리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사대(御史臺)를 보내 시찰할 것이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노비매매는 북방 연해, 산둥반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절강 연해 등 바다를 이은 여러 지역에서 신라인을 사고팔았다. 이는 이씨 일가가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 겸 압신라발해양변사(押新羅渤海兩蕃使)를 담당할 때 이미 출현 또는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이씨는 결코 이러한 국면을 제어하지 않았으며 혹은 고의로 조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가 부족하여 역측할 수는 없다. 다만 평로치청 번진이 진압되고(819) 곧이어 절도사 겸 신라발해양변사(新羅渤海兩蕃使)로 임명된 설평(薛平)이 부임 후 삼년간 조정에 보낸 상주에 의하면 전임 이씨 일가는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장경(長慶)원년(821) 3월, 평로군 절도사 설평이 상주(上奏)하기를

“신라 양인을 노략하는 해적들이 등주, 래주 등 여러 지역을 장악하고 노비를 팔고 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신라국은 비록 외이(外夷)지만 항상 正朔(음력 정월 초하루)에 보고하고 조공이 끊이지 않으며 우리 본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인 양인들이 해적들에게 붙잡혀와 팔리니 이는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칙령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오랫동안 해적질에 빠져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십시오. 수복된 이래로 길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서로 판매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살피건대 특별히 훌륭한 칙령을 내리셔서 오늘 이후로는 연해지역에서 신라국 양인들을 판매하는 등의 일은 일체 금지시켜주십시오. 해당지역 관찰사에게 엄격하게 체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위법을 하면 법에 따라 처단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황제는 “교지를 내리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평로절도사겸압신라발해양번사 설평이 올린 상주에서 “수복된 이래로 도로에는 저지하는 일도 없고 서로 판매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연해의 여러 道에 특별히 훌륭한 칙령을 내리셔서 신라국 양인을 노비로 매매하는 현상을 일체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산동반도 및 강희 지역 등 여러 연해지역은 번진이 수복되기 이전부터 대량의 신라인이 노비로 매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 정부의 정책은 주효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해적들에게 잡혀와 매매된 신라인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조정의 정책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고 신라 측도 역시 이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이들을 일시에 돌려보낼만한 선박도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령 그들을 신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도 신라 내부에 전란과 재해가 이어져 이미 돌아갈 집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당 조정은 이들을 인도적으로 처리하여 원칙적으로 신라의 요청에 따라 귀국을 허가하였으나 귀

국을 원치 않으면 당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長慶)3년(823) 정월, 신라국 사신 김주필(金柱弼)이 상문(狀文)을 올렸다. “성은으로 칙령을 내리시어 양민이 매매되는 것을 금하시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노약자는 거처한 집이 없고 대다수 바닷가 마을에 기거하므로 돌아가길 원하나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 해안가 주현(州縣)에 공문을 내리시어 매번 배편이 있으면 귀국하는 것을 허가하시고 주현의 제약이 있지 않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교지를 내리니 “신라인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바른 칙령을 찾아라. 만일 그들이 기거할 곳이 없다면 정말로 귀국하도록 해주는 것에 합당하다. 해당 관할 주현에서는 의당 조사하고 상의 후 결정하라. 본국 백성임을 책임지고 조사하여 귀국하길 원하는 자는 돌려보내도록 하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신임 평로절도사겸압신라발해양변사로 신라 양인의 노비매매 금지를 주도적으로 상주한 설평으로 인한 실제 효과는 어떠한가?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았으며 심지어 재난이 강물처럼 범람하게 된다.

“보력2년(827) 11월에 칙령을 내렸다. 조관(朝官) 및 절도관찰사는 금일 이후부터는 결코 사적으로 부리는 사람을 다시 배치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조정이 전국적인 상황에 착안하여 재차 고위층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화(太和)2년(828) 10월에 칙령을 내렸다. 영남, 복건, 계관(桂管), 옹관(邕管), 안남(安南) 등지의 백성들은 양인을 노략하여 매매 및 증여하는 일을 금지한다. 진후 제칙(制勅)으로 중첩하여 처분하고자 하니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위중행(衛中行), 이원지(李元志) 등은 비록 다 팔아버렸다고는 하나 그 수가 실로 지나치게 많다. 의당 본 도에서 시행할 것을 각각 명령한다. 원화4년 윤3월 5일에서 원화8년 9월 18일까지의 칙문에 준하여 제약을 시행한다. …… 중요

한 전적 및 영문(詔文)에 의거하여 면천하고 양인의 조항을 따르게 한다. 근년에 비록 사면을 하였지만 여러 관리들이 모두 논의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은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지금 여러 관리와 청하니 각자 관호의 노비를 조사하라. 병든 자나 나이가 칠십이 다된 자는 각 명령에 따라 처분토록 하라. 그 신라노비들에 대해서는 삼가 장경(長慶) 원년 3월 11일에 내린 칙령에 준하도록 하였다. 신라 양인을 노략하는 해적들이 연해의 여러 지역에서 노비를 판매함으로 이도 함께 금지시켰다. 비록 분명한 칙령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기에 다시금 이전의 칙령을 분명히 진술하니 여러 도는 확실하게 금지할 것을 재차 하명한다. 교지를 내리니 그대로 행하라.”라는 기록도 보인다. 이는 태화2년(828)까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해적들이 신라양민을 노략하여 노비로 매매하는 현상이 더욱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때문에 당에서 종군을 하고 있던 신라인 장보고는 더 이상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근원지인 바다 건너 신라에서부터 이들을 해적을 제압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해 828년 당에서 신라로 돌아와 청해(淸海)에 진(鎭)을 설치하여 해적들이 신라인을 노략하고 자 출현하는 그 ‘해로의 요지’를 지키는 것이다.⁶⁵⁾ 이때부터 한편으로 신라 측에서는 장보고의 일만 병사가 바다를 제압하였고 당 조정에서도 계속하여 해적을 섬멸하였기에 이후 신라인을 노략하여 노비로 매매하는 현상은 사라지게 되었다.

장경(長慶)3년(823)부터 신라국 사신 김주필(金柱弼)이 당 조정에 상문을 올려 귀국 허가를 받았지만 많은 신라 노비들은 결코 신라

65)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신라』에 “훗날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서 흥덕왕에게 말했다. ‘전체 중국에서 신라인을 노비로 삼고 있으니, 바라건대 청해를 지키는 일을 맡기시면 도적들로 하여금 사람을 약탈하여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충지이다. 왕이 장보고에게 1만 명을 주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대화연간 이후 해상에서 신라인을 매매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구가 향한 곳은 어디인가?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우선은 도시로의 유입이다. 앞의 내용에서 장강 하류의 연해도시 및 도시 경제가 9세기에는 매우 빨리 발전되므로 양인으로 회복된 많은 노비들이 받아들여진다고 기술하였다. 그들은 혹은 수공업 공방에 종사하였고 혹은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다. 특히 연해 연하 지역에서는 해운이나 하운업의 뱃사공이나 선원이 되었다.⁶⁶⁾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선주나 사업의 상주(商主)는 아니었다. 선주나 상주는 일반적으로 배를 타지 않았다. 당대 도시는 시(市)와 방(坊)으로 분리되는데, 방은 거주 지역이고 시는 상업지역으로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서술한 개성(836~840)과 회창(841~846)연간에 본 수많은 신라방, 신라 뱃사공, 선원 등은 바로 이 시기의 산물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찰과 도관(道觀)으로의 대량 유입된다. 당대의 강희 지역은 사찰과 도관이 매우 많아 사원이 가장 밀집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원과 도관에 들어가 머리카락 승려가 되거나 소작농 또는 노비가 되었다. 회창5년(845)에 중서문하(中書門下)가 상주하였는데, “천하의 여러 사찰 노비 가운데 강희의 사람 수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하였다.⁶⁷⁾ 무종 회창의 법난 시기에 “사원 4천6백개를 제거하니, 계관(笄冠) 승려 26만5백, 그 노비가 15만, 양인으로 사원에 종속되어 허드렛일을 하는 자들이 계관 승려 숫자의 배가 되었고, 양전(良田)도 수천만 경이나 되었다.”⁶⁸⁾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승려, 노비가 40여 만인데 ‘양인으로 사원에

66) 『전당문(全唐文)』권221 진자양(陳子昂) 『上軍國機要事』에 “강남, 회남(淮南)의 여러 주(州)에서 배를 수천 척 빌려 공락(鞏洛)에 도착하면 백여 만곡이나 되었다. …… 그 선원들은 대다수 객호, 건달, 백수, 무뢰한, 잡색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연해지역 및 운하 연안지역에서 뱃사공과 선원을 충당하는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67) 『당회요』권86 『노비』

68) 『번천문집』권10 『杭州新造南亭子記』

종속되어 허드렛일을 하는 자들' 즉 사원에 의지해서 사는 인구가 계관 승려의 배가 되는 수다. 즉 50만 이상이 되어, 둘을 더하면 모두 90만 이상 약 100만 인구가 된다.⁶⁹⁾

『당회요』권8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회창5년(845) 4월, 중서문하가 상주하였다. “천하의 여러 사찰 노비 가운데 江淮의 사람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원이 이미 폐쇄되어 승려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노비들은 의식이 없어 모두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혹은 홍담관내(洪潭管内)에서 들으니 사람 수가 일천 명 이하 오백 명 이상인 곳도 필시 많을 것이라 합니다. 신(臣) 등은 상의하여 바라노니 본 지역에 관찰사가 청렴 강직한 관리를 파견하여 본 주(州)의 자사(刺史)와 현령(縣令)들과 함께 점검을 하여 현재 인구수를 살피보기를 바랍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일일이 분석하여 상주해야 합니다. 만일 먼저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납부하는 자도 역시 별도 항목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심히 걱정은 양심 없는 관리와 부호, 상인, 백성, 강유(綱維) 등이 은폐할 것을 계획한다면 일은 필시 법령이 더욱 준엄해져야 합니다. 만일 범인이 있으면 노비로 계산을 합니다. 이십 천 이상이 되면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관인과 사대부는 주청을 금하라. 만일 검거하여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노비로 상을 충당해줘야 합니다. 사람 수를 알게 되면 이어서 조례(條例)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성(京城)의 위공덕(委功德) 역시 이 조례에 준거하여 숫자를 갖추고 상주하였습니다.” 교지가 내려지기를 “상주한 대로 하라.” 그 해 8월에 중서문하가 상주하였다. “천하의 사원을 폐지하고 노비를 놓아주어 양인 백성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들으니 세구(細口)가 있다고 하는데, 자사(刺史) 이하의 관인들과 부호, 의관, 상인, 백성들 중 은폐를 계획하면 물량과 전물을 색출해야 합니다.” 칙령이 내려진 후 “이와 같은 기색이 다시 일어나면 부모에게 돌려보낸

69) 본 절의 호구를 고증한 내용은 진용(陳勇)의 『唐後期長江下游戶口考』 『中國史研究』, 1997년 제4기

다. 만일 이전의 은폐에 의거하였다가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관인 이하 상인, 백성 등은 극형으로 처한다. 그 일을 고발한 자는 매 사람마다 일백 천을 상금으로 주는데, 관전(官錢)으로 급여하고 이어서 범인에게 납부를 추정한다. 교지를 내리기를 의당 따랐다.”

회창6년(846) 2월에 칙령을 내렸다. “산남(山南)과 강희 사이에 사원 노비는 근래 칙령이 있어 개혁을 하였습니다. 간혹 부모가 남녀를 돌려보내고자 하나 세월이 너무 흘러 사정상 칙령을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인사를 어지럽힐까 걱정입니다. 만일 이 같은 기색이 있으면 근거에 따라 점검하고 의당 받아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창원년 이후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창 이후로도 여전히 노비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머물러 있던 민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점검하여 송환하지 않았다. 그저 회창 이후 새로 매매된 노비를 점검하여 돌려보냈을 뿐이다.

이는 도시로 들어가 서비스업이나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 이외에 사원에 의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제3의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은폐되어 오래전부터 노비생활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일본인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당 개성(836~840)에서 회창(841~846)연간에 사원에 의탁해 사는 수많은 신라인들, 예를 들어 적산법화원에는 경전을 듣는 대중들이 종종 이삼백이었는데 ‘모두 신라인’이었고 바닷가 촌락에는 많은 신라인가가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는’⁷⁰⁾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당시의 상황을 진실되게 기록한 것이다.

신라방, 신라촌, 신라원은 진정으로 이 시기 산물이다.

70)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開成)4년(839) 4월 26일 : “얼마 되지 않아 압아(押衙)가 운행하는 신라선이 왔다. 배에 내려 땅에 올랐는데 남자가 많이 있었다.”

IV. ‘등주해도(登州海道)’와 이정기 일가

1. 개설

주지하는 바와 같이 9세기 이전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열도 삼자 간의 주요 항로는 축도(逐島)근해항로라는 전통 북방항로다. 『당서』에 고탐(賈耽)이 기술한 ‘등주에서 바다로 고려·발해로 들어가는 길’로써 이 전통 해로의 남단은 당대 하남도(河南道)에 속해있던 동반도(東半島) 지역이고 그 북단은 요동반도로 당시 하북도에 예속되어 있었다. 서기 761년 이전 하북도에는 평로군(平盧軍) 절도(節度)에 ‘압번(押蕃)’을 추가한 직책이 있었고 하남도에는 치청군(淄靑軍)은 있었으나 절도는 없었고 ‘압번’은 더욱이 없었다. 서기 761년 이후에 평로군이 요동에서 산둥으로 옮겨오면서 치청군이 평로치청군절도로 변하게 되었고 765년부터 평로치청군절도사(平盧淄靑軍節度使)가 ‘압번’이란 직책을 겸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평로군절도사가 ‘관할(押)하던 해(奚), 계단(契丹) 양번(兩蕃)’을 관할하지 않게 되자 평로군절도사가 관할하던 ‘양번(兩蕃)’이 ‘압신라발해양번’으로 바뀌는데 이는 아주 중대한 변화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765년 이정기가 원 평로치청군절도사 후희일(侯希逸, 이정기의 고종사촌 형제, 후희일의 모친이 이정기의 고모)을 축출하고 정왕(鄭王) 이막(李邕)⁷¹으로 대체하였다가 세 번째로 평로치청절도사를 맡았는데 이때부터 평로치청군절도사는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를 겸직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라·

71) 『구당서·본기 제11』 : 영태(永泰) 원년(765) 7월, “평로치청군절도사 후희일은 부장 이회옥(李懷玉, 훗날 이정기라는 이름을 하사받음)에게 축출 당한다. 정왕(鄭王) 막(邕)(을 평로, 치청군절도대사로 제수하고 회옥은 뒷일을 권한 대행하도록 한다.”

발해 양변'을 관할하는 것은 평로치청군절도대사가 당 중앙으로부터 부여 받는 중요한 사명(使命)이 되었다. 하지만 이정기는 이 시기부터 점차 걸으로는 중앙왕조를 받들고 속으로는 거스르는 변진할거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학계에서 이정기 일가에 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있지만 이 평로치청 지역과 동북아지역 및 신라 간의 관계와 해상왕래 그리고 이 지역 신라교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현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정기 일가는 원래 고구려의 후예로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부터 근 백여 년 후인 765년에 平盧淄靑軍節度使 겸 押新羅渤海兩蕃使로 임명된 이정기가 자신의 조국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으며,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량으로 유입된 신라 교민들을 위해 어떠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을까?

이정기 일가는 765년 이정기가 평로치청군절도사 겸 압신라발해 양변사에 임명된 후 17년(765~782)간 역임하였고 그 아들 이납이 10년(782~792), 그리고 납의 아들 이사고가 14년(792~806), 또 다른 납의 아들 이사도가 13년(806~819)간 삼대 4인 55년(765~819)에 걸쳐 역임하다가 819년 중앙의 삭번대군(削藩大軍)에 의해 평정되었다. 장장 반세기에 걸친 55년간 이씨들이 평로, 치청 지역을 '변진할거'한 시기에 당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가? 나당관계와 신라인의 당 유입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 이 시기의 평로, 치청 지역과 산둥, 하북, 강희 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사회상황은 어떠한가, 국내외 무역은 어떠한가, 신라반도와 일본열도와의 해상교류는 어떠한가? 당시 이 지역 신라인의 지역적 분포 상황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분명해지면 재당신라 인구의 연해 분포의 각기 다른 시기 사회역사 배경과 경제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해질 수 있다.

2. ‘押新羅渤海兩蕃使’와 ‘押兩蕃·渤海黑水四府使’

이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왜 당 대종(代宗) 영태(永泰)(765)에 이르러서야 평로군이 치청으로 남천하고 난 뒤 압신라발해양변사라는 관직이 설치됐고, 또 왜 치청평로절도사에 의해 증령(兼領)했는지 의문이 들어서이다. 이것이 평로군 남천 이전에 이미 압양변·발해·흑수사부사를 관할한 것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마일홍(馬一虹)이 평로군 남천 이전의 압양변·발해·흑수사부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다.⁷²⁾ 강청파(姜淸波)는 압양변·발해·흑수사부사를 설치한 원인에 대해서만 논증하며, ‘시간’과 ‘지역’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을 하였다.⁷³⁾ 이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강청파는 “정사 중에서 압신라발해양변사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당 숙종(肅宗) 영태(永泰)원년에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숙종’은 대종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첫째, 발해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평로절도가 점령했고, 현재는 치청평로가 겸임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평로절도사가 겸하고 있던 압양변·발해·흑수사부사에서 ‘양변·발해·흑수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대조영의 진국(震國) 정권은 축천무후 성력(聖曆)원년(698)에 건립하였고 15년 후인 현종(玄宗) 개원원년(713)에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때부터 발해는 당의 통치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는

72) 마일홍(馬一虹) 『從唐·日本及新羅典籍中有關的稱謂看三國對渤海的認識』, 『歐亞學刊』 제3집, 中華書局, 2002년; 『渤海與唐朝押蕃使關係述考』, 『歐亞學刊』 제4집, 中華書局, 2004년.

73) 강청파(姜淸波) 『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 『暨南學報(人文科學與社會科學版)』 2005년 제1기.

데⁷⁴⁾ 이 시기 당 정부는 발해를 하나의 주군(州郡)으로 관리하여 개원5년(717)에 평로군을 설치하고 개원7년(719)에는 평로군사가 평로군절도·경략하북지도·관내제번(平盧軍節度·經略河北支度·官內諸蕃) 및 영전등(營田等)으로 승진되어 안동도호(安東道護) 및 영·요·연(營·遙·燕) 세 개 주를 겸령하였다. 이때부터 평로군절도사는 발해 사무를 겸령하기 시작하였다. 『新唐書·方鎮表三』(권 66)에는 “(개원)28년(740), 平盧軍節度使가 兩蕃·渤海·黑水 등 四府經略處置使를 겸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이 시기부터 평로절도사가 발해 사무를 겸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압변·경략처치사(押蕃·經略處置使)로 부임한 자는 오지의(烏知義)였다.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9에 수록되어 있는 『敕平盧節度使烏知義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평로절도·영주도독 오지의에게 칙령을 내렸다. …… 발해·흑수 두 곳을 최근 국가로 귀속시키니, 오지의에게 위임하였다.”⁷⁵⁾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해야 할 것은 칙서에서 ‘渤海·黑水近復歸國, 亦委卿節度’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발해와 흑수가 새롭게 조국의 품으로 귀속되었고 이에 평로절도사 오지의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명령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발해는 ‘번국’이 아니고, 평로군절도사가 ‘압양변·발해·흑수사부경략처치사’로 겸령하여 ‘압발해제번(押渤海諸蕃)’, ‘겸압발해등사변(兼押渤海等四蕃)’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압’한 것은 ‘양변’이지 ‘사변(四蕃)’이 아니다. 『당회요』 권78에 “또 양변 및 발해·흑수 등 사부경략처치사를 겸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발해’는 ‘부(府)’가 돼야 옳은 것이다.

여기에서의 ‘양변’은 어떤 ‘양변’인가? 이문란(李文瀾)은 개원연간의 ‘양변사’, ‘압양변사’가 해(奚)와 계단(契丹)의 사무를 전담하는 관

74) 마일홍(馬一虹) 『渤海與唐朝押蕃使關係述考』, 『歐亞學刊』 제4집, 中華書局, 2004년.

75) 상술한 내용 및 인용문은 모두 마일홍의 전계문을 참고한 것임.

직이라 여겼는데,⁷⁶⁾ 분명히 이는 맞는 것이며, ‘양변’은 해와 계단이다. 『당회요』권96에는 “옛날, 范陽節度使로 하여금 奚·契丹兩蕃使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덕(至德)연간 이후 번신이 여러 차례 봉지를 제멋대로 전횡하였는데 조정에서 그것을 수용하여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마치도록 하여 변경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고로 이 두 번은 노략질을 적게 했다.”라고 적고 있다.

압양변·발해·흑수사부경략처치사에 임직한 이는 초대 지방장관이자 후에 안사의 난을 일으킨 안록산이다. 『구당서·현종기 下』(권 9) 개원29년(741) 가을 7월 을묘 조목에는 “유주절도부사(幽州節度副使) 안록산은 영주자사(營州刺史)가 되어 평로군절도부사·압양변·발해흑수사부경략사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당서·안록산전』(권225상)에는, 이듬해(천보원년, 742) 안록산이 절도부사에서 절도사로 승진하여, “평로의 절도 안록산이 柳城太守·押兩蕃·渤海黑水四部經略使를 겸임했다.”고 적고 있다. 천보15년(756) 4월, 객노(客奴, 후에 劉正臣이라는 이름을 사사받음)에게 柳城郡太守·攝御史大夫·平盧節度支度營田陸運·押兩蕃·渤海黑水四部經略 및 平盧軍使를 제수하였는데⁷⁷⁾, ‘압령(押領)한 것은 단지 ‘양변’일 뿐이고, ‘발해흑수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문란은 원화 회창연간 ‘압모모·모모양변사(押某某·某某兩蕃使)’에서의 ‘양변’이 전적으로 해와 계단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평로절도사가 청치(靑淄)로 남천하고 난 후 원래 관할하고 있는(압) ‘양변’의 직을 유주노룡(幽州盧龍)절도에게 주었는데, 압 ‘양변’은 여전히 해와 계단이다. 정원(貞元)원년(785) 7월,

76) 이문란 『“兩蕃使”與“押某某兩蕃使”』, 陳國樑·劉建明의 『全唐文職官叢考』(武漢大學出版社, 1997)에 보임.

77) 『舊唐書·劉全諒傳』.

涿州刺史 겸 御使中丞 劉平을 幽州長史·御史大夫·幽州盧龍節度副大使, 知節度管理度支營田觀察·押奚契丹·經略盧龍等軍使로 하였다. 9월, 유평이 죽고 幽州盧龍軍副使 劉濟를 幽州長史·御史大夫·幽州盧龍節度觀察·押奚契丹兩蕃等を 관리하였다.”⁷⁸⁾ 『당회요』 권96의 기록에 의하면, 해(奚)는 “(太和)11년(마땅히 개성원년 혹은 2년, 836년이나 837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신을 보내어 명마를 헌상하였는데, 그 후 매년 보내어 지금까지 조공이 끊이지 않았고, 혹은 한 해에 3번까지도 보냈다. 옛날, 범양절도사로 하여금 해·계단양변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덕연간(756~758) 이후 번신이 여러 차례 봉지를 제멋대로 전횡하였는데 조정에서 그것을 수용하여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마치도록 하여 변경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고로 이 두 번은 노략질을 적게 하였다. 매해 조공을 바쳤는데, 항상 수백 명을 파견하였다. 유주(幽州)에 도착하였는데, 추장(酋長) 35명을 선별하여 궐로 보내어 인덕전(麟德殿)으로 불러들여, 금과 비단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나머지는 모두 주둔하여 머물도록 했다…….”고 했다. 이로써 이 ‘양변’이 해와 계단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押蕃事’, ‘押蕃落使’ 등은 곳 삭방(朔方)절도사에서 쓴 압변의 직책이다. 예를 들어, 대력(大曆)4년(779) 5월, 司徒兼中書令·河中尹·靈州大都督·單于鎮北大都護充關內河東副元帥·朔方節度·關內支度鹽池六城水運大使·押諸蕃部落·關內及河陽等道觀察使·上柱國·汾陽郡王·山陵使로써 1천9백 호를 곽자의(郭子儀)에게 봉하여 호를 상부(尙父)라 하고 태위(太尉)를 주었고, 나머지 관직은 예전대로 하였다. 통전(通前) 2천 호를 봉하고, 매달 1천5백 인분의 양식과 말 2백필의 사료를 주었다.⁷⁹⁾ 정원11년(795) 5월, 朔方留後李燾에게 靈

78) 『구당서』 권226.

79) 『구당서』 권204.

州大都督府長史·朔方靈鹽豐夏四州受降定遠城天德軍節度副大使·知節度使·管内度支營田觀察·押蕃落 등을 맡겼다.⁸⁰⁾ 원화5년(810) 11월, 代州刺史 阿跌光進에게 單于大都護·振武麟勝節度度支營田觀察·押蕃落 등의 직책을 맡겼다.⁸¹⁾ 여기서의 ‘압번락’은, 즉 ‘押諸蕃部落’을 말한다.

3. 平盧節度の 남침과 ‘平盧淄青節度使’의 新羅渤海 兩蕃事務에 대한 압력

1) 押新羅渤海兩蕃使와 登州海入高麗渤海道

押新羅渤海兩蕃使와 登州海入高麗渤海道는 서로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 관계사·동아시아 해상교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큰 측면에서 보면 연해지방을 포함한 당대 변경지역의 관리와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당대 중국이 동아시아에 세운 천하관념·중화질서·조공체계 및 한·중·일 간의 역사상의 해양 교류와 그 ‘북선항로(北線航路)’의 운항상황 등 중국사·동아시아사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 작은 측면에서 보면 산둥반도·요동반도·장강이북 연해지역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서 어떻게 해상 교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 특히 고대 등주항과 그 항로가 어떻게 주요 통로의 구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80) 『구당서』권247.

81) 『구당서』권247.

이 두 가지와 연관된 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학계에서 이미 발표된 관련 연구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할 것이다. 이로써 학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조하여 이와 관련된 역사인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가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조화평(趙和平) 『略論唐代海運』,⁸²⁾ 일본의 野開三郎 『安史之亂與唐朝東北政策的後撤』,⁸³⁾ 손혜경(孫慧慶) 『唐代平盧節度使南遷之後瑣議』,⁸⁴⁾ 번문례(樊文禮) 『唐代平盧淄青鎮節度使略論』,⁸⁵⁾ 왕새시(王賽時) 『唐代的淄青鎮』,⁸⁶⁾ 이문란(李文瀾) 『“兩蕃使”與“押某某兩蕃使”』,⁸⁷⁾ 여호(黎虎) 『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⁸⁸⁾와 『唐代緣邊政府的涉外行政事務管理權能』,⁸⁹⁾ 학여(郝黎) 『唐代淄青鎮的特點』⁹⁰⁾ 그리고 최근의 마일홍(馬一虹) 『從唐·日本及新羅典籍中有關的稱謂看三國對渤海的認識』⁹¹⁾ · 『渤海與唐朝押蕃使關係述考』,⁹²⁾ 강청파(姜淸波) 『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⁹³⁾ 등이 있으며, 그중 왕새시(王賽時)는 淄青節度使兼押兩蕃使兼領海運이 산둥과 요동이 한국과의

82) 조화평(趙和平) 『略論唐代海運』, 『北京史苑』 제2집, 北京出版社, 1985.

83) [日]野開三郎 『安史之亂與唐朝東北政策的後撤』, 『河北師院學報』 1990년 제4기.

84) 손혜경(孫慧慶) 『唐代平盧節度使南遷之後瑣議』, 『北方論叢』 1992년 제4기.

85) 번문례(樊文禮) 『唐代平盧淄青鎮節度使略論』, 『烟台師範學院學報』 1993년 제2기.

86) 왕새시(王賽時) 『唐代的淄青鎮』, 『東岳論叢』 1994년 제2기.

87) 이문란(李文瀾) 『“兩蕃使”與“押某某兩蕃使”』, 陳國燦·劉建明的 『全唐文職官叢考』(武漢大學出版社, 1997)에 보임.

88) 여호(黎虎) 『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 『歷史研究』 1998년 제3기

89) 여호 『唐代緣邊政府的涉外行政事務管理權能』, 『社會科學戰線』 1999년 제1기.

90) 학여(郝黎) 『唐代淄青鎮的特點』, 『青島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년 제4기.

91) 마일홍(馬一虹) 『從唐·日本及新羅典籍中有關的稱謂看三國對渤海的認識』, 『歐亞學刊』 제3집, 中華書局, 2002년.

92) 마일홍 『渤海與唐朝押蕃使關係述考』, 『歐亞學刊』 제4집, 中華書局, 2004년.

93) 강청파 『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 『暨南學報(人文科學與社會科學版)』 2005년 제1기.

무역, 해운, 사신왕래 업무를 책임진 점에 착안한 연구였으며, 마일홍은 주로 발해 문제와 발해를 관리하는 관직에 착안하였다. 이문란·여호 등의 관련 연구는 강청과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과 같다. 이문란은 개원연간의 ‘兩蕃使’·‘押兩蕃使’가 해(奚)·계단(契丹)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고, 회창연간의 ‘押某某’·某某兩蕃使는 해·계단만을 전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여호는 일련의 연구 논문에서 ‘邊鎮節度使同時兼任押蕃使는 대외무역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押新羅·渤海兩蕃使 관직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당대 역사에 있어서의 그 작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비록 논의가 되었다더라도 연구의 중점을 여기에 두지 않았음⁹⁴⁾을 알 수 있다. 마일홍과 강청과의 논문은 그나마 ‘押新羅渤海兩蕃使’ 및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된 전문적인 연구물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논문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공로는 인정되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데이터의 제한으로 인해 소수의 사례를 통해 전체를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문헌 사료에 대한 이해에 착오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데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연구에 상당히 많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비록 강청과의 논문에서 당대에 왜 押新羅渤海兩蕃使를 세우려 했고, 그 직능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또 이 관직을 맡은 관원의 신분 특징이 어떠한지,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 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논리도 비교적 체계적이지만 아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94) 강청과 「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 『暨南學報(人文科學與社會科學版)』 2005년 제1기.

2) 平盧節度の 靑淄남천과 平盧淄靑節度使의

新羅·渤海兩蕃使 통솔

平盧節度の 靑淄으로의 남천 시기는 당 上元2년(761)이었다. 마일홍은 장중수의 『張建章墓志考釋』⁹⁵⁾에 근거하여 “현상으로 보면, 평로군은 최종적으로 해(奚)에 의해 영주(營州)에서 쫓겨났다.”⁹⁶⁾고 논했다. 이에 대해 『大連市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서기 761년, 영주는 계단(契丹)에 의해 함락되었고, 평로군은 靑州(산둥 益都, 후에 東平縣변경됨)로 이동하여 平盧淄靑節度使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대련 지역은 平盧淄靑節度使節度에 예속되었는데 이 기간 “요동에서 영주를 지나 유주(幽州, 지금의 북경)로 통하는 육로가 계단에 의해 막혔기 때문에 당 조정은 해로로 경로를 바꾸어 도리진(都里鎭, 지금의 旅順)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청주(지금 산둥)에 이르렀다.”⁹⁷⁾고 한다. 이 잡지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측천무후 만세통천(萬歲通天)연간, 영주가 계단에 의해 점령되었고, 당 현종은 사신을 발해로 파견하였는데 청주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도리진에 이르러 청니포(靑泥浦, 靑泥窪橋)·도화포(桃花浦, 지금의 金州區), 행화포(杏花浦, 지금의 杏樹屯)·석인왕(石人汪, 지금의 長海縣 石城島)·탁타만(橐駝灣, 지금의 大洋河口)를 거쳐 압록강 하구에 이르렀다. 강을 거슬러 올라 박수작구(泊?勺口, 지금의 九連城 동쪽 40里 浦河口)에 이른 후 마침내 발해에 도착했다. 현종 개원원년(713), 당 조정은 홍려경(鴻臚卿) 최흔(崔忻)을 파견하여, 상술한 노선을 거쳐 ‘震國(발해)’으로 가 수령 대조영을 忽汗都督·左驍衛大將軍·渤海郡王에 책봉하도록 하였다. 개원2년(714), 최흔은 책봉의 사명을 마친 후, 도리진을 경유하여 돌아오면서 황금산

95) 장중수(張中樹) 『張建章墓志考釋』, 『博物館研究』 장간호, 1982년.

96) 마일홍 『渤海與唐朝押蕃使關係述考』, 『歐亞學刊』 제4집, 中華書局, 2004년.

97) 『대련시지(大連市志)』 “제1장: 歷史沿革”, 大連市政府史志辦網絡版, 2005년.

(黃金山) 아래에 우물 2곳을 팠다. 북쪽 산기슭의 우물 옆에 비각을 세웠는데, 비각의 글자는 모두 29자였다. ‘敕持節宣芳鞞使鴻臚卿崔忻井兩口永爲記驗開元二年五月十八日’”고 한다.

이와 같이 영주 일대가 수차례 해족에게 점령되면서 당시의 항해 조건으로는 당과 발해·신라·일본 사이를 잇는 항로가 오직 근해의 섬을 따라 항해하는 해상 통로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탐의 기록(등주에서 항해하여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길)은 그 의미가 크다. 이렇듯 산동반도·요동반도는 동북아 해양교통과 교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동북아 해양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을 남겨주었다. 따라서 해양문화 유산을 더 발굴하고 연구해야 한다.

발해국의 책립 시기는 보응(寶應)원년(762)이다. 그 이전, 발해는 줄곧 당에 예속되어 관리를 받으며 운영되어 오던 주군(州郡)이었다. 보응원년, 당 대종은 발해를 하나의 국가로 하라는 조령을 내렸다. 그 이후에야 하나의 국가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발해와 신라를 압령하려 했고, 발해와 신라는 당에 조공을 바치고 왕래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요동에서 영주를 거쳐 유주로 가는 육로가 계단에 의해 단절되자 당은 해로를 도리진(지금의 여순)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청주(지금의 산둥)에 도달하는 노선으로 바꾸었다. 즉, 당과 신라·발해 사이에는 이미 육로를 통한 경로가 없었고, 오직 바다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다. 따라서 등주에서 바다를 항해하여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기록이 남게 된 것이며 또한 平盧青淄兼押新羅渤海인 이정기 일가의 55년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이 직무는 당이 망한 이후 후양(後梁)에서도 설치되었다가 신라가 멸망될 때 까지 지속되었다.

학계에서는 “안사의 난으로 당의 국력이 쇠퇴하였고 나당관계 및 교류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그중 당 숙종 간원(干元)2년(759)에서 상

원(上元)2년(761) 사이의 삼 년 동안에는 조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 대종 보응(寶應)원년(762)이 되어서야 신라의 당에 대한 조공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⁹⁸⁾고 여기고 있다. 이는 마치 淄靑平盧兼押新羅를 통해 신라의 당에 대한 조공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라는 백제·고구려와 계속 전쟁 중이었거나 백제·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줄곧 당의 책봉을 받으며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당 조정은 지방 관원을 두어 신라사무를 압령하도록 하였을까? 이는 결코 조공이 3년 끊겼다가 다시 회복되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다. 게다가 당은 결코 신라 등의 국가에 해마다 조공 바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황제를 알현하는 횡수·조공의 횡수·입조하는 사람의 수·조공 물품 등에 제한을 두었다. 사실, 대종 보응원년(762) 신라가 입조하여 조공을 바치던 그 시기에는 아직 신라를 압령하는 관직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관직은 영태(永泰)원년(765)에야 비로소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왜 ‘押新羅渤海兩蕃使’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하였을까? 이 시기 당과 신라·발해 사이에는 육로를 통한 노선이 없었고 오직 타라를 통해 등주에서 항해하여 고려와 발해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 때문에 平盧淄靑節度 관할의 산동반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일대는 신라·발해 양면 사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지역이 된 주요 원인이다.

98) 강청과, 『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 『暨南學報(人文科學與社會科學版)』 2005년 제1기.

4. ‘平盧淄靑節度使’가 반드시 ‘押新羅渤海使’를 겸직할 필요는 없었다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면, ‘平盧淄靑節度使’는 일반적으로 모두 ‘押新羅渤海使’를 겸직한 듯 보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평로절도사는 청치(靑淄)로 남천한 후 평로청치절도사가 되었다. 761년 후희일은 병사 2만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청주로 갔다. 그는 비록 첫 번째로 ‘平盧淄靑節度使’로 부임한 신분이었지만 ‘押新羅渤海兩蕃使’의 관직을 맡지는 않았다. 영태원년(765) 7월, 치청절도사 후희일은 부장(副將) 이회옥(李懷玉, 후에 李正己라는 이름을 사사 받음)에 의해 쫓겨났고, 정왕막(鄭王邈)에게 平盧淄靑節度大使의 자리를 주었고, 회환으로 하여금 뒷일을 맡아보도록 하였다.⁹⁹⁾ 이를 통해 당시에 이정기를 후희일의 후임으로 직접 임명하지 않고 정왕막이 두 번째 平盧淄靑節度大使직을 맡았으나 압신라발해양변사의 임무를 더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시기 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관직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겸압(兼押)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압신라발해양변사’ 및 그 권력·직책의 행사 및 그 작용과 효력에 대하여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훗날 이정기와 그 일가 3대는 平盧淄靑節度使로서 押新羅渤海使라고 하는 임무를 더 받아 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蕃國을 관리하며 반세기(765~819) 가량 그 직책을 세습하였다. 당, 산동, 요녕, 등주항과 한·중·일 동북아 해상교류 네트워크의 개척 및 운영과 동북아 한문화(漢文化)권의 발전에 대해서 그 공적과 과오가 각기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목종(821~824)의 『淄

99) 『구당서·본기 제11』

靑朝賀部領不得過五人詔」를 인용하여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치청은 해변(海蕃)을 관리하였는데, 매년 조공을 올렸다. 사람을 보내어 통솔하게 하였으며, 사람 수가 비교적 많았다. 도적들이 평정되고 전장(典章)을 지키기 위해 이 관직을 파견하여 정식으로 서로 겸임하도록 하였는데, 5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¹⁰⁰⁾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淄靑統押海蕃’이 이정기 일가 집권 시기의 역사적 상황 및 중앙 조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씨 일가가 할거하던 시기, 평로치청이 실질적으로 작은 왕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 이유는 이씨 일가가 평로치청에 할거하던 수십 년 동안 조정과 속국과의 왕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나 평로치청절도사가 겸임하고 있던 新羅渤海兩蕃使는 기본적인 교류직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평로치청은 결코 당 조정 밖에서 독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반적으로는 압번사가 반드시 절도사를 겸령(兼領)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부절도사에 의해 압령되었다.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주절도부사였던 안록산은 741년 평로군절도부사로 임명되었고 양변·발해·흑수 등 사부경략사(四府經略使)직을 맡고 있었다. 742년 평로절도사로 승진하였는데 여전히 양변·발해·흑수 등 사부경략사직을 겸임하였다. 정원원년(785) 7월 涿州刺史兼御史中丞 유평(劉平)을 幽州長史·御史大夫·幽州盧龍節度副大使·兼知節度管理度支營田觀察·押奚契丹·經略盧龍等軍使로 하였다.¹⁰¹⁾ 정원11년(795) 5월, 朔方留後 이란(李爨)에게 靈州大都督府長史·朔方靈鹽豐夏四州受降定遠城天德軍節度副大使·知節度使·管内度支營田觀察·押蕃落 등을 맡겼다.¹⁰²⁾ 장경(長慶)원년 3월, 幽州盧龍節度副大使·

100) 『전당문』권65.

101) 『구당서』권226.

102) 『구당서』권247.

知節度事·押奚契丹兩蕃經略等使·檢校司空·同中書門下平章事·楚國公劉總可檢校司徒·兼侍中·天平軍節度·鄆曹濮等州觀察等に 임명하였다.¹⁰³⁾ 원화(元和)원년(806) 7월, 이사도가 죽고 (헌종이) 建王 이심(李審)에게 遙領節度使로 명하고 이사도를 檢校左散騎常侍·兼御史大夫에 제수하였고, 운주(鄆州) 군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淄靑節度留後를 맡겼다. 10월, 다시 이사도를 檢校工部尙書에 제수하고 鄆州大都督府長史를 겸하도록 하였다. 平盧軍 및 淄靑節度副大使를 맡기고 節度事·管内支度營田觀察處置·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를 주관하도록 하였다.¹⁰⁴⁾ 원화12년(817) 또는 13년(818) 7월, 헌종(805~820) 『授李夷簡淮南節度使制』 “銀青光祿大夫檢校尙書右仆射同中書門下平章事 겸 揚州大都督府長史를 淮南節度副大使로 충임하고, 節度使事管内營田觀察處置押新羅渤海兩蕃等使를 주관하도록 하였다.¹⁰⁵⁾

이러한 것들은 모두 節度副使兼押蕃使의 예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훗날 押新羅渤海兩蕃使 및 그 권력과 직책의 행사 그리고 그 작용과 효력에 대하여 역사적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구나 설령 ‘押新羅渤海兩蕃使’가 모두 平盧淄靑節度使나 副使의 겸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銀青光祿大夫檢校尙書右仆射同中書門下平章事 겸 揚州大都督府長史를 淮南節度副大使로 충임하고, 節度使事管内營田觀察處置押新羅渤海兩蕃等使를 주관하도록 하였다.”는데, 淮南節度副使 李夷簡이 담당한 것이다. 그는 치청 지역을 관리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103) 『구당서·본기 제16』.

104) 『구당서·열전 제74』.

105) 『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권53 『授李夷簡淮南節度使制』은 원화(元和)12년이라 되어 있고, 『구당서』권131 『李夷簡傳』은 원화13년이라 되어 있으며, 『구당서』권15 『憲宗紀』에는 원화13년이라 되어 있다.

押新羅渤海兩蕃等使를 겸임하였다. 이것은 당시 나당 간의 해상 통로와 신라 교민 인구가 이미 회남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5. 소결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문제와 함께 통찰하여 살펴보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씨 일가가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로 있던 기간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관직은 이씨 일가의 전용 특권은 아니었다.

둘째, 신라 교민의 수는 이씨가 임직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씨가 멸망한 후에 더욱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평로치청절도와 압신라발해양번사를 겸직한 이씨 일가가 신라 교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셋째, 당 후기 사회는 조정의 중앙집권력이 약해지면서 잦은 전란이 발생하였으며, 세제 개혁과 토지겸병으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땅을 잃은 유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상무역이 성행하고 항구 주변은 도시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민사회를 더욱 촉발시켰으며 유민인구가 늘어날수록 상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더욱 저렴한 비용에 구할 수 있어 상인들은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업 종사자가 날로 늘어났고 상업은 더욱 발전하였다. 또한 상업이 발전할수록 값싼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재난과 난리를 피해 주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도망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인력자본은 더욱 저렴해 졌다.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의 고관이 독점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성을 띠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정기와 그의 자손 이든 후에 조정에서 임의로 고용한 平盧淄靑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든 이렇게 유민인구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던 상황에서는 중국인 유민이든, 신라의 유민이든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그들을 안정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보장해 주면 그것이 바로 좋은 관원이 되는 것이며, 또 최고의 정부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절도사압번사와 같은 직책은 더 많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압신라발해양번사’가 대략 반세기 가량 절치되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직책을 통해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와 관련된 역사기록은 매우 적다.

위에서 언급한 이정기와 그의 자손이 ‘平盧淄靑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를 세습했던 55년간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들의 번진할거와 당 조정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平盧淄靑節度使兼押新羅渤海兩蕃使’라고 하는 직무의 기본 성질과 직능을 정확히 파악하면, 신라 교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딪히는 곤란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附: 平盧淄靑節度使의 歷任名單

| 성명 | 재임연수 | 처음 재임 시점 |
|------|------|----------|
| 侯希逸 | 2 | 癸卯 763 |
| 鄭王李邕 | 1 | 乙巳 765 |
| 李正己 | 17 | 乙巳 765 |
| 李納 | 10 | 壬戌 782 |
| 李師古 | 14 | 壬申 792 |
| 李師道 | 13 | 丙戌 806 |
| 薛平 | 6 | 己亥 819 |
| 康志睦 | 6 | 乙巳 825 |
| 王承元 | 2 | 辛亥 831 |

| | | |
|-----|---|--------|
| 嚴休復 | 2 | 癸丑 833 |
| 王彥威 | 1 | 乙卯 835 |
| 陳君賞 | 3 | 丙辰 836 |
| 韋長 | 2 | 己未 839 |
| 烏漢真 | 2 | 辛酉 841 |
| 李珽 | 2 | 癸亥 843 |
| 崔蠡 | 2 | 乙丑 845 |
| 鄭光 | 2 | 丁卯 847 |
| 鄭涓 | 1 | 己巳 849 |
| 孫範 | 2 | 庚午 850 |
| 韋博 | 3 | 壬申 852 |
| 李琢 | 3 | 乙亥 855 |
| 令狐緒 | 1 | 戊寅 858 |
| 韋澳 | 2 | 己卯 859 |
| 封熬 | 1 | 辛巳 861 |
| 李璵 | 2 | 壬午 862 |
| 崔執柔 | 6 | 甲申 864 |
| 于涓 | 3 | 庚寅 870 |
| 宋威 | 4 | 癸巳 873 |
| 揚損 | 2 | 丁酉 877 |
| 安師儒 | 3 | 己亥 879 |
| 王敬武 | 7 | 壬寅 882 |
| 王師範 | 6 | 己酉 889 |
| 王重師 | 2 | 乙丑 905 |
| 韓建 | 5 | 丁卯 907 |

V. 항구 네트워크와 재당신라인의 연해분포

1. 개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재당신라인 거주 지역은 귀의주(歸義州, 현재 하북성 용성현 부근에 위치)이다. 이 지역은 당 고종 총장(總章) 시기(668~670)에 설치되었으며, 신라 귀화인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의미로 ‘귀의주’라 명명하였다. 『구당서』에 의하면 귀의주는 총장 시기에 설치되었고, 바다 건너에 신라가 있으며 유주도독(幽州都督)에 속해 있다. 과거 한 개의 현(縣) 195호(戶), 624명의 인구를 관할하였다.¹⁰⁶⁾고 하였다. 하나의 현에 2백여 호, 6백여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인데 왜 주(州)를 설치했을까? 이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이것은 단지 초보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후에 지속적으로 신라인의 내륙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둘째, 신라인의 관리는 중국인과 달리 제반 업무가 많아 등급이 낮으면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당신라인이 거주한 공간의 분포 범위는 상당히 넓었는데, 적어도 관내(關內)·하남(河南)·하북(河北)·회남(淮南)·검남(劍南)·산남(山南)·강남도(江南道) 등 7개 지역과 귀의(歸義)·서(徐)·사(泗)·해(海)·등(登)·밀(密)·청(靑)·치(淄)·채(菜)·금(金)·연(兗)·강(江)·태(台)·초(楚)·양(揚)·자(池)·선주(宣州)와 경조(京兆)·성도부(城都府) 등 19개 지역에 재당신라인의 거주 및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중 비교적 규모가 컸던 곳은 장안과 낙양 두 지역과 하북도와 하남도가 포함된 산둥반도, 회남도 연해의 여러 항

106) 『구당서』권39 『지리지(地理志)』

구지역이다. 특히 산동반도와 강희 연해지역과 운하양안에는 신라 교민의 집단거주지가 가장 많다.¹⁰⁷⁾

재당신라인의 인구 상황에 대한 중국의 기록은 그리 많지 않고 일부 문헌 및 각 지방지 등에 의존해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다. 신라인의 재당 거주 및 그 인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는 9세기 중엽 당으로 들어와 구법 순례(839~847)한 일본 승려 엔닌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저작이다. 기존의 연구 저술이 매우 많고 주요 편목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기에 여기에서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산동반도 연해와 항구지역은 재당신라인의 거주지가 비교적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 문제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기타 관련 사료와 함께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한다.

신라인의 입당은 주로 나당 사이의 해상 통로인 연해지역의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9세기, 산동반도·강희 및 명주 등 연해지역과 신라 사이의 해상 노선에는 크게 연안의 섬을 이어 가는 노선·바다를 횡단하는 노선 두 종류가 있었다.

연안의 섬을 이어 가는 노선 : 당대 가담(賈耽)은 “하나는 영주(營州)에서 안동(安東)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등주(登州)에서 고려와 발해로 가는 길”(『신당서』지리지7下)이라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제 나당 간에 사용되던 북선은 등주~도리진(泥洼浦, 지금의 대련 연해지역 항구)~신라 연해 항구(지금의 인천, 군산, 목포, 완도 등)이다. 신라에서 당까지 한강구 장구진·남양만 당은포·청해진 등지에서부터 산동반도로 닿을 수 있다. 또한 영암 부근

107) 유희위(劉希爲) 『唐代新羅僑民在華社會活動的考述』, 『中國史研究』 1993년 3기 등 참고.

에서 흑산도를 거쳐 바다를 건너 강희 연해 및 정해(定海)와 명주에
까지 닿을 수 있다.

바다를 횡단하는 노선 : 주요한 것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 경로가
있다.

명주~신라. “전례에 따르면 명주에서 출발한 배는 바람을 타고
신라 경내에 닿는다.”(『입당구법순례행기』권1)

주산(舟山) 및 보타산~신라. 보타산에는 신라초(新羅礁)가 있는데
물론 그 명칭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대가 신
라로 통하는 항구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주~신라. “양자강에서 출발한 배는 신라에 닿는다.”(『입당구법
순례행기』권1)

초주 산양현~신라.(『입당구법순례행기』권4)

해주~신라.(『입당구법순례행기』권4)

산동반도의 여러 항구~신라. 이곳은 9세기 나당 사이의 주요 항
로로 많은 항구와 항로가 분포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당시 산동반도와 신라 사이에 통하던 각 항구에 대해
서, 산동반도 동남 연해 항구·남부 연해 항구·북부 연해 항구로
분류하여 신라 교민 인구 상황을 결합하여 그 예를 하나하나 정리
하여 제기할 것이다.

2. 산동반도 동남의 여러 항구와 신라 교민 인구

당대 관방과 신라 사이의 수상 교통의 주요 항구는 등주(登州) 문
등현(文登縣, 오늘날 영성 석도)·모평현(牟平縣)의 유산포(乳山浦,
지금의 乳山市 乳山口)이다. 우리는 관련 자료와 엔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통해서 당대 관방이 신라로 들어가는 노선의 대다수는 등주 문등현의 적산포 혹은 모평현의 유산포에서 출발했음을 발견했다. 신라 관방이 당으로 들어가는 등안항구(登岸港口) 역시 적산포 혹은 유산포이다. 신라 민간 백성이 당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우선 적산포 혹은 유산포로 가서 이곳에서 머물거나 다시 당의 기타 지역으로 가기도 한다.

1) 赤山港口 지역(赤山浦, 朶山浦, 長淮浦)

엔닌 일행은 개성4년(839) 6월 7일, 유산포에서 문등현 청녕향 적산포에 왔다. 적산포 해안에는 적산촌(赤山村)이 있는데 그곳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법화원(法華院)이 있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적산법화원은 신라인 장보고가 자금을 모아 건립한 것이라 한다. 이 일대에 거주하는 신라 교민의 수가 가장 많은데 이 사원에는 신라 승 40여 명이 있었으며, 사원 장전(莊田)이 있었다. 엔닌은 “장전이 있어 죽과 밥을 충당하였는데, 장전에서는 1년에 쌀 500석을 얻을 수 있었다.”(『입당구법순례행기』권2)고 기록하고 있다. 엔닌의 기록은 매우 정확하다. 이 사원은 “예불을 강연하고 참회하는 것은 모두 신라의 풍속을 따랐으나 황혼(黃昏)과 인조(寅朝) 때의 예불(법회)만은 당의 풍속에 의했다. 그 법회에 참석한 승려와 일반이, 노인과 젊은이, 천민과 귀족 등은 모두 신라인이다. 개성5년(840) 정월 15일, 법화원은 법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남녀가 어제 250여 명이었고, 오늘은 200명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적산포 지역에는 아래의 몇 군데 주목할 곳이 있다.

(1) 따라서 장보고는 적산 일대의 많은 신라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자금을 모아 적산법화원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적산포는 주요 항구로서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일본 승려 엔닌이 편찬한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당 개성4년(839) 봄, 신라의 대신이 국왕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자 장보고는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평정하였다. 6월 28일, 당의 천자는 새로 즉위한 왕을 위문하는 사신을 파견하는데, 靑州兵馬使 吳子陳·崔副使·王判官 등 30여 명이 적산포에서 신라로 출발하였다.

(3) 개성4년(839) 6월 28일 엔닌이 적산촌의 신라 법화원에 있는데, 밤에 장보고가 최병마사를 사원으로 파견하여 안부를 묻게 하였다. 최병마사는 신라 청해(淸海)에서 적산포를 통해 당으로 들어갔는데 신라 법화원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4) 당 대종원년(847) 9월, 엔닌 일행은 신라인 김진(金珍)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오시(午時)에 적산포를 출항하여 다음날에는 멀리 신라 서해의 산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밤낮을 지내면 신라 서쪽 웅진주(熊津州)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안을 따라 돌아가면 평안히 일본에 도착할 수 있다.

(5) 신라의 백성이 당과 신라를 오간 항구 역시 적산포 또는 유산포였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신라인은 적산포와 유산포 일대, 특히 적산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당 정부는 적산포의 신라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정부의 관리기구인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를 설치하여 해당 구역의 사회 치안과 각종 사무를 담당케 했다. 구당신라소의 주관(主官)은 ‘총관(總管)’이라 칭했다. 당대에는 ‘외이(外夷)’를 관리로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신라인을 채용하여 구당신라소의 총관을 맡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당신라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당인과 신라인 간의 관계를 관리하여 편리함을 갖추었다.

적산포 일대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5년(839) 정월 15일 기간에 ‘적산법화원’에서 법회가 거행되었는데 이때 예불을 듣는 이는 매일 200여 명이 되었다. 엔닌이 본 가장

많은 수는 250명가량이었다. 당시에는 자동차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예불을 들으러 오는 200~300명의 사람은 분명히 매일 오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원에 거주하는 승려나 비구가 아니어서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가정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매일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그들이 평균 매일 오는 사람 중에 바뀌는 이가 절반이라 하더라도 이들 내에 '적산법화원'에 와서 예불을 듣는 사람은 400~500여 명은 될 것이다. 여기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즉 직접 와서 예불을 들을 수 없는 노인·어린이·병자·장애인·임산부 등은 항상 법회에 참석하여 예불을 듣는 신라 교민의 가족으로 현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사오백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적산포 일대에 상주하고 있는 신라 교민의 수는 최소 1,000여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라인들은 당으로 들어가 거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아직까지 자신들의 풍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적산법화원에 상주하는 신라승은 약 30여 명으로, 사원의 규모가 꽤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엔닌은 근처 마을의 신라인 가정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신라인 왕장문(王長文)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가서 재를 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몇 스님과 함께 사원장(寺院莊)에서 하루 묵었다.”는 기록에서 이 ‘사원장’이 바로 적산법화원 소작농가 및 사원에 속하거나 사원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촌락임을 알 수 있다. 법화원을 건립한 사람이 신라인 장보고이고 법화원의 주지 승려가 모두 신라인이며, 또한 예불에 참여하는 이가 모두 신라인이다. 이에 법화원 장전(莊田)의 소작인과 사원에 속하거나 기거하는 여러 사람들 역시 모두 신라인이거나 적어도 신라 교민일 것이다. 신라인 왕장문은 적산법화원 장전의 소작농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적산법화원은 ‘1년에 쌀 500백 석을 얻을 수 있는’ 장전이 있었는데, 신라 소작농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한 장정의 노동력을 쌀 5석으로 계산해본다면 이 장전에는 대략 500명의 장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다섯 식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정에는 평균 한 명 반 정도의 남성 일손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사원 장전은 6~70여 가구로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각 가정을 다섯 식구로 계산해 보면 최소 300에서 400여 명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적산포 일대 대다수 신라인의 주요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엔닌은 일찍이 “신라승 상적(常寂)의 청으로 유촌(劉村)에 갔었다.”고 했는데, 이 유촌이 신라 교민의 촌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촌에 “신라인 왕헌(王憲) 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신라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당 연해지역에는 많은 신라 노비가 있었다. 9세기 20년대의 변진 수복 후 당 정부는 타격이 매우 심하여 바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해적이 자주 출몰하였다. 이후 9세기 40년대부터 장보고가 신라 청해진 해역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해적의 바닷길을 막자 9세기 중엽에는 해적이 신라인을 잡아들여 당에 노비로 파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량의 신라 노비가 모두 귀국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다수는 사찰로 유입되어 사원에 의거하거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기도 하였고, 혹은 소작인이 되거나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회창5년(845)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천하의 여러 사찰의 노비는 강회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¹⁰⁸⁾고 상주하였다. 당 무종 법난(法難) 시기, “사원 4천6백 개를 제거하니, 계관(笄冠) 승려 26만5백, 그 노비가 15만, 양인으로 사원에 종속되어 허드렛일을 하는 자들이 계관 승려 숫자의 배가 되었고, 양전(良田)도 수천만 경이나 되었다.”¹⁰⁹⁾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사찰

108) 『당회요』권86 『노비(奴婢)』

109) 『변천문집』권10 『杭州新造南亭子記』

의 승려 수가 25만이라는 사실 외에 노비가 15만 명, 사원에 의거하는 인구가 ‘笄冠 수의 두 배’인 50여만 명으로 총 70여만 명으로 사원 승려 수의 세 배수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당대 전국 사찰의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추산해보면, 적산법화원의 승려는 30여 명, 사원의 인구도 100여 명 즈음이 될 것이다.

적산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산포(旦山浦)·장회포(長淮浦) 등의 항구가 있다.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단산포에 두 척의 장보고 왕복선이 정박했었다고 한다. 이 기록은 그곳에 장보고 선단을 맞이하고 지원하기에 편리한 신라인 거주지가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엔닌이 귀국할 때, 장회포에서 신라인 김진의 배를 타고 출항하였는데 김진이 정박하기로 결정한 항구인 장회포에도 역시 이곳에 거주하면 장보고 선단을 지원하는 신라인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의 영성 석도진의 진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현재 적산법화원 아래의 만은 이미 깎여 평평해졌고 원래의 항구 역시 폐지되었다. 이곳에서 북쪽은 지금의 척산진(斥山鎭)으로 적산그룹이 현재 적산법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쪽은 현재 석도진(石島鎭) 소재지이다. 당대의 단산포와 장회포가 현재의 어느 위치인지는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다.

2) 乳山浦(지금의 乳山市 乳山口)

(1) 당 개성4년(839) 4월 26일, 승려 엔닌은 초주에서 배를 타고 북상하여 유산포에 정박하였는데, 당시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서로 만났다. 이 신라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일을 할까? 동시에 이렇게 많은 신라인이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포 일대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래지 않아 압아가 신라배를 타고 왔다. 배에서 내려 상륙하였는데, 많은 부녀자가 있었다. 압아는 문서(狀)를 통해 ‘고을(州)의 문벌에 보고하여 처분을 취하겠다’고 말했다.”¹¹⁰⁾는 기록이 전해진다.

(2) 개성5년(840) 2월 15일, 지난 해 신라에서 화서 적산포를 경유하여 양주에 온 최병마사(崔兵馬使)는 유산포에 정박하였다. 엔닌은 “최 압아의 배가 양주로부터 와서 유산포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17일 최 압아에게 문서 한 통을 주었는데, 옥졸(간수)에게 명하여 서신 한 통을 장보고에게 주도록 했다.”고 한다.

(3) 당 선종 대중원년(847) 윤 3월10일, 조정은 “신라로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제를 지내고 황후나 태자를 책봉하기 위해 부사 태자 통사사인 김간중과 판관(判官) 왕박(王朴) 등을 파견하였는데, 등주 모평현 남쪽 경계 유산포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김간중과 왕박은 일행 500여 명을 대동한 대규모 사절단이었다.

(4)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유산포에서 신라까지는 배로 닿을 수 있다고 한다. 순풍을 만나면 2,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다만 적산포를 통해 신라로 가는 것보다 약간 멀 뿐이다.

한반도 남부 서해안의 웅진강(금강) 하구는 나당 간 해상교통의 주요한 항구이다. 북송 시기까지, 웅진강 하구는 여전히 고려와 북송을 잇는 해상교통의 주요 항구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송 서경(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알 수 있다. 한반도 서남단의 청해(완도)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 해상교통의 또 다른 항구이다. 장보고는 병사 만 명을 이끌고 청해를 지켰다. 적산포와 신라 청해 사이의 해상항로에는 항상 뱃길이 있었다. 일본 승려 엔닌이 적산법화원에 있을 때, 그는 불법을 구할 계획을 하고 난 후, 적산에 들어갔다가 청해진으로부터 본국으로 향했다.

당시 양주 — 유산포 — 적산포 사이에는 중요한 해상항로가 있었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개성3년(838) 12월, 엔닌은 배를 타고 양주에서 운하를 따라 초주(회안)로 북상하였고, 다시 초주로부터 淮를 돌아 바다로 들어갔다. 해주(연

110)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개성4년 4월 26일

운항)을 경유하여 항해하여 유산포에 도착했다. 최종적으로 유산포로부터 적산포에 도착하였다. 개성4년(839) 4월, 엔닌은 해주 동해현 동해산에서 한 척의 신라배를 보았는데, 배에는 십여 인이 타고 있었고 “우리는 밀주에서 왔는데, 배에는 오직 탄(炭)만 싣고 있을 뿐이고 초주로 향하는 길시오.”라고 말했다. 회창5년(845) 2월, 정웅만(엔닌의 수행원)은 염방금(閔方金)의 배를 타고 초주로 갔다. 4월, 신라인 왕종(王宗)은 양주에서 성해법사(性海法師)의 책을 가지고 왔다. 대중원년(847) 윤 3월, 엔닌은 밀주 대주산(大珠山)에서 “신라인 진충(陳忠)의 배가 탄을 싣고 초주로 향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진충의 배를 타고 초주로 가는 뱃삯은 비단 다섯 필이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로부터 적산포에는 항상 초주와 양주로 가는 배와 양주와 초주에서 오는 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산포와 유산포에서 양주로 가는 해상 노선이다.

적산포 · 유산포 — 노산해구 — 밀주(제성)대주산 — 해주 — 회로
 들어가 초주에 도착 — 운하를 타고 양주에 도착

엔닌의 기록 외에, 『등주부지(登州府志)』와 『모평현지(牟平縣志)』에도 모두 당 광화(光化)4년(901) 『곤륜산무염원비기(崑崙山無染院碑記)』를 기록하고 있다. 비기(碑記)에는 “계림 김청(金淸) 앵이는 고향 부상(扶桑)을 떠나 청사(靑社)로 와서 화물을 은수로 보냈다. 마음을 금전(金田)에 두고 청부(靑鳧)를 시주하여 뛰어난 영지(郢地) 장인을 뽑아 백석(白石)을 깎아 천축의 탑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이 신라 상인은 산동반도에 거주하였고 화물을 남쪽의 명주 은수 지역(영파 일대)로 운송하며 산동반도와江浙 일대의 해상무역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업을 통해 큰 재산을 모아, 문등현 곤륜산에 무염원을 지었는데, 김청은

무염원에 자금을 기부하여 좌불탑(座佛塔)을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곤륜산무염원비기』를 통해, 무염사 불전을 건축할 때 산동 본토의 관원과 절강(절강, 강소)의 집권자들이 모두 자금을 기부하여 찬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두 지역 집권자들이 곤륜산 무염원의 불법을 흠모하고 있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곤륜산 무염원이 당시 매우 유명했음을 말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당시 산동반도와 절강, 강소 일대의 해상항로와 무역은 이미 상당히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집권자들로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여기에는 신라 상인들도 활약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동시에 다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적산포, 유산포, 초주, 양주와 명주 등의 많은 연해지역은 각 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신라반도와 일본열도의 각 항구와도 연결되는 항로가 있어 모두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유산포 일대 신라 교민의 인구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성4년(839) 4월 26일, 엔닌 일행은 유산포 서쪽 포구에 도착하였다. “미시(未時)에 신라인 30여 명이 말과 나귀를 타고 와서 말하기를, ‘압아께서 조수가 밀려들기 전에 와서 만나신다고 하여, 저희가 먼저 맞이하러 왔습니다’……오래지 않아 압아는 신라의 배를 타고 왔다. 배에서 내려 상륙하였는데 많은 부녀자가 있었다.……압아는 문서(狀)를 통해 ‘고을(州)의 문벌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진상승(陳尙勝)은 전문적으로 엔닌 일행을 맞이하는 신라인이 삼십여 명의 규모라는 점에서 유산포 주변 신라 교민의 규모가 백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¹¹¹⁾ 백 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그리 큰 수는 아니다. 그러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게다가 일본 승려 엔닌 일행을 ‘먼저 와서 맞이한’ 수가 30여 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신라인 대다수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점으로

111) 진상승(陳尙勝), 『論唐代山東地區的新羅僑民村落』 『東岳論叢』 제22권 제6기, 2001

계산해보면 말이나 나귀를 탄 사람은 가구당 한 명이거나 두 명일 것이므로 신라인 가구는 20여 가구에서 30여 가구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지역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신라인 가구가 왔다고 치면 신라인 가구는 백 가구는 될 것이다. 고대에는 가구와 식구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1:5 정도였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지역 신라인은 최소 400~5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4월 29일 엔닌 일행은 신라인과 머무는 일에 대해서 상의하였다. 5월 1일에는 다시 소촌(邵村)의 신라인 왕훈(王訓)과 양식 판매에 대해 협상하였다. 5월 4일, 4~5리 근처의 망해촌(望海村)에서 정박하였고, 5월 6일 신라의 통역(관) 도현(道玄)은 신라인 압아의 집으로 가서 재차 체류 문제를 상의하였다. 5월 16일 엔닌은 사람을 파견하여 주(州) 압아의 조수인 신라인 임 대사(林大使)의 집으로 보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유산포 일대 소촌·망해촌 등의 여러 촌락에는 많은 신라인 거주, 심지어 신라 교민 촌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州) 압아의 조수인 신라인 임 대사의 집은 이곳에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이곳이 신라인 거주가 비교적 집중되고 있는 지역임을 설명해준다.

진상승의 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崑崙山無染院碑記』에 의하면 김청의 집도 이 일대에 있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¹¹²⁾

당 희종(僖宗)4년(884) 10월, 최치원은 신라 사신의 신분으로 출사하였다가 떠난 지 10여년 후에 귀국했다. 그가 양주를 출발하여 산동반도 해구를 경유하여 신라로 돌아가려고 선택한 항구 역시 유산포였다. 최치원 일행이 유산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었다고 한다. 바다 바람이 거칠었기 때문에 항구에 머물면서 순풍을 기다려

112) 文登 崑崙山 무염원에 관해서, 20세기 1990년대 초 劉永智·袁曉春의 『山東省文登市崑崙山無染寺(院)系新羅人金淸資助建造』(『學術研究叢刊』, 1991(1), pp.105~107) 등이 발표되었다. 최근 한국의 朴現圭 교수가 『山東無染院和新羅相關的研究』(『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論文集』, 2005년 11월, pp.88~99)를 연구하였다. 이들을 참고할 만하다.

야 했다. 이에 대해 최치원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권20 『上太尉別紙五首(제4)』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무개는 배와 행리가 유산에 이르러 십여 일간 바람이 개기를 기다리는데 겨울이 되었습니다. 뱃사공이 나아가기 어려우니 이곳에 머물기를 간곡히 청하였으나 아무개는 영광스런 몸이 되어 오직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는 것은 종각(宗慤)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지만, 긴 돛대와 짧은 샷대는 실로 혜시(惠施)의 말은 이행하는 것이리라. 비록 우러러 은혜로 도와주심을 빙자하여 험난함을 꺼려하지 않았으나, 정히 무서운 풍파를 만나 큰 바다를 지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포(曲浦)에 의지하여 잠시 내려 머물며, 띠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미역으로 배를 채우며, 남은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행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일 봄날이 따뜻해지면 반드시 온 종일 부는 폭풍이 없을 것이며, 바로 돛을 날려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¹¹³⁾고 했다. 최치원의 행문은 용전(用典)에 뛰어나다. 여기에서 “띠를 엮어서 몸을 가리고 미역으로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구절은 실제로 초가집에 거주하며 미역으로 근근이 허기를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관직을 역임하고 시문이 뛰어난 28세의 흠차사신(欽差使臣)은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의환향해야 하는데, 오히려 항구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의 생활은 양주 입지에서 사람들이 기거와 음식을 모두 돌봐주던 때와 달리 불편하고 또 마음은 화살처럼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하루가 일 년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다. 최치원은 유산에서 중화(中和)5년(光啓원년, 885) 봄(서기 885년 1월 20일)을 보내며, 『和友人除夕見寄』·『東風』·『海邊春望』·『春曉閑望』·『海邊閑步』 등의 시를 지었다.

113) 최치원(崔致遠) 『桂苑筆耕集』, 『四部叢刊初集』, 上海商務印書館, 1919년.

3) 邵村港口 지역(邵村浦)

개성4년(839) 4월 19일, 엔닌 등의 일행은 해주(지금의 강소성 연운항 일대)에서 배를 타고 모평현 경내의 소촌포(邵村浦)에서 정박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신라인들이 작은 배를 타고 왔는데, 장보고가 신라 왕자와 마음을 합쳐 신라국을 벌하고 그 왕자로 하여금 신라국 왕자를 하도록 도왔다.”¹¹⁴⁾는 소식을 들었다. 이로부터 모평현 소촌포에 신라인이 있었고, 인구수도 그리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본국인 신라 국왕의 교체 소식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 이전에 초주에서부터 엔닌을 동행한 통역관 도현은 모두가 소식을 알지 못했다.

4) 陶村海口(牟平唐陽陶村의 南海口)

“등주 모평현 당양도촌(唐陽陶村)의 남쪽은 현(縣)까지 60리, 주(州)까지 30리이다. 이곳의 동쪽에 신라국이 있다. 순풍을 만나면 2~3일이면 신라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입당구법순례행기』권 1) 이로부터 등주 모평현 당양도촌의 남쪽 해구에서 신라까지는 신라의 뱃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해로이다.

3. 산동반도 남부의 여러 항구와 신라 교민 인구

1) 牢(嶗)山港口 지역

당대에는 내주, 즉 묵현(墨縣)에 속했고, 지금은 청도시 노산 구역에 속하는 현재의 사자구(沙子口) 일대이다. 이곳은 노산에 반쯤 둘러싸여 있고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고 물이 깊고 항구가 널찍한 천

114) [日]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연의 아주 뛰어난 항구이다. 당시의 적산포, 유산포와 함께 이러한 고대의 항구가 후대에 거대한 통상항구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 범선 시대의 항구 조건은 산에 반쯤 에워싸이고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며, 물이 깊고 항이 넓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지만 오늘날은 범선이 운송 능력이 뛰어난 대형 기계선으로 대체되면서 풍랑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또한 적재 화물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두 배산입수(海)의 과거 항구를 버리고 평탄하고 탁 트인 인공 항구로 옮겨갔다.

대중원년(847) 6월 9일, 엔닌은 초주 신라방에서 배를 찾아 귀국하려는데, 신라인 김자백(金子白) 등이 소주(蘇州)에서 배편으로 엔닌에게 보내온 서신을 받았다. 서신에는 그들이 배로 일에 간다고 적고 있었다. 이에 엔닌이 초주에서 배를 타고 萊州 牢(嶗)山의 南升家莊 항구로 갔으나 김자백의 배는 결코 이곳에서 엔닌 일행을 기다리지 않았다. 결국 다른 신라인 김진(金珍)은 엔닌에게 서신 한 통을 남겨 적산포로 가서 기다리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귀국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많은 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하여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1) 노산항구는 당시의 중요한 국제 항구인 듯하다. 신라인 김자백 등은 왜 소주에서 항해하여 노산으로 왔고, 또 노산에서 일본으로 갔을까? 엔닌이 이에 대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일본으로 항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소주에서는 일본으로 갈 수 없고 산둥반도의 연해 일대의 항구는 국제 항구로서 노산항구는 유산포·흘산포(吃山浦)와 같이 모두 이곳으로부터 신라나 일본으로 나갈 수 있었다.

(2) 노산항구 일대에도 신라인의 거주가 있었던 것 같다. 엔닌이 노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김진이 보낸 서신을 받았다. 금진은 신라

인으로 엔닌에게 준 서신을 남승가장(南升家莊)의 촌민에게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 촌민 역시 신라 교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그가 신라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신라인과 왕래하였을 것이다. 산동반도 일대는 신라 교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항구에는 많고 적은 신라 교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노산 항구는 중요한 국제항의 하나였으므로 당연히 신라인이 거주하였을 것이다. 장경원년(821), 평로군절도사 설평(薛平)은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신라 양민을 노략하는 해적들이 등주, 내주 지역과 연해의 여러 도(道)를 장악하고 노비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신라국은 비록 외이(外夷)지만 항상 正朔(음력 정월 초하루)에 보고하고 조공이 끊이지 않으며 우리 본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백성인 양인들이 항상 해적들에게 붙잡혀 팔리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칙령을 제정하여 금지를 내리시어 오랫동안 해적질에 빠져 이전부터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십시오. 수복된 이래로 도로에는 저지하는 일도 없고 서로 판매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살피건대 칙령을 내리셔서 오늘 이후로 연해 여러 도(道)에서 신라국 양인들을 판매하는 등의 일은 일체 금지시켜 주십시오. 해당소재 관찰사에게 엄격하게 체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위법을 하면 법에 따라 처단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교지를 내리니 그대로 하라¹¹⁵⁾고 했다. 노산항구 일대는 내주 지역에 속하는데, 이렇게 증명된 이상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

(3) 엔닌 등이 기록하고 있는 사료를 통해 보면, 절동(浙東) 명주 일대와 소주·양주 등의 장강삼각주 지역, 초주·해주 등의 회해(淮海) 지역, 밀주·래주·등주 등의 산동반도 연해지역은 모두 해상교통·해상무역·해상을 통한 사람의 왕래·해상 서신 전파 등의 방

115) 설평(薛平) 『禁掠賣新羅人口奏』, 『唐會要』권86, 『唐文拾遺』권72, 『문헌통고』권11 盧口考 등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법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으로 모두 신라 및 일본과 지속적인 해상 왕래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절동 명주 일대와 소주·양주 등의 장강삼각주 지역, 초주·해주 등 회해 지역은 모두 신라와 일본에 직접 닿을 수 없었고, 반드시 밀주·내주·등주 등의 산동반도 연해지역의 항구를 통해 출항해야만 했다.

2) 大朱(珠)珠山(駁馬浦) 항구지역

대주산(大珠山)은 지금의 청도시 교주(膠州) 남쪽 경내에 속하고, 당시에는 밀주 제성현(諸城縣) 관내에 속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대주산은 중요한 항구로서 이 일대에도 신라 교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개성4년(839) 4월 1일, 일본의 조공 사절단이 고용한 신라 뱃사람은 해주에서 고용주에게 건의하여 “여기로부터 하루를 북상하면, 밀주의 동쪽 해안에 대주산이 있습니다. 지금 남풍이 불고 있으니 그곳에서 배를 수리한 후 바다를 건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입당구법순례행기』권1) 이로부터 대주산항구 역시 중요한 국제적인 항구였고,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주에는 배를 수리하는 곳이 없었고 오직 배의 왕래와 집산이 비교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개성4년(839) 4월 5일 대증원년(847) 윤3월, 엔닌은 밀주에서 목탄을 싣고 초주로 가는 신라 배를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해주 해안에서 신라 뱃사람 십여 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는 밀주에서 왔는데 배에 탄을 싣고 초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대주산의 박마포(駁馬浦)에서 “신라인 진충(陳忠)의 배가 탄을 싣고 초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만났다.”고 했다. 엔닌은 이렇게 밀주 대주산 일대의 항구에서 목탄 운수업에 종사하는 신라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만남에는 9년이라는 시차가 있었다. 이로써 최소 십 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밀주 일대의 솟을 굽는 업종과

목탄 운수업이 매우 흥성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엔년이 9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두 차례 신라인을 만났는데, 이는 이 일대에서 신라인이 솟을 굽거나 목탄을 운송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 중화(中和)4년(884) 8월, 최치원은 양주를 떠나 출항하여 산둥 반도의 항구를 경유하려 신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산둥반도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정박한 항구가 대주산포이다. 그는 『상태위별지(上太尉別紙)』제1에서 자신을 영접한 신라 사절 김인규(金仁圭)와 “지금 함께 회성(淮城)을 떠나 모두 함대에 올랐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라국의 사절로 “국서(國信)와 가서(家信)를 전달함에,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도 영광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주산에서 시 십여 수를 창작하였고, 십여 수의 시에 서(序)를 지어 스스로 “중화 갑진년 겨울 10월, 사신 동으로 돌아간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최치원이 8월 양주를 출발하여 지금까지 2달이 흘렀음을 설명한다. 그는 동지 10여 일 전에 유산포에 도착하였다.¹¹⁶⁾ 이로부터 최치원이 대주산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최치원이 양주·울수(溲水) 등지에서 관직에 있으며 상주하였다는 것과 양주를 출발하여 초주로 향한 목적은 현재 고증이 가능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최치원이 회남에서 울수현 현위(縣尉, 9품)로 있을 때(877)의 현(縣) 관아의 위치는 현재 이미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이미 한국인들이 조성한 비석과 기념관이 있으며, 과거 울수에 속하고 현재는 고순현(高淳縣)에 속하는 화산(花山) ‘쌍녀분(雙女墳)’터와 최치원이 시를 쓴 석문(石門)터가 있다. 『계원필경집』에 기록되어 있는 회남 양주(무성·광릉·유양)의 관부 소재지 아성(衙城, 훗날 唐城이라 칭하기도 함)·대운사(大雲寺)·복지사(禪智寺)·윤주(潤州)·양마(羊馬)성(城)·요주(饒州, 지금의 江西) 과양

116) 최치원의 이 시기 詩文 모두 『계원필경집』권20에 보인다.

정(鄱陽亭) 등 귀국 도중 회성을 떠나 우이(盱眙)·회해(淮海)·산양(山陽, 지금의 淮安)·초주·대주산·유산·재산(才山)·해문(海門) 등의 지점을 경유하였는데, 어떤 곳은 이미 구체적으로 고증이 되었고, 어떤 곳은 아직 진일보된 발견을 기다려야 한다.¹¹⁷⁾

여기에서 산동반도 등주의 소촌포·유산포·적산포 및 그 부근의 단산포(旦山浦)·장회포(長淮浦), 래주 노산, 밀주 대주산 등에는 모두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嶠山港口 지역

이 지역에는 엔닌이 온 적은 없으며,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갈 때 이 항구에 머물면서 순풍을 기다렸는데, 봄을 이곳에서 보냈다.

당 희종(僖宗) 중화5년(光啓원년, 885) 봄이 지나고 난 후, 최치원은 유산(乳山) 항구를 경유하여 참산(嶠山)으로 가 계속해서 바람을 측정하며 뱃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참산은 지금 청도 참산진에 속하는데 여전히 참산이라 부른다. 어떤 학자는 참산이 유산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곤륜산을 가리킨다고 여기기도 하고¹¹⁸⁾, 어떤 사람은 참산이 대주산이라 여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최치원이 대주산항구에서 정박할 때 『石峰』시 한 수를 지었는데, 시에 “巉巖絕頂欲摩天(참산 바위의 뾰족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하는 구절 때문인데¹¹⁹⁾, 이러한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순풍을 만나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귀국하기 위해, 최치원은 이곳 참산 신령에게 제를 지내 보우를 기원하였는데, 그는 『祭嶠山神文』을 지어 참산의 신령에게 빨리 군자의 나라로 돌아가 고자 함을 토로하여 영광스럽게 신라로 돌아가 황제의 명령을 전달

117) 위옥승(韋旭升) 『崔致遠居唐宦途時期足跡考述』, 『延邊大學學報』 1998년 제4기.

118) 기경복(祁慶福), 『崔致遠在中國行蹟考』, 煙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년 제3기

119) 풍한용(馮漢鏞), 『新羅崔致遠入唐事考』, 文史雜誌, 1998. 1.

하였다. “마침내 오고가는 이가 영령(英靈)에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이가 다 정성을 쏟았다. …… 작년 초겨울 동모(東牟)의 동속(東屬)에 가는데, 창해가 아직 멀고 겨울 현율(玄率)이 다되어가는데, 물결의 형세는 요란하여 익조(鷓鳥)라도 배에 뜨기가 어려웠고, 바람 소리가 몹시 나서 고니도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목을 대고 잠시 단봉(斷蓬)에 편안히 하였다. 어제 날이 좋아 비록 둥근 달을 만났으나 오히려 큰 바람이 두려워서, 목을 길게 빼고 제비가 오는 따뜻한 날을 기다리며, 눈을 오고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내고 있다가, 앞으로 무사히 건너기를 바랐더니, 바로 계림(신라)을 가리킴에 가벼운 배를 띄웠도다. 말을 달리 뿐 아니라 가을 매처럼 날래기를 원하였으나, 이에 멀리 영봉(靈峰)에 나아가니 수궁(壽宮)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푸른 연(蓮)같은 봉우리가 큰 바다에 거꾸로 잠기고, 푸른 소라 같은 산이 높이 갠 공중에 솟아 있다. 위령(威靈)이 풍진 밖에 솟은 것을 우러러 보고, 신의 영향이 구름 가운데 나누기는 것을 상상하였다. …… 오직 참산 대왕의 바람에 의탁하여 군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황제의 명을 전하도록 하시오.”라고 했다. 『桂苑筆耕集』권20) 최치원이 참산에서 순풍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가 지은 시문으로는 『和金員外贈才山清上人』과 『和金員外贈嶠山清上人』(『桂苑筆耕集』권20) 등이 있다. 『和金員外贈才山清上人』에는 金仁圭가 이곳에 있기 전에 才山清上人에게 『贈才山清上人』 시를 써준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들과 이곳 승려의 교류와 우정이다. 그러나 관원과 왕래했다고 하는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최치원이 항구를 떠나 귀국하며 지은 최후의 시는 『題海門蘭若柳』인데, 여기서 난약(蘭若)은 사원이다. ‘해문(海門)’에 대해 『讀史坊輿紀要』에서 “해문은 큰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총칭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일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큰 강은 오룡하(五龍河)인데,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정자만(丁字灣, ‘丁’ 자 형태의 만)으로

바로 최치원이 말하고 있는 해문이다.

이 일대에도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을까? 최치원은 당의 관원이자 사신의 신분으로 고국으로 영광스럽게 귀국하였는데, 양주를 떠나 동으로 출항하며 선택한 항구가 비록 유산항이지만 그 일행은 참산항구 일대에서 순풍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머물렀다. 유산포 일대에는 많은 신라인이 있었고, 이 두 지역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고, 참산 역시 주요 항구였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최치원 일행은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참산 항구 일대에도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단정할 수는 없고, 진일보된 사료가 발견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4. 산동반도 북부의 여러 항구와 신라 교민인구

1) 登州(蓬萊)港

등주의 관공서는 이미 봉래현(蓬萊縣), 지금의 봉래시로 이전되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었다고 한다. 등주 연해의 항구는 역사적으로 중국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섬을 이어주는 항로의 주요 출항·입항 통로였다. 당대 중·후기에도 여전히 등주해에서 고려 발해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 중의 하나이다. 등주 관공서가 봉래현으로 이동된 후, 특히 平盧淄青節度使兼任押新羅渤海兩蕃使를 맡고 난 후, 이곳은 관할지역 내의 주요한 항구가 되었고, 신라와 발해 사절단을 접대하는 것이 ‘押新羅渤海兩蕃使’의 주요 직책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항구의 지위도 중요시되었고, 당 정부는 수도 장안에 ‘사이관(四夷館)’·‘홍려관(鴻臚館)’을 설치하였고, 신라와 발해의 입당 사절단이 주로 이용하는 항구인 등주 봉래에는 전문적으로 신라와 발해 사절단원을 접대하는 ‘신라관’·‘발해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당 정부의 주요 일관된 정책이었다. 송과 고려의 관계에 있어서도, 송은 여전히 등주에 관(館)을 설치하여 사절단을 접대하였다.¹²⁰⁾ ‘신라관’·‘발해관’은 사절단 이외의 신라인이나 발해인이 거주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논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등주 봉래 항구는 신라와 발해 사절단의 전용 항구는 결코 아니었다. 민간 상인이나 승려 및 유학생 등이 모두 이곳을 통해서 입국하거나 귀국을 하였다. 당시 당의 정내에 대량의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 중심관청의 소재지에 신라인이 체류하였다는 것은 분명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2) 登州安香浦(安香浦口) 항구지역

등주 봉래성의 멀지 않은 외곽에 ‘안향사(安香寺)’가 있었다. 개성 5년(840) 3월, 엔닌은 등주에서 오대산(五台山)으로 구법순례를 떠났는데, 등주를 거쳐 오대산으로 가 공험(公驗)을 수속하였다. 등주 봉래성에 도달하여 공문을 기다리는 동안 안향사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다. 안향사는 현재 봉래시 유가구진(劉家溝鎮)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데, 촌의 이름이 안향사와 관련이 있는 ‘안향사촌(安香寺村)’, ‘안향유가촌(安香劉家村)’, ‘안향곡가촌(安香曲家村)’, ‘안향점촌(安香店村)’, ‘안향태자촌(安香台子村)’, ‘안향우가촌(安香于家村)’ 등과 같은 곳이 있었다. (이러한 곳들이) 안향사와 어떠한 연원이 있는지는 아직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안향사는 당시 규모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절이나 엔닌도 모두 이곳에 들러 참배하였을 것이다. 현재 안향사는 ‘해상 비단길: 봉래사적’ 15유적 중의 하나로, 이미 중국국가문물국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신청해 놓았다.

120) 宋大中祥符 “8년(1015), 등주에 館을 설치하여 사절단을 접대하였다.” 『송사』권487 『열전』제246.

그러나 등주 안향포 항구는 이전에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곳은 당시 작지 않은 항구로 분명히 ‘등주고항(登州古港)’의 주요 항구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당대 얼마나 많은 외교 사절들이 이 안향사 항구를 통해 나가고 들어왔는지는 아직 더 자세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송과 고려를 왕래한 사절(단)은 역시 여전히 이 항구를 이용하였다.¹²¹⁾ 이것이 바로 당대 안

121) 『송사(宋史)』권487 『열전』제246: 순화(淳化)4년(993) 정월, “고려 왕치(王治)는 사신 백사유(白思柔)를 보내 특산물을 바치고 아울러 불경과 어제(御製) 등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2월, 秘書丞直史館 진정(陳靖)과 유식(劉式)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왕치에게 檢校太師를 가책하고 조서를 내려 군리와 기로를 위문하였다. 진정 등은 동모(東牟)에서 팔각(八角)항구로 가서 백사유를 만나 그가 타고 온 배를 탔다. 이들은 지망도(芝罘島)를 출발하여 순풍에 바다를 향해하여, 이틀 저녁이 지나서 웅진(甯津)포구에 도착하였고, 160리를 향해하여 고려의 해주(海州)에 도달하였으며, 다시 100리를 더 가서 염주(閔州)에 도착하였다. 또 40리를 더 가서 백주(白州)에 도착했고 다시 40리를 더 가 고려의 수도에 이르렀다. 왕치는 교외에서 사신을 영접하였는데 번국(蕃國)의 도리를 다하였고 진정 등을 70여 일 동안이나 머물게 한 후 돌려보내며, 습의(襲衣)·금대(金帶)·금은그릇 수백 벌, 포(布) 삼만여 필 등과 함께 표(表)를 올려 감사를 표했다. 그 이전인 순화3년(992), 황상은 친히 각 지방의 공거인(貢舉人)을 시험하여 고려인 왕빈(王彬)·최한(崔罕) 등을 급제시키고 관직을 제수하여 그 후에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진정 등이 출사했다가 귀국하자 왕치는 다음과 같이 사례하는 표를 올렸다. ‘왕빈과 최한 등이 입조하여 학문을 연마하였는데, 은덕을 받아 모두 급제하여 將士郎과 秘書省校書郎에 제수되어 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조공을 계속해온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으나 귀국은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있어 친히 찾아뵙고 옥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하니 이 간절한 마음을 펼칠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왕빈과 최한 등이 젊을 시절, 산둥 동부 해변지역을 떠돌며 가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오나 황제 폐하의 바다와 같은 은혜와 보살핌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으며, 작년에 왕빈과 최한이 연이어 응시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급제를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이 만 리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중국에 유학하였다고 하여, 계적(桂籍)에 이름을 올리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秘書省의 관직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향 그리는 마음을 어여뻐 여겨 특별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큰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며, 베풀어주시는 은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進奉使 백사유의 孔目吏인 장인전(張仁鎔)이 임의대로 글을 올렸는데 백사유는 그가 고려국의 기밀을 누설했다고 생각했다. 이를 두려워한 장인전이 감히 귀국하지 못하자 황상이 진정(陳靖) 등에게 그를 귀국시킬 것을 명하고 왕치에게 조서를 내려 죄를 사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왕치는 다음과 같이 표를 올렸다. ‘國信使 진정·유식 등이 도착하여 폐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當道の 進奉使를 수행한 孔目官 장인전이 (폐하의) 대궐에 이르러 함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드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사신 편에 돌려 보내셨습니다. 장인전은 우땀(鴈毛)의 변변치 못한 백성으로 미천한 관리인데 귀국에 나아가 감히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이 들어 함부로 제 소견을 아뢰어 폐하를 번거롭

항사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 원인이다. 이런 중요 항구에는 당시 신라인들이 거주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고증이 필요하다.

3) 靑州 新羅院

개성5년(840) 3월, 엔닌은 등주에서 오대산으로 국법순례를 떠났는데 이때 산동반도의 청주를 경유하였다. 3월 21일 청주에 도착하여 용흥사(龍興寺)에 묵었다. 청주는 당시 平盧淄靑節度使 겸 任押新羅渤海兩蕃使 소재지인 동시에 청주 주관청 소재지이며, 부성(府城, 부의 수도)인 익도(益都) 역시 연해도시이다. 익도부는 益都·臨淄·搏昌·壽光·千乘·臨朐·北海 여러 현을 관리하였고, 平盧淄靑節度使는 齊(齊)·치(淄)·청(靑)·내(萊)·밀(密) 등의 여러 주(州)를 관할하였다. 이씨 일가는 진압된 지가 이미 20여 년이 되었다. 엔닌이 당으로 들어가기 전후의 근 10여 년간, 平盧淄靑節度使 겸 任押新羅渤海兩蕃使가 빈번히 교체되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위장(韋長) 839~841년, 오한진(烏漢眞) 841~843년, 이필(李秘) 843~845년, 최려(崔蠡) 845~847년, 정광(鄭光) 847~849년으로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교체되었다. 그 이전, 819년 이사도를 멸하고 난후, 조정은 설평을 새로 부임시켰는데, 임기는 819~825년까지 6년 동안이었다. 그 다음으로 강지목(康志睦)이 825~831년까지 6년간 뒤를 이었고, 그 뒤로 왕승원(王承元)이 1년(831), 엄휴복(嚴休福)이 2년(833~835), 왕

게 하고 위로는 조정을 더럽혔습니다. 지금 윤언(論言)을 받자오니 그의 죄를 사해 주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이욕을 취하는 자로써 어찌 본분에 벗어난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주(聖主)께서는 관대하고 인자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명령을 멀리서 내리셨기에 장인은 그 죄를 용서하였고 예전처럼 사무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각된 구경(九經) 서책을 하사하여 유교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앞서, 유식 등이 복명(復命)하기를 왕치가 원증연(元證衍)으로 하여금 이들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원증연은 안향포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물품이 침몰했다고 하였다. 등주에 조칙을 내려 원증연에게 문서를 발급하여 환국시키도록 하고, 왕치에게 옷감 200필·은기(銀器) 200량·양 50마리를 하사하였다.”

언위(王彦威)가 1년(835), 진군상(陳君賞)이 3년(836~839) 동안 부임했다. 위장의 후임자인 정연(鄭涓)(849) 이후로 당말 오대까지 20여 명이 있었는데, 임기가 가장 긴 자는 육칠 년, 짧으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모두 달랐다(문장 뒤의 부록 참조). 엔닌이 청주에 도착한 그 해 1년의 平盧淄靑節度使 겸 任押新羅渤海兩蕃使는 위장이었다. 엔닌은 오대산으로 가서 구법순례를 하기 위해서 州衙(주의 관청)으로 가서 節度副使 등의 관원을 알현한 적이 있었다. 개성5년(840) 3월 24일, 저덕, (龍興寺)直歲典座僧은 (그들을) 신라원에 배치하였다.

엔닌은 원래 용흥사에 머물도록 배정되었었는데, 다시 신라원으로 배정되었다. 이로부터 용흥사와 신라원이 한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전좌승은 사찰의 승려와 음식, 그리고 손님이나 승려의 침식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한다. 엔닌 일행을 ‘인도하여 신라원에 배치하였는데’, 이로부터 신라원이 사찰의 부속이거나, 적어도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사원은 사찰과 토지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꽤 많아서 사원에 기대어 생활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¹²²⁾ 신라원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신라 교민이 아니라 하도라도 신라 교민은 그 주요한 구성원이었다. 그 사람들은 사원에 기거하는 노비와 양인지부(良人枝附)가 많았다.¹²³⁾

청주 신라원의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곳은 平盧淄靑節度使 겸 任押新羅渤海兩蕃使 소재지와 청주 관청 소재지 및 익도부 관청소재지가 있는 대도시에 위치해있고,

122) 회창5년(845)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친하의 여러 사찰의 노비는 강회 사람의 수가 가장 많다.”(『당회요』권86 『노비』) 당 무종 법난 시기, “사원 4천6백 개를 제거하니, 계관승려 26만5백, 그 노비가 15만, 양인으로 사원에 종속되어 허드렛일을 하는 자들이 계관승려의 배가 되었고 양전도 수천만 경이나 되었다.”(『樊川文集』권10 『杭洲新造南亭子記』)라는 기록으로부터 사찰의 승려 수가 25만이라는 사실 외에도 노비가 15만 명, 良人枝附, 즉 사원에 의거하는 인구가 ‘승려 수의 두 배인 50여만 명으로 두 종류의 합계가 70여만 명으로 사원 승려 수의 세 배수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3) 위의 주 참조.

동시에 연해도시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아직 상세한 자료로 고증되지 않았을 뿐이다.

4) 淄州 長山縣 醴泉寺 新羅院

개성5년(840) 4월 3일, 엔닌 일행은 여행 공험(公驗)과 양식을 얻어 청주를 떠났고, 4월 6일 치주 장산현에 도착하며 그 지역의 유명한 불교 사원인 예천사로 갔다. 이 사원은 북조 시기에 건립되었는데, 당 중종이 ‘醴泉’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 당시 사원은 이미 많은 손상이 있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예천사의 “장원(莊園)은 15곳으로 현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승려는 본래 5백여 명이었는데, 인연법에 따라 흩어져 지금 사찰에 거주하는 이는 30여 명 정도이다. 전좌승이 인도하여 신라원 내에 배치시켰다.”는 기록이 나온다.(권2) 이것은 치주 장산현의 유명 사찰 예천사에도 많은 신라 교민이 있었고, 이들은 사원에 기거하는 노비나 ‘良人枝附爲使傭者’의 신분으로 신라원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이 예천사 신라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고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위에 언급한 엔닌의 기록을 통해 그 규모가 적산법화원 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비슷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설령 적산법화원 부근에 신라인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신라원 안에는 그 수가 100여 명은 있었을 것이다.

5. 부록 : ‘勾當新羅所’와 기타

마지막으로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에 대해 언급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략히

이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등주 문등현 경내에는 “구당신라소가 있었는데, 현의 동남쪽 70리 까지 문등현 청녕향(靑寧鄉)을 관리하였다.”(권4)라고 하였다. 이것은 ‘勾當新羅押衙所’(권2)의 약칭이다. ‘구당(勾當)’은 즉 ‘(책임)관리’·‘(책임)처리’의 의미이다. ‘압아(押衙)’는 당대 중앙과 지방 관청의 무관 소속 관리로 그 직급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정식 관원이 아닌 ‘관아(官兒)’의 신분이었다. 이러한 인물들은 보통 정사의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정사 외의 문헌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정식 관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마치 文官散差(문관 과견직)와 같은 武差散差(무관 과견직)이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도 ‘文官名堂’이 될 수 없었고 오직 ‘武官名堂’만이 될 수 있었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당시 이러한 문헌 기록의 하나로 그는 당 소종 광화(光化)4년(901) 『무염원중수비(無染院重修碑)』 비문 중에 “계림 김청(金淸) 압아는 고향 부상(扶桑)을 떠나 청사(靑社)로 와서 화물을 은수(鄞水)로 보냈다. 마음을 금전(金田)에 두고 청부(靑島)를 시주하여 뛰어난 영지(郢地) 장인을 뽑아 백석(白石)을 깎아 천축의 탑을 세웠다.”¹²⁴⁾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는 돈황에서 출토된 권자(卷子)에서 이 관함(官衙)의 인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장씨 성의 ‘勾當新羅押衙所’, ‘押衙’는 분명 신라인이며, ‘官兒’라는 ‘직책’의 정식명칭은 ‘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張勾當文登縣界新羅人戶’이다.(권4) 이 직급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요 업무는 ‘勾當文登縣界新羅人戶’이었으며,

124) 비문은 『등주부지』·『모평현지』 등에 기록되고 있다. 20세기 90년대 초 劉永智·袁曉春의 『山東省文登市崑崙山無染寺(院)系新羅人金淸資助建造』(『學術研究叢刊』, 1991(1), pp.105~107) 등의 연구가 있었다. 최근 한국 박현규(朴現圭) 교수가 『山東無染院和新羅相關的研究』(『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論文集』, 2005년 11월, pp.88~99) 등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자연스럽게 신라 교민들과 쉽게 왕래할 수 있었다. 이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가 책임을 져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는 ‘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의 직함을 가졌고 ‘勾當文登縣界新羅人戶’의 권위가 있어 그의 관할 ‘신라인호(新羅人戶)’에 있는 반역의 무리들을 위협하였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이 적산법화원에 묵는 동안 州·府·縣의 衙門(관아에서) 적산법화원 주지 승려 등을 훈계·문책하기도 했다고 한다.¹²⁵⁾ 그러나 이 장압아는 인품이 훌륭하여 관부에서도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관할 신라인호에서도 그를 매우 지지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임직 기간은 매우 길었다. 엔닌은 개성4년 등주에 왔다가 대중원년에 떠났는데, 이 시기 장압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어찌면 이 일이 본래 많은 잡무가 없는 직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개성4년 4월, 엔닌 일행은 배를 타고 등주 경내에 속한 모평현(牟平縣) 유산포(乳山浦)항구로 갔는데 여기에도 ‘압아’가 있었다. 이 사람이 장압아였는지, 아니면 다른 인물의 ‘平盧軍節度同十將兼登州諸軍事押衙張勾當文登縣界新羅人戶’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압아는 보기에 기백이 넘치고 신라선을 타고와 배에서 내려 상륙하였는데 많은 낭자(娘子)가 그를 따랐다. 그는 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업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였거나 혹은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통로가 있지 않았다면 그의 봉록만으로는 이러한 소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우리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서 산동반도 백성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산동반도에 거주하는 신

125)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엔닌이 적산법화원에 가는데, 문등현 관부에서 지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서, 縣典王佐·主簿胡群直 등이 ‘현첩’을 가지고 유관 책임자를 꾸짖으며 말했다.

라 교민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한 번에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엔닌은 개성3년(838) 당으로 들어갔다가 대중원년(847)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에서 구법 순례했던 기간은 9년 7개 월이었다. 그는 개성5년(840) 등주·청주 등을 시작으로 산둥반도를 지나 서쪽 오대산(五台山)으로 갔다. 설령 산둥반도에 흉작이 들어 백성들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였다.

엔닌과 그의 제자 유정(惟正)과 유효(惟曉) 그리고 행자 정웅만(丁雄萬) 일행은 서쪽으로 가는 길에 걸식하며 끼니를 해결하였는데 많은 이들이 대접하기를 꺼려하였다. 치주(淄州) 치천현(淄川縣)의 조씨는 “주인이 매우 가난하여 먹을 밥이 없어도 마음에 악이 없었다.”라고 했다.

엔닌은 이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면, 등주 전재관(戰齋館) 우동환(于東桓)의 집에서 공양을 하는데, “주인은 극히 인색하여 한 접시 채소를 빌리는데, 재삼 부탁해야 비로소 주었다.”라든가 내주 北海縣(北海縣) 고산촌(孤山村) 송씨는 “주인은 이재에 밝아, 소금 한 줍, 간장 한 수저도 돈이 없으면 주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침 흉년에다가 살아가기도 여윌롭지 않은 터에, 한 번에 4명의 장년 남성이 와서 식사를 원하니,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해할만 하다. 게다가 그들을 길을 떠나는 사람들로 식사량도 꽤 많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엔닌 일행은 매번 어려움에 봉착하기는 했지만, 소금과 찬이 주어져 두루 해결하며 길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불시에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봉래현 관내에서 승부관(乘夫館)에 가서 밥을 먹고, 교촌(喬村) 왕씨 집에 가서 차를 마셨다. 장산현(張山縣)으로 간 이후로는 선인대(仙人臺) 앞 부촌사가(不村史家)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서쪽 예천사(醴

泉寺) 과수원에 가서 차를 마셨고, 남쪽 유씨 집에 가서는 공양을 하고 난 후 차를 마셨다.

엔닌 일행은 각 지역의 관부와 사원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개성4년(839) 6월 8일, 문등현 청녕향 적산법화원에서 승려 삼십여 명이 ‘서로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엔닌 등이 차를 청하고 차있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더욱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이 일대의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생활이 평온하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신라인이 여기로 유입되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

엔닌의 기록 중에 해주(海州) 연해의 숙성촌(宿城村)·사주(泗州), 초주 등지의 신라방 등은 신라 교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역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어 여기에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顧祖禹 『讀史方輿』 권92 浙西4에 기술되어 있는 ‘新羅泉’·‘新羅山’·‘新羅頂’ 등과 같은 역사적 흔적이 이미 적지 않게 발견되어 있는 상황이며,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료 속에서 꾸준히 발견될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신라인 입당 시기 : 신라 유민이 대량으로 출현한 것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로 그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신라와 당

모두 중앙 정부의 권력 약화시기로 진입 2) 신라와 당의 우호적인 관계 3) 신라의 자연재해. 4) 당의 상업·도시의 발전

2. 신라인의 재당 거주 시기 :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9세기 50년대 이후 신라 교민은 이미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신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당으로 귀화하였다. 즉 9세기 초 대량으로 출현했다가 9세기 중엽에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 시간은 반세기 가량이다.

3. 신라인의 재당 거주 지역 분포 : 당으로 들어간 신라 교민은 주로 산동반도 및 그 남부·장강 삼각주 및 그 북부 연해지역 그리고 강희운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중 남방에는 신라인이 직접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륙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큰 도시의 신라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방의 산동반도는 이와 달리 중외로 출입할 수 있는 항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 분포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항구가 많다는 것은 ‘어떤 어떤 항’이 많다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고정적인 대형 항구가 있고 그 주변에 다른 항구가 없다는 개념은 아니다. 비록 요동반도 및 요동 항구지역은 신라와의 거리는 매우 가깝지만 고구려·계단·발해 등과의 오랜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원한으로 이곳에는 신라 유민이 목표로 하는 거주 지역이 형성될 수 없었다. 이에 신라 유민은 이 지역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4. 신라인 재당 거주 지역 : 도시지역·농촌지역·사찰지역.

신라방은 신라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구역이고, ‘신라촌’·‘신라원’은 불교사원으로서 신라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이다.

5. 신라 교민의 재당 인구 : 상대적이고 구체적인 시간대에 동시에 당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를 통계 낼 방법은 없지만 수만은 있었을 것이다.

이상 다섯 가지 중 이미 고증된 것도 있으나 아직 추측단계로 전문가의 연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다.

이외에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내륙이나 중국 장강구(長江口) 이북 연해지역의 현존 유적은 상당히 많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이 이미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 정부와 여행사들은 이러한 유적지를 한·중 경제 교류와 관광지라는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학자들마저도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많은 지방의 귀중한 유적지들이 훼손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결정이나 자문 과정에 일부 악의적인 여행학전문가가 개입하여 너무도 쉽게 우리 역사 문화유산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 (韓)卞麟錫:『唐長安新羅史迹』, (韓)亞細亞文化社, 2000.
- (韓)曹永祿:『在東亞史上中國國際秩序的推移和韓日的策應』, 『中國與東亞細亞世界』, (韓)國學資料院, 1997.
- (韓)崔在錫:『統一新羅·渤海與日本的關係』, (韓)一志社, 1993.
- (韓)姜鳳龍:『張保臯的海上交易活動與黑山島的繁榮』, 『中國海洋文化研究(第二卷)』, 海洋出版社, 2000.
- (韓)金得幌著, 柳雪峰譯:『韓國宗教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 (韓)金文經, 金成助, 金井昊:『張保臯海洋經營史研究』, (韓)同書出版, 李鎮, 1993.
- (韓)金文經, 金德洙:『張保臯海上活動與清海鎮貿易商人研究』, 『中國海洋文化研究(第二卷)』, 海洋出版社, 2000.
- (韓)金文經:『唐高句麗新羅僑民』, (韓)日新社, 1986.
- (韓)金文經:『在唐新羅人的活動』, 『古代韓中日關係研究』, 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 1987.
- (韓)李昊榮:『新羅三國統合與麗·濟敗亡原因研究』, (韓)書景文化社, 2001.
- (韓)李基白著, 鄭胤譯:『韓國史新論』, 國際文化出版公司, 1994.
- (韓)李侑珍:『9世紀在唐新羅人的活動研究以『入唐求法巡禮行記』爲中心』, 『中史研究』第13輯, 2001.
- (韓)朴現圭:『山東無染院和新羅相關的研究』, 『古代中韓海上交流學術研討會論文集』, 2005.
- (韓)全海宗:『中韓關係史論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韓)權惠永:『在唐新羅人社會研究』, (韓)一潮閣, 2005.
- (韓)權惠永:『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韓)一潮閣, 1997.
- (韓)申滢植:『山東半島的新羅坊』, (韓)『梨花史學研究』2003年 第30期.
- (美)謝弗着, 吳玉貴譯:『唐代的外來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日)池田溫編:『唐代詔敕目錄』, 三秦出版社, 1991.
- (日)偏敏一著, 韓昇, 劉英譯:『隋唐帝國與東亞』, 云南人民出版社, 2002.
- (日)旗田巍, 李東源譯:『新羅的村落正倉院所在新羅村落文書的研究』, 『朝鮮史研究』, 1985.

- (日)武田幸男主編『朝鮮社會史的展開』(論文集), (東京)山川出版社, 1996.
- (日)圓仁著, 顧承甫, 何泉達点校『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古籍出版社, 1986.
- [清] 劉喜海輯:『海東金石苑』, 石刻史料新編本.
- [清] 『山東通志』, 文淵閣四庫全書本.
- [宋] 陳舜俞:『廬山記』, 文淵閣四庫全書本.
- [宋] 贊寧:『宋高僧傳』, 中華書局, 1987.
- [新羅] 崔致遠:『桂苑筆耕集』, 四部叢刊本.
- 拜跟興:『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陳宁英:『唐代律令中的奴掉略論』, 『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年 第4期.
- 陳尚勝:『論唐代山東地區的新羅僑民村落』, 『東岳論叢』, 2001年 第6期.
- 陳尚勝:『唐代的新羅僑民社區』, 『歷史研究』, 1996年 第1期.
- 陳尚勝:『中韓關係史論』, 齊魯書社, 1997.
- 陳尚勝主編:『登州港與中韓交流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學出版社, 2005.
- 陳炎:『海上絲綢之路與中外文化交流』, 北京大學出版社, 1996.
- 陳志學:『試論唐代武官的入仕途徑』, 『中華文化論壇』, 2002年 第3期.
- 程喜霖:『論唐代關津與過所的關係及其國防治安功能』, 『湖北大學學報』, 1999年 第2期.
- 程喜霖:『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2000.
- 程喜霖:『吐魯番與敦煌所出唐代正副過所』, 『敦煌吐魯番學研究論集』, 書目文獻出版社, 1996.
- 党銀平:『唐末新羅文人崔致遠占籍與家世考述』, 『東南大學學報(哲社版)』, 2000年 增刊.
- 党銀平:『從崔致遠諸文看唐末與新羅的交往關係』,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4年 第2期.
- 都興智:『唐政權與朝鮮半島的關係述論』, 『史學集刊』, 2001年 第3期.
- 樊文禮:『登州與唐代的海外交通』, 『海交史研究』, 1994年 第2期.
- 範邦瑾:『唐代蕃坊考略』, 『歷史研究』, 1990年 4期.
- 方亞光:『唐代外事機構論考』, 『中國史研究』, 1996年 2期.
- 高鳳林:『隋唐時期山東地區與日本, 朝鮮之間的交流與往來』, 『山東師範大學報(社會科學版)』, 1994年 第1期.

- 高明士：『賓貢科的起源與發展兼述科學的起源與東亞士人共同出身之道』，《唐史論叢》第6輯，陝西人民出版社，1995。
- 高明士：『隋唐天下秩序與羈縻府州制度』，(台北)『民國史專題論文集』，第5輯，2000。
- 高明士：『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東亞世界形成的一側面』，(台北)明文書局，修訂版，1996。
- 顧承甫，何泉達点校：(日)圓仁『入唐求法巡禮行記』，上海古籍出版社，1986。
- 韓國盤：『南北朝隋唐與百濟新羅的往來』，《歷史研究》，1994年 第2期。
- 黃清連：『圓仁與唐代巡檢』，(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68:4，1997。
- 黃心川：『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教的交流新羅來華佛教僧侶考』，《世界宗教研究》，1989年 第1期。
- 黃有福，陳景富：『中朝佛教文化交流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3。
- 姜清波：『入唐三韓人研究』，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2005。
- 姜清波：『試論唐代的押新羅，渤海兩蕃使』，《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5年 第1期。
- 蔣非非，王小甫等：『中韓關係史(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8。
- 介永強：『唐代的外商』，《晉陽學刊》，1995年 第1期。
- 金憲鏞，李健超：『陝西新發現的高句麗人，新羅人遺跡』，《考古與文物》，1999年 第6期。
- 黎虎：『漢唐時期外交行政管理的運行機制』，《中州學刊》，1999年 第4期。
- 黎虎：『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歷史研究》，1998年 第3期。
- 黎虎：『唐代綏邊政府的涉外行政事務管理權能』，《社會科學戰線》，1999年 第1期。
- 李斌誠：『唐代文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2。
- 李岩：『新羅留學僧在唐的文學交流』，《當代韓國》，2002年 第3期。
- 李云泉：『漢唐中外朝貢制度述論』，《東方論壇》，2002年 第6期。
- 李宗勳：『新羅坊考』，《朝鮮韓國文化與中國文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
- 梁太濟：『崔致遠及其筆下的唐和新羅關係』，《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杭州出版社，1997。
- 林士民：『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海交史研究》，1993年 第1期。
- 林天蔚，黃約瑟主編：『古代中韓日關係研究』，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1987。
- 林英：『明州市舶史略』，《海交史研究》，1981年 總第3期。

- 劉成：『唐宋時代登州港海上航線初探』，《海交史研究》，1985年 第1期。
- 劉素琴：『新羅僧侶對唐代佛教的貢獻』，《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5年 第1期。
- 劉統：『唐代羈糜府州研究』，西北大學出版社，1998。
- 劉希爲：『隋唐交通』，(臺北)新文豐出版公司，1992。
- 劉希爲：『唐代新羅僑民在華社會活動的考述』，《中國史研究》，1993年 第3期。
- 劉永智：『新羅坊等遺跡的調查與研究』，《中朝關係史研究》，中州古籍出版社，1994。
- 劉玉峰：『試論唐代海外貿易的管理』，《山東大學學報》，2000年 6期。
- 羅振玉編著：『唐代海東蕃閩志存』，石刻史料新編本。
- 馬馳：『羈旅長安的新羅人』，載 高明士主編：『洞亞文化圈的形成與發展政治治篇』，(臺灣)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2003。
- 馬馳：『論仕唐蕃人之漢化』，《唐史論叢(第七集)》，陝西師範大學出版社，1998。
- 馬馳：『唐代蕃將』，三秦出版社，1987。
- 馬一虹：『從唐、日本及新羅典籍中有關稱謂看三國對渤海的認識』，《歐亞學刊》，第三輯，2002。
- 木易：『試論唐宋的對外開放』，《雲南師範大學哲學社會科學學報》，1995年 第1期。
- 彭德清主編：『中國航海史(古代航海史)』，人民交通出版社，1988。
- 朴文一：『試談在唐新羅坊的特点及其性質』，《延邊大學學報》，2000年 第3期。
- 邱克：『海上絲綢之路與各國船舶』，《中國交通史論》，人民交通出版社，1994。
- 泉州港與古代海外交通編寫組：『泉州港與古代海外交通』，文物出版社，1982。
- 沈光耀：『中國古代對外貿易史』，廣東人民出版社，1985。
- 石曉軍：『隋唐四方館考略』，《唐研究》，第7卷，2001。
- 石源華，胡禮忠主編：『東亞漢文化圈與中國關係』，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
- 孫光圻：『公元8~9世紀新羅與唐的海上交通』，《海交史研究》，1997年 第1期。
- 孫光圻：『中國古代航海史』，海洋出版社，1989。
- 孫柞民：『山東通史』，山東人民出版社，1992。
- 譚其驤主編：『中國歷史地圖集』第五冊，地圖出版社，1982。
- 陶希聖主編：『唐代寺院經濟』，(臺北)食貨出版社，1979。
- 田邱添生：『唐代起用外族人研究』，《臺北大陸雜誌》，38卷 第4期。
- 王靜：『隋唐四方館、鴻賓客館論考』，《西域研究》，2002年 第2期。
- 王賽時：『唐代的淄青鎮』，《東岳論叢》，1994年 第2期。

- 王小甫主編：『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上海辭書出版社，2003。
- 王儀：『古代中韓關係和日本』，(臺北)中華書局，1973。
- 王永興：『唐勾檢制研究』，上海古籍出版社，1991。
- 王周昆：『唐代新羅留學生在中朝文化交流中的作用』，『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年 第2期。
- 韋旭昇：『崔致遠居唐宦途期足跡考述』，『延邊大學學報』，1998年 4期。
- 汶江：『唐代的開放政策與海外貿易的發展』，『海文史研究』，1988年 2期。
- 巫寶三：『唐代重商思想的興起』，『中國經濟史研究』，1997年 第3期。
- 吳廷燮：『唐方鎮年表』，中華書局，1980。
- 吳玉貴：『唐文化史對外文化交流編』，『唐代文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2。
- 夏應元：『海上絲綢之路的友好使者~~~~東洋篇』，海洋出版社，1991。
- 謝海平：『唐代在華蕃人生活研究』，(臺北)商務印書館，1987。
- 謝澎田：『試論新羅僧金地藏入唐求法修道的思想和實踐』，『安慶師院社會科學學報』，1995年 第1期。
- 嚴耕望：『新羅留唐學生與僧徒』，『唐史研究叢稿』，香港新亞研究所，1969。
- 閻琦：『新羅詩人崔致遠』，『西北大學學報』，1993年 1期。
- 楊際平：『唐代的奴婢、部曲與僮仆、家人、淨人』，『中國史研究』，1996年 第3期。
- 楊通方：『中韓古代關係史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 楊希義：『唐代賓貢進士考』，『中國唐史學會論文集』，三秦出版社，1993。
- 楊昭全：『唐與新羅之關係』，『中朝關係史論文集』，世界知識出版社，1988。
- 楊志玖：『試論唐代蕃鎮割据的社會基礎』，『歷史教學』，1980年 第6期。
- 姚楠、陳佳榮、丘進：『七海揚帆』，香港中華書局，1990。
- 袁元龍、洪可堯：『宁波港考略』，『海文史研究』，1981年 總第3期。
- 張碧波：『中華文化圈中的新羅』，『學術交流』，2001年 第4期。
- 張國剛：『唐代蕃鎮研究』，湖南教育出版社，1987。
- 張劍光：『唐代蕃鎮割据與商業』，『文史哲』，1997年 第4期。
- 張宇生等：『隋唐五代墓志匯編』(共十卷)，天津古籍出版社，1991。
- 張勳：『論唐代中外僧侶的海上求法熱潮』，『江蘇社會科學』，1999年 第4期。
- 張煒、方堃主編：『中國海疆通史』，中州古籍出版社，2002。
- 張澤咸：『唐代工商業』，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5。
- 張澤咸：『唐五代賦役史』，中華書局，1986。

- 張志宏:『圓仁入唐散論』,『文史哲』,1994年 第1期.
- 章群:『唐代蕃將研究』,臺北聯經出版社事業公司,1987.
- 章群:『唐代蕃將研究(續編)』,臺北聯經出版社事業公司,1991.
- 章巽:『我國古代的海上交通』,商務印書館,1986.
- 趙誠煥:『追隨崔致遠在中國唐代的歷史遺跡』,『陰山學刊』,2001年 第9期.
- 鄭紹昌:『宁波港史』,人民交通出版社,1989.
- 周紹良編:『唐代墓志匯編』,上海古籍出版社,1992.
- 周紹良,趙超主編:『唐代墓志匯編續集』,上海古籍出版社,2002.
- 朱江:『論通一新羅時代的海外交通』,『揚州大學商學院學報』,1996年 第3期.
- 朱亞非:『從法華院看唐代山東的對外交往』,『海洋文化研究』,第2卷,海洋出版社,2000.

당대 등주항의 해상교통과 무역

조성국(趙成國)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당나라 시대는 중국 역사상 봉건사회가 흥성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봉건제도는 완벽하게 성숙하였으며, 경제 문화는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다. 교통운송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외국과의 대외교역도 더욱더 빈번해지고 확대해갔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의 항구와 해운 활동에도 반영이 되었다.

당대(唐代)는 등주항(登州港)의 전성시대였다. 등주항은 당시 북방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서 일본과 신라를 상대로 한 수출입의 중요한 통로였다. 산동반도의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졌고 이 때, 일본의 여야는 당나라 시대 문화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반도의 신라와 당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 신라의 상선(商船)은 항상 등주항까지 도달하곤 했고 무역과 외교, 문화 교류활동에 종사했다. 해외무역 교류는 전무후무하게 증가했고 등주항은 전대미문의 번영과 전성을 향해 나아갔다. 등주는 해운과 대외 교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고 전국 해상교통과 무역의 가장 중요한 항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I. 당대 등주항 번영의 원인

등주의 명칭은 당 무덕(武德)4년(621)부터 사용되었다. 등주 지방 관공서가 문등현(文登縣, 지금의 산동 문등)에 설치되어 문등과 관양(觀陽) 두 현을 관할하였으며, 여의(如意)원년에는 모평현(牟平縣, 지금의 산동 牟平)으로 옮겼다가 중종(中宗) 신룡(神龍)3년(707)에 다시 봉래현(蓬萊縣, 지금의 산동 蓬萊)으로 옮기고, 봉래, 문등, 모

평, 황(黃, 지금 산둥 龍口) 4현을 관할하였다.

상고 시대의 등주항은 단지 흑수하(黑水河)와 밀수하(密水河)의 두 강이 들어오는 해구의 자연적인 항만이였다. 후에는 어업이 발전함에 따라 차츰 어선의 대피항으로 발전하였으며, 전국 시대에는 우수한 지리 조건과 해양 활동의 전통을 두루 갖춘 주요 항구로써 이곳을 통해 북방의 원해항로가 열리게 되었다. 진나라 때는 더욱 발전하여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연장이 되어 진시황 및 한 무제의 해상 순행(巡行)과 봉선(封禪)활동의 중요한 항구가 되었다. 『사기(史記)』 및 『한서(漢書)』, 『자치통감(資治通鑑)·한서(漢記)』 등의 기록에 의하면 한 무제는 동래(東萊, 등주항 소재지)를 모두 8차례 순행하였다.¹⁾ 해상 순행과 봉선활동은 조선업과 해양업 및 항구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등주항의 발전 규모는 당시에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현대에는 해상의 실크로드 개척의 기반이 다져졌다.

기원전 109년, 등주항은 군항(軍港)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사기·조선전』에는 한 무제 원봉(元封)1년에 등주에서 묘도반도를 거쳐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진(東晉) 시대의 성화(咸和)8년(333)과 함강(咸康)7년(341)까지, 후조(後趙, 위진 시대 16국 중 하나, 319~351년) 시대에는 전쟁 준비를 위해 해상운송을 강화하였으며, 끊임없이 연(燕)과의 전쟁을 치루었다. 수당 시기 전후에는 등주항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대량의 용병을 고려에 파병하는 등 등주항과 주도군도는 군사와 식량을 요동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주요 통로가 되었다.²⁾

남북조 시대(420~589), 등주항은 수군의 군사기지가 되었다. 북방

1) 단조영(單兆英), 壽楊賓主編: 『登州古港史』, 人民交通出版社. 1994.

2) 이보청(李步靑), 왕척평(王楊平): “登州港的變遷及其在歷史上的作用”, 『海交史研究』 1988年 제2기.

의 혼란한 전쟁기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의 이민이 등주항에서 배를 타고 비교적 안전한 남방으로 이주하였으며, 상업 활동에 있어서는 실크의 주요 생산지가 되어 등래 등의 주요 항구를 통하여 이를 기타 지방으로 운송했다.

당·오대 시기에 등주항은 전성기에 접어들어 당시 북방의 가장 중요한 항구가 되었으며, 일본과 신라의 조공을 운반하는 주요 무역항이 되었다.

당 건국 이후 등주항은 국제적인 영향이 날로 확대되어 일본과 신라를 상대로 한 전국 최대의 주요 무역항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의 등주와 내주(萊州)는 중국 북방의 중요한 해외교통의 관문이자 조선업과 무역의 중심이었다. 당대 북방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산둥반도의 등주와 내주뿐이었다.³⁾

당나라 시대 등주항의 번영은 먼저 전대미문의 경제적인 발전에 기초한다.

당나라는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풍요롭고 국력 또한 강성했다. 이 시기 산둥반도의 경제 발전 또한 신속했는데 방직을 실례로 들면 “개원 초기에, …… 천하의 북해(北海, 산동 靑州)라는 곳의 명주(明紬)가 최고로 알아주었다.”⁴⁾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나라 시대는 견직물의 품목이 매우 많았으며,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도 풍부하였다. 『당육전(唐六典)』의 기록에 의하면, “하남도(河南道)에서 명주, 절(絶, 의류의 일종), 면(綿), 포(布)를 보냈고, 기름, 실(純), 문룡(文綾), 사갈(絲葛)을 진상했다.”고 한다. 하남도는 모두 8주 37개 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산둥반도가 절대적이었으며, 하남과 강소 지역이 일부분을 차지한다. 산둥반도는 역사상 실크의 고향

3) 송효(宋曉) : “古代東半島與朝鮮半島及日本之間的海上交流”, 『中國海洋文化研究(권1)』, 海洋出版社, 1999년판, pp.70~73.

4) 『태평광기(太平廣記)』권30, 『三衛』引 『廣異記』.

이라 부를 수 있다 산동은 의류 방면(모자, 의류, 신발)의 천하라는 칭호를 받았다. 당나라 시대는 실크로드가 가장 발달된 시기였고, 등주항은 동방 실크로드의 기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등주항의 발달된 해상무역의 영향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국제무역과 문화 교류의 급속한 증가였다.

당나라 시대는 조정의 힘으로 해외 교류를 개척하는 한편 당대의 경제 발전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국제무역 상인과 사절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국제무역과 교류의 폭발적 증가와 발전을 야기했다.

먼저 일본은 당 태종 정관19년(645)에 효덕황제가 즉위하여 중국의 전제 군주제를 본받아 연호를 대화로 제정하는 등 ‘문화혁신’을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일본 여야에는 당의 선진문화를 배우려는 열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당시 삼국 시대였던 조선은 당 고종 상원3년(676) 신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여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대립하던 국면을 마무리하였다. 통일신라는 해외무역과 왕래가 왕성하여 당나라 제왕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했다. 신라 상선은 등주항까지 항해하여 무역, 외교, 문화의 교류활동을 하였으며, 등주와 밀주 등의 연해지역에 접대와 투숙을 목적으로 하는 신라방을 설치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업과 해항기술의 고도 발전이다.

당나라 시대에 크게 발전한 조선업은 당 초기에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다. 『자치통감』권199에 따르면 당 태종은 “월주도독부(越州都督府) 및 무주(婺州), 홍주(洪州) 등에 해선과 쌍방(雙舫) 1천 1백 척을 건조하라.”고 명했다. 이것은 당 초기 조선업은 그 기초가 두텁고 규모가 컸음을 말해준다.

당대는 조선업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기술도 대단히 선진화되었다. 당시의 배는 단지 보편적인 뚝을 접합하여 끼워 맞추는

법을 채용하였고 유럽 배의 선반연결 방법은 여전히 가죽 끈을 이용하여 묶는 단계로 처리하였다. 1960년 강소성 양주 시교진(施橋鎮)에서 당대의 대형 목선이 출토되었는데, 배안은 물을 막는 격창이 설치되어 내부가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배의 항심성(배가 잠기지 않는)의 저항력을 유지하였고 아울러 중국 목선 건조의 규범이 되었다. 선박의 외판은 평접법(平接法)을 채택하고, 배안은 격판, 선실 침목과 좌우 양현은 구멍을 내어 접목시켰다. 뱃전은 4개의 커다란 목재로 결합시켰으며, 평평하게 배열한 다음 못으로 박았다. 구멍을 뚫은 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저 45도로 비스듬하게 구멍을 낸다. 철못은 길이 17cm에 머리 지름 2cm이다. 철못을 구멍에 따라 삽입하고 두 판을 연결한다. 매 25cm의 간격으로 한 개씩 박고 위와 아래 양쪽으로 교차해서 박는다. 바닥 역시 이러한 평접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평접법과 답접법을 비교하면, 연결이 헐거워지거나 빠지지 않고, 선체가 유연하고 저항력을 감소시키며, 또한 목재를 절감하고 배 자체의 중량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목선을 만드는 데에서 공예와 기술상의 수준은 매우 선진적이라 말할 수 있고, 이러한 평접법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⁵⁾

당나라의 항해기술 역시도 상당히 선진적이었다. 연구에 의하면, 당나라 시대 천문 해항기술은 새롭게 발전하였다. 그 주요 요인은 (1) 몇몇의 조기 항해 길의 나침반(指南) 성격의 문자 기록이 이미 사서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비록 문헌자료 상으로는 당대의 선원이 전면적인 항해 길에 나침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모형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비교적 정확한 수학적 서적이 있다. 예컨대, 『해도산경』은 해안과 바다의 지형지물 거리와 고도 측량을 측량할 수 있었다. (3) 해안 지형과 해

5) 장규원(張奎元)·정상산편(정상山編) : 『中國全中國唐代五代科技史』, 人民出版社 1994년판, pp.163~164.

양의 생김새에 대한 분별 지식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천문(천체) 항해기술 역시도 새로운 진전으로 나타났는데, 천문을 이용한 항해술도 보편화되고 성숙되었다. 당시 초기 단계였던 천문 측량을 이용한 항해기술은 일종의 모호한 통계방법이었으나 경험이 풍부한 선원에게는 상당히 민첩한 항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⁶⁾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기술은 송대에 들어서 보편화 되었으나, 중국은 나침반인 사남(司南)과指南차(指南車) 등을 발명하고 이를 응용한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 한나라의 사남은 매우 유명해졌고, 진나라 또한指南배가 있었고, 당나라 초기의 사람들도 그것을 잊지 않고 항해에 사용하였다.

당나라 해양 기후지식도 매우 풍부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당나라는 계절풍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어 있었고, 아울러 해양의 실제 경험에 응용하였다. 예를 들면 『당국사보(唐國史補)』권하에서 “배가 장강과 회수(淮水)를 거슬러 올라갈 때 동북풍을 기다리곤 했다. 이것을 신평(信風)이라 불렀다. 7, 8월에 상신(上信)이 있고, 3월에는 조신(鳥信)이 있으며, 5월에 맥신(麥信)이 있다.”고 나온다. 태풍에 대한 지식 역시도 향상이 되었고, 경험을 통하여 태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 바다 조석의 지식 또한 향상이 되었다.⁷⁾ 결론적으로 당나라 초기의 항해기술은 이미 새로운 수준으로 도달되어 있었고 당시 세계의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

6) 손광기(孫光圻),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1989년판, pp.336~345 참고

7) 손광기(孫光圻),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1989년판, pp.337~344

II. 등주항의 해상교통항로와 주요 항해활동

1. 해외교통항로

당나라 등주 경내에 가장 주요한 항해 노선은 당 정원(貞元)연간(785~805) 때 재상이었던 가담(賈耽)이 말하길 “등주 바닷길은 고려·발해도 및 이로부터의 연장된 ‘일본도’로 들어간다.”고 한다.

당나라와 한반도 삼국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고 분명한 통계는 아니나 등주항에서 삼국을 왕래한 당나라 사절은 30여 차례가 되고 이 외에 유학생, 상인, 승려의 숫자는 통계내기조차 어렵다. 남북조 시기에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을 왕래했다.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었다. 통일 후 해로를 통해 입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당나라와 발전관계를 유지하였다. 당나라와 신라와의 무역 교류는 대부분 산둥 등주에서 요동반도까지 해안을 따라서 조선(한반도)에 도착했다. 등주는 일시에 교류의 중추지로의 역할을 하였다. 역사 기록에 “대인고성(大人故城)은 황현(黃縣, 훗날 봉래현으로 변경됨) 북쪽 20리에 있다. …… 지금도 신라와 백제는 항상 여기를 통해 왕복하였다.”⁸⁾고 하였다.

당나라와 신라 간의 교통 노선은 가담의 기록에 의하면 등주 바다에서 들어가면 고구려, 발해도이다. 그 구체적인 노선은 바로 “등주 동북쪽 바다로 가면 대사도(大謝島)를 지나 귀흠도(龜歆島), 어도(淤島), 오호도(烏湖島)까지는 3백 리이고, 오호해를 지나 마석산(馬石山) 동쪽 도리진(都里鎭)까지는 2백 리이다. 청니포(靑泥浦)를 지

8)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권11, 『河南道七』.

나 도화포(桃花浦), 석인왕(石人汪), 탁타만(橐駝灣), 오골강(烏骨江)까지는 8백 리이다. 여기에서 남쪽 옆으로 바닷가를 따라 오목도(烏牧島), 패강구(狽江口), 초도(椒島)를 지나면 신라 서북쪽 장구진(長口鎭)에 이르고, 또 진왕석교(秦王石橋), 마전도(麻田島), 고사도(古寺島), 득물도(得物島)까지 1천 리 가면, 압록강 당은포구(唐恩浦口)에 다다른다. 이에 동남쪽 육로로 7백 리 가면 신라 왕성에 이른다.⁹⁾

즉, 지금 산둥 봉래(옛 등주)에서 장산도(대사도) 북성황도(조호도)를 거쳐 바다에 나가면 노철산해협(오호해)을 비껴 여순구 부근 석풍자(도리진)에 도착한다. 그런 후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대련시 서남쪽 소평도(청니포), 석성도(석인왕), 대향 하구(태타만)를 지난 다음 압록강(오골강)에서 한반도 서해안 남쪽을 따라서 대동강(패강)을 지나 초도에서 장연 당관포(장구진)에 이르고, 또 경기만의 강화도(고사도)와 대부도(득물도)를 지나 당은포구에서 상륙한다.

당과 신라 양국의 민간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길은 등주를 통해 직접 신라에 도착하는 해로이다. 당나라에 구법하러 온 일본 스님인 엔닌(圓仁)의 기록에 따르면, 등주에 속한 문등현에서 “적포에서 바다를 건너 적산 막야구에 나가 정동 방향으로 한 날 한 밤을 가면, 이른다. …… 날이 밝자 동쪽에서 신라 서남의 산 방향을 바라본다. 바람이 정북 방향으로 변하여 돛을 옆으로 달고 동남쪽으로 향해 한 날 한 밤을 갔다. 4일째 되는 새벽에 동쪽에서 산과 섬이 띄엄띄엄 연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뱃사공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라 서쪽 웅주(雄州)의 경계이고 본래는 백제의 땅이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동남쪽으로 향하면 동서산도가 연이어져 있다. 이경 무렵에 고이도에서 배를 대니 무주 서남 경계다. 이후 섬의 서북으로 백 리 쯤 더 가면 흑산이다.”¹⁰⁾고 전한다.

9) 『신당서(新唐書)』권43下, 『지리지(地理志)』.

‘적포항’이 ‘적산 막야구에 나가면’의 기록으로 보아, 지금 산동 영성 석도만이다. ‘웅주’는 공주이다. 공주는 본래 백제의 웅천이며 신라에 그 땅을 차지하였고, 신문왕이 웅천주라 바꾸었고 도독을 설치했다. 경덕왕은 웅주라 바꾸었다. 이후 고려 태조23년(940)에 개명하였다.¹¹⁾ 고의도는 지금 한국의 하의도이다. 무주는 본래 백제땅이다. 신문왕6년(686)에 무진주라 바꾸고, 경덕왕은 무주라 바꾸었으며, 지금의 광주이다.¹²⁾ 흑산은 지금 한국의 대흑산도이다. 엔닌 일행이 적포에서 건너 서해로 가면 신라의 웅주 해안에 도착하는데, 겨우 이틀 밤이 걸렸다. 이 항로는 앞에서 발해로 가는 항해 거리보다 짧고 항해 속도도 매우 빠르다.

고려도와 발해도리는 두 항로는(전반 구간은 실제로 한 길이다) 묘도군도와 요동반도, 한반도 근해를 이용해서 항해할 수 있고, 조선술과 항해기술에 있어서 아직 옛날 고대처럼 발달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길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며 또한 편리한 항해 노선이었다. 한반도 남부 항해는 대부분이 이러한 항로로 운행을 한다.

고려도에서 앞쪽으로 확대시킨 길, 즉 한반도의 당은포구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주해협을 가로 질러 대마도·일기도를 지나면 일본 구주 북부의 筑紫 大津浦(지금의 후쿠오카)로 들어간다. 그 후 瀬戸 内海를 따라 동으로 들어가면 일본의 정치 중심인 奈良 부근의 難波 三津浦(지금의 오사카 南區 三津市町)에 도착한다. 이것은 일본과 당나라 사이에 통하는 북쪽 노선이다. 등주에서 서해를 가로질러 신라를 지나 일본에 직접 도착하는 노선이 북로 남선이다. 이외에, 발해의 동경 용천부(지금의 길림 훈춘 동부) 부근에서 바다로 들어가 일본 서해안의 登·加賀 등지를 직항하는 노선은 발해와

10)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권4.

1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권17.

12) 『삼국사기(三國史記)』권36.

일본의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항해 노선이다. 그중에서 일본이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과 승려 등은 발해의 선박을 타고 일본과 당나라 간의 왕래가 많았다 그래서 ‘등주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해로’이었으며, 동시에 일본과 당나라의 교통의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등주 경계 내의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항해선이 있는데, 하나는 해주(지금의 강소 연운항), 초주(지금의 강소 회안), 양주, 항주, 명주(지금의 절강 영파) 등지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항선에 도착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은 요동반도의 도리진 등의 지역으로 북상하는 항선이다. 이 두 가지 항해 노선도 대운하 외에 당나라가 남쪽 곡식을 북쪽으로 운반하고, 남북 상업무역을 왕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였다.

등주 경계 내에서 바다로 나가는 해구는 중국이 신라와 발해를 통해 대로에 있으며, 정북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바다 북쪽의 해안의 도리진에 도달하는데, 520리이다.¹³⁾ 등주 치소가 있는 봉래항은 황현 동북 20여 리 고대인성에 자리 잡았다. 이 성은 삼국 위나라 사마의가 요동을 정벌할 때 군량을 바다로 운반하기 위해 축조했다. 당나라 시대에 신라, 백제가 자주 이곳으로 통하였다.¹⁴⁾ 해동의 여러 나라가 입공할 때 반드시 이 길을 이용하곤 했다.¹⁵⁾ 문등현은 당 고종 시기 10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정벌에 나섰던 곳, 즉 문등현의 동부의 성산(지금의 영성에 속함)에서 바다를 건넜다. 문등현 청년항 적산포(지금의 영성시 석도진)은 신라 상선의 중요한 중계지역이다. 이외에도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도촌(陶村), 노산(廬山), 청산포(靑山浦), 유산포(乳山浦), 유산서포(乳山西浦), 유산장회포(乳山長淮浦), 단산포(旦山浦), 소촌포(邵村浦), 북해포(北海

13) 『원화군현도지』권11.

14) 『원화군현도지』권11.

15)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권20.

浦)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등주의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경계 내 도처가 모두 배가 정박하고 출항하는 항구가 있다.

분명하게 북로는 견당사 초기의 중요한 통로였다. 전문가의 불확실한 통계에 의하면, 등주를 지나 장안으로 가는 일본의 견당사는 7차례이고, 대부분 조선, 일본 유학생과 학문승들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서기』권1의 기록에 의하면, 일도조(日道照) 스님은 효덕백치(孝德白雉)4년(653)에 당나라에 들어와서 현장법사를 스승으로 삼으니, 삼장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을 받았고, 학문을 마친 후 울며 떠나서 등주에 도착했다. 그런 후 등주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당나라 시기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가 왕성한 발전을 가져왔는데, 특히 일본은 견당사를 19차례(실제 방문은 16차례이다)나 보내어 일본과 중국의 교통사상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일본 견당사가 당나라로 올 때 남선과 북선으로 나눈다. 북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주 해항에서 고려로 들어가는 노선의 연장이다. 남선은 일본에서 중국 양주, 명주 일대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일본 학자 木宮泰彦의 통계에 의하면 견당사 중에서 전기 7차례 가운데 2번째 사행은 남로, 6번째 사행이 백제에 도착하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북로였다 후기 가운데, 12번 사행한 고원도(高元度)가 당나라 대사를 맞이하기 위해 북로를 이용한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남로를 이용했다.¹⁶⁾ 그러나 후기라도 많은 견당사절 또는 승려 등이 등주를 통해 귀국하였다. 예를 들면, 10번째 견당사행 중 대사 多治比廣成과 관관인 平群廣成은 임무를 마치고 소주에서 바다로 나가 귀국을 준비하다가, “악한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다. 平群廣成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 일본의 유명한 유학생 阿倍仲麻呂를 만났다. 阿倍仲麻呂는 그를 위해 당나라에

16) 木宮泰彦 『日中文化交流史』, 商務印書館 1980년판 중역본, pp.63~72.

게 “발해도를 통해 귀국하고자 요청하니, 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平群廣成은 개원27년(739) 3월에 등주에서 바다로 들어가 5일에 발해 지경에 도착했다. 때마침 발해국왕은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고자 하니, 平群廣成은 즉시 같이 출발하여 일본으로 귀국했다.¹⁷⁾

문종 개성4년(839)에 일본의 18번째 건당사가 임무를 마친 후에 9척의 신라선박을 고용하여 등주 지경 내에서 여산(廬山)에서 바다를 건너갔으나 역풍을 만나 다시 노산에 다다랐다. 7월 21일에 다시 적산포에 정박한 후에 이 바다를 건너 귀국하였다. 엔닌이 회창(會昌) 말년에 귀국할 때 원래 양주나 초주에서 바다를 건너려고 했으나, 이 두 곳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 그 주는 가까운 바다가 인접해 있는 것 아니고, 황제의 칙서를 받고 지나갈 수 있지만 감히 머물 수가 없다. 이 일을 등주의 극단에서 배를 타고 귀국하도록 인계한다.¹⁸⁾ 부득이하게 엔닌은 다시 등주로 향했고, 훗날 등주에서 배를 타고 귀국했다. 이것으로 보아 당나라 후기에 등주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 간의 교통의 중요한 통로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등주가 국내 해상교통의 통로가 되다

1) 북쪽으로 곡물을 운반하는 기지항

등주는 바다로 식량을 운반하는 중요한 항구이다. 근대 돈황에서 발견된 당나라 『수부식(水部式)』에 따르면 “수로는 창(滄), 瀛, 패(貝), 막(莫), 등(登), 내(萊), 해(海), 사(泗), 위(魏), 덕(德) 등 10개 주(州)이며, 모두 선원이 대략 5천4백 명, 해운 종사자는 3천4백 명

17) 汪向榮·夏應元編『中日關係史資料匯編』, 中華書局 1984년판, p.95.

18) 『입당구법순례행기』권4.

이며, 평하(平河)는 2천 명이며, 2년마다 교체한다.”고 했다. 발해 연안에는 등, 萊, 滄 등이 있고, 등주는 확실히 발해 해운에 곡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집산 항구로 볼 수 있다.

『수부식』 중에 등주에서 북쪽으로 해상 운수하는 상황을 기술해 놓았다. “안동(安東) 도리진 사람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 내주에 명하여 바다를 건너는데 일을 잘 알고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들을 뽑아 선장 2명, 타수 4명을 두어 봉래진에 예속시키고, 날씨가 고요하고 바다가 평안하기를 기다려서 곡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도리진은 당나라 시대에 요동반도에 군영을 설치한 곳이다. 당나라 군영 가운데 큰 곳은 1만 명이고, 작게는 5천 명에 달한다. 도리진 방어 인원수를 5천 명으로 계산해도 매년 소비하는 양식은 상당량에 달한다. 등주에서 도리진까지 왕래하는 노선은 고구려와 발해로 반드시 거쳐 가는 노선인 것 외에 당나라의 중요한 해상 운송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측천무후 만세통천원년(696)에 거란이 반란하자 당나라 조정은 좌위장군 필랍을 파견하여 절해를 오랫동안 건너 그 본거지를 점거하였다. 소위 ‘남운사’라는 사절은 당시 남방에서 등주와 내주 일대를 식량을 운반하였는데, 즉 식량을 모아서 등주·내주에 운송한 다음 등주·내주에서 다시 요동으로 운송하였다. 두보의 시에서 말하기를 “유증(幽蒸)에서 자주 전쟁이 생겨,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도다. 오문(吳門)에서 양식과 의류를 바다 건너 봉래로 운송하네.”¹⁹⁾라고 하였다. 이것은 강남의 곡물과 의류가 등주를 통해 하북 지방까지 운송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발해 등의 국가가 당나라에 조공하는 목적 항구

당나라의 번영과 위세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잇달아 끊이지

19) 『杜詩詳注』권16 『昔游』, 中華書局, 1979년판.

않았다. 이 중 동북아시아의 국가와 민족들은 바다를 통해 등주를 경유하여 장안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이용하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국이라 할 수 있다. 발해는 당 성력 원년(698)에 개국하여 개원원년(713) 이후부터 ‘발해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건국 전후 모두 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개원원년 당나라는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이후에 역임하는 발해국왕이 당나라의 책봉을 받아 들였다. 발해국은 매년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어떤 해는 여러 차례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 통계에 의하면 발해 건국에서 당나라 말까지 발해가 당나라에게 123차례나 조공을 바쳤고 당나라는 발해에 사신을 14차례 보냈다고 한다. 이외에 말갈불열부(靺鞨拂涅部), 철리부, 월희부, 흑수부(후에 발해에 편입) 등이 당나라에 54차례에 조공을 바친다.²⁰⁾

당과 발해의 해상교통은 등주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바닷길이다. 당나라와 발해 양국의 상호 교류는 대부분 등주에서 바닷길로 통행하였다. 개원원년 당나라 사절 홍려경(鴻臚卿) 최흔(崔忻)이 대조영을 책봉하러 갈 때 이용한 바닷길이었다. 그는 다음해 당나라로 돌아오는 도중에 기념으로 여순 황금산록에 돌을 새겨놓았다. 문종 태화원년(827)에 발해 승려 정소가 오태산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바다에서 익사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가는 노선이 해로임을 알 수 있다. 개성5년(840) 엔년이 등주에서 오태산으로 가는 도중 전후로 上都(장안)에서 귀국하는 발해 사신과 장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해 왕자를 만났는데 그들 역시 해로를 이용했다.²¹⁾ 역사에 발해국의 교통은 5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압록은 조공 길이다. 이 길이 등주 바다로 들어가는 발해도이다. 이외에 등주와 청주의 성내에는 ‘발해관’이 설치되었는데, 당나라와 발해 사이를 왕래하는 발해 객인

20) 이진복(李殿福), 손옥량(孫玉良): 『渤海國』(文物出版社, 1987년판).

21)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을 접대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등주의 길이 당과 발해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해로에 관하여 『신당서』에서는 “남해는 신라의 길이고, 압록은 조공을 바치는 길이다.”라고 했다. 두 길은 모두 등주를 통한다. 전자는 ‘등주에서 바다로 통하는 고려도’이고, 후자는 ‘등주가 바다로 통하는 발해도’이다. ‘조공의 길’로 나가면, 육로로 발해의 상경 남쪽에서 중경 현덕부를 지나 서경 압록부에 도달하며, 여기에서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로 들어가 요동반도 여순구에 들어간다. 여순구 발해수역을 들어와 남행에서 등주에 상륙한다. 등주에서 장안의 육로로 이동한다. (당나라 새로운 길) 이 길은 조공을 바치는 발해인을 위한 당나라에 들어오는 전통 노선이라 할 수 있다. 발해의 건국 2백여 년 가운데 당나라에 조공한 횡수가 130차례이고, 당나라 왕조는 발해국왕이 바뀔 때마다 관인을 보내서 조문하고 책봉하였다.²²⁾

당나라 대종 “대력2년(767)에서 10년(775)까지는 (발해가) 혹은 사신을 자주 보내고, 혹은 해를 지나 도착하고, 혹은 2, 3번 보내왔다. 12년(777) 정월에 사신을 보내 일본 무녀(舞女) 11명과 지방의 토산물을 받쳤다. 4월과 12월에 사신이 다시 왔다.”는 기록이 있다. 1년에 사절을 세 차례 파견한 걸 보면,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걸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 중종 신통원년(705)에서 문종 개성4년(839)까지의 134년간에 발해국 사신이 당나라에 40여 차례 도달했다.²³⁾ 당나라도 때때로 발해에 사신을 보내곤 했다. 예를 들면 개원26년(738)에 발해 말갈 대무예가 돌아가고 그의 아들 흠무(欽茂)가 계승하자, 사신을 보내어 조문을 하고 책봉하였다.²⁴⁾ 등주 해역에 배가 자주 왕래하고 상사의 교역이 왕성한 현상이 나타났다

22) 『태평양문집(太平洋文集)』, p.132.

23) 주옥(朱彧) 『萍州可談』권2.

24) 『신당서』권4. 『현종下』

동북 기타 지방 정권인 흑룡말갈, 담라, 유귀, 달미루 등은 모두 당나라에 조공 온 기록이 있는데, 그 조공 노선은 발해의 조공 노선과 같고 대부분 바다를 건너 등주를 지나갔다.

3) 남북 이민의 증계 항구

당나라 시대는 일찍이 수차례의 대규모 이민이 있었는데, 등주항은 이 이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 무덕연간 초에 고구려가 사절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들어왔고 당 고조는 서찰을 보내어 친선을 도모하였다. 고구려와 당나라는 각자 자국 내에 잡혀있던 백성들을 서로 송환시키기로 약정을 맺었다. 당시 고구려에 잡혀 있던 중국인은 약 1만 명인데 되돌아 온 자는 상당한 숫자에 달하였다. 이외에 고구려 백성이 내지로 이주한 사례를 들어본다. 당나라는 여러 차례 침략 전쟁을 치렀다. 당나라 고종 현경5년(660)에 백제를 평정한 후 총장원년(668)에 고구려 또한 평정했다. 고구려를 억제하고 국면을 안정하기 위해 다음 해에는 고구려 백성 3만 명을 강회와 산남에서 이주시켰다.²⁵⁾ 강회는 동남 해안의 여러 성으로 산남은 동과 서쪽의 길로 나뉘는데 섬서, 사천, 하남, 호북을 포함한다. 육로 이외에 수로로 주로 통하였는데 등주를 지나 남쪽으로 항해하거나 등주에서 육로로 바꾸어 중원으로 갔다. 고종 의봉2년(678)에 국내의 정세가 안정되자 북방 경제 문화의 발전을 위해 먼저 내륙 주에 기거한 이들을 모두 원 지역으로 보내었다. 당시에 남방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25) 『신당서』권220, 『동이·고려』.

Ⅲ. 등주항의 대외무역

등주 지역의 해상무역은 등주와 국내 기타지역의 직접적인 상업 무역을 포함하여 해상무역의 통로와 중계지가 되어 발해와 신라, 일본 간의 국제무역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일본 견당사가 귀국할 때 초주에서 신라 상선 9척을 빌렸던 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라와 등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은 신라 사람인 장보고였다. 장보고는 신라와 당나라 제국에 모두 영향력이 있었는데 신라 조정은 당나라의 지지 아래 장보고에 위탁해서 신라 연해의 해도를 금지 시킬 것을 맡겼다. 장보고의 업적은 중국과 일본의 한국 관련 기록에 모두 남아 있다. 당나라의 시인 두목 역시도 그의 전기를 기술했다.

조공무역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런 종류의 무역은 항상 사절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조공무역이라 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매우 많다.

범터(范攄)의 『운계우의(雲溪友義)』권상에 “등주 상인 마행여(馬行余)가 바다를 돌아다니며 곤산로를 취하여 동려에 가고자 했다. 마침 서풍을 만나서 신라국에 도착했다.”고 한다. ‘동려’는 지금의 절강에 속해 있다. 당나라 때는 목주(睦州)에 속했고 부춘강의 강변에 위치해 있다. 마행여가 ‘돌아다니는 바다’는 등주에서 항주, 목주 일대이다. 『(민국)모평현지』권9에 『당광화4년무염원비』가 수록되었다. “계림 김청(金淸) 압아(押衙)는 고향 부상(扶桑)을 떠나 청사(靑社)로 와서 화물을 은수(鄞水)로 보냈다. 마음을 금전(金田)에 두고 청부(靑鳧)를 시주하여 뛰어난 영지(郢地) 장인을 뽑아 백석(白石)을 깎아 천축의 탑을 세웠다.”는 내용도 있다. ‘청사’는 제나라 지역을

칭하지만, 여기에서는 등주를 지칭한다. ‘은수’는 지금 용강(甬江)이며, 鄞縣(영파) 경내에 소재한다. 신라 상인 김청이 등주와 명주 일대에서 교역을 하였다.

당 대종연간에 치청절도사(淄靑節度使 : 靑, 淄, 登, 萊 등 1십여주를 관할함) 이정기는 신라·발해사를 관장하는 정치적 조건과 해상교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시장에 공급할 발해 명마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²⁶⁾고 한다. 개성4년에 엔닌이 등주 문등현 경내에서 신라 상인 장보고의 교관선과 발해국 교관선을 차례로 만났다.²⁷⁾ 이것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등주 일대에서의 신라 상인의 활약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 신라 상인은 방대한 선단을 조직하여 신라, 당, 일본 및 중국 동부 연해 일대를 왕복하였다. 북으로는 등주, 내주, 밀주, 남으로는 초주, 양주, 소주, 명주, 동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에 이르는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의 상인 김청은 “등주와 명주 사이를 교역하여 부자가 된 후 금전을 시주하여 등주 모평현 경내의 무염사원을 수선했다. 엔닌은 개성4년에 등주로 나아가는 중에 신라 선박을 만났다.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밀주에서 왔습니다. 배안에 목탄을 가득 싣고 초주로 향해 갑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중원년(847)에 그가 귀국하는 도중에 밀주와 제성(諸城)의 경계의 대주산 준마포(지금의 청도 일대)에서 목탄을 싣고 초주로 가는 신라인 진충선을 만났다.²⁸⁾ 신라 상인 김진의 배는 때로 소주로 가고, 때로 퇴산(牽山, 嶗山)으로 가고, 때로 적산에 가고, 때로 유산 장회포에 가고 멀리 일본에도 간다. 엔닌이 마지막으로 귀국 시에

26) 『구당서(舊唐書)』권124 『이정기전(李正己傳)』.

27)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28)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권4.

탑승했던 배가 그의 배이다.

특히 신라의 가장 유명한 해상무역가는 장보고인데, 등주 문등현 청녕현 적산촌(지금의 산동 영성시 석도진 각하촌)을 재당무역의 중간 정거장으로 삼았고 아울러 이곳에 법화사를 창건하여 그의 사업이 번창하고 흥성하기를 기원하였다. 이 사찰에 반 년 동안 거주한 일본 스님 엔닌의 말에 의하면 이 절의 승려는 40여 명이 있고 사찰의 장원은 연간 500석에 달하였다. 엔닌이 개성5년 정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강경활동에 참석하였는데 매일 2백여 명의 신라 남녀가 강경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적산촌은 또한 신라인의 중요한 거주지였다.

당나라 개원16년(728) 가을 7월에 신라왕 김홍광은 사절을 파견하여 토산품을 바쳤다.²⁹⁾ 개원23년(735) 12월에 신라가 사절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왔다. 몇 사람은 입조하여 과하마, 조하유, 바다 표범 가죽을 바쳤다. 또 신기한 개, 말, 황금, 우황, 인삼, 공예품 등의 물품도 있었다. 당나라 황제는 즉시 광서문금(光瑞文錦), 오색나(五色羅), 금은정품을 하사하였다. 이외에 도자기, 동기(銅器), 귀중한 약재가 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는 신라를 극히 후대하였다. 항해로 왕래하는 신라 상인과 사절이 많았는데 어떤 때는 배가 10척에 달하였고 무역 시장도 번창하였다. 산동 연해에는 매우 많은 신라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라 교민과 상인 그리고 여행자들을 받아들였다. 등주가 관할한 봉래현, 황현, 문등현 등에 모두 신라관과 신라소가 생겨났는데 치소 봉래에 설치된 신라관(적산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라관 등이 건립되어 신라인을 위해 모이는 장소로 제공되었다. 몇몇의 장소에서 신라인이 모여 사는 거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라방이며, 신라인의 무역 기구인 ‘구당신라소’를 관리하였다.

29) 『구당서』권8, 『현종(玄宗)上』.

신라는 당나라의 상인과 사절에게도 호의적이었는데 등주의 상인 마행여가 풍파로 인해 신라에 와서 신라의 왕성정에게 후한 대접을 받은 적도 있다.³⁰⁾

당나라 지리학자 가탐의 저서 『古今郡國縣道四夷述』(혹은 『皇華四達記』로 칭함)에는 등주가 당시 중국의 ‘사이(四夷)’를 왕래하는 두 개의 해로 중 하나라고 하여 그 중요한 지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당나라 전기에 등주와 광주·교주는 당시 중국의 3대 해상교통 요충지가 되었다. 중당 이후 등주의 지위는 비록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당나라의 대외 정치 교역의 주요한 통로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등주는 바다를 통해 식량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남북 운송간선 중 가장 중요한 중계 정거장이 되었으며, 당의 대외 교류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 발해 및 일본과의 주요한 통로였다. 당시 당나라와 각국의 무역도 조공무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나라가 당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은 이에 답례하는 것으로 당의 관리가 각 나라에 사절로 나가는 중에 자금과 비단을 가지고 화물을 교역하는 관례가 이익이 되었다. 그리하여 등주는 광주, 교주만과 함께 당나라 전기 대외무역의 중요한 항구라 말할 수 있었다. 훗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가 당나라의 해상 왕래의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당으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 민간 상선이 왕래하며 일본으로 보낸 물품은 주로 불경, 불상, 불화, 불교도구, 문집, 시집 및 향료 약재 등이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주로 사금, 수은, 주석, 명주 등이었다. 일부 무역은 견당사의 왕래에서 나타났다. 『日中文化交流史』의 기재에 의하면, 견당사와 유학생, 학문승이 일본으로 가져온 물품에는 대량의 문화 서적 외에 현전칠각궁(弦纏漆角弓), 마

30) 『당회요(唐會要)』권95, 『신라(新羅)』.

상음수칠각궁(馬上飲水漆角弓), 노면칠사절각(露面漆四節角), 사갑전(射甲箭), 평사전(平射箭), 채백(彩帛), 약품, 향료, 가구 등이 있다. 당나라로 가는 데 있어 일본은 사절단들이 사용할 생활비와 여비를 현물로 지급하였다.

일본 서적 『연희식』의 기재에 의하면, 견당사로 명을 받은 후에 대사와 부사에게 포(布), 절(絶), 면(綿) 등을 하사하였다. 그 예로 대사에겐 절 60필, 면 150둔, 포는 150단을 주었고, 부사에게 절 40필, 면 100둔, 포는 100단을 주었다. 나머지는 지위에 따라 감하였는데,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유학생과 유학승에겐 각별한 우대를 하였다. 절 40필, 면 100둔, 포 100단을 주었는데, 부사보다 조금 적었다. 견당사절은 많은 때는 500~600명이며, 이들이 가져간 수량은 대단하였다.

견당사는 당나라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 예를 들면 영희 초에 크기가 말만한 호박, 5승(升)의 마노를 바쳤다. 당나라는 관례에 따라 우대한 수량을 하사했다. 또한 개원 초 비단을 주고 모든 받쳤던 포를 모두 상으로 주어 무역해서 귀국하였다고 한다.³¹⁾ 사절단은 잠시 거주하거나 선원들이 머무는 생활비용은 일본 조정이 준 절, 면, 포 등으로 사용했고 여기에 사적으로 가져간 기타 토산품을 시장의 무역을 통해서 생활의 필수품으로 조달한 것은 제외하였다. 이것은 경제무역의 특수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견당사는 등주항을 왕래하면서 항구에게 국제적인 승객과 화물의 업무를 증가시켰고, 등주항의 발전에 있어 촉매 작용을 하였다.

31) 『신당서』권220, 『동이(東夷)·왜(倭)』.

IV. 등주가 당나라 시대 해상교통 역사상에 차지한 지위

등주는 당시 중국이 해외로 통하는 두 갈래의 해로 중의 한 길이었는 데 그 중요한 위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첫째, 당나라 전기에 등주와 광주, 천주는 당시 중국의 3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둘째, 중당 이후 등주의 위치는 비록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당의 대외적 정치 교류의 중요한 통로로 지위를 잃지 않았다.

등주가 당대 해상교류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주요 원인은 당나라 전기의 해상무역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소한 이 방면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당대의 해상무역은 현종 시기부터 특히 안록산의 난 이후부터 변영을 구가하였다. 범문란(范文瀾) 선생이 지적하기를 “대체적으로 당나라 전기의 경제 변영은 주로 농업 생산의 변영에 기반한 것이고 중기 이후부터의 변영은 공업과 상업, 특히 상업의 흥성으로 표현되었다.”³²⁾고 한다. 그래서 현종 이전에 있어서 당나라의 해상교통은 결코 해상무역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상 운송과 당나라와 여러 나라 사이, 특히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일본, 발해국의 정치적인 왕래(당나라가 한반도에 몇 차례 용병을 보낸 것을 포함)로 표현하였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등주는 바다를 통한 곡물 운송 중 남북 운송 노선 중에 가장 중요한 중계지이자 당나라의 대외 교류 중 한반도의 여러 나라, 발해국 및 일본과 당나라 왕래의 주요한 통로였다.³³⁾

32) 『중국통사(中國通史)』 제3책, 人民出版社. 1965년판, p.243.

33) 『구당서』 권149, 『귀송경전(歸崇敬傳)』.

당나라 후기 등주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였고 몇몇 연해안 도시가 그 지위를 추월하였다. 일본과 당의 교통을 실례로 들어보면 일본이 견당사 파견을 중단시킨 839년에서 903년까지 64년 동안 쌍방이 왕래한 기록은 모두 37차례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출항하고 도착한 지점이 명확한 기록이 16차례가 있는데 그중에 초주는 3차례이고 명주는 7차례이며, 온주, 태주, 상주, 소주, 복주, 광주는 각각 1차례로 등주는 없었다. 심지어 등주와 바다를 끼고 마주 바라보는 신라도 향해 중심을 절강 일대로 옮기는 추세였다.³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당나라와 무역하는 상인 또는 선박이 등주에 도달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왜 등주는 당대 향해 사업이 날로 발전하여 대외 해상무역이 번창해 가는 시기에 그 지위가 오히려 하강하였는가? 여기서 말한 ‘위치가 하강한 것’은 주로 당 중기 이후에 등주가 해상 국제무역에 있어 남방의 몇몇 항구보다 낙후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송대 전반기에 이르러 등주는 여전히 북방의 대외 교류에 있어 해상교통의 중요한 항구였다. 등주항이 하강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등주가 처한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았기에 당시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통로와 다를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과의 교통도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등주는 산둥반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당나라와 해상 왕래하는 국가와 지역은 신라와 일본, 발해의 선박 외 나머지는 여기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과 당 간의 교통이라 할지라도 많은 길을 우회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명주로 직항할 때는 일반적으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중국 상인인 장지신과 이연효가 명주 망해진해서 출발하여 겨우 3일 만에 일본에 도

34) 임사민(林士民):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 『海交史研究』, 1993년 제1기.

착한 일도 있다. 그리고 양주, 초주로 직항하면 대략 10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의 제16차 경당사의 부사인 小野石根이 보귀8년(775) 6월 20일 바다가 나가서 7월 3일에 양주 해능현에 도착했다. 귀국 시에는 단지 8일이 걸렸다. 등주에서 일본으로 직항하려면 6개월 가량이 필요하다. 엔닌의 귀국 당시 여정을 보면 9월 2일에 등주 문등현 적산에서 출발하여 18일에 일본 筑紫大津浦에 도착했다. 만약 북로북선(北路北線)으로 갔다면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을 것이다. 최초 일본과 당의 항로가 북로였던 것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점차 조선업과 항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동쪽 바다로 건너는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였기에 후에 일본과 중국을 왕래하는 선박(특히 중국 상인 위주의 민간 교류 선박)의 대부분은 명주, 월주, 초주, 양주 등의 근거리 항로를 선택하였다.

등주와 내륙 간의 교통은 ‘등주~내주~청주~치주~연주~조주~변주~정주~낙양~장안’과 같은 길을 통하였다. 등주에서 낙양까지의 여정은 2천3백7십 리이고 장안까지는 3천1백25리이다. 양주, 초주와 비교해 보면 양주에서 낙양까지 1천7백49리이고 장안까지는 2천5백67리 그리고 초주에서 낙양까지가 1천6백6십 리이며, 장안까지는 2천5백1리이다. 이 두 주에서 낙양과 장안을 가는 거리는 등주에서 가는 것보다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순조롭게 강을 건너 二京(낙양과 장안)으로 갈 수 있어 등주에서 내륙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하였다.

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역 상대국(혹은 지역)과의 편리하고 안전한 항해 노선(해상무역을 하는 통로)과 내륙 간 교통의 편의성이다. 그러나 등주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국제 해상무역의 요충지로서의 위치를 잃어갔다.

그리고 등주가 당대 해상교류 역사상의 그 지위를 잃는 또 하나의 원인은 안록산의 난 이후에 등주 등 북방의 모든 지역의 경제가

쇠퇴하였다는 점이었다.

당 왕조의 건립 이후 1백여 년에 걸쳐 등주를 포함한 북방 경제는 커다란 번영을 이루었다. 개원연간에는 ‘바다 안은 풍요롭고 너덕하며 쌀 한 말의 가격은 13전이요 청(靑)과 제(齊)는 한 말에 겨우 3전이다.’³⁵⁾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사회, 경제가 윤택하였으며 특히 지금의 산둥 일대의 경제발전과 풍부한 자원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록산의 난이라는 대재난이 지나고 북방의 경제는 파탄의 충격을 받았다. 문종 시기 엔닌이 등주 일대를 지나면서 보았던 장면은 다음과 같다.

문종현에서 청주까지 3, 4년 동안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 오곡을 먹어치워 관과 개인이 모두 기근에 허덕였다.”고 한다. 등주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고무로써 밥을 대신해서 먹었다. “좁쌀 한 되에 30문(文)이고, 멥쌀은 한 되에 70문이다.” 내주는 “좁쌀 한 되에 50문이고, 멥쌀은 한 되에 90문이다.”³⁶⁾ 청주 성내는 “좁쌀이 한 되에 80문이고, 멥쌀은 한 되에 100문이다 제주의 우청현 역시 “좁쌀은 한 되에 35문이고 멥쌀은 한 되에 100문이다.”³⁷⁾

앞에서 개원연간의 청주와 제주 일대의 쌀이 “한 말에 3전이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가 뛰었다. 이로부터 7, 8년 후, 엔닌은 귀국하는 도중 재차 이 땅을 밟았는데 여전히 힘든 경관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등주, 내주, 청주의 일대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이것은 3, 4년간 황충의 재앙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안록산의 난 이후 모든 북방 경제의 쇠락하는 하나의 축소판이었다.

35) 『신당서』권51 『식화지(食貨志)』.

36)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37) 『입당구법순례행기』권2.

안록산의 난 이후의 등주 및 북방 전체의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것에 반해 남방지역은 비록 전쟁의 파급은 있었지만 그 훼손 정도는 북방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천혜의 자연조건은 전쟁 후의 회복 속도 역시도 빨랐다. 특히 장강 유역의 절강 일대가 전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되었다. 양주, 소주, 항주, 월주 또한 모두 발전하여 번창하는 상업도시가 되었다. 월주와 명주는 당나라의 대외무역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상품인 실크와 도자기의 중요한 생산지였다.

중당 이후 등주 및 북방 모든 지역의 경제가 쇠약해지자 등주항의 번영과 발전 또한 멈추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경제가 발달한 장강 중 하류, 특히 장강, 절강 일대에 속한 양주, 명주가 등주를 초월하여 광주와 천주(泉州)와 더불어 전국의 4대 항구로서 그 지위를 이어 받게 되었다.

등주는 비록 전국적인 해외무역의 대 항구는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당과 신라 및 발해와의 외교 통로이며, 북방 대외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안록산의 난 이후부터 당나라 말까지 신라와 당나라의 교류는 56차례가 있었고 발해와 당과의 왕래는 84차례가 있었다. 이러한 140차례의 외교적 왕래는 기본적으로 등주에서 출발하는 바다 길을 통해서였다. 문종이 발해국 왕 대이진(大彝震)에게 보낸 칙서를 통해 칭송하기를 “만 리를 항해하여 공물을 바치고 조석으로 한결 같으며, 조천의 예의를 갖추었다.”³⁸⁾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황·발해의 수역에 선박이 줄을 잇는 광경을 반영한 것으로 송대까지 연장해 보면 『자치통감』에서 북송 시기에 “고려는 모두 등주로 오갔다.”³⁹⁾는 기록이 보인다. 『송사·고려전』에서 “고려는 모두 등주에서 왕래했다.” 줄곧 북송 후기 요

38) 『대평광기』권30, 『三衛』중 『廣異記』 인용.

39) 『속자치통감』권339.

금과 전쟁을 하고 쌍방이 발해를 끼고 대치할 때까지 등주는 북송의 변방 요충지가 되어 상선이 등주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북송 희녕7년(1074)에 송나라는 등주항을 봉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송대 전반기에 이르러 등주는 여전히 북방으로 통하는 해외의 주요 항구였다.

등주는 당나라 해양교류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당나라와 한반도, 일본 및 중국 동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유대의 끈이었다.

당대 명주의 조선업과 대외관계 연구

오건화(吳建華)
광주대학 역사학과

당나라는 중국 봉건 왕조 시기에 전성한 왕조이다. 당 왕조의 강역 확대와 대외문화 교류의 활발은 조선업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나라의 최융(崔融)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천하의 모든 나루에는 온갖 배들이 모여 사천(泗川)과 한수(漢水) 유역을 우회하여 복건(福建)과 절강(浙江)까지 도달할 때 여러 지역의 수운을 통해 바다에 이르렀다. 수많은 거대 선박들이 왕래하여 교역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선박 제작 능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선박의 건조 장소는 거의 전국 각지에 두루 존재하였고 강남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항해술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남 연안의 항구 명주(明州)가 날마다 더욱 흥기하였다. 당대의 명주는 당시 전국의 조선업에 가장 중요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장강(長江, 揚子江) 하류의 중요한 대외무역항이었다.

I. 명주항의 조선업

당송(唐宋) 시기는 중국고대 조선사에서 두 번째 고조기(高潮期)로, 고대 조선업의 발전은 이로부터 성숙한 시기로 진입하였다.

1. 조선업의 전개

명주는 항구로 인해도시가 이룩된 처음부터 바로 항구도시였다. 명주의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외성은 동북쪽 양면이 강안

(江岸)에 바짝 붙어 있어서 항구의 부두가 두루 펼쳐져 선박의 왕래가 매우 빈번했다. 내성의 강 연안에는 항해하는 선박 부두가 촘촘히 있었고, 서쪽의 연안지역에는 선박 수리 공장이 있었다. 이런 좋은 지리적 위치, 선진 조선기술과 정부의 해외무역정책에 의지하여 당대 명주의 조선업은 이전 왕조의 기초 위에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주는 당 정부의 중요한 조선 기지의 하나였다. 당 선종(宣宗) 대중(大中)원년(847) 명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박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1978년 당나라 선박이 출토된 서수(西首) 일대에서 거대한 당나라 시기의 퇴적층이 발굴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선박 건조 공장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공장의 지붕을 받치던 기둥, 말뚝 그리고 선박용 동백기름과 재를 섞은 퍼티, 밧줄, 선박용 못 등과 목선 한 척이 있었다. 선박에서는 ‘대중2년’이라 쓰여 있는 명문(銘文)의 운학문(雲鶴紋) 사발 등 절강의 도요에서 만든 청자의 조각이 발견되었다.¹⁾ 1973~1975년에 당대 해운부두였던 영파시(寧波市) 화의로(華義路)에서 침몰된 선박 한 척이 출토되었다. 침몰된 선박에서는 ‘당 소종(昭宗) 건녕(乾寧)5년(898) 六月’이 새겨진 두 개의 벽돌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당 말기의 유물이었다.

당나라의 조선 기지는 주로 선성(宣城), 진강(鎮江), 상주(常州), 소주(蘇州), 호주(湖州), 양주(揚州), 항주(杭州), 소흥(昭興), 임해(臨海), 금화(金華), 구강(九江), 남창(南昌) 및 동쪽 연해의 연대(煙臺), 남쪽 연해의 복주(福州), 천주(泉州), 광주(廣州) 등이다. 선박제조공장이 있었던 이들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의 하선(河船) 해선(海船) 전함이 건조되었다. 송대에 이르러 명주와 온주(溫州) 두 지역에서 연간 제작하는 각종 선박은 600척에 이르렀다.

둘째는 비교적 큰 톤 단위의 해양 선박을 제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명주에서 제작하는 선박의 크기는 당

1) 정소창(鄭紹昌), 『영파항사(寧波港史)』, 北京, 人民出版社, 1989년

시에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에 40~60명을 태울 수 있었다. 이로부터 명주 선박 공장에서 제작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500~1,000섬 가량을 적재할 수 있었고, 이 선박들의 총 중량은 25~50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민간의 선박 제조 공장이 두루 펼쳐져 있었다. 당나라 중 후기에 사무역의 수요에 따라 민간 조선업은 신속하게 발전했다. 역사적 이유로 말미암아 이와 관련된 기록은 매우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명주성 내외에 두루 포진한 부두로 볼 때 민간 조선업이 성행하여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발굴된 유물자료로 명주성의 어포문(漁浦門) 밖 요강(姚江), 봉화강(奉化江), 용강(甬江) 등 세 강이 만나는, 성각(城脚)과 접하고 있는 포구 일대에는 부두를 보호하는 시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무역이 이제 막 흥기하였으므로 사상(私商)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선박을 전문적으로 제작 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경제력이 없었지만, 또한 반드시 공장지대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의 부두 이용은 선박을 정박시키는 이외에도 선박을 수리하고 제작하는 공장이 되었으므로 민간 조선 공장의 흥기와 개인무역의 진일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조선기술

진한(秦漢) 시기에 출현한 방향기, 효율적으로 전진하는 도구 노, 바람으로 효과적 이용할 수 있는 돛 등의 조선기술은 당대에 이르러 보다 발전하여 개선되었고, 아울러 이러한 기초 위에 발명과 창조가 일어났다. 당나라는 선박의 수량이나 또는 품질에서도 모두 중국 고대 조선업의 고도 발전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의 조선기술 및 조선업의 특징과 변화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측면에서 표출되었다.

첫째, 선체(船體)는 더욱 커졌고 구조는 합리화되었다.

『당국사보(唐國史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江湖語云, 水不載萬 言大船不過八九千石. 然則大歷 貞元間有俞大娘航船最大 居者養生 送死 嫁娶悉在其間 開巷爲圃 操駕之工數百 南至江西 北至淮南 歲一往來 其利甚溥. 此則不啻萬載也.”²⁾ 비록 이 선박은 볼 수 없지만 영파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영파 부근의 항주와 월주(越州)는 모두 조선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고, 더욱이 대선과 해선의 제작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영파 주변은 원래 조선기지였으므로, 그곳에서 제작된 선박은 당연히 항주와 월주에 뒤지지 않았다. 당나라의 선박의 밑부분의 가운데에는 길이가 20여 장이고 6~7백명을 태우는 대선도 이미 자주 볼 수 있었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선박이 클수록 평형성이 더욱더 중시되고, 제작기술도 더욱 복잡해진다. 당나라의 조선업은 대선이 항해할 때의 평형성을 갖추기 위해 선박을 제작할 때 특별히 선체의 양측을 아래로 꺾고, 용골(龍骨)로 선박의 앞뒤를 관통시켰으며, 선박의 갑판과 바닥은 대략 10:1의 비율로 만드니, 선박의 바닥은 V자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비율로 제작한 선박은 선체가 두텁고 넓으며 선창과 바닥이 평평하고 얇은 특징을 띤다. 이런 선박은 항해에 편리할 뿐 아니라 운항속도를 높이고 또한 선박의 평형성과 안전성을 크게 제고한다.

두 번째는 선박의 제작기술의 선진성이다. 이 기술적인 측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A. 목재를 겹치고 못으로 고정하여 결합하는 선진기술

당나라의 선박에는 이미 못을 사용하여 목재를 겹쳐 연결한 선진

2) (唐)이조(李肇), 『國史補, 卷下』,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灣, 商務印書館, 1985

기술이 사용되었다. 목재를 겹쳐 합판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쇠못은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못에 비해 더욱더 견고하여 선박의 강도를 크게 제고한다. 1960년 3월 강소성(江蘇省) 양주시(揚州市) 시교진(施橋鎮)에서 당나라의 목선이 출토되었고, 1973년 강소성 여고현(如皋縣)에서도 당나라 목선이 출토되었다. 이 두 척의 목선은 모두 못을 이용한 합판기술을 사용했다. 발굴 보고에 따르면, 강소성 여고현에서 출토된 당선(唐船)은 바닥에 모든 목재를 가지런히 끼워 넣은 것을 제외한 선박의 양현(兩舷)과 칸막이 및 갑판은 모두 쇠못을 사용했다. 선박의 양현은 10cm 정도인 두께의 긴 목재가 상하로 겹쳐져 있었고, 철제 못으로 겹친 부분을 결합했다. 철제 못의 단면은 사각형으로 사방 0.5cm의 크기였으며 길이는 16.5cm 정도이고 못 머리의 직경은 1.5cm였다.(두 번째 목판의 가장자리에 연결했던) 쇠못은 두 줄로 배치되었고, 6cm의 간격으로 상하에서 교차하여 접합했다. 이렇게 못으로 접합하는 방법을 ‘인자봉(人字縫)³⁾’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은 당시에 선진적이었으며 중국고대 조선기술의 우수한 전통을 이룩하였다. 또한 양주에서 출토된 선박은 못을 비스듬히 박아 합판을 만드는 기술을 채택하였다. 이는 못으로 목재를 뚫어 접합하는 기술을 채용한, 여고현에서 출토된 목선보다 더욱 선진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유럽 국가의 조선업은 선박에서 선판을 이을 때 여전히 가죽 끈으로 묶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B. 칸막이 기술의 발전

당대의 칸막이 벽 등과 같은 선진적인 기술이 조선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미 발굴된 여러 척의 당대 고선(古船)이 증명하는 것이다. 강소성 여고현에서 출토된 당대의 목선은 9개의 칸막이가 있었다. 칸막이는 바닥부분과 양현 및 갑판하부의 가로 기둥을 둘러

3) 남경박물관(南京博物院), 『如皋發現的唐代木船』, 『文物』, 1974. 5.

씨는 형태로 만들었다. 선박의 중앙의 앞부분 칸막이는 모두 선박의 뼈대를 만들기 전에 구성되었고 중앙의 뒷부분 칸막이는 선박의 뼈대를 만든 뒤에 만들었다. 이런 제작방법은 칸막이의 이동을 방지하여 선체와 칸막이 벽을 단단하게 결합하여 양현을 견고하게 지탱시켰다. 이런 제작기법은 선박의 부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켰고, 특별히 선체의 횡적 강도를 보다 높였다. 선박의 견고성과 부력이 증강됨으로 인해 많은 돛대와 돛을 설치하여 원양항해에 더욱 적합하였다.

C. 기계동력의 발전

당나라는 또한 추진기(推進機)를 이용한 전함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 선박은 최초로 기계동력을 사용한 기선일 뿐만 아니라 기계동력을 사용함으로써 기선의 항해속도가 대폭 증가했다. 당대에 건조된 선박은 종류가 많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이 높았고 구조가 견고했으며 많은 화물을 선적할 수 있었고 항해속도가 빨랐으며 안전하여 믿을 수 있었다. 이러한 많은 장점으로 당나라 선박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다. 7세기 이후 중국의 원양선단은 날마다 빈번하게 만경창파의 대양으로 나아갔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를 왕래하던 외국 상인은 모두 중국의 해선(海船)에 승선하기를 즐겼고, 이들은 ‘세계 최고의 선진 조선기술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중국 조선공들을 칭찬했다. 중국 해선은 당대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이름이 났다.

3. 선박의 유형과 그 중요 용도

(1) 평저선(平底船)

명주에서 제작된 선박 가운데에 가장 많은 것은 평저선으로, 주로 조

운(漕運)에 사용되었다. 호수와 하천의 지류가 종횡으로 펼쳐 있는 강남 지역은 모래가 많고 수심이 낮아 선박의 운행에 불리했다. 그러나 평저선은 도리어 이러한 결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곡식을 운반하는 요지이자 조선 능력을 지닌 명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 전함(戰船)

당 태종 정관(627~649)연간, 강남의 선성, 소흥, 상주, 소주, 호주, 향주, 월주, 대주, 우강(婺江), 괭주(括州), 구강 등 12주에 명하여 “수백 척의 대선을 제작하여 고구려를 정복하려 했다.”고 했다. 향주가 바로 명주인데, 12주 가운데 절반이 절강의 6주였다. 이로부터 절강 지역 조선업의 발달을 알 수 있으며, 당나라에서의 명주 조선업 지위도 상상하여 알 수가 있다. 당의 전함은 종류가 많은데, 누선(樓船), 몽충(蒙沖), 두함(頭艦), 주가(走舸), 해견(海鵠), 유정(游艇) 등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전함은 주로 몽충형태, 누선형태 그리고 두함형태의 3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전함은 모두 명주에서 제작되었다.

몽충형태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함이 아니고 선봉에 사용되는 선박이다. 『太白陰經』에 “蒙沖 以犀革蒙履其背 兩相開掣棹孔 前後左右 開弩窗矛穴 敵不得接近 矢石不能及 此不用大船 務於速進速退 以乘人之不備 非戰船也.”⁴⁾라는 기록이 나온다.

누선형태는 『太白陰經』에 “樓船 船上建樓三重 列女牆戰格 狀如城壘 樹幡幟 開弩窗矛穴 置棄車 壘石 鐵汁 狀如城壘. …… 忽遇暴風 人力不能制 不便於事 然爲水軍 不可不設 以張形勢.”⁵⁾고 했다.

두함형태는 『太白陰經』에 “頭艦 船舷上裝設中牆半身牆 下開掣棹孔 舷五尺 又建棚爲女牆 重列戰格 無腹背 前後左右 樹牙旗幡幟 金鼓 此戰船也.”⁶⁾라고 적고 있다.

4) (唐)이전(李筌), 『신기제적태백음경(神機制敵太白陰經)』, 平津館影宋抄本

5) (唐)이전, 『신기제적태백음경』, 平津館影宋抄本

(3) 어인과 어선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선박들은 ‘어인(魚刃), 어선’으로 불리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 애석하게도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알려진 내용은 많지 않다.

II. 명주의 대외무역

조선업의 흥성,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으로 정치 요소는 명주를 ‘해상 실크로드’가 시작하는 중요한 항구의 하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송 시기 이래로 유명한 대외교통 무역항구로 만들었다. 『사명지(四明志)』에 “해외 여러 나라의 상선이 잇따라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당대에 명주는 한반도의 청해진, 일본의 하카다 항과 함께 동아시아 무역권의 3대 국제 무역항이었다.

1. 명주와 신라

하모도(河姆渡)의 고고학적 발굴은 일찍이 신석기 시대에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을 받아 명주가 한반도와 비교적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하모도 문화는 중국 동남연해 지대에서 가장 빠른 신석기 시대 문화의 하나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모도 문화는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시종 주변의 다른 원시문화와

6) (唐)이전, 『신기제적태백음경』, 平津館影宋抄本

비교적 광범위하게 교류하였고, 약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은 이후 문화에 계승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하모도 사람들은 이미 숙련된 수상활동능력을 믿고 바다를 건넜다. 하모도 문화의 제2, 3문화층 시기가 되면 태호(太湖) 유역의 마가빈(馬家濱) 문화 유적에서 하모도 출토된 유물과 같은 상부가 등그런 형태인 호배형(弧背型) 유단석분(有段石甌, 석분은 돌자귀)이 자주 보인다. 승택(崧澤)과 양저(良渚) 시기에 이르면, 장강 하류지역에서 받침대에 구멍을 내어 다른 돌을 끼워 사용하는 형태인 대계형(臺階型) 유단석분이 공전의 발전을 이루었고, 동시에 이에 따라 주위의 여러 지역과 해외로 점차 전파되었다. 그 가운데에 북쪽으로 강소 지역을 경유하여 대략 양저문화의 초기에는 호배형과 대계형의 유단석분이 이미 산둥 지역의 대문구(大汶口)문화로 전래되었다. 이런 전파과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발해만을 건너 대계형 유단석분이 요동반도로 전파되었다. 둘째는 황해를 건너 한반도의 북부인 대동강 하류지역으로 전파되었고 뒤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래되었다. 요조형(凹槽型) 유단석분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한반도의 무문무늬 토기문화 시대와 일본의 야요이 문화 시기에 후쿠오까의 수구(須玖), 사가현의 요시노가리(吉野ヶ里), 나라의 당고(唐古) 등의 유적에서도 두 개의 구멍이 있는 반월형 돌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그 형태는 양저문화의 돌칼과 비슷하다. 이는 양저문화가 북으로 산둥 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그 후에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대에 이르러 명주항은 당나라의 대륙해안선 중간의 유명한 동방 대도시가 되는 동시에 신라의 해상활동가 장보고(張保臯)대사를 대표로 하는 한반도와의 해상무역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당나라는 중국과 한국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마침내 중국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가 잘 개척되었다. 이 항로는 4개로 나눈

다. 첫 번째는 등주(登州)에서 바다로 고구려와 발해로 가는 노선이다. 이 항로는 명주가 해양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 자주 이용되었던 노선이었다. 두 번째는 산둥반도의 등래(登萊)의 연해에서 출발하여 직접 동쪽으로 항해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한반도 서해안의 강화만 또는 평양 서남부의 대동강 입구까지 도달하는 항로이다. 이는 가장 빠른 노선이다. 세 번째는 강소 절강의 연해나 장강의 하구에서 출발하여 먼저 대륙의 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산둥반도의 성산각(成山角)에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항해하여 한반도의 서해안에 도착하거나, 북쪽을 항해하여 섬 사이를 건너 연안을 따라 한반도로 항해한다. 네 번째는 장강 하구(항주만의 남쪽에 있는 명주를 포함)에서 동북쪽 동해와 황해 해역으로 비스듬히 나아가 바로 한반도 서남지역의 연해에 이르거나 한반도 남부 해역에 있는 제주도에 먼저 도착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당대에 계절풍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었고 실제 항해에 이용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양자강과 회수의 선박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동북풍을 기다리고, 5월에 북동풍이 있었다.”⁷⁾고 한다. 태풍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를 피해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 해양의 조류에 대한 인식도 발전하였다.⁸⁾ 한반도 제주도에서 명주까지의 항로는 계절풍과 해류의 자연적인 흐름을 잘 이용하면 10여 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당나라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중한 양국의 해상무역에 지대한 편리를 제공하였다.

8~9세기에 당의 연해지역에는 많은 신라 상인을 위주로 하는 신라거주민이 모여 사는 신라방(新羅坊)이 형성되었다.⁹⁾ 신라의 무역상인은 중국의 동해안의 해상운수 및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

7) (唐)李肇國, 『史補·卷下』,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灣, 商務印書館, 1985

8) 손광기(孫光圻), 『中國古代航海史』, 北京, 海洋出版社, 1989

9) 장비비(蔣非非)·왕소보(王小甫), 『中韓關係史·古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활동에서 크게 활약했다. 저명한 역사학자인 전백찬(翦伯贊) 선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9세기 중엽 지금의 산둥 강소 연해의 여러 현에는 많은 신라방이 있었다. 이 지역은 신라거류민이 살던 곳이었다. 중국에 머물던 조선인민(신라인을 의미)들은 수상운수를 경영하기도 하였고 농사에 힘쓰기도 했다. 그들은 중국 동부의 연해지역의 경제와 문화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다. 신라 상인들의 선박은 지금의 산둥과 강소 일대의 연해를 왕래했으며 때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기도 했다.”¹⁰⁾고 한다. 당시 신라와 고려의 상인들은 명주에 도착하여 대부분 국제 해운 부두인 동도문(東渡門) 밖의 강하(江夏) 부두에 있었고, 활동무대는 대부분 동도문 안에서 있었고, 대부분 진명령(鎭明嶺) 일대에 거주하였다. 성내의 천태종 연경사(延慶寺)는 신라와 고려의 상인들이 불교를 신앙하던 활동지의 하나이다.

필자는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여 목포시의 국립 해양유물 전시관을 참관했다. 이 전시관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중 고고 박물관으로, 한국 해역의 해저에서 침몰된 많은 선박을 발굴, 보존, 복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필자는 복원된 신안의 해저에 침몰선의 잔해를 보았다. 그것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가장 가치가 높은 중국고대 무역선이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선박 가운데의 하나이다.

1974~1976년 한국 전라도 광주시 서부에 위치한 신안 앞바다에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해저에서 침몰되었던 원대의 선박—신안 침몰선이라고 하겠다—을 인양하였다. 이 선박의 길이는 34m, 폭은 11m이고, 무게는 200톤으로, 목제 대형 상선이다. 선박에는 도자기, 동전, 향료 등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원대의 경원(慶元, 즉 당대의 명주)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무역하러 가는 도중에 태풍으로 만나 침몰되었다.

1976~1984년 한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줄곧 이 원대 침몰선의 발굴을 계속 진행하여 모두 2만 점의 청자와 백자, 2천여 점의 금속제

10) 전백찬(翦伯贊), 『中國史綱要, 第2冊』, 北京人民出版社, 1965

품, 석제 물품과 자단목(紫檀木), 많은 향료, 촛대, 주방용 물품 및 28톤에 이르는 8백만여 개의 중국동전 등을 발굴하였다. 이 고고학적인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신안 침몰선과 그 유물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 경원항(당대의 명주항)이 원대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원나라와 한국 일본 사이에 무역 교류의 정황을 알려주고, 다른 한편으로 당대 명주와 한반도의 무역왕래가 매우 빈번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준다. 예를 들면 한국 남해에 위치한 제주도도 당대에 개척된 항로를 통하여 “장강의 하구나 명주(영파)에서 출발하여 동북방향으로 동해와 황해를 비스듬히 항해하면 바로 한반도의 남부 연해 혹은 제주도에 도착하였다.”고 본다. 이는 고대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중요한 해상교통로의 하나이며, 명주와 함께 대외무역을 발전시켰다. 한국 국립 제주도 박물관의 전사관에는 역대의 제주에서의 대외 문화 교류 지도가 진열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지도에는 영파(당대의 명주)와 제주를 잇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었다. 박물관의 한 연구원은 제주도가 바다에 홀로 있는 섬이기에 고대로부터 외부와의 왕래는 오로지 목선의 항해에 의존했고, 영파에서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는 항로는 중국 대륙의 문화가 현지로 전래되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라고 소개하였다. 박물관에서 소장한 대량의 월주에서 만든 청자는 영파에서 제주로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가 번영했음을 증명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영파항(명주항)은 여전히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가 시작하는 항구의 하나로 보인다.

2004년 5월 13일 오후 4시에 바다에서 이동하는 섬으로 불리는, 길이 323m, 폭 42.8m의 현재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 한국에서 출발하여 23시간의 항해를 거쳐 영파 윤항(兪港) 제2 컨테이너 공사 부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이에 이르러 영파와 한국의 해상무역은 다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명주 상림호(上林湖)의 월요(越窯) 청자는 9세기에 시작하여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에 따라 명주항의 유리한 환경 조건에 의지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이로 인해 명주항은 또한 ‘해상 실크로드’의 ‘개척자’라는 명예를 얻었다.

월주에서 제작한 다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수출하는 중요 무역품이었다. 동시에 한반도의 청자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서는 청자를 제작하는 초기에 명주 일대의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줄곧 상림호 청자를 모방하여 제작했다. 현재 한반도 최남단의 완도에는 장보고 유적이 있다. 사료에 기재된 내용과 최근 몇 년간 이곳에서 진행된 고고 발굴에 따라 출토된 유물이 3만여 점을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자, 도자기, 기와, 벽돌 등의 건축 재료이다. 현재 이 유물들은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의 장보고의 상선은 명주에서 대량의 월요 청자를 싣고 왔을 뿐만 아니라 절강 동부의 도자기 기술자를 태워 싣고 왔다. 이 시기에 절강 동부 월요의 선진적인 청자 제작기술은 모두 한반도로 전해졌는데, 완도와 가까운 강진군은 제작기법의 전수 지점이었다. 현재 강진 일대에는 9~13세기의 요지 188개가 발굴되었다. 이로 인해 강진 일대는 ‘한반도 청자의 발상지’¹¹⁾로 인식된다.

현지의 청자박물관에 진열된 다량의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청자’로 볼 때, 그 초기 청자의 형태, 색상, 문양 등은 절동의 월요 청자와 같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제작기술에 있어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해준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의 최선일(崔宣一) 선생은 한국 청자는 초기에 당송 시기 중국에서 배워 온 것이지만 뒤에는 이를 기초로 그들이 발전시킨 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科學院歷史研究所著, 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州 『朝鮮通史』翻譯組 譯, 『朝鮮通史, 上卷(第1分冊)』吉林人民出版社, 1973

명주와 신라 간의 무역은 최초의 관방무역(조공과 사은)을 거쳐 점차 민간무역으로 발전하였다. 당나라 통치 시기는 신라의 발전기(7세기 말~9세기 중엽)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신라는 중앙통치기구를 충실하게 만들고 새로 설립하였고 지방의 개발에 크게 힘을 쏟았으며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했다. 중앙집권적 봉건국가 통치기구와 봉건적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돈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크게 촉진되었다. 광업 수공업과 국내외의 무역도 현저하게 발전하였고, 특히 금, 은, 동, 철 등이 채광 제련되었다. 예를 들면 경덕왕(景德王)13년(754)에 주조된 황룡사의 종은 무게가 49만여 근 이었는데, 이는 신라의 채광 제련기술이 높은 수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당시의 공예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관영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생산 물품의 범위는 넓었다. 그 가운데에는 방직품, 의복, 장식품, 가구, 문구, 마구, 가축, 무기, 도자기, 기와 등이 있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품은 방직품, 의류, 장식품, 가구인데, 그 가운데에 어아주(魚牙紬) 조하주(朝霞紬)와 같은 견직물과 30, 40승포 등 정제된 제품은 대부분 외국 궁궐에서 서로 교환하는 예물로 쓰였다.

국내무역에서 최대의 상업 중심지는 수도인 경주였다. 신라의 지방에 5소경(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김해경), 9주(사벌주, 삼량주, 청주, 한산주, 수약주, 하서주, 웅천주, 완산주, 무진주), 큰 군현의 치소 및 대외무역의 요지도 지방 상업과 수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시장에는 시전(市廛)이 설치되어 교역사무를 관리했다.

대외무역에서 신라는 당나라와의 무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통일전쟁 이후 조선업과 항해기술의 신속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라의 당과의 무역은 외교사절의 왕래에 따라 진행된 무역과 순수 상인들에 의해 진행된 민간무역을 포괄한다. 신라와 당나라의 교통로는 서해안 혈구진(한강 입구), 당성포(남양만) 등에서

출발하여 중국 산둥반도에 도착하는 항로와 영암 부근에서 출발하여 흑산도를 거쳐 정해현(상해부근)에 도착하는 항로가 있었다. 이들 지방에 상륙한 이후 다시 수로나 육로를 통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는데, 이들 항로에는 상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신라 상인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당의 중요한 여러 항구에서는 신라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거류지 신라방이 설치되었고, 이런 신라방을 관리하는 현지의 관원은 신라인들로 충원되었다.¹²⁾

이 시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인은 장보고였다. 한국에서 ‘해상왕’으로 불리는 장보고는 일찍이 당나라 군대에서 직무를 맡았다. 그는 당 문종(文宗) 대화(大和)3년(829)에 신라로 귀국한 다음 군인의 신분으로 해상 상업활동을 경영하여 해외무역을 독점하였고, 마침내 동아시아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통하는 대규모의 국제적 상단을 조직했다. 이 상단은 신라의 청해진, 당나라의 명주 등주 일대, 일본의 하카다(후쿠오카) 일대의 항구를 해상무역의 중요한 지역으로 삼아 대규모 상선을 이끌고 각국 사이에서 무역을 진행했다. 학설에 따르면, “당나라로 유학 가는 일본 승려들도 대부분 장보고의 상선에 탑승했다.”고 한다. 『조선통사』에 “8~9세기 국내무역의 경영으로 부자가 된 대상인이 출현했다. 청해진대사 장보고는 그중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동방 삼국의 상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권력을 장악하였다. 원래 장보고는 신라의 청해진, 즉 지금의 완도(한국 전라남도)의 평민신분이었다. 그는 전쟁의 공적으로 점차 승진하여 청해진대사가 되었다. 그는 대규모 상선을 이용하여 당과 일본 등과 무역을 진행하여 거대한 부를 쌓았다. 일본의 대당 무역상이나 유학승 등은 모두 장보고의 상선을 이용했다.”¹³⁾고 한다. 즉 장보고는 가히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

12) 同上

13) 同上

을 독점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가 피살된 후 영파의 상인을 중심으로 대당상단(大唐商團)이 이를 대신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주역을 차지하였다. 첫째, 당시에 “영파 사람들이 없으면 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고, 소흥 사람들이 없으면 지방의 아문(衙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이 유행하였다. 전자는 영파의 상단이 진출하는 지역은 확대되었고 그들의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명주는 중국의 해안선에서 중간에 위치한, 남북의 수로를 장악하는 요충지였고, 자연적인 좋은 항구가 있는 중요한 상업무역의 요충지였다. 당송 시기의 시박(市舶)은 멀리 해외까지 이르렀다. 원대 외국의 물자는 바다를 건너 모두 이곳에 모였다. 셋째, 명주는 내하(內河)의 수운(水運)이 발달했다. 절동(浙東)을 하는 항주와 용장 사이의 물길이 개통되자, 명주의 해상무역은 절동운하를 거쳐 항주에 이르렀고, 다시 지금의 항주와 북경을 잇는 대운하 및 이와 관통하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을 통해 중원 지역과 북방 각지로 상품을 운반하였다. 경영에 뛰어난 용강(甬江) 상인은 운하를 이용한 무역활동에 따라 해내와 해외로 나아갔다.

일찍이 명나라 정부가 엄격하게 실시한 해금정책은 해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민간인 해상 사무역의 흥성을 격발시켰다. 당시의 쌍서도(雙嶼島)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일컬어졌고, 영파 상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무역활동에 더 힘썼다. “力者自出資本 無力者輒轉稱貸 有謀者誑領官銀 無謀者質當人口 有勢者揚旗出入 無勢者投托假借 雙桅三桅 連檣往來 愚下之民 一葉之艇 送一瓜 運一罇 率得厚利. 訓至三尺童子 亦知雙嶼之爲衣食父母 遠近同風 不復知華俗之變於夷矣.”¹⁴⁾ 장보고의 피살은 동아시아 해상 무역 지도자의 지위 공백을 초래했다. 이는 바로 일찍이 위험을 무

14) (明)경세문(經世文) 編, 『朱中丞巽余集』 권205, 北京, 中華書局, 1988

릅쓰고 상업을 직업을 삼고 상업을 영광으로 여기는 영파인이 자연스럽게 대치하였다. 영파인이 중국의 10대 상방(商幫)이라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2. 명주와 일본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는 한대(漢代)와 남조(南朝)의 항로를 계승하여 황해의 남북항로가 병존하였고 새롭게 동지나해의 남북항로가 개척되었다. 명주와 일본 사이의 무역항로 문제는 출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서술하겠다.

일본에서부터 설명하면, 먼저 동해남항로는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평시도(平戶島)를 거쳐 큐슈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방진(沔津)과 종자옥구제도(種子屋久諸島)를 거쳐 오키나와에 도착한 다음 해협을 지나 중국에 도달하는 항로이다. 『신당서』에 “신라는 대략 바다를 건너 명주와 월주를 경유하여 조공했다.”¹⁵⁾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동지나해의 북항로는 강소와 절강 연해의 여러 항구에서 일본 큐슈로 직항하는 항로인데, 일본에서는 이를 남도로(南島路)라고 한다. 중국과 일본의 교류에 사신과견, 견당사, 유학승, 상인 등 대부분은 이 항로를 이용했다. 무종(武宗) 회창(會昌)2년(842) 이덕린(李德隣)은 명주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했다. 현종(玄宗) 천보(天寶)연간(742~756) 감진(鑑眞) 화상이 동으로 일본으로 건너 간 것은 바로 이 항로를 이용했다. 당나라 말기 명주, 온주, 대주, 복주, 양주, 광주 등은 모두 일본과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명주에서 출발하는 항로에는 남도항로가 있다. 이 항로는 명주,

15) (宋)구양수(歐陽修),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88年

혹은 양주나 초주(楚州)에서 출발하여 동지나해를 건너 바로 일본의 엄미(奄美, 지금의 대도)에 도착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야구(夜久, 지금의 옥구도), 다미(多彌, 지금의 종자도)를 지나 사쓰마(薩摩) 해안을 따라 북쪽의 하까다에 도착한다. 이 항로는 대략 천보 시기에 개척되어 “신라가 바다를 건너 오히려 명주와 월주(소흥)를 경유하여 조공했다.”¹⁶⁾는 기록에서 보이듯 명주는 신라 외에도 일본과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남로항로는 명주나 초주에서 출발하여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의 직하도(直嘉島), 즉 오도열도(五島列島, 녹도, 평호도, 복강도, 구하도 등이 포함된다)에 곧바로 도착하는 항로이다. 대종(代宗) 대력(大歷)12년(777)에 일본의 견당사는 바로 이 항로로 양주에 도착했다. 만일 순풍을 맞이하면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 기타 항로와 비교하면 가장 짧았다.¹⁷⁾

일본 승려 도횡(元橫)은 동지나해를 건너 명주 삼강 입구에 도착한 다음 천동사(天童寺)에 들어가 불법을 배웠다. 귀국 후에 그는 일본에서 조동종(曹洞宗)을 설하고 천동사를 높여 조정(祖庭)으로 삼았다. 이는 중일 문화 교류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일화이다.

중국에서 제조된 동전은 일본에서 통용되는 국제화폐였고, 동시에 일본의 황금도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밖에 신라와 일본 사이에도 빈번한 무역왕래가 있었다. 『조선통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라는 일본과의 사이에 정치적 왕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왕래는 오히려 비교적 빈번했다. 신라의 상인은 늘 일본 큐슈를 왕래했고 일본인도 늘 무역하러 왕래하였다. 양국의 무역에서 주도권은 신라 상인이 가졌고, 동시에 신라의 상인은 일본 상인, 유학생, 승려가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가는 중요한 교통운송의 수단이었다.

16) 『唐書·東夷傳』, 北京, 商務印書館, 1983年

17) 방중보(房仲甫)·이이화(李二和), 『中國水運史』, 北京新華出版社, 2003

일본 상인은 신라에서 일반적인 상품 이외에도 신라의 문헌과 불경 등 많은 서적을 수입했다.”¹⁸⁾

3. 명주와 동남아시아

당나라는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지역들과 선박 항해를 통한 교류가 있었는데, 중요 항구는 명주였다. 그 밖에도 복주, 천주, 광주 등이 있다. 이 항로를 서쪽으로 항해하는 원양항로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당대에 근해 남북해양항로의 항해나 원양항로의 개척을 막론하고 명주는 모두 중요 항구이자 반드시 경유해야 할 항구였다.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로 9~10세기 월요 청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바레인, 이집트, 수단, 케냐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었다. 출토된 유물 대다수를 이루는 파편 조각 이외에도 아름다운 완성품도 적지 않다. 이로써 명주는 당대의 해상교통운수와 중국과 외국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현저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4. 명주와 서아시아 페르시아

당시의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은 명주성에 모여 장기간 성내에서 거주하며 주로 보석경영으로 직업을 삼았다. 성내에는 또한 왕래하는 상인을 접대할 수 있는 페르시아 관이 설립되었고, 페르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시가를 페르시아 향이라 불렀다. 1997년 초, 영

1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科學院歷史研究所著, 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州『朝鮮通史』翻譯組譯, 『朝鮮通史』上卷(第1分冊), 吉林人民出版社, 1973

파시 고고연구소는 공원로(公園路) 당송자성(唐宋子城) 유적의 유물 발굴과정에서 고대 페르시아의 도자기 조각을 발굴했다. 고증에 의하면, 이 녹색 유약을 바른 조각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생활에 사용된 후에 버려진 물품으로 추정된다.

Ⅲ. 명주의 수출입 주요 상품과 무역관리제도

1. 수출입 상품

(1) 수출 상품

도자기. 그중에서도 월요 청자는 명주에서 수출되는 중요 상품이다. 당대에 명주에서 해외로 가는 ‘도자기의 길’이 개척되어 북으로 고려, 동으로 일본에 이르렀다. 남쪽으로 광주를 경유하는 노선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동남항로와 연해안을 따라 베트남, 태국, 미얀마에 이르고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르고, 바로 페르시아 만과 지중해 연안의 이란과 이집트 등에 이르는 서남항로가 있었다.

견직물. 예로부터 유구한 비단 생산의 역사를 지닌 명주는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주변의 인근 지역에서 양잠업이 흥기하여 비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원료를 제공하였다. 당대에 대량으로 생산된 비단은 명주 등의 항구를 통해 한반도로 수출되었다. 당나라가 한반도에 수출하는 비단제품은 錦, 綾, 羅, 綺, 繡, 彩, 織 등의 종류가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에서 수출한 비단의

품목과 수량이 실려 있다. 예를 들면 개원(開元)12년(724)에 당나라는 2천 필의 금포(錦袍)와 채소(彩素)를 수출했고, 함통(咸通)6년(865) 당나라는 천 필의 비단과 실을 수출했으니, 이로부터 수출한 물량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관부는 성내에서 방사국(紡絲局)을 설치하여 비단제품의 수출업무를 관리했다. 방직품은 명주에서 한반도로 수출된 주요 상품의 하나이다.¹⁹⁾ 당나라에서 신라에 대한 예물은 각종 비단, 약재, 공예품, 서적이었다. 차와 생활 공예품 및 각종 유교, 불교, 도교 등 경전문헌이다.

(2) 수입 상품

8세기 신라는 관영수공업에서 비단의 생산이 매우 발전하였고, 또한 조하방(朝霞房), 염궁(染宮), 홍전(紅典), 찰염전(扎染典), 소방전(蘇房典) 등 비단 염색의 전문 공장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제작되는 비단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정미하였다. 중국에서 수입한 한반도의 주요 상품은 조하조(朝霞綢), 조하금(朝霞錦), 어아조(魚牙綢), 어아금(魚牙錦), 삼베 등의 직물, 금 은 동 등의 금속, 금비녀, 금은불상 등의 금속공예품이 있다. 그 밖에도 인삼과 우황이 섞인 약재, 말, 모피제품과 공예품이 있다.²⁰⁾

2. 시박제도(市舶制度)

시박제도는 고대 중국의 해외무역을 관리하는 중요 제도로, 당대에 시작하여 명대에 폐지되었다. 북송 함평(咸平)2년(999) 명주에 비로소 시박사(市舶司)가 설치되었다. 시박사가 설치되기 전에는 잇따라 양절

19) 吉林省社科院高句麗所 校勘, 『三國史記』, 吉林文史出版社, 2004

20) 강맹산(姜孟山)·이춘호(李春虎), 『朝鮮通史』권1, 延邊大學出版社, 1992

시박사와 항주시박사의 관할하에 있었다. 명주가 비록 도시가 아니지만 항로가 모이는 곳으로, 남쪽으로 복건과 광둥, 동쪽으로 일본, 북쪽으로는 고려로 통하여 상인들이 왕래하고 화물이 풍부하였다.

명주는 지리적으로 일본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일본의 조공사절단은 일반적으로 오도(五島)에서 출발했다. 4천Km의 거리인 오도에서부터 절강 보타산(普陀山)까지는 동북풍으로 순항하면 밤낮으로 5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역풍을 만나 뜻을 내리고 흔들거리는 대로 맡겨두어 항해하면 15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²¹⁾ 이에 당나라는 명주에 해외무역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했다.

IV. 당대 명주항의 발전과 그 위치

1. 관방 조공무역 항구에서 점차 민간 해상무역의 국제항으로 변화했다.
2. 단일한 일본 고려의 국제무역 항구에서 점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대륙을 넘고 해양을 건너는 국제항으로 발전하여 항구 경제의 기능은 보다 강화되었다.
3. 항구의 위치와 항로가 점차 변화했다.
4. 항구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개조되었다. 첫째 인원구성에서 변화가 있었다. 동쪽으로 일본과의 무역, 북쪽으로 한반도와의 무역, 남쪽으로 복건과 광둥을 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지나해

21) 諸葛之聲, 『三朝平攘錄·日本上』권5, 北京, 中華書局, 1975

내지 태평양, 인도양, 멀리 유럽까지 뻗어갔다. 일본, 한반도,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 각지의 상인들이 있었다. 둘째, 화물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조공무역은 관방무역을 위주로 하였고, 민간무역은 비단, 면포, 자기, 차 등을 위주로 교역하였다.

5. 중국과 외국의 문화가 교류 융합되었다. 명주, 지금의 영파는 ‘해상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항구로 ‘육상 실크로드’와 마찬가지로 실크로드는 단지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루트였다. 그것은 중국과 세계가 대화하는 창문을 열었고, 중국의 선진적인 과학, 문화, 기술을 세계로 전파해 인류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였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 공헌했다.

주석

1. 현재의 영파는 당대에 명주로 불리었다. 그 이유는 부근에 사명산(四明山)이 있었기 때문에 ‘명주’로 불렸다.
2. 당시 지금의 절강 지역을 포함하는 ‘강회(江淮)’ 지구는 이미 당 정부가 곡식을 조운하던 중요 출발지였다. 당나라 전기에 절강의 조운은 모두 수도와 다른 지정 지역으로 직접 운송하였다. 『新唐書·食貨志』에 “강회 지역의 조미를 싣고 동도(東都)에 이르러 함가창(含嘉倉)에 수송해놓고 수레와 낙타 등으로 육상 운송하여 섬(陝 지금의 섬서)에 이른다.”는 기록에 의하면, 먼저 선박을 이용하여 낙양에 도착한 후 다시 육로로 장안까지 수송하였던 것이다. 두보(杜甫)가 『후출새(後出塞)』에서 “거대한 돛을 돌려 요해(遼海)로 향하니 동오(東吳)의 메벼가 실려 왔네.”라고 노래하였다. 이는 바로 강소와 절강에서 요동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선박이 마치 끊임없이 조량을 곡식을 운송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중세기 천주의 선진 조선기술과
신안 원선 복원연구

진연항(陳延杭)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적요

천주(옛 이름은 刺桐)항은 역사가 오래된 항구이다. 이곳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선박기술이 뛰어났던 항해민족인 고월족(古越族)이 존재했음을 고고학적 발굴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들의 행적은 일찍이 이곳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보인다. 진대(晋代)에 중원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문화가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천주 지역의 경제와 조선업이 발전하고 해상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당대(唐代)에 천주는 중국 남방의 대외무역의 4대 항구의 하나가 되었으며, 송원(宋元) 시기에 유럽의 많은 여행가들이 동방의 최대 항구라 격찬할 만큼 번영했다.

천주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조선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즉 풍부하고 품질이 좋은 선박재료와 선진적인 조선기술이 천주에서 결합되면서 조선업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74년 천주만(泉州灣) 후저항(後渚港)에서 출토된 송대(宋代) 선박이 발견되었다. 사료에서는 선박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송대의 선박이 국보급 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975년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원대(元代)의 목선이 출토되었는데, 이 선박이 천주에서 제작된 목선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천주의 조선기술은 대략 3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선박의 형태이다. 즉 중국의 전통적인 선박의 설계과정에서 선박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이런 설계에 따라 제작된 선박은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의 길이와 폭 사이의 비율을 고려하여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목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품들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여러 목재를 겹쳐 만든 합판, 선체의 목재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철제 못, 목재를

연결하는 철제 꺾쇠, 목재를 감싸는 철제 테두리, 목재를 묶는 끈 등이 있는데, 이런 부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선박의 강도와 경도를 높일 수 있었다. 셋째는 격창벽을 만들었다. 격창벽의 본래의 기능은 방수를 위해 만들어 졌지만 이 격창벽으로 인해 많은 돛대를 설치할 수 있었다. 즉 많은 돛대와 돛이 있는 선박은 항해의 과정에서 방향의 조정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항해술의 발전과정은 격창벽의 설치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들이 세계 조선업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I. 중세기 천주의 국제적인 위치

1. 천주의 역사회고

-유구하고 수준 높은 항해술과 조선업

천주의 항해술과 조선업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신석기 시대에 고월족은 이미 천주에 정착했다. 이들은 조선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항해민족으로 노를 이용하면 육상에서 마차와 같이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보인다. 고월족이 만든 선박을 주선(舳舻)이라 하는데, 원강(袁康)의 『월절서(越絕書)』과 악사(樂史)의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권 102, 천주풍속(泉州風俗)에서 보이는 ‘수려장(須慮長)’이라는 단어는 복건 지역에서 사용된 발음을 기록한 것이다. 현재 대만 난서도(蘭嶼島)의 아미족(雅美族)이 주선과 비슷한 형태의 선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선박을 아미족은 ‘chinurikuran’이라 발음하는데, 능순성(凌純聲) 선생은 『중국고대여남미서안수운공구적비교연구(中國古代與南
美西岸水運工具的比較研究)』에서 이 발음이 ‘수려장’이라는 발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주(舟, 고대에서는 jiu로 발음했다)’와 ‘선(船, 영문
으로는 junk라고 표기)’에 관해 이들의 발음은 모두 민남어(閩南語,
북견남부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에서 시작되었다는 학설이 일반
적으로 통용된다. 즉 민남어에서는 ‘舟’를 ‘jiu’로 발음하고 ‘船’을
‘jun’으로 발음한다. 이것은 선박의 이름이 북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진(西晉) 말기에 왕조의 내부분쟁으로 16년간의 내전이 발생하
여 호족(豪族)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거대한
강에 도착한 후, 이곳에 강변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이
강은 진강(晉江)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은 선진적인 생산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전 시기에
각국과 해상에서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상에서의 활
동도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주민 때문에 원주민들은 섬으로 다
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원주민들은 주로 바다에서 살게 되었다. 예
를 들면 악사의 『태평환우기』권102, ‘천주풍속’에서 기재된 ‘여정자
(游艇子)’는 어업을 하는 형태와 운송을 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수거선(水艚船)’은 항상 바다 위에 있으면서 운송을 담당하
는 선박을 가리킨다. 이렇게 바다에서만 생활하게 된 원주민들을
‘단민(蜃民)’이라 불렀다.

당대에 안사지란(安史之亂)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
주했다. 이들은 서진 시기의 이주민들처럼 당시 가장 선진적인 생산기
술과 문화를 가지고 이주한 것이다. 특히 하남 지역의 야철기술이 이
지역으로 전래되면서 철제 공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북견의 나
무를 이용하여 대형 선박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방으로의

육로교통이 불편하였기에 해상교통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주에 대해 당나라 시인인 설능(薛能)은 시에서 “높은 파도 소리에서도 만국의 상인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고 포화(包和)도 시에서 ‘시정에서도 보이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라고 하여 당시 천주의 번영한 모습을 잘 묘사했다. 이렇듯 천주는 중국의 남방에서 대외무역의 중요한 항구로 발전했다. 오대(五代) 시기 왕심지(王審知)가 복건 지역을 통치하면서 해외무역을 중시하여 천주항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송원 시기에 천주는 해상교통의 역사상에서 가장 번영했다.

2. 해외무역 상품의 생산지

-천주가 번영할 수 있는 경제적 요소

천주는 비단, 도자기, 차 등 특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송원 시기의 천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면, 마, 비단을 생산하였는데, 생산된 물량이 많고, 품질이 좋아 공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2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복건성의 덕화(德化) 자기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멀리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판매되었다. 당시의 천주항은 자동항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전국에서 도자기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항구였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강서(江西)의 경덕진(景德鎮), 절강(浙江)의 용천(龍泉), 복건의 청자와 백자 등 도자기 제품과 북방의 다른 도요에서 만든 도자기도 판매되었다. 그리고 안계(安溪)의 차는 천주항으로 먼저 옮겨져 해외로 수출되었다. 천주에서 제작된 선박을 ‘해박(海舶)’, 또는 ‘천박(泉舶)’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복건 지역에서 제작된 선박을 대표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가장 우수한 선박이었다.

3. 중세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구

-동방의 제일항구

송원 시기에 천주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98개 국가와 지역 사이에 무역왕래가 있었다. 이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과 발전은 인류문명의 교류와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1271~1272년에 유대 상인인 야곱 단코나는 『빛의 도시(光明之城)』에서 그가 본 천주항의 모습을 기록했다. 그가 본 천주는 거대한 항구로 광주(廣州)항보다 더 큰 항구라 생각했고 천주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15,000여 척의 선박을 보았다. 즉 아라비아, 인도, 실론, 자바, 북방의 몽골, 유럽의 프랑스에서 천주에 무역을 위해 온 선박들이었다. 천주에 정박한 대선은 6개의 돛대와 4층으로 된 갑판, 12개의 돛이 있었는데, 이 선박에는 1,000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 이들 선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자세한 항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하기도 했고, 또한 나침반을 사용하여 항로를 만들거나 찾기도 했다. 야곱은 이들의 재능에 매우 감탄했다.(야곱 단코나, 『빛의 도시』 참조)

이탈리아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17년간 관직생활을 했다. 그는 천주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구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천주가 수많은 상인이 모여드는 곳이고,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화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코카친 공주를 호송하여 페르시아도 가는 도중 천주에 도착했다. 1291년 대선이 4~5척이고 모두 14척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천주에서 출발했다. 이 선박들은 매 척마다 250~260명이 승선하는 선박이었다. 『동방견문록』에서 그는 중국의 문명과 천주항의 번영한 모습을 서양에 가장 자세하게 알린 첫 번째 인물이다.

송원 시기에 유럽에서 명성이 높은 4대 여행가(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오도릭, 마리놀리)는 모두 천주에 도착하여 천주항의 번영한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심지어 후대의 콜럼버스의 항해일기에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대륙에 도착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천주와 중국의 수도에 도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콜럼버스 일기 『가장 위대한 항해지』) 이렇듯 송원 시기의 천주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고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다.

4. 중국과 한반도의 유구한 항해역사

중국과 한반도는 자연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국가였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에 중국의 홍산(紅山)문화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의 춘추전국 시대에 해상교통을 시작되었다. 진대(秦代)에 서복(徐福)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 그는 3,000명의 동남과 동녀를 태우고 산둥반도의 낭야(琅琊)항을 출발하여 발해만을 횡단하여 황해 연안의 한반도와 섬들을 따라 일본에 도착했다. 종합해보면 중국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등)의 해상교통과 무역에서 수대 이전의 등래(登萊), 수당 시기의 양주(揚州), 북송 시기의 명주(明州), 송원 시기의 천주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왕래는 7세기에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고 적극적으로 해상교통을 발전시킨다. 신라는 많은 유학생을 당나라에 보내서 당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수입했다. 8~9세기 신라와 당나라 간의 해상무역과 문화 교류는 전성 시기를 맞이했다. 통계에 따르면 당 말기에 해당하는 194년(703~897) 동안 신라는 89차례의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고, 당나라도 역시 188차례의 사신을 신라에 파견했다. 후에 북방과 남방의 대표적인 항구인 양주, 광주, 교주(交州) 등

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로지 복건만이 남게 된다. 민왕(閩王)이 민국(閩國)을 건국한 후 해외 교통, 무역의 발전을 중시하여 천주는 해상무역의 중요한 지역이 되며 항해술, 조선술, 항구 등이 모두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다. 사료에 따르면 당나라 태종 정관 시기에 신라 승려 혜륜(慧輪)이 바다를 건너 민월(閩越, 지금의 복건) 지역에 도착하고 후에 도보로 장안에 도착한다.(의정(義淨), 『대당서예구법고승전(大唐西預求法高僧傳)』 卷上, 참조) 천주항이 나날이 번영하여 천주와 고려의 왕래는 더욱 증가한다. 『고려사(高麗史)』의 내용에 따르면 고려에 가서 무역하는 중국 상인이 100여 차례나 되는데, 송나라 상인이 복주 2차례, 광주 3차례, 대주 3차례, 명주 3차례, 민인 1차례, 강남 2차례 등이다. 그중에 천주에서 19차례나 고려에 가 무역활동을 한다.(진고화(陳高華), 『북송시기전왕고려무역적천주박상(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 『해교사연구(海交史研究)』2期, 참조) 이로 볼 때 천주와 고려는 해상왕래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 천주항 번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선업

천주는 선박을 건조하는 기지로서 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우수한 재료와 높은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연해의 여러 항구의 특성에 대해 여이호(呂頤浩)는 『충목집(忠穆集)』 권2, 「論舟楫之利」에서 “남방의 목재는 바닷물에 적당하여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복건에서 제작한 것이 최고이고, 광주는 두 번째, 온주와 명주는 세 번째

이다. 북방의 나무는 바닷물에 적당하지 못했는데, 바닷물의 쓰고 짠 성분이 나무를 부식시켜 선박으로 제작한다면 오랫동안 항해할 수 없었고, 또한 바다파도를 막지 못해 선박이 전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1974년 천주만 후저항에서 출토된 송대 선박이 이런 주장을 증명한다.

천주는 송원 시기의 선진적인 조선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은 전통적인 선박의 설계에서도 우수함을 보였다.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 또한 낮은 선박 재료와 우수한 기술이 조선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해상 실크로드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천주는 중국 연해의 다른 여러 항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 비교할만한 항구가 없었다.

1. 출토된 선박에서 보이는 천주의 선진적인 조선기술

1974년 천주 후저항에서 출토된 선박은 고고학자와 전문가의 검증에 따르면 국보급 보물에 속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토된 선박에서 많은 문헌에서 기재되었지만 자세하게 기재되지 못했던 기술적인 측면과 새롭게 발명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선진적인 기술은 해상 실크로드의 전성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서양의 항해술과 조선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천주항에 출토된 송대 선박(發掘簡報『文物』1975. 10. 참조)은 현재 남아있는 길이가 24.2m이고 잔존하는 선박의 폭이 9.15m이다. 이 선박은 천주 해외교통사 박물관 고선관(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古船館)에 보존되어 있다. 이 선박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유선형의 선체로 선박의 하부는 첨저(尖底)형이고 첫 부분은

말발굽의 모양이다. 선체는 편편하고 넓으며 전체적으로는 타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용골(龍骨)의 길이는 선박에 구멍에 맞추었고, 용골은 선수와 선미에 구멍을 끼워 연결했다. 이는 보수공(保壽孔, 용골과 선미의 연결부위에 ‘공(孔)’ 자 형태의 구멍을 뚫음)이라는 민간 풍속을 따 른 것이다.

3) 선박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여러 겹으로 목재를 덧대는 구조로 선박의 밑은 2장의 목판을 덧대어 만들었다. 선박에 사용되는 목판은 삼나무로 제작되었고, 이 목판의 길이는 9.21~13.5m이고 폭 은 28~38mm이다. 여러 겹으로 만든 선박의 목판은 그 길이에 따라 겹쳐서 연결하는 방법과 이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혼용되었다. 용 골로부터 선박의 가장자리까지는 모두 14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그 다음은 네 개의 사다리를 만들었다. 1~10간은 두 겹으로 된 합판을 다시 포갠 것이고, 11~14간은 세 겹으로 된 합판을 포갠다. 이 세 겹으로 포갠 목판의 두께는 18mm이다. 매 간의 목판의 연결은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 끼운 방법을 사용했다. 틈이 있는 부분은 천, 대나무, 동백기름, 회를 섞어 만든 것을 사용했고, 또한 못을 박아 목판을 덧붙이거나 못으로 목판을 연결하기도 했다.

4) 선박에는 13개의 격창벽이 있었는데, 이 격창벽과 선박의 밑부 부분의 연결방법은 마치 뼈대를 세워 내부를 감싸 안는 형태였다. 중간 의 돛대를 경계로 1~6간의 선창은 중앙을 향하였고, 8~12간의 선창 역시 다른 쪽에서 중앙을 향하는 형태였다. 이런 격창벽은 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형태이다. 격창벽과 선체의 연결은 폭이 넓은 갈고리 형태의 못이 사용되어 격창벽과 선체의 바닥은 갈고리처럼 하나로 연결되었다.

2. 발견된 천주 선박의 과학적 원리

1) 일반적으로 선체는 움직이지 않는 액체에서 부력과 선박의 무게가 서로 같을 때 떠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목선은 바닷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부력과 무게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더구나 바닷물은 순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선박을 조정할 때는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수면에서 돛이 받는 힘은 선박이 앞뒤로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순간적인 변화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공기를 이용한 동력의 문제는 해역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선체의 하부는 바닷물에 잠겨 있어서 바다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체동력(流體動力)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선체는 공기와 바다의 흐름의 경계에서 움직이기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파도의 압력이나 관성 때문에 다른 저항력을 받기도 한다. 계산과 실험을 통해 목선이 받는 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의 조선기술과 항해술의 기술은 인체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위에 떠있는 물체를 관찰하여 선체의 모형을 설계한 것이다.

2) 중국의 조선과 항해에 관련된 선조들은 이런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선박의 형태를 공예적인 관점에서 제작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① 두 개의 클링커를 가진 선박을 설계하고 제작했다. 클링커는 두 개의 꼬리가 서 있는 형태로 수면과 떨어져서 항해시의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또 추를 건어 올리거나, 키를 조정하거나, 정박할 때 조정이 매우 편리하다. 선수에는 둥그런 삼각형의 형태로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경사면이 있다. 이곳은 물을 막는 작용을 하며 선박이 상하로 요동치는 것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는 하부가 침저선인 북

건 선박의 외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용골은 상하의 구조로 만들어져 전방에는 선수와 연결되어 앞으로 블록 튀어나온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의 선박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후방에 선미에는 용골과 요철형식으로 연결된다.

② 선체는 두터운 형태에서 날렵한 형태로 설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천주 송대 선박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L/B=2.5-2.9$ 로 이는 당시 항해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영파에서 출토된 송대 선박은 $L/B=2.7-2.8$ 의 비율이고, 신안의 원대 선박은 $L/B=2.88$ 의 비율, 명대(明代) 정화(鄭和)의 선박은 $L/B=2.47$ 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두터운 형태의 선박은 안전한 면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다. 해상운송의 발전과 해전으로 말미암아 선박의 형태는 안전하고 빠른 속도를 필요로 했다. 이로 인해 길이와 폭의 비율은 $L/B=4\sim 5$ 까지 변화했다. 이런 선박의 형태는 명청 시기의 간증선(趕繒船), 수거선(水艍船), 동안준선(同安梭船)의 형태와 같다. (『하문지(廈門志)』, 『금문지(金門志)』 참조) 준선(梭船)의 모습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현대적인 선체의 물리적인 강도를 계산해보면, 유선형의 선박이 항해할 때 저항력을 감소시킨다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다. 즉 천주 송대 선체의 구조와 강도에 대해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다. 만약 선체의 길이가 두 파도 간의 거리와 같다면 선체의 최대 배수량은 선체의 중앙 부분에 집중되고, 선체 중앙의 하부가 받는 힘은 목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평방cm 당 50kg 정도이다. 이런 사실을 가설에 적용하여 천주의 송선(宋船)이 하부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평방cm 당 50kg라 한다면 안전한 수치는 허용할 수 있는 수치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실제 대만해협을 파도 간의 거리는 대략 30m 정도이다. 이는 발견된 복건 범선의 길이 때

문에 비교적 큰 두 개의 클링커를 선체에 부착한 것이다. 즉 클링커를 부착함으로써 선체가 받는 파도의 충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주의 선박으로 대표되는 복건 선박의 구조는 매우 과학적이다. 양끝은 뾰족하고 중간은 평평한 타원형의 형태로 강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체의 강도와 경도를 살펴볼 때 대략적이라고 한 이유는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용골, 양현의 안정성, 가로로 놓인 격창벽의 작용에 대해서는 역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기둥 하나만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바다에서는 기둥의 양끝이 가장 단단한 곳은 아니었다. 화물을 적재하는 창고는 힘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선박의 안전성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천주의 송선은 또 하나의 장치를 했다. 즉 선박을 감싸는 부분에 격창벽을 설치한 것이다. 선박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목관을 세워 항해 시에 선박이 힘을 받게 될 때 선박이 휘어지거나 선박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하부는 목관을 겹치는 방식을 사용하여 선박의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했다. 영파의 송선에 용골이 있으면 명청 시기의 선박에는 ‘은’(穩, 물에 닿는 부분에 반원형의 목재를 덧댄 형태)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선박의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3) 선체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길이, 넓이, 두께. 선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연구에서 천주 송선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즉 용골은 곧은 소나무를 사용했고, 크기가 일정했다. 용골의 지경은 큰 편이었다. 선박의 겹은 삼나무를 사용했다. 직경은 송나무보다 작았다. 선박의 하부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녹나무를 사용했다. 선박제조 공인들은 먼저 긴 목재를 사용했다, 그러나 목재의 길이가 짧으면 철제 테두리를 사용하여 목재를 감싼 후에 연결했다.(송응성(宋應星), 『천공개물(天工開物)』 참조) 또한 큰 목재가 없으면 2개의 목

재를 철제 테두리로 연결하여 한 목재인 것처럼 만들어 사용했다. (하여빈(何汝賓), 『병록(兵錄)』, 참조) 이런 내용은 자주 볼 수 있다. 천주 송선의 용골은 17.65m로 소나무 2개를 연결한 것이다. 선판을 접합하는 방식은 목재의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 그 구멍에 끼워서 연결했다. 선판이 넓히기 위해 목재를 나란히 연결하거나 겹쳐서, 혹은 구멍을 내어 끼우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은 목재의 두께에 따라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천주 송선은 2~3장의 목판을 이은 것이었고 마르코 폴로가 천주에서 본 선박 중에 6장의 목판을 연결한 선박도 있었다.

4) 단단히 연결하기 위해 목판을 구멍을 내어 끼운 방법 외에도 철제 못, 철제 꺾쇠, 철제 테두리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목재를 고정시켰다. 이런 방식은 선박에 사용하는 목판을 길게 사용하는 용도 외에도 선박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5) 마지막으로 밧줄, 실, 대나무, 펄티 등으로 선박의 틈을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 이는 선박의 안전성을 위한 것이나 또한 선박 자체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틈을 막는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은 오동기름이나 조개껍질을 섞은 회였다. 선박기술은 선박을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제작기술 중에 선박의 표면에 옷칠을 하거나 오동기름을 바르기도 했는데, 이는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벌레들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이런 선박 재료는 대부분 복건에서만 생산되어 복건 선박이 다른 지역의 선박보다 우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송원 시기에 복건 선박은 중국을 대표하여 사신들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6) 복건 선박에서 사용한 가로로 놓인 격창벽은 중국에서 2천 년 전에 출현하여 지속된 제작방식이다. 출토된 선박에서 보면 격창벽 사이의 거리는 1~3m 정도이다. 격창벽은 선박의 총 길이, 구조강도,

선체의 형태, 돛대의 위치 등 여러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선(大船)에서는 세로로 놓여진 격창벽을 사용하여 벌집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금문지(金門志)』, 『CHINESE JUNKS』 참조) 격창벽의 사용은 선박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고 선박의 강도 또한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천주에서 또 다른 선박이 출토되었는데 이 선박을 ‘법석송선(法石宋船)’이라 부른다. 『천주법석고선시굴간보화초보탐토(泉州法石古船試掘簡報和初步探討)』, 『자연과학사연구(自然科學史研究)』第2卷, 第2期 참조) 이 선박은 선박설계와 기술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다. 선박의 목판은 한 겹의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거나 철제 못으로 연결하여 겉에서 보면 계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겉면에는 동백기름으로 틈새를 막았다. 선판의 두께는 9.5cm 이고 넓이는 34.5cm로 후저항에서 발견된 송선은 두 겹인데도 12cm이니 이 선판이 더 두껍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체의 구조가 후저항의 송선보다 더 견고하다. 이로 볼 때 선판의 제작, 가공기술이 더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천주에서 발견된 두 척의 송선은 당시의 천주가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부품 제작기술 역시 발달했음을 알려준다. 선박의 바닥에서 한 장의 목판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여 계단을 만드는 방식과 여러 겹으로 만든 합판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계단은 모두 선박의 흔들림을 막는 역할을 했다. 법석송선의 격창벽은 선판과 나무못을 사용해서 연결했다. 이는 후저항의 송선과 다른 연결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7) 돛대를 많이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의 목선은 중앙의 돛대가 선박의 길이보다는 작았다. 선박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돛대 역시 커졌다. 돛대의 길이는 재료인 목재의 길이로 결정되었다.(삼나무와 녹나무의 최고 길이는 약 30m이다) 계속 길게 하려면 나무를 묶은 후에 철제 테두리로 감아 연결한다. 돛대가 너무 크면 선박의

조정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돛대를 많이 설치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길이가 30m가 넘어가면 돛대를 2개를 설치한다.(송응성, 『천공개물』 참조)

돛대의 재료에 대해 광동의 선박은 딱딱하여 부러지기 쉬운 녹나무를 사용한다. 복건의 선박은 부드럽지만 질긴 삼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으면 변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목재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복건의 선박에서는 약간 굵은 형태의 나무를 사용한다. 즉 굵은 형태가 바람의 압력을 받으면 약간이나마 굵은 형태가 펴지기 때문에 삼나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돛대가 많은 선박에 가장 중요한 돛대는 선박의 중심선의 정 중앙에 설치하고 다른 나머지 돛대는 중심선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전방을 해야 약간 기울어지게 설치한다. 이런 설치방식은 선체의 구조와 항해하는 해역의 풍력상태에 따른 것이다.

8) 돛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복건 선박은 대나무 껍질이나 천을 사용한다. 돛은 대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돛대의 가로방향으로 설치하여 튼튼하게 고정시키는데, 이는 돛이 부서지면 선박의 추진력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돛의 형태는 첨도(尖刀) 형태 혹은 부채 형태로 제작한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선박의 추진력에는 풍속(風速)강도가 3~5급이 가장 적당하며 풍속이 낮으면 움직일 수 없고 풍속이 강하면 안전하지 못하다. 대만해협의 연평균 풍속은 초당 3.2~4.6m로 풍속강도로 환산하면 3급에 해당한다. 즉 이 해역은 풍력자원이 좋아 범선의 항해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이 해역은 풍속이 낮더라도 갑자기 풍속의 변화가 심한 지역이다. 풍속이 변하여 맞바람이 불면 1.8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갑작스런 강풍이 불 때 조심하지 않으면 침몰되기도 한다. 범선의 선장은 일반적으로 모두 재능이 있고 기상변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선박은 돛과 조정이 편리한 설계로 제작되었지만

풍속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촘촘하면서도 강한 돛이 필요하다. 이런 기상변화가 심한 해역에서는 바람을 잘 알고 조정을 잘 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복건 선박의 돛은 뽀족하면서 길어서 전문적인 돛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풍력이 작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압력은 바닷물과 선박 사이의 발생하는 마찰력 때문에 돛의 위치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즉 바다에서는 해류의 흐름 때문에 바람이 불더라도 선박의 상대적인 속도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선박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류의 흐름 보다 강한 풍속이 필요하고 초당 6m를 초과하는 풍속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라 복건 선박의 돛은 매우 뽀족한 형태로 풍속이 낮더라도 효과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돛의 뒷부분은 부채형태의 날개 모습(어떤 복건 선박은 직선 형태도 있다)으로 실험결과에 의하면 바람을 이용하기에 좋은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대만해협의 지리적인 환경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이 해역의 기상변화에도 적합하다.

돛의 조정은 풍속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돛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비스듬하게 돛을 설치하여 바람을 이용하기도 한다.(만진(万震),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 참조) 즉 가장 큰 돛을 선박의 후방에 설치하여 전방에 비스듬하게 설치한 돛 사이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 추진력으로 전환하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이런 형태를 ‘호접범(蝴蝶帆, 나비날개를 본 딴 형태의 돛)’이라 부른다.(양희(楊熹), 『고대항해사(古代航海史)』 참조)

3. 천주 조선기술의 발달이 세계 조선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

1) 인체공학적인 선체 형태

선박의 형태는 물위에서 떠 있는 물새를 본 딴 것이다. 선체의 가장 넓은 중앙의 뒷부분에 노를 설치하여 추진력을 얻는다. 유럽의 선박은 가장 넓은 중앙의 앞부분에 노를 설치했는데,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본 딴 것으로 성능은 중국 선박보다 못하다. 1984년에 비로소 중국 선박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Joseph Needham, 『중국사술어문명(中國科技與文明)』 참조) 이 기술은 실제적으로 송대 이전에 이미 형태가 있었고 준형 선체의 설계에 규범이 되었다.

2) 선체의 선판을 이용하는 방법

천주 송선은 여러 겹의 합판으로 구성된 선체로 목판을 연결하는 방식은 목판을 잇대어 연결하는 평접(平接), 비스듬히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사구접(斜口接), 구멍을 내어 끼우는 순접(榫接), 목판을 겹치는 탑접(搭接) 등이 있고, 그 후에 철제 못이나 철제 꺾쇠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목판이 연결할 때 생기는 틈새는 여러 재료로 막았다. 이런 기술은 마르코 폴로가 유럽에 전했다. 선판은 여러 겹을 사용하거나 한 겹으로 된 것이 있었다. 법석에서 출토된 송선과 신안의 원선(元船)은 한 겹으로 된 선판을 사용했다.

3) 격창벽

선판의 가로 방향으로 격창벽을 설치하여 각각의 공간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선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다. 고고학에 의해 발견된 당대에 이미 이런 구조가 출현했었다.(『양주시교발현료고대목선(揚州施橋發現了古代木船)』,

『文物』 1961. 6. 참조) 천주 송선의 격창벽은 완성도가 가장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은 1295년 마르코 폴로가 유럽에 소개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후에 영국 해군의 기술 책임자인 사무엘 벤담(Samuel Bentham)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명한 격창벽의 원리에 따라 신형 군함 6척을 제작했다.

신안 원선의 조선기술계승과 복원연구

1975년 한국 신안군 해저에서 원대 범선 1척이 발견되었다. 발견 될 당시 선박의 구조는 완성도도 높았으며 ‘동방 최대의 무역상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최남광 등, 『동방최대적고대무역선박적발굴(東方最大的古代貿易船舶的發掘)』, 『해고사연구』 1989. 1. 참조) 이 선박을 감정한 결과, 중국 남방에서 제작된 목조 범선이다.(김재근(金在瑾) 등, 『신안해저문화재발굴조사보고(新安海底文化財發掘調查報告)』, 1980. 9. 3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신안해저유물(종합편)』 선체(船體) 참조) 출토문물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주요 하고도 다방면에 걸쳐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신안 원선에 관해 그 선체 형태의 특징, 선박 구조적 특징, 사용된 재료와 기술적인 면들이 천주에서 발견된 목조 범선과 비슷하다. 이로 볼 때 신안 원선은 천주에서 제작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1. 선체 형태의 특징은 용골이 있고 V자형인 침저선 형태로 양쪽에 클링커가 있다. 선체는 유선형이며 선박에 앞부분에는 역삼각형을 이루는 평판으로 되어 있다. 선박의 길이는 35m(대만해협의 파도간의 거리와 같다) 폭은 2.6~2.8m로 천주 선박의 폭인 2.3~2.5m와 비슷하다.

2. 구조적인 특징은 용골이 요철형태로 복건 선박인 단양선형(丹陽船型)과 같은 형태이다. 선미에는 구멍을 파서 끼운 구조로 보수공이 있다. 보수공에는 거울과 동전을 놓았는데 이는 복건 선박의 특유한 민간풍속이다. 선판은 단층이고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연결했는데 천주 범선 목조 범선과 같은 구조이다. 7개의 격창벽이 있고, 격창벽과 선판은 혀 모양으로 구멍을 파서 끼워 연결한 방식이

다. 주 돛대(主桅), 전방의 돛대(前桅) 후방의 돛대(尾桅)의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돛대가 3개인 범선이다. 이는 복건 선박의 표준 방식이다.

3. 목재는 용골은 소나무, 선판과 칸막이는 삼나무, 하부에는 방수를 위해 녹나무를 사용했다. 돛대는 삼나무를 사용했는데, 긴 돛대가 필요할 때 밑에는 녹나무, 위는 삼나무를 연결하여 사용했다. 돛은 대나무 껍질과 천을 사용했고 방향타는 밤나무를 사용했고 닻도 역시 물보다 무겁고 경도가 뛰어난 밤나무를 사용했다.

4. 제작기술에 선판을 길게 연결하기 위해 평접과 사구접 방식을 사용했고, 선판의 폭을 위해 물고기 비늘처럼 겹친 순접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돛대의 길이를 위해 철제 테두리로 감싸고 연결한 부위는 철제 못이나 다른 철제 부품을 사용하여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했다. 틈새는 대나무, 조개껍질을 사용하여 막았다. 선박의 겉면은 석회와 오동나무의 재를 혼합한 등유회를 사용했다.

이상과 같이 선박의 기본요소들이 모두 천주 목선과 같기 때문에 한국 신안에서 출토된 목조 범선은 천주에서 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신안 원선의 복원

1. 발굴된 선판을 연결하여 신안선(新安船)의 모형도를 만들 수 있었다. 또 용골이 형태가 독특했는데, 이는 복주 선박인 단양형이다.

2. 신안 목조 범선의 중요한 기술적 숫자는 다음과 같다.

- 1) 선박의 길이 : 단양선의 수선(水線, 물에 닿는 면)의 길이와 용골의 비율은 1.45이고 선박의 총 길이와 수선의 길이 비율은 1.131이다. 신안선 용골의 길이는 18.5m이다. 즉 단양선의 비율에 의하면 신안선의 수선 길이는 18.5×1.45 인 26.83m이고 신안선의 총 길이는 26.83×1.131 하면 35.14m 이다.
- 2) 선박의 폭 : 신안선의 한 쪽 면의 선판은 갑판이 위치한 곳까지로 이것은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이다. 즉 이 선박의 총 폭은 11m이다.
- 3) 선박의 높이와 흘수 : 선박의 폭과 높이는 선박의 횡적 강도와 관계있기 때문에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비율이 커지면 강도가 약해지고, 심지어는 항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안선의 모형도와 단양선을 근거 적합한 비율을 찾을 수 있다. 즉 단양선은 높이가 3.5m이고 흘수가 3m이다. 즉 이 비율은 대략 0.2~0.4 정도이다. 이런 비율은 원양항해에 적합하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신안선 역시 이와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4) 신안선 복원의 주요 숫자
 - 총 길이 : 35.14m
 - 수선길이 : 26.83m
 - 폭 : 11m
 - 실제 폭 : 10m
 - 높이 : 3.5m
 - 흘수 : 3m
 - 방계지수(높이와 흘수의 비율) : 0.4
 - 배수량 : 321.6톤

이로 볼 때 신안선은 천주 송선과 동급인 원양상선임을 알 수 있다. 신안선이 천주 선박보다는 약간 길지만 흘수가 작고 배수량 또한 적은 편이다.(천주 선박의 배수량은 393.4톤) 선체의 길이와 폭을

비교하면 천주 송선의 비율은 2.55이고 신안선은 3.2, 현대의 단양선은 4.75이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와 폭의 비율은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안전을 위한 비율이지만 항해의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3. 중요한 부속의 배치

- 1) 돛대는 범선의 규모와 출토했던 구조를 통해 신안선이 3개의 돛대가 있었음을 발견되었다. 신안선의 돛대는 높이는 중앙 돛대가 32m, 전방 돛대가 25.6m, 후방 돛대가 15m이다.
- 2) 돛은 범식 송선에서 대나무 껍질로 만든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 형태는 두 겹의 대나무 껍질 사이에 대나무 잎을 끼워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편가절첩식(多片可折疊式, 여러 조각을 쌓아 올린 형식)이라는 형태이다. 신안 원선은 모두 천을 사용했다. 중앙 돛대에 걸린 천의 면적은 234평방미터, 전방 돛대에 걸린 돛의 면적은 104평방미터, 후방 돛대에 걸린 돛의 면적은 77평방미터이다.
- 3) 방향타의 크기는 선박의 길이×흘수의 13~28%가 일반적이다. 복건 선박의 방향타 면적은 11.6평방미터로 비율은 14.5%이다. 신안선은 흘수가 작기 때문에 적합한 방향타의 크기는 높이 5.5m, 폭 2.1m 정도가 적합한 크기이다.
- 4) 닻은 물보다 무거워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밤나무를 사용했다. 6m의 닻을 사용했으며 보조하는 닻은 4.5m이다.

4. 신안선 모형제작은 단양형 선박을 모방하여 1:20의 비율로 제작하였고 그 외부는 전통적인 천주선 형식으로 장식했다.

당송 시기의 천주와 동북아시아의 도자기무역

진려화(陳麗華)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본문은 한국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후원과 김건인(金健人) 교수의 지도를 받고 완성되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전언(前言)

천주(泉州)는 복건성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기후가 따뜻하고 주 위에는 음나무들이 있어 예부터 온릉(溫陵), 자동성(刺桐城, Zaitun)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렸다. 현재는 대만해협 서쪽 복건 남부의 하문(廈門)과 장주(漳州), 그리고 천주로 연결되는 삼각형태의 주축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복건성에서 복주와 경제특구인 하문을 제외하고 복건성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옛 천주는 단독적인 행정구역이 형성되기 전에 소속되었던 이름이 매우 많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3~4천 년 전에 이곳에는 고월족(古越族)이 거주하고 있었다. 서주 시기에 이곳을 팔민(八閩)이라 불렀고, 춘추전국 시기에 월(越)나라의 영토였으며 진 시기에는 민중군(閩中郡)이라 불렸다. 이후 민월국(閩越國), 남부도위(南部都尉), 건안군(建安郡), 진안군(晉安郡), 진평군(晉平郡)에 속하기도 했다. 6세기 초 남조(南朝) 양나라 천감(天鑑) 시기에(502~519) 비로소 단독으로 군(郡)이 설치되어 남안군(南安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남안군은 현재 남안 풍주진(豐州鎭)에 설치되었고, 관할했던 범위는 지금의 포전(莆田)과 장주 두 지역을 포함한다. 당 사성(嗣聖) 원년(684)에 이 지역은 무영주(武榮州)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경운(景云) 2년(711)에 무영주라는 이름을 천주로 바꾸었다. 7년 후(당 개원 6년, 718)에 행정의 중심은 남안군 풍주에서 지금의 천주로 이동했다. 그 이후로 역대 천주에서 관할하던 지역은 비록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중심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즉 천주는 진강(晉江) 유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 중기와 북송 초기에 장주와 흥화(興化)는 행정적으로 나뉘었고 이런 행정구역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본문에서는 당송 시기의 천주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진강, 남안, 혜안(惠安), 동안(同安, 지금의 하문을 포함

한다), 안계(安溪), 영춘(永春), 덕화(德化) 등 7개 현(縣)을 가리킨다. 당 중기 이래 천주 지역은 중국 남방의 중요한 상업도시로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해상교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천주 상인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서 무역활동을 했고, 현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런 끊이지 않는 교류활동은 천주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다. 비록 천주의 해외교통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6세기 남조 시기에 시작되었다. 수당 시기 이래 천주는 해외 각국과의 왕래가 나날이 증가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천주와 고려 사이에 관한 문헌자료는 많지 않고, 사서의 기록도 대부분은 단편적인 내용일 뿐이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료의 한계로 인해 고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절강, 강희(江淮), 산둥 지역 중심이고 천주를 비롯한 복건과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참고할 것은 1974년 여름 천주만 후저항(後渚港)에서 남송(南宋) 시기에 침몰한 선박이 발굴되었다. 이에 천주의 역사학자들이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에서 유물과 문헌을 정리 연구하여 세계 각지의 학자들은 천주의 역사에 대해 전면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1976년 한국新安(新安) 앞바다에서 침몰된 선박의 발견은 고려와 중국 연해 사이의 해상교류에 관한 대한 흥미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두 선박의 모형 등을 자세하게 비교하여 연구한 선박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新安에서 발굴된 선박은 천주항에서 발굴된 선박과 놀랍게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은 복건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 1980년 진고화(陳高華) 선생은 『북송시기전왕고려무역적천주해상-겸논천주시박사적설치(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海商-兼論泉州市舶司的說置)』²⁾에

1) 석용비(席龍飛), 「對韓國新安海底沉船的研究」, 『海交史研究』, 1994. 2.

서 『高麗史』와 중국 고대 문헌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북송 시기의 천주와 고려 간의 해외무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학계에서 천주와 한반도 간의 교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천주 지역에는 지금까지 신라, 고려와의 교류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 옛 지명,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등이 남아 있다. 천주의 이옥곤(李玉昆) 연구원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 학술성과는 없었다. 이번에 한국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대대적인 협조를 받아 섭은전(葉恩典) 선생은 관련된 지역을 답사하여 많은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들을 사서, 각종 서적, 전설 등과 연관 지어 연구하여 독자적인 견해가 있는 연구성과를 보였다. 그의 연구성과는 이런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문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당송 시기 천주와 동북아(한반도와 일본)의 도자기 무역이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자기의 특수한 재질은 다른 물품과는 달리 보존이 쉽지 않다. 문자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다량의 옛 도자기는 각국 간의 무역관계와 정치문화 교류에 없어서는 안 될 실물자료이기 때문이다.

둘째, 천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도요(陶窯)는 당대와 오대 시기의 도요가 있고 더욱이 송대의 도요가 가장 많다. 도요의 유적은 널리 퍼져 있고, 그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예를 들면 동안의 정계요(汀溪窯), 진강의 자조요(磁竈窯), 천주의 동문요(東門窯), 덕화의 개덕요(蓋德窯), 하문의 행림만(杏林灣)의 청자요(靑瓷窯), 안계의 계요(桂窯), 남안의 동전요(東田陶窯) 등이 유명하다. 이런 도요에서 제작된 도자기는 당대와 오대 시기에 시작되었고 송대에 대량으로 생

2) 진고화(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海商-兼論泉州市舶司的設置」, 『海交史研究』, 1980. 2.

산되어 판매되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이들 도요 간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천주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도요에서 생산한 도자기를 천주로 옮겨왔고 송대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자기 산업이 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그림1 참조)

셋째, 천주 도자기는 외국의 문화 유적이거나 부장품에서 가끔 발견된다. 또한 침몰한 선박을 발굴하는 수중 고고학의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이 외국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천주의 도자기가 중국과 인근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당 시기에서 명청 시기까지 해상교통의 발전에 따라 도자기는 해외의 먼 나라까지 판매되었다. 상품의 종류로 보면 청유 자기(靑釉瓷器), 청백유자(靑白釉瓷), 백유 자기(白釉瓷器), 흑유 자기(黑釉瓷器) 등이 있고 그 종류도 매우 많다. 송대 천주 도자기의 판매지역은 넓어서 동북아의 일본에서 가장 많고 한반도에서도 일부가 발견된다.

상술한 원인에 근거하면 필자는 당송 시기에 고려가 중국과 동북아 무역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도자기가 천주에서 제작된 것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논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이나마 학술연구에 도움을 되어 천주의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한국학자와 많은 교류가 되기를 희망한다.

I

이 논문은 당송 시기 천주와 동북아 각국의 도자기 무역과정에 중점을 두지만 이 시기의 천주와 동북아 해상교통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겠다.

천주는 중국동남연해에 위치하여 바다가 깊고 해안이 곡선을 이루어 3개의 만, 즉 천주만, 심호만(深滬灣), 위두만(圍頭灣)이 있고 숭무(崇武), 수도(秀涂), 오서(烏嶼), 후저(後渚), 간강(蚶江), 석호(石湖), 상지(祥芝), 영령(永寧), 심호(深滬), 위두(圍頭), 동석(東石), 안해(安海) 등 12개의 항구가 있다.(그림2 참조) 또한 아열대 기후로 사 계절 얼음이 얼지 않아 언제든지 항해할 수 있다. 천주는 동지나해와 남지나해가 만나는 지역으로 북으로는 항주와 명주, 남으로는 광주와 연결되어 남지나해, 인도양, 동북아 무역에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주민이었던 고월족은 해상활동을 시작했고 남조 시기에는 대형선박이 항해를 시작했다.³⁾

첫째, 당 오대 시기 천주의 해상교통의 역사적 기록은 비록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있다. 사료상에서 보이는 천주와 한반도, 일본 사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해상교통이 있었다. 당나라 천수(天授)3년(629) 10월 18일 『대주고관군대장군행좌표도위익부중랑장고부군(현)묘지명병서(大周故冠軍大將軍行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玄)墓志銘并序)』⁴⁾의 내용에 의하면 고현(高玄)의 부친 고렴(高廉)은 한반도출신이었지만 일찍이 당나라에서 ‘천주사마(泉州司馬)’를 역임했다.(이 시기의 천주는 후대의 복주를 가리지만 관할하는 지역은 지금의 천주까지 포함했다) 또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당말의 문사 진암(陳黯)은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여 가화(嘉禾, 지금 하문의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대에는 천주 동안현이었다)의 금방산(金榜山)에 은거했는데, “서당 앞에 신라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

3) 인도 승려 구나나타(拘那羅陀)는 진(陳) 영정(永定)2년(558)에 작은 배를 타고 진안군(晉安郡, 지금의 복주)을 거쳐 양안군(梁安郡, 지금의 천주)에 도착했다. 인도로 귀국할 때는 큰 배를 타고 갔다. 도선(道宣), 『속고승전(續高僧傳)』권1, 『역대고승전(歷代高僧傳)』, 上海書店, 1989. p.430 참조.

4) 『千唐志齋』, 文物出版社, 1983.

다.”⁵⁾는 내용으로 볼 때 당나라 말기의 천주는 신라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여 은거한 진암의 서당에도 신라 소나무 두 그루를 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당서』 지리지의 내용에 따르면 8~9세기에 당대 교통은 사방의 주변 국가와 7개의 교통노선이 있었다. 그중 해로는 2개로 하나는 남방의 광주에서 바다를 건너 이도(夷道)로 가는 경로와 또 다른 하나는 등주(登州)에서 고려와 발해로 가는 경로가 있었다. 이로 볼 때 천주의 선박은 북상하여 봉래(蓬萊)를 지나 한반도로 가는 항로가 있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항로는 없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교류가 진행되었다. 당 중기 천주는 이미 중국 남방의 유명한 4대 항구의 하나가 되었고, 남조 시기 이래 항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조선기술과 항해술의 발전되어 동북아 일대의 항해가 가능했다. 이 밖에 당시의 구내외적인 상황이 천주 상인이 한반도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국제적 환경으로 보면 당과 신라와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라의 장보고는 해상에서 세력을 떨쳐 중국 동남연해의 항구와 일본을 오가는 중계무역을 장악하고 거대한 무역권을 형성했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9세기에 많은 신라인들이 직접 중국으로 항해하여 중국의 연해와 운하가 발전하게 되었다.⁶⁾ 중국, 일본, 신라 삼국의 해상교류 과정에서 신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나 혹은 중계상으로 활동하여 동북아의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비록 해상조직이 천주와 직접적인 접촉을 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관문서에서도 기록이 없지만, 사서의 기록만이 지난 일들을 모두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민간 교류는 활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물며 우리들은 그 당시 해상에서 발생하

5) 『廈門志』(道光)권2 『分域略』“山川” 金榜山 참조.

6) 손광기(孫光圻), 『公元8~9世紀新羅與唐的海上交通』, 『海交史研究』, 1997. 1.

는 변화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에 신라 상선이 표류하여 천주에 도착하거나 신라인이 천주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주 민간사회에서 ‘신라’라는 명칭이 내려오는 이유를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천주 사람들은 ‘신라’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당시의 문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북송의 유명한 채양(蔡襄, 1012~1067)은 『여지보(荔枝譜)』에서 고려에 대해서도 계속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남송 조여괄(趙汝适, 1170~1231)도 『제번지(諸蕃志)』에서 이미 고려가 건국한 지 300년이 지났고, 또 선박사를 담당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신라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이런 명칭에 대해 필자는 잘못 썼거나 소홀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주에서 신라라는 명칭이 단순히 신라라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신라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이고 사관들이 송 초기에 신라가 조공했던 사실 때문에 계속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⁷⁾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에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들이 표류하여 중국에 도착한 것은 셀 수가 없다. 원풍(元豊) 원년(1078)에 고려인 최거(崔舉) 등은 태풍으로 인해 표류하면서 천주에 도착했다. 천주 어민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 그들은 천주 지방관에게 통행증과 일정의 생활비용을 받았다. 그들을 돌봐주던 송나라 관원의 도움으로 명주에 도착한 후 귀국할 수 있었다.⁸⁾ 이로 볼 때 신라 혹은 고려인이 천주에서 무역을 하거나 거주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

국내 환경으로 보면, 당 정부가 해외무역의 신속한 발전한 천주에

7) 양박문(楊博文), 『諸蕃志校釋』, 『新羅國』1, 中華書局, 1996 p.153

8) (宋)증공(曾鞏), 『存恤外國人請著爲令札子』, 『寧波海關志』, 浙江科學技術出版社, 2000. p.328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문종 대화(大和)8년(834) 2월에 조정은 천주를 포함하여 복건, 영남, 양주 등 각 지역의 지방 관아로 외국 상인과 외국선박을 좋게 접대하라는 조서를 하달했다. “宜委節度觀察使常加存問 除舶脚 收市 進奉外 任其來往通流 自爲貿易 不得重加稅率.”⁹⁾ 즉 조정은 광주와 같이 천주에 시박사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천주에 특별히 참군사(參軍事) 4인에게 사신에 관한 업무를 내려¹⁰⁾ 해외에서 온 사절과 상인의 관리하게 했다. 이런 개방 정책은 해외무역발전을 촉진시켰다. 당 정부는 천주를 자유경제 지역으로 삼아 그 결과로 많은 해외 상인들과 선교사, 그리고 사절단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의 히르츠(Friedrich Hirth)와 미국의 록힐(W. W. Rockhill)은 『제번지역주(諸蕃志譯注)』를 분석하여 9세기 혹은 더 이른 시기에 천주는 일본과 고려와의 무역관계가 활발했고 그 시기는 대략 1세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후에 아라비아 상인이 일본과 고려의 특산품을 발견하여 아라비아로 가지고 갔다. 이런 특산품은 광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상품이었다. 이밖에 천주는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한다.¹¹⁾ 당대 아라비아가 발전하면서 아라비아 상인은 당시 세계바다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상인들이 중국의 광주, 천주, 양주 등 지역에서 무역활동을 했고 송대에 아라비아인들이 천주에 거주하면서 청진사(淸眞寺)를 세우고 거주지와 학교를 만들었다. 지금 천주에는 이와 관련된 역사 유적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이는 중국과 아라비아 사이에 우호적인 교류가 오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851년 솔레이만(Soleyman)이 저술한 『인도중국견문록(印

9) 진무인(陳懋仁), 『泉南雜志』 참조.

10) 『全唐文』 권75, 文宗 七, “大和八年疾愈德音” 참조.

11) Hirth and Rockhill, *Chau Ju Kua: His Work on the Chinese and Arab Trade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Entitled Chu-fan-chi*. 이금명(李金明)·요대가(廖大珂), 『中國古代海外貿易史』, 廣西人民出版社, 1995

度中國見聞錄』 중 ‘Syla’라는 단어가 보인다.¹²⁾ 거의 동시대의 이븐 코르뎃벳(Ibn Khordadzhbeh)의 『도정급군국지(道程及郡國志)』에서 ‘Sila’라는 명칭이 출현한다. 『포수경고(蒲壽庚考)』의 고증에 따르면 ‘Syla’와 ‘Sila’는 신라를 발음한 것이다.¹³⁾ 당대의 아라비아 상인은 신라와 일본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그러면 아라비아인들은 천주에서 ‘신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그들은 천주의 시장에서 신라 상품을 보고 흥미를 느껴 잘 알지도 못하는 국가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이다. 히르츠와 록힐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당 말 이래로 천주는 한반도와 아라비아를 잇는 중개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대에 들어오면서 천주의 역사는 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민국(閩國)의 왕심지(王審知)는 통치하는 지역이 작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그는 해상무역을 중시하여 해외 여러 각국 상인을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복주에 교화무(權貨務), 천주에는 교리원(權利院)을 설치했다. 이 기관에는 해로도지휘사(海路都指揮使)와 운사(運使) 등의 관리를 임명하여 외국의 선박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해외 선박의 물품에 관세를 적용하여 국가의 수익으로 삼았다.¹⁴⁾ 이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업이 큰 발전을 하게 되었고 해외무역에서 복건 상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대상인이 출현하기도 했다. 오대(五代) 시기 천주의 포전출신인 황도(黃滔)는 『가객(賈客)』에서 “大舟有深利 滄海無淺波。利深波也深 君意竟如何。鯨鯢鑿上路 何如少經過。”¹⁵⁾ 즉 황도는 이 시(詩)에서 복건 상인에 대해 묘사했는데, 이 복건 상인은 천주 상인을 포함하고 있다.

12) 『印度中國見聞錄』권1, p.60

13) 상원즐장(桑原鷲藏) 진유청(陳裕菁) 역, 『蒲壽庚考』, 중화서국, 1957

14) 구양수(歐陽修)撰, 『신오대사(新五代史)』권68

15) 『신오대사(新五代史)』권84 “(閩)黃滔『賈客』”

민국의 통치자는 천주의 해상무역의 발전을 위해 천주에 특별하게 해로도지회사라는 관직을 만들고 ‘교리원’이라는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개원사(開元寺) 유적에서 『불정존승타라니경당(佛頂尊勝陀羅尼經幢)』이 출토되는데 이 유물은 남당(南唐) 보대(保大)4년(946)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유물의 내용에서 ‘군사좌압아충(軍事左押衙充) 해로도지회사(海路都指揮使) 검 어사대부(御史大夫) 진광준(陳匡俊), 교리원사(樞密院使) 유승(劉拯)’이라는 서명이 있다.¹⁶⁾ 당시 복건은 동남아와 해상교류를 진행한 것 외에도 북상하여 산둥반도와 한반도까지 교류를 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왕십지는 당나라가 멸망한 후 후량(後梁)의 태조가 즉위할 때부터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산둥 등래를 통해 조공을 했다.¹⁷⁾ 왕정희(王延曦)가 왕십지를 계승한 후에 신라는 두 차례를 사신을 파견하여 보검을 보냈다.¹⁸⁾ 또한 다른 사서의 기록에는 당시 신라와 복건 사이에 불교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고려사』에 후당(後唐) 명종(明宗) 천성(天成)3년(928年) “新羅僧洪慶自唐閩 府航載大藏經一部至禮成江 王親迎之 置於帝釋院”¹⁹⁾이라는 기록과, 양극가(梁克家)가 저술한 『순희삼산지(淳熙三山志)』의 사관류(寺觀類)에 “懷安慶成寺 州東 本王延曦之第. 既卽僞位 天福七年乃施爲永隆金身羅漢禪寺.”라고 나온다. 이 사찰에서 보관하는 것은 고려에서 보내온 고려동불상(高麗銅佛像) 3점(세 불상 중의 한 불상에 대해 ‘잘못된 불상이 있어 후에 목조불로 대신한다’라는 글씨가 있다)과 작은 목탑이 있다.²⁰⁾

민국의 통치자는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천주에는 사찰이 많고

16) 오대 시기 석경당 유물은 현재 천주 해외교통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임종홍(林宗鴻), 『泉州開元寺發現五代石經幢等重要文物』, 『泉州文史』, 1986. 9. 참조.

17) 『신오대사』 권68 『閩世家』

18) 『신오대사』 권68 『閩世家』

19) 『고려사』 권1, p.46

20) 『淳熙三山志』 “晉天福二年施爲永隆金身羅漢寺.” 『閩都記』 “今爲慶成寺”

고승 역시 많았다. 특히 선종은 천주에서 큰 발전을 하여 유명한 선승이 많았다. 그중 남안출신의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이 가장 유명한 승려이다. 의존은 당, 오대 선종의 최고봉으로 그의 가르침은 전국 각지와 한반도까지 전해졌으며 제자들은 전국적으로 4만명에 달했다. 그의 문하에는 외국 승려도 있어 대표적인 승려들은 신라 승려 대무위(大無爲)선사는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귀국하여 신라에서 불법을 전파했고, 고려 승려 영조(靈照)선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항주에서 불법을 전했으며 현납(玄納)²¹⁾선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천주에서 불법을 전했다. 천주 자사 왕정빈(王延彬)은 서문 밖에 그를 위해 복청사(福淸寺)를 세웠다. 현납은 이 사찰에서 30여년을 지내며 원적 했다. 『민서(閩書)』, 『천주부지(泉州府志)』, 『진강현지(晉江縣志)』 등에 이와 유사한 기재내용이 있다.²²⁾

인류의 문화 교류와 상업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못한다. 이들은 서로 도움을 주면서 관련을 맺는다. 다시 말하자면 상업활동의 지역은 문화 교류가 시작되고 문화 교류가 발생하면 상업활동이 형성된다. 고려 승려, 일본 승려, 서양 선교사 등이 천주에 온 이유가 모두 다르겠지만 천주 상업의 발전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당대 이래 명주항은 중국의 유명한 항구로 신라, 고려와는 역사적으로 오래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대부분은 절강에 도착하고 내륙 교통을 통해 천주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복건은 “四境皆數百里千岩萬壑 不可以形狀 名計何其富也 始(指唐時)州戶籍衰少 耘鋤所至 甬邇城邑 穹林巨澗 茂木深翳 小離人迹 皆虎豹猿獠之墟. 自非捐俗割愛 童發毀服 無所顧慕 誰肯奮足於單危寂絕之

21) 玄納에 대해 사서에서는 ‘원납(元納)’ 혹은 ‘현납(玄納)’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예를 들면 『십국춘추(十國春秋)』의 열전(列傳)에서는 ‘元納’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교원(何喬遠) 저술한 『민서(閩書)』에서는 ‘玄納’으로 기록했다. 본문에서는 ‘현납’을 사용한다.

22) 이옥곤(李玉昆), 『高麗僧人玄納與泉州福淸寺』, 『泉州晚報·海外版』, 1999. 11. 9.

境.”²³⁾라고 적었다. 이 기록에서 볼 때 육로의 험난함을 잘 알 수 있다. 만일 절강에서 해로를 통해 복주나 천주에 도착한다면 시간적 노력을 덜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한반도에서 천주에 도착한 사람들은 해로를 통해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물며 당시의 천주가 해상교통이 발달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현납선사를 위해 복청사를 세운 왕정빈은 왕십지의 조카로 대략 26년간 천주 자사를 지냈다. 그가 천주를 통치하던 시기에 천주항의 대외무역은 최대로 발전했다. 사서에 그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외국의 선박이 많아 관세를 많이 거둘 수 있었으며 과도가 높고 바람이 불어도 손해를 입지 않아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에게 보물을 찾은 사나이리는 별명이 생겼다.²⁴⁾ 정명(貞明)6년(920) 그는 은밀히 바다를 통해 양나라에 조공하면서 천주 절도사의 자리를 원한다는 내용의 밀서를 보냈다.²⁵⁾ 이는 명주항이 대외 교류뿐만이 아니라 또한 당시 항해술의 수준을 알려주고 있다.

민국이 멸망한 후에도 천주와 장주는 송나라에 귀속되지 않다가 987년에서야 송나라에 정식으로 귀속되었다. 즉 반자립적인 천주는 유종(留從)과 진홍(陳洪)의 노력으로 해상무역은 계속 진행되었고, 해외 상인들도 여전히 천주를 찾았다. 이로 인해 천주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송 태조는 진홍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실은 남당 이욱(李煜)의 조서에서 증명할 수 있다. “泉州陳洪進遣使奉表曰：爲衆所推 因而總領州事 以誠控告听命於朝 觀其傾輸尤足嘉尙 但聞泉州昔嘗附麗 尤荷撫綏 然變許多端 屢移主帥 恐其地里遼遠 制御有所未遑.”²⁶⁾의 내용에서 ‘昔嘗附麗’라는 4글자는 천주가 송나라

23) 양극가(梁克家), 『淳熙三山志』 권33, 『寺觀類·僧寺』, p.480

24) 『泉州府志』 권40 『封爵』, p.2

25) (清)오임신(吳任臣), 『十國春秋』 閩一 “太祖世家” 참조.

26) 『宋史』 권483 『漳泉留氏』

에 귀속되기 전에 고려와 통상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상교통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주와 고려 사이에 교류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천주와 북방, 한반도 간의 해상교통은 오대 시기까지 계속되었다.²⁷⁾

셋째, 당나라 중기의 혼란 시기로부터 송나라가 사회, 정치, 문화를 통일하는 시기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클락은 이 시기를 ‘정권공백기’라고 부른다.²⁸⁾ 이 특별한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천주 상인들은 기존의 상업활동과는 달리 그들이 직접 국내의 여러 항구를 찾아 무역을 하거나 해외의 여러 나라에 찾아가 무역을 하는 상업 형태로 변화했다. 해외무역을 통해 천주의 경제는 발달했고 도시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은 수공업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중 도자기 산업이 통치자와 상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발전으로 인해 천주의 도자기와 금속은 오대 시기에 해외에서 판매되는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

당 중기 이전에 천주 지역의 도자기 산업은 초보적인 단계였다. 고고학적인 발굴로 당대 도요 유적이 약간 발견되었으나 도자기의 품질은 일반적이어서 현지 혹은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는 수준과 비슷하여 외부로 판매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외국의 상선이 조금씩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괴준(韓槐准) 선생은 동남아시아에서 당나라 묘와 안계요에서 만든 도자기와 비슷한 당나라 도자기를 발견했다. 당대에 천주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쌍계관(雙係罐), 사계관(四係罐)의 형태로 보르네오와 말레이 반도에서 모두 발견했다.²⁹⁾

27) (日)성전절남(成田節男), 장경휘(庄景輝) 편역, 『宋元時代泉州의發達與廣東의衰微』, 『海外交通史譯文集』, 廈門大學歷史係教學參考資料, 2000. p.127

28) H.R. 클락, 장혜령(張惠玲) 역, 『政權空白期間泉州의政權,宗教和經濟』, 『泉州文史』第10期.

현재까지 천주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당 말 오대 시기의 도요가 20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특히 하문 행림의 허조(許厓)과 상로(祥露)일대에서 도요 유적 8곳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당 오대 시기 복건에서 가장 도요가 모여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다.³⁰⁾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이 시기의 물품은 청색과 청록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만든 청자가 가장 많았고, 그 제작기술과 품질이 모두 상당한 수준이었다. 제작된 물품은 단지, 병, 그릇, 바리, 항아리, 공기 등이 많았다. 즉 천주 지역에서는 당 오대 시기의 도요들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생산량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양보다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물품은 아마도 해외로 판매되었을 것이다.

『청원유씨족보(淸源留氏族譜)』의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유종이 천주를 통치하던 시기에 이미 도자기, 동, 철이 해외로 판매되어 대금을 금(金)으로 받고 돌아오니 백성들은 매우 편리하다고 했다.³¹⁾ 비록 천주 도자기가 당나라 말기와 오대에 한반도와 일본에 판매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주 소량의 천주 도자기가 해외무역 활동과정에서 한반도나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필자가 당시 천주의 해외교통과 상호 간의 문화무역 교류적인 측면을 연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송 초기에 이르러 천주의 민간 상인들은 풍부한 항해경험과 고려 등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활동에 관한 경험이 누적되었다. 이는 절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고려사』에서 천주 상인의 이름이 자주 볼 수 있다. 즉 이런 것들은 천주와 고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29) 한괴준(韓槐準), 『南洋遺留의中國外銷陶瓷』, 싱가포르 青年書店, 1960.

30) 진연영(陳娟英), 『隋唐,五代閩南地區瓷業』, 『閩南古陶瓷研究』, 福建美術出版社, 2002. pp.88~96

31) 『淸源留氏族譜』, 留鄂公傳(手抄本) 참조.

II

북건 사람들은 역대로 해상에서 상업활동을 했다. 상인들은 여러 계층에서 많이 출현한 원인은 상품경제의 발달과 해외무역의 발전에 의한 영향 외에도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기에 사람들은 상업에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 해상무역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해상(海商)은 북건 상인을 대표하는 상인으로 천주 상인은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그들은 국내무역에서 광주, 강소, 절강, 산둥 등 연해지역과 국제무역에서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상업활동을 했고 북송 시기에 고려로 향하는 항로를 거의 독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식(蘇軾)은 조정에 올리는 상소에 “북건의 교활한 상인이 고려와의 통상을 독점하여 엄청난 이익이 있었다. 서전(徐戡)과 같은 이가 너무 많다.”라고 했다. 서전은 당시 고려와 해상무역을 하던 천주의 대표적인 상인이었다. 원우(元祐)4년(1089) 12월, 고려의 승통(僧統)인 의천(義天)이 제자 수개(壽介) 등과 천주 상인인 서전의 선박을 타고 항주에 도착하여 정원(淨源)의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난 후 소식은 “사신께서 해상으로 명주에 도착하셨으니 귀국하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요. 그러나 명주에 요즘은 고려로 가는 선박이 없습니다. 천주에 많은 선박들이 고려로 가서 물건을 판다고 들었습니다.”³²⁾라고 했다. 이로 볼 때 북송 초기에 천주와 명주는 고려와 많은 왕래가 있었고 천주가 더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2) 『東坡奏議』 권6, “論高麗進奉狀”,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참조.

송대 고려와 일본에서 무역활동을 하던 천주 상인

| 송나라 | 고려 | 천주 상인 | 참고자료 |
|------------------------|-----------------|---|---------|
| 진종(眞宗)상부(祥符)8년(1015) | 현종(顯宗)6년 윤6월 甲辰 | 천주 백성 구양징(歐陽徵)이 망명했다. | 『고려사』권4 |
| 진종 상부 9년(1016) | 현종7년 1월 丁卯 | 구양징이 좌우습유(左右拾遺)가 되었다. | 『고려사』권4 |
| 진종 친희(天禧) 원년(1017) | 현종8년 7월 辛丑 | 천주 백성 임인복(林仁福) 등 40여 명이 특산품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진종 친희3년(1019) | 현종10년 7월 己巳 | 천주 백성 진문궤(陳文軌) 등 백여 명이 특산품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진종 친희4년(1020) | 현종11년 2월 己酉 | 천주 백성 회지(懷贖) 등이 특산품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인종(仁宗) 천성(天聖) 원년(1023) | 현종14년 11월 丙申 | 천주 백성 진억(陳億)이 망명했다. | 『고려사』권5 |
| 인종 천성6년(1028) | 현종19년 9월 丙申 | 천주 백성 이선(李善) 등 30여 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인종 천성8년(1030) | 현종21년 7월 己巳 | 천주 백성 노준(盧遵) 등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인종 명도(明道) 2년(1033) | 덕종2년 8월 甲午朔 | 천주 상인 임애(林藪) 등 55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인종 경력(慶曆) 5년(1045) | 정종11년 5월 丙寅 | 천주 상인 임희(林禧)가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6 |
| 인종 황우(皇祐) 원년(1049) | 문종3년 8월 辛巳 | 천주 상인 왕이종(王易從) 등 62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인종 황우4년(1052) | 문종6년 9월 壬子 | 천주 상인 소종명(蕭宗明) 등 40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인종 가우(嘉祐) 3년(1058) | 문종12년 8월 己巳 | 천주 상인 황문경(黃文景) 등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인종 가우4년(1059) | 문종13년 8월 戊辰 | 천주 상인 황문경, 소종명, 장인 강조동(江朝東) 등이 귀국하여 했으나, 고려에서 소종명과 강조동 등 3명에서 머무를 것을 요구했다. | 『고려사』권8 |
| 인종 가우6년(1061) | 문종15년 3월 丙午 | 천주 상인 소종명이 권지합문(權知閣門)을 제수받았다. | 『고려사』권8 |
| 인종 가우8년(1063) | 문종17년 10월 庚午 | 천주 상인 임령(林寧)과 황문경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영종(英宗) 치평(治平) 원년(1064) | 문종18년 8월 甲午朔 | 천주 상인 임령이 보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신종(神宗) 희녕(熙寧) 원년(1068) | 문종22년 7월 辛巳 | 전운사 나승은 황신(黃愼)에게 천자의 뜻을 가지고 사절단으로 방문할 것을 명하여 고려에 도착한 황신은 왕悅관(王悅館)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다. | 『고려사』권8 |

| | | | |
|---------------------------|------------------------|---|------------------------|
| 신종 희녕원년 (1068) | 문종22年 7月 辛巳 | 천주 상인 임령 등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신종 희녕3년 (1070) | 문종24年 8月 己卯 | 송나라 관리 황신이 다시 방문했다. | 『고려사』권8 |
| 신종 희녕7년 (1074) | 문종28年 | 천주 상인이 부선(付旋)이 고려 예빈성에서 받은 첩지를 이용하여 예인을 고려로 데리고 갔다. |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권261 |
| 신종 희녕8년 (1075) | 문종29年 6月 丙辰 | 천주 상인 임령 등 35명은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9 |
| 철종(哲宗) 원우 (元祐)2년(1087) | 선종4年 3月 甲戌 | 천주 상인 서전 등 20명이 새롭게 화엄경을 조각한 목판본을 고려에 진상했다. | 『고려사』권10 |
| 철종 원우3년 (1088) | 선종5년 | 유재(劉載)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도착하여 재능을 인정받아 …… 여러 관직 생활을 하면서 관직이 높아져 사공상서우복야(司空尙書右仆射)에 이르렀다. | 『고려사』권10 |
| 철종 원우4년 (1089) | 선종6年10月 己酉 | 천주 상인 서성(徐成) 등 59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10 |
| 철종 원우5년 (1090) | 선종7年 3月 己巳 | 천주 상인 서성 등 150명이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10 |
| 고종(高宗) 건염 (建炎)2년(1228) | 인종(仁宗)6년, 의종(毅宗)15년 | 천주 상인 황열(柳悅)과 황사순(黃師舜)이 방문했다. |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권346 |

위의 표에 의하면³³⁾ 임령과 황문경을 동행했기에 임령을 천주 상인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고려에서 상업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

부선은 희녕8년에 고려 예빈성의 첩지를 가지고 귀국했다. 그렇다면 첩지를 받기 위해서 그는 먼저 고려에 갔을 것이다.

소식은 『논고려진봉식(論高麗進奉狀)』에서 서전을 ‘천주 백성’이라 했기에 그가 천주 상인임을 알 수 있다.

소식이 원우5년 8월에 작성한 『乞禁商旅過外國狀』에서 “천주 강수에 따르면 서성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하여 서성이 천주 상인임을 알 수 있다.

33) 진고화,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海商—兼論泉州市舶司的設置』, 『海文史研究』 참조.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북송 전기에 천주와 고려 간의 해상무역은 매우 빈번했다. 천주는 시박사가 설치(1087)되기 전에 많은 천주 상인들은 고려에서 무역활동을 했다. 이 시기는 송과 요(遼)가 대치하던 시기였기에 국가에서 상인들의 왕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천주 상인들은 개인적으로 고려와 무역을 계속 진행했다. 서궁(徐兢)은 “해도는 하북, 경동(京東), 회남, 양절, 광남, 복건 등 모두 가능했다.”라고 하여 송의 어느 곳에서나 고려로 향하는 항로가 있었다고 한다.³⁴⁾ 중국 내에 사서에는 이 방면에 관한 기록이 적고 『고려사』의 기록에 많은 편이다. 그래서 천주 상인들에 관해서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사』의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在135次來航의108名商人中只有26名有出身地 其他82名沒有注明出身地 只用「宋」「宋人」「宋商」「宋商客」「宋都綱」記錄了. …… 記有出身地的26人中 泉州商12名 是最多的”³⁵⁾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권3 등에 송나라 상인, 천주의 상인들의 이름을 볼 수 있다.³⁶⁾ 즉 이들 기재내용에서 당시 천주 상인들이 동북아에서 활약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당시 『고려사』에서 보이는 중국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려의 국왕이 직접 만나본 상인들만 기록한 것이다. 만약 국왕이 만나지 않았다면 중국의 상인이 오더라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때문이다. 『고려사』에서는 국왕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 것은 중국 상인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전부는 아니다. 즉 천주 상인을 포함한 많은 중국 상인들이 고려에 왔지만 『고려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송과 요, 송과 금이 대치하는 형세에서 고려에 가는 일부의 중국 상인들은 송과 고려와의 관계, 혹은 정치적

34) 서궁(徐兢),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권3

35) 박옥걸(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韓國傳統文化·歷史卷』, 學苑出版社, 2000

36) 박옥걸,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중의 주석 부분 참조.

인 사안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려 정부의 증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려 국왕이 그들을 친히 만나는 것이다.”³⁷⁾라고 설명한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천주 상인들이 고려에 진상한 토산물이나 특산물이 어떤 것인지 수량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알 수 없다. 『일본기략(日本紀略)』과 『백련초(百鍊抄)』의 기록에 의하면 북송 상인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은 본국에서 가져온 공작, 양, 거위, 앵무새 등 진귀한 동물과 약재를 진상하고, 때로는 서적을 일본의 통치자에게 진상하기도 한다.”³⁸⁾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천주 상인이 고려 국왕께 진상한 것은 비단, 서적 등 외에 동남아와 아라비아에서 들여온 향료, 약재 등이 진상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상선에서 도자기를 적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천주 상인은 고려에서 단지 상업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원풍(元豊)2년(1079) 송 정부는 고려와의 통상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한 후 천주 상인을 공개적으로 고려에서 무역활동을 했고 고려 정부는 천주 상인을 매우 환영했다. 『송사(宋史)』에 “도성에 중국인이 수백 명이 있었다. 대부분은 민인(閩人)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 왔다. 그들의 능력을 살펴 관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강제로 일생 동안 머무르게도 했다.”³⁹⁾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민인(閩人)은 대다수가 천주출신이다. 그중 일부가 어떤 원인으로 고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못했다.⁴⁰⁾ 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고려

37) 진고화, 『元朝與高麗의海上交通』, 『中國與海上絲綢之路』(下冊), 황관중(黃寬重), 『南宋與高麗的關係』, 『高麗與宋金關係』, 『南宋史論集』, 臺灣新文豐出版公司, 1985. 참조.

38) 목궁태인(木宮泰彦), 호석년(胡錫年) 역, 『日中文化交流史』, 商務印書館, 1980. pp.246~247

39) 『송사』권487, 고려전, 中華書局, 1977年. p.14053 『속자치통감장편』권273, p.2577

40) 상업활동 외에 당시 중국인들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도착하여 관직을 구하기도 했다. 천주출신 구양징(歐陽徵)은 1015년에 송나라를 버리고 고려로 갔다. 그 다음해

의 시장에서 상품을 팔거나 중개상을 하며 생활했다. 이런 중개상은 가장 먼저 항해활동 과정에서 나누어졌다. 이들은 점차 단순한 상업만을 위한 중간 상인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해상무역에서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항해를 시작하면 적재한 화물을 다음 항구까지 운송하고 이 물품들은 창고로 가거나 교역장소로 이동된다.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때때로 항해시간의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왕복 한 번에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상품판매와 자금회수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다. 해상무역의 발전과 송 정부의 지지로 상인들은 더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하게 되었고 선박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하여 항해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배에서 내리는 상인도 점차 출현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상인 역시 나타났다. 사서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당시 천주 상인은 고려에 현지의 중국시장을 만들었고 상품을 그곳에 보관하기도 하여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상업 거점으로 이용했다. 고려 수도에서 이렇게 장기 거주하는 이들이 천주의 중간상이고, 이들은 일본과의 무역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남송 시기는 금나라와 전쟁으로 절반의 강산을 잃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에서 걷는 부세는 북송에 비해 감소하게 되었고, 군비 등 지출은 북송 시기보다 증가했기에 해외무역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천주는 남송 초기에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이는 당시 송과 금

그는 고려 정부로부터 좌우승유(左右拾遺)를 제수받았다. 1059년 천주 상인 소종명(蕭宗明)과 황문경(黃文景)은 같이 고려로 갔다. 그들이 귀국할 때 ‘권지각문순지후(權知閣門舜祗候)’의 자리를 권유받았다. 고려 선종(宣宗)5년(1088)에 천주 출신의 유재(劉載)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도착했다. 문장의 뛰어난 것으로 인해 천우위록사참군(千牛衛錄事參軍)을 제수받았다. 예종(睿宗) 시기에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을 역임했고 이부와 예부상서를 지냈다. 13년 후 사공상서우복야(司空尙書右仆射)를 지내다가 사망했다. 그는 문재가 뛰어났고 성품이 소박하여 상업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비록 그가 상인들과 함께 고려에 왔지만 스스로 명성을 생기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 많은 혼담이 있었다.

간의 전쟁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송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남쪽으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강소의 항구에서 해외무역은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무역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건도(乾道)2년(1166) 강소 지역의 무역 현황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이 지역의 시박사를 폐지하게 되었다.⁴¹⁾ 또한 감포(澗浦), 강음(江陰), 온주(溫州), 수주(溫州) 등의 지역에 상선의 출입을 금지하여 항주, 강음, 온주, 수주의 시박사를 모두 폐지했다. 중국으로 오는 고려, 일본 등 여러 나라는 경원항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원항 관리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 상선이 오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⁴²⁾

둘째, 지리적인 조건, 정치적인 변화 등으로 천주는 송나라와 금나라간의 전쟁 과정에서도 남송 통치자가 안전할 수 있었다. 또한 천주의 해상무역의 발전은 남송 통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즉 ① 천주는 전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항구가 파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상무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② 남송 시기 수도가 남쪽으로 천도하면서 북송 시기에 비해 정치, 경제 중심이 남쪽으로 이동되었다. 특히 해상무역으로 많은 고급 소비재가 판매되면서 천주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③ 남송 시기에 많은 상류층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복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천주와 복주에 많은 사대부가 몰리면서⁴³⁾ 문화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④ 천주는 해상무역이 발전하면서 경유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소, 절강 지역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천주를 경유해야만 했다. 이런

41) 『宋會要輯稿』「職官」44 참조.

42) 『寶慶四明志』「郡志」6 “市舶” 참조.

43) 『宋會要輯稿』「刑法」2 참조.

상황에서 천주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진귀한 보물들도 천주에 모이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남송은 고려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쌍방이 무역에 종사하면서 민간 교류는 계속되었다.

III

천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 중 하나는 천주에서 출발하여 명주에 도착한 후 동지나해를 건너 치하도(值嘉島, 지금의 오도열도)에 도달하고 다시 하까다(博多, 지금 큐슈의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항로가 있다. 명주에서 하까다까지의 항로는 여름철에 계절풍과 해류를 이용하면 5~7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 1997년 중국과 한국의 모험가들은 영파항 주가첨(朱家尖)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제주도까지 항해를 성공했다. 이는 고대의 항로를 증명하는 중요한 실험이었다.⁴⁴⁾ 동지나해를 건너는 항로 외에 고려로 향하는 항로가 있다. 이 항로는 천주를 출발하여 명주에 도착한 후 보타산(普陀山), 봉래산(蓬萊山, 지금의 대거산)을 지나 백수양(白水洋, 지금의 장강 하구의 남쪽과 전당강 하구의 북쪽)에 진입하게 된다. 황수양(黃水洋, 회수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지난 후 흑수양(黑水洋, 강소의 동쪽과 산동반도의 남쪽)을 통과하여 협계산(夾界山, 지금의 흑산도)에 오서(五嶼, 지금 대흑산도의 부속도서), 배도(排島), 백산(白山, 지금의蕎麥島), 흑산(黑山, 대흑산도), 월서(月嶼, 지금의 증도) 등 여러 섬

44) 김건인, 『中韓海上交往史探源』, 學苑出版社, 2001

들을 경유하여 북상하면 예성강(禮成江)의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⁴⁵⁾ 고려의 여러 항구에서 무역활동을 마치고 다시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제주해협을 지나 동쪽으로 향하면 대마도, 이키(壹岐), 하카다에 도착하게 된다. 상선이 고려를 대마도를 경유하는 이유는 이 항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활동의 필요에 따라 천주 상인들은 고려를 중간 경유지로 삼으면 교역 과정에서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송대 도자기는 해상무역에 있어서 가장 이윤이 많은 상품이기에 상인들은 도자기가 쌓여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다. 주옥(朱彧)은 “부자들은 비단, 도자기 등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 상품을 함부로 팔지 않고 상품을 찾은 상인들의 소식을 들은 후 판매하니 어찌 다섯 배의 이익뿐이겠는가?”⁴⁶⁾라고 이 시기의 상황을 묘사했다. 송대는 동전이 대량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비단이나 도자기를 화폐로 대용하기도 했다.⁴⁷⁾ 송대 도자기는 끊임없이 해외로 판매되었다. 선박의 높이와 폭이 10m가 넘었기에 상인들은 나누어 상품을 적재했다. 즉 선박의 크기에 따라 상인들의 규모가 결정되었고 상품을 적재한 후 그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적재된 물품의 대부분은 도자기였기에 크기에 촘촘하게 적재했기에 남는 공간이 없었다.⁴⁸⁾ 이는 당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적재함으로써 수송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늘어날 수 있었다. 북송 이래 선박에서는 안전을 위해 사용했던 선박의 무게를 늘이는 물품들이 있었다. 이런 물품 중에 도자기도 그중 하나였다. 이 물품들은 항해

45) 서궁, 『선화출사고려도경』 참조.

46) 주옥(朱彧), 『평주가담(萍洲可談)』 권2

47) 영종(寧宗) 가정(嘉定) 12년(1219年) “以金銀博買, 洩之遠夷爲可惜. 乃命有司以絹帛, 錦綺, 瓷漆之屬博易, 聽其來之多寡, 若不至則任之, 不必以爲重也.” 『송사』 권185, 중화서국, 1977. p.4538

48) 주옥, 『평주가담』 권2

시에 선박의 전복을 막는 역할을 하며 도착지에서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는 송대 천주 도자기가 해외로 많이 판매되는 상황을 근거로 본다면 천주 상인이 동북아에서 무역을 할 때 상품 혹은 선박의 안전에 관련된 도자기가 많았을 것이고 고려에 도착해서는 일부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동북아에서 천주 도자기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지역은 일본이지만 일본으로 가는 항로는 고려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고려의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소수의 도자기가 고려에서도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많은 유적에서 송대 천주 도자기가 발견되었기에 당시 일본은 천주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했다는 사실과 천주 상인들이 일본에 자주 왕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대 천주에서 도자기산업은 매우 발전했다. 많은 도요가 출현하고 생산된 물품의 수량이 증가한 것 외에도 제작기술의 수준 역시 최고로 발달했다. 근래의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를 살펴보면 천주 부근지역에서 발견된 송대 도요는 100여 곳 이상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많다. 유명한 도요는 동안(同安) 정계요(汀溪窯), 덕화(德化) 개덕요(盖德窯), 천주 동문요(東門窯), 진강(晉江) 자조요(磁灶窯), 안계(安溪) 계요요(桂嶠窯) 등이 있다. 이들 도요 유적에서 발견된 것들은 사발, 병, 작은 그릇, 향아리, 잔, 대야 등으로 모두 겉면에 장식되어 있다. 즉 이 유물들은 다양한 종류, 아름다운 모양, 다양한 색채가 있었고 특히 색채는 청색, 옅은 청색, 백색, 흑색, 녹색, 노란색 등이 있다. 도자기의 장식은 각 종 식물, 용, 봉황 등 다양하며 모두 아름답다. 천주 도자기의 장식은 화려하여 천주항의 무역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었다. 『제번지』의 내용에 의하면 송대 천주에서 수출되는 도자기는 청자, 백자, 청백자 등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되었다. 특이한 사실은 천주와 부근지

역에서 만든 도자기는 국내에서는 유통되는 수량이 매우 적었고 오히려 일본과 동남아에서 많이 발견된다. 즉 천주와 부근지역의 도요에서 만든 도자기는 목적이 수출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1. 한반도에서 발견된 송대 천주 동안현 청자

1982년에 출판된 『중국도자사(中國陶瓷史)』에서 “193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기는 유명한 도요에서 만든 것들이 있다. 정식 발굴을 거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황해도 해주(海州)의 용매도(龍媒島), 개성 부근, 강원도 춘천 등 지역에서 송대 도자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출토된 도자기 중에 꽃무늬 장식이 있는 청자가 발견되었다.⁴⁹⁾ 한국 신안의 바다에서 수중고고학의 조사로 다량의 송원 시대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이 유물 중에 청자는 만여 점이 발견되었고 그중에 동안요에서 만든 청자가 있고 덕화의 도요에서 출토된 도자기 유물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도자기가 신안 유물 중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신안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덕화의 도요에서 만든 것도 있었다.⁵⁰⁾

그러나 양국의 고고자료 교류의 문제로 현재까지 송대 천주 지역의 여러 도요에서 만든 도자기가 한반도에서는 많지 않다. 이런 현상에 관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월주 도요와 용천도요에서 만든 도자기의 품질이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제작한 도자기보다 품질이 우수했다. 때문에 고려에서도 역시 오랫동안 월주도요와 용천도요에서 만든 도자기를 애용했다. 즉 중국에서 해외로 판매되는 도자기 중에 절강 지역의 도자기가 고려에서 절대적인 우위

49) 중국규산염학회(中國硅酸鹽學會) 편, 『中國陶瓷史』, 文物出版社, 1982. p.311

50) 서본장(徐本章)·섭문정(葉文程), 『德化瓷史與德化窯』, 華星出版社, 1993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9세기 이래 한반도에서 도요를 만들고 중국의 청자를 모방하여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한반도에서 도자기 산업은 발전하여 12세기에 고려에서 만든 청자가 최고로 발달하여 중국에서 만든 청자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뛰어났다. 이로 인해 고려 청자는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송대 상류층에서는 고려 청자를 애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천주 도자기가 한반도에서 판매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못했다. 조여팔(趙汝适)이 저술한 『제비문지』의 ‘新羅國’에 관련된 내용에 “건본문자(建本文字)를 적은 오색의 천을 단상선이 교역했다.”⁵¹⁾라는 기사가 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도자기가 교역 상품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반도의 도자기가 중국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소량이지만 천주 도자기가 한반도에서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록 송대의 천주와 고려 간의 도자기 무역은 제한적이지만 천주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대량으로 도자기를 수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큐슈 북쪽 일대는 천주 도자기가 주로 출토되는 지역이다. 즉 당시 일부 천주 상인들은 기존의 항로인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에 도착했다. 이 이유는 항로가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를 경유하면서 약간의 무역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안에서 발견된 선박의 위치로 볼 때 이 선박은 일본으로 가는 선박으로 고려를 경유하여 무역을 했을 것이다. 침몰한 선박에서 고려의 제품은 3점의 고려 청자, 구리로 만든 젓가락, 열쇠, 향아리, 거울이 발견되었다.⁵²⁾ 고려와 일본은 바다만 건너면 지리적으로는 가깝고 고려 수도에는 많은 복건 상인들이 있었다. 즉 종합해보면 고려는 실제적으로 천주와 일본 사이에 중요한 경유지라고 할 수 있다.

51) 양박문, 『諸蕃志校釋』상권 “新羅國”, 중화서국, 1996

52) 강정(江靜), 「再談新安沉船」, 『海交史研究』, 2004. 2. 참조.

2. 중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천주 지역의 도자기 무역

송대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는 비록 명주였지만 천주 역시 일본과 관련이 있었다. 천주 상인 중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충(李充)이다. 그는 일본과의 무역만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었다. 『조야군재(朝野群載)』의 내용에 의하면 이충은 휘종(徽宗) 송녕(崇寧) 원년(1102)에서 4년(1105)까지 두 차례를 모두 천주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무역을 하고 돌아왔다. 송녕4년 명주 시박사에서는 이충에게 공인증을 발급하여 비단 외에 사발 200상(床), 접시 100상(床)이라는 수량을 기록했다. ‘상(床)’은 천주에서 일정한 수량의 도자기를 포장한 단위이다. 도자기를 포장한 단위는 ‘지(支)’, ‘광(筐)’, ‘상(床)’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床)’이 수량이 가장 많았다. 이충이 가지고 선적한 도자기는 모두 천주에서 생산한 것이다. 만일 당시에 1상을 200점으로 계산한다면 이충이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선적한 사발은 40,000점, 접시는 20,000점이다.⁵³⁾

20세기 초에 일본 연안 지대에서 많은 중국 도자기가 발견되었다. 즉 천주 도자기는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대부분은 동안요, 덕화요, 자조요 등에서 만든 도자기였다.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출판한 『일본출토적중국자기(日本出土的中國瓷器)』는 일본 각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여 기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주에서 만든 도자기가 많다.

53) 필자는 유난화(劉蘭華) 선생의 『宋代陶瓷與對日貿易』 논문에서 “고대 천주 도자기의 포장방법은 짚으로 포장하는 방법과 대나무로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포장하는 단위는 ‘지(支)’, ‘광(筐)’, ‘상(床)’이 있다. ‘광(筐)’은 ‘지(支)’의 두 배이고 ‘상(床)’은 ‘광(筐)’의 두 배이다. 이런 포장 단위는 국내외의 수중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포장과 배열된 방식을 재현한 것이다.”라고 했다.(유난화, 『宋代陶瓷與對日貿易』, 『中國古陶瓷研究』第5輯 참조)

천주 동안요 청자

동안요는 동안현 정계에 있어 ‘정계요’라고 부르며 송대 천주에서 외부로 판매된 도자기를 만든 도요 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송대 도요 유적 13곳이 발견되었고 유적에서 발견된 파손품을 연결하면 3Km 정도로 유명한 도요이다. 이곳의 도자기는 주로 밝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후에 청황색의 도자기를 주로 만들었다. 이밖에 청색, 청백, 밝은 회색, 어두운 청색 등의 색채가 있는 도자기도 있다. 이곳 도자기의 특징은 도자기의 안쪽에 꽃무늬를 그렸고, 겉면에는 줄무늬가 있고 황갈색으로 명암을 표시했다. 이 도자기는 주로 일본과 필리핀에서 판매되었다. 일본학자가 가장 처음 전문적으로 감정하여 ‘주광완(珠光碗)’ 혹은 ‘주광청자(珠光靑瓷)’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는 일본에서 차를 처음 마시기 시작한 주광(珠光)대사가 이런 종류의 도자기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⁵⁴⁾ 남송 초기에 정계요는 최고로 발달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도자기 중에 가장 많았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많은 유적에서 발견되는 도자기가 정계요에서 만든 것이다. 이밖에 동안요에서 만든 청자도 발견되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북진 동안 청자가 외부로 판매되는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⁵⁵⁾고 주장한다. 동시대의 당진(唐津) 산악(山麓) 유지에서도 동안 청자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도자기는 대부분이 사발과 접시 종류이고 비록 파편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파편에서도 줄무늬는 분명히 보인다.(그림 4참조) 또한 태재부(太宰府) 부근, 후쿠오카 해저, 복산초호장(福山草戸莊) 등 가마쿠라 시대의 유적에서 줄무늬가 분명한 황갈색의 도자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⁵⁶⁾ 일본의 민간이나 사찰에서 전해지는

54) 이병휘(李輝柄), 『福建同安窯調査紀略』, 『文物』 1974. 11.

55) 지기양이(池崎讓二)·삼목조자(森本朝子), 『跨越大海の陶瓷器』, 『復活の中世』, 平凡社

56) 임충간(林忠干) 등, 『閩北宋元瓷器的生産與外銷』, 『海交史研究』, 1987. 2.

청자 소장품들과 일본 국내에서 발견되는 도자기들은 대부분 동안요에서 만든 것이다. 큐슈의 후쿠오카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도자기 10만여 점이 발견되었다. 그중에 동안요에서 만든 줄무늬 청자도 있었다.⁵⁷⁾ 통계에 의하면 일본 전국의 2,607곳의 유적을 조사한 결과 12세기에는 용천요의 도자가 많았지만 13세기에는 동안요의 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다.⁵⁸⁾ 이는 동안요에서 만든 청자가 가마쿠라 시대, 즉 중국에서는 남송 시기에 대량으로 일본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줄무늬 청자에 관해 1956년 진만리(陳萬里) 선생은 복건 남부 일대의 옛 도요 유적을 조사하면서 동안요, 즉 주광 청자의 생산지역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지금까지 복건성 68개 현 중에 45개의 현에서 송원 시기 청자 도요가 발견되었다. 이들 도요에서는 줄무늬로 장식한 사발, 접시 등을 주로 만들었고 그중에서 사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청자 도요와 도자기에 관한 연구는 가장 먼저 동안 정계요의 발굴로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도자기에 관련된 서적들에서 ‘동안 계열 청자’가 항상 대표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이었다.⁵⁹⁾ 동안 부근의 안계요와 남안요에서 만들어진 청자는 정계요에서 만든 청자와 비슷하다. 천주만 후저항에서 침몰된 선박이 발견되었다. 이 선박에서 발견된 유물과 외국 유적에서 발굴된 결과로 볼 때 동안 계열의 도자가 가장 많이 해외에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 덕화요

송대에 덕화요에서 만든 도자가 일본의 많은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헤이안(平安) 시대에서 가마쿠라 시대까지의 유적을 발굴하면

57) 섭문정(葉文程)·임충간(林忠干), 『福建陶瓷』, 福建人民出版社, 1993. p.313

58) 유난화, 『宋代陶瓷與對日貿易』, 『中國古陶瓷研究』第5輯

59) 부송량(傅宋良)·임원평(林元平), 『中國古陶瓷標本-福建汀溪窯』, 嶺南美術出版社, 2002

서 덕화요에서 만든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발견된 덕화요의 도자기에는 상자가 가장 많았고 한 유적에서 몇 개가 동시에 출토된 경우도 있었다. 상자의 크기는 다양했으며 대부분은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림10) 상자의 표면에는 화초, 작은 꽃, 칠보, 쌍봉 등의 무늬가 있는데, 이런 무늬는 틀을 눌러 모양을 낸 것이다. 동경 국립박물관, 사세보(佐世保) 문화과학관, 어산신사(御山神社), 시복사(施福寺) 등 여러 지역에서 송대의 백자로 만든 상자가 보존되고 있다. 이 상자들은 모두 덕화에서 만든 상자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이는 아마도 덕화요에서 만든 도자기가 일본에서 판매된 것이다.⁶⁰⁾ 이런 백자 상자가 출토된 지역은 나가사키(長崎縣), 사가현(佐賀縣), 에히메현(愛媛縣), 도쿠시마시(德島市), 아마구치현(山口縣), 오오사카부(大阪府), 교토시(京都市),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시즈오카현(靜岡縣), 나가노현(長野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들은 일부에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일본의 각 지역이기에 백자 상자는 당시에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백자 상자가 출토된 지역에서는 작은 병, 작은 덮개가 있는 병, 작은 접시, 향로, 사발, 꽃무늬가 있는 작은 접시, 매화 무늬가 있는 병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었다.(그림5 참조) 이런 백자들 중에 청백색(청색으로 장식) 도자기도 있다.⁶¹⁾(그림6 참조) 색채와 모양으로 볼 때 송원 시기에 덕화요에서 만든 도자기와 매우 비슷하다. 일본 중부지역에서 덕화 개덕요에서 만든 청백꽃무늬 대상자, 사자모양의 청백 도자기, 청백의 작은 병 등이 발견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청백채인화대합자(靑白釉印花大盒子), 청백자사자(靑白瓷獅子), 청백자소병(靑白瓷小瓶) 등이 발견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백자로

60) 동경국립박물관 1975년(東京國立博物館 1975年)편, 『日本出土の中國古陶瓷特別展覽』 참조.

61) 동경국립박물관 1975년 편, 『日本出土の中國古陶瓷特別展覽』 참조.

만든 인물조각, 작은 병, 청백자백합화구병(靑白瓷百合花口瓶), 청자 연지어조문접(靑瓷蓮池魚藻紋碟) 등이 발견되었다.⁶²⁾ 송대 덕화요의 백자는 견고하고 광택이 있으며 색채는 백색 혹은 청색으로 유약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지금까지 덕화현에서 발견된 송대 도요 유적은 40여 곳이다.(그림9 참조)

천주 진강 자조요

자조는 천주 진강 하류에 있어 선박을 이용하면 진강을 통해 곧장 천주만으로 갈 수 있다. 남조에서 시작된 도자기는 지금까지 천여 년이 지났지만 이곳의 도자기 제작은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자기 생산지의 출현, 발전, 변화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례가 되는 곳이다. 지금까지 당 오대의 도요 유적은 7곳, 송원 시기의 도요 유적은 12곳이 발견되었다.

일본 각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는 송대 도자기 중에 자조요에서 만든 도자기도 있다. 『일본출토적중국도자특별전(日本出土的中國陶瓷特別展覽)』에 따르면 후쿠오카 서구(西區)의 전조경총(田島經塚), 후쿠오카 축시군(築柴郡) 태재부(太宰府) 정오조(町五條) 유적, 나가노의 반전시(飯田市) 중촌경총(中村經塚)에서 자조 동자산(童子山) 1호 도요에서 만든 황액철회문반(黃釉鐵繪紋盤)(그림12 참조)이 발견되었다.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에서도 자조 토미암요(土尾庵窯)에서 만든 녹유병(綠釉瓶)이 출토되었다.(그림11 참조) 이 밖에 지주산요(蜘蛛山窯)에서 만든 녹색유약으로 무늬를 꾸민 그릇, 녹색유약과 황색 유약을 같이 그릇 등이 일본 전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그림 7 참조) 이미 작고한 일본 동양 도자학회 회장 삼상차남(三上次男) 교수는 1981년 4월 천주 해외교통사 박물관에서 거행한 학술회의에서 “중국 도자기는 일본의 헤이안, 가마쿠라 시기에 전래되었다. 도

62) 관정용부(坂井隆夫), 『貿易古陶瓷概要』, 京都書院, 1989. 9

자기를 적재한 중국의 상선이 일본에 도착하면 귀족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중국 도자기를 구매했다. 10~12세기에 천주 많은 상인들이 도자기를 적재하고 일본으로 왔다. 천주 상인 진문우(陳文祐)는 이 시기에 도자기를 가지고 일본으로 왔고, 그 외에도 많은 중국의 상인들이 있었다. …… 그들이 가져온 도자기는 대부분 가마쿠라에 모이고, 이곳에 모인 중국 도자기는 대략 5만여 점이 넘는다. ……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송대 청합자(靑盒子)는 경덕진(景德鎮)에서 만든 것도 있고 덕화요에서 만든 것도 있다. 진강 토미암요의 녹유자기는 일본 도처에서 발견되고 특히 요코하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진강 동자산요의 채회도분(彩繪陶盆)은 큐슈에서 많이 발견되고 교토에서도 발견되었다.”⁶³⁾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의 후쿠오카, 나가노 등 지역에서 황유철회화문대반(黃釉鐵繪花紋大盤)이 출토되었다. 이 큰 접시는 청색유약과 황색유약을 같이 사용했고 흑색의 무늬를 그려 넣었다. 과거 일본학자들은 정확한 실물을 본적이 없어서 ‘회고려(繪高麗)’라고 부르고 고려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자기의 형태, 색채, 그려진 무늬의 색깔 등이 진강 자조 동자산요에서 출토된 도자기와 매우 비슷하다. 때문에 이 황유철회화문분은 자조 동자산요에서 만든 것이 확실하다.⁶⁴⁾(사진 참조)

지금까지 천주 지역에서 발견된 도요 유적은 대부분 송원 시기의 유적으로 다른 복건 남부의 도요 유적과 비슷하다. 이곳에서 만든 도자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판매되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 대부분 거래되었다. 현재 이들 국가의 육상과 해저에서 가끔 천주 지역의 도자기가 발견된다. 이는 천주가 송원 시기에 ‘동방제일항(東方第一港)’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63) 하진량(何振良)·임덕민(林德民), 『中國古代名瓷鑑賞大係-磁量窯瓷』, 福建美術出版社, 2002. pp.133~134

64) 섭문정·임충간, 『福建陶瓷』, 福建人民出版社, 1993

소결

본문에서는 당송 시기 천주와 동북아시아의 해상교통을 중심으로 각 시기의 도자기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 말기 전까지 천주와 신라 사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해상교류가 있었고 천주는 아라비아와 동북아 국가들의 상품이 교류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둘째, 천주는 북건에서 중요한 항구로 오대 시기에 자연적인 지리 환경과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외무역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사료와 현재 남아 있는 유적에서 천주는 신라, 고려 사이에 경제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일부의 사료에서 북송 시기 천주 사람들은 고려에 자주 왕래한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천주의 해외무역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당시 송나라와 고려 간의 관계 연구에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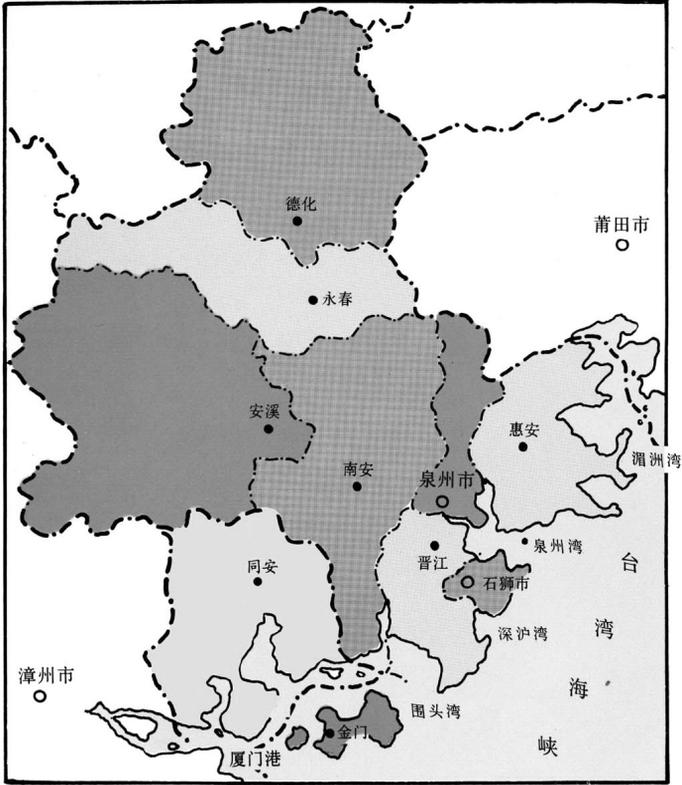
넷째, 천주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무역항구이다. 또한 한반도 역시 해상 실크로드의 무역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일본에서 발견된 유물과 현재까지 전해진 많은 천주 도자기는 송대 천주가 동북아의 해산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이 천주 도자기들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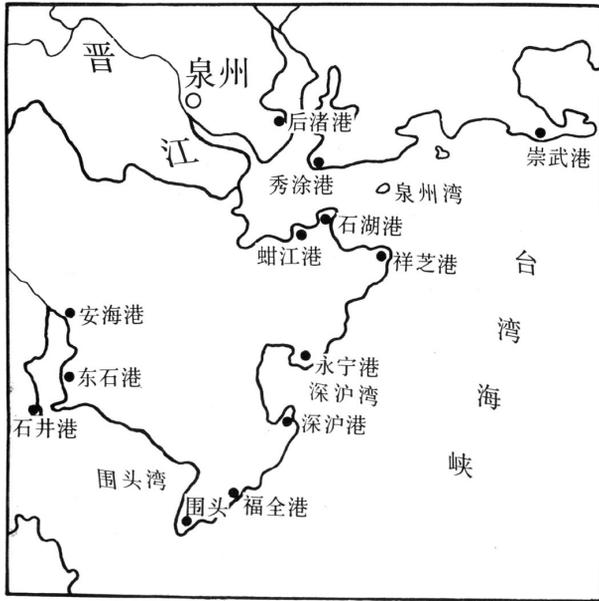
여섯째, 사료에 의하면 북송 시기 수백 명 특히 북건출신의 사람들이 고려 수도에서 장기간 거주했다. 그중에는 고려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사망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후예로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면 고대 북건 사람들의 이민과 그 후예들에 관한 흔적이 남

아 있는가? 천주 사람들은 해신 마조(媽祖)⁶⁵⁾를 믿었다. 특히 파도를 넘는 뱃사람에게 마조는 민간신앙에서도 유명하다. 이런 민간신앙과 민간의 풍속이 고려로 전해졌는가? (마조에 대해 선화(宣和)5년(1123) 노윤적(路允迪)이 사신으로 복건에서 출발하여 고려로 향했다. 그는 선박의 중앙에 마조상(媽祖像)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마조상은 해상에서 위험이 생기면 마조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노윤적은 귀국한 후에 봉래에 순제묘(順濟廟)를 만들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등등. 이런 방면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면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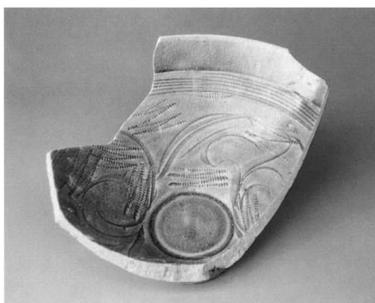
65) 구준(丘濬), 『丘文壯公集』권5, ‘천비궁비(天妃宮碑)’에서 “宋宣和中 朝遣使於句麗 挾閩商以往 中流適有風濤之變 因商言之 賴神以免 使者路允迪以聞 於是中朝始知莆之湄洲嶼之神之著靈驗於海也”



(그림1) 송대(宋代) 천주(泉州) 구역도(區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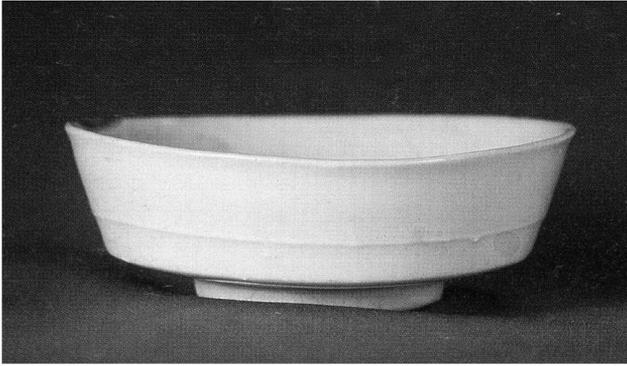
(그림2) 천주 삼만(三灣, 천주만(泉州灣), 심호만(深滬灣), 위두만(圍頭灣))과 12항(송무(崇武), 후저(後渚), 수도(秀涂, 간강(蚶江), 석호(石湖), 상지(祥芝), 영령(永寧), 심호(深滬, 복전(福田), 동석(東石), 안해(安海), 석호(石井)의 분포도(分布圖)



(그림4) 송(宋) 청유각화비문완(靑釉刻花篋)



(그림5) 덕화요(德化窯) 청백유인화고족배(靑白釉印花高足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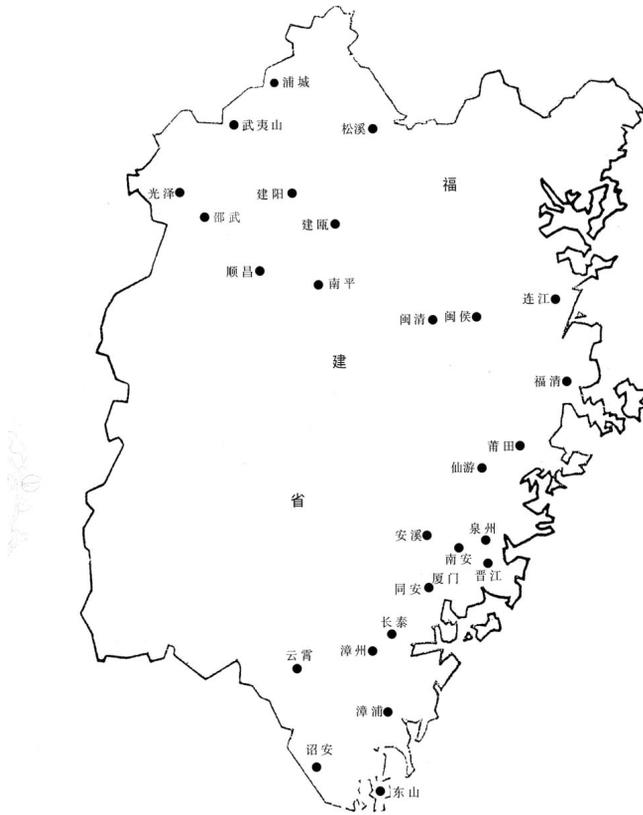
(그림6) 덕화(德化) 청백유현문완(靑白釉弦紋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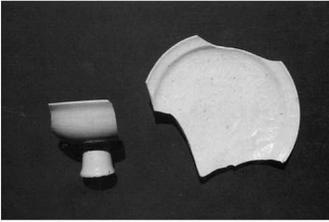
(그림) 일본 천주 도자(陶瓷)가 출토된 주요 구역



(그림8) 일본에서 출토된 동안요(同安窯)
 청자각화완편(靑瓷刻花碗片, 꽃무늬가 새겨진 청자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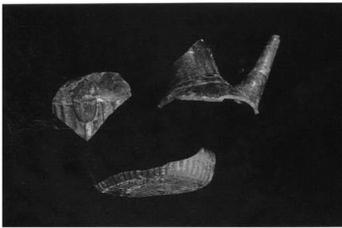


(그림9) 천주 동안 정계요(汀溪窯)와 같은 유형의 도요 유적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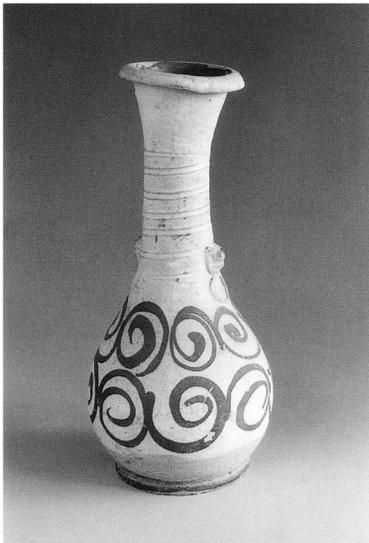


(그림10) 상: 송 덕화(德化) 분합(粉盒),

하: 일본에 출토된 덕화요(德化窯) 청백자(靑白瓷)의 다양한 형태의 파편



(그림11) 상: 일본에서 출토된 자조요자기



(그림12) 상: 자조요에서 출토된 철회권문병(鐵繪卷紋瓶)
하: 일본에서 출토된 황유철회화훼문완(黃釉鐵繪花卉紋碗)

고대 천주와 신라고려의 해상교류 및
문물사적 고찰

섭은진(葉恩典)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고대 천주(泉州)가 언제부터 한반도의 신라국, 고려국과 해상교류 관계를 맺었는지 정확하게 고찰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알려진 자료에 근거해보면 양쪽지역의 교류관계는 당나라 때 이미 시작하였고, 북송 시대에 그 최고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송 시대의 천주 해상(海商)은 고려와 활발했던 교류 경험을 살려 송과 고려의 해상교류사에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천주 지역에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촌락 명칭, 문화 유적, 식물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당송 시대 천주와 신라·고려 양국 우호 교류의 역사적 흔적을 말해준다. 이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커다란 가치를 부여했다.

본 연구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한 부분은 고대 천주와 신라·고려 해상교류사의 간단한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천주 지역에서 보이는 신라촌, 신라사, 고려조(高麗厝), 북청사(福淸寺), 신라송(新羅松), 고려채(高麗菜) 등에 대한 조사와 고증 작업이다.

제일부분 고대 천주와 신라·고려의 해상교류

1. 당·오대 시기 신라와의 교류

천주는 중국 동남 연해안 지구에 소재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에 접해 있어 항구와 지리적 조건이 매우 뛰어났다. 해선(海船)으로는 위쪽으로 강절(江浙), 등래(登萊), 그리고 신라, 일본까지 갈 수 있

고, 아래쪽으로 광남(廣南, 광동을 지칭함)과 동남아 제국으로 갈 수 있다. 당나라 이전에도 천주와 외국 사이에 해상교통 왕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대략 남북조 시대 진(陳) 무제(武帝) 영정(永定)2년에서 진 문제(文帝) 천가(天嘉)3년(558~562) 사이에 구나라타(拘那羅陀, 일명 眞諦)라는 인도 고승이 있었다. 그는 선박을 타고 진안(晋安, 오늘날 福州)에서 당시 양안군(梁安郡, 오늘날 南安郡, 치소는 현 泉州市 南安市 豐州鎮에 소재)으로 들어와 군(郡) 치소에서 1km 떨어진 구일산(九日山) 연복사(延福寺, 민남 지역에서 가장 오랜 사찰이다. 서진(西晉) 태강(太康)9년(288)에 건립됨)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불도를 강독하고 『금강경(金剛經)』을 번역했다. 이 이후 그는 구일산에서 큰 선박을 타고 능가수국(楞加修國, 지금의 말레이 반도)으로 갔다.¹⁾ 당 무덕(武德)연간(618~626)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네 제자가 중국에 들어와 선교를 하였는데 ‘이 중 한 명은 광주(廣州) 다른 한 명은 양주(揚州)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천주에서 활동하다가 장령산(葬靈山)에서 사망했다’²⁾ 이들의 무덤은 지금의 천주 서부근교에 남아 있다.

천보10년(751)에 당나라 장군 고선지(高仙芝, 고구려 후예임)가 달라사(怛羅斯) 전투에서 패하자, 당나라는 중동아시아로 통하는 육상 실크로드가 대식국(大食國)에 의해 통제되어 단절되었다. 이 이후로 당나라 조정은 외국과 경제무역을 경영하는 데 노력하였고, 아울러 항해 무역을 통해 다량의 재정 수입을 취득했으며, 해로는 가장 중요한 대외 교통로가 되었다. 당나라가 대외무역을 중시하고, 중국에 온 외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 대화(大和)8년(834) 문종제(文宗帝)는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1) 이옥곤(李玉昆): 『泉州海外交通史略』之四, “眞諦與梁安港”, 廈門大學出版社, 1995년 9월.

2) 명(明) 하교원(何喬遠) 『민지(閩書)』권7, 「方域志」

남해 번국의 선박은 본래 교화에 흠모해서 왔으니, 진실로 어진 은 덕으로 대하여 감동하도록 한다. …… 영남(嶺南), 복건(福建), 그리고 양주(揚州)의 번객들은 마땅히 절도관찰사(節度觀察使)에게 위탁하여 자주 안부를 묻도록 한다. 정박 세수를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오고 가는 것을 편리한대로 하고, 자유롭게 교역을 하도록 하고, 세울을 무 겁게 매기지 않는다.³⁾

외국과의 왕래가 날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당나라 시대 천주성에는 ‘市井十洲人(시정의 여러 대륙 사람)⁴⁾이 출현했고, “선박이 (천주)성에 도착하면 외국인이 늘어난다.”⁵⁾는 현상이 생겼으며, 사회 경제가 고속으로 발전되어 다원화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융합되어 천주항은 이때부터 중국 대외무역의 중요한 항구로 발전했다.

당말 오대는 민왕(閩王) 왕심지(王審知) 형제가 복건을 통치할 시기이다. “건녕(乾寧)4년(897), …… 당나라는 복주(福州)를 무위군(武威軍)으로 삼고, 왕심지를 절도사로 제수했다. 왕심지는 다시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올랐으며, 琅邪王에 봉해졌다.”⁶⁾ 왕심지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상인들을 불러모으는’ 정책을 추진하여, 복건과 해상무역 관계를 맺게 하였다. 복건은 해외의 진귀한 보물과 향료, 약품이 가득 차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양(梁)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왕심지는 사신을 바다로 보내 등주(登州), 래주(萊州)로부터 양나라에 조공하게 했다.⁷⁾ 후양(后梁) 태조(太祖) 개평(開平)2년(908) 9월만

3) 『全唐文』卷75, 文宗七, “大和八年疾愈德音: “南海蕃舶 本以慕化而來 固在接以仁恩 使其感悅 …… 其嶺南 福建及揚州蕃客 宜委節度觀察使常加存問. 除舶脚收市進奉外 任其來往通流 自爲交易 不得重加率稅.”

4) 당 천보(天寶)연간(742~756)에 발생된. 包何: 『送李使君赴泉州』詩, 『全唐詩』권208에 실림

5) 당 회창(會昌)연간(841~846)에 발생됨. 薛能: 『送福建李大夫』, 『全唐詩』권21에 실림. “船到城添外國人”

6) 구양수(歐陽修): 『신오대사(新五代史)』권68, “閩世家第八”, 『王審知傳』: “乾寧四年(897), ……唐以福州爲武威軍, 拜王審知爲節度使, 累遷同中書門下平章事, 封琅邪王.”

7) 앞의 주석과 동일.

하더라도 왕심지가 양나라에 한 차례 진공한 물품이 ‘대모(玳瑁), 유리(琉璃), 코뿔소·상아 기물, 그리고 진귀한 노리개, 향료, 약품, 기이한 물품, 해산물 등’이며, 값어치는 천만에 이른다.”⁸⁾

왕심지가 민지를 통치할 시기에 해외무역을 발전시킨 공로에 대하여, 『王審知德政碑』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航海梯山 貢奉循環 務其輸委 無憚險艱. …… 佛齊諸國 綏之以德 架浪自東 驟山拱北. …… 關譏不稅 水陸無滯 遐邇懷來 商旅相繼. 黃崎之勞 神改驚濤 役靈祇力 保千萬艘.”⁹⁾

당시 민왕을 위해 대외무역을 관장하며 화물 전매를 맡아한 관리가 전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賴孝先(賴孝先)이고, 다른 한 명은 張睦(張睦)이다. 泉州 德化縣 上涌鎮 桂林村의 『侯卿賴氏族譜·遠祖開國公傳』에서

公諱孝先 号潛淵 美須. 唐中和二年入閩(882) 創居福州侯官縣孝悌鄉 惠化里. 昭宗乾寧四年(897) 拜閩王王審知節度使 封琅琊王. 閩王既總藩府 請命于唐 以公授三品官 領榷貨務 實總府計. 福省舊通番船 …… 閩王時 榷貨之權犹重 …… 公當以兵革搶掠弗堪刻剝之際 而能雍容下土 招徠海上蠻夷商賈 斂不加索. 先是 黃峙(按: 原文錯 應爲“黃岐”)港有巨石險惡 爲舟楫往來之患. 公欲命工鑿之 一朝忽狂風暴雨 雷電競作 巨石粉開 人皆以爲閩王及公德政之所致 因号曰“甘棠港”. …… 自是舟楫往來于閩省者無傾覆之患. 人樂懋遷 閩之財源日用饒裕 公私充實 皆公足國厚民之力也. 閩王提請議叙 詔封公開國公. …… 公佐閩王 翊戴王室 凜唐天子正朔 歲遣使朝貢 舳艫相望不絕于海道者二十有余年. ……¹⁰⁾

8) 제갈계(諸葛計), 은옥진(銀玉珍): 『閩國史事編年』 “王審知篇”下(907~925年), pp.75~76, 福建人民出版社, 1997년, 참고.

9) 상기 책과 동일. 唐 昭宣帝 天祐3년(906) 12월에 직명으로 『王審知德政碑』를 세웠다. 당 禮部侍郎 于兢이 글을 짓고, 直弘文館學士 王侁이 글씨를 썼다. 이 비석은 현재 福州市 鼓樓區 慶城寺 閩王祠 내에 있다.

또 『福建通志·張陸傳』에서

장목(張陸)은 고시(固始) 사람이다. 당 소종 때에 민지(閩地)에 들어왔다. 왕심지(王審知)가 절도사가 되자 조정에 청하여 삼품관(三品官)에 제수하고 화물을 관장하는 일을 맡은 각리원(權利院)을 이끌게 했다. 혼란한 시기에 아래 사람들을 포용하고 상인들을 불러 모았고, 가림주구를 하지 않아 날로 풍요롭게 하였다.¹¹⁾

회효선과 장목은 모두 민국 시기에 해외무역을 관장한 중신이다. 이들은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왕심지의 ‘외국의 상인들을 불러모으는(招徠海上蠻夷商賈)’ 정책을 추진해서 항구를 개척하여 재난을 감소시키고, ‘선박이 閩省을 왕래할 때 전복 위험을 없앴으며(舟楫往來于閩省者無傾覆之患)’, ‘閩地の 재원이 날로 부유하여 공사가 가득 채워져(閩之財源日用饒裕 公私充實)’, 왕심지가 민지(閩地)를 통치할 시기에 해외무역에서 누리던 성과를 반영시켰다.

이때 민왕도 천주에 전적으로 해외무역을 관장하는 각리원(權利院)을 설치하고, 아울러 海路都指揮使, 轉運使 등의 직책도 만들었다. 당시 천주 자사 왕연빈도 해외무역을 경영하여 재와 부를 획득한 민국 고급 지역의 장관이었다. 그는 백성과 아랫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부친의 유지를 계승하여 전후 재임 26년 동안 거둬 풍년이 들었다. 또 외국 선박을 보내어 공금으로 삼는데, 사나운 과도와 미친 광풍에도 파손을 입지 않았다. 군민(郡民)들은 이로써

10) 泉州 德化縣 上涌鎮 桂林村 『侯卿賴氏族譜』卷首 宋 『遠祖開國公本傳』에서 인용함. 民國三十四年六修木刻本. 德化縣은 五代 後漢 乾祐2년(949) 이전에 長樂府(지금의 福州)의 관할지에 속해있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賴孝先과 관련된 사적이나 지방지에 기재되지 않았다. 문헌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과 이러한 사람과 사적이 없었다는 것과 다르므로 잠시 이 기록을 인용했다.

11) 『福建通志』 史部, 권29, “名宦·張陸傳”: “張陸, 固始人, 唐昭宗時入閩. 王審知爲節度使, 請于朝, 授三品官, 領權貨務. 當搶攘之際, 雍容下土, 招徠商賈, 斂不加暴, 用日以饒.”

이익을 얻어 초보시랑(招寶侍郎)이라 불렀다.¹²⁾

왕연빈이 보낸 원양 외국선박이 망망한 대양의 노도와 광풍에서도 달릴 수 있고 파손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천주의 조선과 항해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천주가 건조한 원양 해선에 대하여 『중국항해사·고대항해사(中國航海史·古代航海史)』에서 중국 당·송 시대의 중국 해선의 전형으로 열거하고, “당·송 시대부터 무릇 고대 복건 천주항에서 건조한 원양 해선을 천박(泉舶)이라고 통칭한다.” 천박을 건조함에 있어 안전성, 쾌속성, 내파성 등 다양한 성능과 시공상에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한다. 그래서 천박은 당·송 시대에 중국 조선기술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표시로 삼을 수 있다.¹³⁾

민국(閩國)은 해외무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 신라국과 선린우호관계를 맺었다.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

왕연희(王延羲)는 왕십지의 작은 아들이다. …… 왕희(王曦)는 왕창(王昶, 원명은 王繼鵬이고, 閩王 王審知的 장자이다) 시대부터 고집이 세어 제압하기 힘들었다. 왕창의 재상 王倓이 매번 억눌려 꺾이니 왕희도 왕담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사단을 일으키지 않았다. 신라에서 보낸 사신이 민국에게 보감을 바치니, 왕창이 왕담에게 들어 보이면서 “이것을 장차 어디에 사용할까?”라고 말했다. 왕담은 “불효불충한 자를 처단할 때 사용합니다.” 왕희는 옆에 있다가 얼굴색을 변하였다. 왕희가 군주에 오르자, 신라는 다시 보감을 바쳤다……¹⁴⁾

12) 『泉州府志·封爵』卷40, 『王延彬傳』: “息民下土, 能繼父志, 前後在任二十六年, 歲屢豐登. 復多發蠻舶, 以資公用. 驚濤狂飈, 無有失坏, 郡人藉之爲利, 號招寶侍郎.”

13) 中國航海學會編: 『中國航海史』 제1책 『古代航海史』 제3장 제2절, “唐宋兩代的造船技術·泉舶”, pp.111~112,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88년.

14) 송(宋) 구양수(歐陽修): 『新五代史』 권68, “閩世家第八”, 『王延羲傳』: “延羲 審知少子也. …… 曦自昶(閩王昶 原名王繼鵬 閩王王審知的長子)世 偏強難制. 昶相王倓每抑斫之 曦亦憚倓 不敢有所發. 新羅遣使聘閩以寶劍 昶舉以示倓曰: ‘此將何爲?’ 倓曰: ‘不忠不孝者斬之’ 曦居旁色變. 曦既立 而新羅復獻劍. ……”

이상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라 국왕이 두 차례 사신을 복주로 보내 민왕 창(禳)과 희(曦)에게 보감을 증명했고, 양국의 우정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복건 해상이 신라와 교통하는 대단히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었음이 틀림없다.

하덕(夏德)·유극의(柔克義)가 지은 『조여괄(趙汝适)』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9세기 혹은 9세기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중국 남부의 해외무역은 이미 부분적으로 천주(현재 하문과 가까운 지역)로 이전되었다. 천주는 이 이전에도 일찍이 일본 및 고려와 무역관계를 맺어 근 1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훗날 아랍인이 이 지역에서 일본, 고려 등의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제품은 광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외에 천주에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를 매기는 당국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¹⁵⁾

필자는 하덕·유극의가 지은 『조여괄』 원서를 보지 않았기에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떤 문헌자료에서 나왔고, 또 아랍사람이 와서 구매한 고려 제품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이와 같은 설명에서 우리들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① 9세기 전후에 천주와 고려(주, 필히 신라국 시대 포함),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이미 예전과 달랐다. ② 신라와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은 이미 천주를 가득 채운 아랍 상인의 수출 제품이 되었다. ③ 천주는 광주에 비해 관세가 낮은 우대 정책을 누릴 수가 있어 더

15) “當九世紀時 或者有可能比九世紀更早一些 中國南部的海外貿易 已部分移到泉州(靠近現在的廈門). 泉州在此之前 曾與日本 高麗有貿易聯系 有將近一個世紀的歷史 後來阿拉伯人發現該地有日本 高麗等國的產品 而這些產品在廣州是無法得到的. 此外 在泉州還可以獲得當局較輕關稅的優待.” 自李金明 廖大珂 『中國古代海外貿易史』 第一編 第四章 第三節“海外貿易的繁榮, pp.36~37, 廣西人民出版社, 1995년 6월에서 인용. 이 책자의 자료는 Hirth and Rockhill Chau Ju Ku, p.17. 『唐代南海貿易志』에서 인용.

많은 외국 상인들이 천주에 와서 무역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연히 이 속에는 신라와 고려 상인들도 포함되었다.

송 소송(蘇頌)의 『본초도경(本草圖經)』에 의하면, “또 하북 각장(榷場)과 민중(閩中)에서 온 것이 있는데, 신라삼(新羅參)이라 한다.”¹⁶⁾ 하교원(何喬遠)의 『민서(閩書)』에도 “인삼,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따르면 인삼은 상당(上党) 산곡(山谷) 및 요동, 현 강동 여러 주와 태산(泰山)에 모두 생산된다. 또 민중에서 온 것이 있는데, 신라인삼이라 부른다.”¹⁷⁾

‘신라삼’의 명칭에 관하여, 필자는 후대 사람이 전대 사람이 신라에서 수입해온 인삼을 부르던 칭호를 계속 사용한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민중(閩中)’은 복건성 중부 연해안지역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남송 건도(乾道)4년(1168)에 천주지주(知州)에 나섰던 왕십봉(王十朋)이 『지송문(止訟文)』에서 “泉州는 七閩의 가운데 있다.”고 했다.¹⁸⁾ 그래서 ‘신라삼’은 당·오대 이전에 신라국에서 민중 지역으로 수입한 상품으로 시장에 널리 유통되었다. 오늘날 천주 사람들에게 익숙한 ‘고려삼’은 후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고려에서 수입해온 인삼을 바꾸어 말한 것이다. 또 『민서』에는 당나라 중·후반기에 천주 동안현(同安縣) 가화서(嘉禾嶼, 지금의 廈門, 고대 천주 해외 교통무역의 중요 해안)의 금방산(金榜山) 진암서당(陳黯書堂) 앞에는 ‘신라송(新羅松)’ 두 그루가 있었다.¹⁹⁾ 이것도 천주 상선이 신라와의 교통에서 가져온 것임이 틀림이 없다.

16) “又有河北榷場及閩中來者, 名新羅參.” 韓振華: 『諸蕃志補注』 권1, “新羅國”補注10, “人參”, p.296, 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 2000년에서 인용.

17) (명) 하교원 『민서』 권150, “南產志·人參”: “人參, 『本草綱目』曰: 人參生上党山谷及遼東. 今江東諸州及泰山皆有. 又有自閩中來者, 名新羅人參.”

18) 『福建通志』 史部, 권9, “風俗·泉州府”: “泉州(州)在七閩之中.”

19) 명 하교원 『민서』 권12, “方域志”, 泉州府同安縣二, “嘉禾嶼: “有新羅松二本(株).”(福建人民出版社, 1994년). 新羅松에 관하여 필자는 본 논문 제이부분의 『新羅松과 高麗菜』에서 따로 자세히 논하오니 참조하기 바란다.

2. 당·송 시대 천주와 신라 해상교통 중계항-등주항

『신당성 지리지(新唐書·地理志)』에 따르면, 당·송 시기 중국 산둥 등주(봉래)에서는 고려로 통하는 해상항로를 ‘등주에서 바다로 고려·발해와 통하는 노선(登州海行入高麗, 渤海道)’이라고 불렀다. 또 『중국항해사·고대항해사』에서는 “등주항에서 해외와 연해 각지로 통하는 네 가지 항해 노선이 있다. 첫째 노선은 발해 북쪽을 건너 고려와 발해국으로 통하는 노선이고, 둘째 노선은 발해를 건너 고려를 경과하여 일본으로 통하는 노선이며, 셋째 노선은 황해를 가로질러 제주도를 경과하여 일본으로 통하는 노선이며, 넷째 노선은 연해를 따라 남쪽으로 양주(揚州)·명주(明州)를 통하는 노선이다. 앞쪽 세 가지 노선은 당·송 시대 일본과 고려를 해상으로 통하는 노선이다.²⁰⁾ 이것으로 보아 등주항은 중국 남방 연해안의 여러 항구와 신라·발해·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에서 무역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중계항이다. 당나라 시대 신라인들은 중국 동북부 지구의 광대한 활동 공간, 특히 등주를 중심으로 중국 교통과 무역의 중점 활동 지구를 구축했다.²¹⁾ 신라선은 이상 세 가지 항로로 등주항에 도달한 후에 남쪽으로 항해하여 양주, 명주에 도달하고,

20) 『中國航海史·古代航海史』 제3장 제5절 “唐宋兩代港口的興衰·登州港”, pp.175~176,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88년.

21) [日]엔닌(圓仁):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古籍出版社, 1986년8월. 참조. 日本 圓仁和尚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따르면, 당 文宗 開成3년(838)에 圓仁(엔닌)은 일본 견당사를 따라 揚州에 도달한 이후 五臺山·長安으로 가서 구법활동을 하는 도중에 전후로 楚州, 泗州, 海州, 密州, 登州, 萊州 등 연해 항구와 농촌에서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촌에서 상업과 운송업을 종사하는 신라방, 신라국에서 해외 무역을 경영하는 우두머리 張保臯가 본국 교민들을 위해 건립한 사찰인 法華院(또 신라원이라고 지칭함), 신라인이 관리하는 기구인 新羅所 등을 보았다. 그곳에서 圓仁은 신라의 通事(통역원), 승려, 교민, 그리고 장보고가 파견한 대당무역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大唐賣物史와 선박들을 많이 접촉했다. 이것은 신라인이 중국 동북부의 광대한 지구에서 이미 생존에 적합한 기지와 해상무역활동의 공간을 구축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 북건으로 들어가 북주와 천주 등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건에서 항해하여 등주항까지 도달하는 해상 노선은 어떠한가? 『자치통감(資治通鑿)』권267 ‘胡三省注’에 의하면, “북건에서 대량(大梁)으로 입공하면, …… 지금 북주양(福州洋)으로부터 온 주양(温州洋)을 지나 태주양(台州洋)을 취하여 천문산(天門山)을 지나 명주 상산양(象山洋)에 들어간다. 잠강(涿江)을 지나 열항(洑港)을 스쳐지나 곧장 동북쪽으로 대양을 지나면 등·래주 연안에 도달한다. 바람과 파도가 지극히 위험하여 익사자가 많다.”²²⁾ 여기에서 북건부터 등주·래주항까지의 항해 노선과 항해 도중의 위험을 설명했다. 만약 당시 “왕십지가 사신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 등주·래주부터 양(梁)에 입공했다.”고 하면, “시자(侍子)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한 자가 통상적으로 십의 삼, 사일 것이다.”²³⁾ 설령 이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당시 민지(閩地) 사람들이 해로를 통해 신라로 들어가는 정보를 얻었음을 볼 수 있다.

『송사 왕빈전(宋史·王彬傳)』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왕빈은 광주(光州) 고시(固始) 사람이다. 조부 언영(彦英)과 부친 인품(仁품)은 친족 왕조(王潮)를 따라 민지(閩地)로 들어왔다. 왕조는 민지를 차지했지만, 왕언영이 자못 권력을 장악했다. 왕조는 그의 위협이 싫어서 몰래 도모하려 했다. 왕언영은 이를 알아채고, 가솔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도망쳤다. 신라는 그 재주를 아껴 등용했다. 부자는 잇달아 국정을 집행했다. ²⁴⁾

22) 『資治通鑿』권267 “胡三省注”云: “自福建入貢大梁 ……今自福州洋過温州洋 取台州洋過天門山入明州象山洋 過涿江 掠洑港 直東北渡大洋抵登萊岸 風濤至險 故沒溺者衆”

23) 구양수: 『신오대사』권68, “閩世家第八”, 『王審知傳』: “審知歲遣使汎海自登萊朝貢于梁 …… 侍者入海覆溺常十三四.”

24) 『송사(宋史)』권304, 列傳 第63, 『王彬傳』: “王彬 光州固始人. 祖彦英 父仁품(仁+品) 從其族人潮入閩. 潮有閩土 彦英頗用事. 潮惡其逼 陰欲圖之. 彦英覺之 挈家浮海奔新羅 新羅長愛其材 用之 父子相繼執國政.” (中華書局)

왕언영(王彦英)이 “가솔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도망쳤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항로를 따라 먼저 등·래주에 도달하고, 그 후에 다시 신라로 갔을 것이다. 이것은 복건 선박이 복건-등주-신라의 해상교통로를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당시 천주자사(泉州刺史) 왕연빈(王延彬)도 양나라에게 ‘천주절도사를 구하기 위해’, “몰래 사신을 바다로 보내 사사로이 양나라에 입공했다.”²⁵⁾ 대저 이것도 이러한 항해노선을 통해 등주항에 도달했다. 그래서 천주 해선은 등주항에 도달한 이후 신라 상인과 무역, 대화, 교류를 진행하였다. 또 선박이 ‘등주에서 바다로 고려·발해와 통하는 노선(登州海行入高麗, 渤海道)’를 통해 신라에 도달했다. 북송 전기까지 천주 해상이 고려로 가는 노선은 계속해서 이 항해 노선을 따랐다.

3. 당나라 시대 복건에 구법하러 온 신라승

왕방유(王邦維)가 교주(校注)한 당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따르면, 당나라 초기 혜륜(慧輪)이라고 부르는 신라승이 본국에서 출발하여 성적(聖迹)을 마음으로 받들고 자 배를 타고 민월(閩越)로 들어와 걸어서 장안에 도달했다.²⁶⁾ 또 왕방유의 고증에 의하면, 혜륜법사가 장안에 도달한 이후 칙명을 받들고 현조(玄照)를 따라 육로로 복인도로 출발한 시기가 인덕(麟德)2년(665) 또는 건봉(乾封)원년(666)이다.²⁷⁾ 이것으로 혜륜법사가 “배를 타고 민월로 들어왔다.”, 즉 복건에 도달한 시기는 당연히 건봉원년(666)보다 빠름을 알 수 있다.

25) 청(淸) 오임신(吳任臣): 『십국춘추(十國春秋)』권94, 『王延彬傳』.

26) 唐義淨原著, 王邦維校注: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卷上 p.101, 『新羅慧輪法師傳』, 中華書局, 1988년 9월. “自本國出家 翹心聖迹 泛舶而陵閩越 涉步而屆長安.”

27) 앞의 서지, p.247, 附錄一 “求法高僧一覽表”第41, “慧輪”欄.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라와 복건의 해상교통에 관해 가장 빠른 사료이다. 비록 이 기록에서 우리에게 해륜법사가 탄 배가 상선인지 아니면 다른 선박인지, 어떤 항로로 갔는지, 도중에 어느 항구들을 지나갔는지, 직항로인지 아니면 중계항로를 따랐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666년 이전에 신라에서 복건으로 도달하는 해상 노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해륜법사가 탄 해선도 ‘등주 바다에서 고려로 들어가는’ 노선의 역방향으로 신라에서 출발하여 등주에 도착했고, 그리고 다시 연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여 복건에 도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당말 오대 시기에 민왕 왕십지와 천주자사 왕연빈은 불교를 매우 숭상했고, 더욱 복주와 천주를 불교문화가 가장 발달된 지방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천주에는 더욱 많은 사원이 세워지고 승려들이 많아 ‘천남불국(泉南佛國)’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필자는 불교 문화사업이 고도로 발전한 것이 신라승을 복건으로 오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신라승이 복건에 구법을 하러온 것을 ‘종교문화 교류의 여행’이라고 칭하여도 무방하다. 해륜법사 이후에 그의 족적을 따라 복건에 온 신라승들 또한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예를 들면 신라승 원납(元納, 玄納 또는 玄訥)²⁸⁾이 구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건에 들어와서 일대 선종의 고승인 ‘설봉의존선사(雪峰義存禪師)’의 제자가 되었다. 훗날 천주에 거주하고 널리 법을 퍼뜨려 ‘복청사(福淸寺)’의 개산조(開山祖)가 되었다.²⁹⁾ 또 오대 후당 천성(天成)3년(928)에 “신라승 홍경(洪慶)이 후당 閩府(복주)에서 『대장경(大藏經)』 한 질을 신고 예성강(禮成江)에 도

28) 역주: 피휘와 오류자인 관계로 玄訥이 맞음. 번역문에서는 두 이름을 모두 병기함.

29) 元納(玄訥)에 관한 사적은 송 道元이 지은 『景德傳燈錄』, 普濟가 편찬한 『五燈會元』, 명 何喬遠이 지은 『閩書』, 그리고 『泉州府志』, 『南安縣志』 등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元納(玄訥)과 福淸寺”에 관한 것은 본 논문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달하니, 국왕이 친히 영접하고, 제석원(帝釋院)에 안치시켰다.”³⁰⁾

당시 복건에는 두 명의 신라승이 깊은 승배를 받아 득도한 고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한 명은 현사선사(玄沙禪師, 卽僧師備)이고, 다른 한 명은 진각대사 의존(眞覺大師 義存, 속칭 雪峰義存)이다. 『삼산지(三山志)』권38 ‘寺觀類六·安國寺’에는 “광화(光化)연간(898~901) 초에 승사비(僧師備, 玄沙禪師를 지칭함)는 설봉(雪峰, 福州寺)에서 와서 머물렀다. 관사에 머문 승려들이 통상 1천 명이고, 고려(이때는 신라)와 일본 승려도 또한 이곳에 있었다.”³¹⁾ 이것으로 보아 승사비 제자 중에는 신라에서 온 승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존선사(822~906)의 속성은 증(曾)이고, 천주 남안현(南安縣) 사람이다. 그는 12세에 부친 증면(曾勉)을 따라 보전(莆田) 옥간사(玉澗寺)에 갔을 때, 경원율사(慶元律師)를 참배하고 스승으로 삼았다. 17세에 삭발하여 스님이 되었다. 법휘는 의존(義存)이다. 49세에 사백(師伯) 행실(行實)과 더불어 복주 민후(閩侯) 상골산(象骨山)에서 설봉사를 개창하여, ‘설봉의존’이라는 별호를 가지게 되었다. 61세에 당 희종은 ‘진각대사’라는 존호를 하사했다. 오대에 의존은 일대 고승이 되어 현사선사(즉 승사비)와 자주 왕심지에게 불법을 강론하였다.³²⁾

천주태수 왕연빈은 특별히 자기 고향인 남안(南安) 양매산(楊梅山, 지금의 南安 康美鎮)에 그를 모시고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설봉사’를 건립했다. 의존선사 생전에 사방을 유력하여 그 족적이 오(吳), 초(楚), 양(梁), 송(宋), 연(燕), 진(秦) 등지에 두루 미쳤다. 그가 흥법을 하는 기간에는 사망에서 승려들이 운집하여 제자가 항상 1천5

30) 鄭麟趾: 『高麗史』世家卷一, 太祖十一年八月: “新羅僧洪慶自唐閩府(福州)航載『大藏經』一部至禮成江 王親迎之 置于帝釋院”.

31) 『三山志』권38 “寺觀類六·安國寺”載: “光化(898~901)初 僧師備自雪峰(福州寺)來居焉. 館徒常千人 高麗(時應爲新羅) 日本之僧亦有至者.”

32) 諸葛計, 銀玉珍: 『閩國史事編年』, “王潮篇(885~897)”, p.25, 福建人民出版社, 1997년 참고.

백 명이 되었고 국내외에 널리 퍼졌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존선사의 제자 가운데에 신라에서 온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원납(元納, 玄訥禪師)은 천주에서 흥법을 하였고, 영조선사(靈照禪師)는 법을 받을 후 항주에 가서 전법을 하였고, 대무위선사(大無爲禪師)는 신라로 귀국하여 흥법을 하였다.³³⁾

당나라 때 신라승이 당나라에 들어와 구법하는 일에 관해서 진상승(陳尙勝) 선생은 “당나라 때 신라에서 당나라에 구법하러 온 승려들은 멀리 외국에서 당나라에 들어온 승려들 가운데 수위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호가 고증할 수 있는 신라승은 무려 130여 명에 달한다. 그들이 귀국하여 법을 전수하여, 당나라 불교의 각 종파가 신라에서도 계승 흥성하였다.”³⁴⁾

4. 송대 천주항과 고려의 해상교통

1) 송대의 천주항

오대의 어지러운 동란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든 국가가 송 태조 조광왕(趙匡胤)의 통치 아래에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보았다. 해외무역 방면에서 우리들은 “太平興國(976~983) 초 경사에 각역원(權易院)을 두고, 여러 번국의 향약과 보화를 모아 광주(廣州), 교지(交趾), 천주(泉州), 양절(兩浙)로 나갔다. 관아 창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사적 시장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었다.”³⁵⁾ 비록 이러한 조치가 지나치게

33) 이옥곤(李玉昆): 『高麗僧人玄訥與泉州福清寺』, 『泉州晚報』海外版, 1999년 11월 9일.

34) 진상승(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第20頁, 文史知識文庫, 中華書局, 1997년: “在唐代新羅入唐求法僧侶又遙居外國入唐求法僧侶的首位. 盡管很多人于史書中無名 但有法号可考的新羅僧侶就達130余人. 由于他們的歸國傳灯 唐朝的佛教各宗在新羅也相繼興盛.”

35) 『宋會要輯稿』卷1124, 職官四四之一: “太平興國(976~983)初 京師置權易院 乃詔諸蕃國香藥寶貨至廣州 交趾 泉州 兩浙 非出于官庫者 不得私相市易.”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갓 건국한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대 국가의 몇몇 주요 대외무역 구역과 항구를 주요항구로 나열하고 송나라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십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당시 송나라 조정은 비록 천주에 해외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의 천주성에 이미 “외국 상선이 바다에 몰려들어왔고 부자들의 재물이 수만금에 이르며, 성 남쪽에 거주하였다.”³⁶⁾ ‘번인항(蕃人巷)³⁷⁾이라고 부르는 한 상업지구에는 중국과 외국 상인들이 “매년 큰 선박이 바다를 건너 상아와 무소뿔, 대모(玳瑁),珠子(珠璣), 파리(玻璃, 마노(瑪瑙), 기이한 향료, 후추 등 중을 가져왔다.”³⁸⁾ 송 원우(元祐)원년(1086)에 복주 복청현(福淸縣) 사람 정협(鄭俠)이 천주교수(泉州敎授)에 임명되었을 때, 천주에 “역도(驛道)가 사방으로 통하고, 해상들이 몰려들어와 외국과 중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며, 권력과 부자가 이웃을 하고 있고,”³⁹⁾ “저자에는 사방의 풍속이 섞여있으며 항해자는 모두 이국의 상인이다.”⁴⁰⁾ 라는 성대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러 분야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원우2년(1087)에 송나라 조정은 천주에 복건시박사(福建市舶司)를 설치하였다. 정화(政和)5년(1115)에 또 “천주에 래원역(來遠驛)을 설치했다.”⁴¹⁾ 이로써 해외 각국의 내빈을 더욱 잘 접대하게 되어 천주와 해외 각국의 무역관계는 진일보 있었다. 천주 사람들은 새로운 창업 기회를 맞이하여, 천주의 3만 12항(三灣 十二港)⁴²⁾은 이때부터 도처에 생기가 충만했다. 해외무역의 고

36) 『(乾隆)泉州府志』卷75, 拾上: “胡賈航海踵至 富者貲累巨萬 列居郡城南.”

37) 祝穆: 『方輿勝覽』卷12, 『福建路·泉州』.

38) 祝穆: 『方輿勝覽』卷12, 『福建路·泉州』.

39) 鄭俠: 『西塘集』卷8, 『代謝仆射相公』: “驛道四通 海商輻輳 夷夏雜處 權豪比居.”

40) 같은 책, 권7, 『代太守謝泉州到任』: “厘肆雜四方之俗 航海皆異國之商.”

41) 『宋會要輯稿』職官四四之十: “于泉州置來遠驛.”

42) 송·원대의泉州港은 三灣 十二港으로 조직되었다. 소위 三灣은 泉州灣, 深滬灣, 圍頭灣이다. 三灣 가운데에는 12개의 소속 항이 있다.

도 발전은 천주의 광업 제련업, 비단·면·마의 방직업, 도자기 제조업, 사탕수수 가공업, 찻잎 제조업, 그리고 양잠업, 면·마·사탕수수 등 모든 업종이 함께 발전해 갔다. 심지어 천주에서 건조한 海舶(해선)을 ‘토산품’의 일종으로 열거하였다.⁴³⁾ 이것은 마치 북송 천주 진사인 사리(謝履)가 『천남가(泉南歌)』에서 “주 남쪽의 바다는 끝이 없고, 매년 건조된 선박은 이역으로 통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았다.⁴⁴⁾

나침반이 향해 운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됨에 따라 천주 해선들은 수출 무역상품을 가득 싣고 돛을 올리고 파도를 헤쳐, 위풍당당하게 천주항에서 국내외 각 항구로 나갔으며, 또 각 지역의 토산품, 기이한 보물과 향료, 약품 등 물품을 천주로 가져 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송대의 천주항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나 지역이 1백 개 이상이고, 이 중에 주요 국가는 대식국(大食國), 고려(高麗), 일본(日本), 삼불제(三佛齊), 도파(閩婆), 점성(占城) 등이다. 더구나 북송 시대에는 “천주 해상은 …… 대고려 교통항로를 독점했다.”⁴⁵⁾ “천주에는 많은 해선이 고려로 들어가 매매를 하였다.”⁴⁶⁾ 천주항은 중국이 대고려 교통무역의 주요 항구가 되었다. “천주 해상들이 고려로 운반한 주요 물품은 능견(綾絹), 금나(錦羅), 백견(白絹), 금은기(金銀器), 예복(禮服), 자기(瓷器), 대모(玳瑁), 약재(藥材), 차(茶), 술(酒), 서적(書籍), 악기(樂器), 밀납초, 전폐(錢幣), 공작(孔雀), 앵무(鸚鵡) 등이고, 가지고 온 물품은 금(金), 은(銀), 동

43) 樂史:『太平實字記』卷102, “江南東道十四·泉州” 참조. 樂史는 泉州의 “海舶”을 토산품으로 열거한 점으로 보아 천주 조선의 생산량과 능력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972년에 泉州 后渚港에서 발굴한 천주에서 건조한 송대 선박이 있다. 잔해물의 길이는 24.2m이고, 폭은 9.15m이다. 전문가의 고증에 의하면 이 선박이 복원된 후에 길이는 34m에 달하고, 폭은 11m이며, 선적량은 200톤이며, 천주에서 건조한 중소형 해양 선박에 속한다.

44) 『(乾隆)천주부지』권20, 謝履:『泉南歌』; 謝履는 泉州 惠安 사람이고, 嘉祐2년(1057)에 진사 급제했다.

45) 이옥곤:『泉州海外交通史略』第十一章 第二節“宋朝與高麗貿易的泉州海商”, p.50, 廈門大學出版社, 1995년 9월. “泉州海商……壟斷了對高麗的交通航線.”

46) 『동과전집』권56, 『乞舍高麗僧從泉州歸國狀』: “泉州多有海舶入高麗 往來買賣.”

(銅), 인삼(人參), 복령(茯苓), 모피(毛皮), 황칠(黃漆), 유광(硫磺), 능라(綾羅), 백지(白紙), 선자(扇子) 등이다.”⁴⁷⁾ 상품의 유통은 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질생활을 부유하게 하고, 양쪽 사람들의 교류와 감정을 증진시켰다.

2) 송대 천주에서 고려로 통하는 주요 항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만약 해로라면 하북(河北), 경동(京東), 회남(淮南), 양절(兩浙), 광남(廣南), 복건(福建)에서 모두 갈 수 있다.”⁴⁸⁾ 이 말은 상기한 몇 개 지구의 해선이 해로로 고려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당나라 시대부터 북송 전기까지 천주 해선이 고려로 가는 노선은 반드시 명주에서 등·래주로 들어가서 다시 ‘등주에서 바다로 고려·발해와 통하는 노선(登州海行入高麗, 渤海道)’를 따라 고려에 도달한다. 북송과 요나라가 적대 상태에 놓였을 때에는 이 노선이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송나라 조정은 경력(慶曆)연간(1041~1048)부터 연속적으로 몇 개의 『편칙(編敕)』을 반포하여 중국 상인이 해로로 등·래주로 들어가서 고려와 교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중국 해상(海商)이 고려로 통하는 교통은 등·래주에서 점진적으로 명주로 이전하였다. 특히 희녕(熙寧)7년(1074)에 거란을 멀리하기 위해 고려는 사신 김양감(金良鑾)을 보내어 송나라 조정에 “명주로부터 궁궐에 나가도록 바꾸어 주기를 바란다.”⁴⁹⁾고 건의했다. 이 건의는 송나라 조정의 허락을 받은 이후 중국과 고려를 왕래하는 대부분의 해선은 명주로부터 출입하여 점차적으로 등주를 거쳐 고려·발해로 들어가는 항로를 포기하였다.

47) 이옥곤: 『泉州海外交通史略』第十一章第二節 “宋朝與高麗貿易的泉州海商”, p.50, 廈門大學出版社, 1995년 9월.

48) 서균: 『선화봉사고려도경』권3: “若海道 則河北 京東 淮南 兩浙 廣南 福建 皆可往.”

49) 『송사』권487, “外國三”, 『고려전』.

조여괄(趙汝适)의 『제번지·신라국(諸蕃志·新羅國)』에 따르면.

신라국은 변한(弁韓)의 유종(遺種)이다. 그 나라는 천주 해문(海門)과 대치하고, 속가에서는 음양가 자오(子午)의 설을 기피하여, 상인들은 반드시 먼저 사명(四明)에 이른 후에 다시 출발했다. 혹자가 말하기를 천주의 물 세력이 점점 낮아지는 고로 반드시 사명을 경유해야 한다.⁵⁰⁾

조씨는 신라국이 ‘천주 해문과 대치하는’ 방향이고, 천주 해상이 왜(신라와) 교역하는 상인들이 필히 먼저 사명(四明, 즉 明州)에 도달해야 하고, 사명을 고려로 향해 가는 중계항으로 삼은 ‘후에 다시 출발하는’ 등의 이유를 말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천주 해상이 오랫동안 항해한 경험에서 얻은 결과이다. 만약 남송 초에 천주의 “거상 유열(柳悅), 황사순(黃師舜), …… 두 사람은 모두 천주 사람이며, 세상에 본주(주: 명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고려로 장사하러 일 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며, 고려에 머무는 자는 대개 해를 보낸다.”⁵¹⁾ 즉, 하나의 좋은 실례이다.

사명은 일반적으로 명주를 지칭한다. 장진(張津)의 『(乾道)사명도경(四明圖經)』권1 ‘분야(分野)’에 의하면 “명주는 사실 실로 월(越)의 동쪽 교외이다. 여지도(輿地圖)를 보면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다. 비록 도회지는 아니나, 해로가 모여드는 곳이다. 그러므로 남쪽으로 민(閩)·광(廣), 동쪽으로 왜인, 북쪽으로 고려이고, 상선들이 왕래하고 화물이 풍부하다.”⁵²⁾ 명주가 복건과 고려 상인들이 교류활동을

50) 조여괄 『제번지·신라국』: “新羅國 弁韓遺種也。其國與泉州海門對峙。俗忌陰陽家子午之說 故與販必先至四明 而後再發。或曰: 泉之水勢漸低 故必經由四明。”

51) 楊士奇, 黃淮等奉敕編 『歷代名臣奏議』권384, 四裔: “大商柳悅, 黃師舜, ……二人皆泉州人, 世從本州(按: 指明州)給凭賣販高麗, 歲一再至, 留高麗者, 率嘗經歲。”

52) 張津 『(乾道)四明圖經』권1 “分野”: “明之爲州 實越之東郊 觀輿地圖則僻在一隅 雖非都會 乃海道輻湊之地 故南則閩廣 東則倭人 北則高麗 商舶往來 物貨豐衍。”

하는 중요한 지구였음을 알려준다. 해선은 “명주 정해(定海)로부터 순풍을 만나면 3일에 대양에 들어가고, 또 5일에 흑산도에 도달하여 그 경내에 들어간다. …… 7일에 예성강에 도달한다. —또 3일에 해안에 도착한다.— 육지에 올라 험준한 산과 골짜기 40여 리를 가면,” ‘그 나라 수도’에 이른다.⁵³⁾ 전 일정은 18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주 해상은 바다로 명주에 도착한 후에, 즉 ‘명주에서 고려로 통하는 항로(明州通高麗航線)⁵⁴⁾를 따라 고려에 도달하여 교역을 한다.

5. 북송 시기 고려와 해상교류 한 천주인(泉州人)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찍이 9세기 전후(주: 반드시 당말 오대를 지칭함)에 천주와 신라·고려는 무역 왕래가 있었으며, 아랍 상인들이 천주에서 고려의 제품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천주 상인이 신라·고려로 통하는 것에 관한 사료는 부족하다. 우리들은 대략적인 관련 자료들을 통해 일어났을 것이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당·오대 시기의 천주와 신라의 해상교통 문제를 검토해본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송 시대(960~1127)에 천주 사람이 고려로 교통하는 문헌자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풍부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언급할 때면 먼저 조선사학자 정인지(鄭麟趾)에게 감사해야한다. 그가 지은 『고려사(高麗史)』에 북송시대 많은 천주 사람이 해상을 통해 고려를 왕래한 사례를 기술해 놓았는데, 중국 역사 문헌의 부족함을 크게 보충

53) 『宋史』권487, “外國三”, 『高麗傳』: “自明州定海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 入其境 …… 七日至禮成江. …… 又三日抵岸 …… 使人由此登陸 崎嶇山谷四十餘里 …… 其國都”.

54) 『中國航海史』제1책 『古代航海史』 제3장 제4절의 宋代對高麗的航線”, p.153, 北京: 人民交通出版社, 1988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해외교통사에 내포하는 바가 크게 풍부해서 실로 귀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중국의 저명한 문학자, 당시 항주지부(杭州知府)에 있던 소식(蘇軾)이 조정에 올린 ‘주의(奏議)’이다. 예를 들면 『논고려진봉상(論高麗進奉狀)』, 『걸령고려승종천주귀국상(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걸금상려과외국상(乞禁商旅過外國狀)』 등에서 북송 시대의 “북건 길에는 많은 해상들이 상업에 종사하고”,⁵⁵⁾ “북건의 교활한 상인들이 고려 교통에 독점하며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서진(徐戡) 같은 자가 대단히 많다.”는 사정을 알려준다. 그 밖에도 서진이 고려승 수개(壽介)를 신고 항주에 온 후에 소식이 ‘사람과 배를 명주로 보내어 해선에 동선하여 귀국할’ 때에 “근자에는 명주에서 상인들을 태우고 고려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어졌고, 천주에서 많은 해선이 고려로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정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명주에 통지하여 “작년에 수개 등과 같은 이가 왔으나 끝내 타고 갈 선박이 없었고, 수개 등을 천주로 보내어 선박에 태워 귀국하도록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당시 천주항과 천주해상이 멀리 고려로 가서 무역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데, 아주 얻기 어려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송사(宋史)』,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선화봉사고려도경』, (韓國)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등 한중 역사문헌에서도 이 방면에 관한 정보를 다소간 제공해주고 있다.

상기 열거한 문헌자료들을 종합 분석 해석을 통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었다. 북송 시대에 천주 해선이 고려로 가는 적재 종류에는 무역상품 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 멀리 고려로 가는 천주 사람은 중국과 고려의 무역 경영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송과 고려 사이의 정치, 문화활동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55) 『동과전집』 권56, 『논고려진봉상』: “福建一路多以海商爲業.”

예를 들면 지금까지 성명과 籍貫(역주: 본적과 비슷함)이 알려진 22명의 천주 사람 가운데에는 신종 희녕원년에서 3년(1068~1070)까지 복건전운사(福建轉運使) 나중(羅拯)의 부탁을 받아 송과 고려의 외교 사신들을 신고 수차례 송과 고려 사이를 왕래하여 양국 정부간의 좋은 교류와 성의 있는 문서를 전달하여 무려 43년간 송과 고려 사이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것을 회복시킨 천주 해상 황신(黃愼), 홍만(洪萬) 등,⁵⁶⁾ 또 희녕8년(1075)에 고려 예빈성(禮賓省) 서첩을 가지고 송나라 조정에 음악과 예인(藝人)을 차입해 고려로 가서 예기(藝妓)를 전한 부선(傅旋),⁵⁷⁾ 철종 원우(元祐)2년(1087)에 고려 국왕의 부탁을 받아 항주에서 각판한 『협주화엄경(夾注華嚴經)』 2900여 판을 신고 고려로 향한 서전(徐戩),⁵⁸⁾ 원우4년(1089)에 고려 승통(僧統) 의천(義天)을 위해 송나라 조정의 연락 사자 역할을 맡은 안현(顔顯)과 이원궤(李元篋),⁵⁹⁾ 대중상부(大中祥符)8년에서 원우5년(1015~1090) 사이에 고려에 가서 무역하며 고려 국왕에게 진귀한 보물, 방물, 토산품을 바친 임인복(林仁福), 진문궤(陳文軌), 회지(懷贄), 노준(盧遵), 임애(林藹), 임희(林禧), 왕종역(王從易), 소종명(蕭宗明), 황문경(黃文景), 임녕(林寧), 서성(徐成) 등의 천주 해상, 고려에 간 천주학자 구양징(歐陽征), 진억(陳億), 유재(劉載), 의사 강조동(江朝東) 등이 있다.

당연히 고려로 간 천주 사람 가운데에는 또한 상당수의 수행원이

56) 정인지: 『고려사』 “世家卷第八·文宗二”; 『송사』 권331, 『나중전』; 『송사』 권487, “外國三”, 『고려전』

57) 이도(李燾): 『續資治通鑑長編』 권261.

58) 『東坡全集』卷56 『論高麗進奉狀』.

59) 박옥걸(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중 宋商人到高麗年表에서 인용. “1089년(宣宗6년)조에 顔顯, 李元篋 등 천주 상인은 “義天을 위해 송나라 통신 연락을 하였다.” 이 주석에서 “『대각국사문집』 권3 등에 의천이 우두머리로 삼은 宋都綱, 해상 천주 사람의 성명이 자주 출현했다.”고 했다.(金庠基 論文, 『國史上的諸問題』3, p.92 참조.) 黃時鑒主編, “第二屆韓國傳統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韓國傳統文化·歷史卷』, p.54, 學苑出版社, 2000년.

있었다. 예를 들면 『고려사』에는 고려 현종8년 7월(북송 진종 천희 원년, 1017)에 송 천주 사람 임인복 등 40명이 방물을 바쳤고, 고려로 나간 인원수가 가장 많은 사례가 고려 선종7년 3월(북송 철종 원우5년, 1090)에 송 상인 서성을 포함하여 150명이 있다. 그러나 이들 수행원의 성명과 출신지는 사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만 각 항해 회수의 수행원 인원수밖에 알지 못한다.

북송 시대에 송과 고려 사이를 왕래한 천주 사람과 시간, 사유를 정리하여 간단한 도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북송 시기 송과 고려를 왕래한 천주인 일람표 | | |
|-------------------------------|------------|--|
| 時 間 | 主要人物 | 事 由 |
| 高麗顯宗六年閏六月 北宋眞宗大中祥符八年 1015年 | 歐陽征 | 宋 泉州人 歐陽征이 고려로 귀화함. (九月)高麗는 歐陽征을 右拾遺로 삼음. |
| 高麗顯宗八年七月 北宋眞宗天禧元年 1017年 | 林仁福 | 宋 泉州人 林仁福 등 40명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顯宗十年七月 北宋眞宗天禧三年 1019年 | 陳文軌 | 宋 泉州 陳文軌 등 100명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顯宗十一年二月 北宋眞宗天禧四年 1020年 | 懷贇 | 宋 泉州人 懷贇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顯宗十四年十一月 北宋仁宗天聖元年 1023年 | 陳億 | 宋 泉州人 陳億이 고려로 귀화함. |
| 高麗顯宗十九年九月 北宋仁宗天聖六年 1028年 | 李(역주:글자빠짐) | 宋 泉州人 李(글자빠짐) 등 30여 명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顯宗二十一年七月 北宋仁宗天聖八年 1030年 | 盧遵 | 宋 泉州人 盧遵 등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德宗二年八月 北宋仁宗明道二年 1033年 | 林藹 | 宋 泉州商 都綱 林藹 등 55명이 고려에 가서 土産物을 바침. |
| 高麗靖宗十一年五月 北宋仁宗慶歷五年 1045年 | 林禧 | 大宋 泉州商 林禧 등 고려에 가서 土産物을 바침. |
| 高麗文宗三年八月 北宋仁宗皇祐元年 1049年 | 王易從 | 宋 泉州商 王易從 등 62명이 고려에 가서 진귀한 보물을 바침. |
| 高麗文宗六年九月 北宋英宗皇祐四年 1052年 | 蕭宗明 | 宋 (泉州)商 肖宗明 등 40명이 고려에 가서 土産物을 바침.(1) |
| 高麗文宗十二年八月 北宋英宗嘉祐三年 1058年 | 黃文景 | 宋 (泉州)商 黃文景 등이 고려에 가서 土産物을 바침. |
| 高麗文宗十七年十月 北宋英宗嘉祐十年 1063年 | 林寧 黃文景 | 宋(泉州)商 林寧, 黃文景이 고려에 가서 土産物을 바침.(2) |
| 高麗文宗十八年八月 | 林寧 | 宋 (泉州)商 林寧 등이 고려에 가서 진 |

| | | |
|---|----------------|---|
| 北宋英宗嘉祐十一年 1064年 | | 귀한 보물을 바침. |
| 高麗文宗二十二年七月 北宋神宗熙寧元年 1068年 | 黃愼 洪萬 林寧 | 江淮兩浙荆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 羅拯이 泉州商人 黃愼 등을 고려에 파견하여 天子의 뜻을 전함.(3) 宋(泉州)商 林寧 등이 고려에 가서 方物을 바침. |
| 高麗文宗二十三年 北宋神宗熙寧二年 1069年 | 黃愼 | 黃愼이 고려 禮賓省이 福建轉運使에게 보내는 牒文을 가지고 송나라에 옴. |
| 高麗文宗二十四年八月 北宋神宗熙寧三年 1070年 | 黃愼 | 湖南荆湖兩浙發運使 羅拯이 다시 黃愼을 파견하여 재차 고려에 감. |
| 高麗文宗二十九年三月 北宋神宗熙寧八年 高麗文宗二十九年六月 1075年 | 傅旋 林寧 | 泉州商人 傅旋 고려 禮賓省의 帖을 가지고 송나라에 도착하여, 음악과 藝人을 보내주기를 바람.(4) 宋商 林寧 등 35명이 고려에 가서 土產物을 바침. |
| 高麗宣宗四年三月 北宋哲宗元祐二年 1087年 | 徐戡 | 泉州商人 徐戡 등 고려에 가서 목판본 『夾注華嚴經』을 바침.(5) |
| 高麗宣宗五年 北宋哲宗元祐三年 1088年 | 劉載 | 흔쾌히 옷을 떨고 해동으로 감.(6) 宣宗 때 상선을 타고 옴. 詩賦로서 시험을 보고 千牛衛錄事參軍에 제수됨. 睿宗朝에 左散騎常侍, 吏禮部尙書를 지냄. 13년에 司空尙書右僕射에 제수됨. |
| 高麗宣宗六年十月 北宋哲宗元祐四年 1089年 | 徐成 | 宋商 徐成 등 59명이 고려에 가서 土產品을 바침.(7) |
| 高麗宣宗六年十一月 北宋哲宗元祐四年 1089年 | 徐戡 | 해선 내에 高麗 僧統 義天의 시자, 僧 壽介, 繼常, 穎流, 院子 金保, 裴善 등 5명이 타고 옴. 고려 국왕의 교지를 받들고 杭州에 와서 항주에서 입적한 僧 源 闍黎(釋名 淨源)를 제례를 치름. |
| 高麗宣宗六年 北宋哲宗元祐四年 1089年 | 顏顯 李元贊 | 義天和 송나라의 통신 연락일을 맡음. |
| 高麗宣宗七年三月 北宋哲宗元祐五年 1090年 | 徐成 | 宋商 徐成(綱首) 등 150명이 고려에 가서 土產物을 바침. |
| 南宋高宗初年 | 柳悅 黃節舜 | 泉州 海商이 兩浙西路安撫使 葉夢得의 명을 받들어 고려에 가서 상업을 하고 변경의 정보를 탐색함.8] |
| <p>자료 출처: 鄭維翰: 『高麗史』; 『宋史』卷331, 『羅拯傳』; 『宋史』卷487, “外國三”, 『高麗傳』;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卷261; 蘇軾 『東坡全集』卷56, “奏議”; 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船商』; 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p> | | |

부록: 상기 도표에서 부분 인물과 사건에 대한 보충 설명

- (1) 송상 蕭宗明에 관해 『高麗史』卷7 “高麗 文宗 六年 九月”조에 “宋商 蕭宗明 등 42명이 토산물을 바쳤다.”고 했다. 여기에는 籍貫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高麗 文宗 十三年 八月”조에는 “송나라 천주상 黃文景, 蕭宗明과 의사 江朝東 등이 장차 돌아가고자 하니, 蕭宗明과 江朝東 등 세 사람을 남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蕭宗명이 천주 해상임을 알 수 있다.
- (2) 宋商 林寧과 黃文景에 관해 『高麗史』卷8 “高麗 文宗 十七年 十月”조에 “宋商 林寧, 黃文景이 토산물을 바쳤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멀리 고려로 간 송상임을 알 수 있으나, 籍貫을 명기하지 않았다. 다시 “高麗 文宗 十三年 八月”조에 “송나라 천주상 黃文景, 蕭宗明과 의사 江朝東 등을 장차 돌아가고자 하니, 蕭宗明과 江朝東 등 세 사람을 남도록 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것으로 黃文景은 천주 해상이고, 林寧 또한 이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 (3) 黃愼과 洪萬에 관해 鄭麟趾 『高麗史』卷8, “文宗二”에 “22년(송 神宗 熙寧원년, 1068) 가을 7월 신사일에 송나라 사람 黃愼이 알현했다. 황제는 江淮兩浙兩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 羅拯을 불러 …… 황신 등을 보내어 천자의 뜻을 전하도록 상주했다. 국왕은 기뻐하고 접대를 우대하도록 했다.”고 했고, 또 “24년(송 神宗 熙寧3년, 1070) 8월, …… 송 湖南荊湖兩浙發運使 羅拯이 다시 黃愼을 보냈다.”고 했다. 또 『宋史』卷331, 『羅拯傳』에 의하면, “羅拯이 閩地에 있을 때 천주 상인 黃謹에 가서 禮賓省에 머물렀다.”고 한다. 또 『宋史』卷487, ‘外國三’ 『高麗傳』에 의하면, “熙寧2년에 그 나라 禮賓省에서 福建轉運使 羅拯에게 보낸 이첩에서 본조(송나라) 상인 黃眞, 洪萬가 와서 轉運使의 밀지를 받들어왔다고 하여 접대를 하고 우호 통교를 맺도록 했다. …… 지금 공문을 黃眞, 洪萬에게 주어 서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1. 黃愼의 이름은 또 黃謹, 黃眞라고 적었다. 2. 黃愼은 천주 해상일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고려 사이의 외교 대문을 다시 연 주요한 사자이다. 3. 黃愼과 함께 고려에 온 자 중에는 천주 상인 洪萬 등이 있다. 4. 熙寧2년에 임지에 나섰고, 후 福建路轉運使의 직책을 겸임한 羅拯은 천주 해상의 상황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다.
- (4) “傅旌이 고려 禮賓省의帖을 가지고 음악 예인 등 사람을 구하였다.”는 일은 李燾가 지은 『續資治通鑒長編』卷261에 수록되어 있으나, 『高麗史』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5) 徐戡의 인물과 일에 관해 『高麗史』에는 송나라 상인으로 칭하고 있고, 그 籍貫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蘇軾은 『論高麗進奉狀』에서 그를 ‘泉州 百姓’이라고 칭했으나,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에는 그를 ‘泉州 客商’이라고 칭했다. 이처럼 徐戡은泉州籍 해상상이 분명하다. 徐戡이 杭州에서 각관한 『夾注華嚴經』 경판 수가 2천9백여 편이고, 蘇軾이 그가 “먼저 고려의 금전을 받아 항주에서 『夾注華嚴經』을 각관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각관이 완성되자 공공연히 해선에 실어 건네주니, 오히려 본국(고려)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 “보수로 받은 은이 3천 량이다.”, 하 나의 작지 않은 매매임이 분명하다. 이 일은 우리에게 徐戡이 고려 조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가 경판 각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고려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것부터 고려 宣宗4년(1087) 3월 고려에 도달하여 경판을 바칠 때까지 그는 이 이전에 자주 송나라와 고려 양 지역을 왕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려 관방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광대한 각관 공정을 어떻게 그에게 위탁시켜 완성할 수 있었을까?

| |
|--|
| <p>이뿐만 아니라 徐戡은 또 북송 哲宗 元祐4년(1089) 11월에 “마음대로 海舶을 내어 高麗僧統 義天의 부하 시자인 僧 壽介, 繼常, 穎流, 院子 金保, 裴善 등 5명을 승선 시켰다. 이들이 가지고 온 本國 禮賓省의牒에는 고려 국왕의 교지를 받들어 杭州에 와서 杭州에서 임직한 僧 源闍黎(淨源)을 추모했다. 陳高華 선생은 고려에 간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당해 연간에 돌아오지만, 또한 해를 지나서 돌아오기도 한다. 이 일로서 徐戡은 아마도 元祐3년(1088) 혹은 4년(1089)에 또 고려에 가서 무역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高麗史』에는 보이지 않는다.” (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船商』(『海交史研究』 第二期, 1980년))</p> |
| <p>(6) 劉載에 관하여 『高麗史』卷97 『劉載傳』에는 “劉載는 송 천주 사람이다. 宣宗 조에 해선을 따라 왔다. 詩賦로서 시험을 보고 千牛衛錄事參軍에 제수되었다. 睿宗 조에 左散騎常侍, 吏禮部尙書를 역임했다. 13년에 司空尙書右僕射에 있다가 죽었다. 劉載는 문장에 능하고 성격이 소박하여 얻는 것을 섬기지 않았다. 비록 상인과 함께 왔지만, 스스로 입조한 후로 다시는 친지들을 만나지 않았다. 당시 이를 많이 의론했다.” 이외에 『海東金石錄補遺』卷2 尹伊錫이 지은 『劉載墓志』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劉載는 “大宋 천주 溫陵 사람이다. …… 흔쾌히 옷을 털고 해동에 왔는데, 이때가 宣宗 大安5년이다.”(이 자료는 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船商』, 『海交史研究』 第二期, 1980년에서 인용). 이것으로 劉載가 상선을 타고 고려로 간 사건이 宣宗5년(北宋 哲宗 元祐3년, 1088)임을 알 수 있다.</p> |
| <p>(7) 宋商 徐成에 관하여 蘇軾의 『乞禁商旅過外國狀』에 “금년 7월 17일에 이르러 杭州市舶司가 密州關報를 허락했다. 臨海軍狀이 올린 高麗 禮賓院의牒에 따르면 천주 綱首 徐成의 소장에 의하면 ……”라고 했다. 이것으로 『高麗史』에 수록된 송나라 상인 徐成은 천주 해상임을 알 수 있다.</p> |
| <p>(8) 泉州 大商 柳悅, 黃師舜의 일에 관해 明 楊士奇, 黃淮 등이 봉칙 편찬한 『歷代名臣奏議』卷384 ‘四裔’에 “高宗연간에 戶部侍郎 葉夢得이 金人 札子을 논하는 대목에서, …… 葉夢得이 兩浙西路安撫使가 되어 『乞差人至高麗探報金人事宜狀』를 상주하니, …… 신이 있는 浙西 및 浙東路는 밖으로는 해로와 연이어서 있고, 고려와 바다 건너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敵境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일찍이 적이 함부로 동남을 엿본다는 의도를 들었습니다. 만약 북에서 登·萊州에 이르고, 동쪽으로 고려를 빌려 뜻을 올리고 오며, 후 兩浙에서 나오면 모두 멀게는 20일이 되지 않고, 가까이는 5, 7일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이 임지에 도달한 이후 자주 이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본주 해선은 예전부터 고려와 교역하는 것을 맡았다. 그 가운데 그 나라 사람과 무역한 자가 있어 왕왕 그 나라의 산천 형세,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 張綬에게 大商 柳悅, 黃師舜을 불러오도록 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천주 사람이다. 대대로 본주부터 고려로 장사하는 허가서를 받았다. 한 해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며, 고려에 머물다가 대개 한 해를 보낸다.”고 했다. 柳悅과 黃師舜의 고려 행은 송나라 조정을 위해 “해외로 가는 지도 1부를 그렸다.” 葉夢得이 선주 張綬에게 大商 柳悅, 黃師舜을 불러오도록 했다. “금나라 일이 타당하다.”는 일에 대해 물었다. 비록 이 일은 남송 高宗 建炎연간(1127~1130)에 발생했지만, 상주한 바에 의하면 柳, 黃 두 집안은 “대대로 본주로부터 고려에서 장사하는 허가서를 받았다.” 이것으로 柳, 黃 두 집안이 일찍이 북송 시기부터 이미 고려와 장사하는 해상 집안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잠시 이것을 상기도표에 집어넣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p> |

상기 도표와 설명에 근거하면, 우리들은 대략 북송 시대에 고려에 간 천주 사람들의 정황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상기한 것들은 그중의 한 부분이고, 아직 많은 것이 문헌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어 우리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 전체 면모를 엿보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1) 『고려사』에 기재된 북송 시대에 고려에 가서 무역한 송나라 상인은 1백 명 이상인데, 그 가운데 출신지와 성명을 모두 아는 자는 겨우 22명일 뿐이다. 이 중의 천주는 10명, 복주는 2명, 태주는 3명, 명주는 1명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주현(州縣)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남초(南楚) 1명, 양절(兩浙) 1명, 강남(江南) 1명, 광남(廣南) 3명이다. ‘송상(宋商)’으로 지칭한 나머지 10건 중에 반드시 상당 부분이 천주 해상일 것이다. (2) 중국의 관련 문헌 중에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찾은 것은 황신, 홍만, 서전, 서성, 류열, 황사순 등 6명뿐이다. (3) 한국 아주대학 박옥걸(朴玉杰)의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주석에서 언급한 『대각국사문집』에 송도강(宋都綱), 해객(海客) 천주, 천주사람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데, 아쉽게도 필자는 이 『문집』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가운데 천주와 관련된 일련의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북송 시대 고려에 간 천주 사람은 앞서 말한 사례보다 훨씬



『고려사』 중 북송 시대 많은 천주 상인들이 고려국에 간 교역 사료가 기재되어 매우 진귀하다.

씬 많다. 『송사』에 따르면, 북송 후기에 고려의 “왕성에는 중화인들이 수백 명이 있고, 많은 민인(閩人)이 상선을 타고 도착했다.”⁶⁰⁾고 한다. 이른바 ‘민인’은 실질적으로 천주 사람을 주로 지칭한다.

6. 宋商·宋人을 환대한 고려 조정의 태도와 조치에 관하여

북송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천주 상인이 멀리 고려에 가서 교역을 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고려 조정에서 고려에 와서 무역하는 중국 상인들을 후대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에 따르면, “(王城) 남문 밖과 양랑(兩廊)에는 관사가 네 곳이 있다. 즉, 청주(淸州), 충주(忠州), 사점(四店), 이빈(利賓)은 모두 중국 상인과 여행자를 대접하기 위해서이고, 상인이 경내에 도달하면 관리를 보내어 영접하고, 관사가 정해진 연후에 장령(長齡殿)에서 헌상품을 받는다. 그 가치를 계산하여, 방물로써 몇 배로 보상하였다.”⁶¹⁾ 매년 고려국에 중대한 경축 의식이 거행될 때면, ‘송상객(宋商客)’들에게 “자리를 내주어 의식을 참관하도록 하였고, 훗날 상례로 삼았다.”는 예우를 받았다. “국왕의 탄신일에 …… 왕족과 귀신(貴臣), 근시(近侍)들이 장경(長慶)에 모였다. 관사에 머무는 중국 상인도 또한 관리를 보내어 잔치에 참석하도록 했다.”⁶²⁾ 상선을 따라 고려국에 귀화한 자들도 또한 환영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구양정, 유재 등이 모두 고려 조정에 임용되고, 고관직을 수여

60) 『송사』권487, “外國三”, 『高麗傳』.

61) 『선화봉사고려도경』권6, “宮殿二·長齡殿: “賈人之至境 遣官迎勞. 舍館定 然后于長齡(殿)受其獻 計所直 以方物數倍償之.””

62)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권6, “宮殿二·長慶殿: “王誕日 ……大會公族貴臣近侍于長慶. 中國賈人之在館者 亦遣官爲筵伴.”

받았다. 재주가 있는 중국 상인에 대하여 “비밀리 그 능력을 시험하여 녹사(祿仕)로써 유인하거나 혹은 강제로 일생동안 머물도록 했다.”⁶³⁾고 한다.

의심할 것도 없이 천주 해상들이 고려에 가서 무역하는 주요 목적은 풍부한 상업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 보인 태도가 천주 해상이 고려에 가서 무역을 하는 것을 격려하고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7. 북송 조정 금지령 속에서의 천주 해상

주목해야 할 것은 북송과 대요(大遼) 등 국가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송나라 조정은 본국 상인들이 고려를 통해 대요 등의 국가로 나아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사정이 상대방에게 누설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인종 경력연간(1041~1048)부터 시작하여 시장과 상선법과 관련된 일련의 『편칙(編敕)』을 계속해서 내놓아,⁶⁴⁾ 고려와 교통하는 해상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경력편칙(慶曆編敕)』의 규정에 “해상업(海商業)에 나서는 객상은 고려·신라 및 등·래주 경내로 들어갈 수 없다. …… 만약 조약을 위반하거나 해선에 공험이 없으면, 색인들을 체포하고 아울러 선박 화물을 몰수한다. 화물의 가격을 따져 절반의 금액을 고발인에게 상금으로 충당하고, 죄인에게 규제를 위한 죄를 묻는다.”⁶⁵⁾ 이 이후에 내놓은 『가우편칙(嘉祐編敕)』(인종, 1056~1063)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신종의 『희녕편칙(熙寧編敕)』(1068~1077)에는 진일보한 규

63) 『송사』권487, “外國三”, 『高麗傳』: “密試其所能 誘以祿仕 或強留之終身.”

64) 소식(蘇軾): 『동파전집(東坡全集)』권5, 『乞禁商旅過外國狀』.

65) 같은 책. “客旅于海路商販者 不得往高麗·新羅及登·萊州界. …… 如有違條約及海船無公憑 許諸色人告捉 船物并沒官 仍估物價 錢支一半與告人充賞 犯人科違制之罪.”

정이 있었다. “배를 타고 바닷길로 …… 북쪽 고려·신라 및 등·래주 지계에 가서 장사하는 자는 각각 도형 2년에 처한다.⁶⁶⁾

신종 원풍2년(1079)에 이르러, 비록 금지령이 조금 느슨해졌지만, “상인들이 고려에 들어가 재물이 5천 민(緡)에 이르는 자는 명주에 이름을 올리고, 그 해에 선박을 되돌려오겠다는 보증에 책임진다. 되돌려오지 않는 자는 도적 판매 법령과 동일하게 처리한다.⁶⁷⁾ 그러나 중국 해상이 고려로 나가 매매하는 것을 제한시켜, 반드시 명주시박사에 이름을 올리고 그 해에 선박을 되돌려오겠다는 보증에 책임진다.”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풍8년(1085)의 『편칙』은 여전히 “항주, 명주, 광주 이외에서 해상(海商)의 선박을 출발시키면 규제 위반으로 논하며 관에서는 이를 사면시키거나 감면할 수 없다. 상인들은 해로로 여러 번국과 장사를 할 수 있으나 대요국과 등·래주와는 이를 금한다. 여러 번국에서 선박에 동선하여 입공하거나 장사하기를 원하면 해도 된다.”⁶⁸⁾ 『원우편칙(元祐編敕)』(哲宗, 1086~1094)에는 비록 여러 번국과 장사하는 해상(海商)들이 반드시 항주, 명주, 광주 등 3개 주의 시박사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공험을 청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거나, 혹은 배를 타고 바닷길로 계하(界河) 및 신라, 등·래주의 경계에 들어가면 도형(徒刑) 2년에 2백 리 밖으로 보낸다.⁶⁹⁾

북송 조정이 개별 상인이 북쪽으로 고려와 등·萊州로 가서 교역하는 것에 여러 제한을 시키는 금지령은 천주 해상이 고려로 가서

66) 같은 책, “乘船自海道……往北界高麗 新羅及登 萊州界商販者 各徒二年.”

67) 『송사』권186, “食貨下八·互市舶法: “賈人入高麗 賫及五千緡者 明州籍其名 歲責保結 引發船 無引者如盜販法.”

68) 소식: 『동과전집』권5, 『乞禁商旅過外國狀』: “諸非杭·明·廣州 而輒發海商船舶者 以違制論 不以去官赦降原減 諸商賈由海道販諸蕃 惟不得至大遼國及登·萊州 卽諸蕃願附船入貢或商販者 聽.”

69) 같은 책, “不請公据而擅行 或乘船自海道入界河及往新羅 登 萊州界者 徒二年 五百里 編管.”

무역하는 것에 막대한 영향을 입혔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원풍8년 이전에 천주 해상이 고려에 가서 교역하는 데 있어 유일한 경로는 항주 혹은 명주 시박사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

다만, 진고화(陳高華) 선생은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海商』에서 “우리들이 제일부분에서 열거한 19건의 천주 해상을 보면, 원풍9년 이전에 속하는 것이 15건이다. 이것은 북송 조정의 금지령이 한갓 종이에 불과하고, 결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로 간주하였다. 금지령이 효과를 누리기 힘들었던 원인은 “송나라 조정은 최소한 지방 정부에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금지령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인들이 고려에 가서 교역할 것을 지지하거나 격려하였다. 만약 북송 조정이 진정으로 금지령을 엄격하게 집행했다면, 많은 상인들이 해로로 고려에 가서 장사하는 것을 상상하기란 매우 힘들다.” 예를 들면 희녕원년(1068) 천주 상인 황신(黃愼)이 고려에 갔을 때 먼저 복건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고, 정부의 뜻을 전달해주는 임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민·절(閩·浙) 백성들을 경계시켜서 첩자를 두 절시키기’ 위하여 천주 해상 서전(徐戡)이 “공공연히 (고려)와 교통하고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다.”는 이유로 끝끝내 송 조정의 금지령 아래의 죄인이 되어 “성지를 받들어 서전이 1천 리 밖의 주군(州軍)에 편입시켰다.”⁷⁰⁾는 것도 보았다.

70) 소식: 『동과전집』권5, 『乞禁商旅過外國狀』.

8. 남송 이후 천주와 고려의 해상교통 문제에 관하여

남송 시대 이후 송나라는 비록 중국 북방의 대부분 지역을 금나라에 점령당했지만, 수도를 항주로 옮김에 따라 천주는 오히려 정치의 중심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때 남송 조정은 해외무역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예를 들면 고종 소흥(紹興)7년(1137)의 조서(詔書)에서 “시박(市舶)의 이윤이 가장 크다. 만약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얻는 바가 만 가지로써 어찌 백성들에게서 취하는 것보다 낮지 않겠는가?”⁷¹⁾ 연이어 소흥16년(1146)에 강조해서 말하기를 “시박의 이윤이 제법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니 옛 법에 적당히 따라 먼 곳의 사람을 불러들여 재화를 쌓도록 한다.”⁷²⁾고 했다. 해외무역은 남송 조정에게 큰 재정수입을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면 “소흥연간 말에 (천주, 광주의) 두 시박사에서 매매이익을 나눈 세액이 한 해에 200만민(緡)을 거두었다.”⁷³⁾ 이것으로 천주와 광주의 해외무역 수입이 이미 남송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원나라 시대 천주항은 유례없는 번영을 구사하여 상업과 무역항구를 더욱 국제화시킨 전성기였다. 아랍 사람의 후예 포수경(蒲壽庚)을 대표하는 해상집단이 천주의 대외무역권을 장악하고 대량의 해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 사서에는 “제거천주박사(提舉泉州舶司) 포수경은 해외 시박의 이익을 독점한 것이 30년이요,⁷⁴⁾ 뛰어난 장사치가 바다를 오가면서 쌓은 재산이 수만이고, 집안 시동(侍童)이 수천이며⁷⁵⁾ 남해 제국이 복종하지 않은 곳이 없다.”⁷⁶⁾라고 기술

71) 『宋會要輯稿』권1124, 職官四四之二十: “市舶之利最厚 若措置合宜 所得輒以萬計 豈不勝取之于民?”

72) 『宋會要輯稿』권1124, 職官四四之二四: “市舶之利頗助國用 宜循舊法 以招徠遠人 阜通貨賄.”

73) 李心傳: 『建炎以來朝野雜記』갑집권15, “市舶司本息: “紹興末 (泉, 廣)兩舶司抽分及和買 歲得息錢二百萬緡.”

74) 『(道光)晉江縣志』권75, “雜志”上 『蒲壽庚傳』: “蒲壽庚提舉泉州舶司 擅番舶利者三十年.”

하였다. 원나라 시대 천주 해외무역의 번영에 대하여 원나라 사람 오징(吳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천주는 7민(七閩)의 도회지이다. 먼 외국의 물건과 진귀한 보물이 모여들고, 머나 먼 지역의 부자 거상이 살고 있어 천하의 최고라고 불린다.”⁷⁷⁾

그러나 남송에서 원대(1127~1368)까지 5백여 년이라는 좋은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무수히 많은 역사 문헌과 국내외 논저물에서 북송 시대에 천주 해상이 고려로 교통하는 찬란한 사료와 문장을 다시 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우리는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에서 남송 초기 양절서로전운사(兩浙西路轉運使) 섭몽득(葉夢得)이 천주 대해상 유열(柳悅), 황사순(黃師舜)에게 위탁하여 고려에 가서 무역을 하는 동시에 송나라 조정을 위해 변경의 사정을 탐색하고, ‘해외로 가는 지도 한 부를 그려달라’는 사건 외에, 남송 기간에 천주시막제거(泉州市舶提舉)에 임명된 조여활(趙汝活)이 일생동안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편찬한 『제번지(諸蕃志)』조차도 후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사료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실령 살짝 기술했던 것도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고려 방면의 사료도 이와 같았다. 예를 들면 『고려사』에 1059~1301년(북송 영종 가우4년, 고려 문종13년~원 성종 대덕5년, 고려 충렬왕27년) 이후에 고려에 가서 무역을 경영한 중국인에 대하여 거의 모두 ‘송상(宋商)’ 또는 ‘송도강(宋都綱)’으로 통칭하고, 그들의 적관(籍貫)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오랫동안 천주 학술계 인사들로 하여금 심하게 당혹하게 만든 문제가 되었다.

75) 『(嘉靖)藁城縣志』권8, 왕磐(王磐): 『藁城令董文炳遺愛碑』: “以善賈往來海上 致產巨萬家 僅數千.” 이옥곤(李玉昆): 『泉州海外交通史略』 제14장 『蒲壽庚與元代泉州海外交通』, 廈門大學出版社, 1995년에서 인용.

76) 『(嘉靖)藁城縣志』권9, 王磐: 『董文炳神道碑』: “南海蠻夷諸國 莫不畏服.” 상기 이옥곤의 책에서 인용.

77) 오징(吳澄): 『吳文正集』권28, 『送姜曼卿赴泉州路錄事序』: “泉 七閩之都會也. 番貨遠物 異寶奇玩之所淵藪 殊方別域 富商巨賈之所窟宅 號爲天下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아주 많다. 그중에는 북송이 북방 요·금 민족과의 관계 악화로 항로를 저지 받았고, 고려 내부 정국이 불안정하며,⁷⁸⁾ 천주 해상이 해외무역의 중심을 남해 밖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아프리카 등 국가와 지역으로 치우쳐졌으며, 역사 문헌자료의 결여 등등의 원인이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말 명초에 강소 태창 유가항에서 ‘천주양지사(泉州兩義士)’인 손천부(孫天富), 진보생(陳寶生)의 사적에 관한 사료로부터 우리들은 이 시기의 천주 해상이 여전히 고려와의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孫天富 字維善. 陳寶生 字彥廉. 晚居太倉 以周窮拔難爲事. 初皆泉州人 天富爲人外沈以毅而內含弘; 寶生更明秀 皆勇于爲義 寶生父思恭賈海而死 天富憫其幼孤 約爲兄弟 其出資貸泉 復謀貿易于海外諸國 迭留養母 時或相輔而往 所涉異國 自高句麗 閩婆 羅斛等國 凡十易寒暑而返 彼此不稽子本 無毫發私 且兩人涉海 去中國數千里 足之所履無慮數十國 皆能以孝友信義代道其人 無不觀感興起 各蠻語推崇云云 譯之者 “泉州兩義士也”.⁷⁹⁾

명 가정(嘉靖)23년(조선 중종39년, 1544)에 천주 동안현(同安縣) 상인 이왕걸(李王乞) 등 150여 명이 일본으로 가서 매매를 할 때에 타고 간 해선이 폭풍에 의해 조선에 표류한 사건이 있었다.⁸⁰⁾ 이것은 최소한 명나라 중엽까지 천주 상인이 여전히 동북아 해상 항해 상에 활약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한반도에서 상업 무역활동을 진행했을 것이다.

78) 박옥걸(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2 “事例內容的分析”, 黃時鑾主編 “第二屆韓國傳統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韓國傳統文化·歷史卷』, p.59, 學苑出版社, 2000년에 보임.

79) 상열(桑悅): 宏治『太倉州志』권7, “義行”. 見太倉縣紀念鄭和下西洋籌備委員會, 蘇州大學歷史系蘇州地方史研究室編『古代劉家港資料集』, 제98월, 南京大學出版社, 1985년

80) 오합집(吳哈輯):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p.1367, 中宗大王實錄十, 中華書局, 1980년.

제이부분 천주와 신라·고려 관계 문물 사적

1. 新羅村과 新羅寺

1) 천주 남안현(南安縣) 신라촌을 찾아서

청 강희(康熙)11년(1672)에 찬수된 『남안현지(南安縣志)』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이십이도는 (남안)현 서북 20리에 있으며, 圖一이다. 송나라 때 禮順리이며, 唐安鄕에 속해 있다. …… 鄕村은 12촌락이 있는데, 後田, 長廳, 新羅, ……:81)

현지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들은 천주 진강(晉江) 상류 남안현 경내 쌍계구(雙溪口)와 가까운 곳에 신라촌이라는 촌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안 『풍주지(豊州志)』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촌은 원·명·청대에 있어서 남안현 二十二都(원대 이전에는 미상)에 속해 있었다. 민국 이후에는 남안현 풍주진(鎭)의 관할로 바뀌었다. 1952년에 선하향(仙河鄕)이 성립되자, 신라촌은 풍주진 선하향 관할에 속해 있었다.⁸²⁾ 1999년 7월에 신라촌은 풍주진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미진의 관할로 귀속되었다.

2004년 9월 29일에 필자는 본 박물관 학술부 이옥곤(李玉昆), 진려화(陳麗華) 등 두 분 선생님을 초빙하여 신라촌으로 나가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81) 『(康熙)南安縣志』권1, “疆域志”: “二十二都 縣西北二十里 圖一. 在宋爲禮順里 統于唐安鄕. ……鄕有十二: 曰后田 曰長廳 曰新羅 ……”

82) 『풍주지』제1장. “建置·豊州鎭古今地名對照表”, pp.27~32, 南安市豊州鎭 『豊州志』編寫組編纂, 1996년, 참고.

신라촌을 얘기하자면, 간단하게나마 원래 소속된 행정 중심지—풍주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풍주는 오늘날 천주 진강 상류의 서북쪽 강안에 소재한다. 풍주는 고대 복건 민남 지구의 발상지이자



풍주진(豐州鎮) 행정 구역 속의 신라촌(新羅村)

가장 빠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한 오랫동안 군, 주, 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이다. 동한 오 영안(永安)3년(260)에 민남 지구의 첫 번째 현 치소—동안현(東安縣)이 이곳에 설치되었다. 그 관할 구역은 오늘날 보전(莆田), 천주(泉州), 하문(廈門), 장주(漳州) 등 4개 시를 포함하고 있다. 당 구시(久視)원년(700)에 사회 정치와 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서 풍주와 5km 떨어진 곳에 천주도독부(泉州都督府, 오늘날 천주 시내)를 설치했고, 원래 풍주에 있었던 무영주(武榮州)의 치소도 이곳으로 옮겨와 훗날 천주가 되었다.⁸³⁾ 그러나 풍주는 남안현의 치소가 되었다. 1937년 4월에 남안현 치소가 비교적 내륙인 계미진(溪美鎮)으로 옮겨갔고, 이로부터 풍주는 진급(鎭級) 정부의 소재지로 강등했다.

신라촌은 풍주진으로부터 불과 수 km 떨어져 있다. 진강 중류의

83) 泉州市地方志叢書:『泉州市建置志·沿革』, 泉州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海峽文藝出版社出版, 1993년 참고.



천주 사람의 젖줄 강 -진강변에서 멀리 바라본 신라촌

천주와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수로 교통의 요충지인 쌍계구와 인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무릇 상류 지역의 남안, 안계(安溪), 영춘(永春), 덕화(德化) 등 4개 현에서 나오는 도자기, 대나무, 목재, 산지 생산물, 토산품 등이 수로를 이용해서 천주부로 이송하려면, 반드시 신라촌 경내를 통과해야만 한다. 현지인의 진술에 따르면, 예전에 촌락 주민이 외지로 나가는 교통편에 대부분 수로를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 신라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략 1,800여 명이고, 왕씨가 가장 많으며, 단성씨(單姓氏)에 속한다.(촌락 주민들은 관습적으로 씨족 성씨로서 인구 숫자를 계산하며, 실제 촌락에는 외부에서 시집온 다른 성씨의 부녀자들이 많이 있다) 주민들의 경제 소득원은 주로 화훼, 묘목 및 채소, 과수 생산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촌락에 왕씨들이 최초의 원주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왕씨 사람들은 명나라 초에 이곳으로 입주하여 지금까지 6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주민들은 신라촌의 창건 역사와 촌락명의 유래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촌민위원회도 이곳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원 신라사(新羅寺)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촌의 원주민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천재지변이나

인재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 『豊州志·大事記』에 의하면

至正13년(1353) 7월에 해수가 하루에 세 차례 밀려왔다. 이 해 천주, 남안에 기근이 들어 아사한 자가 매우 많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무리 지어 밖으로 가 먹을 것을 찾았다.

至正14년(1354)에 남안에 큰 한발이 들어 곡식을 땅에 심을 수 없었다. 그 해에 커다란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洪武4년(1371)에 큰물이 일어나 잠긴 민가가 무수히 많았다.⁸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천재지변을 통하여 신라촌의 원주민들이 재난을 입어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 지정(至正)연간(1341~1368)에 촌락 가운데 있던 신라사가 커다란 화재로 소실된 이후 명 홍무(洪武)18년(1385)에 순종(純宗) 스님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찰이 훼멸되고 중건된 기간은 최소한 2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촌락 경제 환경과 생활 질서가 이미 심각한 파손을 입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2) 신라촌 가운데 신라사

신라사에 관해 『팔민통지(八閩通志)』와 『남안현지(南安縣志)』는 모두 간단하게 기술해 놓았다. 『팔민통지』에서

(남안현)신라사는 22도에 있다. 송나라 말에 창건되었고, 國朝(명) 홍무18년에 중건했다.⁸⁵⁾

84) 『豊州志·大事記』: “至正十三年(1353) 七月 海水日三潮 是年 泉州 南安飢荒 餓死甚多 飢民結隊外出覓食.”

같은 책: “至正十四年(1354) 南安大旱 種不入土 其歲大飢 人相食.”

같은 책: “洪武四年(1371) 大水 漂沒民居無數.”

85) 명(明) 장중소(張仲昭) 『팔민통지』권77, “寺觀·泉州府南安縣新羅寺”, p.827, 福建人民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 『남안현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신라사는 이십이도에 있으며, 송나라 말에 마을 사람 가사(柯使)가 땅을 내놓아 지었다. 원 지정연간에 화재를 입었고, 명 홍무(洪武) 을 축년(18년)에 승(僧) 순종이 중건했다. 지금은 황폐해졌다.⁸⁶⁾

이상 기록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신라사가 늦어도 남송 말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촌에 신라사를 창건한 가사는 신라국적의 사람인가? 아닌가? 가사의 신분에 대해 고증할 길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토지를 희사하여 신라사를 건립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집안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촌에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라사는 원 지정연간(1341~1368), 즉 원나라 말기 대화재가 일어난 시기에 해당된다. 화재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원나라 말의 전란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문헌 자료가 없어 이 또한 고증할 길이 없다. 더욱 유감인 점은 명 홍무18년(1385)에 승 순종이 사찰을 중건한 것과 사찰에 세워졌던 비문, 사찰 건축 양식 혹 기타 문물들이 사라져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사찰터에는 민가 건물이 들어섰다. 아마도 사찰에 사용된 건축 재료는 민가를 지을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지인들이 말하기를 예전에 촌락에는 사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화상사(和尚寺)’라고 불렀다. 이 중 비교적 학식을 갖춘 王培元 선생이 말하기를 이 사찰은 ‘자수선원(資壽禪院)’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기억으로 이 사찰은 이미 황폐화되었고, 언제 훼손

出版社, 1999년: “(南安縣)新羅寺 在二十二都 宋季建 國朝洪武十八年重建”

86) 『(강희)남안현지』권20, “雜志·寺”: “新羅寺在二十二都 宋末里人柯使舍地建 元至正火. 明洪武乙丑(18년) 僧純宗重建 今廢.”



『(康熙)남안현지(南安縣志)』 중 신라사(新羅寺) 기록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전해오기로 고대(조대 미상)에 한 황제가 이 사찰에 머물렀고, 그 후 모든 관원들은 이 사찰을 지나갈 때, 반드시 말에서 내려 참배하였다고 했다. 촌락에는 아직 ‘관로하(官路下)’라고 부르는 곳이 남아있다.

왕 선생이 말하는 사찰은 아마도 신라사 부근 또는 인근에 소재한 보은원(報恩院)을 말하는 것 같다. 『(강희)남안현지』권2 「강역지(疆域志)」에서 “용광산(龍光山)은 (남안)현 서북쪽 20리에 있으며, 이십이도에 속한다. 위쪽에는 용광원(龍光院)이 있는데, 창건할 때 밤에 용이 날아와 온 하늘에 빛이 피어올라온 곳으로 명명했다. 아래쪽은 보은원(報恩院)과 신라원(新羅院)이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보은원과 신라원은 모두 이십이도 용광산 아래에 있었다. 왕 선생이 말한 고시는 자못 보은원과 부합되는 듯하다. 어떠한 문헌에서도 소위 ‘자수선원’이 신라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남안현 경내에는 ‘자수선원’이 있었지만, 소재지가 九都에 있었고, 결코 二十二都에 있지 않았다.⁸⁷⁾

이 밖에 우리들은 상기 기록을 통해 신라사의 또 다른 이름이 신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필자가 남안 이십이도에

87) 이휘량(李輝良): 『南安寺觀』, 福建省南安市宗教局編, 1996년

속해 있는 신라촌과 신라원을 당나라 시대 중국 동북부지역의 신라촌·신라원과 연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연상 작용을 하게 되었다.

3) 당나라 시대 중국 황해 연안지역에도 신라촌과 신라사가 있었다

신라촌과 신라사의 명칭으로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수 천리 밖의 고대 신라 국가를 재빨리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신라촌·신라사는 신라 국가와 도대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이름만 같았던 것인가? 일본승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당나라 시대 중국 동북부 황해 연해안지역에는 몇 몇 신라인의 교민지역이 존재했다. 이것은 ‘신라촌’·‘신라방’이라고 불렸으며, 또 신라 교민이 종교활동을 하고 신라 객승(客僧)을 접대하는 사찰은 ‘신라원’이라고 불려졌다. 여기에 대해 산동대학 진상승(陳尙勝) 교수가 그의 저서 『中韓交流三千年』에서 종합적이고 상세한 고증을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신라촌은 주로 登州 牟平縣(오늘날 乳山縣 연해 지구를 포함), 文登縣(오늘날 榮成市을 포함), 萊州의 卽墨縣, 密州의 諸城縣, 海州의 東海縣, 泗州의 漣水縣 등 농촌지역에 있고, 신라방은 楚州, 揚州 등 성곽 안에 있었다. 전자의 신라 교민은 주로 농업, 목탄업, 제염업, 조선업과 선박 수리업에 종사했고, 후자의 신라 교민은 주로 상업과 운수업에 종사했다. 이 밖에 登州, 靑州, 淄州 등지에 일종의 ‘신라원’이라고 부르는 기구가 있었다. 신라원은 신라 교민이 사찰 내에서 전적으로 객승들을 접대하기 위한 객사이다.⁸⁸⁾

또 진 선생이 말하기를

88) 진상승(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pp.19~20, 文史知識文庫, 中華書局, 1997년에서 인용.

대당무역을 종사하는 많은 신라 상인들 가운데 張保臯는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 장보고가 경영한 대당무역은 일찍이 체계를 갖춘 조직이 경영을 책임지고 방대한 선단이 운송을 책임졌다. 일본승 圓仁이 당나라를 여행할 때 일찍이 장보고가 파견한 大唐賣物使 崔暲으로부터 환대와 위문을 받았다. 이러한 ‘大唐賣物使’의 직무는 실질적으로 장보고가 임용한 대당무역을 관장하는 ‘사장’이었다. 圓仁의 기록으로 보아 崔暲은 일찍이 당나라 登州, 泗州, 楚州, 揚州 등지를 왕래하며 활동했다. 당나라 경내의 신라촌과 신라방은 또한 장보고가 경영하는 대당무역의 주요한 기지였다.⁸⁹⁾

라고 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주 남안현의 신라촌은 산동 등주, 청주, 치주 등지의 신라촌과 같고, ‘신라’ 이름으로 명명된 불교 사찰을 건립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가 언급한 『남안현지』의 기록에서 증명할 수 있다.

(2) 중국 동북부 지구의 신라 교민이 건설한 ‘신라촌’은 주로 수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동 모평(牟平), 문등(文登), 래주(萊州) 즉묵(卽墨) 등지는 멀리 남방의 천주 남안현 풍주에 소재한 신라촌과 처해있는 지리적 환경이 극히 흡사하다. 이들 모두 중국의 대외 해상교류에 중요한 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나라 시대에 신라국은 대당무역의 장보고 해상집단과 ‘대동매물사(大唐賣物使)’를 대표하는 최훈(崔暲)은 당나라 경내의 신라촌과 신라방을 대당무역을 경영하는 주요한 기지로 삼았다. 이 세계적인 명성의 해상집단은 활동 범위를 중국 동북부 연해안 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동남 연해안 지구까지 확대했다는 말인가?

(3) 필자가 제일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당말 오대 시대에는 신라국과 민국(閩國) 사이에 일종의 아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국에서 온 해상집단 또는 이민집단이 천주 남안 ‘신라

89) 같은 책, pp.58~59.

촌' 지방을 선택하여 그들의 해상 거점과 취락지로 삼았던 말인가?

물론 더욱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앞으로 주목하고 심도 있는 연구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엔닌이 천주를 지나갔다면, 그의 유람기에 사람들을 흥분시킬만한 기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4) 송나라 시대 신라와 고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문제에 관하여 필자가 신라·고려와 관련된 역사문헌을 조사해보니 상당히 흥미 있는 기록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북송 조정이 반포한 칙령을 편찬한 책자, 즉 경력(慶歷, 1041~1048) 칙령집, 가우(嘉祐, 1056~1063) 칙령집, 희녕(熙寧, 1068~1077) 칙령집은 모두 고려와 신라를 각각 두 국가로 보고 있으며, 또 요나라와의 해상교통을 방지하기 위해 산둥 등주, 내주 등 두 곳의 중요한 항구가 고려·신라와 무역 통상하는 것을 금지시켰다.⁹⁰⁾ 그러나 사실상 송나라가 이 시기에 반포한 칙령에는 신라국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한반도를 통치한 군주는 고려 국왕이었다. 우리들은 편찬자 또는 칙령 작성자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둘째, 북송 지화(至和)3년(1056)과 가우3년(1058)에 두 차례 천주 지주(泉州知州)로 임명된 채양(蔡襄)이 천주 '안정당(安靜堂)'에서 『여지보(荔枝譜)』를 저술할 때, 당시 북주 여지(荔枝)제품(일종의 절임 제품)을 수출한 지역으로 신라국으로 기술했고, 고려국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福州荔枝)初着花時 商人計林斷之以立券 若后豐寡 商人知之 不計美惡 悉爲紅鹽(去聲)者 水浮陸轉以入京師 外至北戎 西夏 其東南舟行新

90) 소식 『동파전집』권58, 『乞禁商旅過外國狀』.

羅 日本 琉球 大食之屬 莫不愛好 重利以酬之. 故商人販益廣 而鄉人種
 益多 一歲之出 不知几千萬億. 而鄉人得飮食者益鮮矣 以其斷林鬻之也.
 日至衆 唯“江家綠”爲州之第一. 91)

사실 채양이 천주지주로 있을 때 천주 해상들이 고려로 가서 무역을 하는 사정에 대해 얼마간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상의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가 혹 『려지보』를 저술할 때 천주에 거주한 신라 교민 후예들을 만났을 것이다. 이 교민 후예들은 연이어 북건과 고려를 오가는 항로에서 해상무역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채양이 그들에게 구매한 여지제품을 어느 곳으로 운송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옛 국가를 그리워하는 정서에서 목적지를 신라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의 왕조 교체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감정을 토로했다.

셋째, 앞에서 들었던 실례가 북송 시대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남송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남송 영종(寧宗) 가정(嘉定)17년(1224)에 북건노시박제거(福建路市舶提舉)에 임명되었고, 또 이종(理宗) 보경(寶慶)원년(1225)에 권천주시박(權泉州市舶)을 겸직했던 조여팔이 저술했던 『제번지』 가운데에도 신라국을 천주와 해상교통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기술했고, 고려국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천주를 관장하고 북건에 나가 대외무역을 담당한 시박제거장관(市舶提舉長官)은 천주와 고려에 이루어진 해상교통 무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양박문(楊博文) 선생이 『諸蕃志校釋』 「전언」에서 소개하기를 조여팔이 『제번지』를 저술할 때 시박제거의 신분과 직책의 편리함으로 “여가를 내어

91) 진경원(陳慶元), 구양준(歐陽俊), 陳貽庭校注: 『蔡襄全集』권30, “荔枝譜” 제3, p.678, 福建人民出版社, 1999년.

여러 번국의 지도를 펼쳐보았고, …… 외국 상인에게 물어 그 나라 명을 열거하고 풍토, 거리의 연속, 산택(山澤)의 생산품을 말하게 했다. 중국어로 번역하고 추잡스러운 것을 삭제하며 사실만 남겨놓았다.”고 했다.⁹²⁾ 조여팔이 저술할 때 여러 번국의 지도를 열독한 것 외에 대부분 외국 상인을 방문하여 저서에 적을 소재들을 찾았다. 그렇다면 조여팔이 왜 그의 저술에서 고려국을 기술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도 채양(蔡襄)의 경우처럼 탐방한 사람 가운데 신라 교민의 후예가 있었고, 그들의 신분은 상인, 즉 소위 외국의 상인이므로 여전히 신라에 대해 일종의 옛 국가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시공상의 연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고향 혹은 조국에 대한 인식과 기억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대해 필자는 하나의 조그만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 1월 원래의 천주부에 속해 있는 동안현 일대에서 족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하는 도중에 同安縣政協文史辦公室 黃主任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을 얘기해주었다. 지금 동안·하문 일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공덕 도량을 닦을 때 공덕 팻말에는 모두 ‘福建省 泉州府 同安縣 ××都 ××村 ×公 ××’이라는 글자를 적는다. 이러한 작성법에 대해 필자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다. 동안과 하문(예전에 동안현 가화리에 속함)이 천주로부터 분리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기에 이 지역이 초기에 천주의 관할지역에 속했었다는 관계를 아는 사실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이러한 역사 근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원인에 대해 물어보니, 하늘에 계신 조상으로 하여금 원래 귀속된 곳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

92) 양박문(楊博文): 『諸蕃志校釋』, 『前言』, 中外交通史迹叢刊, 中華書局, 1996년에서 인용.

다. 현지인들은 만약 이렇게 적지 않으면, 조상의 영혼이 원래 집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에서 언급한 채양과 조여괄이 상인들을 탐방했던 진실된 사정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 남안의 신라촌은 당나라 시대에 천주에 온 신라국 교민의 취락지이고, 신라사는 남송 말 가사(柯使)가 토지를 회사하여 건립하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 교민들이 고국을 기념하는 상징적 종교 장소와 고국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활동 장소였기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작았고, 훗날 가사가 자선활동을 하여 비로소 사원의 규모가 확충되었을 것이다. 가사는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이 사적(史籍)에 오르게 되었다.

2. 高麗厝와 安平 高氏

1) 천주 남안현의 고려조(高麗厝)

천주 남안현 금도진(金淘鎭)에는 심휘촌(深輝村)이라는 행정촌이 있다. 옛날에는 남안현 십삼도에 속해 있었다. 12개 자연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 주민은 거의 섭씨(葉氏)이다. 12개 자연촌 가운데 ‘고려조(高麗厝)’라고 부르는 자연촌이 있다. 현지민의 소개에 따르면, 고려조는 원래 고씨(高氏) 집성촌이었다. 명말 청초에 섭씨들이 이 촌락으로 이주해온 이후에 고려조의 고씨 주민들은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점차적으로 이주해 나갔는데,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는 현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고려조에 비록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섭씨 사람들의 취락지가 되었으나, 촌락 명칭은 여전히 남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남안현 십삼도(十三都)에 소속된 고려조(高麗厓) 모습

2) 高麗厓의 주인을 찾아서

고려조(高麗厓)와 고씨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자는 인구성씨 분포자료와 전답 조사를 통해 원래 십삼도에 속해 있는 촌락에는 이미 고씨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천주 각 현의 인구 가운데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고씨 집안을 탐방하여 집안의 족보들을 조사하고, 집안들이 외지로 이주한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천주 안계현 대평향(大平鄕)에 소장된 강희(康熙)32년(1693) 제팔차 중수본 『안평고씨족보(安平高氏族譜)』의 『세계지도(世系支圖)』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았다.

(大平支)大宗第二十二世: 高童治는 南安 十三都로 이주했다.⁹³⁾

93) 康熙32년 중수본 『安平高氏族譜』권수 『世系支圖』:“(大平支)大宗第二十二世: 童治, 移南安十三都.”

고동치(高童治) 이하에는 23대손 1명, 24대손 5명, 25대손 9명이 있다. 또한 고동치가 외지로 나간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은 25대손, 즉 강희32년 족보를 수정할 때에 이르러 고동치 본인을 포함하여 4대나 번성하여 모두 16명이나 되어 집안 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번성해나갔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03년 중수본 안계 대평향 『발해·대평고씨족보(渤海·大平高氏族譜)』에서 필자는 단지 이러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대종 제22세)고동치 公은 고손(高孫) 公의 세째 아들로 남안 십삼도로 이주했다. 생졸년과 배우자, 장지 등이 모두 유실되어 그 흔적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⁹⁴⁾

천주 지구의 집안들이 족보를 중수하는 관례로 비추어보아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대에 수정된 족보들을 참고했다. 무릇 원 족보 가운데 기재된 자손이 분파되어 외지로 나간 자가 있으며, 가능한 이들과 연결하거나 혹은 사망으로 탐방하며 이번에 수정할 족보에 죽인들의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구하여 모았다. 근본적으로 외지로 나가 분파된 후예들의 죽인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새로 수정된 족보에는 ‘생졸년과 배장묘가 모두 유실되어 흔적 미상’ 또는 ‘어디로 갔는지 조사 중’ 등이라는 기록을 남긴다.

명백하게도 이러한 정보는 우리들이 십삼도에서 얻은 탐방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고동치가 전한 자손들이 이미 떠나간 곳을 알지 못해 원 집안의 족속들과 연락이 끊겼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최소한 우리에게 고동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계현 대평향에서 남안현 십삼도로 이주해왔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의 생졸 연

94) 安溪大平 『渤海·大平高氏族譜』권2, “大平開基始祖衍派傳記”, 2003年重修: “(大宗第二十二世)童治公 孫公三子. 移居南安十三都. 生卒配葬俱失. 發迹未詳.”

대, 언제 어느 곳에 이주했고, 고려조(高麗厝)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족보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족보 기록에 따르면, 우리들은 다만 고동치의 둘째형인 고불신(高佛信)의 세 아들 생몰연대를 알 수 있다. 첫째 아들 고적서(高積瑞)는 명 성화(成化)11년(1475), 둘째 아들 고적곤(高積昆)은 성화14년(1478), 셋째 아들 고적완(高積完)은 각각 홍치(弘治)원년(1488)에 태어났다. 만약 한 세대의 차를 25년으로 계상한다면, 고불신의 출생은 대략 1450년 전후이다. 즉, 고동치의 출생 시기는 대략 정통(正統) 말년과 경태(景泰) 초년 사이일 것이다.

고동치는 삼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외지로 떠난 사람이다. 일반 남자의 경우에는 20세 전후에 이미 독립 생활할 능력을 갖춘다. 만약 그가 20세 전후에 모생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남안으로 가서 훗날 십삼도의 고려조에 정착했다고 한다면, 그가 외지로 이주한 시기는 대략 성화연간의 어느 해일 것이다.

3)安平 高氏에 관하여

『안평고씨족보』에 따르면, 시조 일청(一淸) 공의 휘는 강(綱)이고, 발해 요양(遼陽)의 후예이다. 당 희종연간에 하남 광주 고시(固始)에서 난을 피해 민지(閩地)로 이주하여 복주(福州) 회안현(懷安縣) 봉강(鳳崗)에 정착했다. 오대 현손 高(이름 원문 누락)가 후주(后周) 현덕(顯德)4년(957)에 봉격수천주군(奉檄守泉州軍)으로 도적들을 막다가 순직하여 천주에 묻었다. 高(이름 원문 누락)의 두 아들 고빈(高鑣)과 고일(高鑰)은 부친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천주로 이주하여 천주 진강현 안평시에 정착했다.⁹⁵⁾ 고일의 아들 고헤련(高惠連)은

95) 安平市는 송나라 때 安海市로 불렀고, 오늘날 泉州 晉江市 安海鎮이다. 晉江 남부 연해안 圍頭灣에 위치하여 송·원 시대 천주의 중요한 상업 무역항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주 외국과 무역하여 경영했다.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권99에는 “安海鎮……古名鸞海。宋初始改爲安。曰安海市。西曰新市。東曰舊市。海舶至。州遣吏榷稅于此

북송 大中祥符(1011)에 천주지주(泉州知州)에 임명되었고, 훗날 병부상서(兵部尚書)에 이르러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 받고 발해군개국호(渤海郡開國侯)에 봉해졌다.('안평 고씨'는 이로부터 천주에 이름이 있었다) 17세대에 이르러 고산(高山)이 원나라 말의 난을 피하여 안평에서 안계현 대평향으로 이주하여 대평 고씨의 시조가 되었다. 윗 글에서 언급한 고동치는 고산파(高山派)의 5대손이다.

그러면, 안평 고씨 집안과 그 선조는 도대체 고려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씨 족보의 기록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가 없고, 현지 탐방에서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한 자료로 볼 때 당 고종 시대 전후 세 차례 고려국(역주: 고구려국을 지칭함)의 왕실 귀족과 사람들이 당 고종의 결정으로 중국 강희 지역, 하남 및 농우(隴右) 등 여러 주에 거주하였으며, 그중에 가장 영달한 자는 고씨들이다.

『구당서·고려전(舊唐書·高麗傳)』에 의하면 건봉(乾封) 원년(666)에 高麗西部大人, 莫离支部落酋長 泉盖蘇文(역주: 연개소문)의 장자 천문생(泉男生)이 형제간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몸만 빠져나와 (당나라에) 투항했다.⁹⁶⁾ 이때 천남생을 따라 장안에 온 고현(高玄) 집안은 “因而家貫西京 編名赤縣. 曾祖寶 任本州都督. 祖方 任平壤城刺史. 父廉 唐朝贈泉州司馬”⁹⁷⁾이다. 중국에서 고현은 몇 차례 당나라의 중요한 군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주 전공을 세워 “자주 특별히 등

号石井津. 建炎四年 置石井鎮. ……元置石井鎮巡司于此”라고 했다. 安平 高氏는 북송 때 이 지역에 이주해온 후 빠른 시간 내에 안평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대 집안 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송나라 때 高氏 집안은 적극적으로 해외무역에 참여했고, 또한 “부모 형제가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한 자가 58명이고, 朝野에서 이름이 난 자가 19명이다. 그래서 知州 王十朋은 ‘泉南의 한 군은 고씨 집안보다 못하다’라고 칭송했다.”(『安平高氏族譜』 중 『興撫尚書公祠堂記』)

96) 천남생은 의봉 초에 장안에서 쫓겼다. 이 기록은 『구당서』권199上, 열전 제149上, “동이(東夷), 『고려전』에 보인다.

97) 『大周故冠軍大將軍行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墓志銘并序』碑 참조, 이 비는 河南에서 출토되었으며, 비문은 武志遠·郭建邦이 輯錄한 『千唐志齋』, 제397, 文物出版社, 1983년에 있다.

용되었다.” 당 고종 총장(總章) 원년(868)에 고현은 평양성 공격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훗날 중국 하남에 정착했다.⁹⁸⁾

또 『신당서·고려전(新唐書·高麗傳)』에 당 고종 “총장2년(669)에 고구려 백성 3만 명을 강희와 산남(山南)으로 이주시켰다.”라고 기술했다.⁹⁹⁾ 또 『구당서·고려전』에 “의봉(儀鳳) 연간(676~679), 고종은 고장(高藏)에게 開府儀同三司, 遼東都督, 封朝鮮王에 임명하고 안동(安東)에 거주하고 본蕃(本蕃)의 군주로 삼았다. 고장은 안동에 가서 몰래 말갈과 상통하여 모반을 꾀하였다. 이 일이 발각된 후에 소환되어 공주(邳州)로 유배되고, 또 백성들을 하남, 농우 등 여러 주로 분산 이주시켰으며, 그중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안동성 근처에 거주하도록 했다.”¹⁰⁰⁾

중국에 정착한 고려국(역주: 고구려를 지칭함) 인사와 후예들이 훗날 중국 고씨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당 고종 때 발생한 고려(역주: 고구려를 지칭함) 이민 사건과 안평 고씨가 민지(閩地)로 들어온 시조 고강(高綱)의 원 집안 내력, 고동치(高童治)와 고려조(高麗厓) 등 문제와 연계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고강은 당나라 초 하남에 정착한 고려(역주: 고구려를 지칭함) 고씨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고, 중원 일대가 정국이 불안할 때에 하남에서 복건으로 피난해왔다.
- (2) 고강의 후예 고동치는 십삼도 고려조의 주인이고, 그가 이주해 온 곳을 ‘고려조(高麗厓)’라고 불렀다. 이는 자손 후대로 하여금 집

98) 앞의 주석 참조.

99) 『신당서』 권220, 열전 제145, “동이”, 『고려전』: “총장2년(669) 徙高麗民三萬于江淮 山南.”

100) 『구당서』 권199上, 列傳 제149上, “東夷”, 『高麗傳』: “儀鳳中(676~679)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 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鎮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靺鞨相通謀叛. 事覺 召還 配流邳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 隴右諸州 其貧弱者留在安東城傍.”

안의 원류를 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고려조 토대를 닦은 사람은 결코 고동치가 아니라, 고려(역주: 고구려를 지칭함)에서 온 고씨 성씨의 다른 사람이며, 입주한 시기는 고동치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다면, 고려조의 원 주인은 또 누구인가?

(4) 고동치가 남안 십삼도에 온 목적은 원 고려조의 고씨 주인에게 의탁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같은 성씨에게 의탁하는 현상은 이민 형태의 큰 특징이다.

(5) 고동치는 고려조의 주인이 아니고, 고려조라고 명명한 ‘고려’ 글자와 우연히 합치된 것이다.

(6) 안평 고씨가 천주로 이주해온 조상은 다른 사람에게 집안의 비밀을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족보에 고려국(역주: 고구려를 지칭함)과의 관계를 기술하지 않는 바람에,¹⁰¹⁾ 지금의 고씨 후예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고려조(高麗厝)의 내력과 고씨와 고려(역주: 고구려를 지칭함)와의 관계는 필자가 새로운 자료를 찾기 전에는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수수께끼이다. 이외에 우리들은 고현의 부친인 고렴(高廉)이 당나라에 의해 천주사마(泉州司馬)로 임명된 후에 본인 또는 후예들이 조정이 하사한 식읍을 관리하기 위해 천주에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⁰²⁾ 고씨 집안의 후예가 천주에 정착했고, 그중의 누군가는 고려조의 원 주인이 되었다.

101) 현재 천주에는 송·원 시대에 외국에서 온 수많은 후예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후예는 다음과 같다. 아랍 사람의 후예는 金, 丁, 夏, 馬, 郭, 葛, 蒲, 卜, 鐵, 黃, 丁 등 성씨이고, 몽고족은 黃, 出, 左 등 성씨이며, 女眞族은 粘氏이며, 西夏族은 王氏이다. 명나라 때 천주의 일부 漢族들이 외래족의 통치자를 미워하여, 많은 외래족이 집안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성안에서 벗어나 내륙 산악 지대나 연해안으로 이주하여 성씨를 바꾸고, 족보를 위조하며, 명문 漢族의 성씨에 억지로 갖다 붙였다. 이로 인해, 泉州 安平 高氏의 대가족 가운데 어떤 일파가 원래 고려(역주: 고구려를 지칭함)의 高氏 후예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2) 『구당서』권43“職官二”載: “凡有功之臣賜食封者皆以課戶 凡食封者皆傳于子孫.”

3. 元衲(玄訥)과 福淸寺

오늘날 “泉州市 豐澤區 北峰鎮 翠屏山 靈秀峰”(옛 남안현 삼도) 앞에는 五代 시기에 세워진 福淸寺(또한 福淸院라 불렀음)가 있다. 『(乾隆)천주부지(泉州府志)』권16 ‘壇廟寺觀’에 “복청사(福淸寺)는 삼도 영수봉(靈秀峰) 앞에 있다. 오대자사(五代刺史) 왕연빈(王延彬)이 건립하여 고려승 원납(元衲, 玄訥)을 거주하게 하였다.”¹⁰³⁾는 기록이 있다.

원납은 현납(玄衲) 또는 현눌(玄訥)이라 부른다. 그의 국적에 관해 송 도원(道元)이 지은 『경덕전정록(景德傳燈錄)』, 보제(普濟)가가 편찬한 『오정회원(五燈會元)』, 명 하교원(何喬遠)이 지은 『민서(閩書)』와 『천주부지(泉州府志)』 등 역사 문헌에는 모두 고려 사람이라 기재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시 고려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말이 계속 전해져 내려와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사실 원납(현눌)선사가 중국에 온 시기를 그의 스승 의존선사(義存禪師, 822~908)의 생몰연대에 비추어본다면, 원납(현눌)선사는 마땅히 신라 시대의 사람으로 신라 국적의 승려라고 할 수 있다.

원납(현눌)선사는 구법에 온 심혈을 다했던 인물이다. 사서에 그는 당말 오대에 저명한 선종 고승 ‘설봉의존선사(雪峰義存禪師)’의 제자라고 적었다. 원납(현눌)선사가 의존선사를 존경했던 것에 관해 필자는 제일부분에서 이미 소개했으니,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또 원납(현눌)선사는 아주 개성이 있는 인물이다. 『남안현지』에서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보았다. “주자사 왕연빈이 남안 서산(西山) 복청원에 거처하였다. 왕연빈이 가승(家乘)의 일이 어떠한가를

103) 『(乾隆)泉州府志』卷16 “壇廟寺觀”: 福淸寺 在三都靈秀峰前. 五代刺史王延彬建 以居高麗僧元衲.

문자, 원납(현늘)은 이를 꾸짖었다.”¹⁰⁴⁾

상례적으로 논해본다. 주자사 왕연빈이 일찍이 전적으로 원납(현늘)을 위해 규모가 커다란 사찰을 세워주고, 또한 “스승의 도덕을 우리러 받들고 전륜법



1994년에 중수한 福清寺

(轉輪法)을 청하였다.”고 하니,¹⁰⁵⁾ 예우가 극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납(현늘)은 이렇게 지방장관이자 대시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좋은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이를 꾸짖었으니, 실로 괴이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비록 왕연빈이 물은 가승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납(현늘)이 이렇게 응대한 것으로 그의 인물됨과 처세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당시 천주자사 왕연빈이 원납(현늘)을 위해 세웠던 사원은 원래 89동이었다. 산문은 오늘날 坑尾村까지 뻗어 있었고, 촌락에는 “북청담(福清潭)”이라는 연못이 있다. 전해오기로 그 연못은 옛 사원의 방생지였다고 한다. 이와 같다면 전체 사원의 면적은 수백 무(畝)에 달하고, 건축 규모가 매우 크고 넓고 웅장하여 또한 왕연빈이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과 기백을 엿볼 수 있다.

필자는 제일부분에서 왕연빈이 천주와 해외 교류 무역활동에 적

104) 『남안현지』권38, 『五代仙釋·元衲』: “州守王延彬居之南安西山福清院 延彬問如何是家乘事 元衲叱之.”

105) 오대(五代) 남당(南唐) 보대(保大)10년(952) 泉州招慶寺靜,筠二禪師가 편저한 『조당집』에 원납(현늘)선사의 사적이 기재되어 있다. “福清和尚은 설법을 계승했다. 천주에 머물렀다. 스승의 휘는 현늘이고, 동국 사람이다. 천주 왕태위(王延彬)이 스승의 도덕을 우리러 받들고 전륜법을 청하였다.(福清和尚 嗣雪峰 在泉州 師諱玄訥 東國人也. 泉州王太尉仰師道德 請轉法輪.”李玉昆, 『高麗僧人玄訥與泉州福清寺』, 『泉州晚報』海外版, 1999년 11월 9일에서 인용.

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천주를 장악한 26년 동안 “외국 선박들을 많이 보내어 공금으로 사용했으며, …… 郡 사람들이 이로써 이익을 얻어 초보시랑(招寶侍郎)이라 불렀다.” 그는 또 극히 불교를 숭상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원에 토지를 많이 회사하여’, ‘천남불국(泉南佛國)’이라고 불리는 천주의 불교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그러나 기나긴 세월과 전란 등의 원인으로 왕연빈이 세운 복청사는 한때 훼손되었다가, 청 함풍(咸豐)연간에 어사(御史) 진경강(陳慶鏞)과 그의 친우 임무재(林茂才) 등에 의해 원래 자리에 복청사가 중건되었다. 다만 그 규모가 원남(현늘)이 주석한 시기의 사찰에 비해 상당히 작아져, 겨우 두 동이고 면적도 몇 평방미터에 불과했다. 원래 사찰에 속했던 커다란 부지도 일찍이 부근 주민들에 의해 점용되었다. 1994년 현지인들이 또 다시 복청사를 세웠는데, 함풍 연간에 중수한 기초 위에 사찰 규모를 확충시켰다. 이 사찰은 현재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고, 향불이 여전히 매우 성행하고 있다.

원남(현늘)선사가 천주에 들어와 불교를 널리 알린 일은 천고의 가화(佳話)가 되었고, 또한 천주와 신라국 불교계 인사의 우호왕래 역사에 가장 좋은 증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청사(福淸寺) 중수비

4. 新羅松과 高麗菜

1) 당나라 시대 천주 가화서(嘉禾嶼)의 신라송(新羅松)

오늘날 복건성 하문시는 송나라 때 천주부(泉州府) 동안현(同安縣) 가화리(嘉禾里)에 속했다. 또 백로가 섬에 서식하기를 좋아하여 노도(鷺島)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명 가정(嘉靖)연간에 천주 진강(晉江) 사람인 하교원(何喬遠, 1557~1631)이 저술한 복건성지인 『민서(閩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지금 (嘉禾嶼) 豪竈는 金榜山에 있는데, 이곳이 (陳黯의 讀書處)이다. 書堂 옆에는 커다란 돌이 있다. 높이는 16丈이고, 이름은 金榜石이며, ‘談玄石’ 3자가 새겨져 있다. 바닷가에는 釣魚磯가 있는데, 場老(陳黯의 雅号)가 낚시하는 곳이다. 후대 사람이 바다를 막아 보를 만들어 지금은 밭이 되었다. 또 말하기를 그 당시 서당에 新羅松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한다.¹⁰⁶⁾

소위 ‘신라송(新羅松)’은 신라국에서 생산된 일종의 소나무과 식물을 지칭한다. 여기에 대해 서궁(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권23 ‘토산(土產)’에 이러한 묘사가 있다.

고려 …… 광주(廣州)· 양주(揚州)· 영주(永州) 등 3주(三州)에는 큰 소나무가 많다. 소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다만 다섯 개 잎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다.(역주: 다섯 개 잎은 잣나무를 지칭함) 羅州道(전라도)에도 있으나, 3주의 풍부함만 못하다. 열매가 처음 달리는 것을 송방(松房, 잣을 지칭함)이라 하는데, 모양은 마치 모과와 같고 푸

106) 명(明) 하교원: 『민서』권12, 『방역지(方域志)』泉州府同安縣二 “嘉禾嶼”, 福建人民出版社, 1994년: “今(嘉禾嶼)豪灶有金榜山 是(陳黯)讀書處. 書堂側 有大石 高十六丈 名金榜石 刻“談玄石”三字. 臨海有釣魚磯 場老(陳黯的雅号)垂釣處也. 後人築海爲隄 今在田中矣. 又云: 其當時 書堂有新羅松二本云.”

른 윤기가 나고 단단하다. 서리를 맞으면 곧 갈라져 열매가 비로소 여물며 송방은 자주 빗을 띈다. 그 나라 풍속에 비록 과일, 안주, 국, 절인 고기에 또한 이것을 사용하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를 멈추지 않게 한다.¹⁰⁷⁾

이것으로 보아 한반도의 소나무는 두 종의 품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궁은 열매를 맺는 한 종에만 자세히 언급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다른 한 종이 어떠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신라송은 도대체 어느 품종에 속하는 것일까? 하문의 금방산(金榜山)에는 이미 그 소나무가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하교원의 기록으로 보아 그가 저술할 때 진암(陳黯)의 서당 앞에 있던 두 그루의 신라송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즉, 당나라 사람 진암이 금방산에서 독서를 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천주 사람이 신라국에서 원산지가 ‘신라(新羅)’라고 명명한 소나무를 가져와 가화서(嘉禾嶼)의 해도(海島)에 심어놓고, 조경과 관상용 식물로 삼았다. 그것은 진암의 서당에 청아한 기운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서하는 사람의 정서를 도야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의경을 활달하게 했다.

진암은 당나라 후기 사람이다. 하교원은 그가 “松姿柳態 山屹波注 語默有程 進退可法. 其爲文詞 不尙奇而重切理 意不偶立而重師古. 詩篇 詞賦 牋檄皆精 尤工官試. 乃會昌乙丑(845)逮咸通乙酉(865) 凡十八舉不第. ……黯久在文場 人稱場老.”라고 했다.¹⁰⁸⁾ 비록 진암이 일생 동안 과거는 인연이 없어 ‘무릇 18번 과거에 낙방하여’ ‘장로(場老)’

107) 『선화봉사고려도경』권23 “토산”: “高麗 …… 廣 揚 永三州多大松. 松有二種 唯五葉者乃結實. 羅州道亦有之 不若三州之富. 方其始生 謂之松房 狀如木瓜 青潤致密 至得霜乃拆 其實始成 而房乃作紫色. 國俗 雖果肴羹藏亦用之. 不可多食 令人嘔吐不已.”

108) 앞의 서지 참조.



하문(廈門) 금방산(金榜山) 진암(陳黯) 독서처(讀書處)

라는 아호(雅號)를 얻게 되었지만, 하교원이 언급한 그의 평가를 통해 그가 매우 재능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선비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진암의 독서처(讀書處)는 하문시가 ‘금방산공원’ 내 유적지로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의 서당과 두 그루의 우뚝 솟은 푸른 신라송은 천 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미 사라지고 없다. 참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2) 高麗菜

고려채(高麗菜), 그 이름과 뜻을 생각해 보면 고려국에서 가져온 채소의 일종이다. 복건농학원(福建農學院) 임경생(林更生) 교수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려채는 고대 한반도에서 바다를 통해 천주로 건너왔다. 천주 사람들은 예전에 조선을 고려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감람(甘藍)을 ‘고려채(高麗菜)’라고 불렀고, 지금도 민남 일대에는 여전히 고려채라고 부른다. 그 옆이 하나하나씩 싸여 있어 북주 일대에서는 ‘포채(包菜)’라고 부른다.¹⁰⁹⁾

109) 임경생(林更生): 『古代從海路引進福建的植物』, 『海交史研究』 제4기, p.90, 1982년 7월.

그러나 고려채가 도대체 언제 고려에서 천주로 건너왔는지에 대해 북주와 천주 지방지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임 선생도 고려채가 언제부터 고려에서 널리 재배되었으며, 원산지에서 또 어떻게 부르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다루어 성숙되지 않는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고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한·중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 마음속 미혹을 해결하고자 한다.



외관상 타원형의 전통적인 고려채 품종



신품종의 고려채 농장

고려채는 십자화과(十字花科) 감람류(甘藍類) 채소의 일종이다. 학명은 감람이고, 외관상 타원형이다. 민남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채소 중의 하나이다. 생산량이 매우 많고 큰 것은 10여 근에 달하며, 또한 매우 널리 재배되고 있다.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의 말에 따르면, 예전의 고려채(조상들이 전해오는 품종을 지칭함)는 일 년에 3~4번 재배할 수 있고, 재배기간은 품종에 따라 다르나, 90~120일 이면 수확하여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다. 재배 시기는 일반적으로 음력 8,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봄철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마친다.

전통 품종의 고려채는 맛이 달아 사람들이 볶거나 삶는 통상적인 방법 외에 가공을 하여 오랫동안 보존하는 건조채나 절인 식품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햇빛에 말린 건조채, 소금에 집어넣고 삶는 건조

채, 소금에 절어서 말린 건조채, 소금에 절인 포채(泡菜)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부 농민들도 한국 등지에서 재배하는 신품종을 좋아한다. 이 신품종은 공 모양이며, 비록 몸체는 크나, 생장기간이 짧다. 보통 70일 즈음이면, 무게가 2~3근 정도 나가 수확하여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 가구수가 보통이거나 적은 가정의 입장에서 신품종은 비록 가격이 높지만, 매번 단 한 개만 구입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여 근이나 나가는 고려채를 사야 하는데, 며칠 동안 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품종의 고려채도 천주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는다.

모두에게 알려줄 만한 사항은 명칭 시대에 민남 사람들이 대량으로 동남아와 대만으로 이주했다. 고려채는 가정식 음식재료에 포함되어 해외로 퍼져나갔다. 필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등지에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의 말에서 그쪽의 사람들도 지금까지 여전히 ‘감람’을 ‘고려채’라고 부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해준다. ‘고려채’는 고려에서 천주로 가져온 후에 다시 해외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자가 천주의 해외 이민임이 틀림없다.

결론

본 과제논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필자는 광범위하게 수집한 관련 사료를 통해 고대 천주와 신라·고려의 해상교통관계에 대해 기술했다. 그러나 실질 작업에 임했을 때에 북송 시대 천주 해상과 고려

무역의 사료가 비교적 풍부한 것 외에 다른 각 역사 시대, 예를 들면 당·오대, 남송, 원대와 관련된 사료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필자는 연구 도중에 무력감을 느껴 펜을 들기가 힘들었고, 많은 문제를 유감없이 철저하게 규명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당연히 필자의 학식과 연구 능력이 부족한 점과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가능한 여러 방면,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여 당·오대부터 송·원·명대까지 천주와 신라·고려 사이에 발생된 해상교통 무역관계와 인물, 사건, 항로, 항구,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촌락명, 지명, 사찰명, 식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증하였다.

지금 필자로 하여금 위안으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 천주 지역에 출현한 신라촌, 신라사, 고려조, 신라송, 고려채, 신라참, 복청사의 근원과 고증을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훗날 진일보한 자료 발굴과 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신라촌, 신라사, 고려조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선행학자들이 언급한 적이 없다. 이에 필자는 대담하게 시도에 나서게 되었다.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고대 천주가 신라·고려와의 교통무역, 당나라 동북부 황해 연해안 지구에 출현한 신라촌, 신라원과 유사한 촌락명과 사찰명, 그리고 고려국(역주: 고구려를 지칭함) 고씨와 모종의 관련 있는 고려조를 알려주고, 또 다른 방면에서 역사상 천주와 신라·고려의 우호관계를 반영해준다.

사실상, 고대 천주와 신라·고려의 해상교통관계는 아주 오래되었고, 또한 사학계에서 공인하는 바이다. 유구한 역사의 교류 가운데, 양 지역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조사할 가치가 있는 인물과 사물이 많이 남겨놓았다. 다만 세월이 오래되어 많은 것들이 이미 인물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잊게 하거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천주 성안의 한 골목, 원래 ‘고려향(高麗巷)’이라고 불렀던 것이 청 건륭연간의 『천주부지』에는 이미 ‘규하향(奎

霞巷), 혹 가하항(街下巷)이라고 지칭함(음가가 기본적으로 유사함)으로 기술되었다. 많은 젊은이나 외지에서 천주에 온 사람들은 오늘날의 명칭만 알고 옛 명칭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황은 더욱 많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더욱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처음으로 한중 역사방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관계로 반드시 누락하거나 실수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비평과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李玉昆: 『泉州海外交通史略』, 廈門大學出版社, 1995년 9월;
- 李玉昆: 『高麗僧人玄訥與泉州福清寺』, 『泉州晚報』 海外版, 1999년 11월 9일.
- 何喬遠: 『閩書』 권7, “方域志”; 권150, “南產志·人參”, 福建人民出版社, 1994년.
- 『全唐文』 권75, 文宗七, “大和八年疾愈德音”.
- 『全唐詩』 권208, 包何: 『送李使君赴泉州』; 권21, 薛能: 『送福建李大夫』.
- 歐陽修: 『新五代史』 권68, “閩世家第八”, 『王審知傳』, 『王延義傳』.
- 諸葛計, 銀玉珍: 『閩國史事編年』, 福建人民出版社, 1997년.
- 『侯卿賴氏族譜』 卷首, 『遠祖開國公本傳』, 民國三十四年六修木刻本.
- 『福建通志』 史部, 권29, “名宦”; 권9, “風俗·泉州府”.
- 『泉州府志』 권40, “封爵”, 『王延彬傳』.
- 中國航海學會編: 『中國航海史』 第一冊『古代航海史』, 人民交通出版社, 1988년.
- 李金明, 廖大珂: 『中國古代海外貿易史』, 廣西人民出版社, 1995년.
- 韓振華: 『諸蕃志補注』 권上, “新羅國”, 第296頁, 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 2000년.
- [日]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古籍出版社, 1986년 8월.
- 『宋史』 권304, 列傳第63 『王彬傳』, 中華書局.
- 吳任臣: 『十國春秋』 권94, 『王延彬傳』.
- 義淨原著, 王邦維校注: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中華書局, 1988년 9월.
- 梁克家: 『三山志』 권38, “寺觀類六·安國寺”.
- [朝鮮]鄭麟趾: 『高麗史』, 韓國: 亞細亞文化社, 1973년.
-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文史知識文庫, 中華書局, 1997년.
- 『宋會要輯稿』 권1124, 職官四四.
- 乾隆『泉州府志』 권75, “拾遺” 上; 권20, 謝履: 『泉南歌』; 권16, “壇廟寺觀”.
- 祝穆: 『方輿勝覽』 권12, “福建路·泉州”.
- 鄭俠: 『西塘集』 권8, 『代謝仆射相公』; 권7, 『代太守謝泉州到任』.
- 樂史: 『太平寰宇記』 권102, “江南東道十四·泉州”.
- 蘇軾: 『東坡全集』 권56,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論高麗進奉狀』; 권58, 『乞禁商旅過外國狀』.
-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二十六年.
- 『資治通鑒』 권267, “胡三省注”.

『宋史』권487, “外國三”, 『高麗傳』; 권331, 『羅拯傳』; 권186, “食貨下八·互市舶法”.

趙汝适: 『諸蕃志』上, “新羅國”.

張津: 『(乾道)四明圖經』 권1, “分野”.

楊士奇, 黃淮等奉敕編: 『歷代名臣奏議』 권384, “四裔”.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卷261.

[韓國]朴玉杰: 『宋代商人來航高麗與麗宋貿易政策』, 黃時鑒主編 “第二屆韓國傳統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韓國傳統文化·歷史卷』, 北京: 學苑出版社, 2000년.

陳高華: 『北宋時期前往高麗貿易的泉州舶商』, 『海交史研究』총제2기, 1980년.

李心傳: 『建炎以來朝野雜記』甲集 권15, “市舶司本息”.

道光『晉江縣志』 권75, “雜志”上, 『蒲壽庚傳』.

嘉靖『藁城縣志』 권8, 王磐: 『藁城令董文炳遺愛碑』; 권9, 王磐: 『董文炳神道碑』.

吳澄: 『吳文正集』 권28, 『送姜曼卿赴泉州路錄事序』.

桑悅 弘治『太倉州志』 권7, “義行”, 載『古代劉家港資料集』, 南京大學出版社, 1985년.

吳晗輯: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中宗大王實錄十, 中華書局, 1980년.

『(康熙)南安縣志』卷1, “疆域志”; 권20, “雜志·寺”.

『豐州志』제1장, “建置·豐州鎮古今地名對照表”, 『豐州志』編寫組編纂, 1996년.

『泉州市建置志』, “沿革”, 海峽文藝出版社出版, 1993년.

張仲昭『八閩通志』 권77, “寺觀”, 福建人民出版社, 1999년.

李輝良: 『南安寺觀』, 福建省南安市宗教局, 1996년.

陳慶元 歐陽俊, 陳貽庭校注: 『蔡襄全集』 권30, “荔枝譜”, 福建人民出版社, 1999년.

楊博文: 『諸蕃志校釋』, “前言”, 中華書局, 1996년.

安溪大平『安平高氏族譜』卷首, “世系圖”, 康熙三十二年第八次重修.

安溪大平『渤海·大平高氏族譜』 권2, “大平開基始祖衍派傳記”, 2003년중수.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권99.

『舊唐書』 권199上, 列傳 제149上, “東夷”, 『高麗傳』.

『大周故冠軍大將軍行左豹韜衛翊府中郎將高府君墓志銘并序』碑, 載武志遠, 郭建邦輯錄 『千唐志齋』, 文物出版社, 1983년.

『新唐書』 권220, 列傳第145, “東夷”, 『高麗傳』.

林更生: 『古代從海路引進福建的植物』, 『海交史研究』總第四期, 1982년 7월.

고대 복건과 신라·고려의 우호 교류에 관한

역사·문헌·문물사적 고찰

-고대 복건과 신라·고려관계 문제 연구-

섭은진(葉恩典) 이옥곤(李玉昆)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복건은 중국 동남 연안에 항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리적인 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바다를 통해 강소와 절강 지역을 거쳐 신라와 일본까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광둥과 동남아의 여러 나라까지 연결되어 고대 중국의 대외해상교통에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당과 오대(五代) 시기에서 송원(宋元) 시기까지 복건은 신라와 고려와 긴밀한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해로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물품,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고려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적이 있다.

고대 복건과 신라, 고려의 우호적으로 교류했던 역사적인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거의 중요했던 관계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인 교류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목적을 기초로 삼고 전개해 나가겠다.

I. 복건과 신라, 고려 사이의 해상교통

당 말기와 오대 시기 이래 복건은 신라, 고려와의 해상교통이 매우 발달하여 무역을 하는 상인과 우호활동, 문화 교류, 물품 교류 등에 관련된 사절단, 그리고 불교문화 교류를 주도하는 승려들이 서로 왕래했다.

1. 정치 교류

(1) 당말 오대 시기에 민왕(閩王) 왕심지(王審知) 형제는 복건의

통치자로 민국(閩國)을 건국했다. 당시 민국과 신라는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두 차례 북주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민왕 창화희(昶和義)에게 보검을 선물했다. 『신오대사(新五代史)』의 기재에 따르면 “延義 審知少子也. 既立 更名義. …… 曦自昶世偏強雖制. 昶相王倓每抑折之曦亦憚倓不敢有所發. 新羅遣使聘閩以寶劍昶舉以示倓曰：‘此將何爲?’倓曰：‘不忠不孝者斬之. 曦居旁色變. 曦既立而新羅復獻劍”¹⁾라고 했으나, 신라에서 보검을 다시 선물했을 때 “曦忽憶倓前言, 時倓已死, 追恨不已. 命發塚, 戮其屍.”²⁾고 했다.

(2) 중국과 신라, 고려와의 우호적인 교류에서 많은 사절단이 신라와 고려에 파견됐고, 이 사절단의 사신 중에 진정(陳靖), 진목(陳睦), 오식(吳拭) 등 있었다. 진정은 자(字)가 도경(道卿)이고 흥화(興化) 군포전(軍莆田)출신이다. 그는 순화(淳化)4년(993)에 사신으로 고려에 갔다. 『宋史』에 이르길 “淳化四年正月 治遣使白思柔貢方物並賜經及御制. 二月 遣秘書丞直使館陳靖 秘書丞劉式爲使 加治檢校太師乃降詔存問軍軍史耆老. 靖等自東牟趣八角海口 得思柔所乘海船及高麗水工 卽登舟自芝岡島順風泛大海 再宿抵甕津口登陸 行百六十里抵高麗之境曰海州 又百里至閭州 又四十里至白州 又四十里至其國治. 迎使於郊 盡藩臣禮 延留靖等七十餘日而還. 遣以襲衣 金帶 金銀器數百兩 布三萬餘端 附表稱謝.”³⁾고 했다. 진정은 고려로 사신을 떠날 때 산동 모평추(牟平趨)해변의 지당도(芝岡島)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고려 웅진에 도착한 후 육로로 개경에 도착했다. 귀국할 때 그는 “本國遣元證衍護送至安香浦口 值風損船 溺所齎物. 詔登州給證衍文據 遣還 仍賜王衣段二百匹 銀器二百兩 羊五十口.”⁴⁾이다. 진정은 귀국한

1) 구양수(歐陽修), 『신오대사(新五代史)』권68, 『閩世家·王延曦傳』.

2) 제갈계(諸葛計)·은옥진(銀玉珍), 『민국사사편년(閩國史事編年)』, 福建人民出版社, 1997. p.221

3) 『송사(宋史)』권487, “外國三·高麗”

4) (朝鮮)홍봉한(洪鳳漢) 등, 『增補文獻備考』, 『文聘考』. 양위생(楊渭生) 등 편,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하책(下冊), 學苑出版社, 2002. p.1031 참조.

후에 문무백관이 모인 수도에서 태상박사(太常博士)를 지냈다.

진목은 원풍(元豐) 원년(1078)에 사신으로 고려에 갔다. 진목은 진강의 손자이다. 원풍 원년 3월에 태상박사와 비각교리(秘閣校理)를 명받은 진목은 소문관(昭文館)에서 핑계를 대면서 지냈으나 고려에서 사신단의 부사가 되어 임희(林希)를 대신해 사신으로 떠났다. 송 신종(神宗)은 임의에게 사신을 명했으나 임희가 거절하여 상소를 올리길 “聞希雖迫懼朝命 不敢終辭. 然形貌憂鬱不少舒 且高麗望中國使人久矣 苟一見希顏狀如此 甚非所以使彼識達朝廷眷顧 遣使通好之意. 今雖已啓行 理終未便 宜遣人代之.”⁵⁾라고 했다. 임희는 항주 누방(樓房)의 일을 감독하는 자리로 좌천되었다. 이번 고려로 가는 사신에 관해 『송사(宋史)』 “元豐元年 始遣安濤左諫議大夫 陳陸起居舍人往聘. 造兩艦於明州. 一曰凌虛安濟致遠 次曰靈飛順濟 皆名爲神舟 自定海絕洋而東 既至 國人歡呼出迎 徽具袍笏玉帶拜受詔 與濤 陸尤禮 館之別宮 標曰順天館 言尊順中國如天云.”⁶⁾고 했다. 진목이 고려로 사신을 갈 때 명주 조선소에서 안제치원(安濟致遠)과 영비순제(靈飛順濟)라는 이름을 가진 두 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고려로 떠났다. 고려에 도착한 후 고려 정부의 접대를 받았다.

진목이 출발하기 전 신종은 자신의 선화금대(仙花金帶)를 하사하면서 무사히 돌아오라 명했고 진목은 귀국한 후 하사받았던 선화금대를 다시 진상했고 신종은 이 선화금대를 다시 착용했다. 원풍6년(1083) 겨울, 고려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니 신종은 진목에게 위로의 문장을 작성하라 명했고 진목은 초고를 작성하여 올리니 신종은 이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었다.⁷⁾ 이로 볼 때 진목은 문장이 뛰어나고, 또 신종은 진목을 매우 신임했음을 알 수 있다.

5) 이도(李濤) :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권288

6) 『송사』 권487, “外國三·高麗”

7) 이준보(李俊甫), 『莆陽比事』 권3, 『陳陸傳』

승녕(崇寧)2년(1102) 호부시랑 유목(劉逵), 급사중(給事中) 오식(吳栻)이 명을 받고 고려로 갔다. 오식은 자(字)가 고도(顧道)이고 구영(甌寧, 지금의 건구)출신이다. 휘종(徽宗) 시기에 개봉부 추관을 역임했다. 고려는 원풍 시기 이래로 30년간 조공하는 물품을 바꾸지 않았고 오식은 급사중을 지냈기에 그 의미를 개봉부에 알렸다.⁸⁾ 오식은 고려로 사신을 갔다 온 후 『계림지(鷄林志)』 20권을 저술하여 지난 일들을 기록했다.

(3) 오대 시기에 복건의 문인들이 신라와 고려에서 관직을 얻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왕언영(王彦英), 쌍기(雙翼), 쌍철(雙哲) 등이 있다. 왕언영은 하남 광주(光州) 고시(固始)출신으로 왕조(王潮)를 따라 복건 지역에 왔다. 후에 왕조와 사이가 나빠져 바다를 건너 신라로 갔다. 왕언영과 그 자식들은 대대로 관직을 역임했다. 『송사』 “王彬 光州固始人。祖彦英 父仁侃 從其族人潮入閩。潮有閩土 彦英頗用事 潮惡其逼 陰欲圖之 彦英覺之 擊家浮海奔新羅。新羅長愛其材用之 父子相繼執國政。”⁹⁾라고 한다. 왕언영의 손자 왕빈은 18세에 송나라에 와서 태학에 입학했다. 순화(淳化)3년(992) 진사에 급제하여 옹구위(雍丘尉)를 역임하고 군주(筠州)에서 통판(通判), 무주(撫州)에서 지부, 형호남로(荊湖南路)에서 형벌을 집행하고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 삼사염철판관(三司鹽鐵判官), 태상소경(太常少卿)을 지냈다. 그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고 탐관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쌍기는 후주(後周) 현덕(顯德)3년(956) 책봉사 설문우(薛文遇)를 수행하며 고려로 갔다. 고려에서 병이나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高麗史』에 “雙翼 後周人 仕周爲武勝軍節度巡官 將仕郎 試大理評事 光

8) 황중소(黃仲昭), 『八閩通志』 권64, “人物, 建寧府名宦”

9) 『송사』 권305, 『王彬傳』

宗七年 從冊封使薛文遇來 以病留. 及愈 引對稱旨 光宗愛其材 表請爲僚屬 遂擢用. 驟遷元甫 翰林學士 未逾歲 授以文柄 時議以爲過重. 九年 始建議設科 遂知貢舉. 以詩 賦 頌 策取進士甲科崔暹等二人 明經三人 卜業二人. 自後屢典貢舉 獎勸後學 文風始興.”¹⁰⁾는 내용이 있다.

쌍기는 복건 건주(建州, 지금의 건양)출신으로 책봉사를 따라 고려에 갔다. 고려 국왕은 그의 재능을 아껴 고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후주에 요청했다. 쌍기의 건의로 고려에서는 과거제도가 시행되었고 고려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일찍이 고려를 위해 한자음을 정리했다. 어떤 이는 이로 인해 한국의 한자 발음이 복건의 발음과 비슷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¹⁾ 쌍기의 부친 쌍철은 후주에서 청주(淸州)의 태수를 지내고 있었다. 쌍기가 고려에서 충애를 받는 사실을 듣고 사신 왕궁(王兢)을 따라 고려로 왔다. 후에 우승(左丞)을 지냈다.

(4) 복건 장락(長樂)에 고려 왕의 조부 묘가 있다. 『팔민통지(八閩通志)』 “高麗王祖墓 在縣南逍遙裏資壽山. 高麗王宜星之父 元末任宜州判官 秩滿將行 忽有星墜庭院光煜煜射人. 是夕宜星生 因以爲名. 宜星有奇質 言動大異凡兒. 父既卒 高麗王入貢 將歸國 宜星願從之 袖詩謁見 王器其才. 後王無子 因以宜星爲嗣.”¹²⁾이다. 하교원(何喬遠) 선생은 『민서(閩書)』권4 ‘方域志·福州府長樂縣·利充山’에도 관련된 기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산(利充山)에 고려시조 조부의 무덤이 있다. 이름은 의성(宜星)이다. 그 부친 원말(元末)은 의주(宜州)에서 판관을 지냈다. 별이 집에 떨어지는 태몽으로 이름을 지었다. 의성은 부친이 사망한 후 고려 왕이 원나라에 조공 왔을 때 의성을 만난 후 그의 재주를 아꼈다. 의성은 고려 왕을 따라 고려로 갔다.

10) 정인지(鄭麟趾), 『고려사(高麗史)』권93, 『雙冀傳』

11) 주걸근(朱傑勤), 황방화(黃邦和) 주편, 『中外關係史辭典』, 湖北人民出版社, 1992

12) 황중소, 『八閩通志』권97, “丘墓·福州府·長樂縣”

고려 왕은 자식이 없어서 의성을 양자로 삼으니 이가 습왕(襲王)이다. 따라서 원말은 고려 왕의 부친이 된다. 고려 왕이 원나라에 조공할 때 모두 이름을 바꾸어 고려와 원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달랐다. 그러나 의성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또한 고려 왕이 바다로 나갔는데 복건에서 출발하지 않으니 아마도 일본에서 온 것인가?”라고 했다.

동치(同治) 『장락현지(長樂縣志)』권8에 ‘祠祀·墳墓·高麗王祖墓’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 역시 기본적으로는 같다. 하교원 선생은 고려의 역대 임금의 이름 중에 의성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원나라에 조공할 때만 이름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박현규(朴現圭) 선생은 고려 왕이 원나라에 왔을 때 이름을 바꾼 적이 없으며 “이는 하교원 선생의 착오일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교원 선생은 ‘고려 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왔다’라는 의문에 대해 박현규 선생은 왕의성의 부친은 의주에서 관관을 지냈다. 여기서 의주는 하북성 밀운현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중요한 교통 중심지라고 주장한다.¹³⁾

최근 장락의 글과 역사를 연구하는 장선귀(張善貴) 선생은 『海濱聞見錄』의 『高麗王王星宜』에 대해 “내가 왕씨 성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지역을 개척하여 복건 제일의 가문을 만든 왕심지와 연관성이다. 왕심지는 복건에서 절도사를 지내면서 동생에서 장락현령을 명하니 마을의 동쪽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았다.”고 주장한다. 고려 왕 왕의성은 진장지(陳丈智)가 언급하고 정장민(鄭丈敏)이 기록한 글에 ‘장락왕성’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호칭은 복건에서 왕씨 성을 퍼트린 사람, 즉 왕심지의 동생 왕상(王想)의 후예일 것이다. 왕심지가 복건에서 절도사가 된 후 동생 왕상에게 이 지역을 오랫동안 다스릴 것을 명하여 장락현령을 제수했다. 왕상

13) 박현규(朴現圭), 『福建長樂高麗王祖墓考』

이 죽은 후 그 자손이 장락에서 가문, 즉 동문왕성(東門王姓)을 이루니 왕의성은 아마 이들의 후예일 것이다. 오대 시기에 왕심지의 자식들은 형제간의 싸움으로 동문왕성에는 왕익교(王翼敎)만 남았다. 그는 중원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화를 피하기 위해 고려로 갔다. 후에 많은 자손이 있었다.

송 태조가 중원을 통일한 후 태종 시기에 고려에서 왕빈이 송나라로 와 태학에 입학하고 진사가 되었다. 후에 관직은 태상경(太常卿)을 지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아 장락으로 돌아갔다. 왕빈의 후손은 그 지역에서 이름이 높아 신종 시기 진사에 합격하여 어사를 지냈다. 이 왕씨들이 사는 지역은 대대로 그 후인들이 관직 생활을 했고 이종(理宗) 순우(淳祐)연간에 왕몽룡(王夢龍)이 출사하여 청주 태수를 지냈고 후에 의주(지금 하북성 밀운현) 태수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이 의성이었다. 송나라가 망한 후 왕몽룡은 원나라에서 행인(行人)을 지냈다. 고려 왕이 항복하자 원 세조(出守)는 왕몽룡을 파견하여 부사로 삼아 고려로 보내고 또 난주(瀛州)태주를 겸직시켰다. 고려에서 원나라 수도로 올 때 난주를 거쳐야 했기에 오고 가는 사신들이 모두 이곳을 거쳤다. 왕몽룡이 사신으로 고려에 갔을 때 왕자 왕원(王諫)을 만나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왕원이 원나라에 올 때에 난주에 도착하여 반드시 왕몽룡의 관아에서 머물렀다. 또한 왕몽룡과 같이 수도에 가는 등 막역한 관계가 되었다.

당시 고려 왕 왕거(王珣)는 무능하고 재상인 오계(吳玘)가 전권을 휘두르며 왕위를 노리면서 똑똑한 왕원을 두려워했다. 오계는 음모를 꾸며 왕원을 왕자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왕원은 결국 원나라로 오게 되었고 난주를 지날 때 왕몽룡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문상을 했다. 이때가 의성이 11세였다. 왕원은 왕의성의 모습에서 이상함을 느껴 그를 양자로 삼았다. 원 성종(成宗)은 고려 왕 왕거가 무능하다는 것과 재상 오계가 정치를 농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거를 폐하고 오계를 유배 보내는 조서를 내렸다. 또 왕량(王暲)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이에 왕원은 고려로 돌아가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다. 왕의성은 왕원을 따라 고려로 갔다. 후에 왕량이 사망하자 왕원은 고려의 국왕이 되었고 왕원이 사망한 후에 왕의성은 왕자의 명분으로 왕위를 물려받았다. 명 초기에 고려에서 상업을 하던 읍인(邑人)이 고려에서 살 수 있는가를 묻자 “고려의 왕씨 성은 묘족의 후예라 하니 읍인의 무리가 백수십 호로 늘어났다. 내가 석척령(石脊嶺) 자수사(資壽寺) 뒤에 고려 왕 조부의 무덤이 있으니 이를 고증할 수 있다.”¹⁴⁾라고 주장한다.

『해빈견문록(海濱聞見錄)』에서 왕빈의 조부가 왕익교라는 내용과 『송사』에서 왕빈의 조부가 왕언영이라는 내용이 다르다. 즉 두 사람은 비록 왕조를 따라 북건에 가서 장락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모두 고려로 갔다. 그러나 고려로 간 이유는 달랐다. 왕언영은 왕조 때문에 고려로 갔고 왕익교는 왕심지의 골육상잔을 피하기 위해 고려로 갔다. 『송사』의 내용이 믿을 수 있다. 즉 왕빈의 조부는 왕언영이다. 왕의성이 고려 국왕이 된 것은 고려사서에서 오히려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장락의 고려 왕 조부의 무덤은 아마도 왕언영이 고려로 간 후의 후예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 송대에 고려에서 관직을 얻은 북건출신은 대익(戴翼), 구양징(歐陽徵), 호종단(胡宗旦), 유재(劉載), 소종명(蕭宗明), 이의풍(李宜風) 등이 있다.

대익은 대중(大中) 상부(祥符)6년(1013) 고려로 갔다. 고려에서 그는 유림랑(儒林郎), 수궁령(守宮令)의 관직을 제수 받고, 토지 등 재산을 하사 받았다. 『고려사』 권4 ‘世家·顯宗’의 기록에 의하면 현종(顯宗)4년(1013) 정월 경술(庚戌) “宋閩人戴翼來投 授儒林郎 守宮令

14) 장선귀(張善貴), 『海濱聞見錄』8, 『舊聞軼事·高麗王王宜星』, 흥공, 香港文學報社出版公司, 2004. pp.292~293

賜衣物田莊。”라고 한다. 대익이 복건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관해서 이후의 다른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천주출신 구양징은 대종 상부8년(1015)에 고려로 갔다. 그 다음해 죄우습유에 봉해졌다.

천주 상인 소종명은 황우(皇祐)4년(1052) 고려에 도착하여 토산품을 진상했다. 가우(嘉祐)4년(1059) 소종명과 천주 상인 황문경, 의원 강조동 등은 송나라로 귀국하려 했다. 고려 국왕은 소종명 등 3인을 만류했다. 가우6년(1061) 소종명은 권지각문지후(權知閣門祗候)에 봉해졌다.¹⁵⁾

천주출신인 유재와 호종단은 상선을 타고 고려에 도착했다. 유재는 문재(文才)가 뛰어나 천우위록참사군(千牛衛錄事參軍)을 제수 받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를 역임했으며, 이부와 호부 상서, 수사공(守司空),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를 지낸 후 사망했다. 호종단은 고려에 도착한 후 좌우위록사(左右衛錄事)를 역임했고 계속 한림원(翰林院), 보문각시제(寶文閣待制)를 지냈다. 그들은 모두 고려 국왕의 기대를 받고 중용되었다. 『고려사』권10 유재, 호종단 열전에서 “劉載 宋泉州人 宣宗時隨商舶來試 以詩賦授千牛衛錄事參軍. 睿宗朝曆左散騎常侍 吏 禮部尙書. 十三年 以守司空 尙書右僕射卒. 載能文性樸素 不事生產 雖借商人來 自立朝 不復相親 時議多之. 胡宗旦 亦宋福州人. 嘗入大學爲上舍生 後遊兩浙 遂從商舶來. 睿宗寵顧優厚 補左右衛錄事. 尋權直翰林院 驟遷寶文閣待制. 時王頗好樂妓 玲瓏 遏雲 以善歌屢承恩齋. 國學生高孝沖作『感二女』詩諷之. 中書舍人鄭克永以白王 王不悅. 會孝沖赴舉 王命黜之 遂下獄. 宗旦上書營救 乃釋之. 宗旦性聰敏 博學能文 楚楚自喜 兼通雜藝 頗進厭勝之術 王不能無惑. 後事仁宗 爲起居舍人.”라는 내용이 보인다.

천주출신인 이의풍은 국왕을 따라 사냥을 하던 중 실력을 인정받

15) 정인지, 『고려사』권4, “世家·顯宗一”; 권7, “世家·文宗一”, “世家·文宗二” 참조.

아 밀직사(密直司)를 제수 받았다. 밀직사는 숙위군(宿衛軍)의 제정을 담당하는 관직이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권24 충숙왕(忠肅王)11년, 원 태정(泰定)원년(1324)에 “前密直副使李宜風死. 宜風 宋泉州人 嘗從王獵鹿 走乘輿前 一箭殪之 王悅 驟拜密直. 爲人性奇巧 專事媚悅 招權納賄 恣行威福.”라는 내용이 있다. 즉 이상과 같이 고려에서 관직을 제수 받은 복건출신들은 고려의 문화와 교육 방면에서 공헌을 했다.

2. 경제무역

(1) 당대 오대 시기에 천주와 신라는 빈번하게 무역을 하고 있었다. 독일의 히르츠와 미국의 록힐은 『제번지역주(諸蕃志譯注)』에서 “9세기에 이르러 혹은 9세기 전에 중국 남부의 해상무역은 일부가 남쪽으로 옮겨 천주에 도착했다. 천주는 이전에 일본, 고려와 통상 관계가 있었으나 1세기가 지난 후 아라비아 상인들은 이곳에서 일본과 고려의 상품을 발견했다. 이 상품들은 모두 광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 밖에 천주 지역은 세금을 낮춘 우대정책을 집행하였다.”¹⁶⁾고 주장한다.

송대에 고려에서 무역을 하던 복건 상인들은 많았고 『고려사』와 중국 사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대종 상부4년(1015)부터 원우(元祐)5년(1090)까지 송나라 상인들은 1,352차례 고려에서 무역을 했다. 그 중에서 천주 상인은 17차례, 복주 상인은 2차례 고려에서 무역을 했다. 이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볼 수 있다.

16) 한진화(韓振華), 『唐代南海交通志』, 『韓振華選集』3권 『航海交通貿易研究』, 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出版, 2002. p.368

복송 시기 고려에서 무역을 하던 북간출신들 일람표

| 연대 | 상인 | 참고문헌 |
|------------------------------|--|--------------------------|
| 대중 상부8년 (1015년) 현종6년 | 천주출신인 구양징이 고려로 갔다. | 『고려사』권4 |
| 친희(天禧)원년 (1017년) 현종8년 | 천주출신 임인복(林仁福) 등 40명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친희3년(1019년) 현종10년 | 천주의 진문궤(陳文軌) 등 100명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복주의 우선(虞瑄) 등 100명이 고려에 향료와 약재를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친희4년(1020년) 현종11년 | 천주의 회지(懷贄)가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건흥(乾興)원년 (1022년) 현종13년 | 천주의 진상중(陳象中) 고려에 토산품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4 |
| 천성(天聖)원년 (1023년) 현종14년 | 천주의 진억(陳億)이 고려로 갔다. | 『고려사』권5 |
| 천성6년(1028년) 현종19년 | 천주의 이선(李善) 등 30여 명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천성8년(1030년) 현종21년 | 천주의 노준(盧遵) 등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명도(明道)2년 (1033년) 덕종(德宗)2년 | 천주 상인 도강(都綱), 임애(林藹) 등 55명이 고려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5 |
| 경력(慶曆)5년(1045년) 정종(靖宗)11년 | 천주 상인 임희(林禧) 등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6 |
| 황우(皇祐)원년(1049년) 문종(文宗)3년 | 천주 상인 왕역종(王易從) 등 62명이 고려에 보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황우4년(1052년) 문종6년 | 송나라 상인 종명(宗明) 등 40명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가우(嘉祐)3년(1058년) 문종12년 | 송나라 상인 황문경(黃文景) 등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7 |
| 가우8년(1063년) 문종17년 | 송나라 상인 임령(林寧), 황문경이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치평(治平)원년(1064년) 문종18년 | 송나라 상인 임령 등이 고려에 보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희녕(熙寧)원년(1068년) 문종22년 | 강회(江淮) 양절(兩浙) 형호로도대제(荊湖路都大制) 발운사(發運使) 나승(羅拯)은 천주 상인 황신(黃愼)을 고려로 보내어 황제의 교지를 전했다. 송나라 상인 임령 등은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8 |
| 희녕3년(1070년) 문종24년 | 호남형호양절(湖南荊湖兩浙) 발운사(發運使) 나승이 다시 황신을 고려로 보냈다. | 『고려사』권8 |
| 희녕8년(1075년) 문종29년 | 천주 상인 부선(傅旋)은 고려 예빈성에서 발급한 첩지를 이용하여 음악을 하는 사람을 구했다. 송나라 상인 임령 등 35명은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속자치통감장편』권261 『고려사』권9 |

| | | |
|-----------------------------|---|----------------------|
| 원풍(元豐)7년(1084년) 선종(宣宗)원년 | 전협(錢鏐)은 고려에 사신으로 가면서 친주 상인 곽직(郭臧)에게 고려의 여진족 추장에게 송나라에게 조공과 무역을 하라는 명을 비밀리에 내렸다. | 『속자치통감장편』권289 |
| 원우(元祐)2년 (1087년) 선종4년 | 송나라 상인 서전(徐戡) 등 20명은 고려에 새롭게 만든 『夾注華嚴經』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10 |
| 원우4년(1089년) 선종6년 | 송나라 상인 서성(徐成) 등 59명은 고려에 특산물을 진상했다. | 『고려사』권10 |
| 건염(建炎)2년(1128년) 인종(仁宗)6년 | 친주 상인 유열(柳悅)과 황사순(黃師舜)은 양절서로안무사(兩浙西路安撫使) 섭몽득(葉夢得)의 명을 받고 고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구했다. | 『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권346 |

송대 많은 복건 상인은 고려에서 무역에 종사하여 여러 관원들의 관심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면 소식(蘇軾)은 원우4년(1089)과 원우5년(1090)에 『논고려진봉상(論高麗進奉狀)』, 『결령고려승종천주귀국상(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결금상려괴외국상(乞禁商旅過外國狀)』 등의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의 주요 내용은 고려에서 무역을 하는 복건 상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즉 『논고려진봉상』에서 “唯福建一路多以海商爲業 期間兇險之人猶敢交通引惹 以希厚利. 臣稍聞其事 方欲覺察行遣. 今月三日 准秀州差人 押到泉州百姓徐戡擅於海舶內載到高麗僧統義天手下侍者：僧壽介 繼常 穎流 院子金保 裴善等五人 乃齎到本國禮賓省牒云：奉本國王旨 今壽介等齎義天祭文來祭奠杭州僧源闍黎 …… 福建狡商專擅交通高麗 引惹牟利如徐戡者甚衆. 訪聞徐戡先受高麗錢物 於杭州雕造『夾註華嚴經』費用浩汗 印板既成 公然於海舶載去交納 卻受本國厚賞 官私無一人知覺者. 臣謂此風豈可滋長. 若馴致其弊 敵國奸細何所不至. 兼今來引致高麗僧人 必是徐戡本謀 臣已枷送左司理院根勘 卽當具案聞奏 乞法外重行以戒一路奸民狡商次.”¹⁷⁾고 했다. 즉 많은 조정 대신들이 고려에서 무역을 하는 복건 상인들을 비난하고 반대했지만, 많은 복건 상인들은 이익을 위해 계속 무역에 종사했다.

17) 소식(蘇軾), 『東坡全集』권56, 『論高麗進奉狀』

(2) 송대 복건 상인은 고려로 출발할 때 대부분은 우선 사명(四明, 지금의 영파)에 도착한 후 다시 고려로 향했다. 『제번지(諸蕃志)』 “新羅國 弁韓遺種也. 其國與泉之海門對峙. 俗忌陰陽家子午之說 故興販必先至四明 而後再發 或曰泉之水勢漸低 故必經由四明.”¹⁸⁾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여괄(趙汝适)의 저술한 『제번지』의 신라와 관련된 기록에서 풍승균(馮承鈞) 선생은 “조여괄이 이 책을 편찬했을 때 신라는 이미 고려로 바뀐 지 2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신라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사료에 내용을 모아 완성한 것이지만 오직 송나라 초기와 고려의 물품만이 생략되거나 일부만이 있다.”¹⁹⁾고 했다.

이 밖에 복건 지역은 신라의 영향이 깊은 곳이다. 『오등회원(五燈會元)』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서는 신라와 관련된 단어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新羅附子 新羅草鞋 新羅國 新羅人 新羅和尚 鐵牛走過新羅國 瞎驢趁隊過新羅 欵然透過新羅界 濟水過新羅 箭過新羅 泥牛入海過新羅 鶴子過新羅 斫額望新羅 新羅人迷路 新羅人打鼓 向新羅國裏去.” 등이 있다. 그러나 고려와 관련된 단어는 오히려 적다.

송대 고려와의 교통노선은 주로 북방향로와 남방향로가 있다. 북방향로는 산둥 등주(登州)와 밀주(密州) 판교진(板橋鎮)에서 출발하는 항로가 있다. 등주항로는 등주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서해안 해주(海州)의 웅진(甕津)에 도착했다. 밀주항로는 밀주에서 출발하여 교주만(膠州灣)을 지나 직접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했다. 송대 등주항로와 밀주항로는 당대의 발해항로보다 빨랐다. 그 이유는 당시 송나라와 요나라가 대치상태였기에 송나라는 해상에서 요나라의 수군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희녕7년(1074) 등주 항을 폐쇄했다.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 권6 “高麗欲因(黃)眞由泉州路入貢 詔就明 潤州發來 自是王徽 王運 王熙修職貢尤謹 朝廷遣使亦密. 往來率道明州 來乘南風

18) 조여괄(趙汝适), 『제번지(諸蕃志)』상권, “志國·新羅國”

19) 풍승균(馮承鈞) 교주(校注), 『諸蕃志校注』, 臺灣商務印書館, 1986. p.88

去乘北風 風便不逾五日抵岸 明州始困供頓。”라고 한다. 즉 국가에서 고려로 가는 사신을 예전에는 북방향로는 이용했지만 1074년 이후 남방향로는 이용했다. 송나라의 남방향로는 명주항(明州港)에서 출발했다.

선화5년(1123) 의랑(儀郎)에 봉해진 서궁(徐兢)은 급사중 노윤적(路允迪, 중서사인(中書舍人) 부묵경(傅墨卿)을 수행하며 고려로 출발했다. 고려로 가는 항로는 남방향로를 이용했는데, 서궁이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남방향로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는 송과 고려 간의 해상교통에 관한 진귀한 자료이다. “宣和五年5月16日 自明州出發 19日達定海縣(今浙江定海)招寶山. 24日 自招寶山啓用航 25日 抵沈家門(今浙江舟山普陀沈家門) 26日 入梅岑(今普陀山)候風 28日 過海驢礁 蓬萊山(今大衢山) 半洋礁(今黃龍山之半洋礁) 29日 過白水洋 黃水洋 黑水洋(今東海 黃海). 6月2日 抵夾界山(今小黑山島民) 3日 過五嶼(今大黑山島西南五小島) 排島 白山(今蕎麥島) 黑山(濟州島西北之黑山島) 月嶼 闌山島 白衣島 跪苔. 6月4日 過春草苔 經檳榔礁 菩薩嶼 至竹島 5月 到苦苦苦 6日 到群山島 7日 到橫嶼. 6月8日 自橫嶼出發 過富用島(今元山島) 洪州山 鴉子苔, 馬島. 6月9日 過九頭山 唐人島 雙女礁 午後過和尚島(今大舞衣島) 中心嶼(今龍游島) 聶公島 小青嶼至紫燕島(今仁川西之永宗島). 6月10日 自紫燕島起航 午後至急水門 抵哈窟拋泊. 11日 經分嶺 至龍骨再拋泊. 12日 隨潮至禮成港. 13日 遵陸路至於王城. 回程遵原航路 途中因風向不順 屢遭風險 於7月13日離高麗 至7月27日抵明州定海縣.”²⁰⁾

(3) 복건은 해상교통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조선업 역시 발달했다. 복건의 조선기술은 매우 우수하여 송나라에서 고려로 가는 사신 선은 먼저 복건에 선박을 제작하는 명을 내리고 양절감사(兩浙監司)가 그 상황을 본 후 다시 명주에서 장식을 하니 신주(神舟)와 같았

20) 서궁(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39

다. 노운적은 신주에 탑승한 후 첫째는 능허치원안제신주(凌虛致遠安濟神舟). 둘째는 영비순제신주(靈飛順濟神舟). 셋째는 정신리섭원강제신주(鼎新利涉遠康濟神舟). 넷째는 순류안일통제신주(循流安逸通濟神舟)라고 불렀다.

선화5년(1123) 서공이 노운적과 부목경을 수해하여 고려로 갈 때 복건 상인들도 같이 고려로 향했다. 구준(丘濬)은 “中國地盡四海 自三代聖王 莫不有祀事. 在宋以前 四海之神 各封以王爵 然所祀者海也 而未有專神. 宋宣和中 朝廷遣使航海於高句麗 挾閩舟以往 中流適有風濤之變 因商之言 賴神以免難. 使者路允迪以聞 於是 中朝始知莆之湄洲嶼之神之著靈驗於海也.”²¹⁾라고 했다. 사신이 승선한 선박이 해상에서 위협에 처하면 복주의 연서신(演嶼神)과 마조(媽祖)에게 “상서로운 빛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선박이 안전하길 기원했다. 『선화봉사고려도경』권39 ‘예성항(禮成港)’에서 “比者 使事之行 第二舟至黃水洋中三舵並折 而臣適在其中. 與同舟之人 斷發哀懇 祥光示現. 然福州演嶼神 亦前期顯異 故是日舟雖危 猶能易他舵.”라고 했다. 즉 마조와 연서신은 복주 선박의 수호를 위해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남송 가정(嘉定)2년(1209) 보전(莆田)출신인 이준보(李俊甫)가 저술한 『보양비사(莆陽比事)』권7 ‘신녀호사(神女護使)’에서 “宣和五年 路允迪使高麗 中流震風 八舟溺七 獨路所乘神降於檣 安流以濟. 使還奏聞 特賜廟號順濟.”라고 하며, 또한 후에 보전출신인 정백계(丁伯桂)는 소정(紹定)3년(1230)에 저술한 『순제성비묘기(順濟聖妃廟記)』에서 “宣和癸卯 給事路允迪 載書使高麗 中流震風 七舟沈溺 獨公所乘 神降於檣 遂獲安濟. 歸奏於朝 賜廟額曰順濟.”²²⁾라고 했다. 복주의 연서신에 대해 양극가(梁克家)가 저술한 『삼산지(三山志)』권8 ‘連江演嶼昭利廟’에서는 “昭利廟 東瀆越王山之麓 乾符中 黃巢陷閩 公 …… 慨

21) 구준(丘濬), 『重修京都天妃宮碑記』, 載『丘文莊公集』권5

22) 함순(咸淳), 『臨安志』권73

然謂人曰 吾生不鼎食以濟朝廷之急 死當廟食以慰生人之望. 既歿 果獲連江演嶼. 本朝宣和二年始降於州 民遂置祠今所. 五年路允迪使三韓涉海遇風 禱而獲濟. 歸以聞 詔賜廟額昭利.”라고 기록되어 있다. 복건 상인들이 고려로 항해하면서 선박에서 수호신인 마조, 소리신(昭利神)등은 복건출신의 상인, 뱃사람들이 복건 지역에서 믿는 신이기에 안전 때문에 이들을 숭배하는 습관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4) 송대 복건은 고려와의 무역에서 많은 상품이 있었다. 송나라에서 고려로 수출되는 상품은 차, 비단, 자수, 도자기, 물소 뿔, 홍화(紅花), 염료, 불교용품, 코뿔소 뿔, 상아, 향료, 여지(荔枝), 문구류, 서적 등 이었다. 고려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주로 인삼, 약재, 천, 붉은 옷, 구리, 구리그릇, 호랑이 가죽, 화살, 합죽선, 한지 등이다. 이런 상품들의 교류를 통해 송나라와 고려에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특히 송나라와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은 매우 만족했으며 관부에서 필요로 하기도 했다. 또한 고려는 송나라에서 배운 도자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더 발전시켜 송나라로 수출하기도 했다.

(5) 송대 복건은 해상무역에서 고려와 무역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고려와의 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고, 고려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 송나라는 고려와의 외교에서 기존에 있었던 조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 외에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요나라와 대치하려 했다. 신종(神宗)은 즉위한 후 고려와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요나라에 대치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희녕원년(고려 문종22년, 1068) 복건전운사(福建轉運使) 나승(羅拯)은 조정의 명을 받고 천주 상인 황신(혹은 黃眞) 등을 고려로 보내어 송나라 조정의 의도를 알렸다. 희녕3년(1070) 나승은 또 황신을 고려로 파견했다. 이에 대해 『고려사』 문종22년에 “秋七月辛巳 宋人黃愼來見 言皇帝召江淮兩浙荆湖南北路都大制發運使羅拯曰 ‘高麗古稱君子之國 自祖宗之世輸款甚勤 曁後阻絕久矣. 今聞其國主賢王也 可遣人

諭之’ 於是拯奏遣愼等來傳天子之意. 王悅 館待優厚.”²³⁾고 했다. 황신은 두 번 고려로 파견되어 송나라 황제의 의도를 전했고 고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희녕4년(1071) 고려는 김제봉(金梯奉)에게 고려의 답변과 선물을 가지고 송나라로 파견했다. 등주에 도착하니 이로써 송나라와 고려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

남송 건염원년(1127) 양절순무사 섬몽득은 천주 상인 유열과 황사순에게 고려에 도착해서 금나라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명을 내렸다. 원풍7년 전협은 고려로 시신을 가면서 천주 상인 광적에게 고려의 여진 지도자를 만나 조공을 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라는 밀명을 내렸다.

고려 왕조는 송나라 상인을 통해 송나라의 문인, 장인, 의원, 예인 등을 고려로 초청하여 관직을 제수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주를 습득했다. 예를 들면 희녕8년(1075) 천주 상인 부선은 고려 예빈성에서 발급한 첩지를 가지고 예인들을 고려로 데리고 왔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권261에서 “神宗熙寧八年三月 (丙午)江淮發運使羅拯言 泉州商人傅旋持高麗禮賓省帖乞借樂藝等人. 上批： 已令教坊按試子弟十人可借 呼第四部經給色衣裝錢. 作拯意 奉詔前往傳習畢 早令還朝. 畫塑工俟使人入朝 前往樞密院再呈 乃罷不遣.”라고 하며, 『고려사』에 文宗13년 8월에 “宋泉州商黃文景 蕭宗明 醫人江朝東等將還制許留宗明 朝東等三人”²⁴⁾라는 기록이 전한다.

고려 정부는 고려에 도착한 상인들을 비밀리에 능력을 시험하고 관직을 제수했다. 예를 들면 구양징과 유재는 모두 고려에서 관직을 받았다. 또 천주 상인 서전은 고려를 위해 서적과 경판 등을 구해오기도 했다. 고려 승려를 책임지는 승통 의천(義天)을 모시는 승려 수개(壽介), 계상(繼常), 영류(穎流), 원자금보(院子金保), 배청(裴善)

23) 정인지, 『고려사』 권8, “世家·文宗二”

24) 정인지, 『고려사』 권8, “世家·文宗二”.

등은 고려 국왕의 명을 받아 항주에서 사망한 승려 원도려(源闍黎)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로 볼 때 천주 상인들은 송나라와 고려를 왕래하면서 양국의 관리들과 만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고려 정부의 권유나 우대하는 정책으로 고려로 가는 송나라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송나라와 고려 간의 문화 교류와 고려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 상인 역시 복건에서 무역에 종사했다. 소흥(紹興)4년(1134) “高麗羅州島人光金與其徒十餘人泛海詣泉州 風折其檣 泊泰 楚州境上. 詔付沿海制置使郭仲養贍 伺便舟還之.”²⁵⁾라고 했다. 송대 조언위(趙彥衛)는 고려에서 오는 선박에는 인삼, 은, 동, 수은, 비단 등 상품이 자주 천주에 온다고 말했다.²⁶⁾

송나라와 고려의 백성들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기도 했다. 희녕연간(1068~1077), 고려의 최거(崔舉)는 태풍으로 표류하여 천주부근에 도착했다. 그는 다행히 천주 어민들에게 구조되었다. 천주 지방관은 최거에게 통행증과 생활비용을 제공하고 그가 고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주까지 호송하였고 명주에서 고려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당시 명주 관리였던 증공(曾鞏)은 『차자(筴子)』에서 “欲乞今後高麗等國人船 因風勢不便 或有飄失到沿海諸州縣 並令置酒食犒設 送系官舍安泊 逐日給與食物 仍數日一次別設酒食. 闕衣者 官爲置造. 道路隨水陸路借鞍馬舟船. 具析奏聞. 其欲歸本國者 取稟朝旨 所貴速遠人得知朝廷仁恩待遇之意.”²⁷⁾라고 기록했다. 즉 이는 송나라에서 고려의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이다.

25) 이심전(李心傳), 『建炎以來系年要錄』권78, “紹興四年秋七月辛未”

26) 조언위(趙彥衛), 『雲麓漫鈔』권5, “福建市舶司常到諸國船舶”

27) 증공(曾鞏), 『曾鞏集』권32, “筴子”

II. 복건과 신라, 고려의 문화 교류

복건과 신라, 고려의 문화 예술 교류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문화 예술교류는 언어, 문자, 사상, 문화, 문학, 그림, 음악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된 관계가 되었다.

1. 언어와 문자

중국과 한반도의 문자 교류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즉 전국 시기 말기에 한반도에 문자가 전래되었다. 6세기 말 신라는 ‘향찰표기법(鄉筭標記法)’을 만들었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신라어로 표기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 신라에서는 향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라 신문왕(神文王, 681~691) 시기에 설총(薛聰)은 향찰표기법을 정리하여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새롭게 표기하는 ‘이두(吏讀)’를 만들었다. 이 방법은 14세기 초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이두의 사용은 문자의 음과 뜻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정인지(鄭麟趾)와 신숙주(申叔舟)는 한국어 발음과 중국어 발음을 깊이 연구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들을 중국에 13차례 파견하여 음운학에 대해 연구한 결과 1444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였다. 중국에서 고려언어에 대해 관하여 북송 초기에 손목(孫穆)이 저술한 『계림유사(鷄林類事)』²⁸⁾가 있다. 후주 복건출신인 쌍기는 고려에서 한자음에 대해 정리했다. 어떤 학자는 쌍기가 고려에서 한자음을 정

28) 진상승(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中華書局, 1997

리했기 때문에 한국의 한자 발음과 복건의 발음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고려에 전해진 주자학

주희(朱熹)는 중국 송대 이학(理學)을 집대성한 사상가이다. 그는 유학을 정통으로 보아 그가 창립한 학파를 주자학이라 부른다. 주희는 복건에서 태어나 복건의 학자 등에게 배웠고 저술, 학술활동, 거주 등 모두가 복건을 떠나지 않았다. 때문에 주자학을 복건 주자학, 민학(閩學)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자학은 고려 충렬왕(忠烈王)55년(1289) 안향(安珦)에 의해 한반도로 전해졌다.

안향(1243~1306)은 호가 회헌(晦軒),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고려 흥주(興州)출신이다. 1289년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온 후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보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귀국 시 안향은 주자가 저술한 서적을 베낀 문서, 초상화, 그리고 공자의 초상화를 가지고 고려로 귀국했다. 그는 성균관에서 주자학을 강연했다. 또한 6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한 근의 은, 7품 이하의 관리에게 포(布)를 걷어 양현고에 보관하여 후학을 위한 장학기금과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면서 주자학을 전파했다.²⁹⁾ 안향의 제자인 백이정(白頤正)은 원나라로 가서 10년 동안 주자학을 연구했다. 귀국 시 주자의 저작을 가지고 왔고 이제현(李齊賢) 등에게 주자학을 전수했다.

29) 임금수(林金水), 시필진(謝必震), 『福建對外文化交流史』, 福建教育出版社, 1997. p.79

3. 음악과 그림의 교류

중국과 한반도는 음악, 춤, 예술 등 방면의 교류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상주(商周) 시기 중국의 음악과 춤은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수당 시기에 7부악(七部樂), 9부악(九部樂), 당대에 10부악(十部樂) 중에 고려악(高麗樂)이 있었다. 당송 시기 고려에 많은 시와 곡이 전해졌다. 『고려사』의 樂志에 “北宋傳入의 歌舞曲七套 曲詞三十首 小令慢曲四十四首 共七十四首. 經專家考證 其中福建崇安人柳永十五首 建陽人阮逸一首 還有晏殊 歐陽修 蘇軾 李甲 趙企 晁端禮各一首.”³⁰⁾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완일(阮逸)은 『고려사』에 ‘阮逸女’라고 기재되어 있다. 완일에 대해 『八閩通志』 “阮逸 建陽人 仕爲鎮安軍節度推官 景祐初 知杭州. 曾向上其所撰 『樂論』十二篇並『律管』十三與胡瑗俱召赴闕 命同校『鍾律』分造鍾磬各一處. 尋除鎮安軍掌書記. 康定元年 上『鍾律制議』並『圖』三卷. 皇祐中 更鑄太常鍾 又召瑗 逸與近臣太常議於秘閣 遂曲作樂事 遷尙書屯田員外郎.”³¹⁾라고 했다. 즉 완일은 음악, 악보에 조예가 깊은 관원임을 알 수 있다.

송대에 고려는 여러 번 악공과 예인을 고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희녕7년(1074), 고려 국왕은 의원, 악공, 화공, 석공을 요청했다. 이에 신중은 “詔羅逋於四色人內募願行者 各擇三兩人先令赴闕”³²⁾라 명을 내렸고 다음 해 고려 국왕은 천주 상인 부선에게 고려 예빈성에서 발행한 첩지를 주며 송나라의 예인을 데려오라고 명을 내렸다. 신중은 “已令教坊按試子弟十人可借 呼第四部給色衣裝錢 作拯意奉詔遣往. 傳習畢 早令還朝. 畫塑工俟使人入朝遣往.”³³⁾라고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30) 양위생 등,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하책, 學苑出版社, 2002. pp.662~668

31) 황중소(黃仲昭), 『八閩通志』권65, “人物·建寧府·儒林”

32) 이도(李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권250, “神宗熙寧七年二月”

33) 이도, 『속자치통감장편』권261, “神宗熙寧八年三月丙午”

4. 서적 교류

한자가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서적도 역시 전해졌다. 고려에서는 송나라로 가는 사신에게 서적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송나라에서 고려로 서적을 보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단공(端拱)2년(989) 송 태종(太宗)은 고려에 『대장경(大藏經)』 한 부를 보냈다. 순화원년(990) 송 태종은 『장경(藏經)』, 『비장전(秘藏詮)』, 『소요영(逍遙詠)』, 『연화심론(蓮花心論)』등을 고려에 보냈다. 대중 상부9년(1016) 송 진종(眞宗)은 『구경(九經)』, 『사기(史記)』, 『양한서(兩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제자, 역법, 『성혜방(聖惠方)』, 황제가 직접 쓴 시 등을 고려로 보냈다. 고려에서는 송나라에 도착한 사신들이 서적을 구매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원풍8년 『대장경』과 『화엄경(華嚴經)』을 각각 한 질씩 구매했다.

송나라와 고려 간의 서적 교류는 민간에까지 확대되었다. 후당(後唐) 천성(天成)3년(928) 신라 승려는 복주에서 『대장경』 한 질을 가지고 귀국했다. 고려 승려 수개는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왔다. 원우원년(1086) 수개는 천여 권의 경서를 가지고 고려로 귀국했다. 원우2년(1087) 천주 상인 서전은 항주에서 2,900여 개에 새긴 화엄경을 가지고 고려로 갔다. 송대 건양(建陽)출신인 옹화(熊禾)는 『同文書院上樑上』에서 “兒郎偉 拋梁東 書籍高麗 日本通.”라고 기재했다. 즉 이 시기 북건에서 고려와 일본으로 많은 서적들이 유통되었다. 고려는 많은 중국 서적을 했기에 오대 시기 중국은 고려로 사람을 파견하여 불교서적을 얻어오라는 명을 내렸다. 고려 승려 중의 일부는 불경을 가지고 중국에 오면서 북건에 도착하기도 했다.

Ⅲ. 복건과 신라, 고려의 과학기술 교류

중국과 신라, 고려 사이에 해상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역시 상응하는 발전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교류는 쌍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1. 견직물기술

중국의 방직기술은 오래 전에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고려 왕조 시기에 고려 사람들은 무늬를 넣거나 자수에는 뛰어난 기술이 있지만 양잠을 잘하지 못해 원료가 되는 비단 실은 산둥, 복건, 절강에서 온 장인들에게 의존했다.³⁴⁾ 당시 고려에서 필요한 견직물은 산둥, 복건, 절강에서 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견직물기술이 고려에 전래되었다.

2. 제분과 인쇄술

양송 시기 복건의 제분업은 최고로 발전했다. 관용, 민용, 마을용으로 구분되면 중심지역은 복주, 건양, 정주(汀州), 소무(邵武), 천주, 보전(莆田) 등이었다. 송원 시기 천주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였고 중국 남방 경제의 중심지였다. 이로 인해 제분업 역시 발전했다. 천주의 여러 관청, 서원, 민간에서 다량의 서적이 필요했고 많은

34) 서경, 『선화봉사고려도경』권23, “雜俗二, 土産”

서적들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당시 천에 모래를 사용한 ‘건본문자(建本文字)’는 천주에서 고려로 수출되었었고 고려에서는 환영 받았다. 『제번지』의 기재에 따르면 상선에서는 오색의 비단에 건본문자를 사용했다.³⁵⁾ 당시 마사(麻沙)로 만든 서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부로 많이 수출되기도 했다. 남송 건양출신인 응화는 동문서원(同文書院)을 위한 『上樑文』 “兒郎偉 拋梁東 書籍日本高麗通 兒郎偉 拋梁北 萬里車書通上國.”라고 기재했다. 이는 즉 그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V. 복건과 신라, 고려와의 물품 교류

복건과 신라, 고려 사이에 토산품의 교류는 역사가 길지 않다. 대표적인 것들은 복건에서 수출된 것은 여지, 차 등이고 복건에서 신라, 고려의 토산품을 수입하는 것은 소나무, 인삼, 칩, 고려채(高麗菜) 등이었다.

1. 여지(荔枝)

여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로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달고 맛이 좋아 사람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었다. 복건에서 생산되는 여지가 가장 유명했다. 그중 복주, 보진, 천주, 장주(漳州) 등의 지역에

35) 조여괄(趙汝活), 『제번지(諸蕃志)』上, “志國·新羅國”

서 생산량이 가장 많았다. 채양(蔡襄)이 저술한 『여지보(荔枝譜)』에는 복건에서 생산되는 여지가 32개 품종이 있다고 기록했다. 예를 들면 陳紫, 江綠, 萬家紅, 蘭家紅, 何家紅, 法石白, 綠核, 眞珠, 十八娘荔枝, 釵頭 등이 있다. 여지를 가공하여 보존하는 방법은 紅鹽白曬, 蜜煎, 曬煎 등 4가지가 있다. 그중 紅鹽의 가공방법을 살펴보면 매실, 소금, 뽕나무 꽃으로 빨강색의 액체를 만든 후 여지를 넣는다. 그 후에 여지를 꺼내 건조한 곳에서 말리면 빨간 빛의 여지가 완성된다. 이 홍염은 신맛과 단맛이 나며 3~4년 동안 보존이 가능했다. 복건의 여지는 개봉,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 등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 신라, 일본, 아라비아 등 국가로 수출되었다. 『荔枝譜』에 “荔枝成熟以後 商人 ‘不計美惡 悉爲紅鹽者. 水浮陸轉 以入京師. 外至北戎, 西夏 其東南舟行新羅 日本 流求 大食之屬莫不愛好 重利以酬之’”라는 기록도 있다. 즉 여지는 국내외로 많이 팔렸으며 여지와 관련된 산업, 특히 종자개량이 발전했다. 때문에 “상인들 많이 팔아 이익이 크고, 농촌은 종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2. 차

중국 차는 역사가 깊다. 송대 이전에는 일부만 차를 마셨으나 송대 이후 이런 차를 마시는 행동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복건의 차가 유명해졌다. 채양(蔡襄)이 복건 전운사(福建轉運使)를 지내면서 상질의 차를 보면서 『차록(茶錄)』을 저술하게 되었다. 『차록』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는데, 상편은 차에 대한 내용이고, 하편은 다구(茶具)에 관한 내용이다. 천주에서 생산된 차와 무이산(武夷山)에서 생산된 용단차(龍團茶)는 모두 중요한 상품으로 해외 국가에 기증되거나 판매되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복건의 용

봉사단차(龍鳳賜團茶)을 매우 좋아하였다.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에 “(高麗)土産茶 味苦澀 不可入口. 惟貴中國臘茶 並龍鳳賜團. 自錫齋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飲茶 益治具.”³⁶⁾라는 기록처럼 고려에서 마시는 용봉사단차는 송나라에서 하사품으로 주거나 일부는 사온 것이다. 용봉차는 매우 귀한 차로 구양수(歐陽修)는 『귀구록(歸舊錄)』에서 “茶之品 莫貴於龍鳳 凡八餅重一斤. 慶曆中蔡君謨爲福建路轉運使 始造小片龍茶以進. 其品純精 謂之小團 凡二十餅重一斤 其價值金二兩. 然金可有而茶不可得 每因南郊致齋 中書 樞密院各賜一餅 四人分之. 宮人往往鏤金花於其上 蓋其貴重如此.”라고 기술했다. 이로 볼 때 고려 사람들이 용봉차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3. 신라 소나무

신라 소나무는 신라의 소나무과 식물이다. 서궁은 『선화봉사고려도경』권23 ‘土産’에서 신라 소나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했다. “廣 楊 永三州多大松. 松有二種惟五葉者乃結實. 羅州道亦有之 不若三州之富. 方其始生 謂之松房 狀如木瓜 青潤緻密. 至得霜乃拆 其實始成 而房乃作紫色. 國俗雖果肴羹齋亦用之 不可多食 令人嘔吐不已.” 즉 신라 소나무는 두 종류가 있고 그중 오엽송(五葉松)은 열매를 맺는데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 소나무는 당대에 복건으로 전해졌고 천주부 동안현(同安縣) 가화리(嘉禾里, 지금의 하문 시) 금방산(金榜山)에 있었다. 당말 문인 진암(陳黯)은 금방산에서 스스로의 호를 ‘장로(場老)’라고 삼았다. 이로 인해 금방산을 장로산(場老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암의 학

36)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권32, “器皿三·茶俎”

당에 두 그루의 신라 소나무가 있었다. 『민서』에 기재에 의하면 “今(嘉禾嶼)豪灶有金榜山 是(陳)黯讀書處. 書堂側有大石 高十六丈 名金榜石 刻‘談玄石’三字. 臨海有釣魚處也. 後人築海爲埭 今在田中矣. 又云: ‘其當時書堂有新羅松二本云’”³⁷⁾라고 했다.

금방산의 소나무는 후대 시인의 시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저(張翥)의 『金榜山』에서 “衣冠陳氏族 桃李薛公園. 場老遺文古 岩僧舊跡存. 苔磯荒磧岸 金榜勒瑤琨. 已憐松特異 尤嘉石能翻.”³⁸⁾ 또한 명대 섭보량(葉普亮)의 『題金榜山』에서 “適自上苑者(看)花回 暫遊場老石室中. 在昔曾聞高士志 從今益重古人風. 岩幽獨挺青松秀 澗淺長抽綠草茸. 我亦欲爲棲隱計 壯心未敢負前功.”³⁹⁾라고 기술했다. 그들은 모두 금방산의 소나무를 묘사했는데, 이 소나무가 신라 소나무이다. 금방산에 현재는 금방산 공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당대에 전해진 두 그루의 신라 소나무는 없어졌다.

4. 신라 인삼

신라 인삼(人參)은 남조 시기 중국에 전해졌다. 도홍경(陶弘景)은 『명의별록(名醫別錄)』에서 당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몇 가지 약재에 대해 기록했다. 이 약재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오미자(五味子), 조선 닭(朝鮮鷄), 토사자(菟絲子), 인삼 등이 있다. 그는 백제와 고구려의 인삼과 중국 인삼의 향기, 맛, 약효 등을 비교했다. 도홍경은 인삼에 대해 “百濟者形細而堅白 氣味薄於上黨(參) 次用高(句)麗…… 形大而虛軟 不及百濟.”⁴⁰⁾라고 했다 그 후 오대 시기 이순(李

37) 하교원, 『민서』권12, “方域志·泉州府同安縣”

38) 도광(道光)연간, 『하문지(廈門志)』권9, “藝文略三”

39) 설기봉(薛起鳳), 『노강지(驚江志)』권1, “山川”

40) 진상승, 『중한교류삼천년』, 中華書局, 1997. pp.96~97

珣), 송대 당신미(唐愼微), 소송(蘇頌), 명대 이시진(李時珍) 등이 인삼을 기록한 내용은 모두 도홍경의 기록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당신미는 『유증본초(類證本草)』권6 ‘人參’에서 “『圖經』曰：‘人參生上黨山谷及遼東. 今河東諸州及泰山皆有之. 又有河北樵場及閩中來者 名新羅參 然俱不及上黨者佳. 其根形狀如防風而潤實 春生苗 多以深山中背陰近礮漆下濕潤處.”라고 기록했고 이시진은 『본초강목(本草綱目)』권12(상) ‘人參’에서 역시 “人參(李)珣曰：‘新羅國所貢者 有手足狀 如人形. 長尺余 以杉木夾定 紅絲纏飭之’ …… (蘇)頌曰：‘今河東諸州及泰山皆有之. 又有河北樵場及閩中來者 名新羅參’”라고 기록했다. 당송 시기 신라 인삼은 신라에 조공품으로 보내는 것 외에 ‘閩中來者’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는 복건 상인이 신라, 고려에 가서 직접 구매하여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중국에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5. 신라 칩

신라에서 복건으로 전해진 식물 중에 신라 칩이 있다. 신라 칩을 토과(土瓜)라고 불렀다. 『팔민통지』권25 “食貨·土産·果之屬·福州府”에서 “土瓜 一名新羅葛. 藤似葛根 大者如碗 小者如拳. 色青白 味甘 可以解醒清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 칩을 또한 인도과(黃菟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도과에 대해 『사고전서(四庫全書)·이아주소(爾雅注疏)』권8 ‘考證’에 “黃菟瓜 鄭樵曰：‘俗呼新羅葛’”라는 기록이 있다.

복건에서 신라 칩에 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송대 천주출신인 양극가(梁克家)가 기록했다. 그가 저술한 『삼산지(三山志)』에 “新羅葛 根甚大 色青白 一名土瓜.”⁴¹⁾라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 복건의 연강(連江), 장락(長樂) 보전(莆田), 소무(邵武) 등 지역에서 재배했다. 동

치(同治) 시기의 『장락현지(長樂縣志)』에서 “土瓜 卽月令王瓜 一名新羅藤. 似葛根 實大者如碗 小者如拳. 色青白 味甘 可解醒渴.”⁴²⁾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복건의 다른 지역에서도 토과를 재배했다. 도광(道光) 시기의 『진강현지(晉江縣志)』에서 “葛 俗呼土瓜. 肉如蘿蔔 味晁. 苗生爲藤 種者取藤斷之 作圈埋之則生 卽生葛根也. 以充果啖能解醒 今之食葛非爲絺給者也.”⁴³⁾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에서 기록된 토과는 신라 칩으로 모두 뿌리를 먹는다. 그 맛은 과일과 비슷하고 해독 작용을 한다.

6. 고려채

감람(甘藍)은 십자화과 감람류의 채소이다. 복건 남부에서는 고려채(高麗菜)로 부른다. 즉 고대 한반도에 해로를 통해 천주로 전해졌다. 천주 사람들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고려라고 불렀기에 감람을 고려채라고 부른다. 현재 복건 남부에서는 지금도 고려채라고 부른다. 고려채의 모습은 잎들이 쌓은 모습이기에 복주에서는 ‘포채(包菜)’⁴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채가 언제 천주에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에서 관련된 내용이 없기에 앞으로 이 방면에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명청 시기 복건 남부의 사람들은 동남아와 대만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다. 고려채는 집안에서 자주 먹는 채소이기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 감람을 고려채로 부른

41) 양극가, 『삼산지』권41, “土俗類三·物產·果實”

42) 동치(同治)연간, 『장락현지(長樂縣志)』권3, “地理·物產·瓜屬”

43) 도광연간, 『진강현지(晉江縣志)』권73, “物產·果之屬”

44) 임경생(林更生), 『古代從海路引進福建的植物』, 『海交史研究』, 1982. 7.

다. 즉 고려채가 천주에 전래된 후 복건 남부로 전해졌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동남아와 대만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복건과 신라, 고려 간의 불교문화 교류

당말 오대 시기에 복건의 왕심지와 천주 자사 왕정빈은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다. 또한 북방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 천하의 승려들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복건은 “승려가 운집하니 선학이 나날이 발전했다.”⁴⁵⁾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중에 천주와 복주에서 불교문화가 가장 발달했다. 천주는 특히 사원이 많았으며 승려 역시 많아 ‘천주 남부는 불교국’⁴⁶⁾이라는 말이 생겼다. 불교문화가 발달하면서 복건과 신라, 고려 간의 불교문화 교류가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의 우호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1. 복건에서 서역으로 떠난 신라와 고려 승려

당 오대 시기에 신라 승려는 중국에서 천축으로 구법을 떠났다. 이들 중에 복건을 경유한 승려도 있었다. 대표적인 신라 승려가 혜

45) 『祖堂集』, 上海古籍出版社, 1994 참조.

46) 북송 초기 송 태종(太宗)은 천주의 승려가 수만 명에 넘고 출가를 준비하는 자들이 4천여 명이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도(至道) 원년(995) 6월에 특별히 승려를 제한하는 조서를 반포했다.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 “道釋一之一五” 참조.

륜(慧輪)이다. 혜륜에 대해 “自本國出家 翹心聖跡 泛舶而陵閩越 涉步而屆長安 奉敕隨玄照法師西行 以充侍者.”⁴⁷⁾라는 기록이 있다.

당대 중국과 신라의 해상교통은 주로 두 개의 항로가 있었다. 즉 등주에서 고려와 발해도로 가는 항로와 절강에서 출발하여 동지나 해와 황해를 통과하는 항로가 있었다. 혜륜에 대해 “선박을 타고 걸어서 민월(閩越)에 도착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신라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한 후 장안으로 갔다가 현조(玄照)를 수행하며 복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복건에서 해로를 이용하여 천축으로 가는 승려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송대 도원(道元)은 『景德傳燈錄』 권17에서 ‘台州瑞岩師彥禪師’, 권26에서 ‘廣州光聖道’, 권26에서 ‘杭州龍華寺慧居禪師’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복건출신이다. 명대 하교원은 『민서』권136 “方外志·釋衲·福州府·五代”에서 이들 세 승려는 복주부에서 수행한 승려라고 기록했다.

현조는 두 번 천축으로 구법을 떠났다 첫 번째는 정관 시기에 문성공주(文成公主)를 호송하면서 천축으로 떠났다. 문성공주는 정관 15년(641) 토번(吐蕃)의 송찬간포(松贊干布)에게 시집갔다. 이로 볼 때 현조가 천축에 구법을 떠난 시기는 641년 이후이다. 현조의 두 번째 천축으로 떠난 시기는 인덕(麟德)2년(665)이다. 당 고종은 현조에게 갈습미라국(羯濕彌羅國, 지금의 캐시미르)에서 장년파라문로가 일다(長年婆羅門盧迦溢多)를 가지고 오라는 칙명을 내렸다. 혜륜은 이때 현조를 수행하며 천축으로 향했다.

또 고려(신라를 의미) 승려 원표(元表)는 당 천보(天寶)연간(742~755)에 당나라에 도착했다. 후에 서역으로 출발하여 석가모니의 유적을 답사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화엄경(華嚴經)』을 가지고 영덕(寧德) 지제산(支提山)의 석실에서 머물렀다. 원표에 대해 『宋高僧傳』

47) 의정(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상권에 의하면 혜륜(慧輪)이 당나라에 도착한 시기는 대략 665년 이전이다.

“釋元表 本三韓人也. 天寶中來遊華土. 仍往西域 瞻禮聖跡 遇心王菩薩指示支提山靈府 遂負『華嚴經』八十卷 尋訪霍童 禮天冠菩薩 至支提石室而宅焉. 先是此山不容人居 居之必多霆震猛獸毒蟲 不然鬼魅惑亂於人. …… 表齋經棲泊 澗飲木食 後不知出處之蹤矣. 於時屬會昌搜毀 表將經以花欄木函盛 深藏石室中. 殆宣宗大中元年丙寅 保福慧評禪師素聞往事 躬率信士迎出甘露都尉院 其紙如新繕寫 今貯在福州僧寺焉.”⁴⁸⁾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영덕 지제산은 천관보살(天冠菩薩)이 머무는 곳으로 『화엄경』에 “東南有處名山 號曰支提 從昔以來 諸菩薩衆於中止住. 現有菩薩名曰天冠 與其眷屬 諸菩薩衆一千人 俱常在其中 而演說法.”라는 내용이 있다. 원표는 천축에서 돌아온 후 『화엄경』82권을 가지고 지제산에서 머무르며 수년간 수행을 했다. 후에 회창(會昌)연간에 역불정책이 시행되자 원표는 종려나무로 만든 함에 『화엄경』을 넣고 석실에 묻었다. 이 사실에 대해 선종(宣宗) 대중(大中)원년(847) 보복사(保福寺)혜평(慧評)선사는 “素聞往事 躬率信士迎出甘露都尉院.” 『복건통지(福建通志)』에서는 “乃抵甘露 邀都尉二僧迎歸”⁴⁹⁾라는 기록이 보이고, 북송 개보(開寶)4년(971) 절강의 전숙(錢俶)은 『화엄경』을 번역할 때 여러 고승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승려가 없었다. 원표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건 지제산으로 사람을 보냈다.⁵⁰⁾ 『십국춘추(十國春秋)』에 “天寶四年 忠懿王閱『華嚴經』 因詢天冠菩薩住處 大會高僧 無有知者. 聳習聞其處 遂遣使至閩支提山 得『華嚴經』八十二本 仿佛見天冠千軀 金燈四耀.”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에서 충의왕(忠懿王)은 전숙이다. 즉 고려 승려 원표는 불교경전인 『화엄경』을 보호하여 유실되지 않게 한 큰 공로가 있다.

48) 찬녕(贊寧), 『송고승전(宋高僧傳)』권30, 『唐高麗國元表傳』

49) 도광연간, 『복건통지(福建通志)』권46, 『高僧傳』

50) 하교원, 『민서』권31, “方域志·寧德縣·支提山”

2. 신라, 고려에서 법통을 계승한 설봉의천(雪峰義存)과 그 제자

선종은 북건에서 영향이 매우 컸다. 예를 들면 “百丈 長樂人也 黃檗 福州人也 滂山 長溪人也 雪峰 南安人也 玄沙 福州人也 曹山 莆田人也 是福建唐代高僧天下莫盛焉.”⁵¹⁾라고 했다. 이 중에서 설봉의존(雪峰義存)이 영향력이 가장 컸던 선사(禪師)였다.

의존(822~907)은 속세의 성이 증(僧)이고, 조부 이래로 모두 불교를 가까이 했었다. 그는 보진 옥간사(玉澗寺) 승려 경현을 스승으로 모시고, 17세에 출가했다. 회창연간(841~846)에 당 무종(武宗)은 억불정책을 실시했다. 의존은 유생 복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북주로 갔다. 부용산(芙蓉山)에서 영훈(靈訓)선사를 만났는데, 영훈선사는 그를 보고 칭찬하며 자신의 곁에 두었다. 선종이 억불정책을 폐지하자 의존은 영훈선사의 문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후에 의존은 북방을 돌아다니며 유주(幽州, 지금의 북경 지역)의 보살사(寶刹寺)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았다. 후에 그는 명산을 순례하며 여러 선종에 대해 배웠다. 함통(咸通)9년(868) 부용산으로 돌아왔다. 그 후 북주자사 이경(李景)의 요청으로 서이산(西怡山)에 사찰을 세우니 이 사찰이 서선사(西禪寺)였다. 함통11년(870)에서 간부(幹符)2년(875)까지 의존은 사백(師伯)인 행실(行實)의 협조를 얻어 현지의 신도와 북주자사, 북건관찰사 위수(韋岫)이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주에서 코끼리 형상을 한 지역에 설봉사(雪峰寺)를 세웠다.

의존선사의 주변에 제자는 모두 1,700명이었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56명이었다. 그중에 ‘기연이 없는 화두’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46명이었다. 의존의 유명

51) 진연(陳衍), 『福建通志』권85, 『高僧傳』

한 제자는 복주 현사사(玄沙寺)의 사비(師備), 월주(越州) 동암(洞岩)의 가휴(可休), 신주(信州) 아호(鵝湖)의 지부(智孚), 천주 소경사(招慶寺)의 혜릉(慧楞), 복주 고산(鼓山)의 신안(神晏) 등이 있다. 외국의 제자로서는 고려 영조(靈照)선사, 고려 현눌(玄訥)선사, 신라 대무위(大無爲)선사 등이 있다.

고려 영조선사는 깨달음을 얻은 후 항주 용화사(龍華寺)에서 불법을 전했다. 『송고승전』에 “次杭州龍華寺釋靈照 本高麗國人也。重譯而來 學其祖法 入乎閩越 得心於雪峰。苦志參陪以節儉勤於衆務 號照布納。千衆畏服 而言語似涉島夷。性介特 以恬淡相持。”⁵²⁾라는 기록이 있다. 영조선사는 수행을 하면서 오로지 승복 한 벌만 있었다. 중생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했고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그를 하여 ‘照布衲’이라 불렀다. 그는 후에 후진(後晉) 천복(天福)12년(947)에 원적했고 항주 대자산(大慈山)의 탑에 안장되었다. 그를 계승한 제자로서는 태주(台州) 서암(瑞岩)의 사진(師進)선사, 태주(台州) 육통원(六通院)의 지구(志球)선사, 항주 운룡원(雲龍院)의 귀(歸)선사, 항주 공신원(功臣院)의 도한(道閑)선사, 복주 보국원(報國院) 조(照)선사, 태주(台州) 백운(白雲)의 내(乃)선사 등이 있다.

현눌선사에 대해 “高麗人也。初住福清道場 傳象骨之燈 學者歸慕。” “師住福清二十年 大闡玄風 終於本山。”⁵³⁾라고 했다. 현눌의 ‘傳象骨之燈’은 설봉의존의 등(燈)을 받았다. 즉 설봉산은 원 이름이 상골산(象骨山)이었다. 오대 시기 천주자사 왕정빈은 현눌선사를 위해 복청사(福淸寺)를 세웠다. 복청사에 대해 『민서』에 “福淸寺 王延彬所建 以居高麗僧者 僧名玄訥。”⁵⁴⁾이라는 기록이 있다. 현눌은 이 사찰

52) 찬녕, 『송고승전』 권13, “晉永興永安院善靜傳附靈照”

53) 도원(道元),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9, “泉州福淸玄訥禪師”. 현눌(玄訥)은 당 말기에 도착하여 복건에서 의존(義存)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의존이 원적한 시간은 907년이기에 현눌은 당연히 신라 승려이다.

54) 하교원 : 『민서』 권8, “方域志·南安縣·西山”

에서 30년을 생활하면서 원적했다. 오대 시기 북청사에서 유명한 승려는 사위통현(師巍通玄)선사, 행흠광법(行欽廣法)선사 등이 있다. 그 후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북청사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이는 중한 양국의 우호 교류를 관한 역사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송대 도원의 『경덕전등록』권19에 설봉의존의 가르침을 계승한 승려 중에 또 신라 대무위선사가 있다. 그에 관해서 깨달음을 얻는 화두로 설봉의존의 가르침을 이었기에 이곳에서는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

설봉의존의 제자 혜릉(慧稜)의 법통을 계승한 승려 중에 신라 구산(龜山)선사, 정관(澄觀)선사, 중봉(重峰)선사 등이 있다. 혜릉(854~932)은 속세의 성이 손(孫)씨이고 항주 염관(鹽官)출신이다. 13세에 소주 통현사(通玄寺)에서 수계를 받고 후에 참선원(參禪苑)을 지냈는데 남방에 선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건으로 가 의존을 배알했다. 그 후 의존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설봉에서 30년을 수행하면서 하산하지 않았다. 천우(天祐)3년(906) 천주자사 왕정빈이 소경사(昭慶寺)의 주지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혜릉은 수행하는 자는 옮길 수 있으니 오로지 후일만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후량(後樑) 개평(開平)3년(96) 민왕 왕심지는 혜릉에게 장경사(長慶寺)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초각대사(超覺大師)’라는 호를 내렸다. 혜릉에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 2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신라의 구산선사가 있었다. 구산선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상국(相國)을 지낸 배휴계(裴休啓)가 법회를 개최할 때 구산에게 “그대는 어떤 경전을 보았는가?”라고 질문했다. 구산은 “『무언동자경(無言童子經)』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배휴계는 “몇 권인가?”라고 질문했다. 구산이 “2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배휴계는 “무언(無言)이 어째서 오히려 2권인가?”라고 질문했다. 구산이 대답하지 못하자 이라 혜릉이 구산

을 대신하여 “무언에 대해 논한다면 오로지 2권만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⁵⁵⁾ 『선문보장기(禪門寶藏記)』상권 『해동칠대록(海東七代錄)』의 기록에 의하면 해릉선사의 가르침은 징관선사와 증봉선사가 계승했다.⁵⁶⁾

설봉의존의 또 다른 제자 사비(835~908)는 세속의 성이 사(謝)씨이고 복주출신이다. 사비는 30세에 갑자기 출가에 뜻이 생겨 부용산 영훈선사에게 수행을 배웠다. 그리고 남창(南昌) 개원사(開元寺)에서 수계를 받았다. 그 후 복건으로 돌아왔다. 함통(咸通)연간에 사비와 의존은 설봉사에서 같이 수행하며 선학의 체계를 잡았다. 사비는 후에 복건 현사원(玄沙院)에서 불법을 알렸고 여러 지역의 승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송대 양극가의 『삼산지』에 “安國寺 忠信里. 始曰‘龍丘’ 會昌例廢. 乾寧二年 忠懿王復之. 光化初 僧師備自雪峰來居焉 館徒常千人 高麗 日本諸僧亦有至者.”라고 기록했다.⁵⁷⁾ 사비가 안국사(安國寺)에서 불법을 알릴 때 제자는 천 명이 넘었고 그중에 고려 승려와 일본 승려도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왔다. 그러나 고려 승려와 일본 승려의 이름이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복건에 도착해서 구법을 한 신라 승려와 고려 승려는 배움을 이룬 후 서로 다른 행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영조선사, 현눌선사는 각각 항주와 천주에서 불법을 전파했으며, 구산선사, 징관선사, 증봉선사 등은 고려로 귀국한 후 고려에서 선종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이로 인해 신라와 고려에서 선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55) 도원, 『경덕전등록』권21, “新羅龜山和尚”, 보제(普濟), 『五燈會元』권8, “新羅龜山和尚” 참조

56) 양위생 등, 『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上冊, 學苑出版社, 1999. p.879

57) 양극가, 『삼산지』권38, “寺觀類”

3. 복건과 신라, 고려 간에 관련이 있는 사찰과 문물

복건과 신라, 고려 사이에 관련이 있는 사찰과 문물은 현재 남안시(南安市) 하미진(霞美鎭)의 신라사(新羅寺), 천주 풍택구(豐澤區), 복청사, 복주, 경성사(慶城寺)의 고려동불상(高麗銅佛像), 석순(石筍), 작은 목탑 등이 있다.

신라사에 관해 명나라 황중소(黃仲昭)는 『팔민통지(八閩通志)』권 77 ‘寺觀·泉州府南安縣’에서 “新羅寺 在二十二都 宋季建 國朝洪武十八年重建.”라고 기록했고, 강희(康熙)연간의 『남안현지(南安縣志)』권 20 ‘雜志·寺’에서 “新羅寺 在二十二都 宋末里人柯使舍地建 元至正火 明洪武乙丑僧純宗重建 今廢.”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건륭(乾隆)연간의 『복주부지(泉州府志)』권 16 ‘壇廟寺觀·南安縣’에서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다만 순종(純宗)이 신라사를 중건한 시기는 명나라 홍무(洪武)6년이 아니다. 즉 신라사는 송대 말기에 창건했고 원나라 지정(至正)연간(1341~1367)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찰이 소실되었다. 홍무18년(1385)에 순종이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사가 있었던 이십이도(廿二都)에 용광산(龍光山), 석종산(石鐘山), 대안산(大安山), 선봉산(仙峰山), 봉황산(鳳凰山) 등이 있다. 용광산에 있는 신라사에 관해 사료에 기록이 남아 있다. 강희연간의 『남안현지』권 2 ‘疆域志’에 “龍光山 在縣西北二十里 屬廿二都 上有龍光院 …… 下爲報恩院 新羅院.”⁵⁸⁾라고 했다.

신라사는 당대 신라인들이 모여서 거주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남안현지』의 내용에 의하면 신라사는 이십이도(二十二都)에 있었는데 이곳을 신라촌이라 불렀다. 이 마을은 지금도 남아 있다.⁵⁹⁾ 신라

58) 강희(康熙)연간, 『남안현지(南安縣志)』권 1, “疆域志”

59) 강희연간, 『남안현지』권 1 “疆域志”에 “二十二都 (在)縣西北二十里 圖一. 在宋爲禮順里, 統於唐安鄉. …… 鄉有十二. 曰後田 曰長廳 曰新羅 曰溪洲 曰圳後 原白葉 曰烏樹 曰光坑 曰桑林 曰莊口 曰下尾.”

촌의 위치는 진강(晉江)에 동쪽과 서쪽에서 흘러드는 시내가 만나는 쌍계구(雙溪口)의 강변에 있다. 이 건너편에 유명한 구일산(九日山)과 연복사(延福寺)가 있다. 연복사는 남조 시기 인도 승려 구나라타(拘那羅陀, 진제)가 머무르며 『금강경(金剛經)』을 번역했던 사찰이다. 남조 시기 천주에서 해외무역의 중심 항구였던 양안항(梁安港)이 구일산 부근에 있었다. 당대 천주의 해외교통이 더욱 발달하여 해외무역의 4대 항구의 하나가 되었다. 송대 천주의 시박사(市舶司) 관원과 군사를 통솔하는 관원이 이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구일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당대 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연해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해상교통과 무역활동에 종사했다. 때문에 해상교통이 발달한 진강 강변에 신라촌을 만들어 신라인들의 거주지와 신라인들을 위한 신라사를 만들 수 있었다.

천주시 풍택구의 복청사는 오대 시기 천주자사 왕정빈이 고려 승려 현눌선사를 위해 세웠다. 복청사는 계속 수리를 하여 청나라 도광(道光)28년(1848) 다시 수리할 때 진경용(陳慶鏞)은 『중수복청사모계(重修福淸寺募啓)』에서 “泉築大士林祇園無慮數十旃也 貝葉無慮數百數也 三乘五宗七宗無慮數萬卷也 而稱最古者 南則龍山寺 北則福淸寺 二者爲冠”이라 기록하여 복청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복주 경성사에는 고려에서 만든 동불상, 석순, 작은 목탑이 있다. 양극가는 『삼산지』권33 ‘寺觀類一·在城(寺)’에 “懷安慶城寺 州東 本王延義之第 既卽爲位 天福七年 乃施爲永隆金身羅漢禪寺. 皇朝祥符三年三月 東封西祀畢 賜今額. 高麗銅像 銅像三 一爲人所攘 後木刻代之. 胡僧八 壯膜者羅漢十八. 侍立胡奴及僧各一. 石碑徑二尺 高丈餘 上刻無量壽 文殊 普賢像及樓閣之狀. 東小殿深沙神一 旁立僧一 童一. 石筍高五尺 東西植於庭西廊 有板記植. 小木塔藏於西殿 閩王時皆爲高麗所獻”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경성사는 본래 민왕 왕십지의 저

택이었다. 천우3년(906) 이축(李祝)이 세운 『恩賜琅琊王德政碑』가 저택 앞에 있었고 후진 천복7년(942) 왕정희(王延羲) 나한선사(羅漢禪寺)를 세웠다. 천운(天運)2년(945) 오월국이 복주를 점령하고 민국을 멸망시킨 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왕이 거주했던 저택을 사원으로 만들었다. 북송 개보7년(974) 다시 수리했고 대중 상부3년(1010) ‘경성사’라고 개명했다. 원대에 부서졌지만 건물 한 채는 남아 있었다. 명나라 만력(萬曆)29년(1601) 다시 사찰을 만들어 ‘충의민왕사(忠懿閩王祠)’로 개명했다. 청나라 강희원년(1662), 도광7년(1827)에 각각 수리했다. 1981년 다시 수리하면서 ‘왕심지치민공적(王審知治閩功績)’ 진열관을 만들어 민왕묘에서 출토된 왕심지의 묘비, 부인 임씨 묘비 등을 진열하고 있다.⁶⁰⁾

경성사에 소장된 고려동불에 관해 명나라 왕응산(王應山)은 『민도기(閩都記)』권8에서 “宋祥符三年賜額並高麗銅佛像。又二石筍 小木塔 俱高麗所獻 今廢.”라고 했다. 청나라 임풍(林楓)은 『용성고고략(榕城考古略)』에서 宋祥符三年 賜今額 並高麗銅佛。又二石筍木塔 皆高麗所獻.”⁶¹⁾라고 적었다. 즉 송대 대중 상부3년에 고려에서 온 동불을 경성사에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4. 복건과 신라, 고려 사이에 불교서적의 교류

복건과 신라, 고려 사이에 불교서적 교류는 주로 신라와 고려가 복건 지역에 불교서적과 조판을 요청하거나 구매했다.

후당 천성3년, 즉 고려 태조(太祖)11년(928) 8월, “新羅僧洪慶自唐閩府航載 『大藏經』 一部至禮成江 王親迎之 置於帝釋院.”⁶²⁾ 즉 신라

60) 왕철번(王鐵藩), 『민도총화(閩都叢話)』, 海潮攝影出版社, 1995. p.251

61) 임풍(林楓), 『榕城考古略』중권, “坊巷第二·慶城寺”, 福州市文物管理委員會, 1980. p.46

승려 홍경(洪慶)은 복건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오니 고려 태조가 친히 예성강(禮成江)에서 불경을 맞이했고 후에 제석원(帝釋院)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조당집(祖堂集)』은 복건에서 고려로 전래되었다. 『조당집』은 오대 시기 남당 보대(保大)10년(952) 천주 소경사(招慶寺)의 정(靜), 균(筠) 두 선사가 편찬했다. 서문은 소경사의 문등(文燈)선사가 작성했다. 『조당집』의 편찬자와 서문의 작성자는 모두 설봉의존의 가르침을 계승한 승려였다. 계승자는 “雪峰義存-保福從展-招慶省儉-靜,筠”로 이어졌다.

정, 균 두 선사는 소경사의 승려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사료는 없다. 어떤 학자는 이들이 해동(신라, 고려)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당집』은 선종이 형성될 수 있었던 7불, 서토의 28명의 고승 동토의 6명의 고승에서 편찬자의 시대까지 모두 256명의 선사들의 행적과 그들의 대표적인 문답을 수집한 서적이다. 즉 『조당집』은 선종에 관한 자료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초기 선종 연구에 진귀한 자료이다.

『조당집』은 선종이 한반도로 전파된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당집』에는 신라와 고려 선사들에 관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운악(雲岳) 진전사(陳田寺)의 원적(元寂) 선사(도의 선사), 동국동리화상(東國桐里和尚, 혜철선사), 동국실상화상(東國實相和尚, 홍직선사), 동국혜목산화상(東國慧目山和尚, 현욱선사), 명주굴산문통효대사(溟州窟山故通曉大師, 범일선사), 송암산성주사고양조국사(嵩巖山聖住寺故兩朝國師, 무염선사), 해동쌍봉화상(海東雙峰和尚), 오관산순지화상(五冠山順之和尚), 복청화상(福淸和尚) 등이 있다.

62) 정인지, 『고려사』권1, “世家·太祖”

도의(道義)선사는 당 덕종(德宗) 건중(建中)5년(784)에 당나라에 왔다. 당나라에서 37년간 수행하면서 서당지장(西堂智藏), 백장회해(百丈懷海) 등 고승을 배알하고 목종(穆宗) 장경(長慶)원년(821) 신라로 귀국하여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산했다.

혜철(慧哲)선사는 원화(元和)9년(814)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이공산(冀公山)에서 서당지장을 배알하고 서주(西州) 부사사(浮沙寺)에서 수행했다. 개성(開成)4년 신라로 귀국하여 동리산문(桐里山門)을 개산했다.

홍직(洪直, 혹은 홍척)선사는 당나라에서 마조도일의 제자였던 서당지장의 문하에서 수행하고 신라로 귀국한 후 실상산문(實相山門)을 개산하여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선법을 전파했다. 그는 해동선종의 시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무염(無染)선사는 장경원년(821) 신라 왕자 김흔(金昕)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했다.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경(華嚴經)』을 들은 후 낙양 불광사(佛光寺)에서 여만선사에게 도를 물기도 했다. 후에 포주 마곡산(麻穀山)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희창5년(845) 신라로 귀국한 후 혜목산(慧目山) 고달사(高達寺)에서 머물렀다.

순지(順之)선사는 대종12년(858) 사신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했다. 양산을 배알한 후 깨달음을 얻어 귀국했다. 신라에 규양종(滙仰宗)을 처음 전했다.

『조당집』의 첫 이름은 『고금제방법요(古今諸方法要)』으로 선종의 초기 저작이다. 이 서적이 편찬된 후 중국 내에 알려졌다. 북송 시기 계송(契嵩, 1007~1075)은 스스로 편찬한 『협주보교편(夾註輔教編)』에서 『조당집』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또 북송황가도서관목록(北宋皇家圖書館目錄)인 『송문총목(崇文總目)』에서도 『조당집』이 있었다. 이후 『조당집』은 중국에서 유실되었다. 그 원인으로 경덕(景德)연간에 편찬된 『경덕전등록』과 관련이 있다. 『경덕전등록』은 편찬된

후 선종의 대표적인 서적인 『대장경』에 수록되어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조당집』은 『대장경』에 수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당집』은 천주 소경사 승려가 편찬했기에 후에 천주에서 고려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송대 천주와 고려는 빈번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천주의 많은 선박이 고려를 왕래하며 무역을 했다.”라는 말이 있다. 천주 상인은 해외무역에 종사하면서 문화 교류 활동도 했다. 예를 들면 원우2년(1087) 천주 상인 서전(徐戡)은 먼저 고려로부터 돈을 받고 항주에서 『협주화엄경(夾註華嚴經)』 2,900편(63)을 만든 후 고려로 가지고 갔다.

『조당집』이 고려에 전해진 시기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지 고려 고종(高宗)32년(1245)에 『조당집』20권을 판본으로 완성했다. 한국 해인사(海印寺)에 소장된 『조당집』에 “已上序文 並祖堂集一卷 先行此土 爾後一卷齊到. 謹依具本 爰欲新開印版 …… 今以沙門釋匡雋所冀 中華集者 永祛惜法之痕.”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조당집』은 고려에서 목판에 새겨진 후 가야산 해인사에서 근대까지 계속 보관했다. 일본학자 관야정(關野貞)과 소야현묘(小野玄妙)은 해인사에서 고려 대장경을 조사하면서 『조당집』을 발견했다.

당 무종의 억불정책과 오대 시기의 전란으로 불교서적은 많이 유실되었으나 오히려 고려에서 완벽하게 보존한 불교서적이 많았다. 후당 청태(淸泰)2년(935) 사명(四明) 사문(沙門)의 자린(子麟)은 고려로 가서 천태종에 관한 서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자린은 고려 국왕의 환대를 받고 고려 사신을 따라 오월국으로 돌아왔다. 송대 건륭(建隆)원년(980) 오월의 국왕 전숙 역시 고려에 불교서적을 요청했다. 그 다음 해 고려 광종(光宗)은 체관(諦觀)선사를 사절단으로 삼아 불교 관련 서적을 오월로 보냈다. 고려 승려 의천은 원풍8년(1085) 제자 수개를 데리고 송나라에 왔다. 원우원년(1086) 천여 부

63) 소식, 『東坡奏議』권6, 『論高麗進奉狀』

의 불경을 가지고 고려로 귀국했다. 그 후 천태종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불경을 간행했다. 또 『화엄경』180권을 항주 혜인사(慧因寺)로 보냈다. 이 기간에 신라와 고려는 중국에 불교서적을 다시 가지고 왔고 일부는 복건에 전해지기도 했다.

5. 신라와 관련 있는 불교용어

불교 선종은 사람,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두기봉(鬥機鋒)’을 진행했다. 이는 종교의 신비주의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의 형식은 시간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동일한 문제에 같은 대답을 하는 방식, 시간에 따라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다. 이는 이성적인 사고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방식이다. 선종에서 ‘기봉(機鋒)’을 사용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하며 사람마다 달라도 최종 목표는 깨달음의 깊은 의미를 얻어 모두 성불하는 것이다.

복건 승려의 두기봉에서 신라를 언급한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오대 시기 복주 이산(怡山) 장경사(長慶寺)에서 장용(藏用)선사의 두기봉에 관한 기록이 있다. 僧問：“如何是伽蘭？”藏用答曰：“長溪莆田。”又問：“如何是伽蘭中山？”答曰：“新羅白水。”又問：“如何是靈泉正主？”答曰：“南山北山。”問：“如何是和尚家風？”答曰：“齋前廚蒸南國飯 午後爐煎北苑菜。”⁶⁴⁾

송대 명주 육왕산(育王山)의 회련(懷璉)선사와 장주 용계(龍溪) 진씨(陳氏)가 법당을 열어보니 승려의 질문이 있었다. “諸佛出世利濟

64) 하교원 : 『閩書』권136, “方外志·福州府”

群生 猊座師登何拯濟？”懷璉禪師曰：“山高水闊。”又問：“華茂無根樹 魚跳萬仞鋒。”師曰：“新羅國裏。”又問：“恁心則移舟諳水勢 舉棹別波瀾。”師曰：“濟水過新羅。”⁶⁵⁾

송대 지해보일(智海本逸)선사는 민현(閩縣)출신이다. 9세에 출가하여 여산(廬山) 개원사(開元寺)의 섬(暹)선사의 문하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원풍6년(1083) 대상국사(大相國寺)로 가서 정각선사(正覺禪師)라는 이름을 받았다. 소성(紹聖)연간(1094~1097) 중생을 모아 교화하니 그를 칭송하길 “七十四年如掣電, 臨行爲君通一線. 鐵牛勃跳過新羅, 撞破虛空七八片.”⁶⁶⁾라고 했다.

원대 장주 천보산(天寶山) 지순(智順)선사와 그 스승 삼철(三鐵)선사는 두기봉을 했다. 一日智順厲聲告樞曰：“南泉敗開, 今已見矣.”樞曰：“不是心, 不是物, 不是物是何物?”順曰：“地上磚鋪, 屋上瓦覆.”樞曰：“卽今南泉在何處?”順曰：“鷓子過新羅.”⁶⁷⁾

송대 통주(通州) 낭산(狼山) 나암(蘿庵)의 혜온(慧溫)선사는 복주 출신이다. 하루는 갑자기 영감이 생겨 말했다. “美食不中飽人吃.” 혜온禪師曰 “幽州猶自可 最苦是新羅.”⁶⁸⁾라고 했다.

당송 시기 선종의 ‘두기봉’ 중 신라와 관련된 단어는 ‘제수과신라(濟水過新羅)’, ‘발도과신라(勃跳過新羅)’, ‘요자과신라(鷓子過新羅)’, ‘신라국리(新羅國裏)’, ‘신라백수(新羅白水)’, ‘최고시신라(最苦是新羅)’ 등이 있다. 즉 복건은 신라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교류가 많고 중국 선사들이 신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 거정(居頂), 『續傳燈錄』권5

66) 황중소, 『八閩通志』권63, “人物·仙釋”

67) 하교원, 『閩書』권137, “方外志·漳州府”

68) 하교원, 『閩書』권136, “方外志·福州府”

소결

복건과 신라, 고려 간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이는 역사학계에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긴 시간 동안 우호적인 교류과정에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들 중 가치 있는 현상들이 반드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천주에서는 신라촌(新羅村), 고려항(高麗巷), 고려촌(高麗村), 고려조(高麗厓), 고려산(高麗山) 등 신라, 고려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사서와 사적의 고찰을 통해 적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한국이 고대에 서 복건과 신라, 고려가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더 나은 이해와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장보고 연구회와 우리의 목적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宋)歐陽修,『新五代史』
- [2]諸葛計,銀玉珍,『閩國史事編年』,福建人民出版社,1997
- [3]『宋史』
- [4]楊渭生 等編,『十至十四世紀中韓關係史料彙編』,學苑出版社,2002.
- [5](宋)李燾,『續資治通鑑長編』
- [6](宋)李俊甫,『莆陽比事』
- [7](明)黃仲昭,『八閩通志』
- [8](朝鮮)鄭麟趾,『高麗史』
- [9]朱傑勤,黃邦和 主編,『中外關係史辭典』,湖北人民出版社,1992
- [10]朴現圭,『福建長樂高麗王祖墓考』
- [11]張善貴,『海濱聞見錄』,香港文學報社出版公司,2004
- [12]『韓振華選集』之三『航海交通貿易研究』,香港大學亞洲研究中心出版,2002
- [13](明)楊士奇,黃淮 等奉敕編,『歷代名臣奏議』
- [14](宋)蘇軾,『東坡全集·奏議』
- [15](宋)趙汝適,『諸蕃志』
- [16]馮承鈞 校注,『諸蕃志校注』,臺灣商務印書館,1986
- [17]『寶慶四明志』.
- [18](宋)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
- [19](明)丘濬,『丘文莊公集』
- [20](宋)李俊甫,『莆陽比事』
- [21]咸淳,『臨安志』
- [22](宋)李心傳,『建炎以來系年要錄』
- [23](宋)趙彥衛,『雲麓漫鈔』
- [24](宋)曾鞏,『曾鞏集』
- [25]陳尚勝,『中韓交流三千年』,中華書局,1997.
- [26]林金水,謝必震,『福建對外文化交流史』,福建教育出版社,1997
- [27](宋)蔡襄,『荔枝譜』
- [28](明)何喬遠,『閩書』
- [29](宋)唐慎微,『類證本草』

- [30](明)李時珍,『本草綱目』
- [31]『四庫全書』,『爾雅注疏』권8『考證』
- [32](宋)梁克家, (淳熙)『三山志』
- [33]民國 시기, 『連江縣志』
- [34]同治연간, 『長樂縣志』
- [35]咸豐연간, 『邵武縣志』
- [36]乾隆연간, 『興化府莆田縣志』
- [37]乾隆연간, 『泉州府志』
- [38]道光연간, 『晉江縣志』
- [39]嘉慶연간, 『惠安縣志』
- [40]道光연간, 『廈門志』
- [41](淸)薛起鳳 主纂, 『鷺江志』
- [42]林更生, 『古代從海路引進福建的植物』, 『海交史研究』, 1982.7.
- [43](五代)靜筠, 『祖堂集』, 上海古籍出版社, 1994
- [44]『宋會要輯稿』
- [45](宋)釋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 [46](宋)釋贊寧, 『宋高僧傳』
- [47]道光연간, 『福建通志』
- [48]民國 시기, 『福建通志』
- [49](宋)釋道元, 『景德傳燈錄』권19, “泉州福清玄訥禪師”
- [50]康熙연간, 『南安縣志』
- [51]王鐵藩, 『閩都叢話』, 海潮攝影出版社, 1995
- [52]王應山, 『閩都記』
- [53](淸)林楓, 『榕城考古略』, 福州市文物管理委員會, 1980
- [54]釋居頂, 『續傳燈錄』권5.

7~10세기 초 당신라 불교문화 교류설론

-입당 신라 승려활동을 중심으로-

배근흥(拜根興)

섬서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I. 전언

7~10세기 초,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는 최고조에 달했다. 7세기의 불교 교류 방면에서 비록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가 적지 않지만, 그들의 일부는 현장법사가 주도한 불경 번역에 참여하여 불교의 여러 종파가 발전하고 교리를 전파해 당나라 시기에 불교가 중국에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8~9세기에 신라 승려가 중국에 도착하여 일부는 당나라를 거쳐 인도로 구법을 떠나기도 했고, 일부는 중국의 유명한 승려의 문하에서 불교를 배우고 고국으로 귀국하여 신라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이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한중 학계에서 이 시기 불교문화 교류에 관해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학자 진경부(陳景富) 『중한불교관계일천년(中韓佛教關係一千年)』, 하경송(何勁松) 『한국불교사(韓國佛教史)』, 양소전(楊昭全) 『중국-조선·한국 문화교류사(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등 저작이 있고, 한국의 19세기 말기 학자 이능화(李能和)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김상현(金相鉉) 『신라의 사상과 문화(新羅的思想和文化)』, 이기백(李基白) 『신라 정치사회 연구(新羅政治社會史研究)』 등 저작이 있고, 일본학자 홀활곡쾌천(忽滑谷快天) 『한국선교사(韓國禪教史)』 같은 저작이 있다. 7~10세기 초 당나라에서 활동한 승려에 대한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당나라와 신라가 공존했던 300여 년에서 각 시기에 신라 승려가 당나라에 입국한 원인, 당나라에서 활동한 지역, 개인의 경력, 불교문화 교류에 대한 공헌 등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나라와 신라가 다른 시기에 교류했다는 배경에서 당나라에 입국한 승려들이 힘든 여정에도 불

구하고 중생들을 위해 쉽 없이 구법을 했던 공통점을 찾고, 그들의 위대한 여정과 변함없는 생활을 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본고는 이미 연구된 성과를 기초로 약 300년간 신라 승려가 당나라 입국에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고증하면서 승려들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불굴한 인품을 살펴보고, 중한불교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공헌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당나라에 입국하여 구법하는 승려들에 관련된 문제

1.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들의 숫자

7~10세기 초의 300여 년에 많은 신라 승려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나라에 도착했다. 이들이 당나라와 신라 불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의 숫자에 관해 학자들은 수집한 자료의 제약으로 연구 결과는 모두 같지 않다. 조선 시대 말기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의 내용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의 380년 동안 중국에 입국한 승려는 모두 64명이다. 그러면 당나라 시기에 입국한 신라 승려의 숫자는 아마도 더 적을 것이다.¹⁾ 엄경망(嚴耕望) 선생은 『신라유학여승도(新羅留唐學生與僧徒)』에서 “신라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한 승려의 범명을 살

1) (조선)이능화(李能化),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上中), 민속苑, 1918

펴보니 이미 130명이 넘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전등록(傳燈錄)』 권36 『항주혜일영명사지각선사탄수전(杭州慧日永明寺智覺禪師延壽傳)』 과 『전당문(全唐文)』 권69 『구황산화성사기(九華山化城寺記)』의 자료를 인용하여 “한반도 승려가 당나라에 입국하여 구법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모든 이를 전부 열거한 것은 아니다.”²⁾라고 주장했다. 황심천(黃心川) 선생은 “본문에서 근거하여 통계를 내보니 모두 117명이고, 그중에는 한국사료에서 20여 명은 보이지 않았다.”³⁾라고 주장했다. 유소금(劉素琴) 선생은 “이 3백 년간 중국에 입국하여 구법하는 신라인들은 거의 승려이다.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당나라 시기의 중, 한, 일 삼국의 사료에서 신라출신으로 중국에 입국한 승려는 160여 명 이상이다. 이 승려들은 중국에 도착한 후 중국 불교의 모든 종파의 교리와 계율을 매우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다.”⁴⁾고 설명했다. 진경부 선생은 『중한불교관계일천년(中韓佛教關係一千年)』 과 『심어무설(心語無說)』 등 두 책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는 181명이라 주장했다.⁵⁾ 한국 단국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정수일(鄭守一)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400여 명의 승려가 당나라에 입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상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통계의 경향 때문에 중점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연구된 결과와

2) 엄경망(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唐史研究叢稿』, 홍콩, 香港新亞研究所, 1969. (한국)변인석(卞麟錫) 선생은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는 130명이라고 주장한다. 변인석, 『당 장안의 신라사적』, 亞細亞文化社, 2000, 참조.

3) 황심천(黃心川), 『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教的交流—新羅來華佛教僧侶考』, 『世界宗教研究』, 1989. 1

4) 유소금(劉素琴), 『新羅僧侶對唐佛教貢獻考略』,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韓國學論文集』 第4集, 科文獻出版社, 1995 참조.

5) 진경부(陳景富) 선생의 590~907년의 3백 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입국한 신라 승려는 185명이다. 그는 신라 승려가 입국한 시기를 4단계로 나누었다. 제일 첫 번째 시기는 남조 멸망에서 수나라의 멸망까지 30여 년인데, 이 시기에 승려 4명이 중국에 입국했다. 그래서 당나라 시기에 입국한 승려의 숫자는 181명이다. 진경부(陳景富), 『中韓佛教關係一千年』, 宗教文化出版社, 1999. p.22 참조.

구체적인 숫자 역시 모두 다르다. 조선 시대 말기 이능화의 견해는 당시의 견해일 뿐이다. 그는 300백여 년간 단지 60여 명의 신라 승려가 당에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엄경망 선생의 통계에서는 범명이 있는 신라 승려가 130명이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는 신라 승려에 대해 문장에서 암시하고 있다. 황심천 선생은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의 통계가 117명이다. 이 논문은 엄경망 선생의 논문보다 늦게 발표되었지만 아마도 당시에 엄 선생의 논문을 보지 못하여 통계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유소금 선생의 통계는 300백 년간 160여 명의 신라 승려가 당나라에 입국했다. 그러나 문장에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상술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또한 기존의 연구성과보다 30여 명이 많은 신라 승려들에 관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경복 선생의 연구결과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 중에서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에 대해 가장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진 선생의 통계는 설명과 변증 부분에서 그 가치가 입증된다. 첫째, 그가 통계한 것은 ‘승속’이고, 승려가 아니다. 즉 승속에는 김사양(金思讓), 장보고(張保臯), 최치원(崔致遠), 최언위(崔彦擣) 등의 인물을 포함한다. 둘째, 통계과정에서 고구려출신의 도등(道登), 현유(玄游)와 백제출신의 승제(崇濟)를 당나라에 입국한 승려를 포함했다. 셋째, 통계 중에 여해(如海)가 있는데, 여해는 당나라에 고구려 유민의 후예⁶⁾이기에 당나라

6) 여해(如海)는 일본 승려 진인원개(真人元開)가 저술한 『당대화동정전(唐大和上東征傳)』에서 보이는 인물이다. 즉 여해가 항로를 잘못 알렸다는 모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니 해적과 관련이 있었다. 모두 몇 명만이 남았고 식량이 다하여 기제, 개원, 대명사에 머무니 해적 백여 명이 다시 성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다. 회남도(淮南道)의 관리가 파견한 관원의 조사를 받을 때 여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고했으나 오히려 여해에게 “무고죄에 해당하니 환속시키고 장형 60대를 집행한 후 본적으로 돌려보내라.”라는 명을 내렸다. 먼저 위에서 인용한 사료에서 여해는 ‘고구려 승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구려는 당시 멸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시기이다. 그래서 고구려라고 기록한 것은 마땅히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고 기록

에 입국한 신라 승려로 포함하지 않았다. 넷째, 통계 중에 고구려 승려인 신성(信誠)이 있다. 이 고구려 승려는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료를 살펴본 결과 신성은 고구려 멸망 전에 당나라에서 구법할 기회가 없었다. 그에 관한 기록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와의 전쟁과정에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총지휘하여 결사항전을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후에 남생의 유혹에 빠져 평양성문을 열어 되었고, 이 기회를 이용한 나당연합군이 순조롭게 성내로 진격하여 전쟁은 빨리 끝나게 되었다. 신성은 당나라에 입국한 후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⁷⁾라는 관직을 받았다. 다섯째, 최근 발견되는 당 시기의 비문에서 신라 승려의 사적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을 통계자료에 포함했다. 이상의 다섯 관점을 종합하고, 즉 본고는 진경복 선생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엄경망 선생의 연구결과를 참조했고,⁸⁾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묘지자료에서 언급된 내용⁹⁾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의 숫

해야 옳다. 다음으로 이 책은 비록 진인원개가 만들었지만 감진(鑑眞)대사의 대제자인 사탁(思託) 『대화상전』을 기초로 간략히 하거나 덧붙인 책이다. 내용 중에 고구려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는 당나라 관리가 고구려 유민을 대하는 방식이다. 다른 일본 서적에서 자주 발해 혹은 신라인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진인원개의 기록과는 다르다. 셋째, 상술한 여해의 처벌은 완전히 당나라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나라는 주위의 국가 사람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 만약 여해가 신라인이었다면 환속을 명하고 장형을 집행한 후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기재는 잘못 된 것이다. 이 시기에 당나라의 고구려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3, 4대가 지난 유민들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본적은 한반도에 있었던 본적과 구별된다. 그래서 본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했다. 상술한 사서에서는 여해의 본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들에게도 공급하다. (日)眞人元開, 왕향영(汪向榮) 校注, 『당대화상동정전』, 中華書局 2000. 참조.

7) 『資治通鑑』권201, 唐高宗總章元年(668)의 기사에 의하면 신성이 당나라에서 구법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당나라에서 구법을 했던 다른 고구려 승려와는 경우가 다르다.

8) 엄경망 선생과 진경복 선생이 근거로 삼은 사료와 논의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선생이 통계로 산출한 신라 승려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

9) 『전당문』권447에 당나라의 동쪽 수도였던 낙양 복선사(福先寺)에 머물렀던 신라 승려 양비(良胄)에 대한 기록이 있다. 2002년에 섬서성 미현(眉縣)에서 발견된 『이훈부인왕씨묘지(李訓夫人王氏墓志)』에 대운사(大云寺)에서 머물렀던 신라 승려에 관해 언급한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전의 통계숫자에서는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 배근홍(拜根

자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¹⁰⁾ 새로운 자료가 끊임없이 발견된다면 신라 승려에 관한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2. 당나라에서 불경번역활동에 참여한 신라 승려

당나라에 도착하여 구법활동을 하던 신라 승려 중에 불경번역에 참여했던 승려들이 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속고승전(續高僧傳)』권 4 ‘경사대자은사석현장전(京師大慈恩寺釋玄奘傳)’과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중에서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에 기재된 내용이 더 자세하다. “三月己巳 法師自洛陽還至長安 卽居弘福寺將事翻譯 乃調疏所需證義 綴文筆受 書手等數 以申留守司空梁國公玄齡. 玄齡遣所司具狀發使定州啓奏 令旨依所須供給務使周備.”¹¹⁾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당시 명성이 높은 정의(證義)에 12명, 즉 장안 홍복사(弘福寺) 영운(靈潤)과 문비(文備), 나한사(羅漢寺) 혜귀(慧貴), 실제사(實際寺) 명엄(明琰), 보창사(寶昌寺) 법상(法祥), 정법사(靜法寺) 보현(普賢), 법해사(法海寺) 신방(神昉), 광주(廓州) 법강사(法講寺) 도심(道深), 변주(汴州) 연각사(演覺寺) 현충(玄忠), 보주(蒲州), 보구사(普救寺) 신태(神泰), 면주(綿州) 진향사(振鄉寺) 경명(敬明), 익주(益州) 다보사(多寶寺) 도인(道因) 등이다. 문장을 만드는 9명, 즉 서현(栖玄), 명준(明濬), 변기(辯機), 도선(道宣), 정매(靜邁), 행우(行友), 도탁(道卓), 혜립(慧立), 현칙(玄則) 등이 참여했다. 문자학에 현응(玄應), 현모(玄暮)가

興), 『唐『李訓夫人王氏墓志』關聯問題考析』, 『乾陵文化研究』, 第3輯, 三秦出版社, 2007 참조.

10) 附表 “入唐新羅僧侶人數統計表” 참조.

11) (唐)혜립(慧立)·연종(彦宗), 손유당(孫毓棠) 등 점교(点校), 『大慈恩寺三藏法師傳』권6, 中華書局 2000.

범어와 범문을 고증하고, 번역하는 말을 듣고 기록하는 필수(筆受)와 옮겨 쓰는 서수(書手) 등 승려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불경번역활동은 중국역사상 유명한 고승들이 먼저 제의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한 3차례의 불경번역은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어 국가번역관¹²⁾이 주도하여 불경번역작업의 규범과 책임을 맡았다.

송나라 찬녕(贊寧)이 편찬한 『송고승전(宋高僧傳)』권3과 『불조통기(佛祖統記)』권43에는 불경번역의 규범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계획을 총괄하여 번역을 책임지는 인물인 ‘역주(譯主)’를 선정한다. 역주는 번역할 불경을 선정하고 번역계획을 만든다. 번역활동에서 역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번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그 다음은 역주의 왼쪽에 앉은 ‘증의(證義)’는 역주와 같이 범문경서를 평가하고 의견을 나눈다. 역주의 오른쪽에 앉은 ‘증문(證文)’은 역주가 큰소리로 읽는 범문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세 번째는 범문과 중국어에 정통한 승려가 범문의 발음을 자세히 듣고 범문을 한자로 바꾼다. 그러나 문자를 기록할 때 범문의 발음에 따른다. 네 번째는 듣고 기록하는 것이다. 즉 이미 한자로 전환한 범문의 발음을 한문으로 바꾼다. 다섯 번째는 문장작성이다. 즉 전환한 한자를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문문구로 만드는 것이다. 여섯째는 참역(參譯)이다. 즉 원래의 범문경서와 번역한 한문을 대조하여 잘못된 문장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일곱째는 간정(刊定)이다. 즉 수정하거나 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다. 특히 문장의 앞뒤가 잘 이어지는지를 살핀다. 여덟 번째는 윤문(潤文)이다. 즉 상술한 순서로 번역된 한문 경서를 표현에 맞게 수정한 후 마지막으로 책을 만든다.¹³⁾ 이상의 과정은 역경원에서 구체적으로 책임

12) 수 대업(大業)연간에 낙양 역경관(翻經館)을 설치했다. 관내에는 전문적으로 범문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고 중국의 승려는 그곳에서 범문을 배웠다. 『宋高僧傳』권3 唐京師總持寺智通傳 참조.

13) 정복보(丁福保) 편, 『佛學大辭典』, 文物出版社 1984.

을 맡은 승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한 명의 감독관이 번역의 뒷일까지 책임졌다. 즉 범문경서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는 전문인력의 협력을 필요로 했고, 정부가 주도하여 번역활동을 실시하면 참여하는 승려들은 번역을 맡은 모임에 포함되었다. 이런 번역모임에 참여했던 승려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 신방(神昉), 원측(圓測), 지인(智仁), 승장(勝庄), 혜초(慧超), 무저(無著), 혜일(慧日), 현범(玄範) 등은 차례로 현장이 주도하는 불경번역활동에 참여했고, 그 후에 의정(義淨), 보리유지(菩提流志), 금강지(金剛智), 불공(不空) 등이 주도하는 불경번역활동에도 참여했다. 신방은 현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네 사람중의 하나로 정의의 신분으로 현장이 주도하는 불경번역에 참여했다. 원측은 정의와 필수를 맡았고 승장 역시 정의를 맡았다.

어떤 학자가 상술한 신라 승려가 불경번역활동에 참가하여 작업한 분량을 통계해보니 “당대 번역된 불경은 모두 2,159권으로 그중에 1,273권은 이 8명의 신라 승려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에 번역분량에서 60%를 차지한다. 단지 이러한 숫자에서도 그들이 당나라 불교와 중국문화사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어떤 한국학자는 더 나아가 “현장과 의정이 주도한 불경번역에 신라 승려들이 참여하여 번역했던 분량은 번역본의 총 60%이다.”¹⁵⁾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학자의 주장은 이미 기존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학계에서는 이 한국학자의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의 기존의 학술연구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는 학술연구를 색다른 관점을 보였다. 이런 학술 태도는 우리가 마땅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14) 유소금, 「新羅僧侶對唐佛教貢獻考略」 참조.

15) (한)변인석, 「唐長安의新羅史迹」, 『8~9世紀亞細亞世界中的新羅』, 韓國慶州 2000年 10月, 신라사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먼저 윗글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당나라 초기 국가에서 주도한 번역활동은 먼저 정부의 주도하에 통일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수장을 현장과 의정같이 범문과 한문에 정통한 고승으로 임명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제상은 번역 외의 일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맡아 여러 방면에서 각각 뛰어난 많은 고승을 모아 모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번역모임은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전문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홀로 번역을 완성하거나 혹은 범문을 한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불가능해졌다. 그중에는 현장과 의정 본인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상술한 통계방법의 본래는 거의 과학적이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의심스러운 점이 발생했다. 그 다음은 유소금 선생의 논문 중에 당나라 시기에 번역한 불경의 총 권수는 학계에서 다른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진경복 선생의 통계는 당 초기로부터 정원연간까지 번역된 경전은 435부 2,476권¹⁶⁾이다.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들이 참여하여 번역한 1,273권을 계산한다면 번역된 경서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의심할 필요도 없이 신방, 원측, 승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승려들은 때로는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왔다. 그들은 한문과 불교교육을 받으면서 힘든 언어적인 문제를 이겨내는 재능과 노력으로 점차 당나라 불교계에서도 높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 당나라의 고승이 주도하는 번역활동에 선택되었다. 이들의 활동으로 당나라에서 불교가 현지화에 성공하고 불교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방, 원측, 지인, 혜초, 무저, 현범 등 6명의 생활과 행동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당나라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당나라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고, 끝내는 당나라에서 사망했다. 그들이 본래 신라출신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들의 국적은 역지로 강조한다면, 우

16) 진경부, 『중한불교소계일천년』, 宗教文化出版社, 1999. p.79

리가 현재 보리유지는 인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현장은 인도에서 중국인이라는 것과 같이 의미가 없다. 이런 국적문제는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논의될 뿐인 것이다. 동시에 신라 승려가 당나라에서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중국학계에서도 어떠한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실하지도 않은 퍼센트를 따지고, 불경을 번역한 승려의 국적만을 찾았다. 그러나 일생 동안 불교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국에서 원적했던 사실에 대해 오히려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하고,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확실한 것은 어떻게 언급하지 않는가? 사실상 이런 통계에서 퍼센트로 산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도리어 이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의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땅히 중요시해야 할 문제이다.

Ⅲ.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승려

1.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와 신라의 교류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첫째,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승려들은 일종의 특별한 계층이다. 그들은 당나라와 신라의 교류과정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특수했던 시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관(貞觀)10년(636),¹⁷⁾ 자장은

17) 『續高僧傳』권24에는 '정관1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의 사신으로 명을 받고 바다를 건너 장안에 도착한 후 율종(律宗)을 배웠다.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가르침을 느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신라의 발전과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 관련이 있다. 후에 자장은 장안 남쪽의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 동쪽 벼랑의 동굴에서 3년 동안 수행했다.¹⁸⁾ 정관 17년(643), 선덕여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당 태종은 자장에게 신라로 귀국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자장이 귀국하기 전에 당 태종을 만나 경서와 비단을 받았다. “詔許引入宮 賜絹一領 雜彩五百端 東宮亦賜二百端 又多禮貺 藏以本朝經像未充 乞齋藏經一部 洎諸幡幢花盖 堪爲福利者皆載之”¹⁹⁾ 또 “引藏入宮 賜納一領雜彩五百段 東宮賜二百段 仍於弘福寺爲國設大齋 大德法集 并度八人 又敕太常九部供養 藏以本朝經像雕落未全 遂得藏經一部 并諸妙像幡花盖具堪爲福利者 賚還本國.”²⁰⁾ 자장은 신라에 귀국한 후 황룡사(皇龍寺)에 구층탑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선덕여왕은 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구층탑이 완성된 후 신라의 ‘호국삼보(護國三寶)’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후에 황룡사 구층탑은 신라 불교의 상징이 되었고, 역대 신라 국왕들이 참배했다. 자장은 신라에서 중국식 의복을 입어야 하며, 당 고종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용삭(龍朔)2년(662),²¹⁾ 신라 문무왕(文武王)은 의상(義湘)에게 당

18) 유고명(劉高明), 『新羅王子慈藏駐錫之地考證』, 『五臺山研究』, 2005. 1. 참조.

19) 일연(一然), 『三國遺事』 권3 “皇龍寺九層塔”, 권4 “慈藏定律” 참조.

20) 『속고승전』 권24 “唐新羅國大僧統釋慈藏傳”

21) 의상이 당나라에 입국한 시기에 관해 현존하는 사료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속고승전』 권4 에서는 ‘총장(總章)2년(669)’이고, 『삼국유사』 권4에서는 ‘영휘(永徽) 초’, 또 권3에서는 ‘용삭(龍朔)원년’으로 되어 있다. 최치원의 『의상위일문(義湘諱日文)』에서는 의상이 당나라에 입국한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용삭2년 설’이 통용된다. 이 부분은 진경복 선생의 저작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부분을 인용했다. 이 밖에 하경송 선생의 절충한 관점도 있다. 하경송, 『韓國佛敎史』(상), 宗教文化出版社, 1997 참조.

나라에서 구법할 것을 명했다. 의상은 등주(登州)에 도착하여²²⁾ 천신만고 끝에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다. 후에 그는 종남산 지상사(至相寺)의 고승 지엄(智嚴)의 문하에서 화엄경(華嚴經)을 배웠다. 10년 후인 함형(咸亨)2년(671), 의상은 장안을 떠나 바다를 건너 신라로 귀국했다. 의상이 장안을 떠나기 전의 활동에 대해 『삼국유사』에 다른 내용의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의상이 신라로 귀국하기 전에 김인문(金仁問) 혹은 김양도(金良圖)의 부탁을 받아 당나라 군대에 관한 정보를 신라 왕실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기록에 대해 필자는 『김인문 연구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승려였던 의상이 당나라 군대에 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이미 구급상태였던 김인문 혹은 김양도 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심이 든다.²³⁾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시기였다. 의상이 신라로 귀국을 결심한 것은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당연히 그는 마음속으로 조국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상이 신라로 귀국한 지 20여 년 후, 그의 동문이었던 당나라의 법장(法藏)은 신라로 귀국하는 승려에게 의상에 보내는 편지를 부탁했다. 이 편지는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던 기간에 서로 불교경전에 대해 토론하면 진정으로 교분을 나누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는 구절마다 감동을 주기에

22) 『삼국유사』에서는 양주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고, 『송고승전』에서는 등주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본문은 『송고승전』의 기록을 참고했다.

23) 배근홍, 「金仁問研究中的幾個問題」, 『海交史研究』, 2003. 2.

24) 의상이 신라로 귀국한 시기에 관해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즉 상원(上元)원년(675), 함형(咸亨)원년(670), 함형2년(671) 등이 모두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다. 학계에서 주된 의견은 ‘함형2년’이다. 하경송 선생은 의상이 신라로 귀국하던 시기가 신라와 당나라가 대치하던 상황과는 관련이 없고 스승인 지엄대사가 원적한 후 의상이 귀국을 결심했으리라 주장한다. 또 『삼국유사』의 “김인문의 편지를 전하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경송, 『義湘歸國時間及動機考』, 『第二屆韓國傳統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學苑出版社, 2001 참조.

지금도 이 편지를 읽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의상과 범장 사이의 교류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이야기는 중한 불교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²⁵⁾

의상과 거의 동시대에 임윤(琳潤)법사가 있다. 『삼국사기』권7의 내용에 따르면 임윤은 대당총관(大唐總管) 설인귀(薛仁貴)의 사신이 되기 전에 신라 왕부에 소속된 승려였다. 사서에서는 임윤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가 서신을 전하는 사신을 맡았다는 것은 다른 사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다. 임윤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다. 즉 첫째, 임윤이 당나라에 입국하여 구법을 한 후에 신라로 귀국했다. 임윤은 당나라와 신라에서 모두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설인귀의 군대에서 사신 역할을 맡았다. 그는 이 임무를 거절하지 않았다. 둘째, 설인귀가 출정하는 시기를 알지 못했기에 신라 출신인 임윤은 군대에 따라 사신의 임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행군하는 군대에 스스로 먼저 설인귀를 찾은 것은 아니었다. 셋째, 설인귀가 신라의 국내로 진입했을 때 출정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현지에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고, 이들 중에 예전에 당나라에서 구법을 했던 승려를 찾아 신라 조정에 서신을 전하도록 했다. 필자는 이런 의견들 가운데 첫 번째가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임윤은 설인귀의 서신을 신라 왕성으로 전달했을 뿐 아니라 또한 신라 문무왕의 답신을 전달하여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⁶⁾

임윤법사는 응당 당나라에 입국하여 구법한 신라 승려에 포함된다.²⁷⁾ 즉 임윤법사가 사신을 맡은 것은 당시에 승려가 지식을 독점

25) (韓)이병도(李丙燾), 『關於唐法藏寄義湘書』, 『海圓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59. 참조.

26) 문무왕 시기 신라와 당나라의 교섭에 관해서는 배근홍, (韓) 『新羅文武王代的對唐交涉述論』, 『新羅文化』, 총46집, 1999년. 『陝西師範大學史學論集』,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참조.

27) 황약슬(黃約瑟) 선생은 “당 문화가 신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 깊은 영향을 미

했던 계층 중의 하나라는 배경, 특히 문화가 비교적 낙후된 국가에서 승려들의 영향력은 보통이 아니었다. 동시에 또한 당나라와 신라의 불교계 인사들이 당시 국가 간에 대치하던 시기에 의상은 귀국을 선택했고, 임윤은 설인귀의 군대에서 명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삼국유사』권3에 기재된 명랑(明朝)법사는 대표적인 호국(護國) 승려이다. 명랑법사는 선덕여왕원년(632), 당나라에 입국하여 밀법(密法)을 찾았다. 정관9년(635)에 신라로 귀국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랑법사가 신라로 귀국하면서 용왕의 요청을 받아 용궁에서 밀종대법을 전수받았다. 고구려 멸망 후 신라와 당나라는 갑자기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고, 신라는 당나라의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 신라 국왕은 밀종대법을 이용하여 눈앞에 이런 곤경을 해결하고자 했다. 명랑은 “낭산(狼山)의 남쪽에 신유림(神游林)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만들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절을 비단으로 꾸미고 풀로 오만신상(五萬神像)을 만들어 명랑을 중심으로 12명의 유가승이 밀종대법을 펼쳐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그 결과 당나라 군대는 신라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 당나라 선박은 모두 침몰했다.²⁸⁾ 『삼국유사』는 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내용과 구전을 이용한 자료이기에 신빙성에 대해 언급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명랑법사가 밀종대법을 이용하여 당나라의 군선을 막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공교롭게 당나라

쳤다. 이들 국가에서는 당나라의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승려를 국가차원에서 당나라로 보내기도 했다. 이 승려들은 불교 외에 여러 가지 문화, 외교, 심지어는 정치고문, 간첩 등의 설인귀와 임윤 간의 있었던 사절단 역할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다. 단지 설인귀가 신라에 보낸 서신에는 왕부에 소속된 승려라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이 승려는 신라 승려로 당나라에서 구법한 적이 있었거나 당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던 승려일 것이다. 설인귀는 이런 승려 즉 당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승려를 찾아 사절로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의견은 일리가 있다. 황약술(黃約瑟), 『설인귀(薛仁貴)』, 西北大學出版社, 1995. 참조.

28) 『삼국유사』권2 “文虎王法敏”

군대가 패배한 것인지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나라 대군이 국경을 압박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명량법사가 나서서 당나라에서 배운 밀법으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한 것은 신라의 불교가 호국불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승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더욱이 신라의 통치계층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당나라에 입국한 승려가 국가 사절을 맡으면서 신라와 당나라의 국가 간의 교섭에 공헌을 할 수 있었다. 원화(元和)연간에 저명한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학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내고 있었다. 『백거이집(白居易集)』에 원화원년의 칙서가 수록되어 있다. 칙서의 내용은 “敕新羅王金重熙 金獻章及僧冲虚等 至省表兼進獻及進功德并陳謝者具悉. 卿一方貴族 累葉雄才 仗忠孝以立身 資信義而爲國 代承爵命 日慕華風. 師旅葉和 邊疆寧泰. 况又時修職貢 歲奉表章 進獻精珍 忠勤并至. 功德成就 恭敬彌彰. 載覽謝陳 益用嘉嘆. 滄波萬里 難隔於海東. 丹慊一心 每馳於闕下. 以茲嘉尚 常屬寢興. 勉宏始終 用副朕意. 今遣金獻章等歸國 并有少信物 具如別錄. 卿母及妃并副王宰相以下 各有賜物 至宜領之. 冬寒卿比平安好 卿母比得和宜 官吏僧道將士百姓等 各加存問 遣書指不多及.”이다. 이 칙서는 『전당문』 권665에도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김헌장(金憲章)’으로 되어 있고, 『백거이집』과 『전당문』에는 ‘김헌장(金獻章)’으로 되어 있는데, ‘헌(憲)’과 ‘헌(獻)’은 한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김헌장(金憲章)과 김헌장(金獻章)은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백거이집』이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이기에 필자는 신라 국왕이 파견한 왕자의 이름은 ‘김헌장(金獻章)’이라고 생각한다. 『삼국사기』에서 신라 헌덕왕(憲德王)이 즉위한 다음해에 당나라로 사신을 보낸다. 그러나 백거이가 초고를 작성한 당 헌종의 칙서에는 오히려 제목이 ‘신라왕 김중희(金重熙)’라고 했다. 더구나 헌덕왕은 조카인 김중희(애장왕)를 죽이고 왕

위에 오르고 빨리 당나라에 이 소식을 알렸다. 당나라에서도 헌덕왕을 책봉하는 사신을 보냈다. 이 조서에서 이미 사망한 김증희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삼국사기』에 이 기록에 대한 사료가 순서가 뒷부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국학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의 기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혹은 상술한 조서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삼국사기』의 기재와 백거이가 작성한 조서가 완전히 상관없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본문에서는 『삼국사기』의 시간적인 순서에서 문제가 출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상술한 칙서 중의 승려인 충허(冲虛)는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사절단을 이끌고 금은으로 만든 불상과 불경을 진상하고 당나라 황제의 공덕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신라 불교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신라 국왕은 그를 당나라에 보낸 의도는 무엇인가? 그가 당나라에 입국하여 불교에 관련된 사명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

셋째,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들은 여러 원인으로 당나라 황제의 부름을 받았다. 이는 불교교류가 당나라와 신라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 태종은 자장을 만나 불교경전을 하사하고, 황태자 역시 물품을 하사했다. 이런 하사하는 행동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당 태종이 자장이 당나라에서 구법한 성취를 축하하는 의도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시기는 당나라와 고구려가 대치하는 상황이기에 신라에게 백제와 고구려의 후방을 압박하게 하려는 현실적인 배경에서 신라 국왕이 특별하게 중시하는 자장에게 잘 대우함으로써 당 태종 부자의 목적인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구려를 견제하는 의도가 있었다.²⁹⁾

29) 배근홍,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참조.

8세기 중엽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 무상(無相)과 곧이어 무루(無漏)법사는 당 현종(玄宗)과 숙종(肅宗) 부자의 총애를 받았다. 무상은 신라의 세 번째 왕자였다.³⁰⁾ 신라에서 이미 출가하여 승려의 신분으로 개원(開元)16년(728)에 당나라에 입국했다. 이 시기는 신라 성덕왕(聖德王)의 재위 시기(703~737)였다. 성덕왕은 재위한 30여년 동안 당나라에 사신을 40차례 보냈다. 그중에는 동생 김흠(金欽), 김사충(金嗣宗), 아들 김수충(金守忠), 조카 김지겸(金志廉), 왕족(혹은 조카) 김지만(金志滿), 사촌동생 김상(金相) 등이 포함되며 당 현종은 확실히 김수충, 김지만, 김지겸 등을 만났다. 무상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사서에서는 왕자의 신분이라는 내용은 없고, 무상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입국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무상은 보응(寶應)원년(762), 향년 79세로 원적했다.³¹⁾ 이를 계산해보면 그는 684년에 태어났다. 즉 신라 신문왕(神文王)의 재위기간에 태어난 것이다. 상술한 사서 내용을 계산하면 그는 신문왕의 아들이고 성덕왕의 동생이다. 신문왕의 사후 태자가 계승하니 이가 효소왕(孝昭王)이다. 성덕왕은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 형이었던 효소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다. 다른 기재내용에 따르면 무상이 지금의 사천 성도에 도착한 후 “상(무상)의 동생이 본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새로운 왕은 그가 오히려 귀국하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여 자객을 보내어 죽이려 했으나 상은 이미 그러한 알고 있었다.”라고 고했다. 이는 무상이 신라 왕자라는 사실을 증명

30) 『송고승전』 권19 ‘唐成都淨衆寺無相傳’ 그러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의 기재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송고승전』과 『불조통기』의 내용과는 다르다. 『역대법보기』, 『英藏敦煌社會歷史文獻釋錄』 第2卷, 社科文獻出版社 2003 참조.

31) 『역대법보기』는 대력(大歷) 9년(769)에 완성되었다. 작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서적에 무상선사가 원적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역산하면 무상선사는 684년에 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송대 찬녕(贊寧)이 저술한 『송고승전』에는 무상선사는 지덕(至德)원년(756)에 원적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역대법보기』보다 6년 늦다. 본문은 『역대법보기』의 기재에 따랐다. 장자개(張子開), 『唐朝來蜀的新羅國僧金和尚事迹考』, 『康定民族師範高等專科學報』, 2000.3. 참조.

한다.³²⁾ 그러나 사실은 결코 이와 같지 않다. 첫째, 무상은 당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출가하여 승려의 신분이었다. 그가 당에 입국한 개원16년은 성덕왕이 등극한 지 이미 25년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 귀국하여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던 이유와 비슷하다. 효성왕(孝成王)의 재위기간은 738~742년으로 이 시기는 무상이 당에 입국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효소왕이 재위했던 기간도 이미 10년이 지났다. 경덕왕(景德王)은 743~765년에 재위했는데 무상이 왕위를 위협할 일을 더더욱 없었다.³³⁾ 셋째, 무상은 당나라에 입국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또한 이미 먼 지금의 사천 지역에서 참선에 전념했다. 이 시기는 당나라와 신라가 최고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신라 국왕이 고행하는 승려를 암살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넷째, 자객이 암살한다는 것을 무상이 미리 알았다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숨었을 것이다. 필자는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의 기재된 내용 중에 “무상 선사는 속세의 성이 김씨이고, 신라의 왕족이며 집은 해동에 있었다.”는 구절이 다른 기록과 주장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무상은 신라 왕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라 왕족의 먼 방계출신일 것이다. 그는 신라 국왕의 세 번째 아들이 결코 아니었고, 당나라에 입국한 후에 신라 왕실에 어떠한 위협도 근본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 무상은 장안에 도착한 후 당 현종의 만나고 선정사(禪定寺)에 머물렀다. 후에 무상은 사천 성도의 보당사(保唐寺)에서 홍인(弘忍)으로부터 지선(智洗)과 처적(處寂)으로 이

32) 증기해(曾其海), 『新羅無相與劍南保唐禪』, 『佛學研究』, 2000年號, 참조.

33) 신라 성덕왕(聖德王), 효성왕(孝成王), 경덕왕(景德王)의 나이에 관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 역사서에는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이 없다. 효성왕과 경덕왕은 형제로 모두 성덕왕의 아들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이를 계산한다면, 성덕왕이 즉위할 때 무상은 24세로 그 당시는 신라에 있었고, 25세가 지나서 당나라로 갔다. 효성왕이 즉위했을 때 무상은 59세였고, 경덕왕이 즉위했을 때는 64세의 고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 왕위를 위협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지는 선종(禪宗)의 의발(衣鉢)을 이어 받았다. 무상은 매년 12월과 정월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연을 베풀고, 도량에서는 엄격한 생활을 했다. 먼저 소리를 내어 엄불하니 그 소리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선종의 법문에서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忘) 혹은 무망(無妄)’³⁴⁾ 이 세 구절을 삼학(三學)이라고 하는데, 즉 ‘계(戒), ‘정(定), ‘혜(慧)’를 서로 합하여 유명한 ‘삼구용심(三句用心)’이라는 선종 법문의 전수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보(天寶)15년, 안사지란(安史之亂)이 발생하여 당 현종은 황급히 지금 사천 지역의 성도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무상을 다시 만났다. 이 시기는 무상의 명성이 높았기에 당 현종은 예를 다해 그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상은 임종 전 의발을 무주(無住)에게 전했다. 이 전승과정은 독특하여 후에 불교에서 의발을 전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무상은 당나라에 입국한 후에도 더더욱 수행하여 불교계에 명성이 높은 인물이 되었고 당 현종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흥인으로부터 지선으로 계승되어 온 의발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더욱 새롭게 만들어 불교에서 선종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 의종(懿宗)은 불교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재위기간에 법문사(法門寺)에 있던 진신사리를 장안으로 옮겨왔다. 이 행사를 매우 화려하고 성대하게 거행했다.³⁵⁾ 당 의종은 14년의 재위기간에 신라 승려가 가장 많이 왔고, 이들과 교분이 있었다. 『구당서』 권19과 『자치통감』 권252 등 사서를 살펴보니 함통(咸通)11년(870)에 만 당 의종이 신라 승려를 만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최인곤(崔仁

34) 『역대법보기』에서 표점이 다르다. 『英藏敦煌社會歷史文獻釋錄』, 第2卷, 社科文獻出版社, 2003; 진경부, 『중한불교관계일천년』, 宗教文化出版社, 1999. p.246

35) 백명(柏明), 장천걸(張天杰), 『法門寺佛指舍利隱現記』, 『宗教研究論集』, 陝西人民出版社 1994.

滾)이 지은 『신라국고양조국사교익낭공대사백월서운지답비명』에 오히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은 “遂於咸通十一年 投入備朝使金公緊榮西笑之心 備陳所志 金公情深傾盖 許以同舟. 無何 利涉大川達於西岸. 此際 不遠千里至於上都. 尋蒙有司特具事由 奏聞天聽. 降敕 宜令左街寶堂寺孔雀王院安置大師. 所喜神居駐足 勝境栖心. 未幾 降誕之辰敕征入內. 懿宗皇帝遽弘至化 虔仰玄風 問大師曰 ‘遠涉滄溟 有何求事’ 大師對敕曰 ‘貧道幸獲觀風上國 問道中華. 今日叨沐鴻恩 得窺盛事 所求遍游靈迹 追尋赤水之珠 遠耀吾鄉 更作青丘之印’ 天子厚加寵賚 甚善其言.”이다. 이 비문의 내용으로 볼 때 먼저 낭공(朗空)선사는 함통11년에 사절단의 김공(金公)의 도움으로 바다를 건너 당나라에 도착했고 결국 수도인 장안에 올 수 있었다. 여기서 김공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관련된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불교에 독실하기로 유명한 당 의종은 낭공선사를 장안 좌가(左街)에 위치한 보당사(寶堂寺)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 낭공선사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았다.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들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당 의종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당나라에 입국한 신라 승려의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었고 또한 당나라 조정에서 신라 승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당 의종은 생일인 11월 14일에 낭공을 궁으로 초청하여 만남을 가졌다. 그는 평소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질문을 했고, 낭공은 당시에 당나라에 구부하기 위한 온 신라 승려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당나라 황제와 승려 사이에 특히 외국 승려와 만날 기회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속고승전』, 『송고승전』 등 승려의 전기를 언급하는 서적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기재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상술한 탑의 비문은 매우 얻기 힘든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는 불교에 독실했

던 당 의종에 관한 새로운 사료일 뿐만 아니라 신라의 낭공에 대한
진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³⁶⁾

2.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승려

신라 승려는 힘든 여정을 통해 당나라에 도착했다. 높은 파도, 끝
없는 사막, 고독, 힘든 생활 등은 그들이 가진 의지력과 열정을 가지
고 있었기에 타국에서 일반 사람이라면 참기 힘든 생활을 이겨나갔
다. 신라의 유명한 승려인 원효(元曉)는 당나라에 온 적은 없지만
일찍이 의상과 함께 당나라 자은(慈恩)대사의 문하에서 불교를 연구
하길 원했으나 인연이 단지 않아 당에 가지는 않았다.³⁷⁾ 『송고승전』
권4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에 원효와 의상은 당에 가기
전의 힘든 상황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의상은 끝내 당나라에 도착
했지만 원효는 평생 신라에서 수행하고 저술활동을 했다. 즉 당으로
가서 구법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반드시 굳은 결심이
필요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심리적인 동요가 발생할 수 있었고
결국은 목표로 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비록 당나라
에 가지 못했지만 이런 굳은 결심으로 실현하여 신라에서 유명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신라중기의 낭혜(朗慧)와 무염(無染)은 사신단을 따라 당나라에
입국했다. “及大洋中 風濤歟顛怒 巨艦 □ 人 不可復振 大師與心
友道亮跨支板恣業風 通星半月余 飄至劍山島(卽黑山島 在今山東省長
島縣)□行之碣. …… 悵然甚久曰 ‘魚腹中幸得脫身 龍領下庶幾攬手
我心非石 其可退轉乎!’”³⁸⁾ 즉 이번 거대한 파도는 매우 위험했으나

36) 배근홍, 「朝鮮半島現存金石碑銘與古代中韓交往」, 『陝西師範大學學報』, 2007. 4. 참조.

37) 『송고승전』권4, “唐新羅國元曉傳”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없이 표류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염선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아 결국 장경(長慶)원년에 신라에서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김흔(金昕)의 선박을 얻어 타고 당나라 등주에 도착했다.³⁹⁾ 신라 서운사(瑞雲寺) 요공(了悟)선사는 대중(大中)12년(858)에 “私發誓愿 擬游上國 隨入朝使利涉雲溟 乘一支之船 過萬重之浪 曾無惧念 不動安禪”⁴⁰⁾ 목적지에 도착했다. 월광사(月光寺) 원랑(圓朗)선사는 함통7년에 “投回易使陳良付足東來 時乃波濤騰涌 烟靄昏沉 舟楫有傾覆之虞 僧俗□□溺之患 師乃略無俱□. …… 若非神通妙用 智識遐周 履險不驚 孰能至此.”⁴¹⁾라고 했다. 즉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진감(眞鑑)선사, 보조(普照)선사, 진철(眞澈)선사, 법경(法鏡)선사 등 많은 신라 승려들이 잇달아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가서 구법을 하며 순례했다. 이들이 후에 귀국하여 신라의 불교가 번영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과정 중에 바다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831년 2월, 신라 흥덕왕(興德王)이 왕자 김능유(金能儒)와 9명의 승려를 당나라에 사절단으로 보냈다. 이들은 당나라에서 사절단의 임무를 순조롭게 완성하고 그 해 7월에 귀국하는 과정에서 모두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⁴²⁾ 이 사건이 신라 승려들이 바다에서 사망한 사건 중에서 가장 참담했던 사건이다.

38) 朝鮮總督府 編,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韓國亞細亞文化社, 1976年影印本. p.75

39) 김흔(金昕)이 당나라에 조공한 사실에 관해 『삼국사기』권10 참조.

40) 韓國歷史研究會 編, 『瑞雲寺了悟和尚眞原塔碑』, 『譯注 羅末麗初金石文』(상), (韓)도서출판 해안, 1996. 참조.

41) 朝鮮總督府 編,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韓國亞細亞文化社, 1976年影印本. p.84

42) 『삼국사기』권10 ‘新羅本紀·興德王’

당나라에 도착한 신라출신의 승려들은 당나라에서 수행을 하거나 불법을 연구하고 또는 당나라 승려처럼 인도로 가기도 했다. 일부 승려는 인도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진경부 선생은 의정(義淨)이 저술한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을 통계한 내용에 따르면 당나라 초기에 서역에 구법을 한 승려는 모두 56명이다.⁴³⁾ 그중에 8명은 신라출신이다. 이 신라 승려는 혜륜(慧輪)법사, 법락(玄恪)법사, 혜업(慧業)법사, 아리아발마(阿離耶拔摩)법사, 현태(玄太)법사, 구본(求本)법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신라 승려다. 이 8명 중에 구본법사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단지 그가 인도에 간 사실 외에 다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들 중에서 현태법사가 인도에서 힘들게 당나라로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 현락법사, 혜업법사, 아리아발마법사는 인도에서 사망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혜륜법사는 당 태종 시기에 당나라 승려 현조(玄照)을 따라 인도에 갔다. 현조가 황제의 명으로 당나라로 귀국한 후 혜륜법사는 중인도 암마라발국의 신자사(信者寺)에서 7년간 머물렀고 후에 서역의 건다라산타사에서 수행했다. 의정은 인도에서 혜륜법사를 만나 본 적이 있었다. 혜륜법사는 범문에 정통하여 구사(俱舍)를 연구했다. 이후에 혜륜법사에 관해서는 사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름이 없는 두 신라 승려는 의정처럼 바다를 통해 인도에 갔고, 구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나중에 서역으로 구법을 떠나는 신라 승려는 많았고 그중에는 혜초(慧超), 무루, 원표(元表), 오진(悟眞)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혜초는 신라 승려로 서역에 구법하러 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와 『대종조증사공대변정광지삼장화상표제(代宗朝贈司空大辯正廣智三藏和尚表制)』 등 문헌에 기재된 내용에

43) 진경부, 『중한불교관계일천년』, 宗教文化出版社 1999

따르면 혜초는 십대에 당나라에 왔다. 개원7년(719)에 해로를 이용하여 구법을 위해 인도로 갔다. 개원16년(728)에 육로를 통해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후의 몇 년은 기행문을 정리하여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편찬했다. 『왕오천축국전』의 일부는 1905년 돈황의 석굴에서 프랑스 동양학자인 펠리오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았다.⁴⁴⁾ 이 『왕오천축국전』은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이후 서역으로 가는 노정과 당시 인도의 역사지리에 대한 중요한 저작이다. 사료에 따르면 혜초는 불공(不空)의 문하에서 밀종을 연구하며 대흥선사(大興善寺)에 있었다. 당 대종(代宗) 대력(大曆)9년 2월(780)에 혜초는 『하옥녀담기우표(賀玉女潭祈雨表)』를 편찬했다. 후에 건중(建中)원년(780)에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에서 수행하면서 향년 85세에 원적했다.⁴⁵⁾ 무루와 원표는 천보연간에 서로 각각 서역으로 출발했다. 무루는 건강 때문에 도중에 되돌아왔을 때 안사지란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무루는 당 현종, 숙종 부자를 만났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받았다.⁴⁶⁾ 원표는 당나라에 돌아온 후 지금의 복건 지역에서 화엄경을 연구했다. 당 무종이 불교를 탄압하던 시기에 그는 불경을 보호하는 큰 역할을 했다.⁴⁷⁾ 오진은 당나라 덕종 초기에 토번을 거쳐 인도에서 『대비로자나경(大毗盧遮那經)』을 얻었다. 정원(貞元)5년(789) 같

44)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관해 중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 받는 것은 장의(張毅) 선생의 『往五天竺國傳箋釋』이다.(中華書局, 2000) 이밖에 동지교(董志翹) 선생의 『評介兩部研究〈往五天竺國傳〉的新著』, 『學術集林』권9, 上海遠東出版社, 1996. 황시감(黃時鑑) 선생의 『慧超〈往五天竺國傳〉識讀余論』, 『東西交流史論稿』, 上海古籍出版社, 1998. 등이 참고할 만하다.

45) 최정삼(崔正森), 『唐代五臺山乾元菩提寺高僧慧超』, 『五臺山研究』1998.4. 참조.

46) 『송고승전』 권21 “唐朔方靈武下院無漏傳”

47) 『송고승전』 권30 “唐高麗國元表傳”에서 원표(元表)에 대해 “本三韓人.”라는 기사가 있다. 삼한(三韓)은 일반적으로 진한(辰韓), 마한(馬韓), 변한(卍韓) 즉 한반도를 가리킨다. 원표가 “天寶年間來游華土”라는 구절로 볼 때 그는 아마 옛 고구려 지역에서 거주했다. 다만 고구려가 멸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를 신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은 길로 돌아오는 중에 토번에서 불행히 사망했다.

당나라에서 구법을 순례하던 신라 승려는 상술한 불경번역, 서역 순례, 신라로 귀국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후세에 이름이 전해진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많은 신라 승려들은 묵묵히 수행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당 소종(昭宗) 경복(景福)2년(892)에 당나라에 와서 천태산(天台山) 평전사(平田寺)에서 수행했던 도육(道育)이 묵묵히 수행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慈愛接物 然終不舍島夷音言. 恒持一鉢受食 食訖 略經行而常坐 脇不著席. 日中洒掃殿廊 料理常住 得殘羹之食 雖色惡氣變 收貯於器 齋時自食. 與僧供浴煎茶 遇薪木中蠹蟲 乃置之遠地 護生偏切. …… 凡對晤賓客 止云伊伊二字 殊不通華言. 然其會認人意 且無差脫”⁴⁸⁾ 즉 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이 승려는 당나라에 구법하기 위해 왔으나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이다. 즉 이 승려는 특별한 경우인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둘째, 도육은 수행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으나 살아 있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모기에게 피를 보시하기도 했다. 셋째, 그는 당나라에서 머문 기간이 길었기에 비록 중국어를 몇 마디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전하는 의미를 이해하여 실수가 없었다. 즉 중국어를 하지는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 도육을 살펴보면 많은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들이 그의 가정환경, 문화수준, 당나라에 온 구체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도육과 비슷한 경우를 가진 승려, 즉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신라 승려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지장(金地藏)은 신라 왕족출신으로⁴⁹⁾ 지주(池州) 구화산(九華

48) 『송고승전』 권23 “晉天臺山平田寺道育傳”

49) 김지장(金地藏)의 관한 내용은 주로 중국사료에 근거한다. 어떤 이는 그가 성덕왕의 아들 김수충(金守忠)이라는 주장이 있고 둘째 아들인 김중경(金重慶)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료에서는 모두 증명하기 어렵다. 사주전(謝澍田), 『試論新羅僧

山)에서 산봉우리를 돌아 계곡에서 햇빛이 들고 평평한 곳을 찾았다. 그곳은 토질이 비옥하고 샘물이 있고 바위 사이로 계곡이 흘러 온 종일을 그곳에서 힘든 수행을 했다. 지덕(至德) 초에 사람들이 이 장소를 발견한 후에 그를 위해 백성들이 사원을 지으려고 했다. 지방관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곳을 직접 본 후에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상소를 올렸다. 지장의 이름은 천하로 퍼져나갔고 본국에서 이를 듣고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⁵⁰⁾ 정원(貞元)10년(794) 여름 김지장은 이곳에서 향년 99세에 사망했다. 후에 김지장은 구화산에 지장도량을 처음 만든 이가 되었고 중국 불교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화산은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3. 당나라에서 모여서 거주했던 신라 승려

당나라에서 신라 승려들은 모여서 거주했다. 산둥반도 등주 문등현(文登縣) 적산(赤山) 법화원(法華院)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은 개성(開成)4년(839) 6월 초에 문등현 적산포에 도착하여 장보고가 건립한 적산법화원⁵¹⁾에서 1년을 보냈다. 엔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원에 항상 거주하는 승려는 20여 명으로 모두 신라인이었다. 사원내부에는 큰 강당이 있었고 매년 봄과 가을에 불경을 강의하는 법회를 열었는데 이때 2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법화원의 예불이나 강연의 형식은 매우 독특하여 당나라와 신라에서 행

金地藏入唐求法修道的思想和實踐, 『安慶師範學院學報』, 1995.1. ; 김훈(金勳), 『中國의地藏信仰與金喬覺法師』, (韓)『佛敎研究』, 총 第25輯, 2006 참조.

50) 『송고승전』권20 '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

51) 적산(赤山) 법화원(法華院)의 창건 시기에 관해 한국 권덕영(權惠永) 선생은 몇 가지 고증을 통해 828년이라고 주장한다. 권덕영, 『在唐新羅人社會研究』, (韓)一潮閣, 2005. p.94 참조.

해지는 형식을 혼합한 형태였다. 예를 들면 강연하는 승려가 강당의 높은 곳에 앉으면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염불을 했는데 그 소리는 당나라의 발음이 아닌 신라 발음이었다, 강연하는 승려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염불을 그쳤다. 때때로 밑에 승려가 범문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나라의 형식이었다. 즉 이 ‘운하어차경(雲何於此經)’ 등 모두 함께 불렀다. ‘원불개미밀(愿佛開微密)’의 구절에서는 모두가 ‘계향(戒香)’, ‘정향(定香)’, ‘해탈향(解脫香)’ 등을 같이 암송했다. 즉 적산법화원은 당나라와 신라가 교류하는 중요한 사원으로 시간적으로 역사가 짧고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라출신의 승려들은 신라에게 중시하는 한가위행사를 매년 거행하는 등 신라의 풍속을 잊지 않았다.⁵²⁾ 법화원에서는 당나라와 신라의 여러 형식이 혼재되어 문화가 융합하고 보완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청주(靑州)와 치주(淄州) 장산현(長山縣)에 모두 신라 사찰이 있었다. 이곳에서도 신라 승려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 무종의 역불정책으로 회창(會昌)5년 9월에 엔닌은 원래 적산의 사원에서 머물려고 했으나 황제의 칙명으로 법화원이 이미 부서져 머무르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신라인들이 만들고 신라 승려들이 모여 있던 적산법화원은 이 시기에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52) 엔닌의 기록에서 적산법화원의 신라인이 8월 15일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유증덕(劉增德) 선생은 엔닌의 기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8월 15일 당일에 법화원의 신라인들은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을 보낸다. 둘째, 이 명절을 신라인은 ‘한가위’라 부른다. 셋째, 이 명절은 신라만의 고유한 명절이다. 넷째, 이 명절은 신라가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때문에 전후 3일이 명절이다. 여러 고증을 통한 결과 중국은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이래 문인들이 달을 감상하는 풍속은 있었지만 중국에서 중추절(中秋節)은 북송 시기에 시작되었다. 주홍(朱紅) 선생은 이 주장에 반대한다. 그는 여러 고증을 통해 당나라와 신라는 중추절이 있지만 중추절의 기원이 발해에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또한 엔닌이 여행 중에 듣고 기록한 내용도 꼼꼼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자세한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특정한 한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증덕(劉增德), 『中秋節源自新羅考』, 『文史哲』, 2003.6. ; 주홍(朱紅), 『唐代中秋新考』, 『九州學林』, 총 第10期, 2005 참조.

당나라 금주(金州)에 신라사(新羅寺)가 있었는데 당 태종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정관10년(636), 신라의 자장과 그의 문하생 승실(僧實)을 포함한 10여 명의 사절단이 당나라에 도착했다.⁵³⁾ 당나라에서 자장은 종남산에서 수행을 했고 승실은 사절단을 따라 금주에 도착했다. 한강(漢江)을 보면서 고향생각이 난 승실은 사원을 건축하여 향수를 달래려고 했다. 정관13년(639) 금주자사 단지현(段志玄)은 한강에 사원을 만들고 ‘신라사’⁵⁴⁾라고 이름을 지었다. 정관 17년(643) 자장은 신라로 귀국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승실도 자장을 따라 귀국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신라사의 번영과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사료에서 승실이 귀국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 밖에 신라사의 유적에서 두 개의 비희(鼉)를 발견했다. 이는 신라사 대전 정문 양측에 있었다고 추정되며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8.5m이다. 이로써 신라사 정전의 대문에 있던 섬돌의 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석비의 위치에 따르면 신라사의 방향은 서남쪽에서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를 향한 방향이다. 한국 경주에 사천왕사 유적의 남단에 두 개의 비희 흔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금주 신라사의 건축은 신라의 사찰과 관련이 있는가? 혹은 신라 승려들이 건축할 때에 참여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관련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화(元和)12년(817), 시인으로 유명한 백거이가 강주(江州)에서 사마(司馬)를 지내고 있었다. 그는 하남(河南)출신인 원집허(元集虛), 범양(範陽)출신인 장윤중(張允中)과 장특(張特), 광평(廣平)출신인 송

53) 『속고승전』권24, ‘慈藏於貞觀十二年’에서 “將領門人僧實等十有餘人 東辭至京. 勝光別院 厚禮殊供.” 자장은 종남산 지상사에서 3년 수행을 했기에 제자인 승실(僧實)이 금주(金州)로 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54) 이계량(李啓良), 『唐代金州新羅寺』, 『考古與文物』, 2003. 6. 참조.

욱(宋郁), 안정(安定)출신인 양필복(梁必復), 동림사(東林寺) 승려 법연(法演)과 지만(智滿) 등 17명과 여산(廬山)으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자연을 감상하면서 동림사와 서림사를 지나 향로봉에 올라 대림사(大林寺)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이 대림사는 깊은 산중에 있었기에 사람들의 흔적이 드물었다. 사찰의 주위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파란 빛깔의 암석, 자그마한 소나무, 약간의 대나무가 있었으며 사찰은 오로지 나무로만 만들었다. 놀란 사실은 대림사의 승려가 ‘해동(海東)⁵⁵⁾출신이라는 것이었다. 당대에는 신라를 해동이라 부르기도 했다. 즉 이런 오지의 사찰에서도 신라 승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백거이는 이 신라 승려들이 몇 명이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승려들은 모두 해동인’이라는 구절로 볼 때 대림사의 승려들이 2~3명은 아니고 최소 5명 이상이라 생각된다. 대림사는 깊은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와의 환경은 달랐다. 비록 이 사찰까지는 반나절의 시간이 걸리지만 수십 년 동안 이 곳을 찾은 사람들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이 신라 승려들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가? 그들은 사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백거이의 글에서 우리는 신라 승려들이 이곳에서 수행, 즉 여산의 깊은 산속의 조용한 환경에서 수행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외에 수도인 장안에서 많은 사찰 중에 신라 승려가 모인 곳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당 무종(武宗) 회창(會昌)5년(845)에 대규모로 억불정책이 시작되었다. 신라 승려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회창3년(843) 정월 28일에 장안에 거주하는 외국 승려가 이들을 관리하는 관청에 모였다. 그중에는 청룡사(靑龍寺)의 남천축출신인 보월(寶月) 등 5명, 흥선사(興善寺)의 북천축출

55) 주금성(朱金城), 『白居易集箋校』第5冊, 上海古籍出版社, 2000

신인 난타(難陀), 자은사(慈恩寺)의 사자국(師子國)출신인 승려 1명, 자성사(資聖寺)의 일본출신의 승려 3명, 모든 사찰의 신라 승려, 그리고 구자국(龜茲國)출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승려 1명, 모두 21명이 포함되었다. 한국 김문경(金文經) 교수는 당시 유명했던 10명의 신라 승려가 이 모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⁵⁶⁾ 마땅히 언급해야 할 것은 이 10명은 관청에 참석한 승려일 뿐이다. 즉 장안의 좌가에 있던 사원에서 신라 승려의 숫자일 뿐이다. 좌가 외에 장안의 다른 사원에 있었던 신라 승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⁵⁷⁾ 회창5년 3월 “천하의 모든 사찰에 40이하의 승려는 모두 환속하여 고향으로 귀향하라는 칙명이 있었다. 며칠 후에 ‘나이 50 이하의 승려는 즉시 환속하고 고향으로 귀향하라. 나이 50 이상인 승려 중에 사부(祠部)첩지가 없으면 곧바로 환속하고 사부첩지가 있는 자는 해당의 지방의 조사를 통해 이상한 것이 있으면 곧장 환속하여 고향으로 귀향하라’라는 칙명이 있었다.

이런 칙명은 당나라의 승려를 줄이는 방법으로 효과가 좋았다. 당나라의 외국 승려 역시 이런 조치를 받게 되었다. “외국 승려가 당나라에 오기 전에 이런 조치를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칙명에는 ‘외국 승려가 사부첩지가 없다면 환속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엔닌은 북천축의 난타, 남천축의 보월, 그리고 많은 신라 승려가 사부첩지가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장안에 거주하던 많은 신라 승려들은 사부첩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장안의 한 사미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이 사미승은 아주 어렸을 때 승려가 되었다. “在大薦福寺侍奉新羅僧爲師匠 因僧難 承接新羅僧名字 得住寺. 官家隨其公稔 遞向新羅国去. 在府之時 百萬作計

56) (韓)김문경(金文經), 『7~10世紀新羅同江南的文化交流』, 『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 杭州出版社 1997

57) 이들 승려들은 한 사찰에서 같이 수행했는지에 대해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인, 혹은 2인 이상 같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申訴 不免遞過 親情啼哭 街中相別 ……”⁵⁸⁾ 즉 이 장안의 사미승은 대존복사(大薦福寺)에서 신라 승려의 문하에 있었다. 회창연간의 억불정책으로 그는 스승인 신라 승려가 신라로 돌아가게 되자 스승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찰에 머물 수 있었다. 긴장된 나날이 계속 되었고 이 사미승은 결국 조사를 받고 첩지에 쓰여 있는 이름 때문에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틈을 타서 도망을 쳤고 장안으로 돌아와 숨어서 생활했다. 이런 억불정책은 신라와 당나라의 불교교류에 큰 영향을 사건이었다. 엔닌은 해주(海州)에 도착한 후 해주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현지의 관원에게 거절당했다. “近日新羅僧亦從京兆府遞來 請於當州權泊 使君不肯 便遞過 和尙請停住事 亦應難 然縣司不自由 事須經使君通狀” 이 기재 내용에서 3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엔닌이 해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장안에서 신라 승려들이 해주에 도착하여 신라로 귀국하려 했으나 당나라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둘째,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때 현지의 지방관원들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었고 결정권은 현지의 최고 관원만이 가지고 있었다. 셋째, 장안에 신라 승려가 많았기 때문에 해주를 경유하여 귀국한 승려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엔닌이 기술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당시의 명성이 높았던 신라 승려들도 이 시기에 신라로 귀국했다. 예를 들면 당 목종(穆宗) 장경(長慶)초에 당나라에 온 낭혜(朗慧)선사는 당나라에서 20여 년 동안 중남산 지상사(至相寺)와 오대산 불광사(佛光寺)를 순례했고, 여만(如滿)선사, 보철(寶澈)대사 등 당시에 명성이 높은 당나라 승려를 방문하고 회창5년에 신라로 귀국했다. 그에 관련된 탐의비문에서는 그가 신라로 귀국한 원인이 ‘황제의 칙명’⁵⁹⁾이라는 구절

58) (日)圓仁, 고승보(顧承甫), 하천달(何泉達) 점교,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上海古籍出版社, 1986

59)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上), 韓國亞細亞文化社, 1976年 影印版.

이 보인다. 자인(慈忍)선사, 도의(道義)선사 역시 이 해에 신라로 돌아갔다. 그들은 모두 억불정책 때문에 신라로 돌아간 것이다.

4. 당나라에 있던 신라 승려와 신라 구산선문의 발전

당나라 중후기, 신라 승려들은 주로 강소와 절강 지역의 사찰에 있었다. 그들은 신라로 돌아가면서 선종을 신라에서 전하게 되었고,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이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문제에 관해 중국과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중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도의(道義)선사는 건중5년(784)에 당나라에 왔고 장경원년(821)에 귀국했다. 그는 당나라에서 37년 이상을 지내면서 선종 남파(南派)의 서당지장(西堂智藏)에게 선종을 배우고 신라에서 선종을 전파했다. 염거(廉居)선사와 체징(體澄)선사⁶⁰⁾가 명성을 얻게 되어 신라 구산의 하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산했다.

홍척(洪陟)선사와 혜철(惠哲)선사는 도의선사와 비슷하게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면서 서당지장의 선종학설을 배웠다. 홍척선사는 실상산문(實相山門)을 개산했고, 혜철선사는 동리산문(桐里山門)을 개산했다.

진감(眞鑑)선사 혜소(慧昭)는 정원20년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창주(滄州)에서 신감(神鑑)법사를 방문했다. 두 승려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후에 숭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 순례했고 종남산의 벼랑에서 솔밭울만 먹으면서 3년간 수행했다. 대화4년에 신라로 귀국

60) 체징(體澄)은 먼저 도의 선사의 제자인 염거선사의 문하에서 있었다. 개성2년(837) 동도(同道)와 같이 당나라로 갔다. 개성5년에 신라로 귀국했다. 귀국한 후 널리 선법을 알려 가지산(迦智山)이 선종학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하여 지리산문(智異山門)을 개산했다.

중국의 하경송 선생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조당집(祖堂集)』 등 자료를 종합하여 현욱(玄昱)선사가 원화4년(809)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28년 이상을 머물렀고 당나라 승려 회휘(懷輝)법사의 문하에서 선종을 배웠다고 주장한다.⁶¹⁾ 개성2년에 신라로 귀국하여 민애왕(閔哀王), 신무왕(神武王), 문성왕(文聖王), 헌안왕(憲安王)의 존경을 받았으며 봉림산문(鳳林山門)을 개산했다. 후에 심희(審希)선사가 현욱선사를 계승하여 봉림산문의 명성을 높였다.

도윤(道允)선사가 사자산문(師子山門)을 개산했다. 도윤선사는 장경5년(825)에 당나라에 도착했다. 그는 남천사(南泉寺)의 보원(普願)선사의 문하에서 선종을 배웠다. 대중(大中)원년(847)에 신라로 귀국하기까지 20여 년을 당나라에서 수행했다. 귀국 후에도 20여 년 동안 선종을 전파했고 절중(折中)선사가 그를 계승했다. 즉 도윤선사는 개산하고 절중선사는 사자산문의 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염선사가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산했다. 무염선사는 당나라에 가기 전에 신라에서 유명한 사찰을 순례했다. 장경 초년에 당나라에 도착한 후 종남산 지상사에서 구법했다. 또한 불광사에서 유명한 승려인 여만대사에게 도에 물으니 여만대사의 칭찬을 받았다. 그는 또 보철(寶徹)법사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하는 선종 연구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당 무종의 억불정책으로 회창5년에 무염선사는 신라로 돌아갔다. 무염선사는 성주산에 머물면서 수행했다. 즉 이가 신라하대(下代) 선종이 발전하는 규범이 되었다.

범일(梵日)선사와 행적(行寂)선사가 사굴산문(閻崛山門)을 개산했다. 범일선사는 태화연간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제안(齊安)법사와 유엄(惟嚴)법사의 문하에서 선종을 배웠다. 회창4년 범난이 시작되자

61) 하경송, 『한국불교사』上冊, 宗教文化出版社, 1997. 참조.

범일선사는 상산(商山)으로 피신하면서도 선종을 계속 수행했고 회창6년에 신라로 귀국했다. 귀국 후에 명주(溟州) 도독의 요청으로 사굴산에 머물렀고 신라 국왕들은 그를 국사(國師)로 삼으려 했다. 범일의 제자인 행적은 함통11년에 당나라에 왔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그는 걸어서 장안에 도착하여 당 의종을 만나게 되었다. 후에 오대산과 성도 정중사(靜衆寺), 형산(衡山) 등을 순례했고 중화(中和)5년에 귀국하여 다시 범일의 문하에서 선종을 배웠다.

순지(順之)선사는 양산선문(仰山禪門)을 개산했다. 순지선사는 대충12년(858)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양산(仰山)의 혜적(慧寂)법사를 만났다. 경문왕(景文王) 시기에 신라로 귀국했다.

이상은 선종이 신라에 정해진 사실을 종합한 것이다. 즉 신라에서 당나라에 갔었던 승려들에 의해 선종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선종의 전래는 신라시대 사회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신라 승려는 모두 회양(懷讓)법사에서 전승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선법(禪法)을 배웠다. 즉 도의선사, 홍척선사, 혜철선사는 서당지장의 문하였고, 서당지장은 어려서부터 마조도일의 문하에서 선법을 배웠다. 진감선사 혜소는 신감선사의 문하, 현욱선사는 회회선사의 문하, 그리고 도윤선사, 절중선사는 보원선사의 문하, 무염선사는 보철법사의 문하, 범일은 제안법사와 유엄법사의 문하, 순지선사는 혜적법사의 문하였다. 서당지장, 신감법사, 회회법사, 보원법사, 보철법사, 제안법사, 유엄법사 등 모두는 마조도일의 제자이고 혜적법사는 마조도일의 사손이었다. 결국 신라 구산선문은 모두 육조 혜능의 제자인 회양법사에서 이어져 온 계승되었던 선법을 계승한 것이다. 계승의 과정에서 신라 승려들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신라에서 선종을 전파했다. 이로써 신라에서의 선종은 오로지 추상적이었던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었기에 신라에서 쉽게 받아들

일 수 있었다.

둘째, 구산선문을 개산한 승려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 간 당나라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수행했다. 이 때문에 신라뿐 아니라 당나라에서도 그들의 명성은 높았다. 진감선사가 창주에서 진감선사를 뵈 때 그의 세파에 굴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과 뛰어난 지식 때문에 사찰에서는 “동방의 성인이 이곳에 돌아왔다.”라는 말과 “흑두타(黑頭陀)”라고 감탄하는 소리가 널리 퍼졌다. 무염선사가 불광사에서 여만대사를 뵈 때 여만대사는 부끄러운 얼굴로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대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네. 후에 중국에서 선법을 잃게 되면 동이에서 찾아야 하겠구나.”⁶²⁾라는 말이 전해진다. 혜철선사가 당나라에 도착하여 서당지장을 뵈고 선종의 교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르기를 “某生緣外國 問路天地 不遠中華 故來請益 倘他日無說之說 無法之法流於海表 辛斯足矣! 大師知志既堅 稟性最悟 一識如舊 密傳心印 於是禪師已得赤水所遺靈臺豁爾如大虛之寥廓也. 夫夷夏語乖 機要理隱 非伐柯執斧 孰能與於此乎! 未幾西堂終 乃虛舟莫留 孤雲獨逝 天南地北 形影相隨. 所歷名山靈境略而不載也. 到西州浮沙寺 披尋大藏經 日夕專精 晷刻無廢 不枕不席至於三年. 文無奧而未窮 理無隱而不達. 或默思章句 歷歷在心焉. 以違親歲積 宣法心深 遂言歸君子之鄉 直截乾城之浪.”⁶³⁾라고 했다. 즉 이들 신라 승려들은 뛰어난 인재로 당나라에 도착해서도 끊임없이 수행하기에 학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당나라 고승들이 감탄했다. 이들은 귀국 후에 이런 명성을 기초로 신라에서 선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셋째, 이들은 당나라에서 구법순례의 과정에서 선종의 많은 깨달음 외에도 다른 불교종파의 학설을 받아들여 융합했다. 이 때문에 선종은

62) 朝鮮總督府 編, 『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 『朝鮮金石總覽』상, 韓國亞細亞文化社, 1976年 影印版. p.68

63) (韓)허흥식(許興植) 편, 『大安寺寂忍國師照輪清淨塔碑』, 『韓國金石全文·古代篇』, 韓國亞細亞文化社, 1985

신라에서 전파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그들 중에서 밑종을 받아들여 선종의 신비감을 더할 수 있었고 이는 구산선문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넷째, 그들은 귀국한 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라 국왕의 주목을 받아 구산선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도의선사는 당나라에 입국한 시기 때문에 신라에 귀국하고도 국왕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가지산문은 체징선사 시기에 비로소 명성을 얻게 되었다. 동리산문을 개산한 혜철선사는 귀국한 후 문성왕의 빈번한 질문에 답하면서 국가통치에 유리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현옥선사는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 등의 총애를 받아 왕궁에서 설법했다. 무염선사는 성주산문을 개산하고 문성왕, 헌안왕, 경문왕, 현강왕, 진성여왕(眞聖女王)의 존경을 받았고, 경문왕은 그를 국사로 삼았고 진성여왕은 ‘대낭혜(大朗慧)’라는 시호를 내렸다. 사굴산문을 개산한 범일선사는 경문왕, 현강왕, 정강왕이 국사로 삼으려고 했으나 범일선사는 끝까지 응하지 않고 사찰에서 나가지 않고 원적했다. 신라하대 여러 국왕들이 이들을 중요시하여 국사로 삼은 것은 당시가 왕위쟁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민란이 자주 발생하여 국가가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 신라 국왕들은 이들을 대접하고 선종을 이용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선종이 신라에서 발전하기에 유리했다. 이들이 사망한 후 국왕과 제자들은 비석에 글자를 새겨 그들이 불교와 국가에 대한 공헌한 내용을 널리 알리려 했다. 이로 인해 신라와 이후의 고려에서 석각 문화가 성행하게 되었다.⁶⁴⁾

64) (韓)김복순(金福順), 배근홍 역, 『韓國古代的石刻文化與崔致遠』,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 2004. 2. 참조.

IV. 결어

본고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7~10세기 초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승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재 찾아볼 수 있는 3백여 년간 당나라의 신라 승려 수에 관한 문제, 당나라에서 불경번역에 참여한 신라 승려들의 역할과 평가문제, 당나라에서 활동한 신라 승려에 관한 문제 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필자가 살펴본 제한적인 사료로 인해 어떤 부분은 빠져있는 것도 있고, 혹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언급하거나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지적을 기대하며, 필자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사료를 자세하게 살피는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겠다.

부표(附表): 당나라에서 구법한 신라 승려 숫자 통계표

| | | | | | | |
|----|----|------------------|---------------|-----|--|--|
| 1 | 慈藏 | 貞觀10年 | 貞觀17年 | 律宗 | 오대산을 순례하고 종남산 지상사에서 수행했다. | 『속고승전』권24 |
| 2 | 僧實 | 貞觀10年 | 貞觀17年 | 律宗 | 자장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했다. | 同上 |
| 3 | 圓勝 | 貞觀10年 | 貞觀17年 | 律宗 | 장안에 머물렀다. | 同上 |
| 4 | 義湘 | 龍朔2年 (662) | 咸亨2年 (671) | 華嚴宗 | 종남산 지상사의 지엄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후에 해동화엄종(海東華嚴宗)의 시조라 불린다. | 『속고승전』권4 『삼국유사』권4 최치원 『의상취일문』 |
| 5 | 明朗 | 貞觀6年 | 貞觀9年 | 密宗 | | 『삼국유사』권5 |
| 6 | 惠通 | 자세한 기록없음 | 麟德2年 | 密宗 | | 同上 |
| 7 | 明曉 | 자세한 기록없음 | 聖歷3年 (700) | 密宗 | 『불공색타라니경(不空索陀羅尼經)』을 번역한 후 신라로 돌아왔다. | 『개원석교록』권9 |
| 8 | 慧超 | 자세한 기록없음 | 建中연간 | 密宗 | 천축으로 구법을 떠난 후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후 오대산에서 수행했다. | 혜초, 장의(張毅) 전주 『왕오천축국전전석(往五天竺國傳箋釋)』 |
| 9 | 神坊 | 貞觀19年之前, 혹은 武德年間 | 695년 | 法相宗 | 현장이 총애하던 4명의 제자중의 한 명으로 천복사(薦福寺)와 옥화궁(玉華宮)에서 20여 년간 번역활동에 참여했다. | 혜립(慧立) 등, 손육당 점교, 『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 진경부 선생이 1994년에 발표한 논문(『인문잡지(人文雜誌)』 참조) |
| 10 | 圓測 | 貞觀2年 (628) | 696년 | 法相宗 | 법상, 승변을 따라 당나라에 입국한 후 서명사에서 머물렀다. 종남산 운제사에서 수행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번역활동을 하면서 측천무후에게 총애를 받았다. | 최치원 『고번경증의대덕원측화상위일문(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 |
| 11 | 道倫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17종의 저술이 있다. | 『동역전등목록(東域傳灯目錄)』 |
| 12 | 道證 | 자세한 기록없음 | 如意元年 (692) | 法相宗 | 10여 종의 저술이 있다. | |
| 13 | 勝莊 | 貞觀末年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당 예종(睿宗) 시기에 장안에서 번역활동에 참여했다. 6종의 저작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현 | 『금광명최승왕경주석(金光明最勝王經註釋)』권1, 『대장경(大藏經)』 제56책 |

| | | | | | | |
|----|----|---------------|-------------|-------------|---|--|
| | | | | | 제는 1종만 남아 있다. | |
| 14 | 智仁 | 乾封元年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정관 말기에 현장이 주도하는 번역활동에 참여했다. 영휘, 현경연간에도 계속 번역활동에 참여했다. 장안 광명사에서 머물렀었다. | 『관중창립계단도경병서(關中創立戒壇圖經并序)』, 대장경 제45책, 『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 |
| 15 | 神廓 | 665년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현장의 제자, 3종의 저작이 있다. | 『동역전등록(東域傳燈錄)』 |
| 16 | 玄範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현장의 제자, 14종의 저작이 있다. |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 |
| 17 | 智鳳 | 長安3年 (703) | 일본으로 돌아감 | 法相宗 | 지주(智周)에게 법상유식학을 배움. | |
| 18 | 智鸞 | 長安3年 (703) | 일본으로 돌아감 | 法相宗 | 同上 | |
| 19 | 智雄 | 長安3年 (703) | 일본으로 돌아감 | 法相宗 | 同上 | |
| 20 | 琳潤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설인귀를 대신하여 신라조정에 편지를 전달했다. | 『삼국사기』권7 |
| 21 | 元表 | 天寶初 | | 華嚴宗 | 천축으로 구법을 떠났다. | 『송고승전』권30 |
| 22 | 義寂 | 665년 전후 | 자세한 기록없음 | 法相宗 | 장안에 있었다. | |
| 23 | 悟空 | | | | | |
| 24 | 德善 | | | | | |
| 25 | 連義 | | | | | |
| 26 | 朗智 | | | | | |
| 27 | 惠日 | 建中2年 (781) | 자세한 기록없음 | 密宗 | 장안 청룡사에 있었다. | 『대당청룡사삼조공봉대덕행장(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 |
| 28 | 悟眞 | 建中2年 (781) | 도변에서 사망 | 密宗 | 장안 청룡사에 있었다. 후에 『대일경(大日經)』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떠났다. | 同上 |
| 29 | 均亮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密宗 | 장안 회창사(會昌寺)에서 의조(義操)에게 금강법을 배웠다. | 『양부대법상승사자부법기(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상권, 『금태양계사승표(金胎兩界師相承)』 |
| 30 | 弘印 | 大和, 開成연간 | 會昌5年 | 密宗 | | 同上 |
| 31 | 孝忠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華嚴宗 | 현수(賢首)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삼국유사』권4 |

| | | | | | | |
|----------|---------------|-------------|----------------|-------------|--|--|
| 32 | 審祥 | | 廣德2年 이전 | 華嚴宗 | 현수의 문하에서 수행 했고 후에 일본에 화엄 경을 전했다. | 『화엄경문의강목간 행서(華嚴經文義綱目 刊行序)』, 대장경(大 藏經)제35책 |
| 33 | 勝詮 | | 長壽元年 (692) | 華嚴宗 | 현수의 문하에서 수행 했고 귀국 시에 의상에 게 법장의 편지를 전했다. | 『삼국유사』 |
| 34 | 梵修 | 德宗即位 이후 | 貞元15年(799) | 華嚴宗 | 『화엄경』을 새로 번역한 후 신라로 가지고 귀국 했다. | |
| 35 | 智德 | 咸亨 이전 | | 禪宗 | 오조(五祖) 홍인(弘忍) 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정각(淨覺)『승가사자 기(僧伽師資記)』 |
| 36 | 馬和 尙 | 684年 전후 | 자세한 기록없음 | | | |
| 37 | 法朗 | | 肅宗연간 | 禪宗 | | 『당문습유(唐文拾遺)』 권44 |
| 38 | 順憬 | 乾封中 | | 法相宗 | | 『송고승전』권4 |
| 39 | 慧業 | 貞觀中 | | | 천축으로 떠났고 천축 의 나란타사에서 원적 했다. | 『대당서역구법고승 전교주(大唐西域求法 高僧傳校注)』 |
| 40 | 玄照 | | | | 천축으로 떠났다. | |
| 41 | 慧輪 | 자세한 기록없음 | | | 해로로 복건에 도착하 여 장안까지 육로로 이 동했다. 후에 현조를 수 행하여 천축으로 출발 했다. | 『대당서역구법고승 전교주(大唐西域求法 高僧傳校注)』 |
| 42 | 阿離 耶跋 摩 | 貞觀中 | | | 천축으로 출발하여 나 라나사에 머물렀다. | 同上 |
| 43 | 玄太 | 永徽2年 이전 | | | 토번을 통과하여 천축 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 에 토번 경내에서 사망 했다. | 同上 |
| 44 | 玄恪 | 貞觀中 | | | 현조를 수행하며 천축 으로 갔다. 천축에서 사 망했다. | 同上 |
| 45 | 求本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 同上 |
| 46 47 | 新羅 僧2 人 | 唐初 | 구법 도중 사망 | | 장안에 도착한 후 남방 으로 가서 해로를 이용 하여 천축으로 출발했 다. 여행과정에서 사망 했다. | 同上 |

| | | | | | | |
|----|-----------|---------------|----------------|----------|---|---|
| 48 | 法融 | 자세한 기록없음 | 開元18年 | 天台宗 | 현량(玄朗)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불조통기(佛祖統記)』권7, 권10, 『전당문(全唐文)』권320 |
| 49 | 理應 | 자세한 기록없음 | 開元18年 | 天台宗 | 師從左溪尊者玄朗 | 同上 |
| 50 | 純英 | 자세한 기록없음 | 開元18年 | 天台宗 | 同上 | 同上 |
| 51 | 法朗 | | | 禪宗 | | |
| 52 | 無相(益州金和尚) | 開元16年(728) | 寶曆元年(762) | 禪宗 | 처적(處寂)의 문하에서 수행하며 자주(資州) 덕순사(德純寺)에 있었다. 당 현종이 황궁으로 초청했다. |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송고승전』권19 |
| 53 | 神行 | 開元27年(739) 이후 | 大曆8年(773) 이후 | 禪宗 | 혜공(慧空)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하남 삼봉산(三峰山), 장안 광복사(廣福寺)와 송악(嵩岳) 소실산(少室山)에서 배웠다. | 『전당문』권718 |
| 54 | 通禪師 | 자세한 기록없음 | 開元11年 이전 귀국 | 禪宗 | 해주 대운사에서 주지를 지냈다. 중한불교문화교류에 큰 공헌을 했다. | 『전당문』권264, 영신강(榮新江) 선생의 논문(『韓國研究』제3집 참조) |
| 55 | 新羅和上 | 天寶연간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장안 대운사에서 머물렀다. | 『비림집간(碑林集刊)』제10집 |
| 56 | 良拙 | 建中연간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낙양 복선사(福先寺)에서 머물렀다. | 『전당문』권447 |
| 57 | 冲虛 | 元和元年 | 同年 | 자세한 기록없음 | 신라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성표겸진헌급진공덕병진사(省表兼進獻及進功德并陳謝)'를 올렸다. | 『전당문』권665, 『백거이집전주(白居易集箋注)』권56, 『삼국사기』권10 |
| 58 | 池州地藏 | 자세한 기록없음 | 貞元10年 구화산에서 원적 | 禪宗 | 구화산 성화사(化成寺)에 에서 수행했다 | 『전당문』권694 『송고승전』권21 |
| 59 | 慧覺 | | | | | |
| 60 | 禪普 | 726년 전후 | | 禪宗 | | |
| 61 | 鎮州金和尚 | 726년 전후 | | 禪宗 | | 『신라봉암산사지증대사탑비명(新羅國鳳岩山寺智證大師塔碑銘)』 |
| 62 | 無著 | | 大曆12年 | | | 『전당시(全唐詩)』권 |

| | | | | | | |
|----|-----------|-------------------|---------------|----|--|--------------------------|
| | | | 이전 | | | 810 |
| 63 | 慧昭 | 貞元20年 (804) | 大和4年 (830) | 禪宗 | 창주(滄州)에서 신감(神鑑)대사를 배알하고 원화10년 승산 소림사에서 수계를 받았다. 후에 종남산에서 수행했다. | 『당문습유』권44 |
| 64 | 法性 | 長慶연간 이전 | | 禪宗 | | 同上 |
| 65 | 道義 | 建中5年 (784) | 長慶元年 (821) | 禪宗 | | 『당문습유』권68 |
| 66 | 洪直 (陟) | 新羅憲德 王在位 期間 | 826年 | 禪宗 | | 『당문습유』권44 |
| 67 | 慧徹 | 元和9年 | 開成4年 | 禪宗 | | 『당문습유』권70 |
| 68 | 圓□ | 元和연간 | | | | 『당문습유』권68 |
| 69 | 無染 | 長慶初 | 會昌5年 | | | 『당문습유』권44 |
| 70 | 道亮 | 長慶初 | 會昌5年 | 禪宗 | 무염과 같이 당나라에 도착했다. | 同上 |
| 71 | 梵日 | 大和연간 | 會昌7年 | 禪宗 |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 혹은 開元寺)에 있었다. | 『삼국유사』권3 ‘낙산 이대성(洛山二大聖)’ |
| 72 | 體澄 | 開成2年 | 開成5年 | 禪宗 | | 『당문습유』권68 |
| 73 | 眞育 | 開成2年 | 자세한 기록없음 | 禪宗 | | 同上 |
| 74 | 虛會 | 開成2年 | 자세한 기록없음 | 禪宗 | | 同上 |
| 75 | 行寂 | 咸通11年 | 中和5年 | | 장안에 도착한 후 오대산을 순례했다. 후에 사천 성도와 형악(衡岳)으로 갔다. | 『전당문』권1000 |
| 76 | 忠湛 | 889年 | 天祐 十□年 | 禪宗 | 담주(潭州) 운개산(雲蓋山)에 있었다. | 『경덕전등록』권18 |
| 77 | 法鏡 | 天祐3年 | 后唐 同光元年 | 禪宗 | 팽택(彭澤)과 구봉산(九峰山)에 도착한 후 천태산으로 순례했다. 중국의 남방의 호남 지역, 북방의 하북 지역, 서방의 사천 지역을 순례했다. | 『당문습유』권67, 『경덕전등록』권18 |
| 78 | 慶猷 | 光啓3年 (888) | 天祐연간 | 禪宗 | 홍주(洪州) 도옹(道膺)대사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당문습유』권70 |
| 79 | 迥微 | 大順2年 (891) | 天祐2年 | 禪宗 | | 同上 |

| | | | | | | |
|-----|---------|---------------|--------------|-----|------------------------|-------------------------------|
| 80 | 麗岩 | 光啓3年 이후 | 天祐6年 | 禪宗 | | 『당문습유』권69 |
| 81 | 利嚴 | 乾寧3年 (896) | 910년 신라귀국 | 禪宗 | 절강, 강서, 하북 등 지역을 순례했다. | 同上 |
| 82 | 明信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天台宗 | 등주 문등현 적산법화원에 있었다. | (日)엔닌(圓仁)『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
| 83 | 惠覺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4 | 修惠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5 | 金政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6 | 眞空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7 | 善範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8 | 沙彌 | | | 同上 | 同上 | 同上 |
| 89 | 道眞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0 | 師教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1 | 信惠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2 | 融洛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3 | 師俊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4 | 小善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5 | 懷亮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6 | 曇表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7 | 智眞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8 | 法清 | | | 同上 | 同上 | 同上 |
| 99 | 教惠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0 | 惠溢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1 | 季漢 惠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2 | 弘仁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3 | 常寂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4 | 慶元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5 | 道玄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6 | 戒明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7 | 聖林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8 | 諱賢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09 | 頓證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0 | 法行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1 | 忠信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2 | 軌範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3 | 慧清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4 | 尼三 | | | 同上 | 同上 | 同上 |
| 115 | 人 | | | | | |
| 116 | | | | | | |
| 117 | 本如 | | | | | 『전법정종기(傳法正宗紀)』권7 |
| 118 | 玄昱 | 元和四年 | 開成二年 | | | 同上 |

| | | | | | | |
|-----|---------------|------------|-------------|-----------------|---|-----------------------|
| 119 | 覺體 | | | | | 同上 |
| 120 | 道均 | | | | | 同上 |
| 121 | 伽智 | | | | | 同上 |
| 122 | 忠彦 | | | | | 同上 |
| 123 | 大茅 | | | | | 同上 |
| 124 | 彦忠 | | | | | 同上 |
| 125 | 大證 | | | | | |
| 126 | 順支 | | | | | 同上 |
| 127 | 智異 山和 尙 | 866年 이전 | | 禪宗 | 하북 진주(鎭州)에 있었 다. | 『경덕록(景德錄)』권 12 |
| 128 | 欽忠 | | | | | 『전법정종기』권7 |
| 129 | 朗禪 師 | 888年 전후 | | 禪宗 | | 『경덕록』권16 |
| 130 | 淸虛 | | | | | |
| 131 | 金藏 | | | | | 『전법정종기』권7 |
| 132 | 淸院 | | | | | 同上 |
| 133 | 臥龍 | | | | | 同上 |
| 134 | 瑞岩 | | | | | |
| 135 | 泊岩 | | | | | 同上 |
| 136 | 大嶺 | | | | | 同上 |
| 137 | 大無 爲 | 908年 전후 | | | | 『전법정종기』권7 『경덕록』권19 |
| 138 | 龜山 | | | | | 『전법정종기』권8 |
| 139 | 慧雲 | | | | | 同上 |
| 140 | 雲岳 令光 | | | | | 『조당집(祖堂集)』 |
| 141 | 慧禪 師 | 902年 이전 | | 禪宗 | 홍주 운거산(雲居山)에 있었다. | 『경덕록』권20 |
| 142 | 慧洪 | | | 禪宗 | | |
| 143 | 慧淸 | | | | 원주(袁州) 양산(仰山) 광용(光涌)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
| 144 | 明照 | 902年 이전 | | | 무주(撫州) 소산(疎山) 광인(匡仁)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 『조당집』 |
| 145 | 靈照 | 908年 이전 | | 禪宗 | | 『송고승전』권13 |
| 146 | 金大 悲 | 722年 이전 | 자세한 기록없음 | 禪宗 | 다른 사람을 시켜 육조 (六祖) 혜능(慧能)의 두 개골을 도굴했다. | 『송고승전』권8 |
| 147 | 圓安 | 貞觀 年間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 없음 | 장안에 도착한 후 난전 (蘭田) 진량사(津梁寺) 에 있었다. | 『속고승전』권13 |

| | | | | | | | |
|------|------|-----------|----------------|----------|---|----------------------|----------------------------|
| 148 | 道澄 | 자세한 기록없음 | 長壽元年 | | | | 『삼국사기』권8 |
| 149 | 金師 | 자세한 기록없음 | | | | | |
| 150 | 無漏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 총령(葱嶺)에 도착한 후 하란산(賀蘭山)에 머물렀다. 후에 장안으로 갔다. | | 『송고승전』권21 |
| 151 | 談藏 | 大歷연간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 | 『전당문』권445 |
| 152 | 丘德 | 자세한 기록없음 | 大和元年 | 자세한 기록없음 | | | 『삼국사기』권10, 『삼국유사』권3 |
| 153 | 雲居院主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자세한 기록없음 | 장안 용흥사(龍興寺)에 있었다. | (日)원진(圓珍) 『행력초(行歷抄)』 | |
| 1154 | 道育 | 景福元年(892) | 80여 세에 중국에서 사망 | | 천태산 평전사(平田寺)에 있었다. | | 『송고승전』권23 |
| 1155 | 弘惠 | 자세한 기록없음 | 870년 | 자세한 기록없음 | 피일휴(皮日休), 육구몽(陸龜蒙)의 부탁으로 위주(爲周)선사가 작성한 비문을 탁본했다 | | 『전당시』권614 『전당시』권626 |
| 1156 | 雅覺 | 자세한 기록없음 | 875년 이전 | 禪宗 | 장교(張喬) 등 시인들과 교류가 있었다. | | 『전당시』권638 |
| 1157 | 元暉 | 906년 | 924년 | 禪宗 | 천태산, 영남, 사천, 하북 등 지역을 순례했다. | | 『당문습유』권69 |
| 1158 | 慶甫 | 892년 | 921년 | 禪宗 | 무주에 있었다. | | 『옥룡사동진대사보운탑비(玉龍寺洞眞大師寶雲塔碑)』 |
| 1159 | 玄訥 | 908년 전후 | | 禪宗 | 천주에 있었다. | | 『경덕록』권19 |

설명 : 이 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진경부, 『심어무설(심어무설)』(섬서인민출판사, 2005년판)과 엄경망, 『신라유당학생여승도(新羅留唐學生與僧徒)』(『당사연구총고(唐史研究叢稿)』, 홍콩신아연구소, 1969년)를 참고했다. 시간적으로 7세기에서 10세기 초에 당나라의 신라 승려를 중심으로 통계했다.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신라 승려 중에는 당나라 말기에 개별적으로 신라로 귀국한 승려, 즉 사절단을 따라 귀

국한 승려와 고구려출신의 승려와 고구려 유민출신의 승려는 본문에서 논하는 대상이 아니다. 본문에서 통계하지 않은 인원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통계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찰한 후 보충하도록 하겠다.

당대 신라 고승과 한중 불교문화 교류

동평(董平) 진신항(秦新恒) 하송욱(何松旭)

절강대학 철학과

제1절 중국에서 불교의 발전과 신라로 전파

불교는 기원전 6~7세기에 인도에서 발생하여 기원을 전후하여 중국에 전래되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구체적인 시간에 관해 많은 연구성과가 있다.¹⁾ 가장 먼저 기록된 문헌은 『삼국지』 “昔漢哀帝元壽元年, 博士弟子景盧受大月氏王使伊存口受浮屠經。”²⁾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중국인은 불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불교가 정식적으로 전래된 시기는 후한 명제(明帝) 영평(永平)10년이다.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명제는 낭중 채읍(蔡愔, 박사제자 진경(秦景)을 천축으로 파견하여 불법을 연구하고 대월지(大月支) 승려 마등(摩騰)을 초청하는 명을 내렸다. “於城西門外立精舍以處之. 漢地有沙門之始也.”³⁾ 이후 수백 년간 천축과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에 불교를 전파했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방술(方術)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중국문화와 민간에 쉽게 융합할 수 있었고, 이후 불교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한나라 이후 위진남북조 시기에 장기간의 사회적 혼란은 한나라 이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던 유교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상과 신앙이 발생했고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다. 불교 역시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중국에 정착되었다. 5~6세기에 이르러 불교에 대한 연구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지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불교는 점차 중국문화와 융합하면서 발전했다. 수당 시기에 이르러 불교는 최고로 발전했고 중국 불교 내부에서 많은 종파들이 형성되었다.

불교는 중국에서 발전하는 동시에 사방으로 확산되었다. 그중에는

1) 탕용동(湯用彤, 『한위양진남북조불교사(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상권, 北京, 中華書局, 1983 참조.

2) 『三國志·魏書』, p.859.

3) 『高僧傳』, p.322

한반도의 신라까지 불교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해상교류는 거의 적었고, 불교가 전파되는 경로는 주로 육로를 통해서였다. 신라와 중국 사이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있었기에 신라는 이 두 나라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부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하여 중국과 거리상으로 인접하여 불교가 빨리 전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재 중에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고구려에 불상과 불경을 보내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알려졌다.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 經文. …… 四年 僧阿道來”⁴⁾

『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이와 같은 기사가 보인다. 그러나 아도(阿道)와 순도(順道)가 출발한 지역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다르다. 이들의 같은 내용은 370년대에 불상과 불경이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해졌고, 고구려에서 사찰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 시기가 고구려에서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구려에서 불교가 발전했다. 392년 고구려 18대 국왕인 고국양왕(故國壤王)은 “불교를 믿고 복을 구하라.”⁵⁾는 명을 내렸고 393년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은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을 세웠다. 396년의 ‘賁經律數十部往遼東宣化’⁶⁾의 내용에서 고구려에서도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됨을 볼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의 동남부, 신라의 서북부에 위치한 국가였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게 불교가 전래되었다. 침

4) 김부식(金富弼), 손문범(孫文範) 등 교감(校勘): 『삼국사기(三國史記)』,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221

5) 『삼국사기』권18, p.223

6) 『고승전(高僧傳)』, “釋曇始”, p.392

류왕(枕流王) 원년(384)에 “秋七月 遣使入晋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晋至 王迎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二年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⁷⁾ 성왕(聖王) 19년(540) “遣使入梁朝貢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 并工匠 畫師等 從之.”⁸⁾ 법왕은 즉위한 해(599)에 “禁殺生, 收民家所養鷹鷄放之, 漁獵之具焚之”⁹⁾라는 명을 내렸다. 다음해(600)에 왕흥사(王興寺)를 만들어 승려 30명에게 도첩을 내렸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하여 거리상 중국과 가장 멀었다. 사서기록에 따르면 불교가 신라에 전래된 시간 역시 가장 늦다. 일반적으로는 눌지왕(訥祗王) 시기에 묵호자(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신라에 도착한 후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⁰⁾ 묵호자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비처왕(毗處王) 시기에 “有阿道和尚與侍者三人亦來毛禮家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佛教.”¹¹⁾고 했다. 이 시기가 법흥왕(法興王) 15년이였다.

불교는 신라에 가장 늦게 전래되었지만 신라에서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법흥왕은 신하인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로 불교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그 다음해(529)에 살생을 금하는 명을 내렸다. 11년 후 법흥왕이 사망하자 시호를 ‘법흥’이라 했다. ‘법흥’이라는 시호는 그가 신라에서 불교에 대한 공적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5년(554) 2월, 흥륜사(興輪寺)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0년(549) 봄에 양(梁)나라는 학승 각덕(覺德)을 통해 사리를 보냈다. 각덕이 신라에 처음으로 도착한 중국 승려였다. 14년(553) 궁전을 새롭게 고쳐 황

7) 『삼국사기』 권24, p.296

8) 『삼국사기』 권26, p.316

9) 『삼국사기』 권37, p.320

10) 『삼국사기』 권4, “初, 訥祗王時, 沙門墨胡子自高句麗至一善郡”

11) 『삼국사기』 권4, p.51

룡사(皇龍寺)를 세웠다. 27년(566) 황룡사 등 3곳의 사찰을 세웠다. 35년(574) 황룡사에서 구리 30,005근과 황금 10,198분(分)이 사용된 높이 1장 6척의 불상을 제작했다. 진흥왕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이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왕비 역시 출가 비구니가 되었다. 진흥왕의 시호 역시 당시 사람들이 불교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 ‘진흥’이라는 시호를 만들었다. 신라의 불교는 법흥왕 시기에 시작하여 진흥왕 시기에 발전했다. 이후 신라에서는 불교가 계속적으로 발전했고, 불교의 전래로 인해 신라인들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이 더욱 증가했다.

신라 불교의 초기에는 승려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왔으며 신라 불교가 빨리 발전하면서 신라에서는 고승들의 숫자가 부족해져 신라 정부는 때때로 승려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 불교를 연구하도록 했다. 동시에 신라의 많은 승려들이 스스로 구법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에 대해 엄경망(嚴耕望) 선생은 “한반도에서 불교가 발전한 것에 대해 언급하자면 중국 승려가 불교를 전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불교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후에는 한반도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와서 불교를 연구했다.”¹²⁾라고 주장한다.

불교가 전해진 시기부터 6세기의 수말 당초까지 신라 승려들이 중국에서 구법활동은 점차 증가하였고, 이런 활동들이 신라로 다시 불교가 전파되는 주된 방식일 뿐 아니라 신라 불교가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에 가서 구법을 한 승려들은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속고승전(續高僧傳)』 등에서 각덕(覺德), 안홍(安弘), 담육(曇育), 지명(智明), 원광(圓光), 안함(安含) 등이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구법을 한 승려는 그리 많지는 않다.

12) 엄경망(嚴耕望), 『新羅留唐學生與僧徒』,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8, p.251

“陳隋之世 海東人鮮有航海問道者. 設有 猶未大振. 及光之後 繼踵西學者憧憧焉”¹³⁾

이 문장에서 ‘광(光)’은 신라 승려 원광이다. 그는 589년에 진(陳)나라에 가 구법을 하고 600년 신라로 귀국했다. 원광으로부터 11세기 초까지 중국은 당나라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신라 승려가 당나라에 가서 구법활동이 가장 많았다. 황심천(黃心川) 선생의 『수당시기 중국여조선불교적교류－신라내화불교승려고(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教的交流－新羅來華佛教僧侶考)』에서 통계에 따르면 수나라 초기(581)에서 당나라 말기(907)까지 중국에 온 신라 승려는 모두 117명이고, 수나라 시기에 온 8명, 서역과 인도로 간 3명, 고구려와 백제 출신 3명을 제외하면 신라출신의 승려는 모두 103명이다. 진경부(陳景富) 선생은 『중한불교관계일천년(中韓佛教關係一千年)』에서 통계를 낸 후 “한반도에서 구법을 하기 위해 중국에 온 승려들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가끔 사서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역사서와 많은 비문에서 언급한 승려들을 살펴보면 동진 시기부터 원말 명초까지 대략 270여 명 이상이다.”¹⁴⁾고 했다. 그러나 단지 남아 있는 사서에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고, 중국에 와서 구법을 한 신라 승려들의 활동에 대해 중국 주변의 다른 국가출신 승려들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⁵⁾ 당나라 사서에 ‘신라원(新羅院)’, ‘신라사(新羅寺)’ 등

13) 『삼국유사』 권4, “圓光西學”, p.1003

14) 진경부(陳景富), 『中韓佛教關係一千年』,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9, p.22

15)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기록된 승려는 모두 63명이고 그중에 신라인은 8명이고 다른 1명은 고구려인이다. 타국출신으로 먼저 당나라에 온 후에 다시 인도로 간 승려는 이들 신라인을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엄경망 선생의 통계에 따르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서 중국 선종 승려는 대략 1,600명이고, 중국출신이 아닌 승려는 모두 43명이다. 이 43명 중 42명이 신라출신이다. 『新羅留唐學生與僧徒』, p.253 참조) 엄경망 선생은 다른 문장에서 별도로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들이 다른 나라출신의 승려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

의 이름을 가진 사찰은 당나라에서 구법한 신라출신 승려의 활발한 활동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당나라는 중국 불교가 최고조로 발전한 시기로 많은 종파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신라출신의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활발하게 구법을 했기에 신라의 불교도 당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국 불교의 발전은 신라 승려가 중국에서 와서 불교를 배운 후에 빠른 속도로 신라에 전파되었다. 신라 불교는 이런 과정에서 종파가 신속하게 성립,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신라적인 특징을 가진 불교가 형성되었다. 이에 엄경망 선생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신라 승려들이 귀국함으로써 신라 불교는 새로운 연구나 사상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지배층만을 위해 점차 권위적으로 변하는 불교에 대해 끊임없는 자극이 되었다.”¹⁶⁾라고 주장한다.

당나라 초기부터 8~9세기까지 신라 승려들은 당나라에서 율종(律宗)과 화엄종(華嚴宗)을 주로 배웠기 때문에 신라에서도 율종과 화엄종이 발달하게 되었다. 9세기 이후 특히 회창(會昌) 법난 후에 당나라 전기에 발전했던 천태종(天台宗), 화엄종, 정토종(淨土宗)은 점차 그 세가 약해지거나 사라졌고 선종(禪宗)이 점점 발전했다. 이 시기에 당나라에 구법을 온 신라 승려들 역시 선종을 배워 중국 선종의 여러 종파들이 신라로 전래되었고, 신라는 독자적인 선종 구산(九山)을 형성하게 되었다.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고 귀국한 후에는 대략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3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라로 귀국한 경우이다. 둘째는 당나라에서 계속 수행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당나라에서 사망한 경우이다. 셋째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도로 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자장(慈藏), 의상(義湘), 당나라 후기에 선종을 배운 현욱(玄昱), 도운(道允), 혜철(慧徹), 체징(體澄), 무

장한다. 본문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부연하지 않겠다.
16) 엄경망, 『신라유당학생여승도』, p.291

염(無染), 범일(梵日), 홍척(洪陟) 등은 수행을 한 후 신라로 귀국했다. 이들은 당나라에 배우고 수행한 것들을 신라에 전파했다. 원측(圓測), 지장(地藏) 등은 중국에 계속 머물렀다. 혜소(慧昭) 등은 당나라에 도착한 후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구법을 하기 천축으로 향했다. 이들은 신라출신으로 당나라에 와서 구법을 한 승려들을 대표할 수 있고, 신라, 중국, 세계 불교의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 다음은 이들 중에 몇 명을 선택하여 신라출신의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활동과 영향에 대해 고증하고 소개를 함으로써 불교의 정신과 세계사상문화에 대해 공헌한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2절 당나라에서 구법을 한 신라 고승

1. 배움을 마치고 귀국한 승려

어떤 승려는 신라 정부에서 파견하여 당나라에서 구법을 했다. 그들은 사신을 따라 당나라로 왔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라로 귀국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자장은 칙명을 받고 당나라에 왔고 몇 년 후 신라 국왕의 명으로 귀국했다. 어떤 승려는 스스로 혹은 다른 이의 부탁으로 귀국하기도 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의상이다.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들은 비록 당나라에 체류한 기간이 길었지만 대부분은 학문이나 수행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했다. 이들은 신라 불교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미쳤다.

1) 자장

자장은 당나라 가장 먼저 와서 구법을 한 승려이다. 그는 신라 흥륜사(興輪寺) 금당(金堂)의 십성(十聖)에 포함되며 신라 불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자장의 생애

자장에 대한 내용은 『속고승전』에서 ‘釋慈藏’, ‘釋法常’과 『삼국유사』의 ‘慈藏定律’, ‘皇龍寺九層塔’, ‘前後所將舍利’, ‘臺山五萬真身’, ‘臺山月精寺五類聖衆’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이 밖에 『신수과분육승학전(新修科分六學僧傳)』과 『삼국사기』에서도 약간의 기록이 있다. 이런 기재 내용들은 비록 모두 같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자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장은 세속의 성이 김씨(金氏)이고 석가탄신일에 신라의 귀족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조실부모했고 부인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출가하여 깊은 산속에서 고행을 했다. 고행을 하던 중 꿈속에서 오계(五戒)를 받으며 불교를 널리 전파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에 자장은 한 달 동안 수도에서 사람들에게 오계를 널리 알렸다. 630년경에 칙명을 받고 1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당나라로 구법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 당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종남산(終南山)에서 수행을 했고, 정관(貞觀)17년에 불경을 가지고 신라로 귀국했다. 신라에 돌아온 후 불법을 전파하고 불경을 정리하며 사찰을 세웠다. 자장의 이런 활동으로 불교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아울러 문수(文殊)도량이 신라에 전해졌다. 자장의 생애를 크게 중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의 활동, 신라로 귀국한 후의 활동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에 가기 전의 자장

자장은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무림(武林)¹⁷⁾이라는 인

물로 관직은 높았으나 후사가 없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 부친은 독실하게 불교를 믿으면서 천 개의 관음상(觀音像)¹⁸⁾을 만들어 “마음을 경건히 하여 모든 것에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¹⁹⁾고 한다. 그의 모친은 별이 가슴에 안기는 태몽을 꾸 후에 임신하게 되었고 석가탄신일, 즉 4월 8일에 자장이 태어났다. 자장은 불교에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그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장이 후에 당나라에 가서 구법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자장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조실부모한 후에 자장은 저택을 사찰로 바꾸고 깊은 산중에서 홀로 고골관(枯骨觀)²⁰⁾을 수행했다. 이 시기에 신라 정부에서는 자장을 필요로 했으나 그는 여러 차례 거절하여 국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국왕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자장은 이런 과정에서도 국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루라도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100년이라도 계를 깨뜨리고 살고 싶지는 않다.”²¹⁾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부끄러워 자장에게 다시는 강요를 하지 않았다.

이후 오래지 않아 자장은 꿈속에서 오계를 받았다.²²⁾ 그는 산에

17) 『속고승전(續高僧傳)』과 『신수과분육학승전(新修科分六學僧傳)』에서 모두 자장의 부친을 ‘무림(武林)’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삼국유사』에서 ‘무림(茂林)’으로 기재되었다.

18) 이 시기에 이미 신라에 관음 신앙이 이미 전래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 『속고승전』 권15, “釋慈藏”, p.639

20) 고골관(枯骨觀)은 골상(骨想), 백골관(白骨觀), 상상생(想相生)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뼈를 9번 본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체의 뼈를 통해서 오욕(五欲,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다섯 가지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다. 즉 인생의 무상함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21) 『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 p.1005

22) 『속고승전』 권15, 釋慈藏 “遂於眠寐見二丈夫曰。卿在幽隱欲爲何利。藏曰。惟爲利益衆生。乃授藏五戒訖曰。可將此五戒利益衆生。又告藏曰。吾從初利天來。故授汝戒。”

서 나와 이 오계를 중생들에게 전파했다. “한 달 사이에 수도의 사람들이 오계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장이 중국에 가기 전에도 신라에서 덕망이 높은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구법을 했던 기간

다른 사람들은 자장이 명망이 높다고 평하지만 자장 스스로는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했다. 즉 “변방에서 태어나 불법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에 스스로 목적과 경험한 바를 얻을 수 없기에 국왕의 명을 받들 수는 없다.”²³⁾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때문에 불교가 발전한 중국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다양한 불법을 얻기를 희망했다.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라는 칙명을 받고 자장은 문화의 승려 10여 명과 함께 당나라에 도착했다.²⁴⁾ 즉 자장은 당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유명한 고승이었다. 그는 당나라에 가라는 칙명을 받고 출발했다. 이 시기는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은 시기였

23) 『속고승전』권15, “釋慈藏”, p.639

24) 자장이 당나라에 도착한 시기에 대해 관련된 사서의 내용은 모두 다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모두 정관10년(636)이지만, 『속고승전』에서는 정관12년(638)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세 자료에서 『삼국유사』가 가장 늦게 완성되었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은 『삼국유사』권3, ‘臺山五萬眞身’에서 자장법사에 대해 “初法師欲見中國五臺山文殊眞身 以善德王代貞觀十年丙申入唐”이라 기록했다. 이는 『삼국사기』를 근거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속고승전』에서 자장이 당나라에 도착한 것과 관련된 기재를 볼 수 있다. “東辭至京 蒙勅慰撫.”이 기재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자장이 신라에서 당나라 장안까지 무사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자장이 오대산에 가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삼국유사』권4, 慈藏定律“諷清涼山. 山有曼殊大聖塑相. 彼國相傳云. 帝釋天將工來雕也. 藏於像前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 覺而未解. 及旦有異僧來釋云(已出皇龍塔窟)又曰. 雖學萬教. 未有過此文. 以袈裟舍利等付之而滅(藏公初歷之. 故唐僧傳不載)藏知已蒙聖詔 乃下北臺. 抵大和池入京師.”라고 했다. 만약 자장이 진실로 먼저 오대산에 갔다면 그가 발견한 것은 가사와 사리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이동한 경로에서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한국의 기록에는 정관10년(636)에 당나라에 도착했고, 중국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은 정관12년(638)에 장안에 도착한 했다고 할 수 있다.(탕용동, 『隋唐佛教史稿』, 北京, 中華書局, 1982, p.250 참조) 그러나 이 기간에 신라 불교가 발전하고 문수신앙이 신라에서 전해졌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에 그는 당나라에 도착한 후 당나라 황제가 베푸는 훌륭한 접대를 받게 되었다. 자장은 승광별원(勝光別院)에서 당나라 황제의 호의를 받으면 지내게 되었다. 자장은 구법을 하기 위해 당나라에 온 것이지 호의를 받기 위해 당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종남산 운제사(雲際寺)의 동쪽 벼랑에서 수행을 했다. 도선(道宣)의 『속고승전』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그는 종남산에 가기 전에 도적을 감화하고 질병을 구제하여 그에게 수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하루에 1천여 명이 넘었다. 즉 자장은 당시 중국에서도 명성과 덕망이 높은 고승이었다. 도선은 그와 같은 시기의 인물로 일찍이 자장과 종남산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 기록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의 사서에는 자장이 종남산에서 수행했던 3년의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자장은 당나라에 오기 전에 율학(律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여 귀국 후에 신라의 율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자장이 종남산에서 수행하던 시기에 『속고승전』의 저자 도선 역시 종남산의 정업사(淨業寺)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이 두 승려는 모두 명망이 높았고, 율학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속고승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선이 자장보다 율학에서 더 많은 이해가 있었고 후대의 평가 역시 자장보다 높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혹시 모종의 학술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정관17년 신라 선덕여왕이 자장에게 귀국하기를 요청하여 당 태종은 자장에게 비단과 귀물 등을 하사했고 자장은 신라에서 불경과 불상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4백여 권의 불경, 여러 형태의 불상, 불교용품 등을 요청하여 받은 후 신라로 귀국했다.

귀국 후 신라에서 자장의 활동

자장이 신라 불교와 중한 문화 교류에 공헌한 것은 그가 신라로 귀국한 후의 활동에서 보인다. 그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 『삼국유사』

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既至，泊學國欣迎，命住芬皇寺，給侍稠渥一夏，請至宮中講大乘論，又於皇龍寺演菩薩戒本七日七夜，天降甘露，雲霧暗靄，覆所講堂，四衆咸服其異，朝廷儀曰，佛教東漸，雖百千齡，其於住持修奉，軌儀闕如也，非夫綱，理無以肅清，啓勅藏爲大國統，凡僧尼一切規猷，總委僧統主之”²⁵⁾

자장은 귀국한 후 그의 명성을 더욱 높아서 신라 정부의 중시를 받았다. 신라 국왕은 그를 분황사(芬皇寺)의 주지로 직명을 내렸고 궁중으로 초청하여 자장의 ‘섭대승론(攝大乘論)’ 강연을 경청했다. 그는 또한 황룡사에서 칠일 동안 ‘보살계본경(菩薩戒本經)’을 강연했다.

불교가 신라에 전해진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으나 주지의 수행 방법만을 강조하여 불교 본연의 의식을 벗어나 빠진 것이 많았다. 강령이 없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신라 국왕은 자장을 대국통(大國統)²⁶⁾으로 임명하는 직명을 내리고 승려

25) 『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 p.1005

26) 신라 대국통이라는 관직의 시작과 이후의 발전은 『삼국유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 “按北齊天寶中，國置十統有司卷宜甄異之，於是宣帝以法上法師爲大統，余爲通統，又梁陳之間，有國統，州統，國都，州都，僧都，僧正，都維乃等名，愬屬昭玄曹，曹卽領僧尼官名，唐初又有十大德之盛，新羅眞興王十一年庚午，以安藏法師爲大書省一人，又有小書省二人，明年辛未，以高麗惠亮法師爲國統，亦云寺主，寶良法師爲大都維那一人，及州統九人，郡統十八人等，至藏更置大國統一人，盖非常職也，亦猶夫禮郎爲大角干，金庾信大大角干，後至元聖大王元年，又置僧官名授法典，以大舍一人史二人爲司煉，僧中有才行者衆之，有故卽無定年限，故今紫衣之徒，亦律寺之別也，鄉傳云，‘藏入唐太宗，迎至武干殿請講華嚴，天降甘露，開爲國師云者妄矣’唐傳與國史皆無文。” 일연은 자장이 받았던 직위가 김유신(金庾信)이 받았던 태대각간(太대角干)과 같이 일반적인 직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의 기재에 따르면 김유신은 왕족의 후예였다. 그의 선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은 후한 건무(建武) 18년(42)에 가락구촌(駕洛九村)에서 가야국(加耶國)을 건국했다. 후에 이 나라는 금관국(金官國)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가야(伽倻), 가락(加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가야는 한반도의 변한(弁韓)의 부족국가에서 발전하여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의 후예라고 생각했기에 김이라는 성을 사용했다. 6세기 초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김유신의 조부와 부친은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고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 후에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웠다. 신라 태종무열왕 10년(600), 김유신은 백제를 멸망시킨 공으로 태대각간이 되었고, 문무왕

들에 대한 많은 조치를 내렸다. 신라는 계율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통도사(通度寺)에 신라 제일의 계단(戒壇)을 만들었다. 이런 조치는 신라 불교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장은 사찰, 탑을 10여 곳에 조성했다. 예를 들면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 중국 오대산(五臺山)에서 얻은 사리 100개를 이 탑에 안치했다. 이 탑은 신라삼보(新羅三寶, 황룡사 장육불상, 구층탑, 진평왕의 옥대)의 하나이다. 후에 고구려가 신라를 정벌하려 했으나 이 삼보를 두려워하여 그만 두었다고 한다.²⁷⁾

자장의 공헌

자장의 중대한 공헌은 대국통을 지낸 시기에 신라 불교의 계율을 새롭게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보인다.

“勇激弘通令僧尼五部. 各增舊學. 半月說戒. 冬春總試. 令知持犯. 置員管維持之. 又遣巡使歷檢外寺. 誠礪僧失. 嚴飾經像. 爲恒式.”²⁸⁾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장이 계율에 관해 공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승려를 5부로 나누어 각각 옛 학문에 힘쓰도록 했다. 둘째는 보름간의 묵언계를 실시했다. 셋째는 봄과 겨울에 각각 승려들의 시험을 거행했다. 넷째로 각 사찰을 감사하여 사찰에서

8년(668)에 고구려 멸망에 공적을 세워 태대각간의 직위를 받았다. 태대각간은 예전의 17개의 관직과 대각 위에 새로 만든 직위로 특별하고 관직이었다. 김유신은 이런 관직을 받은 것이다. 『삼국사기』의 열전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3권이 김유신 열전이다. 자장이 대국통을 받은 것은 신라 국왕의 신임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이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연은 자장이 받은 대국통을 김유신이 받은 태대각간으로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자장이 신라 불교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를 알 수 있다. 자장에 관해 시인 관휴(貫休)는 『送新羅僧歸本國』에서 “忘身求至教 求得却東歸. 離岸乘空去 終年無所依. 月冲陰火出 帆撈大鵬飛. 想得還鄉後 多應著紫衣.” (『全唐詩』 권832, 참조)

27) 『삼국유사』 권3, “皇龍寺九塔”, p.991

28) 『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 p.1005

계율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다. 다섯째는 불경과 불상의 규격을 엄격하게 했다. 이런 조치들은 신라 불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형성하게 했고 이로 인해 신라 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삼국유사』에서

“一代護法於斯盛矣 如夫子自衛返魯 樂正雅頌各得其宜 當此之際 國中之人 受戒奉佛 十室八九 祝發請度 歲月增至.”²⁹⁾라는 기록이 있고, 도선은 『속고승전』에서 “與藏齊襟兼維城塹 及同返國大敞行途講開律部 惟其光肇自昔東蕃有來西學 經術雖聞無行戒檢 緣構既重 今則三學備焉 是知通法護法代有斯人 中濁邊清於斯驗矣.”³⁰⁾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두 사람은 신라 불교가 삼학(계, 정, 혜)이 비로소 모두 갖추어지게 되어 탁한 것과 맑은 것이 구별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어떤 학자는 이 불교계율이 처음으로 정식적인 형식이 신라에 전해졌다고 주장한다.³¹⁾ 자장은 신라 불교의 계율을 제도화하여 규범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신라 불교가 장기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자장을 ‘해동 율학의 시조’라고 부른다. 『삼국유사』에는 자장에 대해 다른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嘗以邦國服章不同諸夏 舉儀於朝 簽允曰臧 乃以眞德王三年己酉 始服中朝衣冠 明年庚戌又奉正朔 始行永徽號 自後每有朝覲 列在上蕃 藏之功也.”³²⁾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재에 따르면 진덕왕(眞德王)2년(648) 중국 식 복장을 입기 전해에 이찬(伊餐) 김춘추(金春秋)를 당나라의 사절

29) 『삼국유사』 권4, “慈藏定律”, p.1005

30) 『속고승전』 “釋慈藏”, p.640

31) 하경송(何勁松), 『한국불교사(韓國佛教史)』상권,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1997, p.84

32) 『삼국유사』 권4, p.1005

로 파견하여 당 태종에게 복장 문제에 대해 요청하였다. “改其章服以從中華制. …… 於是 內出珍服 賜春秋及其從者.”³³⁾ 일연은 이 일을 자장이 주도했다고 생각했다. 이 들을 종합하면 자장이 귀국한 후 의복문제를 제기했고 신라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김춘추를 보내어 당 태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라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로 볼 때 자장은 신라 복장제도와 중한 문화 교류에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자장의 세 번째 공헌은 문수보살과 오대산앙을 신라에 전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장은 중국에 도착한 즉시 가장 먼저 오대산으로 향했다. 그는 꿈에서 4개의 범계(梵偈, 범어로 된 불교 노래)를 들었는데, 잠에서 일어나서는 그 뜻을 알지 못해 문수보살을 참알하려고 했다. 중국에 도착한 후 태화지(太和池)에서 문수보살의 석상을 보고 수행을 하던 중 꿈속에서 어떤 승려가 붉은 비단에 금점을 놓은 가사와 바리, 부처의 진신사리를 보여주며 깨달음을 주었다. 자장은 비로소 범계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승려는 신라 동북방의 명주(溟州)에 오대산이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꿈에서 깬 자장은 이 승려가 문수보살이 변한 것 이라 생각했다. 꿈속에서 만났던 승려가 알려주는 내용과 같은 모습인 지역을 찾아 석남원(石南院, 후에는 정암사로 이름을 바꾸었다)을 세워 문수보살을 모셨다. 자장과 문수보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문수보살이 낡은 옷을 입은 노인으로 변하고 죽은 개를 광주리에 담아 자장을 찾아왔다. 자장의 문하에 있는 승려들이 문에서 막아섰다. 그 노인은 “돌아갈 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나를 보려 한다면서 어찌 나를 만나지 않는가?”³⁴⁾라고 말하고 광주리를 옹오니 개가 사자로 변해 노인은 그 사자를 타고 떠났다. 이 전설에 따르면 자장은 고집을 피워 문수보

33) 『삼국사기』 권5, p.70

34) 『삼국유사』, p.1005

살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자장이 문수보살을 신라로 전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신라에서 문수신앙은 점차 발전했다. 정암사는 후에 범일선사와 그 제자 두타(頭陀)가 이곳을 더욱 발전시켜 후에 월정사(月精寺)가 세워졌고 신라 불교에서 중요한 곳이 되었다. 자장은 『사분율양마사기(四分律羯磨私記)』1권, 『십통율목차기(十誦律木叉記)』1권, 『출관행법(出觀行法)』, 『제경계소(諸經戒疏)』 등을 저술하여 계율사상의 체계를 세웠으며 또한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과 『아미타경의기(阿彌陀經義記)』 등을 저술했다.

2) 의상

의상은 자장보다 조금 늦게 당나라에 가서 구법한 승려로 신라 흥륜사 금당의 십성에 포함된다. 당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은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시기이다. 의상에 관한 사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의 ‘의상전교(義湘傳敎)’,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의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 『신수과분육학승전』 권4의 ‘당의상(唐義湘)’, 『고승적요(高僧摘要)』의 ‘석의상(釋義湘)’ 등에 자세한 기록이 있고, 또한 『삼국유사』 권3의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利)’,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승전축루(勝詮觸露)’,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迹頌)』 하권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의상의 생애

의상의 생애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당나라에 가기 전, 당나라에서 활동, 귀국 이후 등 3시기이다.

당나라에 가기 전의 의상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의상은 신라 계림부(鷄林府)³⁵⁾ 출신으로 성

씨는 김씨³⁶⁾이고, 625년에 출생했다.³⁷⁾

『부석본비(浮石本碑)』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상은 20세에 출가한 후 영휘(永徽)원년(650)에 원효와 함께 당나라로 가려고 했으나 고구려에 도착한 후 곤경에 빠져 신라로 돌아왔다.³⁸⁾

『삼국유사』의 내용에 따르면 29세에 수도에 있는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했다.³⁹⁾ 의상의 어린 시절에 관한 자료는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 두 기록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하경송 선생은 『韓國佛敎史』 “이 문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상술한 두 사료 중 어떤 한 사료가 잘못된 기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의상은 확실히 20세에 출가를 했으나 머리를 깎지 않은 거사(居士)의 신분이었다. 29세에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사료를 종합한 결과 나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⁴⁰⁾라며 비교적 합리적으로 추측을 했다. 당나라로 향하는 여정은 실패했고 의상은 당나라에 가기 위해서 다음번을 기약했다.

35) 『송고승전』 권4, ‘唐新羅義湘傳’와 『신수과분육학승전』 권4, ‘唐義湘傳’ 참조. 이 두 사서의 기재는 서로 비슷하고 내용도 간략하게 되어 있다. 출판한 연대가 『송고승전』이 늦기 때문에 필자는 『송고승전』을 참고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같다.

36) 의상의 성씨에 관해 사서의 내용은 다르다. 『삼국유사』 권4, ‘義湘傳敎’에서는 “의상법사는 한신(韓信) 김씨(金氏)이다.” 『송고승전』 권4, ‘唐新羅國義湘傳’에서는 “의상의 세속의 성씨는 박씨이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하면 『삼국유사』에 그의 부친 이름이 ‘김한신(金韓信)’이기 때문에 의상의 성은 김씨이다.

37) 의상의 출생 시기는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서 모두 기재되어 있다. 즉 『삼국유사』 권3의 ‘湘武德八年生’과 『해동고승전』 권2의 ‘建福四十二年受生’가 있다. 여기서 ‘무덕(武德)’은 당나라 고종의 연호이고, ‘건복(建福)’은 진평왕이 584년에 바꾼 연호이다. 이 둘은 모두 625년을 가리킨다.

38) 『삼국유사』 권3, “前後所將舍利”, p.994

『부석본비(浮石本碑)』에서 의상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있지만 『삼국유사』 권3의 내용과는 같다고 하기 어렵다. 『삼국유사』 권4 ‘義湘傳敎’에서 의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遂與元曉道出遼東 邊戍邏之爲諜者 囚禁者累旬 僅免而還.” 당시 인접한 국가에서는 잦은 충돌이 있었다. 즉 신라와 중국 간의 교류도 고구려와 백제의 방해로 많이 받았다.

39) 『삼국유사』 권4, ‘義湘傳敎’, p.1006

40) 『한국불교사』 상권, pp.182~183

의상과 원효는 두 번째로 당나라에 향했다.⁴¹⁾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송고승전』과 『삼국유사』의 기재내용은 모두 잘못되었다. 즉 『송고승전』에서 총장(總章)2년에 의상이 지엄(智儼)의 문하에서 수행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지엄은 총장원년에 이미 원적했다. 이 기재내용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의상은 영희 원년(650)에 당나라에 도착했다. 의상이 29세에 출가한 시기가 653년이기 때문에 원효와 함께 첫 번째로 당나라에 향한 시기보다 더 빠르다. 때문에 이 기재내용도 잘못되었다. 『부석본비』와 최치원의 기재는 별 차이가 없다. 아마도 용삭원년에 출발하여 용삭2년에 당나라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역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여정에서는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해로를 이용했다. 그렇지만 이 해로들 이용한 여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다. 즉 『송고승전』에 대름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行至本國海門唐州界。計求巨艦。將越滄波。倏於中涂遭其苦雨。遂依道旁土龕間隱身。所以避飄濕焉。迨乎明旦相視。乃古墳骸骨旁也。天猶霏霖地且泥涂。尺寸難前逗留不進。又寄埏甕。夜之未央俄有鬼物爲怪。曉公嘆曰。前之寓宿謂土龕而且安。此夜留宵托鬼鄉而多崇。則知心生故種種法生。心滅故龕墳不二。又三界唯心萬法唯識。心外無法胡用別求。我不入唐。却携囊返國。”⁴²⁾

41) 의상과 원효가 두 번째 당나라로 향했던 시기에 대해 기록들마다 차이가 있다. 『송고승전』에는 “以總章二年(669年)附商船達登州岸……湘乃徑趨長安終南山智儼三藏所。綜習華嚴經。”으로 기재되어 있고 『삼국유사』 ‘義湘傳敎’에서는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 寓載入中國。” 『삼국유사』의 ‘前後所將舍利’에서 『부석본비』의 내용을 인용하여 “湘武德八年生 非巖出家 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有難而回 至龍朔元年辛酉入唐 就學於智儼。” 이능화(李能化)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최치원(崔致遠)의 『海東浮石尊者義湘諱日之文』에서 “直泛重溟 高登彼岸 於龍朔二載(唐高宗壬戌年) 詣終南山至相寺。”이라는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용삭(龍朔) 2년(662)에 당나라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하경송, 『한국불교사』 상권, p.185 참조)

42) 원효는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다시 돌아왔다. 이런 사실에 대해 『임간록(林間錄)』 등 여러 사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임간록』이 가장 먼저 출간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실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

당나라에서 활동한 의상

두 번의 고생 끝에 의상은 마침내 당나라에 도착했다. 『宋高僧傳』에 의상의 굳건한 불심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以總章二年附商船達登州岸. 分衛到一信士家. 見湘容色挺拔留連門下既久. 有少女麗服靚妝 名曰善妙. 巧媚誨之. 湘之心石不可轉也. 女調不見答. 頓發道心. 於前矢大愿言. 生生世世歸命和尚 習學大乘成就大事. 弟子必爲檀越供給資緣.”⁴³⁾

이 이야기는 확실한 사실일 것이다.⁴⁴⁾ 즉 의상이 불교가 독실한 가정에서 머물면서 때때로 강연을 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묘(善妙)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의상은 등주에 도착한 후 곧바로 종남산으로 가서 지엄(智嚴)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삼국사기』의 “義湘傳教”에 의상과 지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재했다.

“儼前夕夢一大樹生海東. 枝葉溥布. 來蔭神州. 上有鳳巢. 登視之. 有一摩尼寶珠. 光明屬遠. 覺而驚異. 洒掃而待. 湘乃至. 殊禮迎際. 從容謂曰. 吾昨者之夢. 子來投我之兆. 許爲入室.”⁴⁵⁾

이 이야기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그러나 의상이 지엄의 문하에서 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의상은 매우 총명하여 여러 가르침을 받아도 그 내용을 모두 전체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구별했다.⁴⁶⁾ 또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알고

한다.(하경승, 『한국불교사』상권, p.145 참조)

43) 『송고승전』, “唐新羅國義湘傳”, p.729

44) 『삼국유사』, “永徽初 會唐使有船西還者 寓載入中國 初止揚州.” 이 기재내용에 의하면 의상이 당나라에 도착한 지역이 다르다. 이 문제에 관해 계속 살펴보겠다.

45) 『삼국유사』, “義湘傳教”, p.1006

46) 『삼국유사』, “義湘傳教”, p.1006

있었다.⁴⁷⁾ 지엄은 이런 의상의 총명함을 높이 평가했다.⁴⁸⁾ 의상이 지엄의 문하에서 배운 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재내용이 있다. 『송고승전』에서는 단지 “화엄종(華嚴經)을 연구하고, 강국(康藏)국사와는 동문이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화엄경은 의상이 지엄문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엄에게서 배우고 연구했다. 화엄경은 의상이 당나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⁴⁹⁾

47) 『송고승전』, “唐新羅國義湘傳”, p.729

48) 『삼국유사』, “義湘傳敎”, p.1006

49) 『화엄경(華嚴經)』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불교경전을 전체적으로 모은 불경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후에 의상과 그의 동문들이 새로운 종파를 열 때 가장 중요한 불교경전이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종파를 화엄종이라 부른다. 『화엄종』은 현실세계에는 여래장(如來藏)이 있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래장이 생기면 현실세계에 석가여래가 출현한다고 한다. 중생들은 모두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여래장이 되고, 중생들의 마음이 여래의 마음으로 되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수많은 정도에서 많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화엄종』은 중국에 전래된 후 성불하기 위해 수행하는 승려와 사람들에게 중시되었다.

『화엄경』의 한문 번역본이 모두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진(東晉) 불타발타나역본(佛陀跋陀羅譯本)이다. 이 책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모두 60권이고, 후에 『진역화엄(晉譯華嚴)』, 구역(舊譯) 『화엄』, 또는 『육십화엄(六十華嚴)』으로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는 무척천 시기의 실차나타역본(實叉難陀譯本)이다.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모두 80권이고 또 『당역화엄(唐譯華嚴)』, 신역(新譯) 『화엄』, 혹은 『팔십화엄(八十華嚴)』으로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당 정원(貞元) 시기에 반야역본(般若譯本)으로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으로 전체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결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脫境界普賢行願品)』이고 모두 40권이다.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이라 부르며 또 『정원경(貞元經)』 혹은 『사십화엄(四十華嚴)』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화엄경』 중에 『입법계품(入法界品)』이 새롭게 번역되었다. 실차나타역본은 증성(證聖) 원년(695)에 낙양의 대편공사(大遍空寺)에서 번역을 시작했다. 법장은 이 작업에 참여하여 성력(聖歷) 2년(699) 10월 18일에 번역을 완성했다. 이때는 지엄이 이미 원적했고 의상은 『육십화엄』을 연구하고 있었다.

『육십화엄』은 본래 3만 6천의 노래로 되어 있고 혜원(慧遠)의 제자 지법(支法)이 우진(于闐) 지금의 신강 화전 일대)에서 가지고 왔다. 동진 의희(義熙) 14년(418)에 양주도장사(道場寺)에 천축에서 온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대사가 번역을 하여 원희(元熙) 2년(420)에 완성했다. 남조 송 영초(永初) 2년(421) 다시 번역을 완성했다. 첫 번역은 50권이었고, 다시 번역하여 60권이 되었다. 동진 시기로부터 남방에서는 일부의 승려들이 『화엄경』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여 남조 시기에 더욱 발전했다. 화엄경의 전부가 번역된 후 널리 퍼졌다. 북위(北魏) 효명제(孝明帝) 정광(正光) 원년(520) 영변(靈辯: 477~522)은 오대산 청량사(淸涼寺)에서 『화엄경』 100권을 번역했다. 『화엄경 탐원기(華嚴經探玄記)』 권1 “又魏朝此土高僧靈辯法師 於五臺山頂戴華嚴膝步股勸足跋

이 시기에 의상의 활동에 관해 『삼국유사』에서 또 다른 기재내용이 있다.

“昔義湘法師入唐. 到終南山至相寺智儼尊者處. 隣有宣律師. 常受天供. 每齋時天廚送食. 一日律師請湘公齋. 湘至坐定既久. 天供過時不至. 湘乃空鉢而歸. 天使乃至. 律師問今日何故遲. 天使曰. 滿洞有神兵遮擁. 不能得入. 於是律師知湘公有神衛. 乃服其道勝. 仍留其供具. 翌日又邀儼湘二師齋. 具陳其由.”⁵⁰⁾

의상과 도선이 서로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선은 입적하기 2년 전에 계속 『속고승전』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속고승전』에는 의상에 관한 기록이 없고 지엄에 관한 내용도 매우 적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후대 사람들이 의상을 존경하여 표현한 내용이다.

총장(總章)원년 7월 의상은 그의 걸작인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완성했고, 그 해 10월 지엄이 원적했다. 『부석본비』의 기록에 의하면, 의상은 함형(咸亨)2년에 귀국했다.

血流遂 經三載冥加解悟 於懸釜山中造此經論一百余卷現傳於世.”(『화엄경탐현기』권1, p.122 참조) 이 내용에 따르면 일부의 열반사(涅槃師)와 지론사(地論師), 예를 들면 혜관(慧觀), 영변(靈辯), 담무취(曇無最), 지거(智炬), 영유(靈裕) 등은 『화엄경』 중의 “最善弘敷導 妙達涅槃華嚴 僧徒千人常業無怠”(『속고승전』권23 ‘釋曇無最’, p.624)에 대해 중남산부근에 모여 있었고, 『화엄경』에 관한 연구가 심도 깊은 고승이었다. 특히 북주(北周) 무제(武帝)의 억불정책 후에 장안의 많은 승려들은 중남산으로 피신했다. 정연(靚淵)은 지상사(至相寺)를 창건했고 두순(杜順), 지정(智正), 지엄(智儼) 등 많은 고승들은 모두 이 사찰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지상사에서는 화엄학과 그 가르침을 중시하게 되었고 두순, 지엄은 후세에 화엄종의 시조, 2대조가 되었다. 의상의 사제인 법장(法藏)은 이런 기반을 통해 화엄종을 개창하게 되었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머무는 동안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저술했는데, 그 내용은 지엄의 화엄사상이 많이 포함되었다. 의상은 귀국한 후에 신라에서 화엄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신라 화엄종의 시조라 불리게 된다. 신라 화엄종은 중국의 화엄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지엄 문화에서 중국과 신라의 화엄종 시조가 출현한 것이다.

50) 『삼국유사』, p.993

『속고승전』에는 의상이 귀국하기 전 다시 당나라에 도착하여 잠시 머물렀던 거사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기재내용이 있다.

“復至文登舊檀越家. 謝其數稔供施. 便慕商船逡巡解纜. 其女善妙. 預爲湘辦集法服并諸什器可盈篋筥. 運臨海岸湘船已遠. 其女呪之曰. 我本實心供養法師. 愿是衣篋跳入前船. 言訖投篋於駭浪. 有頃疾風吹之若鴻毛耳. 遙望徑跳入船矣. 其女復誓之. 我愿是身化爲大龍. 扶翼舳舻到國傳法. 於是攘袂投身於海. 將知愿力難屈至誠感神. 果然伸形. 夭矯或躍. 蜿蜒其舟底. 寧達於彼岸.”⁵¹⁾

즉 『송고승전』에는 이 선묘가 두 번 언급되었다.

귀국한 후의 의상

신라로 귀국한 후 의상은 관음보살이 낙산의 해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관음보살의 현신을 돕기 위해 사찰을 세우고 금당에 관음보살을 만들었다.⁵²⁾ 의상은 산천을 돌아보며 불법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후에 문무왕16년(676)에 태백산(太伯山)에서 부석사(浮石寺)를 세우고 대승불교를 전파했다. 의상이 태백산에서 불교를 전파한 초기에는 순조롭지 못했다.

“曰此中地靈山秀眞轉法輪之所. 無何權宗異部聚徒可半千衆矣. 湘默作是念. 大華嚴教非福善之地不可興焉. 時善妙龍恒隨作護. 潛知此念. 乃現大神變於虛空中. 化成巨石. 縱廣一里盖於伽藍之頂. 作將墮不墮之狀. 群僧驚駭罔知攸趣. 四面奔散. 湘遂入寺中敷闡斯經.”⁵³⁾

51) 『속고승전』, “義湘傳”, p.729

52) 『삼국유사』, “洛山二大聖”, p.996

53) 『속고승전』, “義湘傳”, p.729

이 기재내용에 선묘가 세 번째 출현하여 의상을 돕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의상이 귀국한 직후 기존의 종파와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에 화엄종은 점차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신라 국왕은 의상을 중요하게 여겨 전답과 재산을 내렸으나 의상은 사절하며 받지 않았다.

“我法平等高下共均貴賤同揆. 涅槃經八不淨財 何庄田之有 何奴仆之爲. 貧道以法界爲家 以孟耕待稔 法身慧命藉此而生矣.”⁵⁴⁾

이 내용 역시 선묘와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의상의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692년 법장은 자신의 문하에서 수행하던 신라 승려가 귀국할 때 그를 통해 의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했다. 편지의 내용은 동문의 우정이 계속 될 것을 희망하며 자신의 수행한 결과를 알렸다. 의상은 수십 일간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제자에게 법장의 수행결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종을 널리 알렸으며 그의 문하에 제자들이 많았다. 그의 제자는 3천 명에 달하고 그중에는 10명의 고승이 ‘아성(亞聖)’이라는 불렸다. 이들로 인해 신라에서는 화엄종이 널리 전파되었다.

의상은 일생 동안 『법계품초기(法界品抄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등을 저술했고 그중에 『화엄일승법계도』는 화엄종을 대표하는 서적이 되었다. 702년 의상은 향년 78세에 원적했다.

의상의 공헌

의상이 신라 불교와 중한 문화 교류에 공헌한 것을 크게 두 가지

54) 『송고승전』“義湘傳”, p.729

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관음도량을 세운 것이고, 둘째는 신라 화엄종에 공헌했다.

① 관음도량의 창건 : 관음은 즉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가리키는데, 관음,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자재(觀自在), 광세음(光世音)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암송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나라 사람들은 당 태종 이세민의 이름을 피휘하여 ‘관음’이라 했고 후에 이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다. 대승불교에서 모시는 보살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제이십오(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에서 “佛告無盡意菩薩：‘善男子！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名 觀世音菩薩實時觀其音聲 皆得解脫’”라고 했다. 관음신앙은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에 전래된 신앙이다. 중국에 관음보살을 경험한 전설과 기재된 서적이 있다. 유아정(劉亞丁) 선생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부량(傅亮)의 『광세음응험기(光世音應驗記)』, 장연(張演)의 『속광세음험기(續光世音驗記)』, 육고(陸杲)의 『계관세음응험기(係觀世音應驗記)』 등이 있다.”⁵⁵⁾고 주장한다. 관세음보살은 사람들을 도와줄 때 노인, 여자, 거사 등 여러 모습으로 현신한다. 관음신앙은 신라에 불교가 전해졌을 때 동시에 전래되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자장의 부친은 후사가 없었기에 관세음보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자장이 태어났다고 한다. 자장이 문수보살의 전설을 빌려 사찰을 세운 것처럼 의상도 관음보살의 전설을 빌려 사찰을 세웠다.

“昔義湘法師始自唐來還。聞大悲眞身住此海邊嶺內 故因名洛山。盖西域寶陀洛伽山。此雲小白華。乃白衣大士眞身住處。故借此名之。齋戒七日。

55) “유아정(劉亞丁), 『佛敎靈驗記研究 — 以晋唐爲中心』, 成都, 巴蜀出版社, 2006, p.184

浮座具晨水上。龍天八部侍從引入峒內參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湘領受而退。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師捧出。更齋七日。乃見眞容。謂曰。於座上山頂雙竹涌生。當其地作殿宜矣。師聞之出峒。果有竹從地涌出。乃作金堂塑像而安之。圓容麗質。儼若天生。其竹還沒。方知正是眞身住也。因名其寺曰洛山。師以所受二珠鎮安於聖殿而去。”⁵⁶⁾

『삼국유사』에는 원효와 범일이 관세음보살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라에 전해진지 오래된 관음신앙은 낙산을 중심으로 서서히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낙산사는 신라 제일의 관음도량이 되었다. 근래의 학자들은 관음도량 낙산사는 의상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상과 범일에 관한 사료에서는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이 부분에서는 글자와 숫자가 섞여 있어 자세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⁵⁷⁾

② 신라 화엄종에 대한 의상의 공헌 : 의상이 수행한 것은 화엄종이다. 위에서 언급한 『화엄일승법계도』는 의상의 대표작이다. 이를 『일승법계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일곱 글자로 된 노래로 시의 형식을 빌렸다. 시의 앞에는 이 시를 지은 목적과 읽는 방법이 있으면 시의 뒷부분에는 풀이를 하였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絕一切 證智所知非余境
眞性甚深極微妙 不守自性隨緣成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

56) 『삼국유사』, “前後所將舍利”, p.993

57) 진경부, 『중한불교관계일천년』, p.353 참조

初發心時便正覺 生死涅槃常共和
 理事頓然無分別 十佛善賢大人境
 能入印海三昧中 繁出如意思儀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
 是故行者還本際 巨息忘想即不得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以陀羅尼無盡寶 莊嚴法界寶寶殿
 窮坐實際中道床 歸來不動名爲佛⁵⁸⁾

의상은 시 앞에 시를 지은 목적을 밝혔다.

“夫大聖善教無方 應機隨病非一 迷者字迹不知失體 勤而歸宗末日 故
 依理據教 略制盤詩 冀以執各之徒 還歸無名眞源.”

즉 의상은 『화엄경』과 『십지론』의 사상을 근거로 사람들이 표면적인 사실에만 집착하여 불법의 진수를 잃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의 글자는 많지 않지만 시의 뒷부분에 주석이 오히려 매우 많다. 이 주석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의 모든 구절과 사상 등은 모두 번역되었다.

의상은 일생 동안 화엄학의 학술활동에 힘을 기울였고 동문인 범장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범장은 강거국(康居國)출신이었기에 이로 인해 강장(康藏)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장안에 있는 조부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17세에 구법을 위해 중남산으로 가 명성이 높은 지엄이 강연하는 『화엄경』을 들었다. 후에 지엄은 범장의 총명함의 알게 되었고 범장은 지엄의 그의 문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58) 위상해(魏常海) 편, 『한국철학사상자료선집(韓國哲學思想資料選輯)』,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2006 참조.

다. 몇 년 후 법장은 지엄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당 고종 총장 원년(668) 지엄이 원적하니 그때 그의 나이가 26세로 아직 정식으로 출가하지 않았다. 지엄은 원적하기 전에 법장을 제자인 도성(道成), 박첨(薄塵)에게 부탁하면서 법장이 불법을 발전시킬 것이라 말했다. 당 고종 함형원년(670) 28세의 법장은 무측천이 살던 태원사(太原寺)에 머물렀고, 도성과 박첨은 장안의 기덕(耆德)에서 계속 추천하여 태원사에서 법장의 정식 출가를 허가 받았다. 법장은 사미계를 받고 태원사에서 『화엄경』을 강연했다. 후에 『화엄경』 중의 현수보살(賢首菩薩)이라는 호칭을 받아 현수(賢首)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러 번 번역작업에 참여하여 『화엄경』을 여러 차례 번역했다. 많은 강연과 저술로 화엄학을 발전시켰다. 예종 선천(先天)원년(712) 향년 70세로 장안 대존복사(大尊福寺)에서 원적했다.

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실제 창시자로 지엄에게서 배운 ‘교상(敎相)’과 ‘관행(觀行)’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고 종파의 가르침을 완성했다. 이로 인해 그를 화엄종 삼조(三祖)라고 부른다. 의상이 귀국할 때 법장은 정식으로 출가했지만 그는 이미 그 당시 명망이 높았다. 후에 법장은 경전을 번역하고 저술활동을 하면서 화엄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교명왕(敎明王)원년(692) 법장의 문하에는 신라출신인 승전(勝詮)이 수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법장은 승전에게 부탁하여 의상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하도록 했다. 이 편지는 문장이 수려했고 내용은 그들간의 깊은 우정에 관한 것이었다.

“西京崇福寺僧法藏，致書於海東新羅華嚴法師侍者。一從分別二十余年，傾望之誠豈離心首。加以烟雲萬里海陸千重，恨此一身不復再面，抱懷戀戀夫何可言。”⁵⁹⁾

59) 『삼국유사』, “義湘傳敎”, p.1006

편지의 내용에는 의상이 예전에 선물했던 약간의 금에 감사하고 때문에 법장이 서쪽 국가의 군주가 사용하던 물통을 보냈다. 편지의 내용에는 형제의 정보다 깊은 우정을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장이 자신의 연구성과를 의상에게 선물한 것이다. 편지 속에서 볼 수 있는 법장의 저술은 『화엄탐현기(華嚴探玄記)』20권(2권은 미완), 『일승교분기(一乘教分記)』3권, 『현의장등잡의(玄義章等雜義)』1권, 『별번화엄경중범어(別翻華嚴經中梵語)』1권, 『기신소(起信疏)』2권,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1권, 『신번법계무차별론소(新翻法界無差別論疏)』1권 등 의상은 이 서적을 받고 자신의 방에서 수십 일 동안 본 후 제자에게 전하며 말하길 “博我者藏公，起予者爾輩 因櫛出櫛。執柯伐柯。各宜勉旃無自欺也”⁶⁰)라고 했다. 의상은 사찰에서 법장의 저서를 연구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듯 법장의 화엄학은 신라에서 널리 전파되었고, 의상은 이 저서들을 통해 신라 화엄학의 발전과 신라 화엄종을 세울 수 있었다. 법장이 의상에게 보낸 편지는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지금 그들의 우정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즉 법장과 의상의 교류는 그들 간의 우정뿐만 아니라 중한 불교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후 의상의 문하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 오진(悟眞), 지통(智通), 표훈(表訓), 진정(眞定),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圓), 상원(相源), 능인(能仁), 의적(義寂) 등이 특히 뛰어나서 이들을 10대 대사라 부르고 아성(亞聖)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상과 그 제자들이 화엄학에 연구하여 신라 화엄학은 점점 확산되었고 7~8세기에 종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삼국유사』 중에 화엄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理國有年(記雲在位二十余年。蓋崩年壽二十六之訛也。在位但十年爾。

60)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p.285

又神文之弟爭位事. 國史無文. 未詳)以神龍元年(乃唐中宗復位之年聖德即位四年也)乙巳三月初四日始改創眞如院. 大王親率百寮到山. 營構殿堂. 并塑泥像文殊大聖安於堂中. 以知識靈卞等五員長轉華嚴經. 仍結爲華嚴社. 長年供費. 每歲春秋. 各給近山州縣倉租一百石淨油一石. 以爲恒規. …… 後壁安黃地畫毘盧遮那爲首三十六化形. 福田五員畫讀華嚴經六百般若. 夜念文殊禮忏. 稱華嚴社. 寶川庵改創華藏寺. 安圓像毘盧遮那三尊及大藏經. 福田五員長門藏經. 夜念華嚴神衆. 每年設華嚴會一百日. 稱名法輪社. 以此華藏寺爲五臺社之本寺. 堅固護持. 命淨行福田鎮長香火. 則國王千秋. 人民安泰. 文虎和平. 百谷豐穰矣.”⁶¹⁾

비록 의상은 직접 신라에 화엄종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가 신라 화엄종에 대한 공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현수가 중국 화엄종을 세우고 사조인 두순(杜順)을 초대 조사로 모셨듯이 의상도 해당 화엄종의 초대 조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2. 당나라에 온 후 계속 체류했던 신라 승려

1) 원측

대략 석가모니의 사망한 구백 년 후 인도에서는 미륵(彌勒), 무착(無着), 세친(世親) 등 세 명의 고승이 불경을 심도 깊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심학설(唯識學說)을 만들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가학파(瑜伽行派)라고 불렀는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 사상이 전파되었다. 첫 번째는 6세기 초에 서역을 경유하여 북위(北魏)에 도착한 보리유지(菩提流支)와 불타선다(佛陀扇多), 그리고 중인도(中印度)의 늑나마제(勒那摩

61) 『삼국유사』, ‘臺山五萬眞身’, p.999

提)와 구담반야유지(瞿曇般若流支)가 이 학설을 중국에 전파했다. 두 번째는 6세기 중반에 진제(眞諦)가 서인도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조의 진(陳)에 도착했다. 세 번째는 7세기 초에 천축으로 구법을 갔다 온 현장이 이 학설을 전파했다.

보리유지 등 인도에서 발생한 학파를 중국에 전한 승려들을 지론파(地論派)라 부른다. 이들은 수행하면서 『십지경론(十地經論)』과 『섭대승론(攝大乘論)』 중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주로 강연했다. 이 학파는 중국에서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나뉘게 되었다. 북도는 보리유지의 『지론(地論)』을 들고 연구를 시작한 도총(道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남도는 늑나마제에게 배운 혜광(慧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남도계열에서는 인재들이 많이 모였고, 혜광의 문하에 불덕이 높은 제자만 14~15명이 있었다. 이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북위(北魏)와 북제(北齊) 시기에 전국의 승려를 40여 년간 승려를 통솔했던 법상(法上)이다. 『속고승전』과 『해동고승전』에 따르면 고구려 승려 의연(義淵)이 법상에게 배움을 청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볼 때 당시 남도의 유식사상은 고구려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²⁾

섭론파(攝論派)는 진제(499~569)가 번역한 『섭대승론』을 주로 연구하고 강연했다. 그들은 무침유식의(無塵唯識義)는 팔식(八識) 외에 구식의(九識義)가 있어 아리야식(阿梨耶識)을 다스리면 아마무후식(阿摩羅無垢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섭론학(攝論學)은 당시 북방에서 성행했고 이를 연구하는 세 학파가 있었다. 이 세 학파는 도니(道尼) 학파, 정숭(靖嵩) 학파, 담천(曇遷) 학파이다. 진제가 전파한 유식학은 당시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장이 당나라로 귀국한 후에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 유식사상을 대량으로 번역했다.

62) 『속고승전』에서 “并問『十地』, 『智論』 等入法所傳”. 『해동고승전』에서 “其『十地』, 『智度』, 『地持』, 『金剛』, 『般若』 等諸論本誰述作着論……謹錄咨審, 請垂釋疑” p.1015

후대 사람들은 현장을 기점으로 구유식학(舊唯識學)과 신유식학(新唯識學)으로 구분했다. 이 두 유식학의 융합으로 당시의 불교연구는 활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원측이 수행생활을 하던 서명사(西明寺)는 당시 당나라에 유학 온 학생들과 승려들이 거주하면서 교류하는 곳으로 이들 모두는 원측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즉 원측은 신라 화엄종과 유식종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측의 생애

원측(613~696)에 대해 주요 자료는 최치원(崔致遠)의 『원측화상 회일문(圓測和尚諱日文), 송대 찬령(贊寧)의 『원측전(圓測傳)』,⁶³⁾ 송대 송복(宋復)의 『원측법사불사리탑명병서(圓測法師佛舍利塔銘并序)』⁶⁴⁾이다. 원측은 신라의 왕손으로 3살(615년)에 출가하여 15세(627년)에 당나라에 유학을 떠났다. 장안에 도착한 후 법상(法常)과 승변(僧辯)의 문하에서 대소승결론(大小乘經論)을 연구하고 안혜와 진제로 이어지는 구유식학의 지론과와 섭론과의 사상을 배웠다. 23세에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장안 원법사(元法寺)에서 머무르며 비담(毗曇), 성실(成實), 구사(俱舍), 파사(婆娑) 등 경전을 연구했다. 현장이 천축에서 귀국했을 때 원측은 33세였다. (645년) 이 시기는 원측의 불학이 매우 뛰어났고, 또한 현장에게서 신유식학의 기초를 배웠다. 이로 인해 원측이 현장의 문하였던 자은사(慈恩寺)의 규기(窺基)와는 달리 신구 유식학을 융합하여 서명학파(西明學派) 사상을 만들 수 있었다.

원측의 공헌

원측의 저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법상유식사상(法相唯

63) 『송고승전』, p.727

64)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 p.386

識思想)이지만 동시에 많은 다른 종파들의 사상도 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저작은 3종에 불과하다. 첫째는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로 본래는 40권이지만 지금은 34권까지 남아 있고, 35권 이후는 유실되었다. 근래에 티베트어로 된 『단주이(丹珠爾)』본에서 전권이 보존되어 있어 티베트어 본을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내용은 원측이 현장과 진제가 번역한 각종 경론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두 번째는 『인왕경소(仁王經疏)』3권이다. 세 번째는 『불설반야바라밀다심경찬(佛說般若波羅蜜多心經贊)』1권이다. 아래의 내용은 원측의 원작을 근거하여 원측 사상의 특징에 관해 현대의 학자들과 승려들의 연구한 성과를 네 가지로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삼시교판설(三時教判說)이다. 교판(教判)은 교상판석(教相判釋)을 간략히 부르는 이름이다. 즉 석가모니 일생의 가르침을 해석했다. 즉 저명한 오대산의 오시팔교(五時八教), 법상의 삼시설(三時教), 화엄종의 오교(五教) 등 각 종파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첫째는 남북조 시기와 수당 시기의 교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인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둘째는 수당 이후의 교판은 신앙이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고 각 종파들은 서로 자신만이 우월하다고 강조한다. 원측이 활동하던 시기는 수당 시기이기에 그 역시 법상종의 삼시교판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문적인 연구는 한 가지 관점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원측과 현장 문하의 규기는 법상종 삼시교판의 연구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삼시교판 사상은 현장의 『해심밀경(解深密經)』에서 시작되었다.

“世尊初於一時 在婆羅痾斯仙人墮處施鹿林中 唯爲發趣聲聞乘者 以四

諦相 轉正法輪. 雖是甚奇 甚爲稀有 一切世間諸天人等 先無有能如法轉者. 而於彼時所轉法輪 有上 有容 是未了義 是諸諍論安足處所. 世尊在昔第二時中 唯爲發趣修大乘者 依一切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 以隱密相 轉正法輪. 雖更甚奇 甚爲稀有. 而於彼時 所轉法輪 亦是 有上 有所容受 猶未了義 是諸諍論安足處所. 世尊於今第三時中 普爲發趣一切乘者 依一切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無自性性 以顯了相 轉正法輪. 第一甚奇 最爲稀有. 於今世尊所轉法輪 無上 無容 是真了義 非諸諍論安足處所.”⁶⁵⁾

현장은 석가모니의 모든 설법을 ‘사제교(四諦敎)’, ‘무상교(無相敎)’, ‘요의교(了義敎)’로 구분했다. 규기는 삼시(三時)의 가르침이 사제, 무상, 요의의 내용에 따라 순서로 한 것이고, 이 삼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의라고 생각했다. 즉 초시(初時)인 사제(四諦)는 ‘유(有)’에 편중되어 있고, 이시(二時)인 무상(無相)은 ‘공(空)’에 편중되어 있으며 오로지 삼시인 요의에만 ‘유’와 ‘공’이 모두 있다고 주장했다. 규기의 이런 관점, 즉 초시와 이시보다는 삼시만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각종 교리들과 현격한 차이점을 보인다. 원측은 삼시교관이 단지 경전을 이해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해심밀경』에서 요의와 요의가 아닌 것으로 구분했다. 원측은 이런 구분에 대해 “第一法輪 隱空說有. 第二法輪 隱有說空. 第三法輪 具足顯示空有道理 故名了義. 非謂所詮 有淺深故 名了不了.”⁶⁶⁾라고 했다. 즉 삼중법륜의 교리는 교리의 내용과 이해에 있지 않고 서술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원측은 학문적으로 ‘입교(立敎)’를 강조하여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규기가 ‘입종(立宗)’을 주장한 것과는 달랐다. 이것이 원측사상의 독특한 점이다.

둘째, 아뢰야식설(阿賴耶識說)을 주장했다. 아뢰야식은 유식종의

65) 현장(玄奘) 역, 『해심밀경(解深密經)』 권2, 『대정장(大正藏)』 제16권, p.697 참조.

66) 원측,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권5, 『韓國佛敎全書』 제1권, p.289 참조.

핵심사상으로 신구 유식사상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아뢰야식에 대해 보리유지 학파, 진제 학파, 자은 학파의 주장은 모두 다르고, 원측의 주장은 이들과 또 다르다. 보리유지는 마음과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 팔식(八識)인 아뢰야식이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으로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제 칠식(七識)인 말나식(末那識)과 연관되어 상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여러 형태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제와 섭론파는 마음이 움직여 제 팔식과 결합하여 아뢰야식이 변화되기에 마음의 변화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 구식(九識)인 아모라식(阿摩羅識)과 관련이 있어 제 구식을 아뢰야식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구식은 깨끗하고 오염이 없어 중생들의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여 해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현장은 호법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팔식을 세웠지만 구식을 세우지는 않았다. 그는 아뢰야식에는 청정한 면과 오염된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측은 상술한 관점을 모두 계승하면서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구유식 중에 제 구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또한 아뢰야식에 대해 원측은 비록 오염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아뢰야식은 어떤 상황에도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원측의 아뢰야식은 당시 여러 학파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고, 이런 견해는 자신의 도와 현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고, 당시 불교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삼성삼무성설(三性三無性說)이 있다. 원측의 사상은 구유식의 ‘안혜(安慧)’와 신유식의 ‘호법’에 대한 차이점을 융합했다. 안혜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만은 있다고 한다. 상(相)과 견(見)을 둘로 나누면 내 자신을

안과 밖에서 나뉘게 되어 두 가지 상이 있게 되고, 이것이 집착하는 마음을 없게 하여 허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부처의 지혜는 상과 견으로 나누지 않는다. 사실상 안혜의 마음에 불법이 깃든 마음과 진실한 마음은 모두 공(空)을 위한 이런 사상과 진제의 유식사상은 모두 무상유식(無相唯識)에 속하는 하나의 사상이다. 호법을 주장하는 것은 마음 마음마다 반드시 인연이 되는 상을 가지고 있다. 견과 상을 나누는 것은 허망한 것을 나누는 것에 따라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도 견과 상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을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호법 학파는 허망을 각각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연이 있는 본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원측의 견해에 따르면 삼무성과 삼종 무자성이 합쳐질 때 ‘무상’이 된다고 했다. 그의 목적은 ‘공’과 ‘유’의 두 이론을 융합하는 것으로 양쪽에 편견이나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원측은

“所詮宗者 略有四種：一存妄隱眞宗 如薩婆多等 …… 二遣妄存眞宗 如經部師 …… 三眞妄俱遣宗 如清辨 雙遣一切 有爲無爲； 四眞妄俱存宗 如護法等 存立二諦 三性等義。”⁶⁷⁾

라고 주장했다. 원측은 공을 중요시하는 청변(淸辨)에 치우친 삼성공관(三性空觀)과 유를 중요시하는 호법에 치우친 삼무성설(三無性說)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원측은 유식사상이 반야사상(般若思想)을 계승하는 것이고 삼성설(三性說)은 반야학(般若學)이 자연적으로 발전하면 나타난다고 하여 각 학파의 사상은 융합할 수 있는 내재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오성각별론(五性各別論)과 일성개성론(一性皆成論)이다. 범

67) 원측, 『해심밀경소』권1, 『韓國佛教全書』제1권, p.132

상유식종은 중국에서 받아들인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라는 오성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가장 잘 받아들였다. 오종성(五種性)의 주장은 이미 각 학파의 이론에 중심이 되었다. 이 이론은 원인에 따라 결과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엔닌은 불법의 가르침을 받기 전이면 결과는 불법을 본 후 몸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측은 일성개성설은 원인이고 오성각별설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측이 오성차별론(五性差別論)에 속하는가 아니면 일성개성론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학계에서도 쟁론이 되고 있다.⁶⁸⁾ 지엄은 원측의 사상에 대해 유가행(瑜伽行)에서 시작했기에 오성차별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오이성의(頓悟理性意)적인 측면에서는 일성개성론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원측의 사상은 그 시대의 지론종, 섭론종, 삼론종,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등을 서로 융합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원측의 사상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종파에서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융합된 사상은 제자 도증(道證), 승장(勝莊), 자선(慈善) 등을 통해 한반도로 전파되어 신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도증은 사성(嗣聖)9년(692)에 신라로 귀국했고 제자 태현(太賢)에서 유가학을 전수하여 해동 유가 시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2) 김지장(金地藏)

당나라에서 구법한 신라 승려 중에서 김지장 역시 후세의 중국문화에 영향이 가장 크고, 유명한 승려이다. 지장보살(地藏菩薩), 문수보살, 보현보살(普賢菩薩), 관음보살은 중국 불교의 4대 보살이다. 김지장은 후세에 중국에서 계속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져 많은

68) 지엄, 『유식여중관적원용(唯識與中觀的圓融)』, p.213

신도들이 있었다. 김지장이 머물던 구화산 역시 지장보살 도량이 되었고, 중국 불교 4대 명산의 하나가 되었다.

김지장에 관한 사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송고승전』에 500~600자의 분량인 한 편의 전기 ‘당지주구화산화성사지장전(唐池州九華山化城寺地藏傳)’이 있고 저자인 찬령(贊寧) 역시 그 전기의 사료에 관해 “때때로 비관경(費冠卿)이 쓴 서문을 정리하여 완성한 것이다.”⁶⁹⁾라고 했다.

비관경이 서문을 살펴보면 당 헌종(憲宗) 원화(元和) 시기에 저술한 『구화산화성사기(九華山化成寺記)』에 간략하게 있었다.

“九華山 古號九子山 …… 開元末 有增檀號 張姓 …… 廣度男女觸時豪所嫉 長吏不明 焚其居而廢之. 時有僧地藏. 則新羅王子金氏近屬 項聳骨奇 軀長七尺 而力倍百夫. 嘗曰: ‘六籍寰中, 三清術內 唯第一義, 與方寸合’ 落發 涉海 舍舟而徙 睹茲山於雲端 自千里而勁進…… 素愿寫四部經 遂下山至南陵 有俞湯等寫獻焉. 自此歸山 迹絕人里. 逮至德初 有諸葛節等自麓登峰 山深無人 雲日雖鮮明 居唯一僧 閉目石室. 其旁折足鼎中 唯白土少米烹而食之. 群老投地號泣: ‘和尚苦行若此 某等深過已. 出泉布 買檀公舊地敢冒死請!’ 大師從之. 近山之人 聞者四集 伐木築室 煥乎禪居. 有上首僧勝瑜等 同建臺殿. 楠豫章 土地生焉 斷而聽之. 斌琮不求他山 肆其磨砮 開鑿澗 盡成稻田 相水攸瀦爲放生池. 乃當殿設釋迦文像 左右備飾. 次立朱臺 挂挂薄牢於其中 立樓門以冠其寺 …… 建中初 張公岩典是邦 仰師高風 施舍甚厚 因移舊額 奏置寺焉. 本州島島牧賢者到寺 嚴師之敬西江 估客於雲外見山 施帛若干匹 錢若干緡 焚香作禮 遙以祈佑 師廣德焉. 況親承善誘 感司深哉! 旁邑豪右 一瞻一禮 必獻柔土 豈諸牧不合禮焉. 富商大族輕其產哉 道德感也! 本國聞之 相之渡海 其徒實衆. 師憂無糧 發石得土 其色青白 不摻如面 夏則食兼土 冬則衣半火. 無少長 畚田采薪自給. 其衆請法以資神 不以食而養命 南方號爲枯槁衆 莫

69) 『송고승전』, p.839

不宗仰. 中歲領一從者 居於南臺 自絹麻衣 其重兼鈞 堂中棍上 唯此而已. 池邊建臺 厝四部經 終日焚香 獨味深旨. 時年九十九 貞元十年夏 忽召徒告別 罔知攸適. 惟聞山鳴石隕 感動無情將示滅 有尼侍者來 未及語 寺中扣鐘 無聲墜地尼來入室 堂椽三坏 吾師其神歟! 趺坐函中 經三周星 開將入塔 顏亦如活時昇動骨節 若撼金鎖 經雲: 菩薩鈎鎖 百骸鳴矣! 基塔之地 發光如火 其圓光歟其佛廟 群材縮構 衆力保護 施一金錢 報一重果 下爲輪王 上登聖地 昔有護法良吏 泊施力僧檀越等 具刻名於石. 深疾後代不能立殊績以濟衆 又不能破除余財 崇勝因緣 啄腥膻 顧兒婦 生爲人非 死爲鬼責 悲哉! 時元和癸巳歲 予閑居山下 幼所聞見 謹而錄之. 孟秋十五日記.”⁷⁰⁾

이로 볼 때 우리는 김지장에 간략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김지장은 신세내력을 알 수 없지만 신라 귀족출신이라는 점이다. 어떤 학자는 사서의 기재된 신라 왕자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 인질로 온 사실,⁷¹⁾ 그리고 나이로 보았을 때 김수충이 바로 김지장이다. 그는 신라로 귀국한 후 다시 당나라로 왔다고 주장한다.

이런 추측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⁷²⁾ 신체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일찍이 “六籍寔 三清術內 唯第一義 與方寸合.”, 즉 ‘육적(六籍)’은 유교의 육경(六經)을 가리키고, ‘삼청(三清)’은 옥청(玉清), 상청(上清), 태청(太清)을 가리키는데 이는 모두 도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불교에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무상이라 하는데, 이를 ‘제일의(第一義)’라고 한다. ‘방촌지심(方寸指心)’은 이 시기는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더 편중되었다는 김지장의 생각이다. 즉 김지장은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이 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낫기에 현재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70) 『전당문』 권694, p.4923

71) 『삼국사기』, p.113

72) 구화산불교사편위원회(九華山佛敎史編委會) 편, 『김지장연구(金地藏研究)』, 黃山書社, 1993 p.63; 사주전(謝澗田), 『地藏菩薩九華垂迹』,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4 참조.

것이다. 그는 신라에서 삭발을 하고 당나라로 가 구법을 했다. 구화산(당시에는 구자산이라 불렀다)에 도착하여 수행을 시작하니 구자신(九子神)이 감동하여 샘물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당 현종 말기에 한 승려가 이 산에서 수행을 하면서 호족들의 질시로 자신을 태워 불법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윗글에 의하면 지장이 당나라에 입국한 시기가 당 현종 말기이다.

김지장은 후에 산을 내려가 남릉(南陵)에서 네 부의 경전을 찾았다. 유탕(俞湯) 등 여러 사람들은 이 경전들을 구하여 김지장에서 전했다. 경전을 얻은 김지장은 산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덕(至德)연간(756~758)에 제갈절(諸葛節) 등이 산에 올라 김지장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김지장은 부서진 술에 약간의 밥만을 먹으며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김지장에게 사찰을 세운다는 약속을 했다. 후에 그들이 건물과 불상 등 사찰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준비하여 사찰이 완성되었다.

건중(建中)연간(780~783)에 군수인 장암(張岩)이 김지장에 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많은 시주를 했고 새로운 현관을 위해 상소를 올렸다. 이로써 이 사찰은 점차 유명해졌다. 호족들과 상인들이 서로 시주를 하고 신라 승려도 이곳에서 수행을 시작하여 제자들은 많아졌다. 『송고승전』에서 “제자가 많아 그 수를 모두 셀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김지장은 여전히 제자들과 청빈하게 수행을 했다. 정원(貞元)10년(794) 김지장은 향년 99세로 원적했다. 김지장이 원적할 때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에서 김지장의 사승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그가 좌선을 하거나 석실에서 수행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모습과 정도종 경전을 보았다는 기록에서 볼 때 그는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처럼 선종과 정도종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은 김자장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김지장에 관해 전

해지는 이야기는 비록 신기한 내용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고승의 전기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김지장에 대해서도 아마 후대에 이야기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김지장은 선종과 정토종을 같이 수행하면서 청빈한 생활과 높은 덕망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송고승전』에서 “얼굴빛은 창백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많은 이들이 시주를 했어도 탐하지 않고 수행을 했다. 남방에서 고고중(枯槁衆)이라 불릴 만큼 매우 존경 받았다.”⁷³⁾라고 적고 있다. 이렇듯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후에 지장보살로 신격화되기에 유리했다.

둘째, 김지장이 원적할 때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 특히 원적 후 그의 몸을 관에 넣었다. 3년 후 탑에 봉인할 때 얼굴빛은 살았을 때와 다르지 않고 뼈에서 마치 금속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즉 사서에 “菩薩鈎鎖, 百骸鳴矣. 塔基的地方, 發光如火, 呈圓狀”라는 기록이 있다. 비록 위 문장에서는 당시에 아직 보살의 화신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신격화되는 경향은 볼 수 있다. 특히 몇 구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상상을 하게 한다.

셋째, 김지장의 지장보살의 이름이 같다. 지장보살은 자비로써 스스로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보살로 사람들에게 기원의 대상이었다. “중생들이 죽으면 보살이 그들을 바로 잡아 지옥은 비어있지 않게 한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등 지장보살의 언행은 많은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지장보살은 민간의 통속신앙과 빠른 속도로 융합할 수 있었고 널리 보급되었다. 수당 시기 이후 지장신앙은 크게 발전했고 송대 상근(常謹)은 오대 시기 양대에서 송나라까지 지장보살과 관련 있는 32가지의 일들을 정리하여 『지장보살영험기(地藏菩薩靈驗記)』를 저술했다. 지장보살은 사찰 혹은 개인 불당에 항상 모셔져 많은 사람들이 참배했다. 김

73) 『송고승전』, “金地藏”, p.939

지장의 고행도 지장보살이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김지장과 지장보살의 관련지어 생각하기 시작했고 김지장은 점점 신격화되어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구화산 역시 지장보살의 도량이 되어 중국 4대 명산이 하나가 되었다. 김지장이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나라 의윤(儀潤)은 『백장청규증의기(百丈淸規證義記)』에서

“佛滅度一千五百年 地藏降迹新羅國主家 姓金 號喬覺 永徽四年 年二十四歲 祝發 携白犬善聽 航海而來……”

라고 기술하며 『신승전(神僧傳)』에서 참고했다고 했지만, 『신승전』에는 이런 구절이 없다. 지장보살이 신라 왕족으로 김교각(金喬覺)이라는 주장은 청대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민간신앙의 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민간신앙에서 김지장을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보는 것은 김지장의 원적 후 그가 더욱 존경 받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인지를 고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지장이 구화산에서 수행했기에 구화산이 지장보살 도량이 생기고 중국 불교의 4대 명산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지장보살의 신앙은 구화산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3.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을 떠난 신라 승려

당대에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번영은 주변 각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국과 중국의 서부에 위치한 국가와 지역은 실크로드를 따라 왕성한 교류활동이 있었고, 서역의 영

향을 받은 당나라 역시 발전할 수 있었다. 당나라에 조공하는 사절단, 상인들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대에 교통을 관리하는 역참제도가 체계화되고 완성되었다. 당나라는 서역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 전기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중국과 서역, 인도의 불교 교류에 매우 유리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지는 이미 수백 년이나 지났지만 당 초기 이전에 불경은 많았지만 파손되었거나 유실된 것이 많아 교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계율도 체계적이지 않았고 더구나 도교와 유교 등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승려가 자발적으로 혹은 정부에서 인도로 파견하여 구법을 하게 되었다. 즉 중국 승려가 인도로 가서 구법을 하는 것이 유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승려인 현장이었다.

“法師既遍謁衆賢 備瀆其說 詳考其理 各擅宗涂 驗之聖典 亦隱顯有異 莫知適從 乃誓游西方 以問所惑 辦取『十七地論』等 以釋衆疑。”⁷⁴⁾

구법을 떠난 승려는 서역의 정치변동이나 해상교통의 발전으로 해로를 통해 인도로 가기도 했다. 당나라에 도착한 신라 승려 중에 신라의 정치적인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또 다시 인도로 가기도 했다.

현재 사서를 통계한 숫자로 보면 인도로 구법을 떠난 신라 승려는 많은 편이다.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지고승전(大唐西域求地高僧傳)』에서 인도로 구법을 떠난 승려는 모두 58명이고 그중에서 신라 승려는 8명, 고구려 승려는 1명이다.(이들에 대해 의정의 다른 저작인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가 인도로 떠난 이가 적지 않다. 이 신라 승려 8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은 정관연간에 장안을 출발하여 육로로 왕

74) 『大唐故三藏玄奘狀』, p.214

함성(王舍城)에 도착했다. 향년 70여 세에 인도 나란타사(那爛場寺)에서 원적했다. 혜업(慧業)은 정관연간에 육로를 통해 천축으로 가 보리사(菩提寺)와 나란타사에서 머물렀다. 의정은 나란타사에서 혜업을 본 사실을 기록했다. 『양론(梁論)』에서 “보리수 아래에 신라 승려 혜업이 글을 쓰고 있다.”⁷⁵⁾라고 했다. 향년 60여 세에 나란타사에서 원적했다. 현태(玄太)는 영휘(永徽)연간에 토번을 거쳐 인도로 갔다. 당나라로 귀국한 후의 기록은 없다. 현락(玄恪)은 정관15년에 육로로 인도에 갔으나 4세가 지나서 질병으로 사망했다. 혜륜(慧輪) 인덕(麟德)2년 혹은 간봉(干封)원년 칙명을 받고 현조(玄照)를 따라 인도로 갔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신라승려들은 장안을 출발하여 해로로 인도에 갔으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현유(玄游)는 고구려출신 승려로 해로를 이용하여 인도에 가서 승철(僧哲)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후에 사자국에 갔다. 인도에 간 신라 승려 중에 한 승려가 진귀한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겼다. 이가 바로 혜초(慧超)이다.

1) 혜초

혜초에 관한 사료는 매우 적다. 비록 그가 당시에 명망이 있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대종조증사공대변정광지삼장화상표제집(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벽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와 현대 일본학자 등진풍팔참(藤田豊八參)의 『혜초왕오천축국전전석(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 『혜초전고(慧超傳考)』과 고남순차랑(高楠順次郎)의 『혜초왕오천축국전전석고정(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考訂)』이다.

75) 의정(義淨), 왕방류(王邦維) 교주(校注),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北京, 中華書局, 1988 p.42

이들 기재에서도 대략적인 혜초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혜초(‘惠超’라고 기록한 자료도 있다)는 신라출신으로 출생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당 측천무후(武則武后) 성력(聖歷)3년(700)으로 추측한다.⁷⁶⁾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왔고 개원(開元)11년(723)에 인도로 출발했다. 그는 해로를 이용하여 인도로 갔기에 우선 동천축에 도착했고, 후에 중천축, 남천축, 서천축, 북천국을 차례로 돌아보고 서역의 여러 나라를 거쳐 개원15년(727) 10월 상순 장안에 도착했다. 그 다음 해 그는 장안에서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이후 혜초에 관한 내용은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서(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大唐開元二十一年 歲次癸酉 正月一日辰時 荐福寺道場內 金剛三藏⁷⁷⁾與僧慧超授大乘瑜伽金剛五頂五智尊千臂千手千鉢千佛釋迦曼殊室利

76) 어떤 이는 704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71~741)가 현종(玄宗) 개원(開元) 7년(719)에 광주에 도착했다. 혜초는 이곳에서 그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그 때가 혜초의 나이가 16세였다. 혜초, 장의(張毅) 전주(箋釋),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0 p.2 참조

77) 금강지(671~741) 법어 이름은 Vajrabodhi이고 한자로 번역한 이름은 발일라보리(跋日羅菩提)이다. 인도 밀법의 제5대 계승자이며 중국 밀법의 시조이다. 남인도 마라나국(摩羅那國) 바라문출신이다(중인도 살리왕(刹利王) 이사나말마(伊舍那摩)의 셋째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다) 10세(16세라는 주장도 있다)에 나란타사(那爛陀寺)에서 출가하여 20세에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대소승경율론(大小乘經律論)을 연구했다. 31세에 남인도 수보살(樹菩提)의 제자인 용지(龍智)에게 밀법을 배웠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3년간 동쪽으로 이동하여 개원7년(719)에 제자 불공(不空)을 데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실론과 수마트라를 경유하여 광주에 도착했다. 당나라의 사찰에 대만도라관정(大曼荼羅灌頂) 만들어 중생들을 교화했다. 개원8년 낙양을 거쳐 장안에 도착한 후 당 현종을 만나 대자은사(大慈恩寺)에 머물렀다. 얼마 후 천복사(薦福寺)로 옮겼다. 후에 머무르는 사찰에 대만도라관정을 만들고 관정(灌頂)의 비법을 전수하면서 중생들을 교화시켰다. 개원11년 밀교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후 금강지는 선무의(善無畏), 불공과 함께 ‘개원삼대사’라는 칭호로 불렸다. 인도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병을 나서 결국 낙양 광복사(廣福寺)에서 향년 71세에 원적했다. 시호는 개부의동삼사대홍교삼장(開府儀同三司大弘教三藏)이다. 문하의 제자로 대표적인 승려는 불공, 일행(一行), 혜초, 의복(義福), 원조(圓照) 등이 있다. 『불광대장경(佛光大藏經)』, 『중

菩薩秘密菩提三摩地法教. 遂於過後受持法已, 不離三藏奉事經於八載. 後至開元二十八年. 歲次庚辰. 四月十五日. 聞奏開元聖上皇於荐福寺御道場內. 至五月五日. 奉詔譯經. 卯時焚燒香火起首翻譯. 三藏演梵本慧超筆授. 大乘瑜伽千臂千鉢曼殊室利經法教. 後到十二月十五日翻譯將訖. ……”

건중원년 4월 15일 오대산 간원보리사(干元菩提寺)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옛 번역본을 얻었다. 5월 5일 혜초는 이 번역본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다.⁷⁸⁾

혜초는 오동안 금강지(金剛智)의 문하에서 수행하여 금강지의 기대를 받았다.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천비천발대교왕경서』의 기록에 따르면 혜초는 금강지에게서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을 8년 동안 배웠다. 개원28년 금강지는 번역을 시작했고 혜초는 번역문을 작성했다.

개보(開寶)원년 금강지가 원적하자 혜초는 불공(不空)의 문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불공의 유서에 혜초를 특별히 언급했다.

“吾當代灌頂三十余年 入壇授法弟子頗多 五部羯磨成立八个 淪亡相次 唯有六人 其誰得之? 則有金閣含光 新羅慧超 青龍慧果 崇福慧朗 保壽元皎 覺超 後學有疑 汝等開示 法灯不絕 以報吾恩.”⁷⁹⁾

즉 혜초는 후에 불공 문하의 육철(六哲)의 한 명으로 추앙받았다. 대력9년 1월과 2월에 주질현(盩厔縣) 옥녀담(玉女潭)에서 기우제를 지내라는 칙명을 받았고 이에 따라 기우제를 지내 효과를 보아 상소를 올렸다.

같은 해 6월 6일 불공은 흥선(興善)과 당원(當院) 두 도량에서 승

화불교백과사전(中華佛敎百科全書) “金剛智” 참조.

78)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권1, p.724

79) 『대종조증사공대변정광지삼장화상표제집(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p.844

려를 청했을 때 그의 제자인 혜랑(慧朗), 혜초, 혜찬(慧璨), 혜해(慧海) 등 21인을 추천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혜초의 이름을 혜랑의 뒤에 기록한 것은 단지 순서일 뿐이고 불공은 그들이 “가르침을 찾아 그 뜻을 연구하고 계율 역시 밝으며 불문의 적합한 인재라.”⁸⁰⁾라고 칭찬했다. 즉 혜초는 불공의 문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혜초는 후에 신라로 귀국하지 않았으나 자세한 종적은 알 수 없다. 혜초는 개원 시기 유명한 3명의 대사인 금강지와 불공의 제자였고 밀종의 유명한 승려였다. 그는 금강지의 번역활동에 크게 공헌했으나 현재 혜초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밀종에 대한 공헌이 아니라 그의 저술인 『왕오천축국전』⁸¹⁾ 때문이다.

혜초는 그가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여정에서 갔던 수십 국가와 지역의 풍속, 종교, 지리, 물자, 언어 등을 이 자료는 현대에서 매우 진귀한 사료이다. 당대에 서역으로 가서 구법을 하는 한 승려들이

80) 『대종조증사공대변정광지삼장화상표제집』, p.845

81)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모두 3권의 분량이었으나 이미 유실되었다. 지금은 헤림(慧琳)이 저술한 『일절경음의(一切經音義)』에 약간의 부분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프랑스의 펠리오가 1908년에 돈황의 석실에서 발견한 후 가져간 일부만 존재한다. 남아 있는 서적에서도 앞뒤가 없는 상태이다. 펠리오는 이 서적을 헤림이 저술한 『일절경음의』에 기재된 『혜초왕오천축국전(慧超往五天竺國傳)』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후에 나진옥(羅振玉)은 이 서적과 헤림의 『일절경음의』의 『혜초왕오천축국전』을 대조한 결과 15곳이 같고 순서도 같음을 밝혔다. 이로써 이 서적이 이미 유실되었던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임을 증명했다. 이 서적이 발견된 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연구하는 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11년 일본의 등전풍팔참(藤田豊八參)은 『혜초왕오천축국전전석(慧超往五天竺國傳箋釋)』을 저술했고, 1926년 펠리오와 우전형합(羽田亨合)은 영인본으로 『돈황유서(敦煌遺書)』를 출판했다. 1931년 전도손(錢稻孫)은 이 영인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1938년 독일의 후크(Walter Fuchs)는 중국어 번역본을 다시 독일어 번역본으로 출판했다. 이 번역본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출판된 번역본이다. Huei-ch'ao's Pilgerreise durch Nord-West-Indien und Zentral-Asien um 726 1938

2차 세계대전 후 『왕오천축국전』은 한반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59년 서울대학교 고병익(高炳翼) 선생은 『혜초왕오천축국전연구사략(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史略)』을 저술했고 북한의 정열모(鄭烈模)는 다시 번역본으로 출판했다. 『왕오천축국전전석경행기전주(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의 전언(前言) 부분 참조.

적지 않게 기록을 남겼다. 예를 들면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혜립(慧立)과 언종(彦宗)이 저술한 『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7세기 전반의 서역, 인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과 『남해기귀내법전』은 7세기 하반기 인도, 동남아의 연구에 진귀한 문헌이다. 이 밖에 두환(杜環)의 『經行記』가 있다. 이 서적들은 8세기下半기의 인도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8세기 상반기에 관해서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밖에 없다. 8세기 상반기는 서역문명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서역의 정치, 군사, 문화, 신앙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가 발생했다. 즉 아라비아의 세력이 동쪽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당, 아라비아, 돌궐, 토번 등 여러 국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인도와 서역에 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다. 이런 변화하는 시기에 대해 『往五天竺國傳』에서 많은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천축의 신덕(信德)에서 “지금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국토의 절반이 이미 파괴되었다.”⁸²⁾라고 말한 기록이 있고, 신두고라국(新頭故羅國)에서 “지금 아라비아가 국토의 절반을 침략한 것을 볼 수 있다.”⁸³⁾라고 기록했다. 토화라국(吐火羅國)에 관해 “토화라국에 도착하니 왕성을 포위한 아라비아의 군사가 토화라국의 국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쪽으로 한 달 정도를 이동하여 포특산(蒲特山)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이미 아라비아가 통치하고 있었다.”⁸⁴⁾라고 기록했다. 즉 당시 아라비아가 인도와 서역을 침공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시기의 인도와 서역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당시의 불교 등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82) 『왕오천축국전전석경행기전주』, p.48

83) 同上, p.56

84) 同上, p.96

“毗耶離城庵羅園中. 有塔見在. 其寺荒廢無僧.”⁸⁵⁾ “迦毗羅國. 卽佛本
生城. 無憂樹見在. 彼城已廢. 有塔無僧 亦無百姓.”⁸⁶⁾

즉 비야리(毗耶離)성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지만 이곳에는 이
미 불교가 이미 사라진 현실을 기록했다.

“卽是大勃律國. 楊同國. 娑播慈國. 此三國并屬吐蕃所管. 衣着言音人
風并另. 着皮裘毳衫靴袴等也. 地狹小. 山川極險. 亦有寺有僧. 敬信三寶.
若是已東吐蕃. 總無寺舍. 不識佛法.”⁸⁷⁾

당시 불교가 전파된 지역과 또한 토번에서는 불교가 아직 발달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당시 여행과정에서 보고
들은 현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기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진귀
한 자료이다.

혜초는 비록 신라로 귀국하지는 않았지만 후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 중국에서 인도로 향한 승려 중에 혜초와 『대당서역구법고승
전』에서 언급한 몇 명 외에 『송고승전』권30에서 원표(元表), 『진용
사삼조공봉대덕행장(眞龍寺三朝供奉大德行狀)』과 『혜과화상비명(惠
果和尚碑銘)』에서 오진(悟眞) 등이 인도에서 구법을 했다.

4. 당나라에서 선종을 배운 신라 승려

선종은 불교에서 하나의 수행방법으로 범문의 ‘선나(禪那)’를 간략
하게 말한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좌선하는 것만을 선종이라 불렀다.

85) 同上, p.36

86) 同上, p.37

87) 同上, p.64

당 중기 이후 북위에서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전한 선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선종은 점차 달마를 계승한 종파를 가리키게 되었다.

선종은 전통적으로 갈대를 타고 강은 건넌 보리달마를 시조로 하고 눈이 내릴 때 팔을 자른 혜가(慧可)가 두 번째 시조가 되었다. 즉 선종의 계승은 달마, 혜가,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 혜능(慧能)과 신수(神秀)로 이어졌다. 도신이 법통을 계승했을 때 선종은 점차 융성해졌고 혜능의 시기에 선종은 최고로 발전했다. 달마에서 혜능까지 약 250년이 걸렸는데, 이 시기를 선종의 성립 시기라고 한다.

선종은 마음의 본성을 연구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았다. 달마에서 혜능까지 선종은 다른 종파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스승의 어록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때문에 다른 종파와 해석으로 인한 대립이 없었기에 이 시기를 선종의 성립 시기라고 부른다. 혜능의 후대에 남악회양(南岳懷讓)과 청원행사(淸原行思)의 학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 학파들이 발전한 당말 오대까지 또 250년이 걸렸다. 이 학파의 남돈종선(南頓宗禪)이 “마음이 부처다.”, “평상심이 도(道)다.”라는 수행법을 만들었고 백장회해(百丈懷海)가 선원제도의 규범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선종은 매우 발달하게 되었고 다른 종파들은 쇠락하였다.

선종의 발전은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들과 신라 불교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대 중후기에 신라 승려들은 대부분이 선종을 배웠다. 황심천(黃心川) 선생은 『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教的交流 - 新羅來華佛教僧侶考』에서 사서의 기록을 통계한 결과 800년 이후에 당나라에 온 신라 승려는 모두 45명으로 자세한 기록이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종을 배웠다고 한다. 이는 신라 승려가 선종을 주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종은 중국에서 발전한 후 신라로 전해져 신라의 여러 종파들을 누르고 신라 불교의 가장 중요한

종파가 되었다. 신라 말기 신라의 선종은 8파, 즉 가지산파(迦智山派), 실상산파(實相山派), 동리산파(桐里山派), 성주산파(聖住山派), 사굴산파(闍崛山派), 사자산파(師子山派), 봉림산파(鳳林山派), 희양산파(曦陽山派) 등이 있고, 고려 초기에 출현한 수미산파(須彌山派)를 합쳐 선문구산(禪門九山)이라 부른다. 선문구산의 창시자는 대부분 당나라에서 구법을 했던 승려들이다.

1) 홍척과 실상산

홍척(洪陟,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조당집(祖堂集)』에서는 ‘홍직(洪直)’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국실상(東國實相)화상이라 부른다. 현재 홍척에 관한 사료는 적다 단지 『대당신라국고속암산사교시호지증대사적조지탑비명(大唐新羅國故夙岩山寺教證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조당집』, 『경적전등록』 등에 약간의 기록만 있다.

“及興德大王纂戎 …… 有洪陟(法)大師 亦西堂正心 來南岳休足。”⁸⁸⁾

『조당집』에 “東國實相和尚嗣西堂 師諱洪直 諡號證覺大師 凝寂之塔。”⁸⁹⁾

홍척은 대략 헌덕왕(憲德王) 시기에 당나라로 가서 서당지장(西堂智藏)의 문하에 수행하였고, 도의(道義)와는 동문이다. 후에 사람들은 “북에는 도의, 남에는 홍척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 귀국 후에 지리산 부근의 실상산(實相山)에서 선법을 전파했다. 당시 제자들은 많았는데, 그중 편운(片雲), 수철(秀澈) 등이 실상산문을 개설했다.

88) 『대당신라국고속암산사교시호지증대사적조지탑비명(大唐新羅國故夙岩山寺教證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二) 新羅時期, p.88

89) 『조당집』 권17 pp.561~562

2) 체징과 가지산

체징(體澄)의 생애는 『신라무주가지산보림사시보조영시비명(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諡普照禪師靈諡碑銘)』에서 주로 보인다. 비문에 따르면 체징은 김씨로 웅진출신이다. 신세내력에 관해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출생 시 상서로운 조짐이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려서 출가했는데 총명하고 성실하여 가장 촉망 받는 승려였다.

827년에 가양협산(加良峽山) 보원사(普愿寺)에서 수계를 받았다. 후에 역성사(億聖寺) 염거(廉居)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염거는 도의의 제자이다. 도의에 관한 내용은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시보조선사영시비명』과 『경덕전정록』권9에 보인다. 도의는 예전에 당나라로 가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제자인 서당지장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귀국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時人雅尚經教 與習觀存神之法 未臻其無爲任運之宗 以爲虛誕 不之崇重 有若達摩 不過梁武也 由是知時未集 隱於山林 付法於廉居禪師.”⁹⁰⁾

염거선사의 문하에서 수행하는 기간에 체징은 마조에서 지장으로 이어지는 선종을 배웠다.

개원2년 정사(丁巳)일에 체징은 동문인 진육(眞育)과 당나라로 구법을 떠났다. 그러나 체징은 불소(不少)선사를 만난 후 “知其法界嗜欲共同 性相無異 乃曰：我祖師所 無以爲加 何勞遠適”⁹¹⁾을 깨달았다. 체징은 도의선사의 선법 외에 다른 것을 배우지 않고 신라로 귀국했다.

신라로 귀국한 체징은 존경을 받으며 가지산(迦智山)에 들어가 보림사(寶林寺)를 세웠다. 그의 제자는 800여 명으로 새로운 바람을

90)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시보조선사령탑비명병서(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諡普照禪師靈塔碑銘并序)』, 『조선금석총람』, (二) 新羅時期, p.62

91) 同上

일으키며 가지산문을 열었다. 이 산문은 도의선사를 시조로 하고 염거선사와 체징으로 법통이 계승되었다. 헌강왕(憲康王)6년(880)에 향년 77세로 원적했다. 헌강왕은 ‘보조(普照)’라는 시호를 내렸다.

3) 혜철과 동리산

혜철(慧徹)에 관한 기록은 『조당집』과 그의 비문인 『무주동리산대안사적인선사비송병서(武州桐里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에서 볼 수 있다. 『조당집』의 기재된 내용은 “東國桐里和尚 嗣西堂. 師諱慧徹 諡號寂忍禪師 照輪清淨之塔.”⁹²⁾처럼 간략하다. 오히려 석비의 내용이 더 자세하다.

혜철의 시호는 적인(寂忍)으로 자(字)는 체공(體空)이고, 속성은 박씨이다. 그는 경주의 문인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조부는 도교에 심취하여 안빈낙도한 생활을 하며 공명을 탐하지 않았다. 혜철은 어려서 의상이 세운 부석사에서 출가하여 화엄경을 배웠다. 그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어린 나이에 학문적인 성취를 얻게 되었다. 동문들은 그를 ‘불교계의 안자(顏子)’라고 불렀고 22세에 정식으로 수계를 받았다.

혜철은 신라에서 배운 바에 만족하지 않고 당나라로 가기로 결정했다. 당 헌종(憲宗) 원화(元和)9년(814)에 혜철은 당나라에 도착하여 공공산(龔公山) 지장(智藏)의 문하에서 선종을 배웠다. 지장선사는 혜철의 굳은 의지를 알고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 비밀리에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혜철이 문하로 들어 온 해에 지장선사는 원적했다. 후에 혜철은 서주(西州) 부사사(浮沙寺)로 가서 3년간 대장경을 연구했다. 당 문종 개성(開成)4년(839) 혜철은 귀국하여 신라 조정에서 환영과 중시를 받았다. 후에 혜철은 무주(武州) 곡성군(谷城郡)에서 대안사(大安寺, 혹은 泰安寺)를 세우고 지장선사의 선법으

92) 『조당집』권17

로 중생을 교화하기 시작했다. 혜철은 동리산문을 개산했고, 제자로 도선(道洗)과 여선사(如禪師) 등이 있다.

4) 무염과 성주산

무염(無染)의 생애는 『조당집』과 최치원(崔致遠)이 작성한 『유당신라국고양조국사교시대낭혜화상일월보광지탑비명병서(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誡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등에 보인다.

무염선사는 성이 김씨로 신라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다. 조부는 주천(周川), 부친은 범청(范淸)이고 시호는 대낭혜(大朗慧)이다. 신라 애장왕(哀莊王) 원년(800)에 출생했다.⁹³⁾ 어려서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고 불교와 인연이 있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⁹⁴⁾ 먼저 오색석사(五色石寺)에서 당나라에서 구법했던 법성(法性)선사의 문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년간에 모든 것을 배우게 되었다.⁹⁵⁾ 법성선사는 “지금 내게 더 배울 것은 없다.”⁹⁶⁾라고 하고 당나라로 가서 구법을 하도록 권유했다. 무염은 곧장 당나라로 가지 않고 부석사 석등(혹은 석징)대사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배웠다. 석등대사 역시 그에게 당나라로 가서 구법하기를 권유했다. 후에 무염은 친우 도량(道亮)과 함께 사절단을 따라 당나라로 향했다. 당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위협을 만나 무염과 도량은 표류하여 검산도(劍山島, 지금의 흑산도)에 도착했다. 장경(長慶) 초년(821)에 다시 신라 왕자 김흔(金昕)의 사신단을 따라 당나라로 향하여⁹⁷⁾ 산동반도의 등래에 도

93) 원래 사료에서는 기재된 내용이 없었으나 최치원이 지은 『비명(碑銘)』에 의하면 그는 문덕(文德) 초년(888)에 원적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즉 89세에 원적했다고 하니 그가 800년에 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해가 애장왕(哀莊王) 원년이다.

94) 『비명』에서는 13세에 출가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조당집』에서는 12세에 출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조당집』 권17, p.570 참조.

95) 최치원,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誡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조선금석총람』, (二) 新羅時期, p.75

96) 同上

97) 『삼국사기』 권10에 신라 헌덕왕(憲德王) 17년(825) 5월 왕자 김흔(金昕)을 당나라 조공

착했다. 먼저 종남산 실상사(至相寺)에 도착하여 잡화(雜花)에 관한 강연을 들은 후 만난 한 노인이 “물건에 대한 욕심을 멀리하면 그가 바로 부처가 아니겠는가!”⁹⁸⁾라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후에 그는 낙양 불광사(佛光寺)의 여만(如滿)선사에게 도에 대해 질문했다. 마조도일을 계승했고 향산(香山) 백낙천(白樂天)의 친구였던 여만선사는 무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당신과 같은 신라 승려를 처음 보았소. 후일 중국이 선종을 잃어버리면 장차 동방에서 그것을 찾아야겠소!”⁹⁹⁾라고 했다. 여만선사의 인정은 받은 무염은 마조도일의 제자인 마곡산(麻谷山) 보철(寶澈)선사를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 보철선사는 무염에게

“昔吾師馬和尚訣我曰 …… 今授若印 異日徒中有奇功可封者封之 無使剋復雲. 東流之說 盖出鉤識 則彼日出處 善男子根殆熟矣. 若得東人可目語者 畎道之 俾惠水不冒於海嶼 爲德非淺. ‘師言在耳 吾善若徠 今印焉 俾冠禪侯於東土 往欽哉! 則我當年作江西大兒 後世爲海東大你 其無慚先師矣乎!’¹⁰⁰⁾

라고 했다. 무염은 여러 스승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오래지 않아 보철선사가 원적하자 무염은 마곡산을 떠나 수행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동방대보살(東方大菩薩)’이라 칭송했다.

회창(會昌)5년(845, 『조당집』에는 회창6년이라 기록되어 있다) 무종의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무염을 칙명에 의해 20여 년간의 구법생활을 끝내고 신라로 귀국했다. 무염은 귀국 후에 정부와 불교계의

사절로 보냈다는 기재내용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 p.143 참조. 『삼국사기』에 따르면 헌덕왕13년(821) 왕자를 당나라에 보낸 사실이 없다. 따라서 무염이 당나라에 도착한 시기는 보력(寶歷) 초년(825)이라 생각된다.

98)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諭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p.75

99) 同上

100) 同上

환영과 중시를 받았다. 그에게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많았다.¹⁰¹⁾ 이는 신라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그가 머무를 곳을 찾을 때 예전에 당나라로 같이 동행했던 왕자 김흔이 조부 김인문(金仁問)에게 부탁하여 웅천주(熊川州) 곤우(坤隅)의 사찰을 무염에게 증정하라고 부탁했다. 무염은 847년에 이 사찰에서 머물면서 도를 전했다. 후에 문성왕(文聖王)은 그에게 감탄하며 성주사로 옮기길 요청하고 성주사를 대흥륜사(大興輪寺)에 이름을 속하도록 했다. 흥륜사는 신라 황실에서 만든 사찰로 경상북도 경천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법흥왕(法興王)15년(528)에 이차돈(異次頓)이 기적을 일으켜 신라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될 수 있었다. 이차돈을 후하게 장사 지내고 자추사(刺楸寺)를 세웠다. 후에 법흥왕21년 사찰을 다시 크게 세웠다. 진흥왕5년(544) 이 사찰의 이름을 대흥륜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흥륜사는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 대전에는 10성을 조각했다. 즉 동쪽에는 아도(我道), 염축(厭觸, 이차돈), 혜숙(惠宿), 안함(安含), 의상의 조각이 있다. 서쪽에는 표훈(表訓), 사과(蛇巴), 원효(元曉), 혜공(惠空), 자장의 조각이 있다. 또한 역대로 불교에 독실한 군주가 찾던 곳으로 중요한 사찰들을 이름을 대흥륜사에 적었다. 이는 대흥륜사에 이름이 있는 사찰은 군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라는 명예가 생겼다. 성주사가 대흥륜사에 이름을 적은 것은 무염과 성주사가 신라에서 명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후 헌안왕(憲安王)과 경문왕(景文王)은 무염에 대한 존경이 더욱 커졌고 872년 가을 경문왕은 무염을 왕궁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열었다. “卿相延迓 與謀不暇 士庶趨承 欲去不能 自是國人皆認衣珠 隣叟寵窺 庶玉焉.”¹⁰²⁾ 이는 경문왕이 무염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

101) 同上

102) 同上

니라 그의 뜻을 존중하여 억지로 수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876년 경문왕은 예감이 이상하여 무염에게 수도로 오라는 칙명을 내렸다. 무염은 이에

“山僧足及王門 一之謂甚 知我者謂聖住爲無住 不知我者謂無染爲有染乎! 然願與吾君有香火因緣 忉利之行有期矣 盍就一訣.”¹⁰³⁾

라고 했다. 신하와 수행 사이에 무염은 많은 모순점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모순점은 신라 승려에게 드문 현상을 아니었다. 불교가 전해진 초기에 신라는 신라의 고유사상과 중국의 유교, 도교가 서서히 융합하면서 점차 토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며 신라 불교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호국불교로 변화하였다. 신라 정부는 이런 불교를 중시하여 신라 불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신라 승려는 국가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이러한 관계는 국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신라 승려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도 했다. 불교와 승려는 과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져야 했고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충돌할 때도 있었다. 신라 불교는 이런 충돌과 모순되는 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다. 진평왕(眞平王)30년, 고구려가 신라를 침략했다. 진평왕은 수나라의 군사를 빌려 고구려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원광에게 수나라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했다.

“光曰：‘求生存而滅他 非沙門之行也 貧道在大王之土地 食大王之水草 敢不惟命是從!’ 乃述以聞.”¹⁰⁴⁾

103) 同上

104) 『삼국사기』권4, p.61

비록 승려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지만 원광은 국가의 요구를 따르게 되었다. 이런 정치와 종교의 충돌과정에서 신라 승려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장 역시 그러하다. 자장은 어려서 고행을 하면서도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는 신라로 귀국한 후 심지어는 대대각간(大大角干)에 봉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 통치자의 의도대로 종교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신라의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국가정치와 관계가 깊었다. 때문에 신라 불교는 신라 정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았고, 신라 승려들은 국가정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무염 역시 종교와 정치의 사이에서 한 쪽만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최치원의 비문에 따르면 헌강왕은 예전에 무염에게 정치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고, 그의 도움을 바랬다. 그러나 이 당시 무염은 정치과 관심이 없어 거절한 그 다음날 바로 성주사로 돌아갔다. 후에 무염은 헌강왕에게 진언을 한 적이 있고, 당 희종(僖宗) 중화(中和) 초년(881)에 수도로 가서 헌강왕을 만났다. 헌강왕의 계승한 안강왕은 즉위한 후 무염을 초청했다. 무염은 나이와 병을 핑계로 거절했다. 헌강왕은 일찍이 무염이 병을 핑계로 거절하자 의원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염은 문덕(文德)원년에 원적했다. 무염이 원적하자 온 나라의 사람들이 슬퍼했다.¹⁰⁵⁾ 무염의 시호는 태낭혜(太朗慧, 혹은 대낭혜)이고 안장된 탑의 이름은 백월보광(白月葆光)이었다. 무염은 주로 성주산에서 불법을 전파했고 문하의 제자로는 원장(圓藏), 대통(大通), 승량(僧亮) 등 2천여 명이고 그가 개산한 성주산 문은 선종구산의 하나가 되었다.

105) 최치원, 『有唐新羅國故兩朝國師教諭大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銘并序』, 『조선금석총람』 (二) 新羅時期

5) 범일과 사굴산

범일에 관한 기록은 『조당집』권17, 『삼국유사』권3, ‘洛山二大聖’에서 보인다. 『조당집』의 기록에 의하면 범일은 귀족집안출신으로 성은 김씨고 조부 술원(述元)은 명주도독(溟州都督)을 역임했다. 모친 지씨(支氏)는 대대로 귀족인 집안출신으로 당시 부덕(婦德)의 규범이라 칭송 받았다. 원화5년(810) 범일이 출생했을 때 머리에 상투 모양이 있어 다른 이와는 모습이 달랐다고 한다. 15세에 출가하여 산에서 수행을 했고 20세에 수도에서 수계를 받았다.

대화(大和)연간(827~835)에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기로 결심하여 왕자 김의종(金義琮)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했다. 당나라에 스승을 찾던 중 ‘동방보살’¹⁰⁶⁾이라 불리는 제안(齊安)의 문하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제안의 문하에서 6년간 수행하고 후에 약산(藥山) 유엄(惟儼)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제안과 유엄의 심득을 얻은 범일은 회창4년(844)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상산(商山)으로 피신했다. 상산에서 수행을 하면서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범일은 소주(韶州) 예조사탑(禮祖師塔)으로 갔다.

위에서 의상이 낙산에 관음도량을 세운 사실을 언급했다.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와 범일이 낙산과 관음보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後有元曉法師 …… 欲求瞻禮 初至於南郊水田中。有一白衣女人刈稻。師戲請其禾。女以稻荒戲答之。又行至橋下。一女洗月水帛。師乞水。女酌其穢水獻之。師覆弃之。更酌川水而飲之。時野中松上有一青鳥。呼曰休醒□和尚。忽隱不現。其松下有一只脫鞋。師既到寺。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只。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故時人謂之觀音松。 …… 後有嶺山祖師梵日。太和年中入唐。到明州開國寺。有一沙彌截左耳在衆僧之末。與師言曰。吾亦鄉人也。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師他日若還本國。須成吾舍。

106) 『조당집』권17, p.566

既而遍游叢席。得法於鹽官(事具在本傳)以會昌七年丁卯還國。先創崛山寺而傳教。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夜夢昔所見沙彌到窓下。曰。昔在明州開國寺。與師有約。既蒙見諾。何其晚也。祖師驚覺。押數十人到巽嶺境。尋訪其居。有一女居洛山下村。問其名。曰德養。女有一子年才八歲。常出遊於村南石橋邊。告其母曰。吾所與游者有金色童子。母以告於師。師驚喜。與其子尋所游橋下。水中有一石佛。昇出之。截左耳頰前所見沙彌。卽正趣菩薩之像也。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洛山上方吉。乃作殿三間安其像。”¹⁰⁷⁾

신화적인 이야기의 실체에 관한 고증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도량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와 신비함이 더해지게 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낙산 관음도량의 창건에 의상, 원효, 범일의 세 이야기가 모두 있다. 근래에 어떤 학자가 낙산 관음도량에 대해 다른 관점을 주장했다.¹⁰⁸⁾ 이 주장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관음도량의 창건은 후대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덧붙인 경우가 있다. 이는 후대에 도량을 만든 노력과 도량의 창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 전설이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몇백 년 후에 거의 정론이 된다. 즉 낙산 관음도량의 창건에 의상, 원효, 범일 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승려가 낙산 관음도

107) 『삼국유사』 권3, “洛山二大聖”, p.996

108) 진경부 선생은 의상의 생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최치원의 『의상휘일문(義湘諱日文)』에서 의상이 세운 사찰과 관음신앙에 대해 볼 수 있다. 『송고승전』에서는 이런 기재내용이 없다. 『삼국유사』에서는 의상과 범일에 관한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 『조당집』에 범일의 전기에서도 기록이 없다. 낙산사는 본래 고구려의 영토에 있었다. 의상이 신라로 귀국한 시기는 670년이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안정을 회복한 시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의상이 이 때 낙산사를 세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낙산사의 건립은 의상과는 상관없고 고려 시기에 관음도량인 보타산(普陀山)의 영향을 받은 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주장한다. 『中韓佛教關係一千年』 p.353 참조.

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회창6년(846) 범일은 해로로 신라에 귀국했다. 대중5년 1월에 범일은 명주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굴산사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경문왕, 헌강왕, 안강왕 등은 범일을 초청했으나 범일은 지병이 있어 갈 수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범일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사찰에서 40여 년 동안 생활하다가 당 희종 문덕2년¹⁰⁹(889) 5월 향년 81세로 원적했다. 시호는 통효(通曉)이고 연휘탑(延徽塔)에 안장되었다.

범일의 문하는 많았다. 위에서 자장이 석남원을 세워 문수보살을 모셨는데, 후에 범일의 제자인 신의(信義)가 이 사찰을 발전시켜 월정사(月精寺)가 되었다. 오대산은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명산으로 불법이 발전했고 다른 제자인 낭공(朗空)대사와 낭원(朗圓)대사의 행적이 있는 등 선종이 발달하여 후에 사굴산문으로 명성이 높아졌고 선문구산의 하나가 되었다.

6) 도윤과 사자산

도윤(道允)은 기록은 『조당집』권17 등에 보인다. 도윤은 정원14년(798)에 신라 귀족가정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불교와 인연이 있어 18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귀신사(鬼神寺)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후에 “가르침의 여러 방법에 어찌 깨달음만 하겠는가?”¹¹⁰라고 깨달아 선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장경5년(825)¹¹¹ 사신단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한 후 마조도일의

109) 文德은 회종(僖宗)의 연호이다. 회종은 황제로 등극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888년 2월에서 12월까지 재위했다. 소종(昭宗)은 즉위한 해는 회종의 연호를 사용했고 다음해에 용기(龍紀)라는 연호를 사용했다.(『資治通鑑』권257~258 참조) 즉 연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이 시기는 889년이 맞다.

110) 『조당집』권17, p.584

111) 목종(穆宗)은 장경(長慶)4년 11월에 사망했다. 경종(敬宗)은 즉위한 다음해(825)에 연호를 보력(寶歷)으로 바꾸었다.(『資治通鑑』권242 참조) 그래서 기재 내용은 '경종

제자인 보원(普愿)을 찾았다. 도운을 만난 보원은 “나의 깨달음이 동쪽으로 가겠구나!”¹¹²⁾라고 감탄했다. 회창7년(847)¹¹³⁾에 신라로 귀국했다. 귀국 후 먼저 풍악산(楓岳山, 금강산)에 도착했고 후에 쌍봉사(雙峰寺)로 갔다. 후에 쌍봉대사라는 호칭이 생겼다. 함통(咸通)9년 4월(868) 갑자기 제자들에게 “삶에는 끝이 있으니 나는 멀리 갈 것이다. 안서운곡(安栖雲谷)에서 기다리며 법등을 영원히 밝히겠다.”라고 한 후 원적했다. 시호는 철감(澈鑑)이고, 징소탑(澄昭塔)탑에 안장되었다. 문하의 제자 중에 절중(折中)등이 있고 사자산문을 개산하여 선문구산의 하나가 되었다.

7) 현옥과 봉림산

현옥(玄昱)에 관한 기록은 『조당집』권17에 보인다. 현옥은 김씨로 정원3년(787)에 신라 귀족 가정에서 출생했다. 부친 염균(廉均)은 병부시랑을 역임했다. 어려서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 원화3년(808) 21세에 수계를 받았다. 장경4년(824) 당나라에 도착하여 구법을 했다.¹¹⁴⁾ 당나라에서 두 사찰에 머물렀고 후에 왕자 김의종을 따라 신라로 귀국했다.

개성3년(837) 신라에 귀국한 후 먼저 실상사에서 머물렀다. 민애왕(閔哀王), 신무왕(神武王), 문성왕(文聖王), 헌안왕(憲安王) 등은 모

보력원년'이라고 해야 옳다.

112) 『祖堂集』권17, p.584

113) 무종(武宗)은 회창(會昌)6년(846) 3월에 사망했다. 선종(宣宗)은 즉위한 다음 해(847)에 연호를 대중(大中)으로 바꾸었다.(『구당서본기(舊唐書本紀)』권18, 『資治通鑑』권248. 참조) 때문에 ‘선종 대중원년’이라 해야 한다.

114) 『조당집』에 현옥(玄昱)은 장경(章敬)을 계승했고 원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我今歲內法緣當盡 你等宜設無遮大會 以報百岩傳授之恩 終吾志也.”(『조당집』권17, p.563) 『경덕전정록』권7에 장경은 원화(元和)13년(818)에 원적했다. 하경송 선생은 사료를 조사한 결과 장경은 원화10년(815)에 원적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불교사』상권, p.313 참조), 장경의 원적한 시간으로 볼 때 현옥이 당나라에 온 시간은 짧으면 6년 길면 10년이다. 때문에 현옥이 당나라에 도착한 시간이 잘못 될 수 도 있다. 아마 현옥은 원화 초기에 당나라에 도착하여 장경의 문하에서 수행했을 것이다.

두 그에게 존경을 표했으며 현욱은 여러 번 왕궁에서 강연을 했다. 840년 현욱은 경문왕의 명을 받고 혜목산(慧目山) 고달사(高達寺)에서 수행했다. 당 희종 함통9년(868) 향년 82세로 원적했다. 시호는 원감(圓鑑)이다. 제자 심희(審希)가 어리지만 불경 암송을 잘하여 현욱은 9살인 심희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심희는 수년 동안 현욱에게 배웠으며 현욱은 원적하기 전에 심희에게 법을 전했고 심희는 후에 봉림산에 사찰을 세워 불법을 전파했다. 이 사찰은 크게 융성하여 봉림산문을 개설했다.

한국 불교는 ‘오교구산(五教九山)’설이 있다. 여기서 구산은 선문구산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7산을 빼고 회양산과 구미산이 있다. 회양산 봉암사(鳳岩寺)는 신라 지증(智證)선사가 개설했다. 그는 당나라로 구법을 떠나지 않았고¹¹⁵⁾ 후에 고려 초기 정진(靜眞)국사가 봉암사를 중건하여 회양산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정진은 비록 당나라에서 구법을 했지만 그 시기는 이미 고려 시기이기에 본문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 수미산파는 이엄(利嚴)선사가 개설했다. 이엄선사는 일찍이 중국에서 구법을 했으나 수미산파 역시 고려 초기에 개설했기에 본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신라선종 종파와 중국 종파 간의 전승관계

상술한 바와 같이 신라 선문구산과 중국 선종의 전승관계에 대해 가지산 체징의 사조인 도의, 실상산의 홍척, 동리산의 혜철 등은 모두 서당지장의 제자이다. 사굴산의 범일은 제안의 제자이고, 성주산의 무염은 보철, 사자산의 도윤은 보원, 봉림사의 현욱은 장경(章敬)에게서 전승되었다. 서당지장, 제안, 보철, 보원, 장경은 모두 마조도

115) 최치원의 『大唐新羅國故鳳岩山寺教諭智證大師寂照之塔碑銘(并序)』에 따르면 법통의 계승은 다음과 같다. 쌍봉도신(雙峰道信)-법랑(法朗)-신행(信行)-준범(遵範)-혜은(惠隱)-지증(智證)

일의 제자이다. 마조도일은 회양을 계승했고, 회양은 혜능을 계승했다. 회양산의 지증은 도신에서 비롯되었고 수미산의 이엄은 도응(道膺)을 계승했는데, 이들은 혜능의 제자인 청원행사의 계통이다.¹¹⁶⁾ 즉 신라 선문구산 중 7산이 강서 지역의 선종을 계승했다. 이로 볼 때 당대 후기 강남 지역에서 선종의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5. 당나라에서 구법활동을 한 신라 승려들의 영향

신라 승려가 중국에서 구법활동을 했던 시대는 당대만이 아니다. 그러나 당대가 이들 활동의 최고였던 시기다. 이런 현상은 많은 원인이 있다. 즉 신라 불교는 당 초에 이미 발전했다. 그러나 발전한 초기에 해당하여 불경, 불상, 계율 등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신라 불교는 더 발전할 여지가 많았다. 신라는 국가의 발전과 정치적인 수요에 의해 불교를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즉 국가 전체가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점차 고조되었다. 중국 불교는 수백 년간 발전하면서 당대에 최고 시기가 되어 종파가 형성되고 다양한 주장들이 출현했으며 불교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넓어졌다. 때문에 신라 승려들은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 온 것이다. 또한 당대 경제의 발달, 문화의 번영은 주변국가에 비해 그 차이가 컸기에 주변 국가들은 당나라의 각종 제도와 법률, 종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나라는 내부적으로 안정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신라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에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다. 때문에 신라 승

116) “구산법계도(九山門法係圖)”는 중길공(中吉功) 편, 『해동지불교(海東之佛敎)』, 日本國書刊行會, 1974, p.24

혹은 황심천, 『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敎的交流-新羅來華佛敎僧侶考』, 『世界宗教研究』, 1989. 1. 참조.

려들은 당나라에서 구법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크게 파급되었다.

신라 승려의 구법활동으로 신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신라 승려는 신라 불교, 문화, 국가 정치발전에 대해 모두 큰 역할을 했다. 당 초기에 신라 불교의 발전이 막 시작하여 점점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 여러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구법활동을 하면서 중국 불교의 불경이 신라로 전해졌고 신라에서는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마련되었다. 또한 중국 불교의 교리와 학설들이 신라로 전해졌고 신라에서는 이런 영향으로 독자적인 종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신라 불교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삼국지(삼국지)』권30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신라는 문화는 비교적 낙후했다는 기록이 있다.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塚 其戶在上 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其葬有椁無棺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以嬰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其人性強勇 魁頭露紛 如戾兵 衣布袍 足履革蹻蹻。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錘之 通日囉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飲酒晝夜無休。…… 信鬼神 ……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無他珍寶。…… 其男子時時有文身。”¹¹⁷⁾ “無文字，刻木爲信，語言待百濟而後通焉。”¹¹⁸⁾

즉 고구려와 백제는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가 발달했다.

117) 『삼국지』권30, '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118) 『양서(梁書)』권54

“高句麗 ……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 善寇鈔。其國有王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伏臺丞 使者 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¹¹⁹⁾

7세기 중반에 이르러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었다. 이 역시 신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라는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에 불교와 본래의 토속적인 사상이 융합되면서 예를 들면 화랑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결과로 백성들을 교화되었고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나라에서 구법을 하고 돌아온 승려들이 민심을 교화하고 안정시켰으며 국가의 단결력을 높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의 천문, 예술, 복장, 역법 등 선진적인 문물을 신라에 소개함으로써 신라가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¹²⁰⁾ 물론 중국에서 구법을 하고 돌아온 모든 승려들이 전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승려의 역할로 신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이런 신라 승려들은 중한 문화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었다.

신라 승려들은 중국불교의 교리와 종파의 발전, 그리고 불교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에서 언급한 원측과 자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혜초, 순경(順憬), 신방(神昉) 등 승려들은 중국의 번역활동에 참가하여 중국의 불교발전에 기여했다.¹²¹⁾ 또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신라 승려들의 구법활동을 하면서 중국 불경을 모으고 보존하는 했다. 이들은 신라로 귀국

119) 『삼국지』권30, ‘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120) 『삼국사기』권8, “高僧道證自唐回 上天文圖.” p.108

121) 진경부, 『朝鮮入學僧與唐代的佛經翻譯』, 『人文雜誌』, 1994.2. pp.105~108 ; 『中韓佛敎關係一千年』, pp.78~87

하면서 다량의 불경을 가지고 왔기에 신라의 불경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고 신라 불교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밖에 중국 불교에서는 후대에 일부의 경전이 유실되기도 했다. 특히 회창법난(會昌法難) 후 중국의 불경은 점차 사라져 어떤 불경은 완전히 유실되기도 했다. 이런 유실된 불경 중에는 신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경전도 있어 후에 중국에서는 신라의 불경을 통해 유실된 불경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 불교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중국 불교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면 오대 시기 중국은 법화경 등 불경이 일부가 유실되어 완전하지 못하여 고리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고려 승려 제관(諦觀)은 이런 불경을 가지고 중국에 왔기에 천태전집(天台典集)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에서 천태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¹²²⁾ 북송 시기에 화엄경은 일부가 누락되었다. 고려 승려 의천(義天)이 송나라에 완벽한 화엄경을 가지고 왔기에 송대에 화엄경을 복원할 수 있었다.

“初 華嚴一宗疏鈔久矣散墜 因義天持至咨決 逸而復得. 左丞蒲宗孟撫杭 愍其苦志 奏以惠因(寺)易禪爲教 命公(淨源)主之. 義天帶國 以金書『華嚴』三譯本一百八十卷以遺師(淨源) 爲主上祝壽 師乃建閣以奉安之 時稱師爲中興教主. 以此寺奉金書經故 俗稱高麗寺.”¹²³⁾ 즉 “雖夷狄之邦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¹²⁴⁾

신라 승려는 주변 국가와 세계문명의 발전에도 걸출한 공헌을 했다. 신라 승려 중에 일부는 당나라에서 구법을 한 후 일본으로 가서

122) 당시 천태(天台)저작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 시기 고려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서적에 관해 동평(董平), 『天台宗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pp.243~244 참조.

123) 『佛祖歷代通載』 권19 p. 672頁.

124) 『삼국지』 권30, “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불교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삼국 불교의 교류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다. 신라 승려 심상(審祥)은 당나라 현수의 문하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일본의 나라 시대 천평(天平)연간(729~748)에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전했다. 일부 신라 승려는 다시 인도로 구법을 위해 향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혜초는 인도에 중국 불경을 전하는 등¹²⁵⁾ 당나라와 인도의 문화 교류에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제3절 신라와 당나라 간의 교통

신라 승려가 당나라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의 발전이다. 당 초기에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서로는 백제, 북으로는 고구려와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여 당나라와의 육로를 통한 교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신라와 당나라의 교통은 주로 해로를 이용했다. 승려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선박이 없었기에 사신단을 따라 동승하거나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향했다. 때문에 당나라로 가는 신라 승려들의 활동은 양국의 항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것이 신라 승려들이 당나라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대 이전에 항해기술은 발달하지 못하여 안전성도 낮고 항해능력 또한 좋지 못했다. 이 시기의 항로는 기본적으로 높은 파도를 피하거나 보급을 위해 연안이나 가까운 섬들로 이동했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이용했던 항로는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로 운항했다. 이

125)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慧業法師者, 新羅人也. 在貞觀年中往游西域. ……淨因檢唐本 忽見『梁論』下記云: ‘在佛齒木樹下新羅僧慧業寫記’”, p.42

지역은 해협이 좁고 북으로 향하면 섬들이 있어 보급에 편리했다. 산동반도의 등주에서 출발하면 요동반도의 도리진(都里鎭, 지금의 여순) 부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에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항해기술의 발전은 이런 항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즉 때로는 산동반도에서 출발하여 직접 한반도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산동반도에서 요동반도로 향하는 항로가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6~7세기에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 많은 수군이 이 항로를 이용했다.¹²⁶⁾ 일본은 중국과 교류를 시작하던 시기에 이용하던 노선도 이 항로였다.¹²⁷⁾ 즉 오랜 기간 동안 이 항로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었다. 당 태종 시기에 여러 번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에도 모두 이 항로를 이용했다.¹²⁸⁾

항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항로는 여러 번 변화하여 점점 섬과 해안선에서 멀어졌다. 산동반도 북부 혹은 동부의 등주, 내주(萊州), 문등(文登) 등 지역에서 한반도 서남부로 갈 수 있었다. 당 고종 시기에 이르러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당군의 출발지는 산동반도 동부였다.¹²⁹⁾ 이는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의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로가 새로 만든 항로는 아니었다. 『중국고대항해사(中國古代航海史)』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북조 시기 중국과 백제의 해상교통은 장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산동반도의 동부로 북상한 후에 다시 황해를 건너 한반도에 도달하기도 했

126) 『자치통감』권178, “開皇十八年”과 “煬皇帝上之天下大業七年”

127) 『隋書』권81, 大業4年 “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身冉』羅國 經都斯麻國 乃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 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 以爲夷洲 疑不能明也. 又經十余國 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 皆附庸於倭.”

128) 『자치통감』권197, 정관18년 “自萊州泛海趨平壤” 『자치통감』권198 정관21년 “乘樓船自萊州泛海而入” 『자치통감』 정관22년 “將兵三萬余人及樓船戰艦自萊州泛海以擊高麗”

129) 『자치통감』권200, 顯慶五年 “蘇定方引軍自成山濟海, 百濟据熊津江口以拒之.” 성산(成山)은 현재 산둥 영성시(榮城市) 영성만(榮城灣) 북쪽에 있다.

다.¹³⁰⁾ 항로의 변화는 비록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항로에서 약간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섬들에서 보급을 받았다. 이 해역의 특징은 남북 방향으로 해류가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조선기술과 항해기술의 발전이 항해속도를 높인 중요한 원인이고 기존의 항로를 단축한 것은 아니었다.¹³¹⁾ 일반적으로 보통의 선박은 모험을 하지 않았기에 산둥반도 등주에서 출발하여 요동반도를 경유하여 한반도에 도착하는 기존의 항로가 여전히 중요한 항로였다.

백 년 후 당 덕종 시기에 재상 가담(賈耽)이 항로에 관한 책을 저술했다.

“嗜觀書 老益勤 尤悉地理. 四方之人與使夷狄者見之 必從詢索風俗 故天下地土區產 山川夷嶺 必究知之. …… 耽乃繪布隴右 山南九州島 且載河所經受爲圖 又以洮湟甘涼屯鎮領籍 道里廣狹 山險水原爲『別錄』六篇 『河西戎之錄』四篇 上之. 詔賜幣馬珍器. 又圖『海內華夷』廣三丈 從三丈三尺 以寸爲百里. 并撰『古今郡國縣道四夷述』…… 又著『貞元十道錄』.”¹³²⁾

그의 기록은 모두 각 지방 사람에게 얻은 내용을 근거로 했기에 매우 정확하여 “혹시 그 나라 사람에게 지도의 내용을 물어보아도 모두 사실만을 얻을 수 있었다.”¹³³⁾ 그의 저작은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당시 당나라와 주변의 국가 사이에 있었던 7개의 교통로는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다. 즉 “주변국가로 가는 길은 변경지역에 몰려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7개이다.”¹³⁴⁾ 그중에 “등주에서 해로로 고려와 발해로 가는 해도가 있었다.”¹³⁵⁾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30) 손광기(孫光圻), 『中國古代航海史』, 北京, 海洋出版社, 2005 pp.168~170

131) 『中國古代航海史』, p.171

132) 『신당서』권166

133) 『신당서』권166

134) 『신당서』권48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三百里。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二百里。東傍海壖 過青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八百里。乃南傍海壖 過烏牧島 貝江口 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又過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 千里至鴨淙江唐恩浦口。乃東南陸行 七百里至新羅王城。”¹³⁶⁾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 고종 시기에 당군은 산둥반도 동부의 성산(成山) 부근에서 직접 신라에 도착했고 가탐의 기록에서 보면 안진 등의 이유로 산둥반도 북부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항로는 여전히 중요한 항로였다. 등주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해상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¹³⁷⁾ 또한 신라와 일본의 사절단이 도착하는 곳도 이곳이었다.¹³⁸⁾ 『당대화상동정전(唐大和上東征傳)』과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당대 중기 많은 일본 선박들이 주로 강절 일대에 도착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인이 황해항로를 주로 이용했기에 이 항로는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일본의 항로가 남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정치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일본과 긴장된 관계가 되었다.¹³⁹⁾ 동시에 일본은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방의 약간의 섬들은 일본에 귀속되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135) 『신당서』권48

136) 『신당서』권48

137) 자세한 참고문헌으로는 번문예(樊文禮), 『登州與唐代的海上交通』, 『海交史研究』, 1994. 2.; 『唐代“登州海行入高麗道”的變遷與赤山法華院的形成』, 『中國歷史地理論叢』, 2005. 4.; 진상승(陳尙勝), 『唐代的新羅僑民小區』, 『歷史研究』, 1996. 1.; 유희위(劉希爲), 『唐代新羅僑民在華社會活動的考述』, 『中國史研究』, 1993. 3.; 『中國古代航海史』, p.263 참조

138) 신라가 통일한 7세기 말부터 약 2백 년간 26차례 사신을 당나라에 보냈다. 사신단의 경로는 행상을 이용해 산둥 등주에 도착했다. 『발해국장편(渤海國長編)』의 기록에 의하면 ‘新羅使必由海道以達登州 又爲向來之程 …… 渤海之使即在一地登岸 再由此轉赴東京’(『隋唐時期登州港的歷史地位淺析』, 『唐史論叢』 第9輯, 三秦出版社, 2007 참조)

139) 『신당서』권220 동이전 “新羅梗海道 更由明 越朝貢.”

은 이 시기에 항해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안전하게 오랜 시간 동안 섬들 떠나서 항해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감진(鑑眞)은 6번이나 직접 동지나해를 건너 일본에 가려고 했지만 3번은 풍랑과 암초 등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항로의 성립은 선박이 항해한다고 해서 곧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주가 중심지적인 역할은 송 인종 천성(天聖)연간에 가서야 비로소 명주(明州, 지금의 영파)가 중국 항해의 중심지가 되었다. 천성 이전에 (고려)사신은 등주에 도착했고 희녕(熙寧) 이래 모두 명주에서 비롯되었다.¹⁴⁰⁾ 명주는 후에 중국 교통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어 송대 강남 경제의 발전과 강남 지역의 안정, 그리고 송나라의 남천과 모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등주에는 많은 신라인, 신라관, 신라방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 신라 승려가 생활하던 사찰이 있었다. 9세기 상반기에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즉 등주 문등현 적산촌(赤山村)에 법화원(法花院)이란 사찰이 있었는데, 신라원(新羅院)이라 부르기도 했다. 사내에는 30여 명의 승려가 생활했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 승려였다. 신라원은 신라인만을 위한 법회가 열리기도 하여¹⁴¹⁾ 부근지역의 신라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들은 사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 들른 승려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즉 많은 승려들이 이곳을 거쳐 당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라로 귀국하기도 했다.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140)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권339

141) (日)엔닌(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의 ‘개성4년 11월 16일’에서 “山院首講法花經……十方衆僧及有緣施主皆來會見。……其俯道俗老少尊卑 總是新羅人。” (日)엔닌,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72

후 그들 사이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되어 교류가 더욱 많아졌다. 동시에 항해기술 역시 발전하여 9세기에는 새로운 항로가 만들어졌다. 이 항로는 중국 황해와 동남 연안의 지역, 예를 들면 해주(海州), 초주(楚州), 양주(揚州), 소주(蘇州), 심지어 명주 등에서 황해를 곧장 통과해 신라에 도달했다. 이 항로는 후에 점점 중요해졌다. 이 시기가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민간 상업이 최대로 발전한 시기였다.

이 밖에 많은 선박들은 장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먼저 북상하여 산둥반도의 성산 부근을 경유하여 신라에 도착했다.¹⁴²⁾ 엔닌은 초주에서 출발하여 신라 선박을 타고 산둥반도에 도착한 후 소주에서 일본으로 가는 신라 선박으로 갈아타고 일본에 도착했다. 엔닌이 저술한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산둥반도에서 장강 하구까지의 연해에서 신라와 중국 선박을 자주 보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일대 연해는 산둥반도 등주 유산촌(乳山村), 적산촌에서 남쪽으로 가서 밀주(密州), 사주(泗州) 연수현(漣水縣) 등 지역에서 모두 신라인들의 거주하는 신라촌, 신라방 등에서 왕래하는 선박에게 물자와 편의를 제공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해상교통에서 당나라의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은 달랐다. 이를 두 항로로 나눌 수 있다. 즉 등주, 성산 등 산둥반도 연안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발해선(渤海線)’과 해주, 초주, 양주, 명주 등 중국의 동남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황해선(黃海線)’이 있었다. 이 두 항로는 또 각각 두 교통로가 있다. 즉 발해선은 산둥반도에서 요동반도로 가는 ‘북선’과 황해를 직접 통과하는 ‘남선’이 있고, 황해선은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항해하는 ‘북선’과 직접 황해를 통과는 ‘남선’이 있다.

142) 『中國古代航海史』, p.217

다음은 신라 승려가 당나라로 오는 노선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진경부(陳景富) 선생은 『서안여해동(西安與海東)』에서 각종 사서와 비문에 기재된 승려들의 도착지를 정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기록에 따르면 혜륜은 당 초에 민월(閩越, 지금의 복건)에 도착했다.

『海東故神行禪師之碑并序』의 기록을 따르면 신행(神行)선사는 창주(滄州)의 건너편에 도착했다.

『新羅國故智異山雙溪寺眞覽禪師碑并序』의 기록을 따르면 혜소(慧昭)는 804년에 사절단을 따라 도착한 후 창주로 가 신감(神鑑)대사를 만났다.

『新羅國大朗慧和尚塔碑銘并序』의 기록을 따르면 무염선사는 821년에 왕자 김흔과 같이 당은포(唐恩浦)에서 출발하여 등주의 부산(叆山)에 도착했다.

『高麗國踊岩山五龍寺法鏡大師之塔碑銘并序』의 기록을 따르면 경유(慶猷)선사는 888년에 사절단과 같이 도착했고 907년 신라로 귀국할 때 무주(武州)의 회진(會津)에 도착했다.

『高麗先覺大師遍光靈塔碑』의 기록에 따르면 형미(迥微)선사는 891년에 사절단과 같이 당나라에 도착했고, 905년에 귀국할 때 평진(平津)의 사벌(舍筏)에서 도착했다.

『高麗彌智山菩提寺大鏡大師塔碑銘并序』의 기록에 따르면 이엄(麗嚴)선사는 892년에 당나라에 도착했고, 909년에 귀국할 때 무주의 승평(升平)에 도착했다.

『高麗慧目山高達院元宗大師塔碑銘并序』의 기록에 따르면 탄유(坦幽)선사는 892년에 상선을 타고 당나라에 도착했고, 915년에 귀국할 때 강주(康州) 덕안포(德安浦)에 도착했다.

『高麗須彌山廣照寺眞徹禪師塔碑銘』의 기록에 따르면 이엄선사는 896년에 최예희(崔藝熙)대사와 같이 절강 근강구(鄞江口)에 도착했고, 911년에 귀국할 때 나주(羅州)의 회진(會津)에 도착했다.

『高麗鳳岩寺靜眞國師塔碑銘并序』의 기록에 따르면 의양(竟讓)선사는 900년에 강희(江淮) 지역에 도착했고, 924년 귀국할 때 전주(全州) 희안현(喜安縣)포구에 도착했다.

『高麗開天山淨土寺法鏡大師碑』의 기록을 따르면 원휘(元暉)선사는 906년에 사절단을 따라 절강에 도착했고, 후당(後唐) 동광(同光)2년 사명(四明, 지금 영파 부근)에서 귀국했다.

또한 도착한 지역이 명확한 승려는 혜윤선사, 진철(眞徹)선사, 정진(靜眞)선사, 법경(法鏡)선사 등은 강절 일대에 도착했고 신행(神行)선사, 진람(眞覽)선사 등은 산둥 부근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 말기에 온 승려들은 대부분 동남연해지역에 도착하는데 이는 중원의 정치, 전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신라 사이에 상업무역의 발전은 당나라에 오는 승려에게 크게 편리했다.(동시에 일본 승려가 구법활동을 하기도 편리했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불교에 대한 지지는 표면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한 것이지만 실상 승려들은 신라 정부의 위임을 받고 당나라로 파견되어 구법을 했다. 그렇기에 사절단과 동행하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승려 역시 사절단과 관련되거나 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그들의 선박을 타고 당나라에 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범일선사, 무염선사, 도윤선사, 진경부 선생이 『서안여해동(西安與海東)』에서 인용한 법경대사, 선각(先覺)대사, 진철선사, 원휘선사, 원적(元寂)선사¹⁴³⁾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나라에 가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신라 승려 중에 의상이 당나라로 갔던 노선에 의문이 든다. 지금 다시 간략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고승전』에서는 의상이 “총장2년 상선을 타고 등주

143) 『조당집』권17, p.561 참조

에 도착했다.”와 『삼국유사』에서는 “영휘 초년에 당나라 사신과 같이 타고 잘못 도착하여 양주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의상이 도착한 지역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 하경송 선생은 『한국불교사』에서 모두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당나라 사신의 선박을 탄 경우이다. 둘째는 상선을 탄 경우이다. 셋째는 당나라 사신과 같이 상선을 탄 경우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양주에서 장안까지 등주와의 거리를 비교한다면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양국 사신은 아마도 장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개봉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상은 당나라에 도착한 662년에 사서의 기록을 보면 당나라 사신이 신라에 갔다는 기록이 있다.¹⁴⁴⁾ 그러나 의상은 당나라에 갈 때 신라 정부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에 민간의 상선을 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⁵⁾ 만약 당나라 사신과 같이 선박을 탔다면 아마도 등주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불교사』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인용했다. 즉 의상은 먼저 당나라 사신선을 타고 양주에 도착한 후에 다시 상선을 타고 등주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만약 양주에 도착했다면 등주에서 장안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상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곧장 양주에서 장안으로 가지 않고, 양주에서 등주를 거쳐 종남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상이 탔던 선박의 문제이다. 선박은 사신선이나 상선에 상관없이 의상의 뜻대로 향해한 것이 아니기에 의상은 항로에 따랐을 뿐이다. 만약 의상이 사신선을 탔다면 등주에 내렸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상선을 탔다면 이런 상황에서 상선은 우선 산동반도를 경유하려 강남으로 가는 선박일 수 있다. 그러면 산동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의상이 등주에서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144) 『삼국사기』권6, p.81

145) (日)쿨민일(堀敏一), 『隋唐帝國與東亞』,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p.149

▶ 참고문헌

- (高麗)一然, 『三國遺事』, 大正藏, 第49冊.
(高麗)覺訓 等, 『海東高僧傳』, 大正藏, 第50冊.
(南唐)靜筠禪師 編, 張華 点校, 『祖堂集』,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唐)冥詳 撰, 『大唐故三藏玄奘法師行狀』, 大正藏, 第50冊.
(唐)法藏撰, 『華嚴經探玄記』, 大正藏, 第35冊.
(唐)不空 譯,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大正藏, 第20冊.
(唐)義淨, 王邦維 校注, 『南海寄歸內法傳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5
(唐)義淨, 王邦維 校注, 『大唐西域求法高僧傳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唐)圓照 集, 『代宗朝贈司空大辨正廣智三藏和上表制集』, 大正藏, 第52冊.
(唐)玄奘 譯, 『解深密經』, 大正藏, 第16冊
(唐)釋道宣, 『續高僧傳』, 大正藏, 第50冊.
(梁)釋慧皎, 『高僧傳』, 大正藏, 第50冊.
(宋)道原 纂, 『景德傳燈錄』, 大正藏, 第51冊.
(宋)贊寧, 宣等, 『宋高僧傳』, 大正藏, 第50冊.
(宋)釋慧洪 著, 『林間錄』, 大正藏, 第87冊.
(新羅)崔致遠 撰, 『唐大荐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大正藏, 第50冊.
(元)無寄 撰, 『釋迦如來行迹頌』, 大正藏, 第75冊.
(日)崛敏一, 『隋唐帝國與東亞』,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2
(日)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清)董誥 等編,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韓)智儼, 『唯識和中觀的圓融』, 澳門, 天成國際文化藝術出版社有限公司, 2004
『乾隆池州府志』, 『中國地方志集成』59, 『安徽府縣志輯』,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上海書店, 巴蜀書社, 1998
『三國志』, 『梁書』, 『新唐書』, 『資治通鑑』, 『二十五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金富軾, 孫文范 等 校勘, 『三國史記』,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董志翹, 『觀世音應驗記三種譯注』,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董平, 『天台宗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李映輝, 『唐代佛教地理研究』, 長沙, 湖南大學出版社, 2004

- 林文玉 主編,『唐史論叢』第九輯,西安,三秦出版社,2007
- 白壽彝,『中國交通史』,北京,團結出版社,2007
- 魏常海 編,『韓國哲學思想資料選輯』,北京,國際文化出版公司,2006.
- 朝鮮總督府,『朝鮮金石總覽』,日韓印刷所,1919
- 劉建,『佛教東漸』,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7
- 劉亞丁,『佛教靈驗記研究—以晉唐為中心』,成都,四川出版集團巴蜀出版社,2006
- 呂澄,『中國佛學源流略講』,北京,中華書局,2006
- 聖嚴法師,『日韓佛教史略』,『法鼓全集』第二輯第五冊,臺北,法鼓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2005
- 何勁松,『韓國佛教史』上卷,北京,宗教文化出版社,1997
- 慧超,張毅 箋釋,『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北京,中華書局,2006
- 孫光圻,『中國古代航海史』,北京,海洋出版社,2005
- 張曼濤 編,『日韓佛教研究』,臺北,大乘文化出版社,民國六十七年(1978)
- 張國剛,『佛學與隋唐社會』,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2002
- 湯用彤,『隋唐佛教史稿』,北京,中華書局,1982
- 湯用彤,『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北京,昆侖出版社,2006
- 謝澍田,『地藏菩薩九華垂迹』,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4
- 譚其驥,『中國歷史地圖集』第五冊,北京,中國地圖出版社,1982
- 陳景富,『西安與海東』,西安,西安出版社,2005
- 陳景富,『中韓佛教關係一千年』,北京,宗教文化出版社,1999
- 黃心川,『隋唐時期中國與朝鮮佛教的交流—新羅來華佛教僧侶考』,『世界宗教研究』,1989.1.
- 黃心川,『東方佛教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2